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공안집

07-1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07-1

精選公案集 정선공안집 · 譯註역주

Gonggan Collection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7-1

역주 ▣ 김영옥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10년 03월 20일

발행일 2010년 03월 30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4117-01-0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2010000387

© 2010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精選  
공안집  
公案集

07-1

역주... 김영옥 金榮郁

조영미 · 한재상



##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  
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  
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  
(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  
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  
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  
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  
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  
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  
하는 대작불사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불사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 完刊辭 완간사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 완간본(完刊本)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삼보전(三寶前)에 봉정(奉呈)하옵니다.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시며,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가산지관(伽山智冠) 큰스님의 크신 원력(願力)이 한글역 완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역과 함께 영역본도 간행위원분들과 영역, 교정, 편집을 담당하신 분들의 노고에 의해 간행됩니다.

이번에 13책으로 완간하게 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은 삼국시대 이후 한국에서 꽃피운 1700년 불교역사의 정수(精髓)이자, 한국사상의 토대와 대들보입니다. 화쟁국사(和諍國師) 원효(元曉) 스님의 사상,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의 모범을 보이신 화엄(華嚴)의 대가 의상(義湘) 스님, 청렴한 결사운동(結社運動)으로 한국 선불교(禪佛敎)를 중천(重闡)하신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스님, 어려운 국난을 이겨내시고 한국불교 교육과 수행 전통을 정비하신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스님을 축으로 하여, 삼국, 고려,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진 한국불교의 핵심 사상을 이번에 완간한 전통사상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사상총서 불교편에는 화엄(華嚴), 유식(唯識), 정토(淨土), 대승계(大乘戒), 선





불교(禪佛敎), 구도여행기, 삼국유사의 불교문화, 고승의 비문(碑文)이 정선(精選)되어 자세한 학술적인 역주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통사상총서 완간의 의미를 1700년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을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등불로 삼아가는 중요한 노력의 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전해져 무수한 중생의 삶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한반도에서 실현된 결실의 일부가 이 전통사상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통사상총서 속에서 우리는 바로 조계종단 집행부의 원력을 확인하고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소통(疏通)과 화합(和合)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모습을 원효스님, 의상스님, 지눌스님, 휴정스님 등의 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수행종풍(修行宗風)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은 바로 선현(先賢)들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고전(古典)을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역경(譯經) 불사(佛事)에서 비롯됩니다. 번역된 우리말 경전을 교육과 포교에 활용한다면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共同善) 실현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영역(英譯)으로도 13책이 간행됩니다. 세계의 한국 불교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를 맡아 한글역을 대조해가면서 영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불교의 고전이 영어로 단편적으로 소개된 예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한국불교 사상의 정수를 모아서 영역되는 것은 처음이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간의 다자간(多者間) 상호 검증체계를 통한 번역의 엄밀성을 시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영역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분명히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불교교학전통과 수행전통의 진면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포교 네트워크화와 한국전통사찰체험,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불교 국제화의 기초자료이자 사상적, 실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전통사상총서는 한글본 영역본 모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자출판 형태로 공개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보시(法布施)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혜와 자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온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중흥의 기틀을 다져왔고 이제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완간되는 전통사상총서는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번역과 교정 그리고 제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간행위원, 연구원, 영역자, 교정자, 편집자, 제작자 그리고 사무처의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가산 지관 큰스님의 간행 원력에 수희(隨喜)찬탄(讚嘆)합니다.

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공덕(功德)을 제불보살(諸佛菩薩)님과 무량중생(無量衆生)에게 회향(回向)하며 완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월 20일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해봉 자승(海峰 慈乘)





(위쪽)선문염송집, 권16,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판, 선조원년(1568)간 표지  
 (아래쪽)선문염송집, 권16, 순안 법흥사판, 선조원년(1568)간, 1면, 614칙, 본칙(本則)







(위쪽) 선문염송집, 권1, 보성(寶城) 대원사(太原寺)판, 인조14년(1636)간, 2책, 송(頌)

(아래쪽) 선문염송집, 권13, 보성 대원사판, 인조14년(1636)간, 550책, 거(擧)





(위쪽)선문염승설화6(권16에서 권18까지), 안주(安州) 선정암(禪定庵)판, 숙종11년(1685)간, 표지

(아래쪽)선문염승설화, 권16, 안주 선정암판, 숙종11년(1685)간, 615척 설화





(위쪽)선문염송설화1(권1에서 권3까지), 전라도 팔영산 능가사(楞伽寺)판, 숙종33년(1707)간, 표지

(아래쪽)선문염송설화, 전라도 팔영산 능가사판, 숙종33년(1707)간, 각운(覺雲)의 찬(撰)으로 추정, 선문염송집서





##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7권 선문염송설화 [공안집]이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1463칙의 공안 중 100칙을 선별하여 각 칙을 완역하고 역주하였다. 각기 독립된 책인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설화』를 하나로 엮어 구성한 『한국불교전서』 5권에 실린 『선문염송설화』에서 각 칙의 마지막 부분에 〈설화〉를 일괄 붙인 것과는 편제(編制)를 달리하여 본칙과 개개의 송(頌)이나 염(拈) 등에 대한 설화를 해당 부분 바로 뒤에 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4. 교학적인 개념은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될 경우 그 비중을 고려하여 주석의 양과 질을 결정했고, 선(禪)의 맥락에서 가볍게 인용된 경우는 간명하게 처리했다.
5. 한 낱말 또는 구절에 주석을 붙일 경우, 본문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어 있을 때는 바로 주석을 하고,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석에 한자 또는 한자어를 명시하고 주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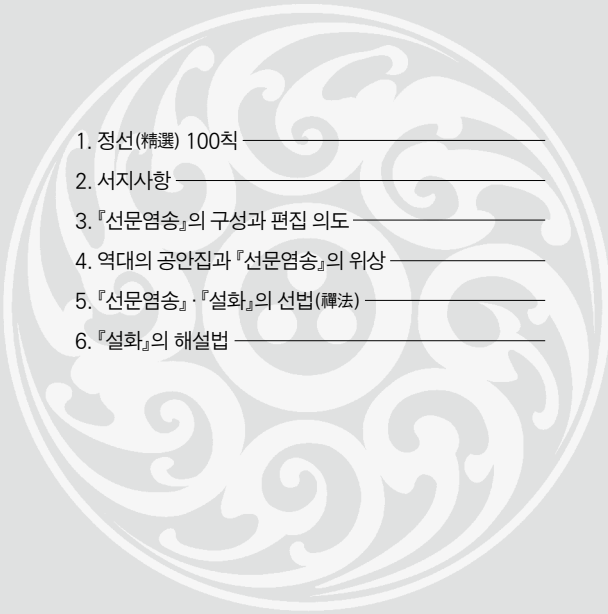
6. 송(頌)은 한 구절씩 단을 바꾸어 배치하였다. 시의 형식을 고려하여 내용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문의 길어도 대차가 없도록 맞추었다.
7. 〈설화〉에서 본문의 구절을 생략하여 인용한 부분은 ‘~’로 표시했다.
8. 이 책에서 저본으로 삼은 판본은 해제에 밝혀 두었다.
9. 원문 교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감 표시 없이 올바른 글자를 취하여 썼다.
10. 한글 번역문과 한문의 문장 구성상의 특성에 따라 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11.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은 高로,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는 韓으로,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大로, 만속장경(卍續藏經)은 卍으로 표시하였다.
12. 산스크리트어는 ㄱ, 팔리어는 ㄴ, 티베트어는 ㄷ로 표시하였다.







## 解題 해제

- 
1. 정선(精選) 100칙 \_\_\_\_\_
  2. 서지사항 \_\_\_\_\_
  3. 『선문염송』의 구성과 편집 의도 \_\_\_\_\_
  4. 역대의 공안집과 『선문염송』의 위상 \_\_\_\_\_
  5. 『선문염송』·『설화』의 선법(禪法) \_\_\_\_\_
  6. 『설화』의 해설법 \_\_\_\_\_







## 1. 정선(精選) 100칙

『선문염송설화』 1463칙의 공안 중 100칙을 선별하여 각 칙을 완역하고 주석을 달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법계의 순서에 따라 수록된 원본의 형식을 따라 될 수 있는 한, 특정 시대나 일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분하여 고르게 가려내려고 했다. 『한국불교전서』 5권 전체에 해당하는 『선문염송설화』는 『선문염송』과 『선문염송설화』(이하에서는 『설화』라 약칭함)를 하나로 엮어 구성한 합본이다. 원문의 편제는 각 칙의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설화』를 일괄 붙이는 형식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제를 바꾸어 『선문염송』의 본칙과 개개의 송(頌)이나 염(拈) 등에 대한 『설화』의 해설을 그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뒤에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 2. 서지사항

『선문염송』 초간본의 연대를 1226년으로 잡는 것은 혜심이 서문을 쓴 해에 따른다. 이 서문이 붙은 초조본(初雕本)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한국불교전서』 권5에서 저본으로 한 판본은 고려대장경 재조본(再雕本)<sup>1)</sup>가

---

1) 『고려사』 권24에 따르면, 16년간(1236~1251)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장경판의 간기에 따르면, 1237년에 2종 115권을 판각한 것을 시작으로 1248년(고종35)에 『대장목록(大藏目錄)』 1종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12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총합 1469종 6568권이라 한다.

운데 보유판(補遺版)<sup>2)</sup>이다. 그 정확한 판각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245년 전후로 추정한다. 고려대장경판 막(邈)부터 수(畝)까지의 함에 해당한다.

『한국불교전서』의 대교본은 1636년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 개간본(동국대학교 소장)이다. 이보다 앞서 1568년의 범홍산(法弘山) 범홍사(法興寺) 간행본, 1634년의 수청산(水淸山) 용복사(龍復寺) 간행본 등이 있다. 그 뒤로 1682년 대원사 간행본, 1707년 팔영산(八影山) 능가사(楞伽寺) 간행본 등이 있다.

현재 전하는 『설화』의 최초 판각 시기는 알 수 없다. 『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은 1684년 묘향산(妙香山) 선정암(禪定庵)에서 판각하고 그 다음 해 안주(安州) 고묘불당(古廟佛堂)에서 간행한 판본(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이다. 대교본은 보련각(寶蓮閣) 영인본, 1707년(강희46) 팔영산 능가사 개간본(동국대학교 소장),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간행연대 미상의 『회편선문염송집설화(會編禪門拈頌集說話)』 등이며, 이 두 가지 판본은 모두 권1~권3까지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하는 『설화』는 각운(覺雲)이 혜심에게 받은 총 30권의 1125칙뿐만 아니라 그 뒤 추가된 347칙들을 포함하여 1463칙 전체에 모두 ‘설화’가 붙어 있다. 정안(鄭晏)이 쓴 「증보염송발(增補拈頌跋)」에 따르면 청진국사(淸眞國師)가 본래 없던 공안을 나중에 첨가한 것이라 한다. 각운이 지은 애초의 『설화』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후대에 누가 해설을 붙였는지는 현재의 기록으로는 불확실하다.

---

2) 고려대장경판 가운데 『대장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총 15부(部) 231권을 말한다.

### 3. 『선문염송』의 구성과 편집 의도

편집자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의 속명은 최식(崔寔)이고, 자는 영을(永乙), 자호는 무의자(無衣子)이다. 진각국사는 고종이 내린 시호(諡號)이고 혜심은 법명이다.

『선문염송』과 그에 대한 해설인 『설화』는 엄연히 다른 두 가지 문헌이다. 『선문염송』은 혜심이 총 30권에 1천 척 이상의 공안을 집대성한 방대한 분량의 공안집으로서 본칙에 대한 송·염·거·상당·보설·소참 등의 형식으로 분류되는 각종의 풀이를 수록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대표하는 염·송으로써 제목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 『설화』는 이렇게 구성된 『선문염송』의 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이다.

이 문헌은 법맥이 전해진 연대기 순으로 공안을 배열하고 있다. 우선 석가모니불을 시작으로 하여 인도 선종의 초대 조사로 삼는 가섭(迦葉)을 비롯하여 달마대사까지 총 28대의 문답과 주요 인연들을 공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처님의 문답이나 인연담을 소재로 한 공안은 반드시 경전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경전에 없는 내용도 있다. 또한, 석가모니불에 뒤이어 『법화경』·『화엄경』·『원각경』 등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본칙으로 삼은 것도 있다.

앞부분의 이러한 구성에 이어 달마 이후 전개된 중국 선종의 주요 이야기와 문답들이 망라되어 하나의 공안집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조사선의 진수라 할 만한 당송대의 걸출한 선사들이 남긴 기연이 주요 소재가 된다. 여기에는 『경덕전등록』과 같은 전등사서와 제가의 어록 등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문헌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본칙

을 시의 형식으로 압축해 낸 선사들의 송(頌)과 선대 조사의 위세를 뛰어넘는 사자후를 토하여 본칙을 하나의 강렬한 화두로 재생산한 염(拈) 등을 비롯한 갖가지 범문들이다. 바로 이 점에 본칙을 보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본칙의 이야기나 문답은 이를 통하여 하나의 관문으로 처리되면서 공안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공안의 개별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송과 염이 제시되면서 각각의 공안을 바라보는 가능성이 폭넓게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종사에서 조사 가풍의 어록을 최초로 남긴 혜심은 『선문염송』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공안집을 그 제자와 함께 편집했다. 비록 저술이나 어록은 아니지만, 각 칙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그에 대한 염·송·상당 등을 가려낸 편집자로서의 안목은 이 방면에 정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엮어가는 과정 자체에 그 자신의 사상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설화』에 수록되어 있는 ‘무의자(無衣子)의 송’은 혜심 자신이 지은 것인데, 『진각국사어록보유(眞覺國師語錄補遺)』(한불전6)에 보이는 24개의 공안에 붙인 송은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설화』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선문염송』을 각운에게 전할 당시에 혜심이 자신의 송을 함께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운이 이를 잘 보존해 두었다가 해당하는 부분에 수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편집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공안을 평석하는 선사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설화』의 주요 관점은 당대 이 분야의 대가였던 혜심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리가 없다.

『설화』의 저자에 대한 논란은 그가 혜심의 동시대 제자 각운이라는 설과 고려 말의 구곡각운(龜谷覺雲)이라는 주장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후자는 각운이라는 동일한 명칭에서 파생된 착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sup>3)</sup> 혜심 특유의 개념에서 빌려온 『설화』의 관점도 그 저자가 혜심의 직제자였을 가능성을 높인다.

진각국사 혜심이 『선문염송』을 편집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우리나라 선종사에서 오로지 조사선과 간화선을 종지로 삼고 전면에 부각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혜심에 앞서 동시대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은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지어 간화선 수행법을 교학과 비교하며 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혜심은 교학의 내용을 최대한 건어치우고 오로지 조사선과 간화선의 사유와 수행 방법에 따를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기반으로 보면 조사의 안목에서 공안을 바라보는 묘책을 제시하고 화두 참구의 실제적 본보기가 되는 교본을 꾸준히 모색하다가 이 책을 통하여 그 소원을 실현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신의 선사상을 재정비한 이 성과가 후대에 같은 길을 가는 학인들의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이 주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이능화(李能和)이다. 『朝鮮佛教通史』下編「覺雲書成珠落筆端」(pp.528~530)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염송설화에 인용된 내용은 대부분 무의자의 말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곧 각운이 진각의 제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拈頌說話中所引者, 多無衣子言. 非親承教誨者, 莫能如是. 則覺雲之爲眞覺弟子也, 明矣.) 여기서 이능화는 설화의 저자로서 각운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설화』의 해설 또한 진각혜심의 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 궁구해 볼 문제이다. 『설화』에 진각의 설이 발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로부터 배운 제자라는 점만으로도 그러한 추정은 가능하지만 각운 자신의 관점이 전혀 없었다고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 4. 역대의 공안집과 『선문염송』의 위상

혜심이 그 「서문」에서 밝혔듯이 1226년에 제자 진훈(眞訓) 등과 함께 수선사(修禪社)에서 1125칙과 그에 관한 여러 조사들의 염(拈)·송(頌)·상당(上堂)·보설(普說)·소참(小參) 등을 모아 30권을 완성함으로써 전등록과 짝을 맺어주었다.

1133년 송대(宋代) 혜엄종영(慧嚴宗永)이 편찬한 『종문통요(宗門統要)』 10권과 원대(元代)의 고림청무(古林淸茂)가 여기에 12권을 부가하여 증보 편찬한 『종문통요속집(宗門統要續集)』 22권이 『선문염송』과 같은 종류의 공안집에 속한다.

송나라 때인 1257년에는 조경(祖慶)이 『염팔방주옥집(拈八方珠玉集)』 3권을 중편(重編)하여 간행하였다. 이는 태평혜교(太平慧翹)·원오극근(圓悟克勤)·방암종현(方菴宗顯)·석계심월(石溪心月) 등 오조법연(五祖法演) 문하의 네 선사가 319칙의 공안에 대하여 각자 핵심을 집어내어 평가한 책이다. 본래 이것은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선문팔방주옥집(禪門八方珠玉集)』에 수록된 공안에 염(拈)의 형식으로 평을 붙인 공안집이지만, 『선문팔방주옥집』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 밖에 송대(宋代)에는 공안에 대하여 송을 붙인 6대 송고집이 있다. 분양선소(汾陽善昭)가 진종(眞宗)이 군림하던 시기(998~1022)에 지은 분양송고(汾陽頌古) 100칙, 설두중현(雪竇重顯)이 천희연간(1017~1021)에 지은 설두송고(雪竇頌古) 100칙, 단하자순(丹霞子淳)이 송녕연간(1102~1106)에 지은 단하송고(丹霞頌古) 100칙, 굉지정각(宏智正覺)이 소흥연간(1131~1162)에 지은 굉지송고(宏智頌古) 100칙,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소정연간(1228~1233)에 지은 무문송고(無門頌古) 64칙, 단하자순이 함순연간(1265~1274)에 지은

허당송고(虛堂頌古) 100칙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설두송고·평지송고·무문송고·단하송고 등이 각각 『벽암록(碧巖錄)』·『종용록(從容錄)』·『무문관(無門關)』·『허당집(虛堂集)』에 수록되고 「착어」·「평창」 등이 덧붙여져 공안집의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밖에 설암종근(雪菴從瑾 1117~1200)이 38칙의 공안에 대하여 송을 붙인 『설암종근선사송고(雪菴從瑾禪師頌古)』 등도 있다. 송대의 투자의청(投子義青)이 100칙의 공안을 가려내어 송을 붙이고, 뒤에 단하자순(丹霞子淳)이 「시중(示衆)」과 「착어」를 부가했으며, 원대(元代)의 임천종륜(林泉從倫)이 「평창」을 붙인 『공곡집(空谷集)』 6권도 대표적인 공안집이다.

『벽암록』·『종용록』·『공곡집』·『허당집』 등은 본칙과 각 칙의 서론에 해당하는 「수시」나 「시중」, 본칙과 송의 각 구절에 대한 「착어」, 본칙에 대한 해설로서의 「평창」, 그리고 송에 대한 「평창」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공통된다. 명대(明代)의 천기본서(天奇本瑞)가 지은 『설두송고직주(雪竇頌古直註)』 2권은 설두의 송고 100칙에 대해 구절마다 착어를 붙인 형식이다.

이와 같은 송고 중심의 공안집은 대부분 100칙을 기준으로 엮여졌고 한 선사의 송을 근간으로 확충된 것이지만, 『선문염송』은 하나의 공안에 대한 여러 선사들의 송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평을 모아 놓은 종합적인 공안집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1179년에 간행되고 1392년에 중간된 『송고연주통집(頌古聯珠通集)』 40권이 『선문염송』의 선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중간되는 과정에서 『선문염송』이 역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는 모두 818칙의 공안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 1664년에 간행된 『종문염고회집(宗門拈古彙集)』 45권은 앞의 공안집을 망라한 다음, 이에 추가하여 총 1700칙의 공안을 수록하였으며, 1714년에 간행된 『종감법림(宗鑑法林)』은 총 2720칙의 공안을 수록하였다.

『선문염송』은 송고집(頌古集) 유를 제외하고 종합적인 공안집의 역사로 볼 때는 비교적 초기에 속한다. 또한 이전에 다른 공안집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이 책만이 갖는 기연어구와 염송들이 대단히 많은 점만으로도 자료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평가된다.

## 5. 『선문염송』·『설화』의 선법(禪法)

### 5-1. 화두의 기능

방대한 분량으로 수록된 『선문염송』의 자료들은 그 하나하나가 간화선 수행의 지침이며, 선어(禪語)를 해독하는 근본적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그대로의 공안이나 염·송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선을 오래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송에 대해서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포착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안의 키워드인 화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반적인 맥락을 집어내어 이 책의 저변에 깔려 있는 선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어려운 관문이라고 하여 일정한 분별의 도구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공부가 배척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화두의 진실을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화두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서면 여기에 제시된 갖가지 화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실한 뜻에 접근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문답과 이야기로 꾸며진 공안의 온갖 말들을 소재로 의식의 속박을 풀고 장애를 부수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장인의 역할이 공안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과제다. 가공된 그 무기는 또 하나의 말, 바로 화두이다. 이렇게 화두를 만들어 몸에 꿰어 차는 본보기를 보여준 인물들이 조사라는 일단의 무리이고, 염과 송 따위는 그들이 갖고 다듬어낸 무기의 전형이다.

화두는 모든 말의 형식을 부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날이 물든 말의 권위와 횡포를 경각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말이다. 부처를 만나건 조사를 만나건 휘둘러서 물리치는 임제의 할(喝)과 덕산의 방(棒)<sup>4)</sup>은 어떤 뜻과 도리로도 파악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화두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화두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임제와 덕산도 틀림없이 새로운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 자체도 그때마다 하나의 화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내놓은 방과 할의 은덕은 도리어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뒤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공안에 제시된 화두는 또 다른 화두에 의해 무너진다. 그것은 화두가 화두로서 가지는 본질일 뿐 허약한 속성에 기인하지 않는다. 송이나 염 등의 모든 말은 이처럼 본칙의 공안에 철퇴를 가하는 하나의 무기이지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친절한 안내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무기도 또 다른 독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러도록 기꺼이 허용한다. 하나의 화두가 무기라는 의미는 그것이 다른 무기를 위한 희생의 재물이 되는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sup>5)</sup>

---

4) 본서 672則 주석1) 참조.

## 5-2. 화두의 평등성

공안의 소재로 쓰이는 이상 부처라고 하여 지혜롭고 귀한 신분으로 간주되지 않고, 범부라고 하여 어리석고 천한 지위로 못 박지 못한다. 천하라면 둘 모두 천하고 귀하다면 둘 모두 귀하다. 이것이 화두상의 철저한 평등이다.

안거 기간 동안 방탕하게 보낸 문수와 그것을 질책하려는 가섭 사이에 우열을 짓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sup>6)</sup>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공안에서 문수는 파계한 그대로 하나의 불가결한 역할을 다하고, 가섭은 문수를 내쫓으려 하는 배역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경계를 전개하는 듯이 그려지는 문수나 엄격한 법도를 고수하며 조금 답답하게 묘사되는 가섭은 공안을 완결하는 두 개의 축이다. 그들 중 누구도 옳지 않고 누구도 그릇되지 않다.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설정하였지만, 옳다면 모두 옳고 그릇되었다면 모두 그릇되어 이 둘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의 분별을 단절시키는 것이 간화선사들의 일관된 평이다. 여기에는 가섭이 선종의 초조로서 부처님의 법을 직접 전수받았다거나 하는 따위의 기억들은 불필요하다. 그 역시 공안의 소도구에 불과하다.

경전의 내용도 공안으로 취할 수 있는 까닭은 간화선의 본질상 모든 이 야기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화두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학에서 푸는 경전의 의미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전을 인용하더라도 본래의 구절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실제 내

---

5) 본서 2則 금산요원(金山了元)의 상당에 나오는 매미와 사마귀와 참새 그리고 사냥꾼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비유가 이러한 화두의 본질을 나타낸다.

6) 본서 33則 참조.

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문염송집서(禪門拈頌集序)」에 대한 ‘설화’에서 긍정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의 구절을 부정으로 바꾸는 방식을 조사선의 특징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분별로 모색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화두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sup>7)</sup>라고 한 것이다. 간화선의 관점에서 보면 조사의 어록이 되었건 경전이 되었건 모든 언설은 분별의 틀로 뚫고 나갈 수 없도록 설정된 화두이기 때문이다.

그 화두는 동시에 경전의 말씀이나 시경잡배의 말이나 무수히 뒤집고 재조정하여 예리한 칼날이 될 때까지 다듬고 변형시키며, 본래의 형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콩을 팥이라 말하면 물론 뒤집어엮겠지만, 콩을 콩이라 바르게 말하는 입도 틀어막는 수단으로 쓰여야 공평한 것이다.

### 5-3. 반전의 활구(活句)

조사의 말이나 경전의 교설이나 바르게 설정되고 그에 준하는 참구가 수반될 때 활구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별만 덧붙이는 사구(死句)가 될 뿐이다.

조사선의 선사들은 일정한 공안에서 불조(佛祖)가 제시한 말을 모범적 법도로 삼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이 그 말의 본질을 바르게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염송의 작자들은 앞에서 제시된 화두를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비판적인 평석을 내어놓음으로써 활구로 이끌어간다. 뒤이

---

7) 각운의 「禪門拈頌集序」 본문과 주석7) 참조.

어 다른 염송을 통하여 또 다른 비판의 안목을 드러내어 반전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상용 수법이다. 반산보적(盤山寶積)이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 경계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운문문언(雲門文偃)이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의 세계로 반응하는 방식<sup>8)</sup>이 그러한 반전의 일례이다.

하나의 공간에 대하여 확고한 정설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염송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굳혀버리는 듯이 가장하여 함정에 빠뜨렸다가 경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하나의 화두에 애절하고 친절한 마음을 담아 헛된 관념을 제거해 주는 일이 조사들의 다반사이다. 하지만 한마디를 던져도 안착할 수 있는 보금 자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부여잡을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조사의 관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공간이 되었건 염송이 되었건 모조리 사구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과 인식의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도록 지시하는 활구에는 완료된 개념이라곤 전혀 없으며 늘 새롭게 첫 걸음을 떼도록 숨통을 열어 준다.<sup>9)</sup> 스스로 바른 관문을 세운 선사는 그것이 화두인 이상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도 허물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과 속뜻을 알아주는 진실한 벗이라 할 만하다. 공간의 이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만고의 본보기나 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말이라는 권위에 눌러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그로 인하여 스스로 그 말에 묶일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화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본칙의 어떤 공간도 그 자체로는 활구가 될 수 없다. 요소가 되는 낱날

---

8) 본서 250則 주석12) 참조.

9) 본서 181則 주석57), 1069則 주석12) 참조.

의 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판적 평석에 의하여 하나의 공안은 활구로 등장한다. 이러한 숨씨를 가진 노련한 선사들에게 단련될 때 세상의 하찮은 인연도 모두 활구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들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십이분교(十二分教)의 모든 구절과 조사의 언행도 활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공안과 마주하는 사람은 부정의 형식에서 긍정의 포용을 발휘해야 하고 긍정의 형식에서 부정의 칼날을 휘둘러 줄 알아야 한다.<sup>10)</sup> 공안에 대한 간화선사의 어떤 평석도 죽이기만 하려는 촌촌한 그물을 치지 않으며 반대로 듚성듬성한 그물을 던져 살 길을 넓혀 주려 하지도 않는다.

주어진 화두에서 하나의 구절이나 말에 매이게 되면 무엇이나 사구가 된다. 주고받는 문답이나 범문의 언어들만은 분별로 접근할 수 없는 몰자미(沒滋味)의 활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 특별한 상징이나 의미로 분석하는 순간 그 구절은 사구로 전락한다. 이들 화두가 공부의 핵심인 관문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본칙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것에 염송을 붙여 새로운 관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그 관문의 빗장을 풀고, 풀었다가 다시 걸어 잠그는 방식을 법도로 삼아 오로지 본분에만 철저하고 그 밖의 모든 권위와 외양을 물리치는 자유인들이다. 아무리 위대한 선대의 조사일지라도 본분을 추구하는 이들의 의식을 누를 수는 없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딱딱하게 굳은 경직된 관념을 무너뜨리고 대대로 이어져 고이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이념조차도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쳐버린다.

부처가 되었건 조사가 되었건, 불성과 진여가 되었건 화두로 전환되어

---

10) 전적인 긍정과 전적인 부정에 모두 안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서 2則 주석123) 참조.

재생하지 않는 이상 걸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알면 서도 어떻게든 처리할 방도가 없는 공인된 고질병과 같다. 이것들이 화두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면 고하와 귀천의 굴레를 모두 벗고 어떤 의미 규정에도 묶이지 않는 활구로 변하는 것이다.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배우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이 활구의 대표적인 틀이다. 추상과 같이 제자에게 던지는 스승의 말만이 관문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잘못을 지적당하는 제자의 언행에도 대부분 비수가 숨어 있다. 이들은 서로 하나의 관문을 만드는 공조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리 우열을 갈라놓고 공안의 의미를 포착하려 들면 안 된다. 공안상의 한 인물이 그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유의 트릭이야말로 식상하지만 속기 쉬운 관문의 빗장이다. 유인하는 함정의 언행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수용하는 순간 그것에 빠지고 만다. 우리의 의식에 쌓아둔 이야기나 관념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대로 이해하려 들면 결코 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공안의 말들은 우리의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이를 간파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안의 주인공들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을 또 하나의 함정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자신을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착각으로 이에 대적하는 전략을 펼친다.

이런 이유로 간화선의 친절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유분별하는 도구의 효력을 꺾어놓고 마주하도록 유도한다. 몰자미한 화두 앞에서 모든 의미의 다발들은 유효한 도구라 할 수 없고 공연히 몸만 힘들게 하는 쓸모없는 짐이 된다.

## 6. 『설화』의 해설법

우주옹(宇宙翁)이 쓴 『고염화발(古拈話跋)』에 따르면, 진각국사가 갖가지 어록과 전등록에서 집성한 『선문염송』 30권을 각운에게 전했고, 각운은 그 명을 받들어 수선사(修禪社)에서 『설화』를 썼다고 한다. 저자 각운은 혜심(海心)의 제자로서 이 『설화』를 지었다는 사실 이외에 알려진 행적은 별로 없다.

『설화』의 주석이 모든 구절마다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친절하고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전의 맥락이나 일부 고사의 경우는 상세한 서술이 많다. 그러나 때로는 인용구가 전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대의에서 어긋나는 곳도 적지 않고, 교학적 내용에 치중하여 문답과 송의 압축된 간결미가 오히려 흐려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점에 따라서는 『설화』의 해설이 『선문염송』의 본의를 깎아먹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천착하여 공안과 송 등이 지니는 본래의 특징과 대치된다는 주장과 통한다.

후대의 서산휴정(西山休靜)이 『설화』 1칙의 ‘설화’를 인용하여 제시하고는 “시간에도 걸림이 없고 공간에도 걸림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감이 없으니, 말후구 또한 최초구이며 최초구 또한 말후구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요약하고 나서 “그러나 우리 선문에서는 본래 이와 같은 헤아림은 없다. 이렇게 헤아리는 분별에 대하여 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염려한다”<sup>11)</sup>라고 말했던 것도 일정한 분별의 틀을 만들어 공안을 이해하는 방식에 가한 비판이다.

---

11) 『精選 휴정』 禪敎釋 「선·교의 차이」 참조.

『설화』와 같은 공안의 해설 방식은 『벽암록』이나 『종용록』 등의 공안집에도 보인다. 이들 책에서 보이는 본칙이나 송에 대한 「평창」이 그에 해당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 『벽암록』을 태워 없앤 의도는 당시 학인들 중 『벽암록』의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 분별만 늘리고 실제적인 수행을 도외시하는 폐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설화』에 대한 잠재적 비판의 가능성과 늘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설화』에서 송에 대한 주석으로 적지 않게 차용하고 있는 『선문제조사 계송(禪門諸祖師偈頌)』 4권은 송대(宋代)의 자승(子昇)이 지은 책으로 이 또한 계송의 각 구절에 착어를 붙이는 형식이다. 『설화』는 이러한 이전 공안집의 형식을 모두 수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칙에 대한 역주 작업을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발췌한 범위 안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본칙이나 송 등에 대한 해설의 일관된 관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이 때문에 『설화』 전체의 집필을 각운 한 사람이 주도했더라도 일부분에 다른 필자가 참여했으리라는 추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들이 비록 혜심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혜심의 주요 관심사를 적통으로 이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의혹이 남아 있음에도 각운이 혜심 선법의 핵심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선사상에 따라 『설화』라는 해설집을 냈을 것은 거의 틀림 없다. 혜심이 각운에게 준 법어에서 그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혜심이 “이것을 알아차리면 돌절구에서 꽃이 핀다는 뜻과 부처님 얼굴에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을 알 것이다. 이미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회주(懷州)의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益州)의 딸이 배가 불렀다는 뜻을 알 것이다”<sup>12)</sup>라는 화두를 주는 등 각운을 이끄는 법문

12) 『眞覺語錄』 「示覺雲上人」 韓6 p.29b2. 若會得者个, 便會得確菴生花, 佛面百醜.



의 대부분이 조사선의 기반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에서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있다.

또한 혜심의 「선문염송집서」에 대한 ‘설화’에서 각운은 조사선의 선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헌을 해설하는 근본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인다.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래선이란 산은 산 그대로 좋고 물은 물 그대로 좋으니 법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로 진실하다는 견해이고, 조사선은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가령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운운한 말은 여래선의 입장을 나타내고, 법안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전과 다르게 한 말은 조사선의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있는 것을 여래선이라 하고,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조금도 없는 것을 조사선이라 한다.”<sup>13)</sup>

이러한 말을 살펴보면 혜심의 직제자인 각운이 스승과 사상적으로 연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문염송』의 편집자와 『설화』의 저자는 이처럼 사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혜심의 영향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있다. 74칙의 「설화」에서 ‘검소와 사치’라는 개념을 해설의 틀로 사용했는데, 이는 혜심에게만 보이는 독특한 용어이며, 여타의 선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sup>14)</sup> 즉(卽)과 리(離)를 대칭시켜 문답을 관문으로 조정하는 방식<sup>15)</sup>도 간화선에서 즐겨 쓰는 논리로

---

既會得者个，便會得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

13) 각운의 「禪門拈頌集序」와 주석1) 참조.

14) 본서 74則 주석12) 참조.

15) 본서 108則 본칙 「설화」 참조.

서 혜심과 각운에게는 익숙하다. 『설화』에 자주 보이는 직득무한(直得無限)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각운 특유의 용어이다. 그 자신이 공안을 해설하는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러한 면모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설화』가 『선문염송』을 해설하는 입장은 혜심으로 대표되는 선사상과 동일한 노선에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까지 조사선의 사상적 기반에서 화두 참구를 수행하며 쌓아온 선가의 이론과 실천이 총괄적으로 반영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목차

• 간행사	0004
• 완간사	0008
• 화보	0012
• 일러두기	0016
• 해제	0019

## 【禪門拈頌說話 신문염송설화】

신문염송집서禪門拈頌集序	0045
1칙 세존도솔世尊兜率	0055
2칙 세존주행世尊周行	0083
5칙 세존염화世尊拈花	0135
33칙 세존자자世尊自恣	0175
44칙 열반도독涅槃塗毒	0201
65칙 문수채약文殊採藥	0209
74칙 비목집수毗目執手	0229
98칙 달마성제達磨聖諦	0241
108칙 사조해탈四祖解脫	0275
110칙 육조풍번六祖風幡	0283
118칙 도명본래道明本來	0331
161칙 마조일구馬祖一口	0337



165칙 마조원상馬祖圓相	0357
177칙 백장야압百丈野鴨	0365
181칙 백장재참百丈再參	0375
184칙 백장야호百丈野狐	0415
204칙 남전매신南泉賣身	0465
207칙 남전참묘南泉斬猫	0481
250칙 반산심월盤山心月	0509
261칙 귀종기권歸宗起拳	0527
284칙 분주망상汾州妄想	0533
294칙 부배잉어浮盃剩語	0541
312칙 방온시방龐蘊十方	0553
313칙 거사세채居士洗菜	0565
321칙 단하소불丹霞燒佛	0577
324칙 약산삼승藥山三乘	0597
351칙 천황쾌활天皇快活	0619
359칙 위산무심滙山無心	0625
399칙 환중식병寰中識病	0633
411칙 조주깍다趙州喫茶	0643
417칙 조주구자趙州狗子	0675
429칙 조주세발趙州洗鉢	0703





## 정선 공안집Ⅱ 목차

471칙 조주이룡趙州二龍	·····0741
488칙 장사백척長沙百尺	·····0745
494칙 장사에처長沙礙處	·····0761
507칙 감지심자甘贊心字	·····0767
508칙 비마차각秘魔叔却	·····0773
533칙 덕성천척德誠千尺	·····0787
553칙 말산남녀末山男女	·····0797
559칙 석상고증石霜教中	·····0811
598칙 향엄거년香嚴去年	·····0817
600칙 향엄여인香嚴如人	·····0835
607칙 임제불법臨濟佛法	·····0859
633칙 임제편할臨濟便喝	·····0877
639칙 목주담판睦州擔板	·····0887
655칙 목주대사睦州大事	·····0899
672칙 덕산편방德山便棒	·····0905
677칙 덕산아야德山阿ㄸ	·····0915
685칙 동산삼신洞山三身	·····0925
688칙 동산체득洞山體得	·····0935
704칙 동산구화洞山救火	·····0945
707칙 동산불병洞山不病	·····0951
726칙 투자대사投子大死	·····0959
776칙 복분작무覆盆作舞	·····0973
780칙 설봉종승雪峰宗乘	·····0979
782칙 설봉해탈雪峯解脫	·····0989
792칙 설봉복선雪峯覆船	·····0999
802칙 설봉불일雪峯佛日	·····1007
857칙 운거우중雲居雨從	·····1017
859칙 운거승가雲居僧家	·····1027
864칙 운거지고雲居持禱	·····1039
883칙 조산변이曹山變異	·····1047
890칙 조산천주曹山泉州	·····1059
892칙 조산토각曹山兎角	·····1067
911칙 백수성전白水聲前	·····1071
926칙 남탑백설南塔百舌	·····1087





931칙 대광달마大光達磨	1093
949칙 낙포귀향洛浦歸鄉	1099
988칙 현사주인玄沙主人	1107
1000칙 현사친전玄沙親傳	1119
1034칙 운문동산雲門東山	1125
1069칙 운문일언雲門一言	1135
1074칙 운문답파雲門踏破	1143
1076칙 운문묘희雲門妙喜	1149
1078칙 운문시궐雲門犀屨	1155
1109칙 장경묘봉長慶妙峯	1165
1122칙 경청줄탁鏡淸曄啄	1175
1125칙 경청종지鏡淸鐘子	1183
1173칙 도비금계道丕金雞	1189
1175칙 동안향거同安向去	1197
1176칙 동안의경同安依經	1209
1202칙 나산석우羅山石牛	1215
1221칙 파릉계한巴陵鷄寒	1223
1222칙 파릉낙정巴陵落井	1233
1272칙 명초풍두明招風頭	1241
1283칙 지문적각智門赤脚	1249
1294칙 법안지렴法眼指廉	1259
1299칙 법안병정法眼丙丁	1267
1314칙 홍진명지洪進明知	1279
1331칙 수산죽비首山竹篋	1285
1355칙 설두제인雪竇諸人	1295
1365칙 도상삼결道常三訣	1301
1368칙 북선세진北禪歲盡	1309
1378칙 혜각절증慧覺浙中	1321
1379칙 낭야청정瑯琊淸淨	1333
1412칙 백운타인白雲他人	1343
1415칙 오조오역五祖五逆	1349
1418칙 오조절각五祖切脚	1355
1429칙 대사공수大士空手	1361
1463칙 파자소암婆子燒菴	1377





◀ 禪門拈頌說話 선문염송설화 ▶







## 선문염송집서 禪門拈頌集序

생각해 보면, 세존(世尊)으로부터 가섭(迦葉)에게 전해진 이래 대대로 전승되어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에 붙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sup>1)</sup> 스승이 제자에게 친밀하게 부촉하는 것<sup>2)</sup>을 바른 전수(正傳)로 여겼다. 그렇게 바른 전수와 친밀한 부촉에 말과 이치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나 말과 이치로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가리키거나 펼쳐 보이는 뜻이 있더라도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써 자취<sup>3)</sup>를 기록하고 책에 수록한 끝에

- 1) 등불은 깨달음의 빛 또는 본분의 소식을 나타낸다. 이 등불을 지니고 있다가 그것을 이어받기에 가장 적합한 제자에게만 전하여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전등(傳燈) 또는 전법(傳法)이라 한다. 이것이 선종에서 부처님 이래의 법이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통이 되었다.
- 2) 밀부(密付). 간접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親密] 전수하는 선종의 전통을 말한다. 밀전(密傳)과 같은 말이다. 부촉(付屬)이라는 말에서 ‘부’는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는 뜻이고, ‘촉’은 간절히 부탁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이나 종사가 종지를 널리 전하여 제자들에게 맡기고 널리 유행하도록 당부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옛날 부처님께서 대법안장을 친밀하게 가섭에게 전한 이래 대대로 전하고 또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니 마땅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景德傳燈錄』 권1 「提多迦傳」 大51 p.208a8. 昔如來，以大法眼藏，密付迦葉，展轉相授，而至於我。我今付汝，當護念之.)
- 3) 적(迹). 하나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는 교설의 다양한 자취[教迹]를 말한다. 근본

오늘날에까지 전해졌으니, 그 거친 자취는 진실로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지류에서 더듬어 근원에 이르거나 가지에 근거하여 뿌리를 알려는 시도는 무방하다. 근원과 뿌리를 터득한 자는 비록 무수히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도 적중하지 못할 때가 없겠지만,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자는 말을 단절하고 침묵을 지키더라도 미혹에 떨어져 있지 않을 때가 없을 것이다.<sup>4)</sup>

그러므로 여러 선문의 존속<sup>5)</sup>들이 문자를 외면하지 않고<sup>6)</sup> 자비(慈悲)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징(徵)<sup>7)</sup>·염(拈)<sup>8)</sup>·대(代)<sup>9)</sup>·별(別)<sup>10)</sup>·송(頌)·

---

이치를 나타내는 본(本)과 대칭되는 말이다. “본이란 이치의 근본 곧 실상인 하나의 궁극적인 도이다. 적이란 모든 법의 실상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갖가지 교설들은 모두 적이라 한다. 또한 이(理)와 사(事)를 모두 본이라 하고, 이(理)에 대하여 설하고 사(事)에 대하여 설하는 그 모든 것이 교적(敎迹)이다.”(『法華玄義』 권7 大33 p.764b11. 本者, 理本, 卽是實相, 一究竟道; 迹者, 除諸法實相, 其餘種種, 皆名爲迹. 又理之與事, 皆名爲本; 說理說事, 皆名敎迹也.)

- 4) ‘근원과 뿌리를 터득한 자는’ 이하 여기까지는 『鐔津文集』 권11 「武陵集敘」 大52 p.704a23의 문구를 활용했다.
- 5) 尊宿, 수행한 경력이 오래되고 덕이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 노숙(老宿)과 같은 말이다.
- 6) “말을 벗어난 중지를 얻었으므로 강연에서도 오로지 대의만 제기하고 강종(綱宗)을 들었을 뿐 명상(名相)에 몰들지 않았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황홀하게 스스로 체득하여 그들 모두 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고 문자와 상관이 없으며 또한 문자를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이치를 알도록 했다.”(『補續高僧傳』 권2 「本如子琳二公傳」 卍134 p.58b15. 得言外之旨, 故于講演, 惟提大意, 揭綱宗, 不沾泥于名相. 使聞者恍然自得, 皆知道之在己, 不關文字, 而又不外文字也.)
- 7) 일정한 공안에 대하여 그 핵심을 질문하여 따지는 형식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 본서 399則 현각의 징, 598則 운거청석의 징 등이 그 예가 된다. 『景德傳燈錄』 권27 大51 p.434b29 「諸方雜舉徵拈代別語」에도 거(學)·염·대·별 등과 함께 ‘징’의 형식이 보인다.
- 8) 공안의 핵심만 집어내듯이 가려서 제시하는 방식. 송(頌)과 함께 본서의 중심이 되는 형식이다.

가(歌) 등의 형식에 따라 오묘한 중지를 드러냄으로써 후인들에게 가르침을 남긴 것이니, 바른 안목을 열어서 현묘한 기틀<sup>11)</sup>을 갖추고 그물이나 새장과 같은 삼계의 속박에서 모든 중생[四生]<sup>12)</sup>을 끌어내고자 하는<sup>13)</sup> 사람

- 9) 대어(代語)라고도 한다. 선문답에서 주객 어느 편에서도 말이 없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답하는 말. 두 경우가 있다. ①법어를 내린 종사(宗師) 자신이 학인을 대신하여 말해 주는 것: 종사의 법어나 질문에 대하여 대중 중에 진실에 부합하는 말을 하지 못했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 종사가 스스로 대중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별어(別語)와 함께 대어는 운문문언(雲門文偃)이 시초를 연 것으로 간주하며 이 두 형식은 『雲門廣錄』에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다. ②옛사람이 그 당시 대답하지 못한 것을 지금 대신하여 말하는 것: 종사가 학인의 반응을 보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학인들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옛날의 공안을 들고 지금 그 학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 10) 옛사람의 대답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달리하는 말. 다른 선사들이 나눈 문답 중에서 이미 대답한 내용과는 별도로 자신의 견해로 대답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어와 아울러 대별(代別)이라 한다. “조실에서 학인들이 물은 고인의 공안 중에서 뜻이 미진한 것은 학인들이 대신 대답해 달라고 청하였고, 격에 맞지 않은 것은 별도로 말해 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대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汾陽語錄』 卍120 p.130b14. 室中請益, 古人公案, 未盡善者, 請以代之語, 不格者, 請以別之, 故目之爲代別); “제기된 공안 중에서 비록 옛사람이 한 말이 있더라도 자신이 다시 결정적인 한마디를 별도로 던진다면 이것을 별어라 한다. 이는 여러 어록에 나타나며 대어와는 다른 형식이다.”(『禪林象器箋』 권11 禪藏 p.853. 舉古則中, 雖他古人有語, 我復別下一轉語, 謂之別語. 見於諸錄, 與代語不同.)
- 11) 현기(玄機). 사유와 분별로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기틀. 선(禪)의 경계를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기틀을 말한다. “선수행자에게는 현기가 있으니, 현기는 옳다가도 다시 틀리게 된다네. 현기 이전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모두들 구절에서 멀리 떠나야 하리라.”(『景德傳燈錄』 권12 「陳操傳」 大51 p.296b15. 禪者有玄機, 玄機是復非. 欲了機前旨, 咸於句下違.);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현묘한 기틀을 어떤 조짐도 드러나지 않은 경계에 감추고, 그윽한 움직임을 이미 변화하여 드러난 만상에 감춘다.”(『肇論』 大45 p.161a12. 所以至人, 戡玄機于未兆, 藏冥運于卽化.)
- 12) 四生. 중생의 유형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난생(卵生)·태생(胎生)·습생(濕生)·화생(化生) 등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大毘婆沙論』 권120 大27 p.626b2, 『瑜伽師地論』 권2 大30 p.288b12 등 참조.

이라면 이 문자를 버리고 다른 어떤 수단을 부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나라는 조성<sup>14)</sup>께서 삼한<sup>15)</sup>을 통일한 이후 선도(禪道)로써 국운을 이끌었고 지론<sup>16)</sup>으로써 이웃 나라의 전란을 진압해 왔으니,<sup>17)</sup> 종지(宗旨)를 깨닫고 도를 논술할 자료로 이 책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음을 어찌랴! 그래서 선종의 학인들은 목이 말라 물을 갈망하거나 배가 고파 음식을 생각하듯이 이를 소망해 왔다. 나는 그러한 학인 무리의 애타는 청을 받고 태조가 본래 품고 있었던 소망을 잊지 않고 국가에 복을 늘리고 불법을 돕고자 제자 진훈(眞訓) 등을 이끌고 고척 공안을 채록하여 모두 1천 125칙<sup>18)</sup>과 그에 관한 여러 조사들의 염송<sup>19)</sup> 등 말씀의 요긴한 기록을 모아 30권을 완성함으로써 전등<sup>20)</sup>과 짝을 맺어주었다.

- 
- 13) ‘그물이나 새장과 같은’ 이하 여기까지의 구절은 대혜종고(大慧宗果)의 어록에 나온다. 『大慧語錄』 권4 大47 p.825c29.
- 14) 祖聖,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에 대한 극존칭. 성인의 덕을 갖춘 태조라는 뜻, 곧 태조성덕(太祖聖德) 정도의 뜻으로 보인다.
- 15) 三韓, 상고시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을 가리킨다. 한반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 16) 智論, 이어지는 문맥으로 살펴보면 선종(禪宗)의 ‘지혜로운 논의’가 수록된 본서 곧 『禪門拈頌集』을 가리킨다. 또는 ‘선도(禪道)’와 대칭시켜 ‘지혜로운 모든 논의’라는 뜻으로 교학(敎學)을 총괄하여 나타낸 말이다. 다음 주석에서 보듯이 상총(尙聰)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 17) ‘선도(禪道)로써 국운을 이끌었고’라는 구절부터 여기까지는 상총(尙聰)이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회통에 관하여 조선의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인다. 『太祖實錄』 7年 5月 13日條 「興天寺監主尙聰上書」 참조.
- 18)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463칙이다. 이것은 초조본 1125칙에 347칙을 첨가하여 편찬한 재조본이기 때문이다.
- 19) 拈頌, ‘염’은 공안의 핵심을 집어낸 산문 형식의 평가, ‘송’은 그에 대한 계송이다.
- 20) 傳燈, 선종의 역대 전법(傳法)에 관련된 기연(機緣)을 기록한 저술. 법을 전하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대대로 전한다는 뜻이다. 보통 전등록(傳燈錄)이라 하며, 이는 대표적인

바라는 것은 요임금의 바람과 선(禪)의 바람이 영원히 불고, 순임금의 해는 부처님의 해와 함께 항상 밝게 빛나며,<sup>21)</sup> 바다는 잠잠하고 황하는 맑아지며, 시절은 온화하고 풍년이 들며, 만물은 제각각 알맞은 자리를 잡고, 집집마다 무위(無爲)의 도를 순박하게 즐기는 일이다. 보잘것없이 애썼던 마음은 절실하게 이것에 있을 뿐이다. 다만 모든 선가(禪家)의 어록을 남김없이 열람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될 뿐이다. 미진한 부분은 다시 후대의 현명한 이들의 보완을 바란다.

정우<sup>22)</sup> 14년 병술(丙戌) 중동,<sup>23)</sup> 해동 조계산 수선사 무의자(無衣子)의 서(序)

詳夫自世尊迦葉已來，代代相承，燈燈無盡，遞相密付，以爲正傳。其正傳密付之處，非不該言義，言義不足以及。故雖有指陳，不立文字，以心傳心而已。好事者強記其迹，載在方冊，傳之至今，則其麤迹，固不足貴也。然不妨尋流而得源，據末而知本。得乎本源者，雖萬別而言之，未始不中也，不得乎此者，雖絕言而守之，未始不惑也。是以諸方尊宿，不外文字，不悞慈

---

전등록인 『景德傳燈錄』(1004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등록(燈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南北朝)시대부터이며, 정식의 등록이 출현한 것은 선종이 성립된 이후의 일이다. 그 뒤 대대로 이어지면서 송나라 때 극치를 이루었고, 원·명·청 등 각 시대에도 전통을 계승하여 연속적으로 등록이 저술되었다. 『景德傳燈錄』 이외에 『建中靖國續燈錄』(1101년), 『天聖廣燈錄』(1148년), 『聯燈會要』(1183년), 『嘉泰普燈錄』(1204년) 등을 오등(五燈)이라 한다. 오등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寶林傳』과 『祖堂集』 등이 있었다.

21) 유학과 불교가 조화로운 것을 말한다.

22) 貞祐, 1213년(정우1)에서 1216년(정우4) 간에 썼던 금(金)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정우14는 오기이며 '병술'이라는 기록에 따라 1226년으로 본다. 무의자의 세수 49세 때이다.

23) 仲冬, 음력 11월.

悲，或徵或拈，或代或別，或頌或歌，發揚奧旨，以貽後人。則凡欲開正眼，具玄機，羅籠三界，提拔四生者，捨此奚以哉？況本朝自祖聖，會三已後，以禪道延國祚，智論鎮隣兵，而悟宗論道之資，莫斯爲急！故宗門學者，如渴之望飲，如飢之思食。余被學徒力請，念祖聖本懷，庶欲奉福於國家，有裨於佛法，乃率門人真訓等，採集古話，凡一千一百二十五則，并諸師拈頌等語要錄，成三十卷，以配傳燈。所冀，堯風與禪風永扇，舜日共佛日恒明，海晏河清，時和歲稔，物物各得其所，家家純樂無爲。區區之心，切切於此耳。弟恨諸家語錄，未得盡覽，恐有遺脫。所未盡者，更待後賢。

貞祐十四年，丙戌，仲冬，海東曹溪山修禪社，無衣子序。

## 선문염송집서 禪門拈頌集序<sup>1)</sup>

선(禪) — 규봉종밀(圭峯宗密)은 “온전한 음사어는 ‘선나(禪那)’<sup>2)</sup>”라 하고, 한역하면 ‘사유수(思惟修)’<sup>3)</sup> 또는 ‘정려(靜慮)’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정(定)과 혜(慧)의 통칭<sup>4)</sup>이다”<sup>5)</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禪)으로 보자

- 1) 앞의 무의자 「서(序)」에 대한 〈설화〉이다. 필자는 각운(覺雲)으로 추정된다. ‘선문염송집서’라는 여섯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하고 있고, 특히 조사선과 여래선을 구별하여 『禪門拈頌集』이 조사선의 선법(禪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헌을 읽는 근본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인다.
- 2) Śdhyāna의 음사어. 선(禪)은 앞의 음만 가져온 약칭이다. 이 밖에 다나연나(駄那演那)·다나(駄那)·다연나(駄衍那)·지아나(持阿那) 등으로도 음사한다. 『俱舍論記』 권28 大41 p.417c26 등 참조.
- 3) 사유수습(思惟修習)·사유정(思惟定)이라고도 한다.
- 4) 정과 혜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선(禪)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이 둘이 완비되어야 바른 뜻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려(靜慮)’의 ‘靜’은 ‘定’, ‘慮’는 ‘慧’와 상응한다. 종밀은 『圓覺經略疏註』 권상 大39 p.527a23에서도 같은 맥락을 나타내었다. “전해지는 법은 정과 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悟)와 수(修) 그리고 돈(頓)과 점(漸)에 있어 정도 없고 혜도 없으면 어리석음에 불과하며, 어느 한편만 치우쳐서 닦으면 무명의 삿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운용해야 양족존(兩足尊)이 된다.”(然所傳法, 不出定慧. 悟修頓漸, 無定無慧, 是狂是愚; 偏修一門, 無明邪見. 此二雙運, 成兩足尊.); “다나연나: 한역하면 정려(靜慮)이다. 『바사론』에서는 정(定)이라 했지만, 정과 혜는 평등한 것이니 여타의 정에서 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정려라고 하지 않는다. 정(靜)은 정(定)이고 려(慮)는 혜(慧)이다.”(『翻譯名義集』 권4 大54 p.1126c18. 駄那演那: 此云, 靜慮. 婆沙論, 此定. 定慧平

면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일미선<sup>6)</sup>이다.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래선이란 산은 산 그대로 좋고 물은 물 그대로 좋으니 법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로 진실하다는 견해이고, 조사선은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sup>7)</sup> 가령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운운한 말은 여래선의 입장을 나타내고, 법안(法眼)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전과 다르게 한 말은 조사선의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있는 것을 여래선이라 하고,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조금도 없는 것을 조사선이라 한다.

문(門) — 세간에서 ‘문은 얇고 방은 깊다’라고 할 때의 문은 아니다. 다만 출입하는 것을 뜻으로 취했고, 출입하는 문이 별도로 없는 것을 문으로 삼았을 뿐이다. 별도로 문이 없기 때문에[無門] 모든 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sup>8)</sup>

等, 餘定缺少, 不名靜慮. 靜卽定也, 慮卽慧也.)

5) 이 책의 제목 중 첫 글자인 ‘禪’에 대하여 해설한 것이다. 『都序』 大48 p.399a18 참조.

6) 一味禪. 조사선을 가리키며, 귀종지상(歸宗智常)의 문답에 발견된다. “어떤 학인이 작별 인사를 하자 귀종이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이곳저곳에 다니며 오미선(五味禪)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의 이곳에는 일미선이 있다.’ ‘무엇이 화상의 일미선입니까?’ 귀종이 곧바로 그를 때렸다.”(『五燈會元』 권3 卽138 p.97a10. 歸宗, 因僧辭, 師云, ‘什麼處去?’ 僧云, ‘諸方學五味禪去.’ 師云, ‘我者裏有一味禪.’ 僧云, ‘如何是和尚一味禪?’ 師便打.) 본서 256則 참조.

7) 몰파비(沒鼻鼻). ‘파비’란 소의 코에 꿰어 소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고삐와 같은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몰파비라 한다. ‘산은 산, 물은 물’이라 하건, 어떤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건 선어(禪語)로 여파되면 모두 잡고 의지할 분별의 수단이 전혀 없는 몰파비가 된다. 몰파미(沒滋味)와 통하는 말이다. 몰파비의 경계는 화두 공부가 절정에 이른 소식이다. 『白雲法演語錄』 古尊宿語錄21 卽118 p.434b8, 『書狀』 「答呂舍人」 大47 p.931c3 등 참조.



염송(拈頌) — 염은 그물을 펼치는 격이고, 송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집서(集序) — 행정(行靜)<sup>9)</sup>은 이렇게 말했다. “서(序)란 실마리[緒]이다. 마치 누에고치에서 실마리를 찾아 그 실마리로부터 누에고치 하나의 실을 모두 뽑아내는 것과 같이 이 집(集: 『선문염송집』)에서 서(序)를 파악하면 이 책 전체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禪者，圭峯云，“具云禪那，此云思惟修，亦云靜慮，斯皆定慧之通稱也。”當此看，則教外別傳一味禪也。且如來禪，祖師禪，同別如何也？如來禪者，山山水水，法法全真也；祖師禪者，和根拔去，了沒巴鼻也。如經云，“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云云者，是如來禪也；如法眼云，“若見諸相非相，卽不見如來”云云者，是祖師禪也。又佛法有頭角邊，謂之如來禪；佛法無頭角邊，謂之祖師禪也。門者，不同世間門淺室深，但以出入爲義，無門爲門。無門故，能現一切門也。拈頌者，拈振其綱，頌宣其意也。集序者，行靜云，“序者，緒也。如繭得緒，緒盡一繭之絲，茲集得序，以盡一經之義也。”

- 8) “문이 없는 문을 법문이라 한다.”(『大方等大集經』 권13 大13 p.86b6, 無門之門, 名爲法門.); “원만하게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만일 문으로 들어온다면 함께 말할 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문이 없는 문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집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앉을 만하다.”(『聯燈會要』 권18 「東林道顔章」 叀136 p.720a16, 圓通門戶, 八字打開, 若是從門入得, 不堪共語, 須是入得無門之門, 方可坐登堂奧.); “도에 문이 없다고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도에 특정한 문이 있다고 말하면 위대한 선지식도 들어갈 도리가 없다.”(『無門關』 習庵陳垣의 「序文」 大48 p.292a25, 說道無門, 盡大地人得入; 說道有門, 無阿師分.)
- 9)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으나, 이하의 인용문은 다음 문헌들에 그대로 나온다. 다만 책의 성격에 따라 ‘一經’은 ‘一書’로, ‘集’은 ‘疏’ 또는 ‘書’로 되어 있다. 보서(普瑞)의 『華嚴懸談會玄記』 권1 叀12 p.3b7, 각원(覺苑)의 『大日經義釋演密鈔』 권1 叀37 p.10b18, 통윤(通潤)의 『法華經大竅』 권1 叀50 p.55a8, 대건(大建)의 『禪林寶訓音義』 叀113 p.307a5 등 참조.





# 1책 世尊兜率 세존도솔





## 1칙 세존도솔世尊兜率

### [본칙]

세존은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였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

世尊, 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

### [설화]

이 공안은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에 제시된 십종미세취(十種微細趣)의 문장<sup>1)</sup>을 받아들여 화제(話題)로 삼은 것이다.<sup>2)</sup> 도솔(兜率)의 온

- 1) 60권본 『華嚴經』 권42 大9 p.666c19 및 80권본 『華嚴經』 권59 大10 p.311b1에 나오는 십종미세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태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관정지(灌頂地)까지 이르는 과정을 시현하고, 둘째 모태에 있으면서 도솔천에 머무는 모습을 시현하며, 셋째 모태에 있으면서 초생(初生)을 시현하고, 넷째 모태에 있으면서 동자지(童子地)를 시현하며, 다섯째 모태에 있으면서 왕궁에 처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여섯째 모태에 있으면서 출가를 시현하며, 일곱째 모태에 있으면서 고행(苦行)을 거쳐 도량에 이르러 등정각(等正覺)을 이루는 모습을 시현하고, 여덟째 모태에 있으면서 전법륜(轉法輪)을 시현하며, 아홉째 모태에 있으면서 반열반(般涅槃)을 시현하고, 열째 모태에 있으면서 대미세(大微細)를 시현한다.
- 2) 십종미세취의 개별적 내용이 가지는 공통점은 ‘모태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시현하고 있다는 구절에 있다. 이 공안을 열 가지 중에 굳이 배대하면 두 번째와 여덟 번째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체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述] 활용한 것이다.

전한 음사어는 도솔타(兜率陁)<sup>3)</sup> 또는 도사타(覩史陁)이며, 한역하여 희족(喜足) 또는 묘족(妙足)이라 한다. 희족이란 모든 욕락(欲樂)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마음<sup>4)</sup>을 일으키는 것, 또는 작은 희열을 얻고 기쁘게 여기며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상태를 만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대대로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모두 도솔천에서 염부(閼浮)<sup>5)</sup>로 강생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 도솔천은 육욕천(六欲天)<sup>6)</sup>의 중앙에 있는 천으로 항상 중도(中道)에 처하여 치우치거나 막히지 않고, 갖가지 욕망의 경계에 있어도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상의 묘족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왕궁·도솔·도생(度生)<sup>7)</sup>·출태(出胎)는 팔상<sup>8)</sup> 가운데 네 가지 상(相)이다. 팔상이란, 주도솔(住兜率)·강왕궁(降王宮)·주태(住胎)·출태(出胎)·출가(出家)·성도(成道)·항마군(降魔軍)·전법륜(轉法輪)·입열반

3) ㉠Tuṣita, ㉡Tusita, ㉢Dgah-Idan.

4) 희족심(喜足心). 희족소욕(喜足少欲) 또는 무욕지족(無欲知足)이라 한다. 곧 욕락을 바라는 마음이 적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다. 바로 아래의 뜻풀이와 통한다.

5) 온전한 음사어는 염부제(閼浮提)이다. ㉠Jambu-dvīpa, ㉡Jambu-dīpa. 수미산(須彌山)의 사대주(四大洲) 중 남주(南洲)에 해당되므로 남염부제(南閼浮提 ㉠Dakṣiṇa-jambu-dvīpa)·남염부주(南閼浮洲)·남瞻부주(南瞻部洲) 등이라고 한다. 인도를 가리키는 한정적인 말이었으나 후대에 인간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6) 욕계(欲界)에 있는 여섯 개의 천. 사대왕천(四天王天)·도리천(忉利天)·야마천(夜摩天)·도솔천·화자재천(化自在天)·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등이다.

7) 중생 제도. 본칙에는 도인(度人)으로 되어 있다.

8) 八相. 도솔천에 머물던 시기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 일대기를 여덟 가지의 차별상으로 나눈 것. 석가팔상(釋迦八相)·팔상성도(八相成道)·여래팔상(如來八相)·팔상시현(八相示現)·팔상작불(八相作佛) 등이라고 한다. 80권본 『華嚴經』大10 p.364c25 등에 나온다.

(入涅槃) 등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구상(九相)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팔상이라 한 것일까? 대승에는 항마군이 없으니 마구니는 곧 법계이기 때문이고, 소승에는 주태가 없으니 태(胎)는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과 소승에서 각각 하나씩 제외하여 팔상이 된다. 또한 『기신론』에서 “도솔천에서 왕궁으로 물러나”<sup>9)</sup>라고 운운하였다. 대대로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모두 팔상성도의 과정에 근거하는 법인데,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 마쳤다”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팔상성도의 차제는 성문인(聲聞人)이 상세하게 분석한 견해[曲見]일 뿐이며, 화엄(華嚴)의 교설에 따르면 팔상은 한순간에 성립되어 앞뒤의 차제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량소』<sup>10)</sup>에 “부처님의 몸[佛身]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법이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이다”<sup>11)</sup>라고 하였다. 무진거사(無盡居士)의 『소화원기(昭化院記)』에 “화엄의 본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일념(一念)이며, 지금과 옛날도 하나의 동일한 순간[一時]이고,十方 전체도 하나의 국토[一刹]이며, 삼계(三界)가 모두 일체(一體)이다. 지금의 그 자리<sup>12)</sup>에 나타나 있기에 분별에 의지한 이해[情解]와 관계없다”<sup>13)</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10무애(無礙) 중 시간과 공간에서 걸림이 없는 시처무애(時處無礙)<sup>14)</sup>에 해당

9) 『大乘起信論』大32 p.581a6에 나오는 팔상성도의 구절.

10) 청량정관(淸涼澄觀)의 『華嚴經疏』.

11) 정확히 일치하는 전거는 없다.

12) ‘當體’가 「決疑論後記」에는 ‘當處’로 되어 있다.

13) 무진거사 장상영(張商英)의 이 말은 「決疑論後記」大36 p.1049a19에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대의만 취하여 간략히 정리한 인용이며 글자에 약간의 출입이 있다.

14) 법장(法藏)은 다음과 같이 풀다. “아홉 번째는 시처무애이다. 하나의 국토에서 삼세의 겁(劫)을 모두 나타내거나, 일념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토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와 같이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華嚴經探玄記』 권3 大35 p.160b21. 九, 時處無礙. 謂或於一刹, 現三世劫, 或一念中, 現無量刹, 如是無礙.) 『華

한다.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였다’라는 말은 공간에 걸림이 없는 처무애이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라는 말은 시간에 걸림이 없는 시무애이다. 곧 ‘끝없는 불국토의 경계에는 자신과 타자 사이에 조금의 간격도 없고, 10세<sup>15)</sup>의 고·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의 찰나를 떠나지 않는다’<sup>16)</sup>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것은 경전의 이치인데, 그것을 끌어들이어 공안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인가? 옛사람의 말<sup>17)</sup>에 “화엄의 교설이 아니면 이치를 남김없이 설할 수 없다. 다만 배우는 자들이 문자로 드러난 뜻과 이치에 골몰한 끝에 분별을 잊고 마음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와서 인심을 곧바로 가리켜[直指人心],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도록 한 것[見性成佛]이다. 곧 선가(禪家)에서는 사사무애(事事無礙)를 실행하고, 교가(敎家)에서는 사사무애를 이론적으로 설한다. 교가에서는 설하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나, 선가에서는 하나의 기틀과 하나의 경계에서 본분을 포착하는 순간 바로 활용한다. 가령 “대천세계를 우주 밖으로 내던지고, 수미산을 개자 하나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모두 우리들이 늘 할 수

---

嚴經疏』권10 大35 p.576b13 참조. 10무애는 다음과 같다. 정사무애(情事無礙), 이사무애(理事無礙), 상입무애(相入無礙), 상즉무애(相卽無礙), 중현무애(重現無礙), 주반무애(主伴無礙), 체용무애(體用無礙), 은현무애(隱顯無礙), 시처무애(時處無礙), 성괴무애(成壞無礙).

15) 十世.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각각 3세가 있어 모두 9세가 되고, 9세는 한 찰나이므로 합하여 10세가 된다. 시간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16) 이통현(李通玄)의 설이다. 『新華嚴經論』 권1 大36 p.721a18 참조. 조사선 계열의 선문헌에 폭넓게 나타난다. 『雲門廣錄』 권3 大47 p.570c26, 『五祖法演語錄』 권중 大47 p.658a21, 『圓悟語錄』 권1 大47 p.717c4, 『大慧語錄』 권3 大47 p.822b6, 『圓頓成佛論』 韓4 p.728b17 등 참조.

17)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없다.



있는 본분상의 능력이며 다른 수단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sup>18)</sup>라고 하거나, “대천세계를 우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은 하루에 세 번 문 밖으로 나서는 일상적인 일이며, 수미산을 개자 하나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돌피와 쪽정이를 창고에 들여놓는 것과 같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한 말들이 그 예이다. 어떤 고덕(古德)은 “만약 최상의 바른 이치로 말하자면 화엄이 어찌 원만한 이치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달마가 인도로부터 와서 가지와 넝쿨에 다시 쓸모없이 가지와 넝쿨을 자라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달마가 인도로부터 온 뜻은 이러한 화엄의 도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sup>19)</sup>라고 말했다. 곧 사사무애를 궁극적인 법도로 삼아서 헤아리면 안 된다. 어떤 고덕의 계송에 “부처님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고도 49년 동안 설법하였고, 달마가 인도에서 오지 않았어도 소림사에는 미묘한 비결이 있다”<sup>20)</sup>라고 하였다. 곧 낱알의 사람은 누구나 천 길의 높이로 우뚝 솟은 절벽과 같아서,<sup>21)</sup> 진점겁(塵點劫)<sup>22)</sup> 이전

18) 『注華嚴法界觀門』「裴休序」大45 p.683c13, 『大慧語錄』 권18 大47 p.887a7 등에 나오는 구절.

19) 이 말을 한 고덕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0) 수산주(修山主)의 계송이다. 『五祖法演語錄』 권1 大47 p.649c7, 『圓悟語錄』 권3 大47 p.725a27, 『山堂僧洵禪師語』續古尊宿語要4 卍119 p.9b16 등에 널리 인용된다. 여러 문헌에서 ‘釋迦’는 ‘諸佛’, ‘達磨’는 ‘祖師’로 혼용한다.

21) 벽립천인(壁立千仞). 험하고 높아서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 언어와 사유의 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로서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은 뜻이다. 원오극근(圓悟克勤)은 〈설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 용어를 쓴다. “사람마다 본분에 천 길 높이의 절벽이 솟아 있고, 각각의 눈앞에 커다란 보배 광명이 비친다. 그렇다면 어떤 인연에도 떨어지지 않는 한 구절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산기슭의 봉우리가 거꾸로 섰고, 석순에는 남몰래 가지가 돌아난다.”(『圓悟語錄』 권9 大47 p.755a26. 人人分上, 壁立千仞, 各各面前, 飛大寶光, 且不落黃金一句, 作麼生道? 麓峰頭倒卓, 石笋暗抽枝.)

22) 헤아릴 수 없이 장구한 겁(劫)이 경과하는 시간. 진겁이라고도 하며, 하나하나

에 수행도 마쳤고 성불 또한 성취하였으니,<sup>23)</sup> 또 다시 연지 찍고 분을 바를 얼굴은 없다는 뜻이다. 공안을 제기하여 이러한 이치를 본보기로 삼았으니, 이는 최초구<sup>24)</sup>에 한정하여 설한 것이다. 이 교설의 의미는 비록 고상하고 미묘하지만, 한편으로는 텅 비고 멀어서 기력을 펼칠 여지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명하게 말할 실마리가 없으니, 종사(宗師)가 교설을 인용하여 공안의 뜻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통선(圓通善)은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라는 구절에 대하여 ‘하나의 달이 하늘에 있다’라고 착어했고, ‘이미 왕궁에 강림했다’라는 구절에 대하여 ‘달그림자가 모든 물을 머금었다’라고 착어했으며,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라는 구절에 대하여 ‘하늘과 땅까지 단단히 붙들었다’라고 착어했고,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라는 구절에 대하여 ‘누가 은혜를 입지 않겠는가?’라고 착어했다. 이 팔상을 증득(證得)과 교화(敎化)에 배대하

의 티끌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수의 겁이라는 뜻이다.

- 23) 『法華經』의 구원성불(久遠成佛) 사상과 통한다. 아득한 과거세[本地]에 이미 성불을 마쳤다는 뜻이며, 그렇게 성불한 부처님을 본불(本佛)이라 한다. “내가 성불한 이후 진실로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나유타 겁의 세월이 지났다.”(『法華經』 권5 「如來壽量品」 大9 p.42b12. 我實成佛已來, 無量無邊, 百千萬億那由他劫故.); “내가 실로 성불한 때가 오래된 것이 이와 같다. 다만 방편으로써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고자 이와 같이 설법하고 있을 뿐이다. 선남자들이여, 여래께서 펼친 경전은 모두 중생을 고향에서 건져내어 해탈케 하기 위한 것이다.”(같은 책 권5 p.42c8. 我實成佛已來, 久遠若斯. 但以方便敎化衆生, 令入佛道, 作如是說. 諸善男子, 如來所演經典, 皆爲度脫衆生.)

- 24) 最初句. 말후구(末後句)가 상대적으로 최후에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뜻이라면, 최초구는 어떤 조짐도 일어나기 이전의 소식을 나타내는 구절을 말한다. 아래에서 ‘어떤 조짐도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라고 한 경계가 그것이다. 최초구와 말후구는 처음과 끝으로 대칭되기는 하지만, 언어로 설명되거나 분별로 포착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는데, 넓게 펼치면 팔상이 된다. ‘도술천을 떠나기도 전에’라는 구절은 증득, ‘이미 왕궁에 강림했다’라는 구절은 교화와 짝이 된다. 이 교화의 문자체에도 증득과 교화가 있다. 모태에 머무는 것(住胎)은 증득이고, 모태에서 나옴[出胎]·출가·성도·마구니를 항복시킴[降魔軍]·법륜을 굴림[轉法輪] 등은 교화에 해당한다. 열반에 드는 것[入涅槃]도 증득이니,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는 것이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오(圓悟)의 계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고 한 구절의 뜻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사상(四相)이 된다. 도술천을 떠난 다음 왕궁에 강림하여 증득한 뒤 교화를 일으키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마치고 난 다음 교화를 거두어 증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오고 가는 현상으로 앞뒤의 맥락을 다 통하게 하는 방법이니, 이 모든 것을 법도[規矩]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술천을 떠나기도 전에 ~ 마쳤다’라고 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오고 간 자취 전혀 없고, 증득과 교화를 곧바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처럼 법도에 얽매이지 말고 말을 들었으면 그 종지를 이해해야 된다.

**대혜(大慧)**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25)</sup> “궁극적인 한 구절<sup>26)</sup>은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별거벗은 알몸을 모조리 드러내었으니, 하늘과 땅 그 어디에나 있고 소리와 색이 모두 그것이다. 황면노자<sup>27)</sup>는 이 결정적인 하나의 소식

25) 이하의 인용은 본서 2則 「世尊周行」에 나오므로 자세한 주석은 생략한다.

26) 말후일구자(末後一句子). 궁극적인 구절. 모든 구절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당사자의 본분을 발휘하는 속박 없는 말, 또는 궁극적인 화두 자체를 나타내는 구절을 말한다.

27) 黃面老子. 부처님을 가리킨다. 황면구담(黃面瞿曇)·황면노(黃面老)·황두대사(黃頭大士)·황두노(黃頭老)·황두(黃頭) 등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몸은 황금색의 금색신(金色身)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칭호이다. 불상을 황금색으로 도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가비라위성

을 얻고서 ‘도술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였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라고 했던 것이다.”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라는 말은 곧 이것이니, 그것은 말후구를 나타내는 한 수인 것이다. 곧 이것을 가리켜 말후구를 나타내는 한 수라고 하면 옳지만, 말후구 자체라고 하면 옳지 않다. 산을 가리키며 ‘산인가?’라고 물었을 경우 산이라 대답하면 옳다. 산에 있는 풀과 나무와 흙과 돌을 모두 들어서 산이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속의 돌 하나를 가리키며 ‘산인가?’라고 물었을 경우 산이라 대답하면 옳지 않다. 어떻게 산의 돌 하나를 들어서 산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송원(松源)이 상당법문에서 그러한 취지로 말한 것이다. 또한 장령(長靈)은 ‘도술천을 떠나기도 전에~’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공(空)에서 나와 유(有)로 들어가며 무궁하게 변화하는 경지에서 몸을 바꾸고<sup>28)</sup> 막힌 숨통을 토해내어 곧 바로 말후구를 이해했던 것 또한 여전히 결정적인 한 수가 모자라는 이해인 것이다!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 ‘이치가 극치에 이르러 분별과 말을 잊었는데, 어떻게 가지런한 비유를 들어 말할까? 결국 가을밤의 달은 움직이는 그대로 눈앞의 시냇물에 떨어진다.’<sup>29)</sup> 비록 결정적인 한 수를 벗어나서 별도로 말후구를 찾더라도 도리어 옛 성인의 뜻을 완전히 등지는 결과가 되지 않

---

(迦毘羅衛城 ㉔Kapilavastu)이라는 말에서 ㉔Kapila는 황색 또는 황적색(黃赤色)이라는 뜻이며, ㉔vastu는 머무는 곳 또는 성(城)이라는 뜻이므로 가비라위성은 ‘가비라선(迦毘羅仙) 또는 황두선인(黃頭仙人)이 머무는 곳’이라는 말이 된다.

28) 전득신(轉得身). 속박된 몸에서 해탈의 몸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반전(反轉)을 가리킨다.

29) 법안문익(法眼文益)의 계송에 나오는 구절. 두 번째 구절은 ‘如何有喻齊’로 되어 있다. 『法眼語錄』 大47 p.591a8 참조. ‘情謂’는 ‘情慮言謂’를 줄인 말이다.

겠는가! 옛사람이 “말후구를 그대에게 설하노니, 밝음과 어둠이 서로 짝이 되는 소식이라네”<sup>30)</sup>라고 한 말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최초구와 말후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 종사인 선지식이 최초구 속에서 학인의 근기를 점검하려면 도리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한 구절을 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도리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상 분명하게 밝힐 여지가 없으므로 배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제한된 인식으로 무위(無爲)·무사(無事)라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종문(宗門)의 향상된 경지에서 높이 착안하여 그것을 내세울 것으로 여기기도 하니, 대혜(大慧)가 한 수[一著]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 나머지 중근기와 하근기의 무리들은 다만 모든 것을 법신(法身)이라 오인할 뿐이고, 또는 대상 세계로 내려와 그것이 하나의 색(色)으로 통일된 현상이라 착각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말후구를 가지고서 얕은 곳에서 시작하여 깊은 곳에 이르는 방식으로 깊고 또 더 깊은 곳에 이르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미세한 속박까지 풀어 없애고 법인(法印)을 짚어지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암두(巖頭)는 “덕산이 말후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혜는 “세존께서 말후구의 한 수를 터득했다”라고 말했으나, 세존과 덕산이 제시한 한 순간의 방편을 진실이라 여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에 잘못을 돌린 이유는 말후구를 원만하게 완성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궁극적인 도리[末後]가 원만하게 완성되므로 말후구라 하지만 원만함의 극치에 이르면 최초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후구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조짐도 일어나기 이전의 시기를 살피라”라고 한다. 곤산(崑山)은 묘용(本分)과 신통(今時)<sup>31)</sup>을 말했고, 원오는 말후<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

30)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계송이다. 『碧巖錄』 51則 「頌」 大48 p.186c17.

미 왕궁에 강림했다거나[已降],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度人]는 말)를 언급했으며, 해인(海印)은 한 소리 내질렀고(부처와 조사의 의중을 모두 꿰뚫었다), 송원은 ‘처음부터[末上]’〈최초구를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此話，華嚴經離世間品，十種微細趣散文，述而爲詮<sup>32)</sup>也。兜率，具云兜率陀，亦云觀史陀。此云喜足，亦云妙足。喜足者，謂於諸欲樂，生喜足之心，又得小喜悅爲喜，更不求餘爲足。佛佛出世，皆從兜率天，降生閻浮者，何也？兜率天，六欲天中中央天，常處中道，而不偏滯，於諸欲境，而不染着故。此上妙足之義也。此中王宮兜率，度生出胎，八相中四相。八相者，住兜率·降王宮·住胎·出胎·出家·成道·降魔軍·轉法輪·入涅槃。此則九相，所謂八相者，何也？大無降魔，魔則法界故；小無住胎，胎若虛空故。然則大小乘，互奪爲八相也。又起信論云，從兜率退王宮云云也，佛佛出世，皆以八相成道，未離兜率云云者，何也？八相成道次第，聲聞人曲見，若約華嚴，八相一時，無前後次第。故清涼疏云，“佛身無礙故，法自爾故。”無盡居士，昭化院記云，“夫華嚴之爲體也，始終一念也，今昔一時也，十方一刹也，三界一體也。當體現前，不涉情解。”則十無礙中，時處無礙也。未離云云，處無礙；未出云云，時無礙。則無邊刹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也。此是經義，引以爲話者，何也？古人云，“非是華嚴，說理未盡。但學者汨沒文字義理，不能忘意了心。”所以達磨西來，直指人

31) 본분은 개별적 현상의 차별이 사라진 무차별의 본질을 가리키고, 금시는 현재의 차별되고 다양한 현상을 나타낸다.

32) ‘詮’은 ‘話’로 되어 있는 이본의 글자가 맞다.

心，見性成佛。則禪行事事無礙，教說事事無礙也。教家但說而行不得，禪家一機一境上，把得便用。如云，“擲大千於方外，納須彌於芥中，皆吾輩之常分，非假於他術。”又云，“擲大千於方外，一日三出門外，納須彌於芥中，稊稗納於倉廩也。”古德云，“若談無上正理，華嚴，豈不圓極哉！若然者，何必達磨西來，枝蔓上更生枝蔓！達磨西來，焉知不是這箇道理！”則不可以事事無礙爲極則商量也。古德頌云，“釋迦不出世，四十九年說。達磨不西來，少林有妙訣。”則人人箇箇，壁立千仞，塵點劫前，修行亦竟，成佛亦竟，更無添脂着粉地面目。舉唱則此，約最初句說也。此說義雖高妙，虛遠而無氣力，汎濫而無辨白，非宗師引教爲話之義，則如何？圓通善，未離兜率，着語云，‘一月在天。’已降王宮，着語云，“影含衆水。”未出母胎，云，“乾坤把定。”度人已畢，云，“誰不蒙恩。”將此八相，以配證化，廣而爲八相。未離兜率，證也；已降王宮，化也。就此化門，亦有證化。住胎，證也，出胎·出家·成道·降魔軍·轉法輪，化也。入涅槃，亦證，度人已畢，是涅槃也。此圓悟所謂始終。略而爲四相。離兜率而降王宮，從證起化，出母胎而度人已畢，收化歸證。此所謂去來通前後，皆名規矩。今旣未離至已畢，則始終一貫，初無去來，證化斯亡。須是不立規矩，承言會宗，始得。大慧云，“末後一句子，聲前露保保，盖天盖地，盖聲盖色。黃面老子，得箇一著子，便道云云。”已畢則此，是末後句之一著子也。謂是末後句之一著則可，謂是末後句則不可。指山而問焉曰山乎，曰山則可。山有草木土石，皆舉之也。指山中之一石，而問焉曰山乎，曰山則不可。何得舉山之一石稱山云者哉！

故松源上堂云云. 又長靈云云, 未離兜率云云. 然則向出空入有變化無方處, 轉得身, 吐得氣, 便會得末後句, 亦是一著猶欠會哉! 畢竟如何? ‘理極忘情謂, 如何話論齊? 到頭霜夜月, 任運落前溪.’ 雖然離一著外, 別討末後句, 又却不是大辜負先聖哉! 不見古人道, “末後句爲君說, 明暗雙雙的時節.” 且如最初句末後句, 同別如何? 宗師善知識, 若向最初句中對機, 則不過下得沒道理的一句. 旣沒道理, 而無辨白故, 學者以己之局量, 或有作無爲無事會, 或有高著眼, 向宗門向上, 作主宰者, 大慧所謂一著也. 其餘中下之流, 只認得箇法身, 又下而悟得一色邊事, 亦未可定. 則不如末後句, 從淺至深, 以至於深之又深, 使學者, 蕩盡微細法縛, 荷擔法印之爲愈也. 巖頭謂德山不會末後句, 大慧謂世尊得末後句之一著, 非以世尊德山一期方便爲實. 然而歸咎, 只要圓成末後句也. 以末後圓成, 故曰末後句, 至於圓極, 則與最初句, 何以異哉! 故曰, “要識末後句, 看取未生時.” 崑山妙用〈本也〉神通〈今也〉, 圓悟末後〈已降度人〉, 海印一喝〈透佛祖也〉, 松源末上〈最初也〉.

## 곤산찬원(崑山贊元)의 송

도솔천의 경계를 떠나기도 전에,  
벌써 부왕의 궁전에 강림하였고,  
비록 중생 제도를 마쳤지만,  
여전히 어머니 배 속에 있다네.



신묘한 작용에 따른 것도 아니요,  
신통력도 아니었다네.  
스스로 법도를 세우지 말고,  
말을 듣고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하리라.

崑山元頌, “未離兜率境, 已降父王宮; 雖度衆生畢, 猶居母腹  
中. 良由非妙用, 亦不是神通. 勿自立規矩, 承言須會宗.”

[설화]

도솔천의 경계를 떠나기도 전에 ~ 어머니 배 속에 있다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대로 이미 일어난 일과 같고, 이미 일어난 일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같다는 말인가? 공안의 글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신묘한 작용’이란 본래 있는 그대로이며, ‘신통력’이란 바로 지금 성취  
하고 있는 것들이다. 신묘한 작용도 아니고 신통력도 아니라면, 법도를 세  
울 필요도 없이 말을 듣고는 반드시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  
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이 아  
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 뜻과 가깝게 된다.

崑山<sup>33)</sup>: 未離至腹中者, 未然即已然, 已然即未然耶? 話文重舉  
也. 妙用者, 本自如然也. 神通者, 今日成就也. 既非妙用, 亦  
非神通, 則須是不立規矩, 承言會宗始得. 然則前云, 已然即未  
然未然即已然之義, 近是.

---

33) 〈설화〉의 첫 부분에는 염과 송의 작자 범명이 붙어 있다. 본래 『禪門拈頌說話』는  
독립된 책이고 『禪門拈頌』의 본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한 〈설화〉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번역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는  
각 송과 염 뒤에 그에 해당하는 〈설화〉를 바로 붙인다.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대상은 본래 형상이 없고,<sup>34)</sup>  
지허<sup>35)</sup>는 만물을 감싸 안노라.  
뒤늦게 떠났으나 지나쳤으니,<sup>36)</sup>  
남쪽 향하여 북두칠성 보네.  
왕궁과 도술천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오고 간 자취 전혀 없노라.

34) 『老子』 41장 “大象無形”과 같다. 대상(大象)은 도(道)를 묘사하는 용어 중 하나로, 대방(大方)·대기(大器)·대음(大音) 등과 더불어 쓰였다. ‘大’는 더 이상이 없는 완성태로서의 극대(極大)를 나타낸다.

35) 至虛.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지극히 텅 빈 허공. 천공(天空)과 같은 말.

36) 말후이태과(末後已太過). 선행부도(先行不到)의 뒤에 따라 붙는 구절로 쓰인다. “먼저 출발했으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뒤에 떠났으나 목적지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뜻이다. 『楊岐語錄』 大47 p.645a3, 『大慧語錄』 권8 大47 p.843c11 등에 나온다. 한편, 평지정각(宏智正覺)은 이 구절을 바둑의 착수(著手)에 비유하였다. “법좌에 올라앉아 어떤 학인이 석상경저(石霜慶諸)에게 물었다. ‘화상의 깊고 깊은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수염 없는 자물쇠의 양 끝을 부절없이 흔드는구나.’ 이 문답을 듣고 평가했다. ‘먼저 둔 수는 약했고, 나중에 둔 수는 지나치게 강했다. 딱 들어맞는 한 수가 그 사이에 있는데, 보았는가? 흑돌과 백돌이 나타나고 산 돌과 죽은 돌이 나누어지자마자 나무꾼까지 연루시켜 도끼자루를 썩게 만드는구나.’” 『宏智廣錄』 권4 大48 p.41c14. 上堂, 舉, 僧問石霜, “如何是和尚深深處? 霜云, “無鬚鎖子兩頭搖.” 師云, “先行不到, 末後太過. 一著中間, 見也麼? 纔形黑白分生殺, 帶累樵人爛斧柯.”) 수염 없는 자물쇠[無鬚鎖子]는 열쇠가 없는 자물쇠를 말한다. 열쇠가 자물쇠에 끼워졌을 때 그 양 끝이 아래로 늘어진 모양이 수염과 같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흔들어도 열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자물쇠처럼 인식의 수단이 통하지 않는 경계를 나타낸다.

흔적을 쓸어 없애고 뿌리를 제거하면,  
불 속의 연꽃이 곳곳에서 피어나리라.

圓悟勤頌, “大象本無形, 至虛包萬有. 末後已太過, 面南看北斗. 王宮兜率, 度生出胎, 始終一貫, 初無去來. 掃蹤滅迹除根蒂, 火裏蓮花處處開.”

[설화]

대상은 ~ 감싸 안노라 : 유가 곧 무이고, 무가 곧 유이다.

뒤늦게 ~ 복두칠성 보네 : 전·후와 남·북의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왕궁에서 ~ 오고 간 자취 전혀 없노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흔적을 쓸어 없애고 뿌리를 제거한다’라고 한 뜻이다.

불 속의 연꽃이 곳곳에서 피어나리라 : 상서로운 현상을 말한다.

원통(圓通)이 말했다. “만약 파정<sup>37)</sup>의 방법을 시행하면, 자취를 쓸어 없애고 흔적을 소멸시키며 뿌리를 제거하고 보금자리를 깨끗이 파괴할 것이니, 모든 부처님과 중생 그리고 보리와 열반도 전혀 남아 있지 못하게 된다. 방행의 방법을 시행하면, 불 속의 연꽃이 곳곳에서 활짝 피어 상서로운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흔적을 쓸어 없애고 뿌리를 제거한다’라는 말은 (아래 제시된) 대혜(大慧)의 계송이 나타낸 뜻이고, ‘불 속의 연꽃이 곳곳에서 피어나리라’고 한 말은 죽암(竹庵)의 계송이 전하는 뜻이니, 이 어찌 장령(長靈)이 ‘공(空)에서 나와 유(有)로 들어가며 무궁하게 변화한다’라고 말한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평생 분별로 천착한들

---

37) 把定, 파주(把住)라고도 하며, 방행(放行)과 대칭된다. 파정은 ‘곰짝 못하도록 붙든다’는 말로서 모든 언어와 분별의 가치를 허용하지 않는 부정의 방법이다. 반면 방행은 ‘하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말로서 모든 언행과 분별을 개방하여 막지 않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질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 죽암의 말은 ‘일정한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다<sup>38)</sup>’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圓悟：大象至萬有者，有卽無，無卽有也。末後至北斗者，無前後南北也。故云，‘王宮至去來’，則‘掃蹤滅迹除根蒂’也。火裏至開者，爲祥爲瑞也。圓通云，“若把定，則掃其蹤滅其迹，除其根蒂，蕩其窠窟，諸佛衆生，菩提涅槃，了不可得也；若放行，則火裏蓮花，處處開敷，爲祥爲瑞。”然則掃蹤至蒂者，大慧頌義也；火裏至開者，竹庵頌義也，豈非長靈出空入有變化無方之義耶！然平生穿鑿不相關，則不存軌則之義，可知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날카로운 칼날에 묻어 있는 꿀은 핥지 말고,<sup>39)</sup>

독이 퍼진 장소에서 물맛을 보지 마라.<sup>40)</sup>

38) 부존궤칙(不存軌則). 『信心銘』大48 p.376c26 등에 나오는 구절. 보통은 “자유로운 본분의 작용이 눈앞에 실현되면, 일정한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다(大用現前, 不存軌則)”라는 구절을 상용구로 쓴다. 『雲門廣錄』권중 大47 p.554c2, 『大慧語錄』권19 大47 p.891a8, 『景德傳燈錄』권9「大安傳」大51 p.267c23 등에 보인다.

39) 『佛本行集經』권14 大3 p.717c23에 나오는 “利刃蜜塗將舌舐”라는 구절과 통하며, 선가에서 많이 활용한다. 꿀과 물은 모두 화두의 표면적인 말을 나타낸다. 그것이 달콤하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여 먹으려 하면 칼날에 혀를 찌르고 독기가 몸에 퍼지듯이 피해를 입는다. 이 화두뿐만 아니라 모든 선어(禪語)는 그러한 꿀과 물 뒤에 파놓은 함정과 같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40) 조산본적(曹山本寂)의 말에 근거한다. “어떤 학인이 조산에게 물었다. ‘제가 하루 종일 지내는 중에 어떻게 보임(保任)해야 합니까?’ ‘독이 퍼진 장소를 지나갈 때 물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라.’”(『曹山語錄』권상 大47 p.539b23. 僧問, ‘學人十二時中, 如何保任?’ 師云, ‘如經蠱毒之鄉, 水也不得沾著一滴。’)

끓지도 맛보지도 않아 모두 범하지 않으면,

반듯하게 비단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大慧杲頌, “利刃有蜜不須舐, 蠱毒之家水莫嘗. 不舐不嘗俱不犯, 端然衣錦自還鄉.”

###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시비의 바다 속에 마음껏 몸을 던지고,

맹수의 무리 속에서 자유롭게 사노라.

시비를 따지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분별하지 마라!

평생 분별로 천착<sup>41)</sup> 한들 본질과 관련 없다네.<sup>42)</sup>

竹庵珪頌, “是非海裏橫身入, 豺虎群中自在行. 莫把是非來辨我! 平生穿鑿不相關.”

### 천의의회(天衣義懷)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렇게 꺼낸 이야기 자체가 벌써 아무 일

41) 穿鑿. 진실이 없는 곳에서 분별의 틀을 가지고 파고들어 억지로 꿰맞추는 것.

42) 3~4구는 담주용산(潭州龍山)의 계송에 나오는 구절이다. ‘平生’은 ‘浮生’으로 되어 있다. “동산이 다시 용산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떤 도리를 보셨기에 이 산에 주석하고 계십니까?’ ‘진흙 소 두 마리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용산이 계송으로 다시 말했다. ‘이제껏 초가삼간에 사노라니, 한 줄기 신령한 빛에 모든 경계가 한가롭구나. 시비를 따지며 나를 분변하려 들지 마라! 덧없는 일생 동안 분별로 천착한들 본질과는 관련 없다네.’”(『景德傳燈錄』 권8 「潭州龍山傳」 大51 p.263a27. 洞山又問, ‘和尚見箇什麼道理, 便住此山?’ 師云, ‘我見兩箇泥牛鬪入海, 直至如今無消息.’ 師因有頌云, ‘三間茅屋從來住, 一道神光萬境閑. 莫作是非來辨我! 浮生穿鑿不相關.’)

도 없는 경계에서 남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거늘 이어서 녹원<sup>43)</sup>에서 설법을 시작하여 학수<sup>44)</sup>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사이에 49년 동안 교설의 그물을 널리 펼쳤으니<sup>45)</sup> 가지와 넝쿨에 다시 가지와 넝쿨이 자란 격이다.”

天衣懷，上堂，舉此話云，“恁麼說話，早是平地陷人，其次鹿園，終乎鶴樹，於其中間，四十九年，張羅布網，枝蔓上更生枝蔓。”

[설화]

이 상당법문의 대의는 ‘무슨 결정적인 통로<sup>46)</sup>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것이다. 이전에 ‘이치가 극치에 이르러 분별과 말을 잊었거늘, 어찌 일정한 설명이 있겠는가?’<sup>47)</sup>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天衣上堂云云，是什麼孔竅？前不云乎，理極忘情謂，如何云云？

43) 鹿園, 녹야원(鹿野苑 ㉔Mrgadāva)을 말한다. 부처님이 성도(成道)한 다음 다섯 제자에게 처음으로 설법한[初轉法輪] 곳이다.

44) 鶴樹, 곡림(鵠林)과 같은 말이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던 사라쌍수(娑羅雙樹)를 가리킨다. 열반하는 순간 쌍수(雙樹)가 전부 백색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백학(白鶴)과 같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5) 교설의 그물을 펼쳐 중생이라는 물고기를 고통의 바다[苦海]에서 건져 올린다는 뜻에서 나온 비유. 이것을 교망(敎網)이라 한다.

46) 공구(孔竅), 눈·코·귀·입 등의 구멍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선문헌에서는 항상 하는 결정적인 통로 또는 막힌 숨통이 트여 자유롭게 되는 본분의 핵심 등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47) 주석29) 참조.

## 취암문열(翠嵒文悅)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법륜<sup>48)</sup>은 이 공안을 마주하고 입이 있어도 쓸모없게 되었다. 여러분은 자세히 알겠는가? 만약 자세히 안다면 천하 노화상의 본분<sup>49)</sup>은 모두 그 사람의 손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 만약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목에 피가 나도록 물어보아도 소용없는 노릇이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남은 봄을 지내느니만 못할 것이다.”<sup>50)</sup>

翠嵒悅，上堂，舉此話云，“法輪，到這裏，有口無用處。你等諸人，還相委悉麼？若相委悉，天下老和尚鼻孔，總在你手裏；若也不會，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

### [설화]

이 공안을 마주하고 ~ 쓸모없게 되었다 :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말하겠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자세히 알겠는가? : 남에게 가르쳐 주려면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니,<sup>51)</sup> 그 아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48) 法輪, 남악(南岳: 湖南省)에 있던 절. 취암문열이 이곳에 주석할 당시의 범문이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49) 비공(鼻孔). 코 또는 콧구멍. 코가 얼굴의 중심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핵심인 본분을 나타낸다.

50) 두순학(杜荀鶴)의 시 「문자규(聞子規)」에 나오는 마지막 두 구절. 자규가 목에 피가 나도록 지저귀며 봄소식을 전해도 봄이 온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두는 것이 나은 것처럼, 종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는다 해도 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51) 보통 “사람을 죽이려면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한다(殺人須見血)”라는 구절을 수반한다. 친절한 방편을 이것저것 늘어놓지 않고 오로지 본분에 입각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圓悟語錄』 권4 大47 p.765a4, 『碧巖錄』 31則 「著語」 大48

翠巖：到這至用處者，非但道不得之義，盡力道得也。你等至  
 悉麼者，爲人須爲徹，下從可知也。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 말해 보라! 석가노자<sup>52)</sup>는 49년 동안 무슨 일을 도모했을까? 시험 삼아 분명히 알아맞혀 보라. 그럴 사람 있는가?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교설을 펼쳤다고 해도 20방을 때려주어야 할 잘못이고,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종지를 전하러 왔다고 해도 20방을 때려주어야 할 잘못이다’<sup>53)</sup>라고 말한다. 20방이 더 남아 있으니 결코 다른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의 허리를 때려서 부러뜨리리라.”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海印信，上堂，舉此話云，“諸仁者，且道！釋迦老子，四十九年，當爲何事？請試明辨看。還有麼？所以道，‘諸佛出世，好與二十棒；達磨西來，好與二十棒。’更有二十棒，切忌動着！動着則打折你腰。”喝一喝。

### [설화]

말해 보라 ~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종지를 전하러 왔다고 해도 20방을 때려주어야

---

p.170b4 등 참조.

52) 釋迦老子. 석가모니(釋迦牟尼)와 노자를 합친 말로, ‘노자’는 존칭이다.

53) 부처님의 교설이나 달마의 종지는 시험 장치가 걸려 있는 화두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허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철 두칠미하게 부정하는 입장에 서는 살(殺)의 방(棒)이다. 20방은 형법상 죄인을 다스리는 일돈방(一頓棒)이다.



할 잘못이다 :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면서도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sup>54)</sup> 부처님의 교설이나 조사의 가르침에 허물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이 공안의 취지라는 뜻이다.

20방이 더 남아 있으니 ~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 이 하나의 통로<sup>55)</sup>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海印：且道至達磨西來好與二十棒者，當四十九年說法，未曾說一字也。佛教祖教，未得無過，卽此話義也。更有二十棒至喝一喝者，須知有這一竅，始得。

## 승천회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했다는 사실은 없지 않다고 하자. 그렇다면 말해 보라! 모태에

54) 궁극적인 진리는 문자를 벗어나 있다는 경전의 뜻을 선종의 관점에서 수용한 구절이다. 『白雲守端語錄』 권1 卍120 p.415a3, 『大慧語錄』 권15 大47 p.873a16, 『開福道寧語錄』 卍120 p.451b7, 『兀菴普寧語錄』 권상 卍123 p.12b11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범은 문자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혜야,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고 한 글자도 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범은 문자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요익한 뜻을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설은 중생의 망상이기 때문이다.”(『楞伽經』 권4 大16 p.506c4. 法離文字故。是故，大慧，我等諸佛，及諸菩薩，不說一字，不答一字。所以者何？法離文字故。非不饒益義說，言說者，衆生妄想故。) ; “나는 일찍이 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는 도리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고, 그대도 듣지 않았으니, 이해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大般若經』 권499 大7 p.540b29. 我嘗於此甚深般若波羅蜜多，相應義中，不說一字，汝亦不聞，當何所解?)

55) 저일규(這一竅). 지금까지 한 말에 한정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인 한 수가 더 남아 있다는 뜻.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방과 할을 시행하는 파주(把住)의 극치를 나타낸다.

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엮어낸다면,<sup>56)</sup> ‘한눈에 삼구(三句)<sup>57)</sup> 밖으로 넘어서고 나니, 갈대꽃은 바로 달빛 안에 있구나’라고 말할 경지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피부를 얻었거나 골수를 얻었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계의 길<sup>58)</sup>에서 8천 리나 멀어질 것이다.” 범문을 마치고 선상(禪床)을 쳤다.

承天懷，上堂，舉此話云，“諸仁者！未離兜率，已降王宮，卽不無。且道！未出母胎，如何度人？若向這裏搆得去，可謂一見能超三句外，蘆花只在月明中。若也未然，得皮得髓將安用？蹉過曹溪路八千。”擊禪床。

#### [설화]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는가 : 중생 제도라는 뜻을 집어낸 말이며, 또한 공에서 나와 유로 들어가는 뜻이기도 하다.

한눈에 ~ 달빛 안에 있구나 : ‘한 발의 화살로 세 관문을 무너뜨리니, 화살 날아간 자취가 분명하도다’<sup>59)</sup>라는 구절과 같다.

56) 구득(搆得). 물건을 열기설기 엮어내듯이 이것저것 고려하여 분별로 모색해낸다는 말.

57) 종지를 드러내는 구절. 세 구절로 종지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관습에 따라 종지를 표현하는 언어의 형식을 일반적으로 삼구라 한다. 운문삼구(雲門三句)·동산삼구(洞山三句)·덕산삼구(德山三句)·임제삼구(臨濟三句)·분양삼구(汾陽三句)·사미삼구(師備三句)·수산삼구(首山三句)·대양삼구(大陽三句) 등 각 선사들의 서로 다른 삼구가 있다.

58) 조계(曹溪)는 본래 6조 혜능(慧能)을 가리키며, 조계의 길이란 6조가 걸었던 정도(正道)를 말하지만, 선종의 종지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59) ‘한 발의 화살’은 과녁에 적중하는 화살처럼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 말이다. 곧

피부를 얻었거나 ~ 8천 리나 멀어질 것이다 : 달마가 문인들에게 각자 얻은 경계를 말해보도록 하였는데, 피부를 얻은 문인에서 시작하여 혜가(慧可)가 골수를 얻은 것에 이르러 조사의 자리를 이었으니<sup>60)</sup> 이것이 선문 안의 일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조계의 문 밖에서 8천 리 길이나 떨어진 격이니 결코 이 길에서 8천 리 거리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길이 8천 리라는 말은 중국에서 인도까지의 거리가 10만 8천 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承天：未離至母胎如何度人者，度人之義，拈出也，亦出空入有之義也。一見至月明中者，一鏃破三關，分明箭後路也。得皮至八千者，達磨命門人，各說所得，自得皮至慧可得髓，紹續祖位，是門內事。雖然如是，曹溪門外，蹉過路八千，須是不蹉過此路八千，始得。路八千者，亦指西天十萬八千之意。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상당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였다고 하지만, 석가노자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방울을 흠친 격이다.”<sup>61)</sup> 모태에서 태

‘한 구절에 도에 빈틈없이 딱 들어맞는 것’과 같다. 세 선사의 말에 제기된 관문을 모두 타파하는 한마디 말을 가리킨다. ‘화살 날아간 자취’라는 말은 종사들이 제기한 말의 단서를 말한다. 그것이 분명하므로 모든 화두가 날아가 맞히려는 목표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구절은 본래 귀종지상(歸宗智常)의 계송에 나온다. 『景德傳燈錄』 권29 大51 p.452a2 참조.

- 60) 달마가 인도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고자 도부(道副)·니총지(尼總持)·도육(道育)·혜가(慧可) 등 네 명의 제자에게 각기 자신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고, 그 각각의 견해에 대하여 자신의 피(皮)·육(肉)·골(骨)·수(髓)를 얻었다고 평가하여 결국 혜가를 법제자로 인가한 인연이다. 『禪門拈頌說話』 101則, 『景德傳燈錄』 권3 「菩提達磨傳」 大51 p.219b27 참조.

- 61) 엄이투령(掩耳偷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 귀를 막고 방울을

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고 하지만,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여전히 재빠르게 알아차리는 본성으로 모든 속박을 끊어 없앤 사람의 경지는 못 된다. 하물며 또 다시 일곱 걸음을 내딛고 사방을 둘러보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로 가려 했던 것일까? 할아버지 당시에 이미 온몸으로 넘어졌으니, 오늘날 후손들이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sup>62)</sup> 후손을 번성시키고자 한다면 별도로 청규를 나타내야 할 것이니, 시험 삼아 공(空)에서 나와 유(有)로 들어가며 무궁하게 변화하는 경지에서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 말을 해 보라!”

長靈卓，上堂云，“未離兜率，已降王宮，釋迦老子，向者裏，掩耳偷鈴。未出母胎，度人已畢，直饒伊麼，也未是性燥勦絕底漢。何況更有周行七步，目顧四方，向什麼處去也？祖父當時，既已和身放倒，兒孫今日，又且如何？欲得昌隆後嗣，別現清規，試向出空入有，變化無方處，下一轉語！”

##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황면노자는 처음부터 한 조각의 널빤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로지 한편만 보았기에<sup>63)</sup> 후대의 아손들로 하여금

---

흠치면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리지 않으므로 남들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는다는 뜻이다. 조사선에서 상대가 감추려고 했던 속마음을 간파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 62) 공안의 이야기 자체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화두는 완결된 상태로 제기되지 않고 후손들이 늘 그것에 대해 비판적 평석을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조상이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 미친다(祖禍不了，殃及兒孫)”라는 말과 유사하다.

- 63) 보통 담판한(擔板漢)이라 한다. 한쪽 시야가 널빤지에 막혀 양쪽을 모두 보지 못

있는 힘을 다하여도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松源, 上堂, 舉此話云, “黃面老子, 末上擔一片板, 只見一邊, 致令後代兒孫, 盡力擡腳不起.”

[설화]

장령과 송원의 상당법문은 공안의 본칙에 이미 드러난 뜻이다.

長靈松源上堂, 話中已出.

---

하는 것과 같이 견해가 한편으로 치우친 사람을 비유한다.





## 2칙 世尊周行 세존주행







## 2칙 세존주행 世尊周行

### [본칙]

세존께서 태어나셨을 때 일곱 걸음 두루 걷고서 사방을 둘러본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운문문언(雲門文偈)의 염: “내가 당시에 그 광경을 보았다면, 한 방에 때려죽이고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sup>1)</sup>

世尊初生下時，周行七步，目顧四方，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唯我獨尊。”〈雲門偈拈，“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却，<sup>2)</sup> 圖天下太平.”〉

### [설화]

이 공안은 『보요경(普耀經)』의 구절에 따른다.<sup>3)</sup> 이 경에 다음과 같이 전

- 
- 1) 이 공안에 대한 역대 조사들의 판단은 운문의 이 평가를 동시에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칙을 평가하는 이하의 염·송들에서 운문의 말이 가장 중심에 배치되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운문의 말을 본칙과 함께 붙여둔 이유는 여기에 있다. 『雲門廣錄』 권중 大47 p.560b16 등에 나온다.
  - 2) ‘貴’가 옳다.
  - 3) 『普曜經』 권2 大3 p.494a26, 권4 p.508c25에 나오는 내용의 대체에 근거하며 구

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찰제리왕(刹帝利王)<sup>4)</sup>의 궁전에 서는 커다란 지혜의 광명이 퍼져 시방세계를 비추었고, 땅에서는 황금 연꽃이 솟아올라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두 발을 받쳤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두 손을 나누어 하늘과 땅을 가리킨 다음 ‘하늘 위와 아래 그리고 사방과 사유에 나보다 존귀한 자 없다’라고 사자후를 내지르셨다.”<sup>5)</sup>

**두루 걸었다** : 주변을 돌며 일곱 걸음 걸었다는 것인가? 시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 걸었으니 발길을 두루 옮기며 일곱 걸음 걸었다는 뜻이다. 두루 일곱 걸음 걸은 지위는 제7위<sup>6)</sup>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곱 걸음 걸었다고 한 것일까? 인도[西天]에서는 7을 최대의 수[極數]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칠각지<sup>7)</sup>의 상서로운 감응을 나타내는 것인가? 용왕이 땅에 떨어져

---

절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耀’는 ‘曜’와 통한다. 이 밖에 『長阿含經』 권1 「大本經」 大1 p.4b28에는 비바시보살(毗婆尸菩薩)의 탄생담으로 나오고, 『賢愚經』 권10 大4 p.418c23에 나오는 석가모니불의 탄생담 등도 모두 내용상 일치한다.

- 4) 찰제리는 𑀘𑀓𑁆𑀭𑀯𑀭𑀸의 음사어. 지주(地主)·왕종(王種) 등으로 한역한다. 인도의 사성계급(四姓階級) 중 바라문(婆羅門)에 이어 두 번째 계급이며, 왕족·귀족·무사 등에 속한다. 부처님은 이 계급에 속하는 정반왕(淨飯王 𑀘𑀓𑀭𑀯𑀭𑀸𑀓𑀭𑀯𑀭𑀸)의 태자로 태어났다.
- 5) 이상은 『景德傳燈錄』 권1 「釋迦牟尼佛傳」 大51 p.205b7 등에 『普耀經』의 경문으로 인용되어 있지만, 『普耀經』 자체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이 부처님의 탄생부터 초전법륜(初轉法輪)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위주로 한 전기라는 점에서 근거로 삼은 것이라 추정된다.
- 6) 어떤 7위인지 분명하지 않다. 십주위(十住位) 중에서 제7위는 더 이상 이승(二乘)으로 물러나지 않는 지위이지만, 이것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 7) 七覺支. 𑀘𑀓𑀭𑀯𑀭𑀸𑀓𑀭𑀯𑀭𑀸. 보리의 전개를 돕는 일곱 가지의 법. 칠각지의 ‘覺’은 보리(菩提)를 뜻하는 말이다. 37도품(道品) 중 제6품의 행법(行法)이다. 칠등각지(七等覺支)·칠편각지(七遍覺支)·칠보리분(七菩提分)·칠보리분보(七菩提分寶)·칠각분(七覺分)·칠각의(七覺意)·칠각지(七覺志)·칠각지법(七覺支法)·

일곱 걸음 걷는다고 전하는데, 세존은 사람 중에 용왕과 같은 존재이므로 일곱 걸음 걸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사자가 땅에 떨어져 일곱 걸음 걷는다고 하는데, 세존은 사람 중에 사자와 같은 존재이므로 일곱 걸음 걸었다는 뜻일까?<sup>8)</sup>

사방을 둘러보았다 : 네 가지 지견(知見)<sup>9)</sup>을 나타낸 것인가? 네 가지 지혜<sup>10)</sup>의 보리(菩提)를 나타낸 것인가? 아니면 사성제(四聖諦)의 상서로운 감응인가? 『불조전심계(佛祖傳心偈)』<sup>11)</sup>의 「문답장(問答章)」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방을 둘러보았다는 뜻은 어떤 것인가? ‘사상<sup>2)</sup>을 떠나 해탈을 증득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킨 뜻은 어떤 것인가?’

칠각의법(七覺意法) 등이라고도 한다. 『中阿含經』 권11 「七寶經」 大1 p.493a18, 『法蘊足論』 권8 大26 p.491c3 등 참조. 칠각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염각지(念覺支) : 마음이 명백하여 항상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②택법각지(擇法覺支) : 지혜에 의지하여 진실한 법을 선택하고 허망한 법을 버리는 것. ③정진각지(精進覺支) : 오로지 정법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 ④희각지(喜覺支) : 정법을 얻고 기뻐하는 것. ⑤경안각지(輕安覺支) : 몸과 마음이 가볍고 즐거우며 편안한 것. 의각지(猗覺支)라고도 한다. ⑥정각지(定覺支) : 선정(禪定)에 들어가 마음이 산란(散亂)하지 않은 것. ⑦사각지(捨覺支) :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집착이 없고 평형을 유지하는 것.

8) 용왕과 사자의 비유는 『長阿含經』 권1 「大本經」 大1 p.4c6, 『修行本起經』 권상 大3 p.464b1 등에 근거한다.

9) 법화(法華)의 개(開)·시(示)·오(悟)·입(入).

10) 사지(四智). 유식(唯識)에서 팔식(八識)·칠식(七識)·육식(六識)·전오식(前五識) 등 네 가지 식이 전변(轉變)하면서 성취하는 네 가지 무루지(無漏智). 곧 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 등을 말한다.

11) 미상의 문헌이며, 수록된 문답도 출처를 찾을 수 없다.

12) 四相. 모든 법의 생멸변화 과정인 생(生)·주(住)·이(異)·멸(滅) 등 네 가지 차별된 현상을 말한다.

가?’ ‘삼계(三界)의 속박을 벗어나 인천(人天)의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킨 뜻은 어떤 것인가?’ ‘삼악도(三惡途)의 중생을 구제하여 결정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법이란 이와 같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곱 걸음 두루 걷고서 ~ 땅을 가리키며 : 다름 아닌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라는 한 구절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진실한 법계(法界)의 도리를 증득하여 영원히 무명(無明)을 끊고 최상의 정각(正覺)을 이루면 천계와 인간계 전체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부처님과 같은 자 없고, 시방세계 전체에도 비교할 자 없도다. 세간에 있는 사람 다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 중에 부처님과 같은 자 없다네”<sup>13)</sup>라고 하였다. 대혜(大慧)는 “석가노자는 도사천<sup>14)</sup>에서 태양처럼 밝은 코끼리<sup>15)</sup>를 타고 마야부인의 모태로 내려왔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의 모습,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태어나셨을 때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고’라 운운한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의 본보기,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sup>16)</sup>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바로 이 소식은 싯다르타태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진(悟眞)<sup>17)</sup>선

13) 『佛本行集經』 권4 大3 p.670a7에 따르면, 석가모니불께서 과거세에 불사다타아가도아라가삼막삼불타(弗沙多陀阿伽度阿羅呵三藐三佛陀) 곧 불사불(弗沙佛)을 찬탄하여 지은 계송이다.

14) 觀史天. 도솔천(兜率天 ㉔Tuṣita, ㉕Tusita, ㉖Dgaḥ-Idan)의 다른 음사어.

15) 향상(香象). 평범한 코끼리 열 마리와 비견되는 큰 힘을 가진 코끼리. 태양과 같이 밝다는 묘사는 부처님의 태몽인 흰 코끼리 곧 백상(白象) 또는 백향상(白香象)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大慧語錄』 권5 大47 p.832b21.

17) 도오오진(道吾悟眞)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문의 출처는 미상이다.

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 석가노자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두루 일곱 걸음 걸었다고 하니, 그렇게 기특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상좌<sup>18)</sup>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무슨 기특한 일이 있었던가? 만약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눈앞에서 보고도 회피하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라고 할 때의 나 : 인아(人我)<sup>19)</sup>라고 할 때의 자아인가? 법신(法身)과 같은 대아(大我)<sup>20)</sup>인가? 인아의 자아 이외에 결코 법신의 대아는 없다는 뜻이다. 곧 오 척(尺)의 가죽 주머니<sup>21)</sup>가 마음껏 삼계(三界)를 밟으며 어떤 한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니, 법계 전체를 두루 망라하는 존재는 오로지 자신 하나뿐인 것이다. 고덕이 “봄 산은 겹겹이 어지럽도록 푸르고, 가을 강물은 바닥까지 맑구나. 아득히 드넓은 하늘과

18) 上座. 수좌(首座)와 같은 말. 법문 때 종사가 학인들을 올려 부르는 말로 쓰인다.

19) 법아(法我)와 함께 두 가지 근본 집착 중 하나. 주관인 인(人)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집착을 말한다. 아집(我執)과 같은 뜻이다.

20) ⑤paramātman, mahātman. 인아의 집착을 떠나 자아로서 『大般涅槃經』에서 말하는 상(常)·락(樂)·아(我)·정(淨)이라는 네 가지 덕(四德) 중의 아와 통한다. 열반에서 성취된 근본적인 자아로서 무아(無我)와 다르지 않고 자유자재한 속성을 지닌다. 부처님의 별명이기도 하며, 인아의 견해를 없애고 모든 중생을 포괄하여 이익을 주는 보살의 진실한 자아를 가리키기도 한다. “대아가 있으므로 대열반이라 하고, 열반에서 성취된 무아의 경지는 완전한 자재로움이므로 대아라 한다.”(『大般涅槃經』 권23 大12 p.502c15. 有大我故, 名大涅槃, 涅槃無我大自在故, 名爲大我.); “대아란 부처님의 별명이다.”(『大日經疏』 권16 大39 p.749c24. 大我者, 佛之別名也.); “대의(大義)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고, 대아란 모든 중생을 자기 자신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살은 자아에 집착하는 견해를 소멸하고 대아의 견해에 의지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가리켜 ‘대의는 대아에 의존한다’고 한다.”(『大乘莊嚴經論』 권7 大31 p.626a4. 大義者, 利益一切衆生故; 大我者, 以一切衆生爲自己故, 此中菩薩滅自我見, 依大我見, 作衆生利益事, 是謂大義依大我.)

21) 오척피낭(五尺皮囊). 육신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

땅 사이에, 홀로 서서 바라보니 끝나는 곳 어디인가?”<sup>22)</sup>라고 하였다. 하하하! 이 무슨 뜻인가? 동서남북이 온통 나일 뿐이로다.

운문이 “내가 당시에 그 광경을 보았다면 ~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라고 한 말 : 세존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난을 평정하여 정도로 돌아가게 함<sup>23)</sup>으로써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지만 바람도 없는 데서 물결을 일으키고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만든 격이니, 난세의 영웅이면서 한편으로는 태평성대를 해치는 간교한 도적이라는 뜻이다. 곧 운문의 기상은 왕과 같았으나 불법의 도리조차 없었으니 본래 태평성대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계시던 생각을 대신 펼친 것이다.<sup>24)</sup> 그러므로 “이 깊은 마음으로 ~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한다.”<sup>25)</sup>라고 한 것이다.

또한 장경초각(長慶超覺)대사는 법좌에 올라앉아 잠깐 침묵하고 있다가 “기틀을 남김없이 보여 그대들이 자세히 살피도록 해 주었으니,<sup>26)</sup> 귀머거리나 병어리와 같이 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의 실마리가 드러날 것이다.”<sup>27)</sup>

22) 설두중현(雪竇重顯)의 말. 『雪竇語錄』 권2 大47 p.679c14.

23) 발란반정(撥亂反正). 혼란을 물리치고 바르게 다스려지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 변란의 뿌리를 뽑고 평정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24) 세존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어떤 분별의 단서도 없는 화두였고 운문은 바로 그 본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다.

25) 『楞嚴經』에서 제자 아난이 부처님의 덕을 찬탄한 계송을 생략하여 표현한 말. “이 깊은 마음으로 무수하게 많은 불국토를 받드노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한다.”(『楞嚴經』 권3 大19 p.119b15. 將此深心奉塵刹, 是則名為報佛恩.)

26) 잠깐 침묵하고 있었던 순간에 바로 자신의 기틀을 모조리 드러냈다는 뜻.

27)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언어 이전의 그 경계에 이르러야 깨달음의 실마리[頭角]가 드러난다는 뜻. 법좌에 올라앉아 잠깐 침묵하고 있었

라고 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운문이 제기하지 못했던 점을 시험 삼아 주석해 주겠다”라고 하며,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알아차리면 발밑의 일이다. 곧 람비니(藍毘尼)<sup>28)</sup> 꽃동산[花園]의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모친의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탄생하여 꽃꽂하게 섰을 때가 첫 번째인 의륜(意輪)으로 잠깐 침묵하는 문[良久門]이며, 두루 일곱 걸음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것은 두 번째인 신륜(身輪)으로 뛰어난 작용을 나타낸 문[頭角作用門]이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하다고 한 것은 세 번째인 구륜(口輪)으로 언설문(言說門)이다. 그러므로 해인(海印)이 ‘왕궁에 강림하자마자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라고 시작하는 계송을 읊었던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세존께서 태어나셨을 때’라고 한 것은 총괄하는 구절[總句]이고, ‘일곱 걸음 두루 걸으셨다’라고 한 것은 한 몸으로 시방세계에 모두 응한 것이니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킨 것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라고 한 것은 사방을 모두 한눈에 모은 것이니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간 것이다.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다’라고 한 것은 하늘을 떠받들고 땅을 받쳐 올린 것이니 중간 구절이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라고 운운한 것은 마지막 구절이다.”

이 해설은 각 문구를 푸는 숨씨가 교묘하고 해설의 뜻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나, 염송가(拈頌家)들이 드러낸 것에는 이러한 말은 없다. 아마도 제멋대로 단정하고 생각을 짜낸 해설인 것으로 보인다.

던 그 경계를 가리킨다.

28) ㉔Lumbinī, 선각왕(善覺王 ㉔Suprabuddha)이 자신의 부인을 위하여 람비니에 세운 화원(花園)으로 부처님 탄생지이다. 중인도 구리(拘利)와 가비라위(迦毘羅衛) 사이에 위치한다.

此話，普耀經文。本經云，“佛初生下時，刹帝利王家，放大智光明，照十方世界，地湧金蓮花，自然奉雙足。東西及南北，各行於七步，分手指天地，作大師子吼，上下及四維，無能尊我者。”周行者，周而行七步耶？能於十方，各行七步，則周足而行七步也。周行七步，位當第七故，行七步耶？西天以七爲數極故耶？表七覺支瑞應耶？龍王墮地行七步，世尊人中龍王故，行七步耶？師子墮地行七步，世尊人中師子故，行七步耶？目顧四方者，表四知見耶？表四智菩提耶？四聖諦之瑞應耶？佛祖傳心偈問答章云，“問，‘目顧四方意旨，如何？’答，‘表離四相，願證解脫。’問，‘一手指天意旨，如何？’答，‘表出三界，利樂人天。’問，‘一手指地意旨，如何？’答，‘表救三途，定出輪迴，表法則如是也。’”周行七步云云指地者，只要道箇天上天下唯我獨尊的一句。伊麼道得者，證實法界，永斷無明，成最正覺，天上人間，最尊最貴故，如是道得也。故云，“天上天下無如佛，十方世界亦無比。世間所有我盡見，一切無有如佛者。”大慧云，“釋迦老子，從觀史天，乘日輪香象，降摩耶夫人胎。只是示見箇人人生相地時節。及至初生，一手云云，只是示見箇人人生相地樣子。”則此箇消息，非局悉達一人。故悟真禪師云，“他釋迦老子。才生下時，周行七步云云，有如是奇特。只如上座初生下時，有什麼奇特？若道無，當面諱却。”我者，人我之我耶？法身大我耶？人我之我外，更無法身大我也。則五尺皮囊，橫踏三界，從何處轉何處，則周羅法界，唯自一人。古德云，“春山疊亂青，秋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阿呵呵，是什麼？南北東西唯是我。雲門云我當時若見云云者，世尊伊麼道，撥亂返正，致得太平，無風起浪，無事中起



事, 是亂世之英雄, 太平之奸賊也. 則雲門氣宇如王, 都無佛法道理, 則本太平也. 此暢佛本懷也. 故云, “將此深心, 至佛恩.” 又長慶超覺大師, 上堂, 良久云, “盡其機, 與伊相看,<sup>29)</sup> 如聾若啞, 始露頭角.” 又“雲門提不起, 試註過與.” 又“認着卽脚之事, 則藍毘尼苑, 無憂樹下, 從母右脇誕生, 端然立地時, 第一意輪, 良久門; 周行云云指地, 第二身輪, 頭角作用門; 天上天下至尊者, 第三口輪, 言說門. 故海印頌云, ‘才降王宮示本然云云’也.” 又“才生下時, 搥句. 周行七步, 一身應於十方, 則從體起用. 目顧四方, 四方共於一目, 則攝用歸體. 一手云云者, 撐天撐地, 則中間句也. 天上天下云云者, 末後句也.” 此說釋文巧妙, 說義圓備, 然於拈頌家發揚無此論. 恐是臆斷圖度之說.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동·서·남·북,

상·하와 사유<sup>30)</sup>로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며,<sup>31)</sup>

29) 저본의 ‘著’을 대교본의 ‘看’으로 바로잡는다.

30) 四維, 사우(四隅)라고도 한다. 동서남북 사방(四方)의 사이에 해당하는 간방(間方)으로서 남동·남서·북동·북서의 방위를 가리킨다. 사방과 사유와 상하를 합하여十方(十方)이 되며, 이것은 공간적으로 본 세계 전체를 나타낸다.

31) 천고지후(天高地厚), 『詩經』에 나오는 말이다.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해도, 몸은

토끼는 뛰고 까마귀는 난다.<sup>32)</sup>

성도했을 당시 마가다국의 법령<sup>33)</sup>에서,

눈앞에 드러난 기틀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구나!<sup>34)</sup>

부처님이 49년<sup>35)</sup> 동안 거듭 설명하셨으나,

페르시아<sup>36)</sup> 사람은 원래 곤륜아<sup>37)</sup>일 뿐이다.

대흥이 일어나서 큰소리로 말했다. “석가노자께서 오셨다!” 다시 좌우로 살펴보고 말했다. “시자야, 차를 달여<sup>38)</sup> 오거라!”

---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아무리 두텁다 해도, 조심해서 걷지 않을 수 없다.”  
(『詩經』「小雅 正月」, 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不蹻.)

- 32) 토주오비(兎走烏飛). 땅에서 뛰는 토끼는 음(陰)으로서 달[月]을, 하늘을 나는 까마귀는 양(陽)으로서 해[日]를 상징한다. 세월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 33) 마갈령(摩竭令). 마가다국에서 성도한 뒤 삼칠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 마갈이란 마가다(摩竭陀 ㉔Magadha)의 음사어 중 하나. 궁극적인 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도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사 중 하나로 쓰인다. 이것은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유마거사의 침묵[杜口毘耶]과 대칭되는 구절이다.
- 34) ‘동서남북 ~ 까마귀는 난다’까지의 구절에 나타난 모든 세간의 현상은 탄생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드러나 있는 기틀이며 이것이 진실인데, 성도하신 뒤의 침묵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알지 못할 뻔했다는 뜻.
- 35) 부처님이 성도한 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설법한 기간을 말한다.
- 36) 파사(波斯). 페르시아의 음차이다.
- 37) 崑崙兒. 곤륜자(崑崙子)·곤륜노(崑崙奴)라고도 한다. 중국의 서쪽 즉 페르시아 지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일대(곤 서역)의 이민족을 중국인들이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곱슬머리에 까만 피부[卷髮黑身]가 특징이다. 페르시아인과 곤륜아는 말만 다를 뿐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처럼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지시한 다양한 가르침은 ‘눈앞에 드러난 기틀’ 바로 그것에 귀착된다는 뜻이다.
- 38) 점다(點茶). 차 마시는 방법 중 하나. 분말차에 물을 붓고 조리[茶筌]로 저어서 거품을 걷어내고 마신다. ‘點’은 풀잎을 가루로 부순다[草葉攪]는 뜻이다. 이것으로 볼 때 점다는 본래 분말차와 관련된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수지

大洪恩頌, “東西南北, 上下四維. 天高地厚, 兔走鳥飛. 當時摩竭令, 幾喪目前機! 四十九年重指注, 波斯元是崑崙兒.” 師乃起立高聲呌云, “釋迦老子來也!” 復左右顧視云, “侍者, 點茶來!”

[설화]

동서남북 ~ 까마귀는 난다 : ‘이 법은 법의 위치에 머문다’<sup>39)</sup>라는 뜻이다.

당시 마가다국의 법령에서 ~ 거의 잃어버릴 뻔했구나 : ‘세간의 차별상도 항상 머물러 있다’<sup>40)</sup>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 곤륜아일 뿐이다 : 모든 사람이 각자 본래부터 성취하고 있음을 뜻한다.<sup>41)</sup> 옛날 그대로 변함없이 눈은 가로로 붙어 있고, 코는 세로로 붙어 있다<sup>42)</sup>는 도리를 49년 동안 거듭 설명했다는 뜻이다.

얇은 찻잎은 엽차(葉茶)라고 하는데, 이것을 물에 넣고 끓이는 방법도 이전의 언어 습관을 따라 점다라 한다. “『문공가례』에서 말하였다. ‘…… 옛날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가루로 된 찻잎[粉末]을 이용했다. 점다라는 말은 먼저 말차(末茶)를 다기에 넣고 끓인 물을 붓고서 냉수를 떨어뜨린 다음 조리를 이용해 골고루 섞는다. 요즘 사람들은 물을 끓여 엽차를 달이는데, 이것도 여전히 점다라고 하는 이유는 남아 있는 옛날 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禪林象器箋』 권17 禪藏 p.1286. 文公家禮云, ‘…… 古人飲茶用末. 所謂點茶者, 先置末茶于器中, 然後投以滾湯, 點以冷水, 而用茶筴調之. 今人燒湯煎葉茶, 而此猶云點茶者, 存舊也.’)

- 39) 『法華經』 권1 「方便品」 大9 p.9b10.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거나 나타나시지 않거나 간에 관계없이 상주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 제법실상(諸法實相)과 같은 뜻이다.
- 40) 세간의 모든 차별상이 그대로 실상과 통한다는 뜻.
- 41) 『法華經』의 구원성불(久遠成佛) 사상에 입각한 해설이다. 부처님은 현세에 보리수 아래서 비로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세에 이미 성불했다는 구원성불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말이다.
- 42) 안횡비직(眼橫鼻直). 분명히 일상의 그 어디에나 드러나 있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분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본분의 이치를 나타낸다. 『白雲守端廣錄』 권1 卍120 p.400b17, 『宏智廣錄』 권9 大48 p.111b25 등에 나온다.

일어나서 ~ 석가노자께서 오셨다 : 다만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한마디를 하고  
자 했던 것이다.<sup>43)</sup>

시자야, 차를 달여 오거라 : 이 도리를 아직 뚜렷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다  
시 건넌 말이다.<sup>44)</sup>

大洪：東西至烏飛者，是法住法位也。當時至目前機者，世間  
相常住也。四十至崑崙兒者，人人箇箇，本成本就也。依舊，眼  
橫鼻直，則四十九年，重指注也。起立至來也者，只要末後道得  
也。侍者點茶來者，是道理未惺惺地也。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왕궁에 강림하자마자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일곱 걸음 걷고서 다시 선언하시는구나.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켰건만 어떤 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우리와 같은 소리만 대천세계<sup>45)</sup>에 울려 퍼지네.

당시 달잡지 않게 여기던 자가

---

43) ‘석가노자께서 오셨다’라는 말은 말후구(末後句) 곧 궁극적인 화두로써 제시한  
것이라는 뜻이며, 눈앞의 기틀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44) 바로 앞에서 한 말후구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또 다시 ‘차를 달여 오라!’고 하는  
‘눈앞의 기틀’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45) 大千世界. ㉠mahāsāhasra-lokadhātu, ㉡mahāsahassa-lokadhātu. 인도의 우주관. 고  
대 인도인들은 사대주(四大洲)와 해·달 그리고 제천(諸天)을 하나의 소세계(小  
世界)라 하고, 천 개의 소세계를 합하여 소천세계(小千世界)라 하였다. 또 천 개  
의 소천세계를 합하면 중천세계(中千世界)가 되고, 천 개의 중천세계를 합하면  
대천세계가 된다. 보통 대천세계라 하면 사람이 사는 다양한 모든 세계의 모습  
을 가리킨다. 소천·중천·대천을 모두 들어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  
한다.

취모검<sup>46)</sup>을 빼어 들었다면, 누가 감히 앞으로 나섰으랴!

海印信頌, “纔降王宮示本然, 周行七步又重宣. 指天指地無人會, 獨震雷音徧大千. 當時若有不甘者, 略舉吹毛孰敢先!”

[설화]

송에 나온 말 중에 이미 뜻이 해석되어 있다. ‘당시 ~ 감히 앞으로 나섰으랴!’라는 말은 운문이 개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취지와 같다. 아래 나오는 보령인용의 송도 이런 뜻이다.

海印: 話中已消釋. 當時至孰敢先者, 雲門與狗子喫却之義也.  
下保寧勇頌, 亦此義也.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

봄기운을 받아 위도 아래도 온통 곱디곱고,  
비 내린 뒤 교목 숲에는 두견새가 우는구나.  
인적 드문 그림 같은 누각의 달 밝은 밤에,  
취해 노래하고 흥겹게 마시는데 눈앞에 꽃잎 지네.

淨嚴遂頌, “承春高下盡鮮妍, 雨過喬林叫杜鵑. 人靜畫樓明月夜, 醉歌歡酒落花瓣.”

---

46) 吹毛劍. 칼날에 머리카락을 대고 바람을 불면 잘려나갈 정도로 예리한 칼이다.  
어떤 말과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는 본분의 수단을 나타낸다.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혼돈<sup>47)</sup>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늘과 땅이 갈라지자마자 일이 은근히 드러났네.<sup>48)</sup>  
타고난 기량으로 남다른 말과 행위를 능란하게 보였지만,  
그 시작부터 남에게 놀려서 한바탕 희롱을 당했도다.<sup>49)</sup>

保寧勇頌, “混沌未分人未曉, 乾坤纔剖事潛彰. 天生伎倆能奇怪, 未上輸他弄一場.”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일곱 걸음 걷고 온몸을 드러내니,  
천상과 인간 중에 비교할 자 없도다.  
새벽에 떠나면 아무도 모른다 하지 말고,  
통금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음을 알라.<sup>50)</sup>

47) 混沌, 천지와 만물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무차별한 상태. 여기서는 세존이 탄생하기 이전, 또는 어떤 말과 소식도 드러내기 이전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소식인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과 통한다. 『莊子』內篇「應帝王」에 나오는 말이다.

48) 모태에서 탄생한 다음, 사람들이 분별하고 말한 대상이 발생했다는 말.

49) 그 언행은 대단히 탁월했지만 운문에게 의중을 간파당했다는 말. 운문이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렸다는 뜻이다.

50)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자는 운문을 가리킨다. 부처님의 남다른 언행은 법을 지키고 통금이 해제되었을 때 가장 빨리 떠난 것에 비유된다. 탁월한 것으로 위장한 부처님의 언행은 법과 같은 어떤 금지의 틀도 인정하지 않는 운문에 의하여 화두로서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암시이다.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또한 통금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雲

霅溪益頌, “周行七步露全身, 天上人間絕等倫. 莫道早行人不見, 須知有夜行人.”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송

한 번의 씻물로 주물해낸 쇠 탄알이여!  
둥글둥글하여 집게와 망치로 다듬을 필요도 없네.  
집어 들고 만 길 봉우리에서 쏘아,  
하늘 끝 흰 봉황<sup>51)</sup>을 맞춰 떨어뜨리리.

慈受頌, “一火鑄成金彈子! 團圓都不費鉗鎚. 拈來萬仞峯頭放, 打落天邊白鳳兒.”

### 취암종의 송

천 년 묵은 돌호랑이 기린을 낳으니,<sup>52)</sup>  
외뿔 달린 온몸이 오색으로 번득이네.  
황금 자물쇠와 옥 빗장<sup>53)</sup> 모두 잡아끊고서,  
비로자나불 법계에서 북 울리며 전투를 벌이네.<sup>54)</sup>

---

門廣錄』권중 大47 p.562c6. 謂言侵早起, 更有夜行人.)

51) 백봉(白鳳). 뛰어난 인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부처님을 비유한다.

52) 천 년 전에 부처님이 제시한 관문을 기린과 같이 탁월한 운문이 타파했다는 뜻이다.

53) 금쇄옥관(金鎖玉關).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귀한 물건이지만, 가두고 막는 장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영웅적이고 귀한 언행을 전한 듯하지만 사실은 뚫고 나가야 하는 화두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대로 따르다면 그것에 속박될 뿐이다.

54) 부처님을 부정한 운문의 평가에 대해 한 판의 승부를 펼쳤다는 말로 표현한 것

翠崑宗頌, “千年石虎產麒麟, 一角通身五彩明. 金鎖玉關渾掣斷, 毗盧界內鼓煙塵.”

## 원오극근(圓悟克勤 : 불과극근)의 송

오른쪽 옆구리에서 금빛 몸<sup>55)</sup>으로 탄생하니,  
아홉 마리 용이 향기로운 물을 뿜어주었다.<sup>56)</sup>  
위풍당당하게 사방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그 주변에 연꽃이 피어났다.  
처음부터 근본적인 기틀<sup>57)</sup>을 배풀었으니,

이다. 고(鼓)는 전투를 할 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울리는 북, 연진(煙塵)은 전장(戰場)에서 일어나는 연기와 먼지이다.

55) 금구(金軀 : 金身). 부처님의 몸은 황금색의 금색신(金色身)으로 인식되는데, 황면노자(黃面老子) · 황면구담(黃面瞿曇) · 황면노(黃面老) · 황두대사(黃頭大士) · 황두노(黃頭老) · 황두(黃頭) 등이라고도 한다. 불상을 황금색으로 도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56) 『過去佛分衛經』大3 p.452b1, 『普曜經』권2 大3 p.494b1 등에 나오는 이야기.

57) 제일기(第一機). 근본적인 기틀. 또는 그런 기틀을 알 수 있는 최상의 근기를 뜻한다. 여기서는 어떤 분별의 방편도 통하지 않는 세존의 화두를 가리킨다. 간화선의 관점에서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근원적 자아’ 등과 같은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 계송을 읊은 원오극근의 다음 말에 그 뜻이 드러난다. “만일 근본적인 기틀로써 학인을 가르친다면 단지 그에게 ‘남의 집 중 노릇이나 하러 갈 놈!’이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대가 ‘이와 같은 일은 어떤 뜻인가?’라 묻는다면 더 이상 가르칠 방편이 없다. 단지 어떤 뜻이나 도리도 없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이다. 만일 이 말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더 이상 헤아리지 않는다면 백수자 · 마삼근 · 일구흡진서강수 등의 화두와 조금도 차별이 없을 것이다.”(『圓悟語錄』권13 大47 p.774a3. 若是第一機爲人, 只消向他道, ‘于迪客作漢!’ 爾問, ‘與麼事作麼?’ 更無方便. 只是沒義理難話會. 若於此直下承當去, 更不擬議, 則與柏樹子, 麻三斤, 一口吸盡西江水, 更無差別.)



고상한 기풍은 예부터 지금까지 늘 드높았다.

당시에 그 뜻을 알아차린 자가 있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그 닳도둑<sup>58)</sup>을 사로잡았을 것이다.<sup>59)</sup> 이!<sup>60)</sup>

佛果勤頌, “右脇誕金軀, 九龍噴香水. 嶷嶷步四方, 周匝蓮花  
起. 末上先施第一機, 高風亘古鎮巍巍. 當時有箇承當得, 等閑  
擒下白拈賊. 咦!”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일곱 걸음 걷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거들먹거렸으니,

집안의 보기 흉한 꼴이 문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어찌 허용하랴!<sup>61)</sup>

58) 백염적(白拈賊). 대낮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 대낮에 도둑질을 하려면 재빨라야 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달아나야 한다. 문답하는 상대의 마음을 잘 포착하여 자신의 선기(禪機)를 전광석화와 같이 발휘하고,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는 뛰어난 종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부처님을 비유한 말이다. “이 노스님은 마치 닳도둑과 아주 흡사하여 누구든 입만 열었다 하면 그 눈동자를 바꾸어 놓았다.”(『碧巖錄』 30則「評唱」大48 p.169c9. 這老漢, 大似箇白拈賊相似, 爾纔開口, 便換却爾眼睛.) 『景德傳燈錄』 권12「臨濟傳」大51 p.290c22, 『雪竇語錄』 권1 大47 p.676c6, 『碧巖錄』 30則「評唱」大48 p.169c9 등에 나오는 말이다.

59) 부처님이라는 닳도둑의 속셈을 포착하는 또 하나의 닳도둑을 가리킨다. 원오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둑이라야 도둑을 제대로 알아보고, 또 하나의 썰기로써 막힌 썰기를 뽑는다.”(『圓悟語錄』 권19 大47 p.805a7. 是賊識賊, 以楔出楔.)

60)咦. 주위를 끄는 말이다. 운문의 삼자선(三字禪)이 잘 알려져 있다. “운문은 학인을 만날 때마다 뚫어저라 돌아보고[顧]는 ‘비추어 보라[鑑]’라고 하거나 ‘이(咦)!’라고 외쳤는데, 기록하는 자가 (동작과 말을 하나로 섞어서) ‘고감이(顧鑑咦)’라고 적었다.”(『人天眼目』 권2 大48 p.312b15. 師每見僧, 以目顧之, 卽日鑑, 或日咦, 而錄者日, 而‘顧鑑咦.’)

어머니 배 속에서 벌써 중생 제도를 마쳤다고 하니,  
한 대 칠 때마다 선명하게 자국이 나도록 때려주었어야 하리라.<sup>62)</sup>

長靈卓頌, “周行七步便稱尊, 家醜那堪放出門! 只向母胎度人  
畢, 也須一棒一條痕.”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늙은이가 태어나자마자 바쁘게 허둥대며,  
일곱 걸음 걷는 모습 미치광이 같았다네.<sup>63)</sup>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다가,  
눈뜬 채 당당하게 확당지옥으로 들어가네.<sup>64)</sup>

大慧杲頌, “老漢纔生便着忙, 周行七步似顛狂. 賺他無限癡男  
女, 開眼堂堂入鑊湯.”

- 
- 61) 가추(家醜)란 집안의 보기 흉한 꼴. 대체로 가풍이나 종풍을 겸손하게 지칭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세존의 언행을 그대로 허용[放]하지 않는 부정의 형식이지만, 동시에 집안의 비밀이 그것에 들어 있다는 취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말이다.
- 62) 이 말 또한 세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본분사(本分事)에 철저한 태도를 나타낸다. 장령수탁이 다른 곳에서 “그대로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長靈守卓語錄』 卍120, p.311a3, 放過卽不可.)라는 선가의 상용 구절로 나타낸 말에도 그 뜻이 들어 있다.
- 63) 미치광이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似)라는 한 글자에 숨은 맥락이며 3·4구로 이어지며 분명해진다.
- 64) 일부터 남들을 속이고, 자칭하여 그 컷값을 치르러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 일곱 걸음 걷는 기특한 행위는 남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선(禪)의 장치로서 속임수와 같다.

##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노호<sup>65)</sup>는 포태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줄도 알았다네.  
땅과 하늘을 가리키며 스스로 최고라 했으니,  
중생들은 49년 동안 그 재앙을 받게 되었네.<sup>66)</sup>

竹庵珪頌, “老胡不免出胞胎, 也解人前伊麼來. 指地指天稱第一, 衆生四十九年災.”

##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송

무우수<sup>67)</sup> 아래 금빛 몸<sup>68)</sup>으로 태어나시어,  
일곱 걸음 걸으시니 그 재주는 참신했다네.  
만나는 자들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나,  
통금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알랴!<sup>69)</sup>

---

65) 老胡. 선종에서 부처님 또는 달마대사를 가리키는 말. ‘老’는 존칭이고, 인도 출신이므로 ‘胡’라 한다.

66) 스스로 최고라 한 선언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앙이 된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이끌기 위한 시험의 기틀로 이 말을 가설했다고 보는 것이 간화선의 안목이다.

67) 無憂樹. ㉔Aśoka. 쿵과(科)에 속하는 상록교목(常綠喬木). 가로수·방풍수·관상수로 심는다. 마야(摩耶)부인이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도중, 룸비니동산에 피어 있던 이 나무의 꽃을 따려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에서 부처님을 출산하였다고 한다. 고통·근심(㉔śoka:憂) 없이 순산하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무우수라고 불렀다.

68) 주석55) 참조.

69) 주석50) 참조. 세존이 남다른 재주를 부렸다고만 알 뿐, 그 속을 간파한 사람이

白雲曷頌, “無憂樹下誕金身, 七步周行事斬新. 相見謂言侵早起, 誰知更有夜行人!”

## 석창법공(石窓法恭)의 송

인도<sup>70)</sup>에서 쑥대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중국 백만 병사를 어지럽게 흔들었다네.  
운문이 바른 법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저울 눈금<sup>71)</sup>을 실물로 착각할 뻔했노라.

石窓頌, “五天一隻蓬蒿箭, 攪動支那百萬兵. 不是雲門提正令, 幾乎錯認定盤星.”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뜻이다.

70) 오천(五天). 오천축국(五天竺國) 곧 인도를 말한다.

71) 정반성(定盤星). 저울대의 첫 번째 눈금. 곧 기준이 되는 영점(零點)이다. 저울의 눈금이 저울에 매달린 사물 자체가 아니듯이 밖으로 드러내는 언어 등의 수단과 방편은 진실 그대로가 아니다. 운문이 부처님의 언행(저울 눈금)에 숨은 뜻(실물)을 간파해 내지 않았다면 그 표피적인 측면에 현혹되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당장에 정(情)에 얽매인 분별을 털고 벗어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증득하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승(僧)은 승이고 속(俗)은 속이라. 그러나 저울 눈금을 실물로 착각해서는 안 되니 더 나아가 끈끈하게 붙은 것을 풀고 묶인 줄을 제거시켜 주는 향상의 기관(機關)이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圓悟語錄』 권 9 大47 p.751c16. 直下擺脫情識, 一念不生, 證本地風光, 見本來面目. 然後, 山是山, 水是水; 僧是僧, 俗是俗. 雖然, 莫錯認定盤星, 更須知有解黏去縛上機關, 始得.)

## 송원의 송

분명히 말하면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거늘,<sup>72)</sup>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홀로 존귀하다 말하네.

무리를 이루고 떼를 지어 남을 따라 움직이니,

자기대로 생각이 있는 사내가 몇 명이나 될까?

松源頌, “開口分明便塚根, 指天指地獨稱尊. 成群作隊隨他轉, 幾箇男兒有腦門?”

## 무진거사의 송

일곱 걸음 걷고서 하늘을 가리켰으니,

납승<sup>73)</sup>의 방(棒)에 목숨 보전하기 어렵겠네.

모태에서 나온 뒤 무슨 일을 해냈는가?

어찌 염부제<sup>74)</sup>로 내려오기 전보다 나았으랴!

---

72) 타근(塚根). 활을 쏘 때 두 발을 버티고 서는 살판이터이다. 일정한 지점이나 대상에 뿌리를 내려 근거지로 삼는 것으로 여기서는 인식의 근거를 말한다. 결정적으로 말해 버리면 그것을 인식의 근거로 삼아 집착한다는 뜻이다. “보고 듣는 대상에 뿌리를 내리고 알아차리려 하지 마라.”(『眞覺語錄』 韓6 p.20a15, 莫向見聞處塚根.)

73) 納僧. 납자(納子)라고도 한다. 납의(納衣)를 입은 스님이라는 말. 납의는 누덕누덕 기운 옷으로, 납은 형꼴을 모아 빨아서 바늘로 기운 옷이다. 스님이 자신을 겸칭하는 말로 쓰며, 조사선에서는 본분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수행자라는 뜻으로 쓰인다.

74) 閻浮提. ⑤Jambu-dvīpa. 고대 인도에서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 네 개의 주(洲) 중에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염부제(南閻浮提)라고도 한다. 섬부주(瞻部洲)·남섬부주(南瞻部洲) 등 이칭이 많다. 처음에는

無盡居士頌, “七步周行手指天, 衲僧棒下命難全. 母胎出後成何事? 爭似閻浮未降前!”

## 열재거사의 송

힘겹게 기어서 모태로부터 나오자마자,  
금빛 연꽃 위에서 곡조<sup>75)</sup>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네.  
당시에 한 박자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으니,  
모두 홀로 존귀하다는 말에 묻혀 버렸다네.

悅齋居士頌, “匍匐方纔出母胎, 金蓮花上舞三臺. 當時一拍無人會, 惣向稱尊獨處理.”

### [설화]

열재 송의 의미는 세존의 그러한 언행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 번에 두루 제접했다는 것이니, 묘한 춤이라면 반드시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뜻<sup>76)</sup>이다. 그러나 운문(雲門)의 ‘개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말과 해인(海印)의 ‘당시 달갑지 않게 여기던 자가 취모검을 빼어 들었다면, 누가 감히 앞으로 나섰으랴!’라는 말과 보령(保寧)의 ‘그 시작부터 남에게 눌러서 한바탕 희

---

인도를 비롯한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대에는 인간이 사는 세계를 염부제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75) 삼대(三臺). 악곡(樂曲)의 이름. 고대에 세 개의 대(臺)를 만들어 놓고 박수를 치고 술을 권하며 부르던 노래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곡조가 빠른 악곡을 가리킨다.

76) 원오곡근(圓悟克勤)의 말을 생략한 것. “아름다운 춤이라면 반드시 두루 박수 받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하고, 삼대의 곡조는 반드시 사대부 집안에서 열어야 한다.”(『圓悟語錄』 권2 大47 p.721b3. 妙舞應須誇遍拍, 三臺須是大家催.)

를 당했도다’라는 말은 이와는 반대되니, 딱딱하게 굳은 벽돌로 바닥까지 얼어붙은 얼음을 깨뜨리는 격이다.

悅齋意，世尊伊麼，是盡大地人，一時普接，所謂妙舞應須云云也。然則雲門與狗子喫却，海印云，當時若有不甘者云云，保寧云，末上云云，反是，焦磚打着連底凍也。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법안선사가 ‘운문의 기세는 매우 컸으나 불법(佛法)의 도리는 없다’라고 말하자 어떤 노숙이 운문을 대신하여 ‘증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한 일화를 제기하고 별도로 말했다. “의심할 것 없는 데서 걸러들었구나.” 다시 이 공안<sup>77)</sup>과 더불어 운문의 엄을 제기하고서 말했다. “곧 바로 선상을 뒤집어엎었어야 했다.” 법용이 말했다. “설두도 다른 사람의 그릇된 점만 보았을 뿐이다.”

雪竇顯，舉法眼云，‘雲門氣勢甚大，要且無佛法道理。’老宿代云，‘將謂無人證明。’別云，“鉤在不疑之地。”又舉此話，連舉雲門拈，師云，“便與掀倒禪床。”法湧云，“雪竇要且只見他非。”

#### [설화]

법안이 본분을 고수하는 운문의 지나친 엄격함을 비판했다는 뜻이다. 노숙이 대신 대답한 것은 운문을 대신한 것이다. 곧 법안이 간파한 내용을 부정한 말이다. 별도로 ‘의심할 것 없는 데서 걸러들었구나’라고 말한 것

77) 본서 2則「世尊周行」에 제시된 공안을 말한다.

은 호의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곧바로 선상을 뒤집어엎었어야 했다’라고 한 것은 운문이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뜻이며, 대체로 운문의 말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는 수법이다. 범용이 ‘설두도 다른 사람의 그릇된 점만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설두가 비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에게도 과오가 있음을 모른다는 말이니 운문을 긍정하여 세워 준 것이다.

雪竇：法眼嘖他大<sup>78)</sup>高峻生也. 老宿代云者，代雲門也，謂破法眼觀破也. 別云，鉤在不疑之地者，不是好心也. 又舉至掀倒禪床者，雲門雖然伊麼道也，須掀倒，盖不存雲門也. 法勇云，雪竇云云者，雪竇雖見他非，不知自己有過，扶起雲門也.

####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엄

“운문이야말로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같이 많은 국토<sup>79)</sup>를 받들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것이다.”

瑯琊覺拈，“雲門，可謂將此深心奉塵刹，是即名爲報佛恩.”

#### [설화]

본칙 설화 중에 이미 나왔다.

瑯琊：話中已出.

78) ‘大’는 ‘太’의 오식.

79) 찰(刹). ṛkṣetra를 음사하여 줄인 말이며, 차달라(差咀羅)·찰다라(刹多羅)·차다라(差多羅)·찰마(刹摩) 등으로 음사한다. 한역어는 토(土)·국(國)·처(處)·국토(國土)·전토(田土) 등이다.



## 금산요원(金山了元)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법안선사는 처음으로 운문의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운문이 부처님을 비방했다고 잘못 생각했으나, 이십 년 후에 알아채고서는 크게 기뻐하며 법좌에 올라 앉아 다시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의 기상은 마치 왕과 같으나,<sup>80)</sup> 불법(佛法)의 도리는 없었다.’ 운문이 이 말을 듣고 ‘나의 평생 공부가 저 절강 사람<sup>81)</sup>에게 간파당하고 말았다’라고 했다.” 금산이 평가했다. “법안이 비록 운문의 속뜻을 간파하기는 했지만, 운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나 금산이 말하겠다. ‘사마귀는 (매미를 잡으려고) 앞에서 뛰는데 참새가 그 뒤를 쫓고, 장원(莊園)에 활을 쏜<sup>82)</sup> 사람은 사냥하느라 서리에 옷 젖는 줄을 모른다.’<sup>83)</sup> 누군가 이 말을 바르게 점검해 낸다면, 나 역시 방망이 삼십 대를 맞을 잘못이 있으리라.”

金山元, 上堂, 舉此話, 連舉雲門拈, 師云, “法眼初聞, 直得通身流汗, 將謂雲門謗佛. 二十年後覩得, 身心大喜, 乃陞座舉云, ‘雲門氣宇如王, 且無佛法道理.’ 雲門云, ‘我平生功夫, 被者浙子覩破.’” 師云, “法眼雖覩破雲門, 要且扶他雲門不

80) 부처님의 언행까지 뒤집어엮는 것이 마치 왕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기개와 같다는 말.

81) 절자(浙子). 절강성(浙江省)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법안문익(法眼文益 885~958)이 그 지역 출신이기에 이렇게 칭한다.

82) 협탄(挾彈). 활을 어깨에 메는 것을 말한다. “참새는 스스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공자와 왕손들이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오른쪽 어깨에 화살을 담고 다니는 줄을 모른다.”(『戰國策』「楚策」4. 黃雀, 自以爲無患, 與人無爭也. 不知夫公子王孫, 左挾彈, 右攝丸.)

83) 주석124) 참조.

得. 金山道, ‘蟾蜍前頭走, 黃雀續後隨, 園中挾彈漢, 不覺露濕衣.’ 有人檢點得, 金山, 也有三十棒分.”

[설화]

법안이 비록 운문의 속뜻을 간파하기는 했지만, 운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반드시 운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마귀가 앞에서 뛴다’라는 말은 세존을 가리키며, ‘참새가 그 뒤를 쫓는다’는 말은 운문을 나타내고, ‘장원에 활을 쏜 사람’은 법안을 말한다. 곧 금산이 이렇게 한 말도 결코 긍정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이 말을 바르게 점검해 낸다면, 나 역시 방망이 삼십 대를 맞을 잘못이 있으리라: 자신이 앞에서 긍정하지 않은 것 또한 실(實)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sup>84)</sup> 앞에서 법안이 비록 운문을 간파하기는 했지만 운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金山: 法眼雖觀破雲門, 要且扶他雲門不得者, 要須扶起雲門也. 蟾蜍前頭走者, 言世尊也; 黃雀續後隨者, 言雲門也; 園中挾彈漢者, 言法眼也. 則金山伊麼道, 並不肯也. 有人至棒分者, 前之不肯, 亦非實義也. 前之法眼, 雖觀破雲門, 要且扶他雲門不得之義也.

84) 선사의 말은 실(實)의 표면을 가장한 허(虛)이다. 실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비판이 파고 들어올 허가 있는 셈이다. 부단하게 앞의 말을 활발하게 재생할 여지가 생기는 이유는 화두의 이러한 허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금산의 비판도 결정된 요소가 있는 단정적인 주장 명제가 아니다.

## 지해본일(智海本逸)의 상당

“이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가다국<sup>85)</sup>에서부터 소실봉<sup>86)</sup>과 조계<sup>87)</sup>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땅이 손바닥과 같이 평탄하여 본래부터 먼지 하나 없고,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기름을 뿌려놓은 듯이 미끄러우니, 누가 여기에 한 걸음인들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천 년 전에 호명(護明)이라는 보살<sup>88)</sup>이 천궁(天宮)에서 본분을 지키지 않고 도솔천<sup>89)</sup>을 떠나 염부제<sup>90)</sup>의 정반왕<sup>91)</sup> 궁전에 내려와 마야부인<sup>92)</sup>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

85) 摩竭陀國. 부처님 재세 시 인도 16대국 중 하나로, 비하르주(州) 남부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왕국. 부처님이 성도한 후 교화를 펼치던 본거지이다. 마가다국(摩伽陀國)·마갈다국(摩竭陀國) 등으로 음사하고, 무뇌해국(無惱害國)·무해국(無害國) 등으로 한역한다.

86) 小室峯. 달마가 9년 동안 면벽수행한 곳이며, 이곳에서 2조 혜가(慧可)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중국 하남성에 있다.

87) 曹溪. 육조혜능이 주석하던 곳이다. 중국 광둥성 소주에 있다.

88) 호명보살(護明菩薩). 석가모니불이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로서 도솔천에 머물렀을 때의 이름.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중생을 보호하고 그 길을 밝혀 주므로 호명(護明)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89) 兜率天. ㉔ Saṃtūṣita, Tūṣita. 지족천(知足天)·묘족천(妙足天)·희족천(喜足天)·상족천(上足天)·희락천(喜樂天) 등으로 한역한다. 육계 6천의 네 번째 하늘로서 미래에 부처가 될 보살의 거처이다. 도솔천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는데 도솔천의 내원은 장차 성불할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지금은 미륵보살이 머물면서 늘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천인(天人)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그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팔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뉘는다. 여기서의 하루는 인간계의 400년에 상당하고, 수명은 4,000세이다.

90) 주석<sup>74)</sup> 참조.

91) 淨飯王. ㉔ śuddhodana. 가비라위성(迦毘羅衛城 ㉔ Kapilavastu)의 왕으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의 생부이다.

92) 摩耶. ㉔ Mahāmāyā, 석가모니부처님의 생모.

고, 아홉 마리 용이 향수를 뿜어 금빛 몸을 목욕시켜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보니 그 집안이 큰 부자인데다 이 아이는 아주 예뻐는데, 우리 궁전에서 일곱 걸음 걷고서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이천 년이 흐르면서 여러 대의 후손들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 못했지만,<sup>93)</sup> 그중 오로지 운문선사만이 용맹하게 발분하여 ‘내가 당시에 그 광경을 보았다면, 한 방에 때려죽이고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법안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대단하신 운문이여!<sup>94)</sup>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운문이 반쯤 일으켜 세웠는데, 법안이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sup>95)</sup>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범회 중에 힘센 선객이 있는가? 좀 도와주시오.”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약 없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보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낫겠다.” 주장자를 세워 승상(繩床: 禪床)을 한 번 내리치고 “일어섰다! 지금 이후로는 보호하고 아껴서 다시는 넘어지게 하지 마라.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하겠는가?”라 하고, 다시 승상을 내리쳤다.

智海逸, 上堂云, “若論此事, 自摩竭陁國, 至小室峯前, 曹候<sup>96)</sup>

93) 아무도 부처님의 본의를 간파하여 살려내지 못했다는 뜻.

94) 대소운문(大小雲門). 운문에 대한 법안의 이러한 평가는 이 공안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景德傳燈錄』의 다른 공안에서 보인다. “운문이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강서에서 옵니다.’ 운문이 말했다. ‘강서의 한 무리 노숙들은 여전히 잠꼬대로 살고 계시는가?’ 학인은 대답이 없었다. 후에 어떤 학인이 법안에게 물었다. ‘운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말했다. ‘대단하신 운문이여! 저 학인에게 감파당하고 말았구나!’”(『景德傳燈錄』 권27 大51 p.437b16. 雲門和尚問僧, ‘什麼處來?’ 曰, ‘江西來.’ 雲門曰, ‘江西一隊老宿, 寢語住也未?’ 僧無對. 後有僧問法眼和尚, ‘不知雲門意作麼生.’ 法眼曰, ‘大小雲門! 被遮僧勘破!’)

95) 운문이 간파한 뜻을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법안이 다시 비판하여 운문의 뜻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이다.

溪上, 地平如掌, 本絕埃塵, 瑠璃所成, 滑如油潑, 誰敢於中輒措一足? 然而二千年前, 爰有菩薩號曰護明, 不向天宮守本分, 上辭兜率下降閻浮, 於淨飯王宮, 摩耶夫人右脇降生, 九龍吐水, 沐浴金軀. 旣沐浴已, 其家巨富, 此子甚嬌, 向瑠璃殿上, 周行七步, 〈至〉唯我獨尊. 自茲倒地, 逮二千年, 積代兒孫, 扶持不起, 於中, 獨有雲門禪師, 勇猛發憤道, ‘我當時, 〈至〉天下太平.’ 法眼聞之, 便謂, ‘大小雲門! 不合謗佛.’ 雲門扶得一半, 又被法眼推倒. 直至千今, 更起不得, 此會之中, 莫有大力禪客? 略請相助.” 良久云, “若無, 借人不如自下手.” 乃拈拄杖擊繩床一下云, “起也! 而今而後護惜, 莫教再倒. 智海獨力, 無如之何.” 復擊繩床.

[설화]

운문 편에 서서 운문의 긍정적인 뜻을 드러내었다.

智海: 立在雲門邊, 扶起雲門意也.

### 장산찬원(蔣山贊元)의 상당

“싯다르타<sup>97)</sup> 태자가 마야부인의 배에서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킨 다음,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며 대장부의 기개를 보여 사자후(師子吼)를 내지르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어찌

96) ‘候’는 연문(衍文)으로 보인다.

97) 싯달(悉達), ㉠Siddhārtha, 출가 이전의 부처님 이름.

‘본분사는 남들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때 온 나라 안의 사람<sup>98)</sup>이 만약 각각 훤히 알아채버렸다면, 호명대사<sup>99)</sup>는 어떤 기량을 발휘해야 했을까? 아! 근기와 인연<sup>100)</sup>이 아직 온전히 성숙되지 않았으니 어찌 선대의 부처님이 교화의 문을 세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방편을 설정하고 본보기가 되는 규범을 제시하며, 전도(顛倒)된 견해를 베풀고 임시적인 계책을 사용한 것이다. 곧 가짜 성[化城]을 열어 피로하고 궁핍해진 무리들을 끌어들이<sup>101)</sup> 격이고, 노란 잎을 쥐고 황금이라고 속여서 우는 아이를 달랜<sup>102)</sup> 격이다. 그렇게 한 뒤에는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에 부합하여 근본적인 도를 곧바로 말할 수 있었기에 마침내 부처님께

98) 솔토(率土). 솔토지빈(率土之濱)의 줄임말. 온 나라 안. 또는 온 나라 안의 사람. 『詩經』에 나오는 말이다. “온 나라 안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네.”(『詩經』「小雅 北山」. 率土之濱, 莫非王臣.)

99) 護明大士. 대사는 보살(Ś bodhi-sattva)의 한역어. 주석88) 참조.

100) 기연(機緣).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계기. 곧 주관이 갖추고 있는 바탕[機]과 객관적인 조건[緣]을 말한다.

101) 법화칠유(法華七喻) 중 네 번째인 화성유(化城喻)이다. 『法華經』 권3 「化城喻品」 大9 p.25c26 참조. 길이 험난하고 5백 유순이나 떨어져 있는 보물성에 가고자 사람들은 훌륭한 길잡이를 고용했다. 길잡이의 인솔에 따라 길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길이 너무나 험난하자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이때 길잡이는 환술로 가짜 성[化城]을 만들고 사람들을 충분히 쉬게 하여 목적지인 보물성까지 무사히 인솔할 수 있었다. 훌륭한 길잡이는 부처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중생, 환술로 만든 가짜 성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시설한 삼승(三乘), 보배가 있는 성은 일불승(一佛乘)을 상징한다.

102) 『大般涅槃經』 「嬰兒行品」에 나오는 비유이다. “아기가 마음을 쓰는 것은 이렇다. 어떤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 부모가 노란 버들잎으로 달래어 말하기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게 돈을 줄게’라고 하면 아기는 그것을 보고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치고 울지 않는 것과 같다.”(『大般涅槃經』 권20 「嬰兒行品」 大12 p.485c10. 嬰兒行者, 如彼嬰兒啼哭之時, 父母即以楊樹黃葉, 而語之言, ‘莫啼. 莫啼. 我與汝金.’ 嬰兒見已, 生眞金想, 便止不啼.)

서 다자탑<sup>103)</sup> 앞에서 (가섭에게 자신이 앉은 자리의 반을 내주었고,<sup>104)</sup> 靈鷲山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 때 가섭만이 미소 짓자<sup>105)</sup> 정법안장<sup>106)</sup>과 열반묘심을 음광존자(飲光尊者) 가섭<sup>107)</sup>에게만 전한 것이다. 이로부터 인도에서 28대조<sup>108)</sup>가 법을 계승하고, 동토<sup>109)</sup>에서 6대조가 법의 불꽃을 이

- 
- 103) 多子塔. ㉔bahuputraka-caitya. 중인도 배사리성(吠舍釐城)의 서북쪽에 있던 탑. 다자탑에 대한 설화는 여러 가지가 전하는데, 『高僧法顯傳』 권1 大51 p.862a7에는 부처님이 전생에 ‘활을 버린 곳’이라고 하여 탑을 세웠다고 하며, 『辟支佛因緣論』 권하 大32 p.477b25에는 60명의 자식들이 각각 결혼하여 우비고락(憂悲苦樂)을 일으키는 것을 관한 어떤 장자가 벽지불도를 증득하자 그 권속들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 104) 다자탑전반분좌(多子塔前半分座). 가섭이 선종 전등의 초조(初祖)가 된 근거인 삼처전심(三處傳心) 중 하나이다. 위경(僞經)인 『大梵天王問佛決疑經』 권상「初會法付囑品」 卍87 p.606b17에 이 일화가 보인다.
- 105) 염화미소(拈花微笑). 삼처전심 중 하나. 영취산 설법에서 부처님이 꽃송이 하나를 들어 보이자, 제자들이 모두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하는데 가섭만이 미소 지은 일화에 근거한다. 본서 5則「世尊拈花」 참조. 위경(僞經)인 『大梵天王問佛決疑經』 권상「初會法付囑品」 卍87 p.606a6에 보인다.
- 106) 正法眼藏.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눈. 선종의 초조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지혜의 눈. ‘정법’은 최상의 진리, ‘안’은 그 정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눈, ‘장’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 줄여서 ‘정법안’이라고도 한다.
- 107) 迦葉. ㉔Mahākāśyapa. 대가섭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명. 가섭은 씨족 명에 해당하며, 음광이라고 한역한다. 대가섭은 인도 마가다국(摩伽陀國) 왕사성에서 바라문 출신으로 태어났다. 항상 거친 옷과 거친 음식에 만족하고 일편단심으로 수행에 몰두할 뿐 아니라 엄격한 계율로 두타행(頭陀行)을 하였고, 교단의 수제자로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부처님이 입멸한 후에는 오백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아난(阿難)과 우바리(優婆離)에게 계율(經律)을 결집하도록 하였다.
- 108) 사칠(四七). 초조 가섭으로부터 보리달마에 이르는 28대 조사가 있었다는 설은 801년(정원17) 성립된 최초의 전등록인 『寶林傳』에서 완성되었고, 그 뒤에 간행된 전등록도 대체로 이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 109) 東土. 중국. 인도를 서천(西天)이라 부르는 말에 대한 대칭어.

있던 것이다. 천자의 가마[大駕]가 느림하게 가는 길에 온갖 샷된 샷길이  
어찌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득히 흐르는 근원의 물이 모든 갈래 물길로  
통하다가 어찌 바다에 모이지 않겠는가?”

蔣山元, 上堂云, “悉達太子, 纔離母胎, 一手指天, 一手指地,  
周行七步, 目顧四方, 剖丈夫志, 作師子吼言, ‘天上天下唯我  
獨尊.’ 豈非其事, 不從他得? 此時, 率土之人, 若能各各曉悟  
去也, 且護明大士, 更作什麼伎倆即得. 噫! 奈以機緣未濟, 不  
免立先佛化門? 設歐和, 垂軌範, 施顛倒知見, 用權假機謀, 開  
化城, 接疲乏之徒; 握黃葉, 誘悲啼之子. 爾後, 人符諦信, 道  
可昌言, 遂於多子塔前, 以至正法眼藏涅槃妙心, 獨付飲光尊  
者. 自此西天繼踵四七, 東土續焰二三. 得不大駕崢嶸, 截群邪  
之異徑; 眞源渺漫, 通萬派以朝宗?”

[설화]

장산은 세존 쪽에 서서 세존의 뜻을 일으켜 세웠다.

蔣山, 立在世尊邊, 扶起世尊意也.

## 보림본의 상당

“갠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은 고금의 방편 중에서 가장 기  
괴한 것은 바로 부처님<sup>110)</sup>이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로  
지 나만이 존귀하다’ 라고 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방편을 내  
세우면서 마치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방자했다. 그가 입

110) 노호(老胡). 주석(65) 참조.



을 열기 이전에는 남들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막상 하나의 소식을 입 밖으로 드러내었을 때는 용의 머리에 뱀 꼬리를 단 것처럼 끝이 초라하게 되고 말았다.<sup>111)</sup> 이제 그대들과 함께 마지막 구절<sup>112)</sup>을 끊어 없애고, 그 말과는 다르게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 말<sup>113)</sup>을 던져 세상의 부처님 후손들이 모두 막힌 숨을 터뜨리도록 한다면, 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살펴보라!”라 하고 법좌에서 내려왔다.

寶林本, 上堂云, “古今方便, 如恒河沙, 最奇怪者, 是老胡纔生下, 至唯我獨尊. 然則一期方便, 大似傍若無人. 看他未開口已前, 不妨教人疑着, 及乎吐露箇消息, 便乃龍頭蛇尾. 而今與伊截却末後句, 別着一轉語, 令天下兒孫, 大家出氣, 豈不快哉!” 乃顧視左右云, “看, 看!” 便下座.

#### [설화]

운문의 의중과 비슷하지만 운문의 의중과 다른 점도 있어서 그 뜻이 한없이 깊고 넓다.<sup>114)</sup>

- 
- 111) 그 말은 기특하고 신비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 112) 말후구(末後句). 마지막 구절 또는 궁극적 진리를 나타내는 한마디. 여기서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말을 가리킨다. 이 말을 끊어 없애고 당사자의 선기(禪機)를 드러내는 것이 선사로서의 본분이다.
- 113) 일전어(一轉語).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한마디의 선어(禪語)를 가리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이 굴레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한마디를 나타낸다.
- 114) 직득무한(直得無限). 이 말은 <설화> 특유의 용어이며, 상황에 따라 약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모든 언어와 분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 것, 뜻이 한없이 깊고 넓은 것, 모든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가 된 것 등의 의미를 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살펴보래”고 한 말: 세존께서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寶林：義似雲門意，亦非雲門意，直得無限也。乃顧視左右云  
看看者，世尊云唯我獨尊，此則諸人分上也。

### 운봉문열(雲峯文悅)의 엄

“운문에게는 비록 혼란을 평정하는 계책은 있었지만, 엄매인 몸을 벗어  
나는 통로<sup>115)</sup>는 없었다.”<sup>116)</sup>

雲峯悅拈，“雲門，雖有定亂之謀，且無出身之路。”

[설화]

글에 나타난 대로 뜻을 알 수 있다.

雲峯：文見可知也。

타낸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의미이다.

115) 출신지로(出身之路). 이 화두의 난관을 뚫고 나가 자유롭게 되는 길. 일반적으로 어떤 속박을 벗어나는 길을 말한다.

116) 운문이 비록 ‘개의 먹이로 주겠다’라는 극언으로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화두에서 오는 혼란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온전히 그 화두의 난관을 타개하는 통로를 열어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열은 이 말 다음에 “만약 이 뜻을 가려낸다면 그 사람은 정수리에 진리를 보는 하나의 눈이 붙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列祖提綱錄』 권4 卍112 p.217a5, 『雲峰語錄』古尊宿語錄40 卍118 p.675a3. 若也辯得，許你頂門具一隻眼。)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말 또한 하나의 화두로 제시했다.

## 능담홍영(渤潭洪英)의 엄

“석가노자는 마치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다고 할 만하다. 그때 만약 밝은 눈의 납승<sup>117)</sup>과 마주쳤다면, 그가 석가노자를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문도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sup>118)</sup>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동사라<sup>119)</sup>에 기름을 가득 담아야 한다.<sup>120)</sup>” 묘희<sup>121)</sup>의 착어.<sup>122)</sup> “귀하다면 귀하고 천하다면 천하다.”

渤潭英拈, “釋迦老子, 可謂傍若無人. 當時, 若遇明眼衲僧, 直教他上天無路, 入地無門. 然雖如是, 也須是銅沙羅裏盛油, 始得.” 妙喜着語云, “可貴可賤.”

- 
- 117) 衲僧. 어떤 권위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선 수행자. 납자(衲子)라고도 한다. 주석73) 참조.
- 118)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킨 행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 그 어떤 방위로도 통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막았을 것이라는 뜻.
- 119) 銅沙羅. 동으로 만든 사라. 사라는 사라(沙羅)라고도 쓴다. 징과 같이 생긴 타악기의 일종으로 세수하는 도구로도 쓴다.
- 120) 암두(巖頭)의 말. 분양(汾陽)이 이 말에 평석을 붙이면서 널리 회자되었다. “어떤 학인이 암두에게 물었다. ‘번뇌의 경계 속에서 어떻게 주인공을 가려내니까?’ ‘동사라 안에 기름을 가득 담았다.’ 분양이 평가한다. ‘번뇌의 경계 속에서 주인공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천만 사람 중에서 이 도리를 알아차릴 사람이 거의 없다. 동사라에 담긴 기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청정하니, 그것이 그대들의 눈에 박힌 망상의 못을 뽑아 주리라.’”(『汾陽語錄』 권중 大 47 p.611b19. 僧問巖頭, ‘塵中如何辨主?’ 巖云, ‘銅砂羅裏滿盛油.’ 塵中辨主最難明, 千萬人中少一惺. 銅砂羅油今古淨, 與君拔却眼中釘.)
- 121) 妙喜. 대혜종고(大慧宗杲)의 호. 운문(雲門)이라는 호도 있다.
- 122) 着語 또는 著語. 선(禪)의 정취가 들어 있는 짧은 해설을 붙이는 것.

[설화]

반은 수궁하고 반은 수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sup>123)</sup> 그러므로 묘희가 “귀하다면 귀하고 천하다면 천하다”라고 착어한 것이다.

泐潭義, 半肯半不肯也. 故妙喜著語云, “可貴可賤.”

법진수일(法眞守一)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설두·법용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몇몇 선사들은 마치 사마귀가 자기 앞에 있는 매미를 잡으려 하면서 뒤에서 참새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줄 모르고, 참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마귀를 잡으려 하지만 뒤에서 사냥꾼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줄 모르는 것과 같다.<sup>124)</sup> 알겠는가? 해마다 또 다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겠지만, 어지럽게 혼드는 봄바람은 결코 그치지 않으리라.<sup>125)</sup>”

法眞一, 舉此話, 連舉雲門雪竇法湧拈, 師云, “者幾箇漢, 恰

123) 전적으로 긍정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긍정과 부정 어느 편에도 안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화두의 특징을 나타낸다. 곧 귀와 천을 허용하는 듯하지만 귀·천 어느 편 선택도 허용하지 않는다.

124) 『莊子』 「山木」과 『說苑』 등에 나오는 이야기를 선의 맥락에서 활용한 것. 이슬을 먹으려는 매미는 뒤에 사마귀가 노리는 줄을 모르고, 사마귀는 또한 자기를 노리는 참새가 있음을 모르고, 참새는 자신을 겨누는 활잡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한 사람의 송이나 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이 비판을 또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끌어 들였다. 하나의 공안에 대하여 어떤 단정적·결론적 평가도 있을 수 없다.

125) 앞의 주석에 나타난 취지와 같은 뜻이다. 새롭게 핀 가지를 혼드는 봄바람이 매년 반복되듯이 새로운 평가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 또한 다른 하나의 선어(禪語)로 허물어진다는 뜻이다. 해마다[年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문헌에 다음 해[來年]로 되어 있다. 본서 65則 주석10) 참조.

似蟪蛄捕蟬于前，不知黃雀在其後；黃雀捕蟪蛄于前，不知挾彈者在其後。還知麼？年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설화]

법진이 제기한 말 또한 글에 나타난 대로 알 수 있다. 위에서 금산이 보여준 뜻과 같다.

法眞舉，亦文見可知。上金山意同。

## 해인초신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의 평가를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대사는 있는 힘을 다해 말했지만, 전체의 반만 말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칼을 차고 자신의 죄상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sup>126)</sup> <참!><sup>127)</sup>

海印信，上堂，舉此話，連舉雲門拈，師云，“雲門大師盡力道，只道得一半。然雖如是，也是擔枷過狀。”<參!>

126) 표면적으로는 세존의 언행 전체를 부정한 듯하지만 긍정의 뜻을 숨기고 있으므로 ‘반만 말했다’라고 한다. 해인은 운문의 부정에서 이 남은 반 토막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담가과장(擔枷過狀)이란 죄인이 목칼을 차고 자신의 죄상을 적은 서찰을 건네준다는 뜻으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 그 부정 속에 자신도 모르게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경우를 가리킨다.

127) 參. 할(喝)·돌(咄) 등과 같은 말. 한 소리 크게 내질러 주의를 촉구하는 용도로 쓰인다. 여기서는 편집자가 해인초신의 평가를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쓴 말이며, 해인초신의 말은 아니다.

[설화]

해인은 운문의 평가를 수궁한 것인가, 수궁하지 않은 것인가?<sup>128)</sup> 아래 나오는 정자·불타·보령의 상당법어는 세존께서 보이신 언행의 자취에 대해 전적으로 그 안목을 긍정적으로 떠받든 것이다.

海印：肯雲門不肯雲門？下淨慈佛陁保寧上堂，世尊行李處，  
盡力扶見也.

### 정자본의 상당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뛰어난 방편으로 교화의 문을 베풀었는데, 이치에 따라 헤아려 보면 다만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2천 년 전 무우수(無憂樹) 아래서 모태로부터 나오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천계(天界)와 인계(人界)의 중생들은 부처님이 전한 이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4월 8일에 여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말할 뿐이었으니, 그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겠는가? 어찌 다음과 같은 말을 모르는가? ‘만약 색신(色身)으로써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샅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여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것이다.’<sup>129)</sup> 이렇게 색신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찾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라!”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당하게 삼계(三界)를 벗어났으니, 누가 법 중의 왕<sup>130)</sup>을 분별해 낼 것인가?”

128) ‘반만 말했다’라고 한 말이나 ‘자신의 죄상을 스스로 고백했다’라고 한 말이나 운문의 부정이 전적으로 세존을 부정하려는 의도만은 아니라는 동일한 뜻이다.

129) 『金剛經』大8 p.752a17.

淨慈本, 上堂云, “諸佛出世, 巧設化門, 據理而推, 只要令人悟去. 二千年前, 於無憂樹下, 纔出母胎, 便乃周行七步, 至唯我獨尊, 諸天世人, 不會他者箇消息, 便道‘四月八日, 如來降生,’ 還識佛也未? 豈不見道?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既不許色見聲求, 且道, 他家在什麼處?” 良久云, “堂堂三界外, 孰辦法中王?”

### 불타덕손(佛陀德遜)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에게 장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견해가 한편으로 치우친 것을 어찌하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올 때도 중생을 위해 왔고, 갈 때도 중생을 위해 갔다’<sup>131)</sup>라고 말하리라.” 불자로 선상을 쳤다.

佛陀遜, 上堂, 舉此話云, “雲門不道無長處, 爭奈見解偏枯! 山僧卽不然, 來爲衆生來, 去爲衆生去.” 以拂子擊禪牀.

130) 법중왕(法中王), 생각으로 알아맞히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법, 세간의 가장 높은 지위에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위력을 발휘하는 왕의 본질로써 법을 비유한 말이다. 또는 법왕(法王) 곧 부처님을 가리킨다. “왕 중에서 법왕의 지위는 모든 왕의 최상에 있으므로 법 중의 왕이라 한다. 삼계를 훌쩍 넘어서고 우주를 홀로 거닐므로 가장 높고 뛰어나다고 한다.”(『證道歌事實』 권3 韓6 p.157c1. 王中法王, 位過百王之上, 故云, 法中王也. 高超三界, 獨步大方, 故云, 最高勝也.)

131) 해인초신이 운문의 부정에서 포착한 긍정과 같은 맥락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말도 부정에 숨은 긍정이라는 반쪽을 보여주기 위한 복선이며, 운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상당

“석가노자는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땅은 드넓고 사람은 드물어 마주친 자가 거의 없었다. 마침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인가가 적은 마을에서 이리저리 헤아리다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말했다. 선조가 당대에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면, 그 재앙이 자손에게 미치는 법이다.<sup>132)</sup>” 법좌에서 내려와 손으로 선상을 밀고서 대중에게 말했다. “30년 뒤<sup>133)</sup>에 이 말을 잘못 들먹여서는 안 된다.<sup>134)</sup>”

保寧勇，上堂云，“釋迦老子，初生下時，周行七步，目顧四方。當伊麼時，土曠人稀，相逢者小。遂以一手指天一手指地，三家村裏，東卜西卜，便道，‘天上天下，唯我獨尊，’祖禰不了，殃及子孫。”下座，以手托禪床，却召大眾云，“三十年後，不得錯舉。”

132) 모두 마친 말 또는 결말을 맺은 말은 관문이 되지 못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 그 어떤 진실이 드러나 있다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 분별한다면 ‘마치지 않은’ 이 말에 현혹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여 화두로서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재앙이 미친다’는 말은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온전히 답습하여 착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133) 수행하여 깨닫는 시기를 말한다. 보살이 발심하여 성불할 때까지 3아승기(阿僧祇  $\textcircled{\text{S}}$  asanḱjeyya-kalpa,  $\textcircled{\text{P}}$  asanḱheyya-kalpa) 백대겁(百大劫)의 수행이 요구된다는 말에서 변형된 것이다.

134) 30년 뒤 법좌에 올라 설법하는 지위가 되었을 때, 세존의 말씀이 ‘결말을 맺은 말’이 아니라 화두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학인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원통원기(圓通圓機)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삼계 전체를 속이고<sup>135)</sup>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다고 할 만하다.<sup>136)</sup> 가장 좋았던 대응은 운문이 나와서 ‘한 방에 때려죽이고 개에게 먹이로 주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이다. 이 두 성인은 건화문<sup>137)</sup>에서 보면 좋기는 매우 좋고 아름답기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본분사<sup>138)</sup>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면 여전히 한 수<sup>139)</sup>가 부족하다.<sup>140)</sup> 대중에게 묻겠다. 본분사란 무

135) 부처님의 화두 자체가 속이는 말이 아니라 모든 화두는 본래 어떤 의미와 관념도 없는 허(虛)한 장치로서 설정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실(實)한 것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속인다는 표현은 화두의 이러한 속성을 나타내는 상투적인 말이다.

136) 원통원기선사 자신이 화두의 장치를 간파했다는 뜻이다.

137) 建化門.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설정한 문. 어떤 방편도 용납하지 않는 본분사(本分事)의 입장과 대립한다. “건화문의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납승의 본분에서는 그 어느 것과도 상관이 없다.”(『五燈全書』 권94 「武攸雲海晏章」 卽141 p.870a13. 若在建化門頭, 有何不可? 衲僧分上, 總沒交涉.)

138) 本分事. 납승(衲僧)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경지. 납승본분사(衲僧本分事) 또는 납승분상사(衲僧分上事) 등이라고도 한다. 일대사(一大事)를 표현하는 선종의 특수한 용어이다.

139) 일착(一着·一著). 바둑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와 같이 본분을 나타내는 그 무엇을 말한다.

140) 건화문과 본분사를 적재적소에 발휘하는 것이 종사의 수단이다. “공적인 일로는 바늘 들어올 틈 하나도 허용하지 않지만, 사사롭게는 수레와 말도 통과시킨다. 옛사람은 향상하는 길을 본분사로 삼지만, 건화문에서는 자세하게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르친다. 자각(慈覺)선사가 말했다. ‘유위는 비록 일시적 방편[偽]이지만 버리면 공을 이루지 못하고, 무위는 비록 진실 그 자체[眞]이지만 가지려 하면 성과(聖果)를 얻지 못한다.’”(『請益錄』 10則 「評唱」 卽117 p.822b10. 官不容針, 私通車馬. 古人, 以向上路爲本分事, 以建化門頭曲爲今時. 慈覺道, ‘有爲雖偽, 棄之則功行不成; 無爲雖眞, 趣之則聖果難剋.’)

엇인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원앙 문양의 지수를 내놓고 아무나 보도록 해도 되지만, 수를 놓을 때 사용한 금침(金針)은 누구에게도 건네 주지 마라.”<sup>141)</sup>

圓通璣, 上堂, 舉此話云, “可謂欺視三界, 傍若無人. 最好是雲門出來道, 至天下太平. 然, 此二古聖, 於建化門中, 善則善矣, 美則美矣. 若於本分事中, 檢點將來, 猶欠一着在. 敢問大衆. 作麼生是本分事?” 良久云, “鴛鴦繡出從教看, 莫把金針度與人.”

[설화]

원통의 뜻은 위에서 설두가 “선상을 뒤집어엮었어야 했다”라고 한 취지와 같다.

圓通義, 上雪竇掀倒禪床之意也.

### 승천회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말해 보라! 어떤 도리를 갖추었기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앞을 쳐다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기 때문일까? 대중들은 판단해 보라. 만약 제대로 판단한다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뿐만 아니라 삼천세계<sup>142)</sup>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국토 그 어디서나 홀로 존

---

141) 앞 구절은 건화문, 뒤 구절은 본분사에 상응하지만, 나타내려는 의중은 뒤 구절에 있다. 황룡혜남(黃龍慧南) 등이 사용한 말이다. 『黃龍語錄』 大47 p.637a22 참조.

142) 주석45) 참조.

귀하여 비교할 상대도 없고 어울릴 짝도 없을 것이다. 만약 판단하지 못한다면, 무리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것 또한 본분이다. 왜 그런가? 앞서 간 성인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자기 몸의 실상을 관찰 하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이 관찰하라.’<sup>143)</sup> 비록 그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반드시 정법(正法)을 보는 눈<sup>144)</sup>을 갖추어야 비로소 관찰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법을 보는 눈이란 어떤 것인가?” 마침내 불자로 법좌를 치면서 말했다. “휘두르는 방(棒)에 태양처럼 밝은 눈이 달려 있다.<sup>145)</sup> 순금의 진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단련시키는 용광로 속을 살펴 보라.<sup>146)</sup>”

143) 『文殊般若經』 권1 大8 p.728a28, 『仁王經』 권상 大8 p.836a23, 『維摩經』 권하 大14 p.554c29 등에 나오는 구절.

144) 정법안(正法眼).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도 한다. 불법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을 말한다. ‘장’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뜻이다. ‘임제선사가 막 입적하려고 할 때 자리를 잡고 앉아 말했다. ‘내가 사라진 다음에 나의 정법안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삼성이 나와서 말했다. ‘어찌 화상의 정법안장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제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묻는다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느냐?’라고 묻자 삼성이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임제가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나귀 편에서 소멸되리라는 사실을 누가 알까?’라는 말을 마친 다음, 곳곳이 앉아 입적했다.”(『臨濟語錄』 大47 p.506c3. 師臨遷化時, 據坐云, ‘吾滅後, 不得滅却吾正法眼藏.’ 三聖出云, ‘爭敢滅却和尚正法眼藏.’ 師云, ‘已後有人問爾, 向他道什麼?’ 三聖便喝. 師云, ‘誰知吾正法眼藏, 向這瞎驢邊滅却?’ 言訖端然示寂.) 주석106) 참조.

145) 조사선에서 방은 할(喝)과 함께 언어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본분을 펼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화두에서 길으로 표현된 거창한 허언(虛言)에 정법안이 숨어 있다. 곧 길말에 현혹되지 않고 단적인 본분을 드러내는 방·할과 같은 정법안을 포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화두와 같이 몰자미(沒滋味)한 뜻으로 제시되며,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휘두르는 눈먼 사이비 선사들의 방과 같지 않다. “깊은 도에 통하려는 그대들에게 알리노라. 방·할은 시기적절하게 나와야 한다. 만일 단적인 뜻을 밝힌다면 한밤중에 태양이 빛나리라.”(『人天眼目』 권1 大48 p.302b16. 報汝通玄土, 棒喝要臨時. 若明端的旨, 半夜太陽輝.)

承天懷，上堂，舉此話云，“且道！具什麼道理，便能如斯語話？爲復不瞻前顧後耶？爲復傍若無人耶？大衆，試斷看。若斷得，非唯天上天下，便乃三千世界微塵國土，獨尊獨貴，無比無儔。若斷未得，且於行間往來，亦是本分。何故？豈不見先聖道？‘觀身實相，觀佛亦然。’然雖如是，也須具正法眼，方解觀得。且作麼生是正法眼？”遂擊拂子云，“棒頭有眼明如日。要識眞金火裏看。”

[설화]

서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의 본분사(本分事)이니, 유독 석가노자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承天：立處在諸人分上事，非獨釋迦老子如是也。

## 원오극근의 염

무리를 놀라게 하는 말은 반드시 무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 보여야 하고, 기특한 일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는) 기특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집어내야 한다. 석가노자는 무리를 놀라게 했다고 할 만하고, 운문대사는 대단히 기특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이 자유로운 기틀을 모든 성인의 정수리에서 굴렸던 것이다.<sup>147)</sup> 만약 이와

146) 황금은 용광로 불에 단련되어야 더욱 순수한 금으로 변한다. 불과 물이라는 상반되는 곳을 반복하여 출입하며 순금으로 단련되듯이 반을 드러내고 반을 숨기는 장치를 간파해야 이 화두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상의 두 구절은 『雪竇語錄』 권1 大47 p.670b18, 『圓悟語錄』 권11 大47 p.765a1 등에 나온다.

147) 자유로운 기틀은 기륜(機輪)을 번역한 말로서 각자가 발휘하여 나타내는 기틀을 바퀴에 비유한 말이다. 마치 바퀴가 어디나 자유롭게 굴러가듯이 상황에 맞

같이 사무치게 이해한다면 비로소 부처님은 요충이 되는 통로를 단단히 지키고 있었고<sup>148)</sup> 운문은 그러한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알았다<sup>149)</sup>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해 보라! 운문의 말<sup>150)</sup>은 어디에 귀착되는가? 알겠는가? 휘두르는 방(棒)에 태양처럼 밝은 눈이 달려 있다. 순금의 진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단련시키는 용광로 속을 살펴보라.

佛果勤拈, “驚群之句, 須向驚群處舉揚; 奇特之事, 須遇奇特人拈出. 釋迦老子, 可謂驚群; 雲門大士, 不妨奇特. 直下以不可測度底機輪, 向千聖頂顛上撥轉. 若能伊麼體會, 始知釋迦把斷要津, 雲門知恩解報. 且道! 雲門落在什麼處? 還會麼? 棒頭有眼明如日, 要識真金火裏看.”

[설화]

석가모니와 운문이 입각한 근거는 다른 점이 없었다는 뜻이다.

佛果：釋迦雲門立處, 未嘗有異也.

게 자신의 본분을 걸림 없이 발휘하는 것을 가리킨다.

148) 파단요진(把斷要津). ‘요진’은 강을 건너 통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나루터이며, ‘파단’이란 이곳에 가로막고 서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킨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탄생하면서 일곱 걸음 걸은 행위가 이처럼 누구나 통과하도록 설정된 언행이 아니라 아무도 통과할 수 없게 만든 ‘관문’이었음을 나타낸다.

149) 지은해보(知恩解報). ‘개에게 먹이로 주겠다’라고 한 운문의 말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관문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대응한 또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뜻이다.

150) 이 평가가 나오는 『圓悟語錄』 권17 大47 p.792c24에는 ‘운문’이라는 말은 없다. 이 경우 운문의 말이 어디에 귀착되는지를 묻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부처님과 운문을 모두 제기하여 그 궁극적인 뜻을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혜종고의 평

“궁극적인 한 구절<sup>151)</sup>은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별거벗은 알몸을 모조리 드러내었으니, 하늘과 땅 그 어디에나 있고 소리와 색이 모두 그것이다. 황면노자<sup>152)</sup>는 이 결정적인 하나의 소식을 얻고서 ‘도솔천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였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 제도를 벌써 마쳤다’ 라고 했던 것이다.<sup>153)</sup>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세계의 그물<sup>154)</sup>을 진동시키고 곧바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자의 포효와 같이 큰소리를 내지른 다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성취하기 위하여 중생에게 불지견<sup>155)</sup>을 열고, 불지견을 드러내며,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151) 말후일구자(末後一句子). 주석112) 참조.

152) 본서 1則 주석27) 참조.

153) 『大慧語錄』 권8 大47 p.842c8.

154) 세계망(世界網). 『華嚴經』에 나오는 용어로 하나하나의 세계가 모두 그물처럼 중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화엄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계의 그물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하나의 세계가 마치 그물코와 같이 서로 교차하여 연결된 모습을 가리킨다. 마치 그물이 중황으로 엮갈려 이어진 형태로 유지되며 모두 다른 것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다.”(『華嚴經疏』 권12 大35 p.584a19. 言成世界網者，一一世界，猶如網孔，遞相接連，如以網持橫，堅交絡，皆悉相當.)

155) 佛知見. 모든 법의 실상과 미묘한 이치를 아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견해. 여기서 제시된 것은 4가지 불지견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적인 이유인 일대사인연이다. 곧 부처님이 중생의 무명을 제거하고 실상(實相)을 열어주며[開], 무명의 장애가 걷히고 법계의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示], 법의 본질을 깨달아 구체적인 현상과 걸림 없이 모두 통하게 하며[悟],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법의 본체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入]을 말한다. 『法華經』 권1 「方

불지견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천 년 뒤에 절름발이 스님<sup>156)</sup>에게 ‘한 방에 때려죽여서 개의 먹이로 주고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줄은 전혀 몰랐다. 말해 보라! 석가노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거창하게 말했기 때문일까? 남의 집 자식들을 미혹시키고 우롱하지 말았어야 했던 탓일까? 아니면, 불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일까? 만약 이와 같이 해아린다면, 석가노자를 비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운문대사의 본의를 등지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이르러 운문의 말이 귀착되는 경계를 알아차린다면 자기 자신이 귀착되는 경계도 알게 될 것이다. 말해 보라! 결국 어느 곳에 귀착되었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변함없는 푸른 연못에 허공의 달이 잠겼는데,

---

便品」大9 p.7a21에 “모든 부처님은 오로지 일대사인연을 실현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셨다.”(諸佛世尊, 唯以一大事因緣故, 出現於世.)라는 말에 따르며, 『法華玄義』 권8하 大33 p.787c9 등에 4불지견이 해설되어 있다.

- 156) 운문문언(雲門文偃)을 가리키는데, 다음의 일화에서 생긴 말이다. “목주(睦州)는 평소 학인을 대할 때에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바로 먹살을 움켜쥐고는 ‘말해 보라! 말해 보라!’고 하였으며 머뭇머뭇하며 말하지 못하면 바로 밀쳐내면서 ‘진나라의 탁력찬 같은 놈이로다’라고 하였다. 운문이 목주를 만나러간 지 세 차례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문을 두드리자마자 목주가 ‘누구냐?’고 물었다. ‘문언(文偃)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목주는 운문의 먹살을 움켜쥐고는 ‘말해 보라! 말해 보라!’라고 하였다. 운문이 머뭇거리자 곧바로 문 밖으로 밀쳐버렸다. (운문이 미처 발을 떼어 다 나오지 못하여) 한쪽 발이 문지방 안쪽에 있는데 목주가 문을 급하게 닫는 바람에 운문의 다리가 문틈에 끼어 부러지고 말았다. 운문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홀연 크게 깨쳤다.”(『碧巖錄』 6則 大48 p.145c16. 尋常接人, 纔跨門便擡住云, ‘道! 道!’ 擬議不來, 便推出云, ‘秦時轆轤鑽.’ 雲門凡去見, 至第三回. 纔敲門, 州云, ‘誰?’ 門云, ‘文偃.’ 纔開門便跳入, 州擡住云, ‘道! 道!’ 門擬議, 便被推出門, 一足在門闥內, 被州急合門, 拶折雲門脚. 門忍痛作聲, 忽然大悟.)

두 번 세 번 건져보고서야 비로소 달그림자임을 알았노라.”<sup>157)</sup>

大慧杲云, “末後一句子, 聲前露保保, 盖天盖地, 盖聲盖色. 黃面老子, 得箇一着子, 便道‘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 及至初生, 卽震動一切世界網, 便一手指天一手指地, 作大師子吼道, ‘天上天下, 唯我獨尊!’ 爲一大事因緣故, 開佛知見, 示佛知見, 悟佛知見, 入佛知見. 殊不知, 數千年後, 被箇跛脚阿師, ‘要一棒打殺, 與狗子喫, 貴圖天下太平.’ 且道! 釋迦老子, 過在什麼處? 莫是指天指地開大口麼? 莫是不合鼓弄人家男女麼? 莫是開示悟入佛知見麼? 若伊麼商量, 不唯謗他釋迦老子, 亦乃辜負雲門大師. 到者裏, 若知雲門落處, 卽知自己落處. 且道! 落在什麼處?” 良久云, “萬古碧潭空界月, 再三撈摭始應知.”

#### [설화]

대혜가 ‘궁극적인 한 구절’이라 운운한 말은 1칙 ‘도술 화두’에 나온 원오극근의 송 의미와 같은 종류이며, 또한 2칙에 나온 승전회의 상당에 제시된 의미와 같은 종류이다.

大慧云, 末後一句子云云, 前兜率話中, 圓悟勤頌義一般, 亦承天上堂義一般也.

157) 이 구절은 선어록에 많이 등장하지만, 대혜의 말은 화두 참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운문의 말은 허공에 뜬 실재의 달이 아니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그가 드러낸 말은 어떤 개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개념에 기초하여 분별을 거듭해도 그 본의를 건져 올릴 수 없고, 결국 그러한 수단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본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汾陽語錄』古尊宿語錄10 卮118 p.269b1, 『白雲守端和尚語』續古尊宿語要3 卮118 p.951a2, 『圓悟語錄』권9 大47 p.755b29, 『宏智廣錄』권4 大48 p.39b22 등에 나온다.



## 백운지병의 염

“운문의 저울<sup>158)</sup>은 보통 사람들의 표준<sup>159)</sup>을 멀리 벗어나 있으니, 마치 용이 물을 지배하고 호랑이가 산에 군림하는 것과 같아서 아름답기는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그도 더 높이 오르는 유일한 통로는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밝은 눈을 가진 납자(衲子)들은 분별하여 보기 바란다.”

白雲曷拈, “雲門稱提, 超出人表, 如龍得水, 似虎靠山, 美則美矣. 要且, 未知向上一竅在, 明眼衲僧, 試請辨看.”

### [설화]

향상하는 유일한 통로는 어찌 설두가 “선상을 뒤집어엮었어야 했다”라고 한 뜻이 아니겠는가!<sup>160)</sup>

白雲：向上一竅，豈非雪竇掀倒禪床處！

158) 칭제(稱提). 권형(權衡)과 같은 말. 운문이 진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창안한 위의 화두를 가리킨다. 그 화두로 점검하는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저울’이라 한다.

159) 인표(人表).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상식적인 인식의 틀.

160) 운문이 비록 용과 호랑이가 물과 산에 주인으로 살면서 다른 누구도 그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듯이 몰자미한 화두로 모든 분별을 차단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뒤집어엮는 선기(禪機)를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 5칙 世尊拈花 세존엄화





## 5칙 세 존엄화 世尊拈花<sup>1)</sup>

### [본칙]

세존께서 영산(靈山)에서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 오듯이 내렸다. 세존께서 마침내 꽃을 집어 대중에게 보이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 세존께서 말씀했다. “나에게 정법안장이 있으니 그것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어떤 본에는 ‘세존께서 청련목<sup>2)</sup>으로 가섭을 돌아보자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다.〉

世尊在靈山說法，天雨四花。世尊遂拈花示衆，迦葉微笑。  
世尊云，“吾有正法眼藏，付囑摩訶迦葉。”〈一本，世尊，以青蓮目  
顧視迦葉，迦葉微笑。〉

### [설화]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 오듯이 내렸다: 『법화경』의 구절

- 1) 세존께서 꽃을 든 엄화(拈花)와 가섭이 그에 화답한 미소(微笑), 이 단적인 두 가지 사실에 이 공안의 모든 요소가 드러나 있으므로 그것에 덧붙여지는 것은 모두 헛된 분별로 귀결된다.
- 2) 青蓮目. 푸른 연꽃과 같은 눈. 세존의 32상(相) 중 하나인 연목상(蓮目相)을 나타낸다. 이것은 진청안상(眞靑眼相 𑖀abhinīla-netra)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눈은 감청(紺靑)의 색깔로 청련화와 같으므로 이렇게 비유한다. 『大智度論』 권11 大25 p.141c4, 『大乘義章』 권20 大44 p.874c14 참조.

을 요약했다.<sup>3)</sup>

나에게 정법안장이 ~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 『열반경』의 구절을 요약했다.<sup>4)</sup>

꽃을 집어 대중에게 보이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拈花微笑] : 경전의 문구를 요약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경전이나 논서에는 상응하는 문구가 없는가?<sup>5)</sup>

3) 『法華經』의 경문은 다음과 같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화·마하만다라화·만수사화·마하만수사화를 비처럼 내려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흩뿌렸고,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法華經』 권1 大9 p.2b10. 是時, 天雨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 而散佛上, 及諸大眾, 普佛世界, 六種震動.) : “만다라화는 소백단화(小白團花)라 한역하고, 마하만다라화는 대백단화(大白團花)라고 한역하며, 만수사화는 소적단화(小赤團花)라고 한역하고, 마하만수사화는 대적단화(大赤團花)라고 한역한다. 비록 네 가지 꽃이 있지만 합하면 두 쌍이 된다. 앞의 두 가지 백단화는 재가의 두 대중(우바새·우바이)을 비유하고, 뒤의 두 가지 적단화는 출가의 두 대중(비구·비구니)을 비유한다.”(『法華義記』 권1 大33 p.582c28. 曼陀羅花者, 譯爲小白團花; 摩訶曼陀羅花者, 譯爲大白團花; 曼殊沙花者, 譯爲小赤團花; 摩訶曼殊沙花者, 譯爲大赤團花也. 雖有四花, 今合爲兩雙. 前二白團花, 譬在家二衆; 後二赤團花, 譬出家二衆.)

4) 『涅槃經』의 다음 대목을 말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최상의 정법을 모두 마하가섭에게 전하였다. 이 가섭이 장차 그대들에게 근본적인 의지가 될 것이니, 마치 여래가 모든 중생에게 의지할 근본이 되는 것과 같다.’”(36권본 『大般涅槃經』 권2 大12 p.617b24. 爾時, 佛告諸比丘, ‘汝等不應作如是語. 我今所有無上正法, 悉以付囑摩訶迦葉. 是迦葉者, 當爲汝等, 作大依止, 猶如如來, 爲諸衆生, 作依止處.’)

5) 불립문자(不立文字)·교외별전(敎外別傳)의 중지를 대표하는 선종의 설화이며, 가섭을 인도 전법의 초조(初祖)로 내세우는 조통설(祖統說)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聯燈會要』 권1 卍136 pp.440b18~441a2에 다음과 같이 완성된 형태로 나온다. “세존께서 영취산의 법화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모두 말이 없었으나, 오직 가섭만이 파안미소를 지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을 꿰뚫어 보는 눈, 열반의 현묘한 마음, 형상을 벗어난 진실한 상, 미묘한 법문이 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교설 밖에 별도로 전하니 그것을 마하

또한 『인천보감』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서왕(舒王)<sup>6)</sup>이 혜천선사(慧泉禪師)<sup>7)</sup>에게 물었다. ‘선가(禪家)에서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책에서 나왔습니까?’ ‘대장경의 교설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한림원(翰林苑)에서 우연히 『대범천왕문불결의경』 3권<sup>8)</sup>을 발견하고 열람을 해보았더니 그 경 중에 대단히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곧 대범천왕(大梵天王)<sup>9)</sup>이 영산회상에 이르러 금색의 우바라화(優波羅花)<sup>10)</sup>를 부처님께 바치고 몸을 던져

가섭에게 부촉하노라.”(『聯燈會要』 권1 卍136 p.440b18. 世尊, 在靈山會上, 拈花示衆, 衆皆默然, 唯迦葉, 破顏微笑. 世尊云, ‘吾有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教外別傳, 付囑摩訶迦葉.’)

- 6) 왕안석(王安石 1021~1086). 북송의 시인이자 문필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 한 사람이다. ‘서왕’은 휘종 때(1113년) 추증한 호이다.
- 7) 장산불혜법천(蔣山佛慧法泉). 생몰연대 미상. 활동 시기는 송대(宋代)이다. 속성은 시(時)씨, 수주(隨州: 湖北省) 출신이다. 운거효순(雲居曉舜)의 제자로 대명사(大明寺)에 머물다가 천경(千頃)·영암(靈巖)·남명(南明)·장산(蔣山) 등에 두루 주석했다.
- 8) 2권본 『大梵天王問佛決疑經』 卍87 p.930a2와, 1권본 『大梵天王問佛決疑經』 卍87 p.976a10 등을 가리키지만, 이는 위경(僞經)으로 이 〈설화〉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설화〉에서 3권이라 한 것은 2권 또는 1권을 잘못 본 것이다.
- 9) ㉔ mahā-brahmā-deva, ㉕ tshañs-pa-chen-po. 마하범(摩訶梵)·범마삼발(梵摩三鉢) 등으로 음사한다. 범천왕(梵天王)·범천(梵天)·범왕(梵王)·대범(大梵) 등이 라고 한역하며, 범동자(梵童子)·세주천(世主天)·사바세계주(娑婆世界主)라고도 한다. 우파니샤드 이후 우주의 중심원리를 의미하는 최고신의 지위를 가진 신격이었으나, 불교에 도입되어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천으로 간주되었다. 『大般涅槃經後分』 권상 大12 p.905c15, 『大智度論』 권38 大25 p.340b15, 『立世阿毘曇論』 권1 大32 p.174b4 참조.
- 10) ㉔ udumbara, udumbara, ㉕ udumbara. 우담발라(優曇跋羅)·우담발라(優曇鉢羅)·오담발라화(烏曇鉢羅花)·우담파화(憂曇波花)·오담발라화(鄔曇鉢羅花)·우담화(優曇花)·울담화(鬱曇花) 등이라고도 한다. 한역어는 영서화(靈瑞花)·공기화

법좌로 삼고서 부처님께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설법해 줄 것을 청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는 순간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이자 백만억의 대중이 모두 어리둥절하였으나 오로지 가섭만이 파안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세존께서 「나에게 진리를 보는 바른 눈이 있다」<sup>11)</sup>라고 운운하셨던 것입니다. 법전은 그의 박식한 연구에 감탄하였다.<sup>12)</sup> 이 이야기는 『매계집(梅溪集)』에 나온다. 곧 이는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의 문구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다.<sup>13)</sup> 선경<sup>14)</sup>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sup>15)</sup> “선가에서 대장경의 교설과 관련된 인연을 인용한 예는 제법 많고, 이러한 인연에 따라 궁극적 깨

(空起花)·기공화(起空花) 등이다. ‘우담’은 우담발라의 약칭. 상서로운 현상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천화(天花)로서 인간 세상에는 없는 꽃이라 한다. 인간 세상에 우담발라가 출현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계신 세상이나 정법(正法)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長阿含經』 권4 大1 p.25a11, 『增壹阿含經』 권7 大2 p.578a17, 60권본 『華嚴經』 권37 大9 p.637b2 등 참조. “우담화(범어의 옛날 음역(音譯)으로 잘못 줄인 것이다. 범어의 바른 음사는 오담발라이다. 한역하면 상서롭고 신령하고 기이한 하늘의 꽃이라는 뜻의 상서영이천화(祥瑞靈異天花)이다. 세간에 이 꽃은 없다. 만약 여래께서 (4대주를 모두 통치하는) 금륜왕으로 하생할 경우 세간에 이 꽃이 출현한다. 금륜왕에게는 큰 복과 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一切經音義』 권8 大54 p.351c13. 優曇花〈梵語古譯訛略也. 梵語正云, 烏曇跋羅. 此云, 祥瑞靈異天花也. 世間無此花. 若如來下生金輪王, 出現世間. 以大福德力故, 感得此花出現.〉)

- 11) ‘열반의 깊고 미묘한 마음, 형상을 벗어난 진실한 상이 있으니, 그것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 12) 『人天寶鑑』 卍148 p.140a12 참조. 『禪林疏語考證』 권1 「解制」 卍112 p.803b6 등에도 전한다.
- 13) <설화>의 저자는 이 경이 위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4) 善卿. 생몰연대 미상. 호는 목암(睦庵). 동월(東越) 출신으로 속성은 진(陳)씨, 이름은 사절(師節)이다. 1108년(대관2)에 『祖庭事苑』 8권을 지었다.
- 15) 이하는 『祖庭事苑』 권2 卍113 p.52b17의 인용이지만, 부분적으로 첨삭이 있다. 예를 들면 ‘세존염화’는 이 공안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이므로 첨가되었고, ‘세존 설부정법(世尊說不定法)’은 삭제되었다.



달음을 얻은 자도 적지 않다. 가령 세존께서 꽃을 든 인연, 아난(阿難)의 문 앞의 찰간을 쓰러뜨린 것,<sup>16)</sup> 외도(外道)가 부처님께 말이 있는 것도 말이 없는 것도 묻지 않았던 인연,<sup>17)</sup> 문수(文殊)가 백추(白槌)를 올린 인연,<sup>18)</sup> 두 여인이 시체를 두고 평가를 내린 견해,<sup>19)</sup> 다섯 가지 신통을 갖춘 선인(仙人)이 부처님께 6신통에 대하여 물은 인연,<sup>20)</sup> 수보리(須菩提)가 바위굴에 앉아 좌선하면서 부처님의 법신을 보았던 인연<sup>21)</sup>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과 유사한 인연에 대하여 왕왕 경론을 강설하는 무리들은 경전과 논서에는 상응하는 문구가 없다고 여기고 멋대로 의심하며 믿지 않는다. 그러나 달마대사 이래로 문자와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옳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당시의 대중들이 우연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결집하여 경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오직 대가섭만이 홀로 은밀하게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인가를 받은[密契] 다음 이것을 아난(阿難)에게 전하였고, 아난은 상나화수(商那和修)에게 전하였으며, 이처럼 대대로 이어가다가 중국에까지 전해진 것이니, 이것은 별전<sup>22)</sup>의 종지를 나타내는 징표로 간주되었다. 어찌 반드시 경전이나 논서에 수록되었는지 수록되지 않았는지 또는 경전에 온전히 들어 있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서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라면 교승<sup>23)</sup>과 완전히 같

16) 『禪門拈頌說話』 81則 참조.

17) 위의 책 16則 참조.

18) 위의 책 6則 참조.

19) 위의 책 18則 참조.

20) 위의 책 14則 참조.

21) 위의 책 7則 참조.

22) 別傳. 경전의 문자와 교설을 벗어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한다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을 나타낸다. 법을 깨달은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가한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전하여 부단히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을 것이다. 또한 종도자<sup>24)</sup>는 “경전이나 논서에는 상응하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교설과는 별도로 전하신 미묘한 중지이기 때문이다.

靈山說法, 天雨四花, 節法華經文. 吾有云云迦葉, 節涅槃經文. 拈花微笑, 節經來未盡耶? 經論無文耶? 又人天寶鑑錄云, “舒王問慧泉禪師曰, ‘禪家所論, 世尊拈花, 迦葉微笑, 出自何傳?’ 泉云, ‘藏乘所不載.’ 王曰, ‘某頃在翰苑, 偶見大梵天王問佛決疑經三卷, 因閱之, 經中所載甚詳. 大梵天王, 詣靈山會上, 以金色優波羅花獻佛, 舍身為床座, 請佛為羣生說法. 世尊才登座, 拈花示衆, 百萬億衆, 悉皆罔措, 獨迦葉破顏微笑. 世尊云, ‘吾有正法眼藏’ 云云.’ 泉歎其博究.” 出梅溪集. 則大梵天王問佛決疑經文所出也. 善卿師云, “禪家所引, 涉藏乘之緣, 頗多, 由是緣而獲證悟者, 蓋不鮮少. 只如世尊拈花·阿難門前倒刹竿·外道問佛有無言·文殊白槌·二女評屍·五通問

- 
- 23) 敎乘, 교외별전·불립문자를 내세우는 선종과 대칭하여 경전을 근거로 갈라지는 교종의 모든 종파를 나타낸다. 곧 십이분교(十二分敎)와 삼승(三乘)을 말하며 교설(敎說) 또는 교법(敎法)과 같다. 고해의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게 해주는 수레라는 뜻에서 ‘승’이라 비유한 말이며, 선종에서는 교승과 구분하여 마음을 중지로 삼는다는 뜻에서 종승(宗乘)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景德傳燈錄』 권21 「羅漢桂琛傳」 大51 p.371a21, 권26 「歸宗義柔傳」 大51 p.420b18 참조. “교승은 비밀의 법이라 주장하고 선종은 전할 수 없는 문자라 내세우니, 어떤 길을 따라 수행할 것이며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만약 두 가지 모두 오로지 마음뿐이라는[唯心] 비결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이 이루어질 근거는 없다.”(『宗鏡錄』 권9 大48 p.460b13. 今敎乘稱秘密之法, 禪宗標不傳之文, 則向何路而進修, 從何門而趣入? 若不得唯心之訣, 正信無由得成.)
- 24) 宗道者.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인용은 위에서 경론을 강설하는 자들에 대하여 평가한 선경(善卿)의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佛·須菩提巖中宴坐。似此等緣，往往講學之輩，謂爲經論無文，輒疑而不信。然而吾祖之來，未嘗以文字言辭爲能事也。”蓋當時大衆，謂爲偶然，不結集在法藏。惟大迦葉，獨得密契，以此傳阿難，阿難傳商那和修，轉展相承，傳之華夏，以爲別傳之標致，何必徵於經論載不載，經來盡未盡也！若在簡牘，則完同於教乘矣。又宗道者云，“莫以經論無文而生疑”也。此是諸佛諸祖別傳之妙也。

네 가지 꽃 : 만수사화 등을 가리킨다. 들어 보인 것은 한 송이 꽃인가? 아니면 네 가지 꽃 중에서 한 가지 꽃일까?

꽃을 집어 대중에게 보이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 : 무심하게 꽃을 집어 들고 무심하게 미소를 지은 것일까? 별 뜻 없이 꽃을 집어 들고 별 뜻 없이 미소를 지은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기틀에 당면하여 곧바로 가리키고, 가섭은 그 기틀을 마주치고 깨달았던 것일까? 옛사람은 “기틀에 당면하여 곧바로 가리키더라도 벌써 멀리 돌아간 것이며, 기틀을 마주치고 깨달았더라도 이미 어리석게 된 것이다”<sup>25)</sup>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흔적을

25)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지 미상이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대의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과 통한다. “경정(徑挺): 기틀에 당면하여 곧바로 가리키고 결코 회피하지 마라. 머뭇거리는 순간 흰 구름 너머 저편으로 아득히 멀어질 것이다.”(『禪林寶訓音義』 卍113 p.296a6. 徑挺: 當機直指, 絕無迴避. 擬議之間, 白雲千里.); “곧바로 가리킨다고 말한 것이 벌써 한참 돌아가고 만 결과가 되었다.”(『天目明本雜錄』「示義直蒙首座」 卍122 p.779a9. 說箇直指, 早已迂曲了也.); “옛날에 달마대사가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넘어 와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直指人心]는 설로써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어지럽게 미혹시켰다. 그러나 그는 인도를 아직 떠나기도 전에 벌써 먼 길로 한참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希叟廣錄』 권4 「坦講師求子直序」 卍122 p.258a18. 在昔老臊胡, 踰海越漠, 以直指人心之說, 惑亂大唐人家男女, 殊不知, 未發足竺乾時, 早已迂曲了也.)

쏟아 없애기 위한 말일 뿐이니,<sup>26)</sup> 세존과 가섭이 만난 경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석가노자께서 이 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침묵하시면서 49년 동안 3백여 법회에서 제기하지 못하고 말로 다하지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영산회상에서 비로소 제기하고 모두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인천의 백만억 대중이 모두 어리둥절하였으나 오로지 대가섭만이 과안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마음을 전한 인연이다.

나에게 정법인장이 있다 :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바르다는 뜻의 정(正)이고, 궤지<sup>27)</sup>가 법(法)이며, 비추어 보는 것은 안(眼)이고, 거두어 간직한다는 뜻이 장(藏)이다. 또한 바른 법[正法]은 눈[眼]과 같고 창고[藏]와 같다는 뜻이다.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 믿음을 얻은 바로 그 순간에 지혜의 빛이 후세에

---

26) 여기서 흔적 또는 자취란 ‘곧바로 가리킨다[直指]’는 말과 ‘깨닫는다[悟達]’는 말이 지니고 있는 집착의 실마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말의 자취를 없애려는 이야기이지만 그것 자체가 벌써 또 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자취를 감추려다가 도리어 또 하나의 흔적이 생긴다[拂跡成痕]’라는 상용구가 그 뜻이다. “비유하자면 신령한 거북이 진흙에 꼬리를 끌어서 자취를 지워 없애려다 도리어 꼬리의 자취가 생기는 것과 같으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다가 더욱 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진실로 마음을 밝힌다면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따로 없어서 마음과 법이 이미 없거늘 다시 무엇을 단번에 없애려 하는 것인가!”(『禪林僧寶傳』 권23 「寶覺祖心傳」 卍137 p.531b17. 譬如靈龜曳尾于塗, 拂跡跡生, 可謂將心用心, 轉見病深. 苟能明心, 心外無法, 法外無心, 心法既無, 更欲教誰頓盡耶!)

27) 軌持. ⑤dharma의 한역어인 법(法)에 대한 해설 중 하나. ‘궤’는 일정한 틀 또는 법칙·규범을 나타내는 궤칙(軌則)·궤범(軌範)을 뜻한다. ‘지’는 자신의 본성[自性]을 유지하고 지킨다[住持]는 뜻이다. “법이란 궤지라는 뜻이다. 궤는 궤범의 뜻이니 대상에 대한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이고, 지는 주지(住持)라는 뜻이니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成唯識論述記』 권1본 大43 p.239c4. 法謂軌持, 軌謂軌範, 可生物解; 持謂住持, 不捨自相.)

널리 퍼졌다는 뜻이다.

四花者，曼殊沙花云云. 拈起地一枝花耶？四花中一花耶？拈花示衆迦葉微笑者，閑拈花閑微笑耶？但拈花但微笑耶？當機直指，當機悟達耶？古人云，“當機直指，早已迂曲了也；當機悟達，早已鈍痴了也.” 然，此亦拂迹之談，於世尊迦葉相見處，了沒交涉. 釋迦老子，久默斯要，四十九年三百餘會，提不起說不盡，末後靈山會上，始提得起說得盡. 人天百萬億衆，悉皆罔措，唯大迦葉破顏微笑. 此是第二傳心. 吾有正法眼藏者，揀邪爲正，執持爲法，照了爲眼，含攝爲藏. 又正法如眼如藏也. 付囑云云迦葉者，取信當時，光揚後世.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면전에서 다 드러내 보였거늘 헤아릴 것이 무엇이더냐?

번개 치고 유성 흐르는 짧은 순간 천만 리로 멀어지리.<sup>28)</sup>

향기 실은 바람 대지를 감돌며 때도 없이 불고 있으니,

우담화<sup>29)</sup>가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이로다.

〈냄새 맡으려 하면 뇌가 찢어지리라.〉<sup>30)</sup>

---

28)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에 다 드러나 있지만,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분별한다면 눈앞의 진실과 멀어진다.

29) 優曇花. 주석10) 참조.

30) 2구의 뜻과 같다. 면전에서 다 드러내 보인 것(1구)과 향기 실은 바람(3구)이 서로 호응한다.

大洪恩頌, “靚面相呈何所擬? 電閃星流千萬里. 香風匝地吹  
無時, 優曇花現人間世.”〈顛著則腦裂〉

## 남명법천(南明法泉)의 송

매서운 바람이 마른 풀뿌리를 휩쓸며 부는데,  
별써 돌아온 봄소식을 누가 알아차릴 것인가?  
대유령 매화<sup>31)</sup>만이 그 소식을 처음 누설하니,  
가지 하나가 홀로 눈 속에서 꽃 피었다네.

南明泉頌, “霜風刮地掃枯菱, 誰覺東君令已廻? 唯有嶺梅先  
漏洩, 一枝獨向雪中開.”

### [설화]

대홍보은과 남명법천의 송은 세존과 가섭이 서로의 속뜻을 알아차린  
경지를 밝혔다. “냄새 맡으려 하면 뇌가 찢어진다”라고 한 말은 일정한 범  
도에 얽매이지 않는다<sup>32)</sup>는 뜻이다.

大洪南明, 明世尊迦葉相見處也. 顛著則腦裂者, 不存軌則也.

31) 영매(嶺梅). 대유령(大庾嶺)은 매화가 많이 피어 매화령(梅花嶺)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남과 북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남북의 기후 차이 때문에 매화의 남쪽 가  
지가 떨어지는 시기에 북쪽 가지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다.

32) 부존궤칙(不存軌則).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작용이 눈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뜻  
의 ‘대용현전(大用現前)’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다. 곧 염화와 미소는 ‘근본을 드  
러내는 작용’으로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으므로 헤아리며 분별하기 위한 인  
식의 범주에 따라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景德傳燈錄』 권9 「大安傳」  
大51 p.267c23, 『雲門廣錄』 권중 古尊宿語錄16 叀118 p.354a4 등 참조.

## 운거요원(雲居了元)의 송

세존이 꽃 들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 하니,

물속의 물고기요 하늘을 나는 새로다.<sup>33)</sup>

미륵을 관음으로 오해한 것과 같으니,

다리미 불과 차 끓이는 불은 같은 화로를 쓰지 않노라.<sup>34)</sup>

雲居元頌, “世尊拈花迦葉微笑, 水底魚兮天上鳥. 誤將彌勒作  
觀音, 慰<sup>35)</sup>斗煎茶不同銚.”

### [설화]

세존 ~ 하늘을 나는 새로다 : 다른 전거에서 ‘(물고기들이) 물에서 서로 잇고 지내고, (새들이) 높은 하늘에서 마음대로 난다’라고 한 말과 같다.

미륵을 관음으로 ~ 같은 화로를 쓰지 않노라 :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마주 보고 있으면서 천 리의 거리로 떨어진 것과 같을 것이다’<sup>36)</sup>라고 한 말과 같다.

---

33) 물고기와 새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분을 자유롭게 펼쳤다는 뜻.

34) 미륵과 관음 두 보살의 역할이 다른 것은 마치 다리미를 덥히거나 차를 끓일 때 쓰는 화로가 각각 틀린 것과 같다. 주석33)과 통하는 말이다.

35) ‘慰’는 ‘慰’의 오식.

36) 굉지정각(宏智正覺)이 혜충국사(慧忠國師)의 ‘노사나불(盧舍那佛)’ 화두에 대하여 읊은 계송에 나오는 제2구와 제3구이다. 그 제1구는 “새가 허공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친다.”(鳥之行空, 魚之在水.)이다. 이 구절이 운거의 제2구와 같은 데서 착안한 <설화>이다. 『宏智廣錄』 권2 大48 p.22b16 참조. 한편 ‘江湖相忘’은 『莊子』 「大宗師」의 다음 구절에 따른다. “샘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물에 놓인 것과 같게 되자 서로 숨을 내쉬어 축축하게 해 주고 서로 물거품을 뿜겨 적서주지만, 물에서 서로 잇고 지내느니만 못하다.”(泉涸, 魚相與處於陸, 相响以涸,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

雲居：世尊至天上鳥者，如他處云，‘江湖相忘雲天得志也.’  
誤將至同銚者，如云，‘擬心一絲對面千里也.’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1

세존께서 손으로 꽃을 집었을 뿐이거늘,  
가섭이 얼굴 전체에 환한 미소를 짓네.  
두 성인은 한 쌍의 오래된 송곳<sup>37)</sup>이었으나,  
향상하는 하나의 통로는 아직 몰랐노라.<sup>38)</sup>

薦福逸頌, “世尊自手拈花, 迦葉破顏微笑. 二老一雙古錐, 未知向上一竅.”

### [설화]

‘향상하는 하나의 통로’란 무슨 통로일까? 말해 보라! 세존과 가섭은 그것이 있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 그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한다면 옛 성인의 은혜를 등지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을 망치게 될 것이다.<sup>39)</sup> 아래 나오는 천복의 상당은 위의

37) 고추(古錐). 날카로운 송곳으로 요소를 찌르듯이 핵심만 가려내는 선기(禪機)를 말한다. ‘古’는 단지 오래되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다는 뜻이다.

38) ‘몰랐다’는 말은 관문(關門)이자 효와(誨誥)이다. 아래 〈설화〉에 그 뜻이 보인다.

39) ‘몰랐다’는 말에 대하여 몰랐다는 것과 알았다는 것 중 어느 편으로도 확정하지 않고 꿰고 나갈 관문으로 제시한 해설이다. 세존과 가섭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들의 염화와 미소를 완전히 등지게 되고[背], 알았다고 한다면 후손들이 그들의 염화와 미소를 그대로 따르다가 그것에 예속될 것[觸]이라는 말이다. 〈설화〉 전반에서 즐겨 쓰는 배촉관(背觸關)이다.



송에 나타난 뜻과 같다.

薦福：向上一竅，是什麼孔竅？且道！世尊迦葉，知有不知有？  
若言不知有，辜負先聖；若言知有，喪我兒孫。薦福上堂，前頌  
意一般也。

## 천복본일의 송 2

교설 벗어나 별도로 전한 일 중 가장 기특한 것은,  
도라면같이 부드러운 손<sup>40)</sup>으로 꽃을 들었을 때로도.  
범회 중에 계봉의 노인<sup>41)</sup>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한없이 맑은 향기를 그 누구에게 전했으리오?

又頌，“敎外別傳事最奇，兜羅綿手舉花時。會中不得雞峰老，

---

40) 도라면수(兜羅綿手). 부드럽기 그지없는 부처님의 손. 80종호 중 하나이다. ‘兜羅’는 𑖀𑖦tūla의 음사어로 도라(堵羅)·투라(妬羅)·두라(蠹羅) 등으로 음사하고 면(綿)·세면(細綿) 등이라 한역한다. 도라면(兜羅綿)은 범어 음사어와 한역어를 합친 말이다. 식물의 꽃에서 채취하는 솜 종류를 총칭한다. “사문 구담은 손발이 지극히 미묘하고 유약하며 부드러움이 마치 도라화와 같다.”(『中阿含經』 권41 大1 p.686b8. 沙門瞿曇，手足極妙，柔弱軟軟，猶兜羅華.)；“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 하셨다. ‘만약 세간 사람들이 이것이 거꾸로라고 한다면, 세간 사람들은 무엇을 바르다고 하겠느냐?’ 아난이 아뢰었다. ‘여래께서 팔을 세워 도라면과 같이 부드러운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면,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楞嚴經』 권2 大19 p.110c11. 佛告阿難，‘若世間人，以此爲倒，卽世間人，將何爲正?’ 阿難言，‘如來豎臂，兜羅綿手，上指於空，則名爲正。’)

41) 계봉(雞峰)은 계족산(雞足山)에 있는 산봉우리 중 하나. 또는 계족산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닭발이 세 갈래로 된 것과 같으므로 계족산이라고 한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가사(袈裟)를 받은 뒤 계족산에서 입적할 때 그 가사를 미륵불(彌勒佛)에게 전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으므로 가섭을 이렇게 부른다. 『增壹阿含經』 권44 大2 p.789a5, 『付法藏因緣傳』 권1 大50 p.300c10 등 참조.

無限清香付與誰?”

해인초신(海印超信 : 정혜초신)의 송

따뜻한 봄기운 바야흐로 돌아오니,  
땅 밑 흐르는 물이 먼저 알았노라.<sup>42)</sup>  
영매<sup>43)</sup> 벌써 눈 속에서 꽃망을 터뜨렸건만,  
모든 꽃들 여전히 봄별을 기다릴 뿐이라네.<sup>44)</sup>  
가섭과여, 가섭과여!<sup>45)</sup>  
알건 모르건 좋은 기회에 속박된 듯하도다.<sup>46)</sup>

定慧信頌, “暖氣方歸, 地脉先知. 嶺梅已向雪中綻, 百花猶自  
待春輝. 迦葉波迦葉波! 知不知也似落便宜.”

42) 봄기운이 돌아왔으나 아직은 땅 밑에만 흐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  
봄기운은 부처님이 들어 보인 꽃,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은 부처님의 깊은 속을 들  
여다본 가섭을 각각 비유한다.

43) 주석31) 참조.

44) 가섭을 깨달음의 꽃망을 터뜨린 영매에 비유하고, 봄별을 기다리는 여타의  
꽃들을 이것과 대칭시키고 있다.

45) 迦葉波. 가섭의 온전한 음사어. ㉔Kāśyapa, ㉕Kassapa. “가섭<범어의 생략된 음사  
어이다. 바른 범어 음사는 가섭과(迦攝波)이며 ‘가’는 강(薑)과 거(佉)를 반절한 음이  
고, 섭과는 천축국의 대성(大姓)이다.”(『一切經音義』 권11 大54 p.370b20. 迦葉(梵語  
略也. 正梵音云, 迦薑佉反, 攝波即天竺國之大姓也.))

46) 낙편의(落便宜). 편의로운 순간에 그 편의에 떨어져 속박된다는 뜻. 기대와는 달  
리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섭이 비록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을  
알았다고는 하나 오히려 그것에 떨어져 안주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가섭의 소독  
까지 물리치고 있다.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교설 밖에 온전히 들어 비로소 달리 전하니,  
음광<sup>47)</sup>은 눈을 감고 말없이 웃음 지었다네.  
가없다, 영산의 10만 대중들이여!  
눈앞의 절묘한 한 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둘!〉

東林總頌, “教外全提始別傳, 飲光閉目笑無言. 可憐十萬靈山衆! 不薦當頭一着玄.” 〈咄!〉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한 번 깜박인 연꽃 같은 눈동자 누가 알았을까?  
백만 대중 가운데 오로지 음광뿐이었다네.  
그 법안 지금까지 전해져 끊어지지 않으니,  
연이어진 전통 땅과 하늘처럼 길이 변함없구나.

法眞一頌, “蓮眸一瞬孰能當? 百萬衆中唯飲光. 法眼至今傳不絕, 綿綿地久與天長.”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꽃 든 우리 부처님 영산에 계실 적에,  
가섭두타<sup>48)</sup>가 문득 파안미소 지었다네.

---

47) 飲光. 가섭파의 한역어.

48) 가섭을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 하는 데 따르는 말. 본서 33則 주석22) 참조.

금구<sup>49)</sup>의 은밀한 말씀 직접 전하시니,

천상과 인간의 세계뿐만이 아니리라.

保寧勇頌, “拈花我佛在靈山, 迦葉頭陀忽破顏. 金口密言親付囑, 不唯天上與人聞.”

### 곤산찬원(崑山贊元)의 송

가섭의 잔잔한 미소 외롭지 않았으니,

세존께서 성현의 무리 잠깐 걸논질하시네.

눈 마주치고 마음의 요체 전했다고 하나,

밥이라고 아무리 말한들 배가 부르던가?<sup>50)</sup>

崑山元頌, “迦葉微微笑不孤, 世尊聊晤聖賢徒. 若言目擊傳心要, 說食還會飽也無.”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영취산에서 꽃 들어 상근기에게 보이시니,

물에 뜬 나무가 눈먼 거북 만난 것과 같네.<sup>51)</sup>

---

49) 金口. 부처님의 입 또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작용[口業]으로서의 말씀. 부처님의 황금 색신(色身)에 갖춘 입이라는 뜻이다. “금구란 여래의 황금 색신에서 나오는 구업을 가리킨다.”(『止觀輔行傳弘決』 권1 大46 p.147a11. 金口者, 此是如來黃金色身口業.)

50)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라고 외우지만 자기 성품의 반야를 모르니, 마치 밥에 대하여 아무리 말한들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宗寶本『壇經』 大48 p.350a16. 世人終日口念般若, 不識自性般若, 猶如說食不飽.)

51)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이다. 꽃을 들어 보인 것 이상으

가섭이 잔잔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  
한없이 맑은 향기 그 누구에게 전했을까?

雪溪益頌, “靈鷲拈花示上機, 肯同浮木接盲龜. 飲光不是微微笑, 無限清香付與誰?”

## 승천회의 송

선서<sup>52)</sup>는 꽃을 집어 묘한 작용을 펼쳤고,  
가섭은 미소 지어 천기를 누설했다네.  
이로부터 그 말이 인도와 중국을 떠돌아,  
죄 없는 사람들 이끌어 시비에 빠뜨렸네.<sup>53)</sup>

承天懷頌, “善逝拈花施妙用, 飲光微笑洩天機. 從茲流落東西土, 引得平人陷是非.”

---

로 깨달음을 지시하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 태어나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부처님 계시는 세상을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 그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 바다에 떠도는 나무토막의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다.”(40권 본 『大般涅槃經』 권2 大12 p.372c22. 生世爲人難, 值佛世亦難, 猶如大海中, 盲龜遇浮孔.) 雜阿含15 『盲龜經』 大2 p.108c7.

- 52) 善逝. 부처님을 가리키는 열 가지 칭호[十號] 중 하나. 피안으로 넘어가서 다시는 생사(生死)의 바다로 물러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 그대로의 도를 타고 이 사바세계(娑婆世界)로 잘 오셨다는 뜻인 여래(如來)와 대칭되는 뜻이다. ㉔ sugata, 음사어는 수가타(修伽陀)·소게다(蘇揭多)·수가다(修伽多) 등이다. 선거(善去)·선해(善解)·선설무환(善說無患)·호설(好說)·호거(好去) 등으로도 한역한다.
- 53) 염화는 묘한 작용이고 미소는 천기누설이라는 생각 자체가 시비를 일으키는 함정이다. 단지 염화와 미소가 있을 뿐이다.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송

무수한 인천의 중생이 들려주기를 바랐으나,  
꽃 들자 웃음 지으니 크게 어긋나 버렸다네.<sup>54)</sup>  
업식(業識)이 아득히 쌓인 수많은 사람들이여!  
묻느라 애쓰며 부글부글 물 끓듯 떠드는구나.<sup>55)</sup>

佛眼遠頌, “百萬人天望舉揚, 拈花微笑大乖張. 幾多業識茫茫者! 問着勞生沸似湯.”

### 불감혜근(佛鑑慧勲)의 송

빛나는 윤수<sup>56)</sup>로 꽃을 든 그 순간,  
금색두타만 환하게 눈살을 찌푸렸다네.  
우습도다, 영산의 무수한 대중이여!  
눈앞의 붉은색 향기로운 맛 몇이나 알았을까?  
몇이나 알았을까?  
그가 감파했노라고 인정하셨으니,  
계봉의 늙고 오래된 송곳<sup>57)</sup>이로다.

54) 분명하게 말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과 교설을 벗어난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가 그것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

55) 염화미소의 뜻을 알고자 헛되이 애쓰는 모습을 묘사했다.

56) 輪手. 손가락마다 바퀴살 무늬가 새겨져 있는 부처님의 손. “즉시에 여래께서 금  
빛의 팔을 아래로 드리우시고 윤수로 아래를 가리켜 아난에게 보이며 말씀하셨  
다.”(『楞嚴經』 권2 大19 p.110c9. 卽時如來, 垂金色臂, 輪手下指, 示阿難言.)

57) 노고추(老古錐). 송곳처럼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노련하고 원숙한 종사를 비  
유한다. ‘노’와 ‘고’는 법력이 높은 노덕(老德)과 고덕(古德)을 가리킨다. 주석37)

佛鑑懃頌, “光明輪手舉花時, 金色頭陀獨展眉. 堪笑靈山千萬衆! 紅香撲面幾人知? 幾人知? 却許伊勘破, 雞峯老古錐.”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세존께서 꽃을 드시니,  
가섭이 미소 지었다네.  
궁상에 속하지 않으니,<sup>58)</sup>  
이것은 무슨 곡조일까?  
옛 골짜기에 부는 바람 맑고,  
차가운 못에 잠긴 달 밝도다.  
그대에게 알리노니,  
반드시 깨우친다면,  
응봉<sup>59)</sup>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는 새 되리라.

長靈卓頌, “世尊拈花, 迦葉微笑. 不落宮商, 是何曲調? 古洞風清, 寒潭月皎. 報君知, 須曉了, 融峯最好音聲鳥.”

참조.

58) 불락궁상(不落宮商). 일반적인 인식의 틀이나 문자의 형식으로는 그 뜻을 포착할 수 없는 선어(禪語)의 특징을 나타낸다. 곧 염화와 미소는 일정한 틀에 예속되지 않아서 정해진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뜻이다. 궁은 탁한 음, 상은 맑은 음이다. 고전음악에서 사용하는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5음계 중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소리이다. 오행설(五行說)에 입각하여 만물을 분류하는 기본적 단위를 다섯 가지로 취하는데, 그것을 소리에 적용한 것이다. 각각 5행의 토·금·목·화·수에 대응한다.

59) 축융봉(祝融峯)의 줄임말. 형산(衡山)의 최고봉.

## 불적기의 송

석가모니께서 영산에서 대중에게 설법할 때,  
이채로운 꽃을 든 순간 웃으며 눈살을 찡찡.  
누가 웃음에 숨겨둔 진실한 소식 알리오?  
한없는 풍경 남김없이 그에게 전했다네.

佛跡瑤嶺, “釋主靈山示衆時, 異花拈處笑開眉. 誰知笑裏眞消息? 無限風光盡囑伊.”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부처님의 염화여!  
국자 점의 헛소리로다.<sup>60)</sup>  
가섭의 미소여!  
평지에 험한 산 솟구치네.  
정법안장이여!  
선밥과 먹다 남은 국이로다.  
가섭에게 전함이어!  
다리 부러지고 새는 솔이로다.

崇勝珙頌, “大覺拈花兮! 杓卜虛聲. 飲光微笑兮! 平地崢嶸.

---

60) 표복허성(杓卜虛聲). ‘표복’은 국자를 물에 띄워 놓고 멈추는 방향에 따라 점을 치는 것, ‘허성’이란 국자로 점을 쳐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말해 주는 허황된 소리. 곧 국자 점에 따라 횡설수설하는 소리라는 뜻. 근거 없이 분별하는 것을 비유한다. “표복: 풍속에 국자를 던져 놓고 그것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표복이라 한다.”(『祖庭事苑』 권6 卍113 p.174a12. 杓卜: 風俗拋杓, 以卜吉凶者, 謂之杓卜.)



正法眼藏兮! 餽飯殘羹. 分付迦葉兮! 折脚漏鐺.”

### 대혜종고(大慧宗杲: 운문종고)의 송

한 송이 꽃을 집어 들자,  
풍류<sup>61)</sup>가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네.  
만약 심법(心法)을 전했다고 여긴다면,  
세상 일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리.<sup>62)</sup>

雲門杲頌, “拈起一枝花, 風流出當家. 若言付心法, 天下事  
如麻.”

###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바닷물 뒤집어져 솟았다 세차게 아래로 흐르니,  
물고기들과 새우와 게 그대로 가라앉았다 뜨네.  
불쌍하구나, 금색두타여!  
지금껏 그 웃음 그치지 않았구나.

竹庵珪頌, “海水翻空袞<sup>63)</sup>底流, 魚龍蝦蟹信沈浮. 可憐金色頭  
陀子! 直至如今笑未休.”

61) 風流. 비범한 아름다움. 속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며 사는 멋. 여기서  
는 세존의 염화에 나타나는 격외(格外)의 면모를 가리킨다.

62) ‘염화’로 드러난 단적(端的)인 뜻에 ‘심법’ 등의 개념이 개입되면서 마(麻)로 만  
든 삼실의 타래처럼 복잡하게 조작된다는 뜻. 이와는 반대로 심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단적인 뜻에 어긋난다.

63) ‘袞’은 ‘滾’과 통한다.

### 목암법충(牧庵法忠)의 송

염화와 미소로 진실한 기미를 드러내니,  
밀계와 단전<sup>64)</sup>의 소식은 작자만 알리라.  
갈고리에 매달린 단적인 뜻을 알 일이지,  
저울 첫 눈금에서 또 무엇을 분별하는가!<sup>65)</sup>

牧庵忠頌, “拈花微笑顯真機, 密契單傳作者知. 領取鉤頭端的意, 定盤星上復何疑!”

### 육왕개심(育王介謏)의 송

서리 맺힌 새벽 아득한 하늘에 기러기 날아온 뒤,  
모든 숲속 시든 잎 이끼에 떨어진다.  
동쪽 울타리 적막한 곳에 핀 한 송이 국화여!  
취한 왕손(王孫)의 잔엔 들어가지 않는구나.

育王謏頌, “霜曉長空鴈已來, 千林黃葉委莓苔. 東籬寂寞一枝菊! 不入王孫醉後盃.”

---

64) 밀계(密契)는 빈틈없이[密] 들어맞음[契], 단전(單傳)은 오로지 마음만 전함. 세존과 가섭의 경지가 서로 어긋남이 없이 일치하며, 특정한 교설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만 주고받은 것을 가리킨다.

65) 실물(實物)이 저울의 갈고리에 매달려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첫 눈금[定盤星]에서 분별하며 그것을 실물로 오인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해진 분별의 틀(저울)에 의존하여 염화와 미소를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말이다. 본서 2則 주석71) 참조.

###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송

꽃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누가 알까?  
가섭두타 홀로 활짝 웃어 응답했다네.  
한없이 펼쳐진 구름도 감추지 못하여,  
다시 흐르는 물 따라 인간 세상에 떨어졌네.<sup>66)</sup>

白雲晷頌, “舉花示衆誰相委? 迦葉頭陀獨破顏. 無限白雲藏  
不得, 又隨流水落人間.”

### 무위자의 송

세존께서 꽃을 드시자,  
가섭이 미소 지었다네.  
재앙이 자손에 미치니,  
선조가 마치지 못한 탓이라네.<sup>67)</sup>

無爲子頌, “世尊舉花, 迦葉微笑. 殃及子孫, 上祖不了.”

### 무진거사의 송

세존과 가섭은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 
- 66) 하늘에 뜬 달을 무수한 구름이 가리려 해도 결국은 강물에 비치듯이 세존의 염화라는 달이 가섭의 미소에 그대로 각인되었다는 상징이다.
- 67) 아직 마치지 못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공안을 말한다. 언제나 시비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모든 공안의 본질이다. 이는 교외별전의 소식도 아니고 불립문자라는 이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본서 1則 주석(62), 2則 주석(132), 181則 주석(57) 참조.

호랑이 빠뜨리는 기관 각자 펼쳤다네.<sup>68)</sup>

정법안장과 열반묘심과 진실한 상이여!<sup>69)</sup>

영산회상에서 그 누구에게 전하였던가?<sup>70)</sup>

無盡居士頌, “世尊迦葉不相知, 陷虎機關各自施. 正眼妙心眞實相! 靈山會裏付他誰?”

### 열재거사의 송<sup>71)</sup>

할아버지 유산 풀어놓고 모두들 잔치 벌이는데,

꽃가지 집어내어 대대로 전수된 가보라 했다네.

후손들마저 가난에 연루시켜 뺏속까지 사무치니,

어머니 치마 빌려 입고 어머니께 절을 올리노라.<sup>72)</sup>

---

68) 염화와 미소는 앎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모두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려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세존의 염화를 가섭이 알아서 미소 지은 것은 아니고, 가섭이 지어보인 미소의 뜻을 세존이 인정하여 정법안장을 전한 것이 아니다. 들어 보인 꽃에는 아무 뜻이 없고, 그것을 알아차린 가섭도 헛된 웃음으로 세존의 반응을 기다린 것이므로 모두가 일종의 함정과 같은 기관인 것이다.

69) 세존이 가섭에게 전했다는 정법을 꿰뚫어 보는 눈[正法眼藏], 열반의 현묘한 마음[涅槃妙心], 형상을 벗어난 진실한 상[實相無相] 등 각 구절을 줄여서 표현했다. 주석5) 참조.

70) 기관이었을 뿐 전한 자도 받은 자도 전한 그 무엇도 없다는 취지.

71) 할아버지 유산에서 꽃가지 하나를 가보로 전했기에 후손들은 빠저리게 가난한 신세가 되었다는 상징으로 이 공안의 핵심을 보인 계송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편으로는 화려하고 값진 경전의 온갖 구절을 유산으로 남기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버리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유산을 전했다.

72) “그렇다면 결정적인 시절이 이르러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면 또한 어떻게 그것을 체득할 것인가? 어머니의 치마를 빌려 입고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경치

悅齋居士頌, “拋他祖父大家筵, 拈出花枝作正傳. 帶累兒孫貧  
到骨, 借婆裙去拜婆年.”

## 천복본일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비록 스승과 제자가 만나 바늘이 겨자  
씨에 어김없이 꽂히듯이 서로의 마음이 일치했지만, 문제는 엽매인 몸  
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는 점이다. 왜 그런가? 문 안에서 엽매인 몸을 벗  
어나기는 쉽지만 자신의 몸 안에서 남들에게 문을 열어 보이는 것은 어  
렵기 때문이다.<sup>73)</sup> 지금 이 법회에 자신의 몸 안에서 남들에게 문을 열어  
보일 남승은 없는가? 있다면 대중 앞에서 증명해 보라.” 잠깐 침묵하다가

---

를 남김없이 사들여도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는다. 정면에서 다가올 때 회피하  
지 말 일이니, 바로 이 사람 안에 태어난 까닭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네. 참!”(『宏  
智廣錄』 권1 大48 p.12c14. 祇如時節若至, 其理自彰, 又作麼生體得? 借婆裙子拜婆年,  
買盡風光不著錢. 劈面來時莫回避, 箇人裡許有生緣. 參!) 이 밖에 『頌古聯珠通集』 권  
3 卽115 p.30a15에 나오는 불성법태(佛性法泰)의 송(頌) 등에 나오는 구절 참조.

- 73) 남들이 설정한 방편의 문이 가리키는 본질을 깨우치고 번뇌망상의 엽매임을 벗  
어나는 문리출신(門裏出身)과 자기 자신 속에서 가르침의 방편을 이끌어내어  
남에게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신리출문(身裏出門)을 대  
칭시킨 말이다. 한편은 쉽고 한편은 어렵다고 했지만, 이러한 대립은 판문을 잠  
그는 두 가지 빗장일 뿐 실제로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쉽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  
다.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문 안에서 엽매인 몸을 벗어나기는 쉽지만 자신  
의 몸 안에서 남들에게 문을 열어 보이는 것은 어렵다. 겨울에 봄의 연중행사를  
치르는 것은 접어두고, 어떤 길에도 들어서지 않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해야 할  
까?’ 잠깐 침묵한 뒤 ‘온 집안사람들을 고기잡이배로 보낸다’라 말한 다음 법좌  
에서 내려왔다.”(『雲峰語錄』 古尊宿語錄40 卽118 p.678b16. 上堂, ‘門裏出身易, 身裏  
出門難. 冬行春令, 卽且置, 不涉程途一句, 作麼生道?’ 良久云, ‘渾家送上釣魚船.’ 便下  
座.) 『宏智廣錄』 권8 大48 p.99c20에는 문리출신과 신리출문의 각 뜻을 계승으로  
유했다.

“도둑을 끌어들여 집안의 재산을 모두 털릴 뻔했구나!”<sup>74)</sup>라 하고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薦福逸, 上堂, 舉此話云, “雖則師資會遇, 針芥相投, 要且, 未有出身之路. 何也? 門裏出身易, 身裏出門難. 今此會中, 莫有身裏出門底衲僧麼? 對衆證據.”良久云, “幾乎教<sup>75)</sup>賊破家!”喝一喝.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소참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서천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조사들과 천하의 노화상들 중 그 누구도 이 공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내가 오늘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sup>76)</sup> 그대들에게 판단을 내려주겠다. 세 존은 여덟 방을 맞아야 하고, 가섭은 열세 방을 맞아야 한다. 그대들이 말해 보라! 그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안목을 갖춘 자는 한번 점검해 보라.”

定慧信, 小參, 舉此話云, “自西天洎此土, 祖師天下老和尚, 未斷此箇公案. 山僧今夜, 不惜眉毛, 爲諸人斷却. 世尊八下,

74) “그 뒤 위산이 양산에게 물었다. ‘이 두 존숙(황벽과 임제)의 뜻은 어떤 것인가?’ 양산이 말했다. ‘화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길러줘야 비로소 아버지의 자애를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둑을 끌어들여 집안의 재산을 털리는 것과 같습니다.’”(『臨濟語錄』大48 p.503a25. 後潁山問仰山, ‘此二尊宿, 意作麼生?’ 仰山云, ‘和尚作麼生?’ 潁山云, ‘養子方知父慈.’ 仰山云, ‘不然.’ 潁山云, ‘子又作麼生?’ 仰山云, ‘大似勾賊破家.’); “열리면 막을 수 없으니 도적을 끌어들여 집안의 재산을 털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맞이한다.”(『黃龍語錄』大47 p.633a2. 開不能遮, 勾賊破家; 當斷不斷, 返遭其亂.)

75) ‘教’는 ‘勾’의 잘못으로 보인다.

76) 본서 181則 주석66) 참조.

迦葉十三. 你且道! 過在什麼處? 具眼者, 試驗看.”

[설화]

세존은 여덟 방을 맞아야 하고, 가섭은 열세 방을 맞아야 한다 : 방의 숫자에 대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그 뜻은 잘못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말해 보라 ~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묻은 말이다.

定慧 : 世尊八下, 迦葉十三者, 棒數出處未知, 義則與過也. 且道至麼處者, 有什麼過.

황룡조심(黃龍祖心)의 염

“납승의 해골을 꿰뚫고 납승의 눈동자를 바꾸어 버리는구나! 위태로움<sup>77)</sup>에 닥치고도 남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이지 않으니,<sup>78)</sup> 어디서 석가노자의 속뜻을 마주칠 수 있을까?”

黃龍心拈, “穿過衲僧髑髏, 換却衲僧眼睛! 臨危不在悚人, 向甚處見釋迦老子?”

77)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인 것을 말한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험난한 낭떠러지 또는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기 때문에 이처럼 말했다.

78) 물골이 송연한 진실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을 모른다는 뜻. 설두중현(雪竇重顯)의 말에도 보인다. 설두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입장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위태롭다고 했다. “설두가 말했다. ‘큰 보시의 문이 열려 막힌 구석이 전혀 없지만, 만일 납자 하나가 나타난다면 설두는 8백 리 멀리 나자빠지고 말 것이다. 왜 그런가? 위태로움에 닥치고도 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宗門拈古彙集』 권40 卍115 p.980a9. 雪竇曰, ‘大施門開無擁塞, 忽然有箇衲子出來, 雪竇倒退八百. 何故? 臨危不悚人.’)

[설화]

해골이란 정식(情識)의 보금자리이고, 눈동자는 정식이 사라진 경계를 말한다. 세존께서 꽃을 든 것은 하나하나의 정식을 꿰뚫고 낱알의 눈동자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위태로움에 닥치고도 남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이지 않으니 : 아마도 ‘남을 두려워하는 것은 위기에 닥쳤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黃龍：觸髅則情識窠窟也，眼睛則無情識處也。世尊拈花，則一一穿却換却也。臨危不在悚人者，疑悚人不在臨危之誤也。

해회단<sup>79)</sup>의 엄

“가섭은 바람과 구름을 잘 살피고 그 기운과 빛깔을 잘 분별하였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정수리가 무거운 줄 느끼기는 했는가?”

海會端拈，“迦葉，善觀風雲別氣色。雖然如是，還覺頂門重麼?”

[설화]

정수리가 무겁다 : 마치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가볍다’라는 말과 같아서 거꾸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sup>80)</sup>

海會：頂門重者，如云，‘頭重尾輕’，未免顛墜也。

---

79) 海會端, 백운수단(白雲守端)을 가리킨다.

80) 도끼의 머리가 무겁고 자루는 가벼운 모습에서 나온 비유.



## 해회단의 거

다시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대를 이어 전했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대중들이여, 만약 정법안장이라면 석가노 자에게도 자격이 없을 뿐이거늘 무엇을 나누어 주었겠으며, 무엇을 전했겠는가? 어째서 이와 같이 말하는가? 하물며 여러분의 본분에 각각 정법안장이 있어 날마다 일어나 옳으니 그르니 분별하거나 남이다 북이다 갈라놓거나 드러내는 갖가지 행위들이 모조리 정법안장의 그림자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정법을 보는 이 눈이 뜨이는 순간 하늘과 땅과 대지 전체, 해와 달과 모든 별들 그리고 뻑뻑이 펼쳐져 있는 만물의 형상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더라도 그들 사이에 털끝만큼의 차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눈동자 속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미 눈이 뜨인 자는 이런 한계에 속하지 않겠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내가 손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법안장이 뜨이도록 해 주겠다.” 이윽고 손을 들어 두 손가락을 세우고 말하였다. “자세히 살펴라! 만약 보았다면 일마다 같은 집안의 일이 되겠지만,<sup>81)</sup>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거듭 계송 한 수를 읊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지닌 정법안장이여!

---

81) 운문문언(雲門文偃) 등의 어록(『雲門廣錄』 권상 古尊宿語錄15 卍118 p.349b13)에 나오는 말. “깨달으면 일마다 같은 집안의 일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五祖法演語錄』 古尊宿語錄20 卍118 p.425a12. 會卽事同一家, 不會萬別千差.); “깨달으면 일마다 같은 집안의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깨닫지 못하면 일마다 같은 집안의 일로 보이지만 깨달으면 천차만별에 다 통한다.”(『無門關』 16則「頌」 大48 p.295a21. 會則事同一家, 不會萬別千差. 不會事同一家, 會則萬別千差.)

어떤 성인도 대적하지 못하리라.  
 그대에게 한 가닥 길 터주리니,  
 번득이는 빛 당나라에 가득하리.  
 수미산은 바다 속으로 내달리고,  
 유월에 모진 서리가 내리누나.  
 내가 비록 이렇게 말은 했지만,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은 없다네.  
 대중들이여! 내가 이미 입 가득히 말해 놓고서, 어찌서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이 없다고 했을까?” 이어서 할을 내지른 다음 말하였다. “두 곳에 몸  
 을 나누어 보라.”<sup>82)</sup>

又舉此話云, “次第流傳, 無令斷絕, 至于今日. 大衆, 若是正  
 法眼藏, 釋迦老子自無分, 將箇什麼分付, 將箇什麼流傳? 何  
 謂如此? 況諸人分上, 各各自有正法眼藏, 每日起來, 是是非  
 非, 分南分北, 種種施爲, 盡是正法眼藏之光影! 此眼開時, 乾  
 坤大地, 日月星辰, 森羅萬像, 只在面前, 不見有毫釐之相, 此

---

82) 하나의 무차별을 차별로 나누어 분별의 세계로 연다는 뜻. 헤아릴 수 있는 구절  
 이 없는 경계에 머물지 말고 분별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운신해 보라는 뜻이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밝은 성품을 등지는 것이며, 고금의 공  
 안을 제기하는 것은 앞서 간 조사들의 뜻을 매몰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이 두 가  
 지 잘못된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곳 모두에다 몸을 나누어 보  
 라.’”(『大慧語錄』 권1 大47 p.811c7. 問, ‘一問一答, 辜負己靈; 舉古舉今, 埋沒先祖. 去  
 此二途, 如何即是?’ 師云, ‘分身兩處看.’); “남전보원(南泉普願)이 고양이를 베어  
 버린 화두: 오색 고양이를 두고 있는 힘 다해 닦다다가, 남전이 칼 휘둘러 베어  
 버리고 나니 양편 모두 맹인과 같네. 남전이 두 곳에 몸을 나누어 거듭 가르쳐  
 주자, 대지를 흔드는 자비의 바람 일어났다네.”(『佛眼語錄』 古尊宿語錄34 卽118  
 p.594a17. 南泉斬貓兒: 五色狸奴盡力爭, 及乎按劍總生盲. 分身兩處重相爲, 直得悲風  
 動地生.)

眼未開時，盡在諸人眼睛裏。今日已開者，不在此限，有未開者，山僧不惜手，爲諸人開此正法眼藏看。”乃舉手豎兩指云，“看看！若見得去，事同一家，若也未然，山僧不免重說偈言。諸人法眼藏，千聖莫能當。爲君通一線，光輝滿大唐。須彌走入海，六月降嚴霜。法華雖恁道，無句得商量。大衆！旣滿口道了，爲什麼却無句得商量？”乃喝云，“分身兩處看。”

### [설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눈동자 속에 있을 것이다 : 정법안장이라면 석가와 가섭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면 누구나 본분에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손을 들어 두 손가락을 세우고 말하였다 : 정법안장과 뻥뻥이 펼쳐진 만물의 형상이 한 손의 두 손가락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일마다 같은 집안의 일이다’라고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닌 정법안장 ~ 대적하지 못하리라 : 빈틈없이 들어차 있지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대에게 ~ 당나라에 가득하리 : 뚜렷하게 어디에나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수미산은 바다 속으로 내달리고 : 수미산이 모조리 사라져 이름도 잊힌다는 뜻이다. 바다는 생사의 바다이니, 열반이 곧 생사라는 말이다.

유월에 모진 서리가 내리누나 : 유월에는 끓는 듯한 열기가 당연함에도 모진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추위가 대단히 위세를 떨친다는 뜻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니 사실은 모두 무생(無生)이라는 뜻이다.

내가 비록 ~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은 없다네 : 종일토록 말했으나 말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할을 내지른 다음 ‘두 곳에 몸을 나누어 보라’고 한 말 : 말로 표현하건 아무 말도

하지 않건 모두 하나의 할(喝)일 뿐이다. 앞서 두 손가락을 세운 동작과 이렇게 두 곳에 몸을 나누어 보라는 말은 그 깊이에 있어 같지 않다. 앞서 해회가 제기한 염(拈)의 뜻은 염화미소뿐만 아니라 세존께서 자리를 나누어 가섭도 함께 앉도록 한 것 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향상하는 하나의 통로를 가리키고 있다. 곧 여기서 대중에게 준 법어[示衆]는 그 두 곳의 만남이 하나의 할이 아님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又舉：盡在諸人眼睛裏者，若是正法眼藏，非局釋迦迦葉，人人分上本自具足也。舉手豎兩指者，正法眼藏，森羅萬象，一手之兩指也。故云，‘事同一家’也。諸人法眼藏，至能當者，密密難見也。爲君至大唐者，堂堂成現也。須彌走入海者，須彌相盡名亡，海則生死海，則涅槃卽生死也。六月云云者，六月鬧熱義，降嚴霜則寒威威地。生死卽涅槃，其實皆無生也。法花至商量者，終日說未曾說也。喝云分身兩處看者，道不道，皆是一喝也。前豎兩指，此兩處分身，深淺不同也。前之拈義，非但拈花微笑，分坐令坐，亦不許，指向上一竅也。則此示衆，二處相見，無非一喝也。

###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존경하는 선수행자들이여, 말해 보라! 전해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전해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열반의 미묘한 마음은 사람마다 누구나 갖추고 있거늘 어찌 황면노자의 힘을 빌려 특별히 새롭게 되겠는가! 만약 전해준 것이 없다면 2천여 년 동안 조사들이 대대로 전하여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진 사실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산승은 오늘 여러 해 동안 팔리지 않아 묵은 물건

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았다.<sup>83)</sup> 대중 가운데 이것을 모조리 가져갈 사람 있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변벽<sup>84)</sup>을 감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나는 ‘여주<sup>85)</sup>가 곳곳에서 밝게 빛난다’라고 말하리라.”

枯木成，上堂，舉此話云，“諸禪德，且道！有分付無分付？若言有分付去，涅槃妙心，人人具足，又何假黃面老子，特地新條！若言無分付，二千餘年，祖祖相傳，燈燈相續，豈可徒然！山僧，今日，將多年滯貨，攤向人前。衆中莫有承當得底麼？”良久云，“誰言卞璧無人鑑？我道驪珠到處晶。”

[설화]

모든 사람의 본분에 있는 정법안장을 곧바로 가리킨 것이다.

枯木：直指諸人分上正法眼藏也.

## 조계명의 상당

“세존께서 꽃을 집어 들자 가섭이 미소 지으니, 정법안장과 열반의 미묘한 마음을 여기서 두 손으로 몸소 건네주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83)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물건과 같이 아무도 그 뜻을 몰라 가져가지 못한 염화와 미소를 제기해 보겠다는 말.

84) 卞璧, 변화(卞和)가 초(楚)나라 형산(荊山)에서 캐낸 옥. 본서 417則 주석25) 참조.

85) 驪珠, 여룡(驪龍) 곧 흑룡(黑龍)의 턱 밑에 있는 구슬. ‘변벽’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귀중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 『莊子』 「列禦寇」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천금의 가치를 지닌 구슬은 반드시 9중 깊이의 연못 속 여룡의 턱 밑에 있다. 그 구슬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여룡이 잠든 틈을 이용해야 한다.”(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頷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

서 어지럽게 이리저리 내달리며 선(禪)을 구하거나 도(道)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니 어느 시기에 목적을 이루겠는가! 산승은 평상시에 그들에게 ‘쉬어라, 그쳐라, 지금 당장에 알아차릴 것이다’라고만 가르쳐 왔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말도 그들을 매몰시킬 뿐이다.”

曹溪明, 上堂云, “世尊拈花, 迦葉微笑, 正法眼藏, 涅槃妙心, 於是乎兩手分付. 直至如今, 天下紛紛, 犇南走北, 尋禪覓道, 數如恒沙, 轉不相應, 有何了日! 山僧, 尋常只教他, ‘休去歇去, 直下承當去.’ 伊麼說話, 也是埋沒他了也.”

#### [설화]

조계의 뜻은 사람들이 염화와 미소에서 세존과 가섭의 본래 생각을 잘못 이해할까 염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존과 가섭의 본래 생각은 어떤 것일까?

曹溪意, 恐諸人錯會, 拈花微笑, 世尊迦葉本意也. 則世尊迦葉本意, 作麼生?

### 불안칭원의 상당

“부처님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는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딱 들어맞고 군더더기 없는 요소이거늘 눈동자를 두리번거리며 이러니저러니 헤아려서 옛 성인의 가르침에 보답하려 든다. 먼 길로 돌아가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완결된 글자에는 한 점도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sup>86)</sup>”

86) 문불가점(文不加點). 이 상당의 요지가 압축되어 있는 말이다. 염화와 미소 자체가 완결된 화두이므로 오로지 드러난 그것이 있을 뿐 그 밖에 달리 어떤 분별과 뜻도 덧붙일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본래 명필의 붓글씨와 같이 완성된 글자

佛眼遠，上堂云，“世尊拈花，迦葉微笑，親切親切，省要省要，眼目定動，料料掉掉，爲報先生。莫打之遶！何也？文不加點。”

# [설화]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딱 들어맞고[親切] : 전혀 어김이 없고 착착 들어맞는다는 말이니, 치우침 없는 중간의 말을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다.

군더더기 없는 요소 : 군더더기는 생략하고 절묘한 핵심만 추려냈다는 말이니, 그 본질을 가리켰다는 뜻이다.

(세존께서) 어김없이 들어맞고 다시 (가섭도) 어김없이 들어맞으며, 군더더기 없는 요소이면서[염화] 다시 군더더기 없는 요소[미소]이니, 이 소식은 염화와 미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결된 글자에는 한 점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 또 다시 머뭇거리며 분별한다면 먼 길로 돌아가는 잘못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佛眼：親切者，親親切切，約中間言也。省要者，省略而要妙，

에는 점 하나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실현된 화두[現成公案]에 대해서는 덧칠과 같은 쓸데없는 분별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비유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한 것인데, 지옥의 중생은 어떤 까닭으로 고통을 받는가? 대신하여 답한다. ‘제대로 도리를 아는 자가 거의 없구나.’ 잘 완성된 글자에는 점 하나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경계일까? 대신하여 답한다. ‘붉은 진흙을 덜 익은 홍시에 바르는 격이다.’”(『汾陽語錄』 권중 大47 p.614a15. 一切衆生，本來成佛，地獄衆生，因何受苦？代云，‘知恩者少。’ 文不加點，是什麼人境界？代云，‘赤土塗牛糞。’); “도인이 무슨 마음 편안히 하는 방법[安心法]을 찾는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올 당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물겠다. 달마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혜가에게 전했던 것일까? 주장자를 높이 세웠다가 한 번 내리치면서 말했다. ‘잘 써진 글자에는 덧칠할 필요가 없느니라.’”(『別峰寶印禪師語』 續古尊宿語要6 己119 p.143a12. 道人覓甚安心法！達磨當時帶不來。敢問大眾，達磨既帶不來，後代將何傳授？卓拄杖一下云，‘文不加點。’)

指其體也. 親切而又親切, 省要而又省要, 這箇消息, 不離拈花微笑處也. 故云, ‘文不加點.’ 更若擬議, 未免打之邊.

###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엄

“전해주기는 분명히 전해주었지만,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가벼웠던 것을 어찌하랴!<sup>87)</sup> 왜 그런가? 계족산 봉우리에서는 줄 줄만 알았고, 용화회상에서는 가만히 신통력을 드러내었다.<sup>88)</sup> 비록 찰간(刹竿)을 쓰러뜨리기는 했으나,<sup>89)</sup> 눈살을 활짝 펴지는 못했다. 수행하는 자는 여기서 현녕<sup>90)</sup>이 보여준 안목을 판단하여 보라.”

育王謚拈, “分付則分付了也, 爭奈頭重尾輕! 何故? 雞足峰前, 只知瞌睡; 龍華會上, 謾逞神通. 雖然倒却刹竿, 要且, 眉頭不展. 行脚人, 試向者裏, 辨顯寧爲人眼看.”

#### [설화]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가벼웠다 : 위에서 한 번 나온 구절이다.

존다 : 선정(禪定)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신통 : 유희를 나타낸다.<sup>91)</sup>

---

87) 바로 서지 못하고 거꾸러지고 만다는 비유. 주석80) 참조.

88) 계족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가사(袈裟)를 미륵불(彌勒佛)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가섭, 용화회상에서 설법하고 있는 미륵을 각각 나타낸다.

89) 이 일화에 관해서는 『禪門拈頌說話』 81則 본칙 참조. 찰간이란 그 영역에 조사의 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절 입구에 세워두는 표지(標識)이다. 보통은 설법 등의 불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90) 顯寧. 육왕개심의 사호(寺號).

91) 신통과 유희(遊戲)는 모두 선정에서 체득한 경지를 노닐듯이 자유자재로 부리



‘~할 줄만 안다’는 뜻의 지지(只知)와 ‘가만히 드러내었다’는 뜻의 만령(謾逞) : 모두 불필요한 글자이다.

찰간을 쓰러뜨렸다 : 불법의 전수(傳受)를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눈살을 활짝 펴지는 못했다 : 비록 전수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또한 편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다. 앞에서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가볍다’라고 한 의미가 이 대목에 이르러 비로소 간략하게나마 드러나게 되었다.

현령이 보여준 안목을 판단하여 보라 : 겉보기에는 보여준 안목이 없는 듯하기에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다.

育王：頭重尾經，已出上。瞋睡者，入定也。神通者，遊戲也。只知謾逞者，皆不立也。倒却刹竿者，不立傳受也。眉頭不展者，雖然不立傳受，亦未穩也。前云頭重尾經之義，至此方略辨也。顯寧爲人眼看者，似無爲人眼看也，須辨取始得。

---

는 작용을 나타낸다. 80권본 『華嚴經』 권26 大10 p.780a2, 『維摩經』 권중 大14 p.544b1, 『楞伽經』 권1 大16 p.480a20 등 참조.





# 33칙 世尊自恣 세존자자





### 33칙 세 존자자 世尊自恣

#### [본칙]

세존께서 자자일<sup>1)</sup>을 맞았다. 문수가 세 곳에서 하안거를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섭(어떤 판본에는 ‘우바리(優波離)’<sup>2)</sup>라고 한다)이 백추를 울려 대중에게 알리고<sup>3)</sup> 쫓아내려고<sup>4)</sup> 하였는데, 백추를 칠 망치를 잡자마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수를 보았다. 가섭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보았으나 망

- 1) 自恣日. 안거를 마치는 날, 안거 90일 동안 각자가 범한 과실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고 참회함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을 자자(Ṣpravāraṇā, 𑖦pavāraṇā)라 한다. 견(見)·문(聞)·의(疑) 등 삼사(三事)에 대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날이다. 『十誦律』 권23 大23 p.166a5, 『釋氏要覽』 권3 大54 p.299a7, 『祖庭事苑』 권6 卍113 p.162a12 등 참조. 이 공안은 하안거 기간 동안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금족(禁足)의 계율을 어긴 문수와 법도에 따라 그에게 벌을 주려는 가섭을 대비시켜 관문을 설정했다.
- 2)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우바리는 계율을 조금도 범하지 않고 잘 지켰으므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계를 범한 문수에 대하여 그 반대편에 배치하기 적절한 성격이기 때문에 가섭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白椎·白槌. 대중에게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 곧 건추(鍵槌)를 말한다. 또는 여기서 보이듯이 종을 울려 대중에게 알린다[白]는 말로도 쓰인다.
- 4) 빈출(擯出). Ṣpravāraṇa, nāśana, 𑖦pabbājana, nāśana. 멸빈(滅擯)·빈벌(擯罰)·구출(驅出) 등이라고도 한다. 계율을 범한 비구나 사미 등에 대하여 교단에서 축출하여 대중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단죄하는 방법. 『十誦律』 권15 大23 p.106b26, 『四分律』 권41 大22 p.860b9 등 참조.

치를 들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마침내 가섭에게 “그대는 무수한 문수 중에 어떤 문수를 몰아내려고 하는가?”라고 물었으나 가섭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본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世尊因自恣日，文殊三處過夏，迦葉<一本，優波離>欲白椎擯出，纔拈椎，乃見百千萬億文殊。迦葉盡其神力，椎不能舉。世尊遂問迦葉，“汝擬貶那箇文殊？”迦葉無對。<有本大同小異.>

### [설화]

『보협인나라니경』<sup>5)</sup>의 문구이다.

자자: 스스로[自] 자신의 허물을 진술하고, 대중들의 결정에 맡긴다[恣]는 뜻이다. 『수경(手鏡)』에 “자신의 허물을 남들이 결정하는 그대로 맡긴다”<sup>6)</sup>라고 정의하였다.

세 곳: 안거 3개월 중 한 달은 왕후의 궁전, 또 한 달은 동자의 학당, 마지막 한 달은 창녀들의 방에서 보낸 세 곳의 장소를 말한다. 이는 각각 탐·진·치를 가리킨다. 세 곳에서 거주하면서 궁 안의 5백 여인과 학당의 5백 동자와 창녀촌의 5백 창녀들로 하여금 아누보리(阿耨菩提)에서 물러나지 말고 최고의 바른 도에 머무르도록 하였던 것을 말한다.

세 곳에서 하안거를 보냈다: 탐욕 그대로 도이고, 성냄[瞋恚]과 어리석음[癡] 또한 그렇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현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이 갖추

5) 『寶篋印多羅尼經』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며, 『大方廣寶篋經』 권중 大14 p.474a20의 잘못이다.

6) 종밀(宗密)의 『孟蘭盆經疏』 권하 大39 p.510b22 등에도 나오는 말이다.

어져 있으니, 세상 전체가 금색세계<sup>7)</sup>이고 세상 전체가 바로 문수사리이다. 탐·진·치라는 삼독(三毒)이 진실에 부합하고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 문수와 보현의 대인경계<sup>8)</sup>인 것이다.

가섭 : 마하가섭이 아니라 세 명의 가섭 중 하나이다.<sup>9)</sup>

어떤 판본에 ‘우비리가 백추를 올려 대중에게 알리고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한 말 : 대인경계는 소승인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담긴 선(禪)의 뜻이 어떤 것인지 던진 질문이라는 말이다.

가섭이 백추를 올려 문수를 쫓아내려고 했다 : 만송행수(萬松行秀)는 “내가 대중을 관찰해 보니 마치 맑디맑은 바닷물과 같이 계율을 어기지 않았으나 오직 문수만이 안거의 법도를 깨뜨리고 대중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가섭은 총림의 규율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문수의 허물을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sup>10)</sup>라 하였고, 또한 “부처님까지 하나로 묶어 단번에 모두 내쫓

7) 金色世界. ⑤suvarṇaloka. 문수보살이 거처하는 정토(淨土)이다. “동방으로 십불찰미진수국(十佛刹微塵數國)을 지나 금색이라는 이름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 부처님의 명호는 부동지(不動智)이고 보살의 이름은 문수사리이다.”(60권본 『華嚴經』 권4 「如來名號品」 大9 p.418b19. 東方過十佛刹微塵數國, 有世界名金色, 佛號不動智, 有菩薩字文殊師利.)

8) 大人境界. 대인 곧 불보살이 증득하여 그들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경계. 경론에는 보이지 않는 용어이며 선종 문헌에 ‘문수와 보현의 대인경계’라는 구절로써 선(禪)의 극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雲門廣錄』 권하 古尊宿語錄18 叢118 p.393b16, 『圓悟語錄』 권9 大47 p.753a8 등 참조.

9) 부처님의 10대 제자이자 선종의 초조인 마하가섭과 차별되는 소승의 가섭 삼형제. 곧 우루빈라가섭(優樓頻螺迦葉)과 나제가섭(那提迦葉)과 가야가섭(伽耶迦葉)을 가리킨다. 이들은 불법에 귀의하기 이전에 불을 섬기는 외도[事火外道]였다. 『佛本行集經』 권40 大3 p.849c7, 『過去現在因果經』 권4 大3 p.649c9 등 참조.

10) 『請益錄』 1則 「文殊過夏」 叢117 p.813b2.

고, 가섭만 홀로 남겨 법당을 지키게 하라”<sup>11)</sup>고 하였다. 곧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내칠 것이니<sup>12)</sup> 도를 깨우친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수가 나타났다 : 부처도 안착시키고 조사도 안착시키는 것이니 납승의 배 속은 바다와 같이 넓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 곳에서 하안거를 보냈다는 말에서 세 곳에 담긴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황도(皇都)에 있는 황제의 수레, 먼지 날리는 황도의 거리,<sup>13)</sup> 높은 봉우리의 정상<sup>14)</sup> 등을 말한다. 이것은 대인의 경계에 밝음과 어두움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가섭이 망치를 들지 못했다 : 만송행수는 “애초에 진실한 종풍(宗風)을 우뚝 세우려고<sup>15)</sup> 했던 것이지만, 방편으로 부처와 조사를 붙들어 두어도 무방하다. ‘꽃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 꿀은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모르는가?”<sup>16)</sup>라고 하였다. 만송이 이렇게 한 말은 가섭을 자신의 잘못에 연루시켜 본래의 말을 두 토막으로 갈라놓은 격이다. 원오극근(圓悟克勤)과 천동정각(天童正覺)의 뜻에 따르면, 가섭이 이 망치를 들지 못한 것을 두고 한편으로는 가섭이 손해를 보았고 한편으로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라 판단했으니, 이렇게 평가해야 옳다.

11) 위의 책 p.813b17.

12) 부처가 되었건 조사가 되었건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본분을 고수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본서 672則 본칙 〈설화〉 참조.

13) 자맥(紫陌). 황도 곧 도성 외곽의 도로.

14) 아래 나오는 ‘고목법성의 상당’에 나오는 말.

15) 벽립(壁立). 절벽처럼 우뚝 솟아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경계. 어떤 방편과 수단도 통하지 않는 본분의 종풍을 나타낸다.

16) 『請益錄』 1則 「文殊過夏」 卍117 p.813b18.



무의자(無衣子)의 송이다. “세 곳을 다니며 안거를 보낸 문수여! 무수한 금색세계를 다 드러내었구나. 말미가 흐릿했던<sup>17)</sup> 계봉의 늙은이여!<sup>18)</sup> 공연히 선가에 비웃음만 일으켰도다.” 이 계송을 살펴보면 가섭이 망치를 들지 못한 까닭을 알 수 있다.

寶篋印多羅尼經文. 自恣者, 自陳己過, 恣任僧舉. 手鏡云, ‘自己之過, 恣他所舉也.’ 三處者, 一月王后宮, 一月童子學堂, 一月姪女舍坊, 卽貪瞋癡也. 三處居住, 令宮中五百女人, 學堂五百童子, 舍坊五百姪女, 不退阿耨菩提, 住於無上正道云云. 三處過夏者, 貪欲卽是道, 恚癡亦復然. 如是三事中, 具無量佛法, 則徧界是金色世界, 徧界是文殊師利. 貪瞋癡三毒, 稱眞稱性, 文殊普賢大人境界也. 迦葉, 非摩訶迦葉, 三迦葉中之一也. 一本云, 優婆離, 欲白槌擯出而不得者, 大人境界, 非小乘人而能測量, 禪義何也. 迦葉欲白槌擯出者, 萬松云, “吾觀大衆, 如海澄清, 唯文殊破夏破羣. 迦葉旣掌叢林規矩, 又不可放過.” 又云, “和瞿曇, 一時擯出, 獨留迦葉看堂.” 則佛也打, 祖也打, 眞人面前, 休說假也. 乃見百千萬云云者, 佛也安, 祖也安, 衲僧肚裏如海寬. 然則三處過夏地, 三處義不無. 皇都帝輦, 紫陌紅塵, 高峯頂上也. 此是大人境界明暗相叅. 迦葉槌不舉者, 萬松云, “旣圖壁立眞風, 不妨權留佛祖. 不見道, ‘花又不損, 蜜又得成.’ 萬松伊麼道, 累他迦葉, 話作兩極. 若據

17) 유두무미(有頭無尾).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는 말. 처음에 망치를 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누구도 물리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18) 계봉노(雞峰老). 가섭을 가리킨다. 가섭이 계족산(雞足山)에서 미륵을 기다리며 부처님께서 전수한 가사를 지키고 있다가 입적한 인연에 따라 이렇게 부른다.

圓悟天童義, 則以迦葉不下此槌, 爲落節, 爲無膽, 此論始得.  
無衣子頌云, “三處安居妙吉祥! 剎塵金色界全彰. 有頭無尾雞  
峰老! 空惹禪家笑一場.” 看此頌則知迦葉槌不舉.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sup>19)</sup>

큰 코끼리는 토끼 다니는 샛길로 다니지 않으니,<sup>20)</sup>  
제비와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의 뜻을 알리오?  
범령을 시행함은 아름다운 가풍과 완전히 같았고,  
과녁에 적중함은 화살촉 문 기술과 거의 같았다.<sup>21)</sup>  
세계 전체가 문수요,  
온 누리가 가섭이로다.  
서로 각각 엄연히 구별되거늘,  
망치 들어 누구를 벌주려는가?  
한 번 잘 찢어주었다!  
금색두타<sup>22)</sup>가 일찍이 손해 보았다.

19) 문수와 가섭 사이에 우열을 짓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관점의 송. 1구부터 6구까  
지 한 구절씩 각각 문수와 가섭에 대한 묘사이다. 1구·4구·5구는 문수, 2구·3  
구·6구는 가섭에 대한 서술이다.

20) 영가현각(永嘉玄覺)의 말. 『證道歌』大48 p.396c27.

21) 자신을 맞히려고 날아온 화살을 이빨로 물어 방어하는 것. 제자에게도 전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비책을 가리킨다. 『朝野僉載』·『酉陽雜俎續集』 등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는 문수가 가섭의 공격을 무난히 방어한 것을 나타낸다. 본서  
1175則 주석4) 참조.

圓悟動頌, “大象不遊兔徑, 鷺雀安知鴻鵠? 據令宛若成風, 破的渾如嚙鐵. 徧界是文殊, 徧界是迦葉. 相對各儼然, 舉椎何處罰? 好一割! 金色頭陀曾落節.”

[설화]

큰 코끼리: 문수의 대인경계를 말한다. 이것은 가섭이 헤아릴 대상이 아니므로 토끼가 다니는 샛길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토끼가 다니는 샛길이란 가섭을 가리킨다.

큰 기러기: 가섭이 바른 법령을 높이 제기한 것을 말한다. 이는 문수가 알아맞힐 수 있는 경지가 아니므로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리오’라 말한 것이다. 제비와 참새란 문수를 가리킨다.

법령을 시행함은 ~ 같았고: 가섭에 대한 묘사이다.

과녁에 적중함은 ~ 같았다: 문수에 대한 묘사이다.

그러므로 세계 전체가 문수이어서 문수 이외에 가섭이 없고, 온 누리가 가섭이어서 가섭 이외에 문수가 없다는 뜻이다.

圓悟: 大象, 言文殊大人境界, 非迦葉所能測量故, 不遊兔徑. 兔徑迦葉也. 鴻鵠, 言迦葉高提正令, 非文殊所可弋邈, 故言鷺雀安知. 鷺雀文殊也. 據令云云者, 謂迦葉也; 破的云云者, 謂文殊也. 然則徧界是文殊, 文殊外無迦葉; 徧界是迦葉, 迦葉

22) 金色頭陀. 마하가섭(摩訶迦葉)을 말한다. 금색가섭(金色迦葉)이라고도 한다. 과거세에 수행을 할 때 단금사(鍛金師)였던 가섭이 금색으로 된 비바시불(毘婆尸佛)의 사리탑이 낡은 것을 보고 어떤 여인과 함께 이것을 수리한 공덕으로 91겁(劫) 동안 온몸이 금빛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타라는 명칭은 가섭이 출가한 후 12두타(頭陀)를 잘 행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는 찬탄을 받은 것에서 유래한다. 『佛祖統紀』 권5 大49 p.169b19, 『佛祖歷代通載』 권3 大49 p.496b16 참조.

外無文殊也.

### 설두법령(雪竇法寧)의 송

가섭은 당시에 장부다운 기개가 부족하였으니,  
망치 내려놓고 수많은 문수를 어찌지 못했다네.  
조사이건 부처이건 모조리 쫓아냈어야 했거늘,  
말해 보라, 우리 문하에 할 수 있는 자 있는가?

雪竇寧頌, “迦葉當時未丈夫, 下椎不奈萬文殊. 要須祖佛都盧  
遣, 且道吾門着得無?”

### 심문담분(心聞曇贇)의 송

세계마다 대상마다 나타나기 어렵지 않거늘,  
우바리는 어찌 그다지 그에게 속았을까?  
당시에 잘 따져 첩자<sup>23)</sup>를 가려냈다면,  
고타마를 부처님이라 여기지 않았으리라.

心聞贇頌, “剎剎塵塵現不難, 波離何苦被渠謾? 當時若論收  
姦細, 莫把瞿曇做佛看.”

### 열재거사의 송

문수가 무수한 몸 두루 나타내 보이니,

---

23) 간세(姦細). 간사한 사람. 정세를 엿탐하기 위해 숨어 들어온 첩자.

결국 아무도 진짜 문수 알지 못했다네.  
대단히 고맙게도 분양이 가리켜 냈으니,  
‘중양 9일에 국화가 새롭다’<sup>24)</sup>라고 하네.

悅齋居士頌, “文殊徧現百千身, 畢竟無人識得真. 多謝汾陽爲  
指出, 重陽九日菊花新.”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염

“말라버린 바닷길을 알려면 그곳을 다녀본 사람이라야 한다.”

海印信拈, “欲知旱海路, 須是去來人.”

[설화]

문수와 가섭의 경계는 깨달은 자라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海印義, 文殊迦葉境界, 證者方知.

## 해인초신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에게 청하니, 이에 대하여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를 해 보라! 만일 제대로 말한다면 가섭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리라.” <참!><sup>25)</sup>

24) 분양선소(汾陽善昭)의 말이다. 음력 9월 9일은 양수(陽數)이자 극수(極數)인 9가 겹치는 날로서 중양절(重陽節)이라 하고, 국화절(菊花節)이라고도 한다. “3현과 3요로는 실상을 분별할 수 없으니, 뜻을 터득하고 말을 잊어야 도(道)와 쉽게 가까워진다네. 한 구절에 분명히 만상을 다 아우르니, 중양 9일에 국화가 새롭구나.”(『汾陽語錄』 大47 p.597b7. 三玄三要事難分, 得意忘言道易親. 一句分明該萬象, 重陽九日菊花新.)

又上堂，舉此話云，“請大衆，於此下一轉語看！若也道得，非  
唯迦葉當時，亦作後人領袖。”〈參！〉

[설화]

대중에게 청하니 ~ 한마디를 해 보라 :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又上堂：請大衆至轉語者，解道得地人，索得作麼生道得。

###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가섭 사형은 호랑이 머리에 올라  
타탈 줄만 알았을 뿐 호랑이 꼬리는 매듭지를 줄은 몰랐다.<sup>26)</sup> 당시에 남  
김없이 법을 시행했다면,<sup>27)</sup> 백천 명의 문수는 말할 것도 없고 황면노자  
(부처님)조차도 발을 들여놓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올여름 안거를 보낸 곳은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 나  
는 그에게 ‘한 달은 황도에 있는 황제의 수레에 있었고, 다른 한 달은 먼  
지 날리는 황도의 거리에 있었으며, 마지막 한 달은 우뚝 솟은 봉우리

---

25) 參. 할(喝)과 마찬가지로 한 소리 크게 내지르는 말로서, 주로 문어에 쓰인다. 여  
기서는 편집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쓴 말이다.

26) 가섭이 문수를 때리려고 시작만 했다가 마무리를 맺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비  
유. 수미(收尾)는 결말을 맺어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景德傳燈錄』 권12 「臨濟  
傳」 大51 p.299c11에 양산(仰山)이 임제(臨濟)를 평가하는 말 중에, 같은 책 권26  
「瑞鹿本先傳」 大51 p.427b19 등에 나오는 말이다.

27) 예외 없이 법 그대로 엄격하게 시행하여 문수가 되었건 부처가 되었건 모두 물  
리치는 파주법(把住法)이다. ‘부처가 와도 때리고 조사가 와도 때리는(佛來也打,  
祖來也打)’ 수단을 말한다.

의 정상에 있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금색두타가 당한 굴욕을 씻어줄 자 있는가? 있다면 어찌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하였다. “감옥에 갇혀 지혜를 기르는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sup>28)</sup>

枯木成, 上堂, 舉此話云, “諸仁者, 迦葉師兄, 只解騎虎頭, 不解收虎尾. 當時盡法而行, 說什麼百千文殊? 和者黃面老漢, 也無措足之地. 如今或有人問香山, ‘仁者, 今夏安居何處?’ 香山對他道, ‘一月在皇都帝輦, 一月登紫陌紅塵, 一月在孤峯頂上.’ 如今還有爲金色頭陀, 雪屈出者麼? 何不出來, 與香山相見?” 良久云, “泊合停囚長智.”

#### [설화]

가섭 사형은 ~ 호랑이 꼬리는 매듭지를 줄을 몰랐다 : 법령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누군가 나에게 ~ 우뚝 솟은 봉우리의 정상에 있었다 : 교화의 방편으로 보여준 증득과 교화이다.

지금 여기에 ~ 굴욕을 씻어줄 자 있는가 : 금색두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인가? 각자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라는 뜻이다.

감옥에 갇혀 지혜를 기르는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 후한(後漢) 광무제<sup>29)</sup> 때 살았던 두독(杜篤)의 자는 계아(季雅)인데, 죄를 지어 옥에 갇혀 있던 중 대

28) 분별에 몰두하여 쓸모없는 지혜만 늘리는 잘못에 빠진다는 말. 『雪寶語錄』 권2 大47 p.682c4, 『大慧語錄』 권4 大47 p.828a18 등 참조.

29) 光武帝. 후한의 초대 황제. 25~57년 군림했다. 자는 문숙(文叔). 묘호는 세조(世祖). 광무는 시호이다. 이름은 유수(劉秀)로 전한(前漢)의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9세손이다.

사마(大司馬) 오한(吳漢)의 죽음을 맞이했다. 광무제는 유학자들에게 조문[誄]을 지으라는 조칙을 내렸는데, 두독이 옥에서 지은 조문이 가장 뛰어나다. 광무제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상을 내리고 형벌을 풀어주었다. 스스로 속박된 몸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枯木：迦葉師兄，至收虎尾者，令不行故也。或有人問香山，至孤峯頂上者，化門證化也。還有，至雪屈者麼者，扶見金色頭陀立處耶？自固立處也。洎合停囚長智者，後漢元帝<sup>30)</sup>時，杜篤，字季雉，<sup>31)</sup>有罪囚獄，會司馬<sup>32)</sup>吳漢夢<sup>33)</sup>。高祖帝，<sup>34)</sup>詔諸儒謀<sup>35)</sup>之，篤獄中文辭<sup>36)</sup>最高。帝異<sup>37)</sup>之，優賞贖刑。言自有出身之路也。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염<sup>38)</sup>

“금색두타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을 펼칠 담력이 없었다. 당시에

30) 『後漢書』 권110상 「杜篤傳」에 따라, ‘元帝’는 ‘光武’로 바로잡는다.

31) 위의 책에 따라, ‘雉’는 ‘雅’로 바로잡는다.

32) 위의 책에 따라, ‘司馬’는 ‘大司馬’로 바로잡는다.

33) 위의 책에 따라, ‘夢’은 ‘薨’으로 바로잡는다.

34) 위의 책에 따라, ‘高祖帝’는 ‘光武’로 바로잡는다.

35) 위의 책에 따라, ‘謀’는 ‘誄’로 바로잡는다.

36) 위의 책에 ‘文辭’는 ‘爲誄辭’로 되어 있다.

37) 위의 책에 ‘異’는 ‘美’로 되어 있다.

38) 내쫓아서 법령을 시행하는 가섭의 입장을 긍정하여 그것을 더욱 확장하는 관점에서 내린 평가이다. 옳다면 가섭과 문수가 모두 옳고, 잘못이라면 이들 둘이 모두 잘못이다. 이러한 일종의 평등한 관점에 따르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으며 승부가 갈라지지 않는 것에 화두의 특징이 나타난다. 아래 원오극근의 염과 유사한 뜻이다.



법령을 남김없이 시행했다면,<sup>39)</sup>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수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황면구담<sup>40)</sup>까지도 쫓아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했다면, 진실한 가풍을 우뚝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인들로 하여금 우리 남승 문하에 저들 쓸모없는 부처와 조사가 붙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했을 것이다.”

天童覺拈, “金色頭陀, 有心無膽. 當時盡令而行, 莫道百千萬億文殊, 祇者黃面瞿曇, 也與擯出. 若能如是, 不唯壁立眞風, 亦令後人知, 我衲僧門下着你閑佛祖不得.”

[설화]

글에 다 드러나 있다.

天童：文見.

### 장로종색(長蘆宗頤)의 거

이 공안을 제기한 다음 주장자를 집어 들고서 말했다. “지금 시방과 삼세가 모두 주장자 끝에 매달려 있다. 모든 곳에 문수사리가 있고 모든 곳이 석 달 안거하는 장소라 하는구나!<sup>41)</sup> 대가섭이 놓아주었다 사로잡았다 했던 기량은 참으로 볼 만했지만, 문수사리가 하는 그대로 방임한 결과가 되었다. 만일 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곧바로 한 장의 판결

39) 사사로운 감정 없이 법조문 그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본분의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말.

40) 黃面瞿曇. 부처님을 가리킨다. 황면노자(黃面老子)와 같은 말이다. 『精選 선어록』 백운어록 주석17) 참조.

41) 모든 것이 주장자 끝에 있으므로 그 말도 바르지 않다는 냉소적 비판.

문에 두 죄인의 죄목을 함께 적어 처리해 버렸을 것이다.<sup>42)</sup>” 주장자로 선상을 때렸다.

長盧蹟，舉此話，乃拈起拄杖云，“如今十方三世，搥在拄杖頭上。一切處，文殊師利；一切處，三月安居！大迦葉，雖然縱奪可觀，放過文殊師利。若是新羅卽不然，直須一狀領過。”擊禪床。

[설화]

주장자를 집어 들고서 ~ 선상을 때렸다 : 가섭의 경계가 시방과 삼세 전체이지만 바로 이 주장자 끝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문수의 경계 또한 그와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문수사리가 있고 모든 곳이 석 달 안거하는 장소’라는 말도 잘못이 없지 않으며, 대가섭 또한 잘못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 장의 판결문에 두 죄인의 죄목을 함께 적어 처리해 버렸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서 그 이상 높이 착안하라는 말인가? 주장자를 집어 들고 말했던 경계가 바로 그와 같다는 뜻이다.

長蘆：拈起拄杖云云者，迦葉境界，盡十方三世，在這裏，則文

42) 가섭도 문수도 모두 처음 시작한 일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공범이 되었다. 꼭 마찬가지로 이유로 상을 내리려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안목과 화두를 수용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말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 부처와 도적을 화두로 삼아 처분 내린 다음의 예에도 잘 나타난다. “도적은 선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처는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처와 도적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이 두 마디를 벗어나지 못한다. 알겠는가?” 불현듯 주장자를 잡아 눈앞에 한 획을 그으며 말했다. ‘건창 지방은 종이가 귀하니, 한 장의 판결문에 두 죄인의 죄목을 함께 적어 처리한다.’”(『大慧語錄』 권7 大47 p.839a21. ‘賊是善人爲，佛是惡人做。佛賊善惡人，不出這兩箇，還會麼?’ 藹拈拄杖，面前畫一畫云，‘建昌紙貴，一狀領過。’)

殊境界，更無第二也。然則，‘一切處，文殊師利；一切處，三月安居.’ 未得無過，大迦葉，亦未得無過。故云，一狀領過也。此外謂更高一着耶？拈拄杖處如是。

## 원오극근의 염

“좋은 치지 않으면 울리지 않고, 북은 때리지 않으면 소리 나지 않는다. 가섭이 관문을 틀어막고 지키는 입장이었다면, 문수는 온 세상 전체를 깔고 앉아 있었던 격이다.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좋은 한 바탕의 불사가 펼쳐졌지만, 안타깝게도 잘못을 봐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석가노자가 ‘어떤 문수를 쫓아내려고 하는가?’라고 말했을 때, 곧바로 망치 한 방을 내리치고서 그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살펴야 했다.”

圓悟勤拈，“鍾不擊不響，鼓不打不鳴。迦葉既把斷要津，文殊乃十方坐斷。當時好一場佛事，可惜放過一着。待釋迦老子道，‘欲擯那箇文殊?’ 便與擊一槌，看他作麼生合殺。”

### [설화]

좋은 치지 않으면 ~ 소리 나지 않는다 : 문수와 가섭이 한편은 북을 치고 다른 한편은 비파를 울리며 잘 어울렸다는 뜻이다.

가섭이 관문을 ~ 깔고 앉아 있었던 격이다 : 두 사람의 견지가 모두 구멍 없는 쇠망치<sup>43)</sup>와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색두타(가섭)가 손해를 본 것은 어쩔

43) 무공철추(無孔鐵槌). 본서 417則 주석5) 참조. 문수와 가섭이 서로 대립되는 듯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문을 견지하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가섭과 세상 누구도 운신하지 못하도록 눌러앉아 있는 문수의 방식은 모두 ‘구멍 없는 쇠망치’와 같다.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잘못을 봐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고 했던 것이다.

圓悟：鍾不擊云云者，文殊迦葉打鼓弄云云也。迦葉至坐斷者，一等無孔鐵槌也。爭奈金色頭陀落節，故云，可惜放過。

## 원오극근의 소참

“문수보살은 한 번의 하안거 기간 동안 세 곳에서 여름을 지냈다. 한 달은 마구니의 궁전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달은 장자의 집에서 보냈으며, 마지막 한 달은 창녀촌에 있었다. 세 곳에서 여름을 지냈으면서 다시 세존의 회중에 들어와 해제를 맞이한 것은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처사였다. 그런 까닭에 가섭은 백추를 울려 대중에게 알리고 문수를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이 들자마자 회중에는 수많은 석가와 수많은 문수와 수많은 가섭과 수많은 망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가섭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눈을 멍하게 뜨고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sup>44)</sup> 왜 그랬을까? 한도를 벗어난 사람<sup>45)</sup>에게는 한도를 벗어난 견해가 있고

44) 목징구거(目瞪口呿). 눈앞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장면이지만 어떤 수단도 부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궁극적인 경지를 묘사한다. 원오는 다른 곳에서도 이 표현을 즐겨 쓴다. 『圓悟語錄』 권1 大47 p.718a18, 권2 p.721a12, 『碧巖錄』 57則「著語」大48 p.191a7 등 참조. “밭가는 농부의 소를 몰아가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이것이 바로 선대로부터 내려온 밭톱과 이빨과 같은 수단이다. 그 아라한이 허다하게 많은 신통과 묘용을 갖추었지만 양산의 면전에 이르러서는 눈을 멍하게 뜨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仰山語錄』 大47 p.586b3, 驅耕夫之牛，奪飢人之食，是從上爪牙，這羅漢，具許多神通妙用，到仰山面前，直得目瞪口呆。)

45) 과량인(過量人). 모든 분별의 한도를 벗어나 범부와 성인의 경계를 자유자재하게 출입하며 본분을 발휘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 원오는 다른 부분에서도 이 말

한도를 벗어난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금색두타라 할지라도 이 경계에 이르러서는 손을 오피리지도 못하고 손을 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간은 크고 원만한 깨달음 안에 있을까? 아니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 밖에 있을까? 사방으로 막힘없이 통하는 작자랴야 증명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문수와 보현의 대인경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수와 보현의 경계를 참구한다면, 끝이 없는 향수해<sup>46)</sup> 전체와 헤아릴 수 없고 티끌의 수만큼 많은 불국토가 모두 안거하는 장소가 되어 끝없이 무수한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누워도 방해받지 않고 조금도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본분의 소리를 알아듣는 자라면 들려주는 순간 곧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내가 대중과 함께 비록 90일 동안 안거를 보냈지만, 그 궁극적인 까닭을 여러분은 알겠는가? 여러분이 만약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꿰뚫었다면 그것은 문수와 보현의 경계일 것이며,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꿰뚫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섭의 경계일 것이다.<sup>47)</sup> 그렇다면 문수와 가섭의 경계를 벗어나서 원인을 거두고 결과를 맺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알겠는가? 90일 동안의

---

을 쓴다. “산승이 하나의 소식을 드러냈지만, 한도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도를 벗어난 본분사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園悟語錄』 권10 大47 p.757a6, 山僧露箇消息去, 也須知過量人, 契此過量事.)

46) 香水海. 향기로운 물로 가득 찬 바다. 세계에는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주변에는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여덟 번째 바다만 짝 물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공덕수(功德水)로 채워져 맑고 향기로운 덕이 있으므로 향수해라 한다. 『俱舍論』 권11 大29 p.57b29 참조.

47) <설화>에 설명되듯이 이는 원오가 고의적으로 가섭을 낮추고 문수를 올려서 우열을 갈라놓았을 뿐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우열이 없는 곳에서 우열을 나누는 선사들의 장치이다.

공부를 이제 모두 채웠으니 포대를 활짝 풀고 나와 각자 마음껏 돌아다녀라.<sup>48)</sup>”

又小參云, “文殊菩薩, 一夏三處度夏. 一月在魔宮, 一月在長者家, 一月在姪坊. 既三處度夏, 却入世尊會中解制, 極爲不平. 所以, 迦葉欲白槌擯出文殊. 纔舉此念, 見會中有無量釋迦, 無量文殊, 無量迦葉, 無量捷槌. 迦葉既見伊麼, 直得目瞪口呆. 何故? 過量人, 有過量見, 有過量用. 雖金色頭陀, 到者裏, 縮手不得, 展手不去. 只如伊麼時, 是大圓覺裏耶? 大圓覺外耶? 須是通方作者, 始能證明. 何故? 此是文殊普賢大人境界. 若叅得文殊普賢境界, 則盡無邊香水, 無量無數微塵佛刹, 悉爲安居處, 乃至現無邊身, 處處行住坐臥, 亦不相妨, 亦不犯手. 正當伊麼時, 若是知音者, 舉起便知. 所以天寧, 雖與大衆, 九十日安居, 畢竟諸人還知麼? 諸人, 若透頂透底去, 卽是文殊普賢境界; 若不透頂透底去, 卽是迦葉境界. 離却文殊迦葉, 收因結果一句, 作麼生道? 還委悉麼? 九十日功今已滿, 豁開布袋各優遊.”

#### [설화]

문수의 대인경계를 나타내었다.

문수와 가섭의 경계를 벗어나서 ~ 어떻게 말하겠는가 : 바로 이전에 문수가 우월

- 
- 48) 안거하는 90일 동안은 어디도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된 금족(禁足)이 풀린 것을 말한다. 안거를 맺는 것을 ‘포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해제를 ‘포대를 풀고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 금족과 관련된다. 원오가 결제상당에서 “원숭이가 포대로 들어갔다.”(『圓悟語錄』 권8 大47 p.748a15. 猢猻入布袋.)라고 한 비유나, 대혜가 해제 때 “포대의 매듭을 오늘 풀었다.”(『大慧語錄』 권8 大47 p.843b3. 布袋結頭, 今日開.)라고 한 표현에 그 예가 보인다.

하고 가섭이 열등한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우열의 차별을 떠나는 것은 원인이고, 우열의 차별이 없는 것이 결과이다.

90일 동안의 공부를 ~ 마음껏 돌아다녀라 : 이전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문수와 보현의 경계이다.

又小參，現文殊大人境界也。離却文殊迦葉云云者，前云文殊迦葉，似有優劣故。離却優劣是因，無優劣是果也。九十日功云云者，依舊是文殊普賢境界也。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소참

하안거를 마치는 날 소참<sup>49)</sup> 때 이 공안을 들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당시에 안타깝게도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여 기꺼이 보잘것없는 법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 만약 이 망치 한 방을 내리쳤다면 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석가노자<sup>50)</sup>일지라도 몸을 보전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망치 한 방이 귀착되는 뜻을 알겠는가? 만약 안다면, 온 세상의 모든 중생과 사생육도<sup>51)</sup>까지 한꺼번에 굶지 않은 것은 벽돌이 부서지고 봄날 얼음이 녹듯이 털끝만큼의 흔적도 볼 수 없게 사라질 것이다. 만약 어떤 납승이 나와서 ‘화상께서 그렇게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움직이는 것은 고요하게 있는 것만 못하니, 한번 봐주고 넘어간다<sup>52)</sup>’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그런가? 저녁놀은 한 마리

49) 『精選 선어록』 진각어록 주석218) 참조.

50) 釋迦老子. 『精選 선어록』 백운어록 주석31) 참조.

51) 四生六道. 사생은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 등 윤회의 세계에 출생하는 네 가지 방식, 육도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천상(天上) 등을 윤회하며 태어나는 여섯 가지 세계를 말한다.

들오리와 나란히 날고, 가을 강물은 아득한 하늘과 같은 빛깔이다.<sup>53)</sup>”

佛眼遠，解夏小叅，舉此話云，“大衆！當時可惜放過，甘爲樂小法者。若下得者一椎，莫道文殊，假使釋迦老子，亦無容身之處。諸人，還知者一椎落處麼？若知得，盡大地一切衆生，四生六道，一時瓦解冰消，無絲毫可見。或有箇衲僧出來道，‘請和尚試下手看。’卽向他道，‘動不如靜，放過一着。’何故？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

[설화]

털끝만큼의 흔적도 볼 수 없게 사라질 것이다 : 망치 한 방을 내리쳐 범령을 남김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움직이는 것은 교묘하게 있는 것만 못하다 : 이 망치 한 방을 내리치는 행위 또한 움직이는 것이니, 상대의 잘못을 한번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문수와 가섭은 ‘저녁놀’이라 운운한 시구의 내용처럼 서로 어울리는 관계이다.

佛眼小叅：無絲毫可見者，下一椎令盡行，始得。動不如靜者，下這一椎，亦是動也，不如放過一着也。然則文殊與迦葉，是落

---

52) 방과일착(放過一着).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잘못 둔 수를 한 수 물려준다는 말. 상대가 잘못 반응한 것을 한번 눈감고 넘어간다는 뜻으로 전화되었다. 여기서는 직접 손을 써 달라는 요청에 잘못된 점이 있지만 방편으로 한마디 해 준다는 뜻이다.

53) 왕발(王勃)의 「滕王閣序」에 나오는 구절이다. 선어록에 빈번하게 인용된다. 우열이 없는 양자가 전체의 조화를 성립시키는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저녁놀과 들오리, 가을 강물과 하늘이 서로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가지면서 동일한 풍경 안에 서로 어울리듯이 가섭과 문수도 이 공안의 진실을 드러내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霞與云云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하안거를 시작하는 날,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문수는 세 곳에서 안거를 보냈고, 지공<sup>54)</sup>은 한가로운 화상이 아니었으며, 가섭은 바른 법령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눈앞에서 귀신을 보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말해 보라! 나의 문하에서 지금의 일은 어떠한가? 법좌에서 내려오면 모두들 세 번 절<sup>55)</sup>을 한다.”

雲門杲, 結夏, 上堂云, “文殊, 三處安居; 誌公, 不是閑和尚; 迦葉, 欲行正令, 未免眼前見鬼. 且道! 徑山門下今日事, 作麼生? 下座後, 大家觸禮三拜.”

### [설화]

문수는 세 곳에서 ~ 귀신을 보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 문수와 지공과 가섭 등

54) 誌公. 주장자 끝에 가위를 달고 다녔던 금릉보지(金陵寶誌)를 가리킨다. “머리털은 몇 치가량 기르고 항상 맨발로 다니면서, 석장 하나를 들었는데 그 끝에 가위와 한 척 크기의 거울을 걸고, 한두 척 길이의 비단을 매달았다.”(『空谷集』 12則 「評唱」 卍117 p.545b11. 髮長數寸, 常跣足行, 執一錫杖, 頭挂剪刀及尺鏡, 懸一二尺帛子.); “지공은 한가한 화상이 아니었으니, 가위가 언제나 침상 머리에 놓여 있었다.”(『圓悟語錄』 권17 大47 p.795c11. 誌公不是閑和尚, 剪刀只在臥床頭.) 잘 때도 늘 무엇이건 잘라 없애는 가위를 두듯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법령을 엄하게 시행한다는 뜻.

55) 축례삼배(觸禮三拜). 좌구(坐具)를 접어 바닥에 놓고 그곳에 이마를 대고 올리는 절을 말한다.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축례삼배를 올리면 윗사람은 답례로 축례일배를 한다. 좌구를 다 펼치고 세 번 올리는 대전삼배(大展三拜)와 비교하여 약식의 절이라 하여 약배(略拜)·즉례(卽禮)·속례(速禮) 등이라 부른다. 『百丈清規』 권3 大48 p.1124a13 참조.

그 누구도 하는 그대로 방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공은 한가로운 화상이 아니었다 : ‘한가로운 스님이 아니었다면 여러 곳을 마구 돌아다녔던 까닭이 무엇이였을까?’라는 뜻이다.

모두들 세 번 절을 한다 : 문수와 가섭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도 풀잎 하나 흔들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 언행을 시행했다는 뜻이다.

雲門：文殊三處至見鬼者，皆不放過也。誌公不是閑和上者，不是閑和上，爲什麼亂走之義也。大家觸禮三拜者，文殊迦葉，有什麼過？入林不動草，入水不揚波也。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훗날의 존숙들이 ‘망치 한 방을 내리쳤어야 했는데 도리어 상대가 하는 그대로 놓아 두어 기꺼이 소승인이 되고 말았다’<sup>56)</sup> 라고 한 염(拈)을 제기한 다음 말했다. “존숙들이 이렇게 평가한 말은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고 제각각의 느낌을 말하는 꼴이다.”<sup>57)</sup> 나는 올해 여름 장산(蔣山)에서 하안거를 시작해서 포선(褒禪)에서 하안거를 중도에 그만두고<sup>58)</sup> 화장(華藏)에서 하안거를 마쳤다. 말해 보라! 문수와 같은가, 다른가? 만약 같다고 한다면 그에게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56) 장로종색·원오극근·불안청원 등의 견해에 나타난다.

57) 『長阿含經』 권18 大1 p.128c11, 『大般涅槃經』 권32 「師子吼菩薩品」 大12 p.556a8 등에 나오는 비유. 맹인들이 각자 손으로 감촉한 부분만 가지고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자신의 집착에 근거하여 내세우는 허망한 주장과 분별을 나타내고 있다.

58) 파하(破夏). 『禪林象器箋』 권3 禪藏 p.158에 “금족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행처 밖으로 벗어나 돌아다니는 것”(不守禁足之制，出界外遊者.)이라고 정의했다.

눈<sup>59)</sup>이 붙어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며, 만약 다르다고 말하더라도 그에게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눈이 붙어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만일 남의 말에 속지 않는 자가 나타나 ‘장로이시면서도 이다지 모호한 입장<sup>60)</sup>이 시균요’라고 한다면, 다만 그에게 ‘모호함 속에 분명한 점이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절박하게 (나의 계송을) 들어라!<sup>61)</sup>

세 곳으로 장소 옮겨 시비를 판정하려 의도했거늘,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완고하여 조금도 바꾸지 못하네.  
 모호하게 뒤섞인 말<sup>62)</sup> 누구에 의지하여 이해할까?  
 무쇠 이마와 구리 머리의 사람도 눈썹 찌푸리리라.<sup>63)</sup>”

密庵傑，舉此話，連舉後來尊宿拈，‘好一槌，又却放過，甘作小乘人.’ 師云，“尊宿伊麼，也是盲人摸象. 傑上座，今夏蔣山

- 
- 59) 일척안(一隻眼). 원래 하나의 눈 곧 외눈박이를 가리키지만, 진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안목 또는 뛰어난 식견(識見)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두 개의 육안(肉眼)과 다르다 하여 제3의 눈이라 하고, 정문안(頂門眼)·정안(正眼)·활안(活眼)·명안(明眼) 등이라고도 한다.
- 60) 다르다고 해도 인정하고 동일하다고 해도 인정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 자체가 하나의 화두이며, 동일성과 차이성을 모두 하나의 몰자미(沒滋味)로 귀착시키는 화두 참구의 관점에 따른다.
- 61) 1구는 문수, 2구는 가섭의 입장을 나타낸다. 3구는 문수와 가섭을 평등하게 아우른 밀암의 화두, 4구는 총괄적으로 문수나 가섭 그리고 밀암 자신의 화두는 아무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한다. 한편, 1구와 2구는 오조법연(五祖法演)의 말을 활용한 것이다. 『五祖法演語錄』 권2 大47 p.657b6, 古尊宿語錄21 卍118 p.428b7 참조.
- 62) 호언한어(胡言漢語). 외국어와 중국어가 뒤섞여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없는 말.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다는 식으로 제시되는 화두를 가리킨다. 이 말에는 밀암이 이 공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성과 차이성으로 제기한 또 하나의 화두가 압축되어 있다.
- 63) ‘무쇠 이마와 구리 머리’는 냉정하여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알아듣지 못하여 고민한다는 뜻이다.

結夏，褒禪破夏，華藏終夏。且道！與文殊，是同是別？若道是同，許他具一隻眼；若道是別，也許他具一隻眼。忽有箇不受人顚底出來道，‘長老也好濕漚。’只向他道，‘濕漚中有箇分曉處。’急須聽取！三處移場定是非，頑心全不改毫釐。胡言漢語憑誰會？鐵額銅頭也皺眉。”

[설화]

나는 올해 여름 ~ 화장에서 하안거를 마쳤다:앞에서 ‘한 달은 황도에서 보냈고, 다른 한 달은 황도의 먼지 나는 길에서 지냈다’라고 한 말과 같다. 그렇다면 문수의 경우와 같은가, 다른가? 같다고 해도 되고 다르다고 해도 된다.

계송의 제1구: 세 곳으로 안거 장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시냇거리를 남겼다는 뜻이다.

계송의 제2구: 철저하게 완고하고 어리석다는 뜻이다.

계송의 제3구: 외국 땅을 다니는 동시에 중국 땅을 달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어와 중국어가 모두 증득과 교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계송의 제4구: 비록 무쇠 이마와 구리 머리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密菴：今夏蔣山，至華藏終夏者，上一月皇都，一月紫陌之義也。然則與文殊，同耶別耶？同亦得，別亦得也。三處移場云云者，三處移傳故，有是非也。頑心云云者，徹底頑愚也。胡言云云者，指胡地上行，漢地上走。胡漢亦證化也。鐵額云云者，雖是鐵額銅頭，奈何不得也。



# 44칙 涅槃塗毒 열반도독





## 44칙 열반도독 涅槃塗毒<sup>1)</sup>

### [본칙]

『열반경』에 “나의 교의는 독 바른 북[塗毒鼓]을 한 번 울릴 때마다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죽는 것과 같다”<sup>2)</sup>라고 하였다. 암두가 이 공안을 제기했을 때, 소염상좌가 “도독고란 어떤 것임 니까?”라고 묻자 암두는 두 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고 몸을 구부리면서

- 1) 『涅槃經』의 내용을 공안으로 제기했다. 경전에서 독을 바른 북 곧 도독고(塗毒鼓)는 번뇌를 죽이는 『涅槃經』 교설의 방편을 가리킨다.
- 2) 경전의 본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잡다한 독약을 큰 북에 발라두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비록 들을 마음이 없이 듣더라도 듣기만 하면 모두 죽는 것과 같다. 그러나 횡사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은 제외한다. 대승경전인 이 『대반열반경』도 이와 같다. 어느 곳에서나 수행하는 대중들 중에서 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듣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여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들 중에 비록 그 뜻을 생각하고 기억해 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경전의 인연력 때문에 번뇌를 소멸시켜 번뇌의 결박이 저절로 사라지고 4중금(重禁)이나 5무간(無間)에 떨어질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경을 다 듣고 나면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성취할 인연을 지어 점차로 번뇌를 끊을 것이다. 그러나 횡사하지 않는 일천제의 무리는 제외된다.”(『涅槃經』 권9 大12 p.661a20. 譬如有人, 以雜毒藥, 用塗大鼓, 於衆人中, 擊令發聲, 雖無心欲聞, 聞之皆死. 唯除一人, 不橫死者. 是大乘典大涅槃經, 亦復如是. 在在處處, 諸行衆中, 有聞聲者, 所有貪欲瞋恚愚癡, 悉皆滅盡. 其中雖有無心思念, 是大涅槃因緣力故, 能滅煩惱, 而結自滅, 犯四重禁, 及五無間, 聞是經已, 亦作無上菩提因緣, 漸斷煩惱. 除不橫死一闍提輩.)

말했다. “한신이 조정에 임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격이다.” <암두가 이 공안을 제기했을 때 소염상좌가 “도독고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암두는 양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고 몸을 굽히며 말했다. “한신이 조정에 임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격이다.”>

涅槃經云, “吾教意, 如塗毒鼓擊一聲, 遠近聞者皆喪.” 崑頭, 舉此話時, 有小巖上座問, “如何是塗毒鼓?” 師以兩手, 按膝亞身云, “韓信臨朝底.” <崑頭舉此話時, 有小巖上座問, “如何是塗毒鼓?” 師以兩手, 按膝亞身云, “韓信臨朝底.”>

### [설화]

이 공안은 삼승이나 일승으로 아우르지 못하니 반드시 향상하는 길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까?

소염상좌가 ~ 처리하는 격이다 : 한신이 조정에 임하자 광무<sup>3)</sup>가 한신에게 물었다. “장군이라면 어디로 가야 공을 이루겠습니까?” “장군이 조정의 정사에 임하여 천하를 호령하며 우렁차게 한 소리 부르짖으면 그 기개는 대적할 상대가 없는 듯이 대단할 것이니, 제나라로 가도 되고 노나라로 가도 되거늘 어디로 간들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곧 동방에 한 점을 찍어도 되고, 서방에 한 점을 찍어도 되며, 상방에 한 점을 찍어도 되고, 마혜수라<sup>4)</sup>의 제3의 눈이라도 되니, 그 하나하나가 도독고와 같다<sup>5)</sup>

3) 廣武, 초(楚)나라와 한(漢)나라가 싸울 때 조(趙)나라의 모신(謀臣) 이좌거(李左車)를 가리킨다. 그가 광무군(廣武君)이라는 벼슬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한신과 장이(張耳)가 조나라를 공격할 때 조나라 권신(權臣) 성안군(成安君) 진여(陳餘)가 광무군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결과 패했다. 한신은 광무군을 잡아 사사를 받았고, 광무군은 마침내 그에게 책략을 지도하여 연(燕)과 제(齊)의 땅을 차지했다. 『史記』 「淮陰侯列傳」 참조.

4) 摩醯首羅, ㉓Maheśvara, ㉔Mahissara. 대자재천(大自在天)이라 번역한다. 색구경천(色究竟天)에 거주하며 만물을 자유자재로 주재하는 자이다. 최상품의 사선



는 뜻이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큰 북에 발라두고 중생이 전투를 할 때 한 번 울리는 순간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다”<sup>6)</sup>라고 하였다.

此話，三一不相攝，須知向上路耶？小巖上座問云云，韓信臨朝地，廣武問韓信，“將軍何往而有功？”韓信曰，“將軍臨朝，號令天下，長嘯一聲，志若無人焉，適齊也得，適魯也得，何往而不可？”則東方下一點也得，西方下一點也得，上方下一點

자(四禪者)가 이 색구경천에 태어나는데, 이곳이 색계(色界)에서 가장 뛰어난 과보(果報)이다.

- 5) 본칙의 문답 바로 앞에서 암두전환이 말한 다음의 내용에 기초한 <설화>이다. “암두가 말했다. ‘나의 교의는 마치 범어 이자(伊字: 𑖦𑖯)의 세 점과 같다. 첫 번째는 동방에 한 점을 찍어 모든 보살의 눈을 밝게 뜨도록 하고, 두 번째는 서방에 한 점을 찍어 모든 보살의 목숨의 근원을 밝혀 주며, 세 번째는 상방에 한 점을 찍어 모든 보살의 정수리를 밝게 한다. 이것이 제1단의 뜻이다.’ 다시 말했다. ‘나의 교의는 마치 마해수라가 얼굴을 활짝 열고 제3의 눈을 치켜뜨는 것과 같다. 이는 제2단의 뜻이다.’ 또 말했다. ‘나의 교의는 마치 도둑고와 같아서 한 번 울릴 때마다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죽는다. 또는 함께 죽는다고 한다. 이는 제3단의 뜻이다.’”(『景德傳燈錄』 권16 「巖頭全豁傳」 大51 p.326b20. 師曰, ‘吾教意如伊字三點. 第一向東方下一點, 點開諸菩薩眼; 第二向西方下一點, 點諸菩薩命根; 第三向上方下一點, 點諸菩薩頂. 此是第一段義.’ 又曰, ‘吾教意, 如摩醯首羅, 劈開面門, 豎亞一隻眼. 此是第二段義.’ 又曰, ‘吾教意, 猶如塗毒鼓, 擊一聲, 遠近聞者皆喪. 亦云俱死. 此是第三段義.’)
- 6) 정확히 일치하는 경전의 구절은 없다. 다만 『涅槃經』 권5 大12 p.394b13에 따르면, “비유하자면 훌륭한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화합하여 온갖 병을 잘 치료하는 것과 같다. 해탈 또한 그러하니 그것은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해탈이다.”(譬如良醫, 和合諸藥, 善療衆病. 解脫亦爾, 能除煩惱. 除煩惱者, 卽眞解脫.)라고 하는 단락과 주석2)의 내용을 결합하여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也得, 摩醯首羅一隻眼也得, 一一是塗毒鼓. 涅槃經云, “佛言, 比如良醫, 和合諸藥, 塗其大鼓, 若有衆生, 鬪戰之時, 才擊一聲, 遠近聞者, 皆喪云云.”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sup>7)</sup>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며,  
물은 드넓고 산은 아득하네.  
소하<sup>8)</sup>는 범률을 제정하였고,  
한신은 조정의 정사 보았네.  
도독고여,  
올리기 이전에 알아야 하리.

圓悟勤頌, “天高地厚, 水闊山遙. 蕭何制律, 韓信臨朝. 塗毒鼓, 未擊已前宜薦取.”

### [설화]

하늘은 높고 ~ 정사 보았네 : ‘이 법이 법의 위치에 머무니 세간의 차별상도 변함없이 머문다’<sup>9)</sup>라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도독고를 올리는 것과 같은

7) 현상의 차별 그대로 옮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도독고와 같은 방편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 진실을 포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계승.

8) 蕭何(?~B.C.193), 張良(張良)·한신(韓信)과 함께 한(漢)나라의 삼걸(三傑) 중 하나.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다스리고, 진나라의 법을 취사하여 『九章律』을 편찬하였다.

작용은 도리어 쓸모없는 법이 된다. 그러므로 “도둑고가 울리기 이전에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圓悟：天高至臨朝者，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也。然則如擊塗毒鼓，反是剩法。故云，“末擊已前宜薦取。”

- 
- 9) 『法華經』「方便品」大9 p.9b10에 나오는 구절. 하늘과 땅, 물과 산, 소하와 한신이 각각 자신의 차별성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발휘하는 작용 자체에서 법을 실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 65책 文殊採藥 문수채약





## 65칙 문수채약 文殊採藥<sup>1)</sup>

### [본칙]

문수보살(文殊菩薩)이 하루는 선재동자(善財童子)에게 약초를 캐어 오라고 시키면서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캐어 오라”고 하자 선재가 “산에는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문수가 “그렇다면 약이 되는 풀을 캐어 오라”고 하자, 선재가 땅에서 아무 풀이나 한 줄기 주워서 문수보살에게 주었다. 문수가 받아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文殊, 一日, 令善財採藥次云, “不是藥者, 採將來.” 善財云, “山中無不是藥者.” 文殊云, “是藥者, 採將來.” 善財, 於地上, 拾得一莖草, 度與文殊. 文殊接得, 示衆云, “此藥, 亦能殺人, 亦能活人.”

### [설화]

이 공안의 출처는 미상이다. 선재가 태어나던 날 칠보가 홀연히 방에 가득 찼으므로 ‘선재’라고 이름을 붙였다. 장경<sup>2)</sup>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

1) 세상의 모든 풀이 약으로서의 효험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점이 이 공안을 궁구하는 주안점이다. ‘약이 된다’라는 말에 약과 독의 속성을 모두 숨겨 둬으로써 설정된 공안이다.

름난 명의를 찾아가 여러 해 동안 의술을 배워 원숙해지자 스승을 떠나려 하였다. 그 스승이 ‘그렇다면 그대는 내게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찾아와보라’고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가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천지를 돌아다니며 보이는 풀이란 풀은 두루 찾아보았지만 모두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일을 마치지 못하자 돌아와 스승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다. 스승이 말했다. ‘그대의 의술은 완성되었으나 내가 시험 삼아 점검해 본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의술에 통달하였다면 약이 되지 않는 것은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문수가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캐어 오라’고 한 말은 다만 약효가 있는 풀을 요구했던 것일 뿐이다. 그런데 산에는 약이 되지 않는 풀은 없었기 때문에 ‘약이 되는 풀을 캐어 오라’고 한 것이다. 이는 명의 기바<sup>3)</sup>가 집어 드는 풀마다 묘약 아닌 것이 없다<sup>4)</sup>는 말과 같다.

2) 『華嚴經行願品疏鈔』 권3 卅7 p.870b18(無量義經, 說喻云, 如有一人, 詣良醫所, 學醫多年 ……)에 이 일화가 전한다.

3) 耆婆. ㉔Jivaka, ㉕Jivaka-komārabhacca. 기바가(耆婆伽)·기바(祇婆) 등으로도 음사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시의 명의(名醫)이다. 중국 명의의 대명사인 편작(扁鵲)과 함께 일컬어져 ‘기바편작’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뜻한다.

4) “육근이 접하는 대상은 어느 것이나 불법 아닌 것이 없고 기바가 집어 드는 풀은 어느 것이나 약초 아닌 것이 없다.”(『金光明經文句』 권3 大39 p.59c12. 六根所對, 無非佛法, 耆婆攬草, 無非藥者.); “반야의 힘이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큰 자비심을 가지고 저갓거리로 들어가 중생과 어울려 그들을 교화하고 이로운 가르침을 베푼다. 중황으로 자유롭게 응하는 작용과 가지가지로 펼쳐는 행위가 모두 불사(佛事)이다. 비유하자면 기바가 손 가는 대로 풀을 집어 들어도 그 모두 약초인 것과 같다.”(『證道歌註』 卅111 p.383b10. 般若之力既得現前, 以大悲心, 入塵垂手, 接物利生. 縱橫應用, 種種施爲, 皆爲佛事. 譬如耆婆攬草, 信手拈來, 皆爲妙藥.)



‘이 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라 운운한 말은 ‘신령한 칼날을 가진 보검은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sup>5)</sup>라는 뜻이다.

此話出處未詳. 善財初生日, 七寶忽然滿室, 故名善財. 藏經云, “昔有一人, 詣良醫所, 學醫多年, 藝成欲去. 其師云, ‘且汝與我, 覓非藥之草.’ 乃得休去. 其人經年, 遍求天下所見之草, 皆堪爲藥. 既久不遂, 却來白師. 師云, ‘汝醫述成矣, 相試也. 若實解醫, 無物不藥.’ ” 文殊云, 不是藥者, 採將來者, 只要藥得. 山中無不是藥者, 故云, 是藥者採將來, 則耆婆攬草, 無非妙藥. 此藥亦能殺人云云者, 靈鋒寶劍, 常露現前, 亦能殺人, 亦能活人也.

##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영묘<sup>6)</sup>를 캐려고 천지를 다 돌아다녔건만,

5) 『大慧語錄』 권8 大47 p.844b22, 『碧巖錄』 75則「垂示」大48 p.202b7 등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풀이 약이 된다’라는 말은 허(虛)한 화두이므로 실(實)로 허용하여 착각하면 죽음에 이르는 독이 된다. 마치 죽이거나 살리거나 어느 편도 가능한 보검과 같다. ‘이 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한 문수의 말에 대하여 허당지우(虛堂智愚)가 ‘한 사람이 허로 전한 말을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실이라 전한다’(『虛堂語錄』 권8 大47 p.1041c7. 僧云, ‘善財拈草, 度與文殊’, 殊云, ‘此藥亦能殺人, 亦能活人. 又作麼生?’ 師云, ‘一人傳虛, 萬人傳實.’)라고 평가한 말도 이 맥락이다.

6) 靈苗, 신선들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위해 먹는다는 약초, 독초(毒草)와 대칭하

길상<sup>7)</sup>이 사람 살리는 풀을 집어 들었대네.

당시에 만약 독 바른 북<sup>8)</sup>을 울렸더라면,

그 자리에서 삼천세계<sup>9)</sup>에 한 소리 울려 퍼졌으리.

大覺璉頌, “欲採靈苗匝地生, 吉祥拈起活人莖. 當時若也翻塗毒, 直下三千震一聲.”

#### [설화]

사람을 죽이는 풀과 사람을 살리는 풀에 대하여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독 바른 북을 치면 그 자리에서 두 풀 모두 사라질 것이다.

大覺: 說什麼殺人莖活人莖? 若也擊塗毒鼓, 當下喪却.

---

여 쓰인다.

7) 吉祥. 문수(㉔ Mañjuśrī)의 한역어 중 하나인 묘길상(妙吉祥)을 줄인 말.

8) 도독고(塗毒鼓). 이 북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한다. 북소리를 『열반경』의 교법에 비유한 것으로서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와 사악함을 사라지게 해 준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살리는 풀’이라는 말에 현혹된 생각을 물리치는 한마디를 나타낸다. “독을 바른 북이란 『대반열반경』에서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독을 북에 발라두고 대중이 모인 가운데 그것을 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북’은 평등한 법신(法身)을, ‘독’은 조건에 제약되지 않는 자비심을, ‘북을 치는 것’은 중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듣는 것’은 그 소리를 듣는 데 합당한 근기를 가진 중생들, ‘죽는다’는 것은 무명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法華文句記』 권4 「方便品」 大34 p.231b6. 毒鼓者, 大經云, ‘譬如有人, 以毒塗鼓, 於大眾中, 擊令出聲, 聞者皆死.’ 鼓者, 平等法身, 毒者, 無緣慈悲, 打者, 發起衆也, 聞者, 當機衆也, 死者, 無明破也.)

9) 본서 2則 주석45) 참조.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악이 되는 풀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며 어찌 허둥대는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라.

내년에도 다시 새 가지가 돋아나겠지만,

어지럽게 흔드는 봄바람은 단번에 그치지 않으리라.<sup>10)</sup>

계송을 마치고 불현듯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어디로 갔느냐?”<sup>11)</sup>

大洪恩頌, “或是或非何草草! 能生能殺謾悠悠. 來年更有新條  
在, 惱亂春風卒未休.” 師薦拈起拄杖云, “甚麼處去也?”

[설화]

대각회련의 송과 같은 취지이다.

大洪: 上頌一般也.

---

10) 3구와 4구는 나은(羅隱)의 시 「柳」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무리 참신한 견해를 내놓더라도 봄바람에 새순이 흔들리듯이 또 다른 견해로 비판당하게 된다. 이렇게 어떤 단정적 결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화두의 묘미이다. 본서 2則 주석 125) 참조.

11) “어째서 아무 말도 못하느냐?”라고 되묻는 말과 같다. 시비와 살활 등 어떤 인식의 수단도 들어맞지 않지만, 아무 할 말이 없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별도로 해결책을 찾을 곳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한 소리 크게 내지르며 ‘조금 전에 그렇게 많이 늘어놓던 말은 어디로 갔느냐?’라 하고, 다시 주장자를 들었다가 한 번 내리치고 말했다. ‘이득이 있건 이득이 없건 (상인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大慧語錄』 권7 大47 p.838a15. 喝一喝云, ‘適來許多葛藤, 向甚麼處去也?’ 又卓一下云, ‘有利無利, 不離行市.’)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손 가는 대로 집은 풀의 약효가 가장 신령하여,  
그 한 줄기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네.  
만수실리<sup>12)</sup>가 한마디 던진 금구<sup>13)</sup>의 말씀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의 표본으로 처방된다네.

薦福逸頌, “信手拈來草最靈, 一枝能殺亦能生. 曼殊室利開金口, 迄至如今藥道行.”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대지의 중생이 앓는 병 삼대같이 무수하니,  
문수의 신령한 약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네.  
여기서 죽이는 약 살리는 약 가려내지 못하면,  
또 다시 눈 안에 꽃 하나 덧붙이는 격이로다.

保寧勇頌, “大地蒼生病似麻, 吉祥靈藥示無涯. 其間殺活難分辨, 又是重添眼裏花.”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약과 독<sup>14)</sup>이 서로 다투며 깎아내렸다가 또 치켜세우니,

---

12) 曼殊室利. ㉔ Mañju-śrī의 음사어. 문수사리(文殊師利) 곧 문수보살이다.

13) 金口, 불보살의 말씀. 견고하고 무엇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 본서 5則 주석49) 참조.

14) 약기(藥忌). ‘기’는 약효를 없애는 음식. 곧 약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이므로

기틀에 당면하여 죽이거나 살리려 취모검을 빼었다네.<sup>15)</sup>

광활한 비로자나 바다<sup>16)</sup>의 안개와 파도는 다 잠잠한데,

큰 낚시대 잡고 거대한 자라<sup>17)</sup> 낚을 사람은 누구인가?

東林總頌, “藥忌相治貶更褒, 當機生殺按吹毛. 毗盧海闊烟波靜, 誰把長竿釣巨鰲?”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거친 산에 들어가 애써 고르지 않아도,

손 가는 대로 잡는 것마다 약초이리라.

죽이거나 살리거나 모두 사람에 따르니,

기틀에 임하여 잘못 써먹지 말지어다.

法眞一頌, “入荒山不擇, 信手拈來藥. 殺活總由人, 臨機莫教錯.”

### 승승원공(崇勝院珙)의 송

약초 캐던 문수가 선재를 불러 시키자,

선재는 즉시 한 줄기 풀을 집어 들었네.

---

독과 같다. ‘약기’ 자체로 ‘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15) 상황과 근기에 따라 죽이는 용도나 살리는 용도로 쓰는 화두를 취모검(吹毛劍)에 비유했다.

16)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세계를 드넓은 바다에 비유한 것.

17) 거오(巨鰲), 거별(巨鼈) 또는 영오(靈鰲)와 같은 말. 여기서는 살활의 약초를 제시한 문수보살의 뜻을 가리킨다. 본서 184則 주석30) 참조.

문수가 대중을 가르침에 진실로 적수가 없거늘,  
죽이고 살리고 수없이 응한들 안배를 잘못하랴!  
가을 되면 집집마다 밝은 달이 비추고,  
봄 되면 어느 곳이나 온갖 꽃이 핀다네.<sup>18)</sup>  
자호<sup>19)</sup>의 사나운 개도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오대산 노파<sup>20)</sup>도 어리석다 희롱하길 그만두네.<sup>21)</sup>

崇勝珙頌, “採藥文殊召善財, 善財枝草便拈來. 文殊示衆誠無敵, 殺活多應謬翦裁! 秋至家家孤月白, 春來處處百花開. 紫胡獐狗已無齒, 臺嶠老婆休弄鼓.”

## 오조사계(五祖師戒)의 평

선재의 말을 집어내어 말했다. “부끄럽다!”

五祖戒, 出善財語云, “慙愧!”

- 
- 18) 꽃이 좋은 봄과 달이 밝게 느껴지는 가을이 각각 자신의 개성적 풍경을 가지면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듯이 문수의 살(活)과 활(活)도 시기적절하게 안배하여 활용되는 수단이며, 살은 살 자체로 온전하고 활은 활 자체로 어떤 흠도 없다는 뜻이다.
- 19) 紫胡, 자호이종(子湖利蹤)을 가리킨다. 어디든 사정없이 물어버리는 개로써 본분의 부정적 수단을 나타낸 것으로 유명하다. 본서 417則 주석15) 참조.
- 20) 오대산 입구에 어떤 노파가 지키고 서 있다가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으면, ‘가던 길로 곧바로 가시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몇 발자국 가면 노파는 ‘홀륭한 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을 따라가시는군요’라고 희롱했다. 본서 417則 「趙州狗子」 참조.
- 21) 자호의 개와 오대산의 노파가 희롱하는 솜씨도 살활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문수의 수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설화]

부끄럽다: 그렇게 남들에게 말해주면 부끄러운 결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五祖: 慚愧者, 伊麼爲人, 慚愧不少.

### 수산성념(首山省念)의 염

“문수는 흡사 자신의 귀를 막고서 방울을 흠치는 사람 같았다.”<sup>22)</sup>

首山念拈, “文殊大似掩耳偷鈴.”

###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염

“문수의 말은 진실하였다고 할 만하지만, 이마에서는 땀이 배어나오고 입안은 아교가 붙은 듯했으리라.”

瑯琊覺拈, “文殊, 可謂誠實之言, 要且額頭汗出, 口裏膠生.”

### 보령수의 염

“내가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곧장 풀을 빼앗아 밭로 짓밟음으로써 그가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후에 어떤 학인이 북선(北禪)에게 이 공안을 제기하고 물었다. ‘무엇이 죽이는 것입니까?’ ‘삼평이 석공에게 법을 물으러 갔다.’<sup>23)</sup> ‘무엇이 살리는 것입니까?’ ‘대전(大顚)은

---

22) 문수보살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한 말에 숨겨 놓은 활구(活句)를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수산은 그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조주(潮州)에 있다.” 보령이 이 문답을 평가했다. “비록 일시적인 방편으로서는 틀리지 않지만, 자세히 점검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풀과 나무에 더부살이를 하는 대나무 잎의 허깨비<sup>24)</sup>일 뿐이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자를 곳곳이 세우고 “보았는가? 만약 보았다면 몸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를 벗어나 멀리 숨어야 하고, 보지 못했다면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sup>25)</sup>라고 말한 뒤 주장자로 선상을 쳤다.

保寧秀拈, “棲賢當時若見, 便奪來踏在腳下, 教伊提不起. 後

23) 삼평의충(三平義忠)이 출가하기 전 사냥꾼이었던 석공혜장(石翬慧藏)과 문답을 나누는 다음 대전보통(大顚寶通)에게 재차 그 일에 대하여 물은 인연에 따른다. “석공은 항상 활에 화살을 걸어 놓고 학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삼평이 그 법석에 이르자 석공이 외쳤다. ‘화살을 조심하라!’ 삼평이 가슴을 열어젖히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석공이 활시위를 세 번 두드리자 삼평이 절을 올렸다. 이에 석공이 ‘30년 동안 활 하나에 두 발의 화살을 장전하고 있었지만 이제 겨우 반 개의 성인을 쏘아 맞혔구나’라 말한 뒤 마침내 활과 화살을 부러뜨렸다. 삼평이 그 후 대전에게 이 인연을 들려주자 대전이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화살이라면 어째서 활시위에서 그 뜻을 분간하는가?’ 삼평이 대꾸가 없자 대전이 말했다. ‘30년이 지나더라도 누군가가 이 말의 핵심을 바르게 제기하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다.’”(『景德傳燈錄』 권14 「三平義忠傳」 大51 p.316b21. 石翬, 常張弓架箭, 以待學徒. 師詣法席, 翬曰, ‘看箭!’ 師乃撥開胸云, ‘此是殺人箭. 活人箭, 又作麼生?’ 翬乃扣弓絃三下, 師便作禮. 翬云, ‘三十年, 一張弓兩隻箭, 只謝得半箇聖人.’ 遂拗折弓箭. 師後舉似大顚, 顚云, ‘既是活人箭, 爲什麼, 向弓絃上辨?’ 師無對. 顚云, ‘三十年後, 要人舉此話也難.’) ‘반 개의 성인’이란 성인이 되기에 반 정도 완성되었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큰 역량을 가진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석공은 자신이 화살을 겨누는 뜻을 알아주는 삼평을 만났으므로 활과 화살을 부러뜨린 것이다.

24)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 의지하여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견해라는 뜻.

25) 곳곳이 세운 주장자를 보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약이 되는 활(活)의 풀이건 독이 되는 살(殺)의 풀이건 모두 틀어막는 방법이다.



有僧舉問北禪，‘如何是殺?’禪云，‘三平到石鞏.’‘如何是活?’禪云，‘大顛在潮州.’”師云，“雖然如是，一期方便，卽無不可，若字細檢點，揔是依草附木竹葉精靈。接賢卽不然。”乃豎起拄杖云，“還見麼?若也見得，全身遠害;若也不見，性命難存。”以拄杖擊禪牀。

#### [설화]

곧장 풀을 빼앗아 발로 짓밟음으로써 ~ 하였을 것이다 :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이전의 경계이다.

삼평이 석공에게 법을 물으려 ~ 대전은 조주에 있다 :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사이에 각기 다른 유래가 있으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았다면 ~ 어려울 것이다 :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이 주장자의 매질<sup>26)</sup>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保寧：便奪來踏在脚下云云者，殺活前頭也。三平到石鞏太顛在潮州者，殺活各有來由，不敢輕忽也。若也見得云云者，見不見未免此棒也。

#### 위산모철(滙山慕喆)의 염

“선재는 약초를 잘 캐고, 문수는 그것을 잘 사용했다. 비단 비야리성에서 질병으로 누워 있는 유마거사<sup>27)</sup>뿐만 아니라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이 반

26) 방(棒).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모두 잘못이며, 그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주장자의 매질을 말한다.

27) 침질비야(寢疾毗耶). ‘비야’는 비야리(毘耶離 毘 Vaisālī)의 약칭으로 유마거사(維摩居士)가 살던 성 이름이다. 일부러 병들어 있던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러 가서

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안고 있더라도 문수의 처소에 이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나아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데는 서릿발같이 날카로운 칼은 필요 없으며, 수명을 늘이는 데 어찌 반드시 구환단<sup>28)</sup>이 필요하겠는가!”

瀉山詰拈, “善財能採, 文殊善用. 非但寢疾毗耶, 直饒盡大地人, 抱必死之疾, 到文殊所, 教佗箇箇脫體而去. 何故? 解用不須霜刃劒, 延齡何必九還丹!”

# [설화]

잘 캐고 잘 사용했다 : 사람을 살리는 약초에 철저함을 가리킨다.

비단 비아리성에서 ~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 이 약이 유마의 병을 잘 치료한다는 뜻이니, 유마의 침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지만 여기에 이르면 질병에 걸린 모든 몸이 나아서 돌아간다는 뜻이다.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데는 ~ 필요하겠는가 : 문수가 이 약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瀉山 : 能採善用者, 活人莖到底也. 非但寢疾毘耶云云者, 此藥強療維摩之疾, 默然則必死之疾, 到此一一脫體而去也. 解用不須云云者, 蓋爲文殊解用此藥故也.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묻자 유마거사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를 문수보살이 찬탄했다.

- 28) 九還丹, 신단(神丹)·구전금단(九轉金丹)·대환단(大還丹) 등이라고도 한다. 도교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하기 위하여 먹는 단약(丹藥)을 말한다. 아홉 번 정련해야 만들어지므로 구환 또는 구전(九轉)이라 한다.

## 개원자기(開元子琦)의 상당

대중에게 환약을 청하면서 법좌에 올라와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내가 오늘 대중에게 청한 환약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다만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병이 나오면 약도 제거할 것이다. 말해 보라! 문수의 약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안목을 갖춘 자는 가려내어 보라.”

開元琦，請大衆丸藥，上堂，舉此話云，“開元今日，請大衆丸藥，亦不殺人，亦不活人。但治衆生一切病，病既愈，藥還祛。且道！與文殊相去多小？具眼者，辨取。”

[설화]

사람을 살릴 필요도 없고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다. 다만 모든 병을 제거하면 결국 병도 없고 약도 없다는 뜻이다.

開元：不要活人，不要殺人。但除一切病，畢竟無病，亦無藥也。

## 승천회의 상당

“오늘은 단오절이니 약초를 캐기 적절한 때이다.”<sup>29)</sup> 문수보살의 말에 선재가 아주 기특하게 응답한 이야기가 기억나는구나. 눈앞에 약초 아닌 것이 없다고 하며 선재는 한 줄기 풀을 집어 들고 왔다. 비록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누가 알 것인가? 그때부터 고금을 모

29) 이 같은 말에서 연유하여 선가에서는 단오절에 이 공안을 적지 않게 제기한다. 『大慧語錄』 권4 大47 p.829a3, 『虛堂語錄』 권8 大47 p.1041c4, 『雪巖祖欽語錄』 권1 卍122 p.499a4, 『虛舟語錄』 卍123 p.174b5 등 참조.

두 넘어섰으니 누가 이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오로지 바른 안목을 갖춘 자라야 비로소 시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바른 안목을 가진 자 있는가?” 불자를 곳곳이 세우고서 말했다. “이에 대하여 한번 말해 보라! 만일 제대로 말한다면 부처에 집착하는 병과 조사에 얽매어 있는 병이 모두 나을 것이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대대로 가업을 이은 의사<sup>30)</sup>도 손쓰지 못하여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다.”

承天懷，上堂云，“今朝端午節，正是採藥時。記得文殊語，善財應最奇。目前無不是，拈來草一枝。雖然能殺活，消息有誰知？自後超今古，何人見不疑！除是具正眼，方能決是非，而今還有正眼者麼？”乃豎拂云，“試向這裏道看！若道得，佛病祖病皆愈；若道不得，世醫拱手。”

[설화]

단지 사람을 살리는 약의 용도만을 밝혔다.

承天：但明活人藥之用也.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도리는 숨씨가 뛰어난 종사라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만일 쇠로 된 눈과 구리로 된 눈동자<sup>31)</sup>가 아니라면 왕왕 마주치고도 지나쳐버릴 것이다. 비록 이러하지만 선재가 그렇게 약초를 캐는 것은 단지 하나만 안 것에 불과하며, 문수가 그렇게 약초를 가

30) 세의(世醫). 고대에는 신뢰할 만한 의사의 기준이 되었다. “삼대를 이어온 의사가 아니라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禮記』「曲禮」下. 醫不三世，不服其藥.)

31) 철안동정(鐵眼銅睛). 본질을 간파하는 비범한 식견 또는 그러한 식견을 가진 사람.

려낸 것도 단지 둘만 안 것에 불과하다.” 마침내 불자를 집어 들고서 말했다. “이 약에 대하여 아는가? 이것을 얻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신농<sup>32)</sup> 일지라도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할 것이며, 기바(耆婆) 일지라도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부처에 속박된 병과 조사에 얽매인 병을 제거하고 무명과 번뇌를 쓸어 없앤다.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그것을 덮어 감추지 못하여 그 신령한 빛이 밝게 빛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알까?”

慈受深，上堂，舉此話云，“者般道理，作者方知。若非鐵眼銅睛，往往當面蹉過。雖然如是，善財伊麼採藥，只知其一；文殊伊麼辨藥，只知其二。”遂拈起拂子云，“還識者箇藥麼？得者長生，服之不死。神農不知名，耆婆無處討。破除佛病祖病，掃蕩無明煩惱。物物頭頭不覆藏，靈光洞耀何人曉？”

#### [설화]

이러한 종류의 도리는 ~ 안 것에 불과하다 : 문수가 활용한 경지를 깊이 밝힌 것이다.

불자를 집어 들고서 ~ 아는가 : 한 자루의 불자 자체를 가리킨다.

이것을 얻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며 ~ 찾지 못할 것이다 : 한 자루의 불자가 지닌 뜻에 대하여 밝힌 것이다.

부처에 속박된 병과 조사에 얽매인 병을 제거한다 : 인연과 대상으로 삼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니, 한 자루의 불자 자체를 가리킨다.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 감추지 못하여 : 존재 하나하나에 드러나고 사물 하나

32) 神農, 처음으로 농사의 기술을 전수한 전설상의 제왕. 신농씨(神農氏)라고도 한다. 모든 풀을 맛보고 약재(藥材)를 밝혀내어 병을 치료하도록 지도했다고 한다.

하나에 나타나 본체를 벗어나지 않는 작용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슨 사람을 죽이는 약과 사람을 살리는 약을 굳이 찾을 것인가?

慈受：者般道理云云者，深明文殊用處也。拈起拂子至藥麼者，一條拂子也。得者長生至無處討者，明一條拂子也。破除佛病祖病者，無一物爲緣爲對，卽一條拂子也。物物至藏者，頭頭現物物現，不離體之用也。然則討什麼殺人藥活人藥。

###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엄

“선재는 손이 가는 대로 집었으니 조금도 기력을 소모하지 않았고, 문수는 죽이는 약과 살리는 약을 가려내었으니 특별히 신령한 공용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白雲曷拈，“善財信手拈來，不費絲毫氣力；文殊能辨殺活，須知別有神功。”

#### [설화]

선재는 손이 가는 대로 ~ 소모하지 않았고 : 많은 공용을 들이지 않았으니 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겠는가!

문수는 죽이는 약과 살리는 약을 ~ 알아야 한다 : 수많은 신령한 공용이 있었으니 이 어찌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겠는가!

白雲：善財信手云云者，無許多功用，豈非殺人刀！文殊能辨云云者，有許多神功，豈非活人劍！

## 공수종인(空叟宗印)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위산모칠(滙山慕詰)의 염을 함께 제기하고 말했다. “선재는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행동했고, 문수는 설명을 잘못 붙였으며, 위산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답습하여 끌어 모았다. 세 사람 모두 깨달음이 모자란 것이다.” 홀연히 주장자를 잡고 높이 세웠다가 내리치면서 “이에 대하여 깨우친 사람이 있는가?”라 말하고, 다시 한 번 높이 세웠다가 내리치면서 말했다. “땀을 뜨고 남은 종기에 다시 쑥불을 붙이는구나.”

空叟和尚，上堂，舉此話，連舉滙山詰拈，師云，“善財大瞞預，文殊錯指注，滙山隨撻揪。三人惣欠悟。”薦拈拄杖，卓一下云，“莫有向這裏，悟得底麼？”又卓一下云，“灸瘡槃上著艾炷。”

### [설화]

선재는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 깨달음이 모자란 것이다 : 남을 구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주장자를 잡고 높이 세웠다가 내리쳤다 : 사람을 죽이는 칼처럼 보임을 나타낸다.

땀을 뜨고 남은 종기에 ~ 붙이는구나 : 자신이 이렇게 한 말도 쓸모없이 남아도는 법에 불과한 것이니, 공수의 뜻은 결국 어떤 것인지 묻는 말이다.

空叟：善財大瞞預云云者，似乎拖泥帶水故。拈拄杖卓一下者，似殺人刀也。灸瘡云云者，某甲伊麼道，亦是剩法也，則空叟意，落在什麼處。







# 74칙 毗目執手 비목집수





## 74칙 비목집수 毗目執手<sup>1)</sup>

### [본칙]

비목선인이 선재동자의 손을 잡자 선재는 그 즉시 자신의 몸이 시방 불국토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는 모든 세계로 갔다가 불가설불가설<sup>2)</sup>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겁(劫)을 지나는 광경을 스스로 보았고, 선인이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장소로 되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毗目仙人, 執善財手, 善財, 卽時自見其身, 往十方佛刹微塵數諸佛所, 乃至經不可說不可說微塵數劫. 仙人放手, 卽見自身, 還在本處.

- 
- 1)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친견한 53선지식 중 여덟 번째인 비목선인(毗目仙人)과의 인연을 소재로 한 공안이다. 80권본 『華嚴經』 권64 大10 p.345c20의 내용이 기초가 된다.
  - 2) 不可說不可說. 고대 인도의 10대수(大數) 또는 60수(數) 중 하나. ⑤anabhilāpya, anabhilāpya. 10대수는 아승기(阿僧祇)·무량(無量)·무변(無邊)·무등(無等)·불가수(不可數)·불가칭(不可稱)·불가사(不可思)·불가량(不可量)·불가설(不可說)·불가설불가설 등이다. 이 10대수는 아승기부터 점차로 제공하여 불가설불가설에 이르는 형식이다. “불가량전의 제공이 1불가설이고, 불가설의 제공은 1불가설전(不可說轉)이며, 불가설전의 제공은 1불가설불가설이다.”(『華嚴經』 권45 「阿僧祇品」 大10 p.238b3. 不可量轉不可量轉, 爲一不可說, 不可說不可說, 爲一不可說轉, 不可說轉不可說轉, 爲一不可說不可說.)

[설화]<sup>3)</sup>

비목의 온전한 음사어는 비목구사<sup>4)</sup>이며, 한역하면 출성가외(出聲可畏)이다. 곧 ‘말하는 소리가 온갖 샛된 무리들을 두렵게 한다’라는 뜻이다. 비목은 화엄의 제8주인 동진주<sup>5)</sup>의 선지식이다.

『장자론』<sup>6)</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손을 잡자 ~ 겁(劫)을 지나는 광경을 스스로 보았다’라는 말은 처음으로 10주의 초지<sup>7)</sup>에 들어가 바른 지혜로써 더욱 밝혀 부처님과 동등한 견해가 되었다는 뜻이다.<sup>8)</sup> 한 찰나 중에 삼매의 힘으로 모든 무량한 겁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제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라는 말은 처음으로 10주의 초지에 이르러 일부분을 더욱 밝히고, 성자(비목선인)가 이끌어 가지(加持)<sup>9)</sup>해 주는 힘에 의지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되며, 불지(佛地)에 이르러 공을 마치면 시방 전체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애써 가지 받을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sup>10)</sup> 또한 이렇게 말한다. “지혜의 힘으로 가지 받아 법을 깨닫고, 일단 법을 얻은 다음에는 자신의 지혜력이 항상 그렇게 머문

3) 이 <설화>는 각 구절을 이통현(李通玄)의 설에 따라 해석하고, 동일한 구절에 대하여 다시 선어록 등을 전거로 삼아 거듭 해설하는 형식을 취한다.

4) 毘目瞿沙, ⑤Bhīṣmottara-nirghoṣa.

5) 童眞住. 화엄의 10주(住) 중 제8주. 보리심(菩提心)에서 퇴행하지 않고 무공용(無功用)의 지혜를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6) 長者論. 이통현의 『略釋新華嚴經論』과 『新華嚴經論』을 말한다.

7) 지위(地位). 『略釋新華嚴經論』에는 지위(智位)로 되어 있으나 초위(初位) 또는 초지(初地)와 같다. 『華嚴經隨疏演義鈔』 권68 大36 p.546c10 참조.

8) 이하 『장자론』 원문의 몇 구절은 생략되었다.

9) 불보살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힘으로 중생을 보호하는 것. 섭지(攝持)·가호(加護)·소지(所持)·호념(護念) 등의 뜻이다.

10) 『略釋新華嚴經論』 권2상 大36 p.1029c9 이하의 내용에 따른다. 앞부분은 요약하여 처리하였지만 몇 글자의 출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한다.

다. 비록 성자(비목선인)에게 돌아와 그의 가치를 버리더라도 한눈에 그와 다른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 다음에는 배를 짚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sup>11)</sup> 곧 비목선인의 가치를 받아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고 나서 그 가치를 버리더라도 자신의 지혜력이 항상 그렇게 머문다는 뜻이다.

자신의 몸이 ~ 무수한 겹(劫)을 지나는 광경을 스스로 보았다 : ‘검소한 상태에서부터 사치스러운 상태로 들어간 것과 같다. 황금을 땅으로 삼고’<sup>12)</sup>라고 운운한 말에 상응한다.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 ‘사치스러운 상태에서부터 검소한 상태로 나온 것과 같다. 산은 산이고’<sup>13)</sup>라 운운한 말과 같다.

차수(叉手)는 서로 잡는 것을 뜻하니 손을 잡은 경계<sup>14)</sup>에 대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잠시 망념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이곳이 바로 미륵이 계

11) 『新華嚴經論』 권35 大36 p.963c22.

12) 검소와 사치는 진각혜심(眞覺慧心)에게만 보이는 독특한 개념이며, 여타의 경론이나 선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각운이 빌려 쓴 것인데, 『禪門拈頌說話』 32則 <설화>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여자가 선정(禪定)에 들어갔을 때는 ‘검소’한 상태에서부터 ‘사치’스러운 상태로 들어간 것과 같다. 이것은 황금으로 땅을 삼고 백은으로 벽을 삼으니 곧 겹겹이 누각으로 된 화장세계(華藏世界)의 자라장(紫羅帳) 속에 진주를 뿌리는 경계이다. 여자가 선정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사치스러운 상태에서부터 검소한 상태로 나온 것과 같다. 이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주장자는 원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백반은 원래 쌀알로 지은 경계를 말한다.”(女子入定時, 從儉入奢, 黃金爲地, 白銀爲壁, 則樓閣重重華藏界, 紫羅帳裏, 撒眞珠也. 女子出定時, 從奢入儉, 山是山, 水是水, 拄杖元是木頭造, 白飯元是米粒做.)

13) 주석12) 참조.

14) 망념을 거두는 것과 비목선인이 선재의 손을 잡은 것을 상응시키기 위한 말이다.

신 곳이니 선재동자가 없는 문이 없다. 또한 망념을 거두어들이면 누각의 문은 손가락 통기는 짧은 순간에 열린다.”<sup>15)</sup>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 잠깐 사이에 생각이 일어나면 이전 그대로 산하와 토목과 돌덩이가 가로막을 것이고, 다시 머뭇거리며 분별하면 등왕<sup>16)</sup>의 사자좌가 유마의 방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sup>17)</sup>

‘자신의 몸이 시방 불국토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는 모든 세계로 가는 것을 본다’라고 한 말은 장소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고, ‘불가 설불가설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겁(劫)을 지난다’라고 한 말은 시간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마치 ‘끝이 없는 불국토의 경계에’<sup>18)</sup>라 운운한 말과 같다.

15)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없지만, 앞뒤의 단락이 선문헌에 적지 않게 발견된다. 『天聖廣燈錄』 권27 「寶覺澄謚章」 卍135 p.874a17, 『佛心才和尚語』 續古尊宿語要 4 卍119 p.2b2 참조. 용문불안(龍門佛眼)의 범어에도 유사한 구절이 있다. “잠시 망념을 거두어들이면, 이곳이 바로 미륵이 계신 곳이니 문마다 선재동자가 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 있으면, 토석과 산하와 돌덩이와 가시나무가 나타날 것이다.”(『龍門佛眼語錄』 古尊宿語錄29 卍118 p.538a15. 暫時斂念, 是處是慈氏, 門門有善財, 介爾有心, 土石山河瓦礫荊棘.)

16) 燈王, 수미등왕불(須彌燈王佛)의 약칭.

17) 『維摩經』 권상 「不思議品」 大14 p.527a20에 따르면, 수미등왕불의 신장은 8만 4천 유연(由延)이고, 이 부처님이 앉는 사자좌(獅子座)의 높이는 6만 8천 유연인데, 유마거사가 신족통(神足通)을 보이자 이 부처님이 즉시 3만 2천 개의 사자좌를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유연’은 ᄃᆞᆫyojana의 음사어로 유순(由旬)이라고도 하며, 걸어서 하루 걸리는 거리를 말한다.

18) 『新華嚴經論』 권1 大36 p.721a20에 나오는 다음 단락을 줄인 말이다. “끝이 없는 불국토의 경계에서는 자·타 간에 조금도 간격이 없고, 10세의 고·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의 한 찰나를 벗어나지 않는다.”(無邊刹境, 自他不隔於毫端; 十世古今, 始終不離於當念.)

‘자신의 몸이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라고 한 말에 대하여 불안청원(佛眼清遠)은 이렇게 말한다. “4생과 6도<sup>19)</sup>가 모두 그 대로 마음의 자성이고, 3도와 8난<sup>20)</sup> 그 어디에나 두루 색신을 나타내며, 화장해<sup>21)</sup>에 살면서 부사의한 경지에 머문다.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들의 본 분 그 자체일 뿐이니,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본래 있는 곳을 떠나서 별도로 화장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장세계를 떠나서 별도로 본래 있는 곳도 없다. 곧 평상의 경계와 부사의한 세계(화장세계)는 하나의 길로 함께 간다.<sup>22)</sup>

- 
- 19) 四生六道. 중생이 태어나는 네 가지 양식과 윤회하는 여섯 가지 세계를 말한다. 4생은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 등 네 가지이고, 6도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인(人)·천(天) 등이다. 인과 축생은 4생의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아귀는 태생·화생, 지옥·천, 그리고 중유(中有)는 오로지 화생만 있다. 『俱舍論』 권8 大29 p.43c21 참조.
- 20) 三途八難. 3도는 6도 윤회 중 악업(惡業)을 저지른 결과로 태어나는 지옥·아귀·축생 등 세 가지 세계로 3악도(惡途)라고도 한다. 8난은 지옥·아귀·축생·울단월(鬱單越)·장수천(長壽天)·농맹음아(瞶盲瘡啞)·세지변총(世智辨聰)·불전불후(佛前佛後) 등이다. 『增壹阿含經』 권36 「八難品」 大2 p.747a6 등에 서술되어 있다.
- 21) 華藏海. 『華嚴經』에 제시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말한다.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과거세에 발원하여 보살행을 닦음으로써 성취한 청정하고 장엄한 세계이며, 십불(十佛)이 교화하는 경계이다.
- 22) 연화장세계의 부사의(不思議)에 대하여 징관(澄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토(淨土)와 예토(穢土) 등 모든 국토는 어느 것이나 여래께서 성취한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국토를 취한 다음 두루 응하고자 부처님께서 응하여 통솔하는 세계는 모두 불토(佛土)라 하기 때문이다. 연화장해는 부처님께서 엄정(嚴淨)하신 세계로 그 안에는 정토와 예토가 모두 들어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은 국토가 없다. 이미 예토 그대로 정토이므로 그 세계는 부사의한 것이다.”(『華嚴經疏』 권11 大35 p.575b14. 一切淨穢等土, 皆是如來通慧力成, 爲物而取, 擬將普應, 佛應統之, 皆稱佛土故. 蓮華藏海, 佛所嚴淨, 而內含淨穢. 然就佛言之故, 無國而不淨也. 既

고인<sup>23)</sup>의 계송 세 수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비목선인이 손을 잡았던 순간, 시방 전체가 그 뒤를 따랐다네. 돌아와 누우니 불어오는 솔바람, 한 없이 맑은 기운 스스로만 알 뿐.”, “시방 전체가 털끝 하나에 일제히 나타나니,<sup>24)</sup> 화장세계 두른 겹겹의 제망<sup>25)</sup> 싸늘히 밝다. 보배처럼 귀한 선재동자 어디로 갔을까? 맑은 밤바람은 푸른 대나무<sup>26)</sup>를 흔드네.”, “화장장엄세계 안에는, 한 티끌에 얼마나 많은 것들 겹쳐 들어 있나? 홀연히 밀치고 나아가 눈 치켜뜨고 살펴보니, 이전 그대로 성긴 주렴이 새벽바람에 흔들리네.”

毘目，具云，毘目瞿沙，此云，出聲可畏，謂所出之音，衆邪驚怖也。華嚴第八，童眞住善知識。長者論云，“執手至劫者，以初入地位，正智增明，與佛同見。於一念中，以三昧力，一切無量劫，一時并現也。還復如舊者，初至地位，一分增明，以假聖所接引加待，見諸佛境界，至佛功終，十方常在目前，無勞所加

卽穢而淨，故不思議。）

- 23) 순서대로 진각혜심(眞覺慧識), 홍영소무(洪英邵武)의 계송이며, 나머지 하나는 작자 미상이다.
- 24) 60권본 『華嚴經』 권26 大9 p.587a2의 다음 구절과 통한다. “저 하나하나의 털끝에 불가설(不可說)의 모든 불국토를 안치한다.”(於彼一一毛端處，置不可說諸佛刹.)
- 25) 帝網, 제석천(帝釋天)의 주망(珠網) 곧 인다라망(因陀羅網 S.indra-jāla)을 말한다.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이다. 존재 하나하나가 다른 모든 존재를 자기 안에 포섭하고 그 하나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 속에 포섭되어 있는 관계로서, 겹겹이 무한하게 중첩된 그 연기적 관계를 비유한다. 그 물꼬마다 달려 있는 보배 구슬이 서로 다른 구슬을 투영하여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추어지는 현상을 비유로 삼은 것이다.
- 26) 낭간(琅玕), 주옥같이 아름다운 돌을 가리키는데, 대나무의 푸른빛 또는 대나무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구슬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전설상의 신선 나무[仙樹]를 가리키기도 한다.



持也。”又云，“智力加持入法，既得法已，自力常然。雖復聖者，捨其加持，一見見無異。如人濟渡於河，不可負舟而去。”則被仙加持，見諸佛境界，捨其加持，自力常然也。又自見其身至劫者，從儉入奢，黃金爲地云云。卽見自身云云者，從奢出儉，山是山云云。又手以攀攬爲意，則執手處。古人云，“暫時歛念，是處是慈氏，無門無善財。又歛念，則樓閣之門，彈指卽開也。”放手處，卽見自身，還在本處者，瞥爾情生，依舊山河土木瓦礙。又議<sup>27)</sup>心，則燈王之座，不入維摩之室。又自見其身至佛所者，處無礙；乃至經不可說至劫者，時無礙。如無邊剎境云云。卽見自身，還在本處者，佛眼遠云，“四生六道，卽心自性；三途八難，普現色身；居華藏海之中，住不思議之內。如斯之旨，乃吾輩之常分耳，還信得及麼？”非離本處，別有華藏世界，非離華藏世界，別有本處。所謂平常不思議，一途而行。古人有三頌云，“毘目仙人執手時，十方無處不追隨。歸來一枕松風在，無限清涼只自知。”，“十方齊現一毛端，華藏重重帝網寒。珍重善財何處去？清宵風撼碧琅玕。”，“華藏莊嚴世界中，一塵中有幾重重。忽然排出擡眸看，依舊疏簾動曉風。”

---

27) ‘擬’의 잘못으로 보인다.

## 황룡사심(黃龍死心)의 염

“손을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손을 잡은 경계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黃龍心拈, “放手卽不問爾, 執手處作麼生道?”

[설화]

손을 놓은 것에 ~ 말할 것인가 : 손을 놓은 경계를 떠나서 손잡은 경계를 묻은 것이 아니다. 만약 손잡은 경계를 이해한다면 손 놓은 경계 또한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평상의 경계와 부사의한 세계는 하나의 길로 함께 간다’라고 말한다. 아래 제시되는 불안청원의 상당법문도 이 뜻이다.

黃龍：放手卽不問云云者，非離放手處，問執手處。若會得執手處，則放手處亦如是。所謂平常不思議，一途而行也。下佛眼遠上堂，卽此意。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상당

하안거를 마치는 날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비목선인이 선재동자의 손을 잡자마자 작은 티끌과 같이 무수한 과거의 부처님들이 나타났고, 손을 놓자 완전히 이전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왔다. 나는 모든 대중들을 이끌며 이곳에서 도량 밖으로 나가지 않고<sup>28)</sup> 안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안거를 마치는 날이 되고 보니 완전히 이전 그대로이구나. 선재동자는 이전 그대로 돌아온 곳에서 무수한 부처님을 하나로 거두어 돌아간 흔적을 남

---

28) 결족(結足). 금족(禁足)과 같은 말. 안거 3개월 90일 동안 외출을 금하는 규정이다.

겼으나, 대중들이 맞이한 이전 그대로의 경계에는 석 달 90일 동안의 일을 모두 거두어 자취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라. 알겠는가? 하나의 털끝에 모든 세계를 감추고 겨자 씨 하나에 수미산을 거두며, 보거나 듣는 대상을 떠나지 않고 십지<sup>29)</sup>에 훌쩍 뛰어 오른다. 4생과 6도가 모두 그대로 마음의 자성이고, 3도와 8난 그 어디에나 두루 색신을 나타내며, 화장해에 살면서 부사의한 경지에 머문다.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들의 본분 그 자체인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佛眼遠，解夏，上堂云，“毗目仙人，執善財手，頓見過去微諸佛，及其放手，宛然依舊。龍門長老，領諸大眾，爰於此地，結足安居，及其解夏，宛然依舊。善財依舊處，微塵諸佛，含攝有歸；大眾依舊處，三月九旬，歛收無迹。還會麼？毛端藏刹海，芥子納須彌，不離見聞緣，超然登十地。四生六道，卽心自性；三途八難，普現色身，居華藏海之中，住不思議之內。如斯之旨，乃吾輩之常分耳，還信得及麼？”

### 각범혜홍(覺範慧洪)의 평

“주세영(朱世英)이 이 공안을 제기하고 일찍이 나에게 ‘이 한 토막의 이치는 어떻게 밝힙니까’라고 묻기에 나는 ‘이 모두가 상징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재의 손을 잡은 것은 법을 관찰하는 삼매로 들어간 순간이니, ‘자·타 간에 조금도 간격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의 한 찰나를 벗어나지 않는다’<sup>30)</sup>라는 진실을 본 것이다. 손을 놓은 것은 삼매에서 나온 순

29) 十地, 불지(佛地)와 같은 말, 10지 중 마지막 지위로 궁극적 경지이다. 일체종지(一切種智) 등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빠짐없이 갖춘 지위를 가리킨다.

30) 이통현(李通玄)의 말, 주석18) 참조.

간을 말한다. 영명연수(永明延壽)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알라! 본래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멀거나 가까운 국토가 뚜렷이 드러나며, 한 찰나도 떠나지 않고 느린 시간이나 빠른 시간이 진실 그대로 나타난다.’<sup>31)</sup> 부처님께서서는 대체로 연꽃을 비유로 삼으셨고 세상에는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으나 나만 유독 그것을 안다. 연꽃이 막 피려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씨가 있고, 씨 안에도 이미 연근이 있다. 그러므로 원인 중에 이미 결과가 있고 결과 중에 원인이 있으니 삼세가 동일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씨는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또한 한곳에 모여 있으니,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고 시방 그 어느 곳과도 떨어져 있지 않다.”

覺範曰, “朱世英, 舉此話, 嘗問予, ‘此一段義, 何以明之?’ 予云, ‘皆象也.’ 方執其手, 卽入觀法之時, 見自他不隔於毫端, 始終不移於當念, 及其放手, 卽是出定之時. 永明曰, ‘是知! 不動本位, 遠近之剎歷然; 一念靡移, 延促之時宛爾.’ 世尊, 蓋以蓮爲譬, 而世莫有知者, 予特知之. 夫蓮方華時, 中已有子, 子中已有莖. 因中有果, 果中有因, 三世一時也. 其子分布, 又會屬焉, 相續不斷, 十方不隔也.”

---

31) 선재동자와 비목선인의 인연에 관한 영명연수의 평가이다. 『宗鏡錄』 권16 大48 p.500c22 참조.



# 98칙 達磨聖諦 달마성제





## 98칙 달마성제 達磨聖諦

### [본칙]

달마대사에게 양무제<sup>1)</sup>가 물었다.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입니까?”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제가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달마는 마침내 강을 건너 위(魏)나라로 갔다. 〈분주선소(汾州善昭)가 무제를 대신하여 말했다. “제자의 지혜가 알입니다.”〉 무제가 이 문답을 들려주고 지공(誌公)<sup>2)</sup>에게 묻자 지공이 말했다. “폐하시여, 이 사람의 뜻을 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음대사<sup>3)</sup>로서 (폐하께) 부처님의 심인<sup>4)</sup>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제가 후회하며 사자를 보내어 돌아오라는 조

- 
- 1) 梁武帝(464~549). 남조(南朝) 양(梁)나라를 건국한 초대 황제로 502년부터 죽을 때까지 황제의 자리에서 통치했다. 불교와 도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주요 전적에 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504년에 「사도 귀불문(捨道歸佛文)」을 짓고 도교에서 불교로 귀의하였다고 한다.
  - 2) 418~514. 남조(南朝) 때 무제의 존경을 받았던 스님. 보지(寶志·保志·保誌) 또는 보공(寶公)이라고도 한다. 무제는 지공을 신선 중의 신선으로 여기고 존송했으며 궁성 출입을 자유롭게 허가하였다.
  - 3) 觀音大士.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사’란 ⑤mahāsattva, ⑥sems-dpaḥ-chen-po의 한역어 중 하나. 음사어는 마하살타(摩訶薩埵)이며, 마하살(摩訶薩)이라고도 한다.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둘을 합하여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라 하고, 음사어와 한역어를 합하여 보살대사(菩薩大士)라고도 한다.

칙을 내리려 하자 지공이 말했다. “폐하의 조칙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서 청해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達磨大師, 因梁武帝問, “如何是聖諦第一義?” 曰, “廓然無聖.” 帝云, “對朕者誰?” 祖曰, “不識.” 帝不契, 祖遂渡江至魏. 〈汾州昭, 代云, “弟子智淺.”〉武帝, 舉問誌公, 誌公云, “陛下, 還識此人不?” 帝云, “不識.” 誌公云, “此是觀音大士, 傳佛心印.” 帝悔, 當遣使詔之, 誌公云, “莫道陛下詔, 闔國人去, 他亦不迴.”

### [설화]

본편<sup>5)</sup>에 따르면, “달마대사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3년이 지나 남해에 도달했다. 광주<sup>6)</sup>의 자사(刺史) 소양(蕭昂)이 주인의 예를 갖추고 맞이한 뒤 표<sup>7)</sup>를 올려 무제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무제는 올라온 공문서<sup>8)</sup>를 살펴본 다음 사자를 파견하여 조칙을 가지고 가서 영접하도록 하였다. 대통

4) 心印. 불심인(佛心印)·불인(佛印)·불조심인(佛祖心印)·조사심인(祖師心印)·법인(法印) 등이라고도 한다. 깨달은 마음을 근거로 삼아 확고하게 도장을 찍듯이 인가하는 것. ‘인’은 인가(印可)·인증(印證)을 뜻한다. 스승이 자신의 깨달은 마음을 표준으로 하여 제자의 깨달은 마음을 인가하는 것을 이심인심(以心印心)이라 하며,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은 뜻이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심인의 전수라 하며, 그 모범적 사례는 부처님의 염화(拈花)에 가섭이 미소(微笑) 지어 답했다는 일화이다. 이것이 문자와 교설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을 인가하여 전수한다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5) 『景德傳燈錄』 권3 「菩提達磨傳」 大51 p.219a13.

6) 廣州. 중국 광둥성(廣東省) 성도(省都). 주강(珠江) 삼각주(三角洲) 북쪽 끝 서강(西江)·북강(北江)·동강(東江) 등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화남(華南) 제일의 항구이자 무역 도시.

7) 表. 황제에게 올리는 글.

8) 주(奏).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공문서.



원년(527) 9월 21일, 마침내 달마는 금릉<sup>9)</sup>에 이르렀다. 무제가 물었다. ‘짐은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베껴 쓰고 출가를 장려하는 등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불사를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죽은 다음 인간계와 천계에 태어나는 유루<sup>10)</sup>의 원인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더라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참된 공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른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본체가 텅 비고 고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은 세속적 힘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입니까?’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라고 운운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 물음이었던 것이다.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聖諦第一義] : 성스럽다는 말[聖]은 바르다[正]는 뜻이고, 진리[諦]는 진실[實]을 나타낸다. 곧 바르고 진실한 근본적인 이치를 말한다. 또한 성인이 진실로 증득(證得)한 이치를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라 한다. 또한, 성인이 증득한 진리이므로 성제(聖諦)라 하고, 가장 존귀하고 더 이상의 것이 없으므로[無上] 제일(第一)이라 한다.

무제가 이렇게 물은 까닭은 무엇인가? 요진(姚秦)시대에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의미를 밝히면서 “막힘없이 트여 텅 비고 고요하니 성인조차도 없다”라고 하자 당시 요진의 황제가 이 말을 가지고

9) 金陵. 양나라의 수도.

10) 有漏, 번뇌와 같은 말. 인계(人界)와 천계(天界)는 여섯 가지 윤회[六道輪廻]의 형식 중 선한 업을 쌓아서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윤회의 굴레에 속박된 고통의 세계에 불과하므로 유루라 한다. 무제의 선행(善行)도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 괴로움을 수반하는 ‘유루의 원인’이라 한 것이다.

승조(僧肇)법사에게 물었다. “이 말은 문밖 길과 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것과 같아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까이 와 닿지 않는다.”<sup>11)</sup> 만약 성인조차 없다면 그렇게 없다고 아는 자는 누구인가?” 법사가 황제의 질문<sup>12)</sup>을 받들어 답변했다. “진실로 현명한 질문 그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성인이 없다면 누가 도(道)와 노닐 수 있겠습니까?”<sup>13)</sup> 따라서 ‘짐을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sup>14)</sup>라고 묻은 말은 요진시대에 거론되었던 문답에 근거하여 (무제가) 당시의 논의에서 (달마에) 대적하기 위하여 변론한 말이 아닐까?

『벽암록』에는 이렇게 전한다.<sup>15)</sup> “무제가 가사를 입고 스스로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을 강설하던 중에 하늘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고 땅은 황금으로 변화하는 감응을 일으킨 뒤에 도교를 가려내고 불교를 받들었다.”<sup>16)</sup> 천하에 조칙을 내려 절을 세우고 출가를 장려하고 경전의 말씀에 따

11) 『莊子』「逍遙遊」의 “大有逕庭，不近人情”이라는 구절에 따른다. ‘逕’이란 문밖의 길, ‘庭’은 집 안의 뜰이다.

12) 조(詔). 여기서는 질문을 뜻하지만 본래는 황제의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다. 황제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명령과 같은 속성이 있으므로 ‘조’라 한 것으로 보인다.

13) ‘요진시대에’라는 구절부터 여기까지는 『肇論』「涅槃無名論」大45 p.157b14에 나온다.

14)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아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짐을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구절의 오식(誤植)이다. 달마가 ‘성인조차도 없다’라고 한 말에 대하여 무제는 ‘없다고 아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요진 황제의 말을 활용하여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이다.

15) 『碧巖錄』1則「評唱」大48 p.140b6.

16) 판도봉불(辦道奉佛). 보통은 ‘도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든다’는 뜻의 사도봉불(捨道奉佛)이라 한다. 『歷代編年釋氏通鑑』 권5 卍131 p.834a10에 따르면, 양무제는 천감 3년(504) 4월 8일 도속 2만여 명을 이끌고 중운전(重雲殿)에서 사도봉불의

라 수행하도록 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를 불심천자(佛心天子)라 불렀다. 또한 무제는 누약법사(婁約法師)와 부대사(傅大士) 그리고 소명태자(昭明太子) 등과 함께 진속이제(眞俗二諦)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진제(眞諦)로써 있지 않음[非有]을 밝히고 속제(俗諦)로써 있지 않음[非無]을 밝히니,<sup>17)</sup>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닌 경계가 제일의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교가(敎家)가 주장하는 미묘하고 깊은 궁극적 경지이니, 무제는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궁극의 진리[極則處]’를 집어내어 달마에게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이다.”<sup>18)</sup> 곧 당시로서는 극치의 논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는 달마의 말은 요진시대에 논의되었던 일반적인 뜻과는 현격하게 차별되어 동일하지 않다.

부산법원<sup>19)</sup>이 말했다. “제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교가에서는 일승(一乘)이라 하기도 하고 삼승(三乘)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달마가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라고 한 말이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말에 근거한다면, 무엇 때문에 삼승이다 일승이다 상관하면서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킨다거나, 본래 그 무엇도 없다거나,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다거나, 옛날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절도 없고 소멸도 없다거나 하고 말하겠는가!”<sup>20)</sup>

---

원문(願文)을 지었다고 한다.

17) 출전은 『肇論』 「不真空論」 大45 p.152b17이다.

18) 이상이 『碧巖錄』의 인용이다.

19) 浮山法遠(991~1067). 송나라 때 임제종 선사.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 출신으로 삼교지승(三交智嵩) 문하에서 출가했다가 하남성 광교원(廣敎院)의 섭현귀성(葉縣歸省)의 법을 계승했다.

20) 전거 미상.

또 『벽암록』<sup>21)</sup>에서 “세상의 선수행자들 그 누구도 이 말의 굴레에서 훌쩍 벗어나지 못하자 달마가 단번에 칼을 휘둘러 두 토막을 내어주었던 것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sup>22)</sup>라고 했다. 그러므로 달마의 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짐을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만송행수(萬松行秀)가 말한다. “콧구멍 안에 이빨이 있다고 착각하는구나.”<sup>23)</sup>

모르겠습니다 :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남을 가르치려면 철저해야 한다<sup>24)</sup>는 입장이다.

무제가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 네모난 나무는 둥근 구멍에 들어가지 못한다.<sup>25)</sup>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 속뜻을 알아주는 벼를 만나지 못했으니 지금 이후에는 남의 뜻을 알아 깊이 들어가더라도, 갈대꽃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지 않으리라(영로(詠鷺)의 시).

21) 위의 『벽암록』 인용에서 이어지는 구절이다. 大48 p.140b17.

22)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라는 오래 묵은 말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비수와 같은 한마디 말로써 그 굴레를 절단 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관념을 소굴로 삼아 벗어나지 못하고 달마의 말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23) 『從容錄』 2則 大48 p.228b13의 「著語」. ‘認’은 오인(誤認) 또는 착각의 뜻이다.

24)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여 방편으로 친절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지 말고 오로지 본분에 충실하여 곧바로 궁극의 뜻을 전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25) 이 또한 만송행수의 「著語」이다. 위의 책 같은 곳 참조. 본분을 원만히 깨달은 달마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시대의 편견에 치우친 무제의 모난 분별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서 청해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지공의 말 : 달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는 말과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대답에 숨은 소식을 거듭 무제에게 나누어 일러준 것이다.

지공(418~514)은 송나라 때인 태시(太始) 초년에 태어나<sup>26)</sup> 천감 13년(514)에 입멸하였다. 지공이 입멸한 뒤 13년이 지나<sup>27)</sup> 달마가 중국에 왔는데 달마와 동시대에 만났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신라(新羅) 이정대덕<sup>28)</sup>의 비문(碑文)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공은 양주(楊州)의 개선사(開善寺)(신라 소재)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한 번 와서 이정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기록을 보자면 성인(聖人)이 출몰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本篇云, “達摩師泛重溟, 凡三周寒暑, 達于南海. 廣州刺史蕭昂, 具主禮迎之, 表聞武帝. 帝覽奏, 遣使賫詔迎請. 大通元年, 九月二十一日, 初至金陵. 帝問, ‘朕, 卽位以來, 造寺寫經度僧, 不可勝記, 有何功德?’ 曰, ‘並無功德.’ 曰, ‘何以無功德?’ 曰, ‘此是人天有漏之因, 如影隨形, 雖有非實.’<sup>29)</sup> ‘如何是真功德?’ 曰, ‘正智妙圓, 體自空寂. 如是功德, 不以世求.’ 又問, ‘如何是聖諦第一義?’ 曰, ‘廓然無聖.’” 云云. 此是第

26) 태시 초년이라 하면 465년 이후 몇 년 간이라는 뜻이지만, 지공이 태어난 418년은 의희 14년에 해당하므로 잘못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27) 대통 원년(527) 9월 21일.

28) 利貞大德. 이정(利貞) 또는 이정(理貞)이라고도 한다. 신라 말기의 스님으로 순응(順應)과 함께 애장왕 3년(802)에 해인사(海印寺)를 창건했다. 순응을 따라 당나라로 갔다가 지공의 『踏山記』를 구해서 돌아왔다.

29) ‘曰’이 탈락됨.

二問也. 聖諦第一義者, 聖者正也, 諦者實也, 則正實第一義. 又聖人之所諦證之義曰, 聖諦第一義. 又聖人所證之諦, 故曰, 聖諦. 最尊無上, 故曰, 第一. 武帝伊麼問何也? 姚秦之時, 諸家通第一義諦云, “廓然空寂, 無有聖人.” 時, 秦皇持此語, 問肇法師, “此語大甚徑庭, 不近人情. 若無聖人, 知無者誰?” 法師奉詔云, “實如明詔聖諦.<sup>30)</sup> 若無聖人, 誰與道遊?” 知無者誰, 則姚秦之時所論, 當時所論對辯耶? 碧巖云, “武帝被袈裟, 自講放光般若, 感得天花亂墜, 地變黃金, 辨道奉佛, 詔天下起寺度僧, 依教修行, 時人謂之佛心天子. 又帝與婁約法師·傅大士·昭明太子, 持論真俗二諦云, ‘真諦以明非有, 俗諦以明非無, 真俗不二處, 是第一義諦.’ 此是教家極妙窮玄處, 帝拈此極則處, 問達摩, ‘如何是聖諦第一義?’” 則當時極論故問也. 廓然無聖語, 則姚秦之時所論一般意, 則迥異不同也. 浮山遠云, “第一義諦, 諸家所論, 或一或三. 若依達摩所道廓然無聖, 又道不識, 則何關三一! 而論直指心源, 本來無物, 凡聖無殊, 亘古亘今, 無斷無滅.” 又碧巖云, “天下衲僧跳不出, 達摩與他一刀兩斷, 如今多少人錯會也.” 然則莫錯會好. 對朕者誰者, 萬松云, “鼻孔裏認邪.<sup>31)</sup>” 不識者, 廓然無聖一般, 爲人須爲徹. 帝不契者, 方木不入圓竅. 渡江至魏者, 不值知音, 自今已後, 知人意深入, 蘆花不點頭(詠鶯詩). 誌公云, 闔國人去, 他亦不迴者, 非唯知他不來, 廓然無聖不識處消息, 重爲他分析.

30) ‘聖諦’라는 글자는 연문(衍文). 『肇論』에는 ‘實如明詔’라는 구절을 두 번 반복하여 황제의 질문을 칭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31) ‘邪’는 ‘牙’의 오식.

誌公, 生宋太始初, 入滅於天鑑十三年. 誌公滅後十三年, 達摩始來, 達摩同時, 何也? 新羅利貞大德碑銘云, “誌公, 於楊州開善寺〈在新羅〉, 或一月或一年來, 坐對利貞.” 見之則聖人出沒難定也.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성스러운 진리 막힘없이 트였으나,  
어떻게 그 핵심을 가려내리오?  
짐을 대하는 자 누구냐 물으니,  
다시 모른다고 하였다네.  
이로 인하여 남몰래 강 건너니,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 어찌 피하랴!  
나라 사람 다 뒤따라가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천 년이고 만 년이고 부질없이 생각에 담아두겠네.  
생각에 담아두지 마라!  
맑은 바람 온 누리 돌아다님에 무슨 끝이 있으랴!<sup>32)</sup>  
송을 마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곳에 조사(달마)가 있는가?”라고 말한 뒤 스스로 대답했다. “저기 있구나! 그를 불러서 나의 발을 씻게 하라.”  
雪竇顯頌, “聖諦廓然, 何當辨的? 對問<sup>33)</sup>者誰, 還云不識. 因茲

32) 막힘없이 트여 한계가 없이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달마대사의 면모를 나타낸 구절이다.

33) ‘問’은 ‘朕’의 오식.

暗渡江，豈免生深棘！闔國人追不再來，千古萬古空相憶。休相憶！清風匝地有何極！”師顧視左右云，“者裏還有祖師麼？”自云，“有！喚來與老僧洗脚。”

[설화]

성스러운 진리 ~ 부질없이 생각에 담아두겠네 : 성스러운 진리의 막힘없이 트인 본질과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대답의 뜻까지 속속들이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맑은 바람이 부는데 무슨 끝이 있겠는가?

이곳에 조사가 있는가 ~ 발을 씻게 하라 : 만약 바른 안목으로 살펴본다면 달마도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 아래에서 운거(雲居)가 ‘오로지 양나라 왕만이 장부다웠다’라고 한 말과 통한다.

雪竇：聖諦至相憶者，深明聖諦廓然，又道不識之意。然則清風有何極？這裏還有祖師麼云云者，若也着得眼睛，便不是了也。下雲居，只有梁王是丈夫之意。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성스러운 진리 막힘없이 트였으나,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 알아차릴꼬?

빈틈없이 척척 들어맞는구나!<sup>34)</sup>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리를,

한 구절로 넉드시 전하고 나서,

34) 마치 빈틈없이 벽돌이 쌓이거나[築著] 두 개의 돌이 빗나가지 않고 서로 정확히 부딪히는 것[磕著]과 같이 정확하게 진실에 부합하는 말이라는 뜻.



9년 동안 공연히 면벽만 했다네.

흥미가 다 사라지자 다시 떠돌던 옛 시절 그리워,

남몰래 짚신 한 짝만 끌고서 인도로 돌아갔다네.<sup>35)</sup>

짚신을 바짝 졸라매어야 하리라.

大洪恩頌, “聖諦廓然, 如何辨識? 築著磕著! 百千萬億, 一句謾相傳, 九年空面壁. 興盡還思舊日遊, 暗携隻履歸西國. 緊悄<sup>36)</sup>草鞋.”

## 운거요원(雲居了元)의 송

쫓쫓, 서쪽에서 온 푸른 눈의 이방인이여!

- 35) 달마대사가 입적한 495년(태화19) 12월 28일, 웅이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정림사에 탑을 세웠다. 3년 뒤에 위나라의 송운(宋雲)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령(葱嶺)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손에 짚신 한 짝을 들고 옷자락을 펴리며 홀로 가고 있었다. 송운이 ‘스님!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으니 ‘서천으로 갑니다’라 말하고, 다시 ‘당신의 임금[孝明帝]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송운이 그 말을 듣고 황급하게 달마대사와 작별하고 동쪽으로 달려와 조정에 일의 결과를 보고했을 때 효명제는 이미 죽은 다음이었고, 후사를 이어 동昏후(東昏侯)가 즉위한 상태였다. 송운이 달마대사와 만났던 사정을 상세히 말하자 임금이 명령하여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 확인해 보도록 했는데, 빈 관 안에 짚신 한 짝만 남아 있었다. 『景德傳燈錄』 권3 「菩提達磨傳」 大51 p.220b4 참조. 도교 신선사상(神仙思想)의 영향도 보인다. 곧 『抱朴子』 권2 「論仙」 등에도 죽어서 관 속에 의관(衣冠)이나 죽장(竹杖) 등의 흔적만 남겨두고 시체를 없애는 이소군(李少君)과 이의기(李意期) 등 도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신선의 경지를 시해선(屍解仙)이라 한다. 이렇게 도교의 신선사상과 달마대사를 연결시킨 결과 때때로 달마대사가 도교 안에서도 최고의 신선 중 하나로 추앙받거나 달마대사의 이름에 의탁한 도교 전적이 창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 36) ‘悄’는 ‘峭’의 오식.

확연무성이라 하고 또 쓸데없는 시도를 하였네.

9년 동안 좌선하며 다 견져내어 보았지만,

사람 중에는 양나라 왕만이 장부다웠다네.

雲居元頌, “咄咄西來碧眼胡! 廓然無聖更多圖. 九年端坐撈籠  
盡, 人有梁王是丈夫.”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막힘없다는 화살 한 발 하늘 멀리 날더니,

모르겠다는 송곳 거둬 바닥으로 꽂혔다네.

양무제가 달마 간 곳 몰랐던 이후로,

천년만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구나.<sup>37)</sup>

薦福逸頌, “廓然一鏃遶空, 不識重下錐刺. 梁帝不知何處去,  
千古萬古無消息.”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기틀에 맞게 눈앞에서 보여주었건만,<sup>38)</sup>

양무제는 오히려 모르고 지나쳤도다.

짚신 한 짝 신고 부질없이 돌아가니,

---

37) 막힘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달마의 말에 아무런 분별의 단서가 없다는 뜻을 소식  
이 없다[無消息]고 했다.

38) 근기와 상황에 합당하게[當機] 본분을 곧바로 눈앞에서 들어보이는 방법. 달마  
가 일정한 규격에 얽매이지 않고 양무제의 말이나 그 현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말을 이용하여 드러내었던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를 말한다.

다시 총령<sup>39)</sup>을 넘어 서쪽으로 갔다네.

法眞一頌, “當機觀面提, 梁武尚猶迷. 隻履空歸去, 還從葱嶺西.”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고 하니,  
듣는 사람의 근기가 그 말과는 너무 멀었도다.<sup>40)</sup>  
알았다면 코를 상하지 않고 도끼 휘두른 격이겠지만,<sup>41)</sup>  
몰랐다면 돌아보지 않아도 시루는 떨어져 깨졌으리.<sup>42)</sup>  
고요히 소림사에서 마음 식히고 좌선하며,<sup>43)</sup>

---

39) 주석35) 참조.

40) 래기경정(來機徑廷). ‘래기’는 배우러 찾아온 사람으로 여기서는 양무제를 가리킨다. ‘경정’은 『莊子』「逍遙遊」의 구절. 주석11) 참조. 양무제의 편견으로는 달마의 막힘없이 트인 선기(禪機)를 이해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말.

41) 『莊子』「徐無鬼」에 나오는 고사. 도끼를 휘둘러 코에 묻은 흙을 떼어냈지만 코는 다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42)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무지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맹민(孟敏)의 고사로 밝힌 구절이다. 『後漢書』「孟敏傳」에 따르면, 한나라 때 맹민이 태원(太原)에 머물 적에 시루를 짊어지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곽임종(郭林宗)이 그 광경을 보고 까닭을 묻자 “시루가 이미 깨어졌으니 쳐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甑以破矣, 視之何益!)라 대답했다고 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을 비유한다.

43) 냉좌(冷坐)는 번뇌망상의 열기를 식히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념단좌(正念端坐) 또는 정신단좌(正身端坐) 등과 같다.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좌선했다는 설에 기초한 말이다. 면벽좌선했다는 말은 『歷代法寶記』(774년)·『寶林傳』(801년)·『祖堂集』(952년) 등에는 보이지 않고, 달마로부터 약 450년을 경과한 『宋高僧傳』(988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宋高僧傳』 권13 대50 p.789c8 참조.

묵묵히 엄정한 법령 남김없이 들어보였네.  
가을의 밝은 달은 서리바퀴<sup>44)</sup> 굴리고,  
맑은 은하수의 북두성 밤의 국자 드리웠다.  
대대로 이어 가사와 의발 후손에게 전하니,  
이로부터 인계와 천계에 약과 병이 되었네.

天童覺頌, “廓然無聖, 來機徑廷. 得非犯鼻而揮斤, 失不迴頭  
而墮甌. 寥寥冷坐小林, 默默全提正令. 秋清月轉霜輪, 河淡斗  
垂夜柄. 繩繩衣鉢付兒孫, 從此人天成药病.”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sup>45)</sup>

온통 붉게 달구어 망치 한 방 내리치니,  
무수히 에워싼 불티가 별처럼 날린다네.  
완전하고 보기 좋은 금강의 송곳이라니,  
문 앞에 펼쳐놓고 누구에게 팔아넘길까?

保寧勇頌, “燒得通紅打一鎚, 周遭無數火星飛. 十成好箇金剛  
鑽, 攤向門前賣與誰?”

44) 상륜(霜輪)은 월량(月亮)과 같은 말로 ‘달[月]’이다. 주로 밝은 빛이라는 측면에서 ‘달’을 나타내는 말이다. 달빛이 밝지만 태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지는 이미지를 ‘서리[霜]’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달이 달을 굴린다’라는 말이므로 둥근 달이 스스로 돌며 움직이는 것을 시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45)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여 금강과 같이 단단한 송곳을 만드는 그 수단을 달마의 화두에 비유한 송이다. 그 송곳을 무제에게는 팔지 못하여 사갈 사람을 기다리는 달마가 묘사되어 있다.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근본적인 이치라!

텅 비고 고요하여 상제<sup>46)</sup>도 넘어서네.

여러 해 동안 달력을 보지 않았거늘,

무슨 수로 춘분과 하지 분간하리오?

요동백학<sup>47)</sup> 승천한 뒤 종적 없는데,

삼산<sup>48)</sup>이 공연히 하늘 밖에 떨어진다.

雪溪益頌, “第一義! 廓兮寥兮超象帝. 不把多年曆日看, 爭辨  
春分并夏至? 遼東白鶴去無蹤, 三山空落青天外.”

## 승천회의 송

남천축국 보살<sup>49)</sup>의 두 눈동자는 푸르고,

양나라 어진 왕의 남다른 눈 밝기도 하네.<sup>50)</sup>

46) 象帝. 만물을 주재하는 조물주. 천제(天帝)와 같다. 『老子』 4장에 나오는 말. “나는 도(道)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제보다 먼저 있었다.”(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

47) 遼東白鶴. 신선의 경지를 얻은 다음 학이 되었다는 요동 출신 정영위(丁令威)를 가리킨다. 도잠(陶潛)의 『搜神後記』 권1에 따르면, 정영위가 영허산(靈虛山)에서 신선술을 익히고 학이 되어 요동에 돌아왔는데, 어떤 소년이 활로 쏘려고 하자 날아서 공중을 돌면서 “나는 고향을 떠난 지 천 년이 지나 돌아온 정영위이다. 어찌 신선술을 배우지 못하여 성곽에는 무덤만 첩첩이 쌓였는가!”라고 말한 뒤 하늘 높이 올라갔다고 한다.

48) 三山, 신선(神仙)들이 산다는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 등 세 개의 산이다. 삼도(三島)라고도 한다. 본서 911則 주석5) 참조.

49) 대사(大士)는 보살의 한역어. 본서 883則 주석9) 참조.

불식과 확연이라는 말 쓸모없어진 곳에,  
 쓸쓸한 발자취<sup>51)</sup> 부끄럽게 남기고 서경<sup>52)</sup>을 떠나갔다네.

承天懷頌, “南天大士雙眸碧, 梁土賢王隻眼明. 不識廓然無用處, 孤蹤慙懼過西京.”

## 불감혜근(佛鑑慧勲)의 송

누각에서 울린 외마디 종소리 듣자마자,  
 따뜻한 햇볕에 창룡<sup>53)</sup>은 깊이 잠들었네.  
 봉황대<sup>54)</sup>에 걸린 북을 다시 쳤음에도,  
 한밤이라 상서로운 난새<sup>55)</sup> 날 조짐 없네.<sup>56)</sup>  
 황제 앉은 터 끝내 견고하여 반석 같으니,

50) 푸른 눈동자[碧眼]는 달마 또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나타내고, 남다른 눈[隻眼]은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제3의 눈을 말한다. 불식(不識)과 확연(廓然)이라는 달마의 소식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양무제의 확고하지만 치우친 안목을 남다르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외눈박이’라는 이중적 뜻으로 쓰고 있다.

51) 고종(孤蹤). 달마의 선지(禪旨).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쓸쓸하기만 했던 선구자의 발자취를 나타낸다.

52) 西京, 달마대사의 거쳐인 소림사가 이곳에 있었다. 서한(西漢)의 도읍인 장안(長安)을 말한다. 동한(東漢) 때는 낙양(洛陽)이라 불렸다. 이에 따라 낙양을 동경(東京)이라 하고, 장안은 서경이라 한다.

53) 蒼龍. 전설상의 상서로운 청룡(靑龍). 양무제를 비유한 말이다.

54) 鳳凰臺. 궁궐의 누대(樓臺). 양무제와 달마가 문답을 나누었던 궁궐을 가리키며, 특정한 곳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는 아니다.

55) 난(鸞). 봉황의 일종이다.

56) 여기까지는 종소리나 북소리와 같이 울린 달마의 말을 듣고도 그 본의를 깨우치지 못해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던 양무제를 묘사한 장면이다.

달마의 평생 기력만 다 소모하고 말았네.

저 멀리 소림사 가리키며 되돌아가는데,

한 줄기 봄바람에 꽃잎 곳곳에 흩어진다.

佛鑑勸頌, “始聞樓閣一聲鐘, 日煖蒼龍睡正濃. 再擊鳳凰臺上鼓, 夜半祥鸞未飛舞. 帝基永固如磐石, 胡僧費盡平生力. 遙指小林歸去來, 春風一徑花狼藉.”

### 혼성자의 송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 없다는 말 아는 사람 드물고,

모르겠다는 거듭된 가르침에 담은 대기<sup>57)</sup>도 잃고 말았다네.

면벽 9년 동안 원통함과 괴로움 극도에 이르렀거늘,

어찌 깊은 한 짝만 신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을꼬?

混成子頌, “廓然無聖信人稀, 不識重教失大機. 面壁九年冤苦極, 那堪隻履又西歸?”

###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염

“이 자가 모른다는 사실은 볼 보듯 분명하구나! 말해 보라. 손님이 모르는가, 주인이 모르는가? 설령 분명하게 가려내더라도 그대의 콧구멍은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sup>58)</sup>”

57) 大機. 근본 작용 또는 기미. 달마의 속뜻이 ‘모르겠다’라고 한 말에 하나의 본질적 작용으로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58)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처음부터 결정된 해답이 없는 화두이며 분별을 모두 물리치기 위한 장

蔣山泉拈, “灼然, 者漢不識! 且道. 賓家不識, 主家不識? 直饒辨得分明, 鼻孔在我手裏.”

[설화]

이 자가 모른다는 사실은 불 보듯 분명하구나 : 이 경계에 이르면 3세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도 그 본질을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달마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말해 보라 ~ 주인이 모르는가 : 손님은 무제요, 주인은 달마를 말한다. 주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손님의 역량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sup>59)</sup>

설령 분명하게 ~ 쥐어져 있다 : 설령 이와 같은 소식을 분명하게 가려내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발을 옮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콧구멍은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분명하게 아는 견해를 콧구멍이라 했다.

蔣山 : 灼然這漢不識者, 到這裏, 三世諸佛, 歷代祖師, 窺覷不得故, 達摩灼然不識也. 且道至不識者, 賓家則武帝, 主家則達摩也. 非但主家分上, 賓家分上, 亦沒分外也. 直饒辨得云云者, 直饒分明辨得如是消息, 擡脚不起. 故云鼻孔在我手裏. 見得分明處, 是鼻孔.

---

치일 뿐이다. 코에 고삐를 꿰어 소를 마음대로 몰듯이 이 질문에 대하여 무슨 대답을 해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59) 몰본외(沒分外)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 곧 자신의 분수나 역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 황룡조심(黃龍祖心)의 거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분명히 바로 이것이 달마의 눈앞에 있는데, ‘모르겠다’는 도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학인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황룡이 불자(拂子)를 집어 들고 말했다. “달마는 이 안에 있다.”

黃龍心，舉此話，問僧，“分明有箇達磨面前，作麼生說箇不識底道理？”僧曰，“不識。”師拈起拂子曰，“達磨在者裏。”

### [설화]

분명히 ~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만일 이 본분사가 분명히 달마의 눈앞에 있었다면 ‘모르겠다’는 도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뜻이다.

학인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말 : 3세의 부처님들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불자를 집어 들고 ‘달마는 이 안에 있다’라고 한 말 : 한 자루의 불자를 떠나서 별도의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찾으려 하는 그 학인의 병통을 부수어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sup>60)</sup>

黃龍云云至道理者，若是此事，分明在達磨面前，如何說箇不識地道理？僧曰不識者，三世諸佛亦不識。拈起拂子云云者，不可離却一條拂子，別有在處，但破這僧驚於虛遠之病。

---

60) 병통을 타파하기 위하여 설정한 말일 뿐, ‘하나의 티끌에 시방의 세계가 모두 들어 있다(一微塵中含十方)’라는 것과 같은 불법의 이치를 설한 것이 아니라는 해설이다.

## 오조법연(五祖法演 : 백운법연)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구절과 ‘황매의 종지 ~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sup>61)</sup>라는 구절을 더불어 제기하고 말했다. “대단하구려,<sup>62)</sup> 조사들이여! 질문한 것에 대하여 모르겠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했거늘 어떻게 그 후손들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있는가?” 이어서 말했다. “한 사람은 허(虛)로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오인하여) 실(實)이라 전한다.”<sup>63)</sup>

白雲演，上堂，舉此話，至不識，連舉黃梅意旨，至不會佛法，師云，“大小大，祖師！問着底，便是不識不會，爲什麼却兒孫遍地？”乃云，“一人傳虛，萬人傳實。”

61) 황매의 종지는 5조 홍인의 종지를 가리킨다. 6조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 대답을 달마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말과 연결시켜 하나의 화두로 제기한 장면이다. “어떤 학인이 혜능에게 물었다. ‘5조 홍인의 종지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스님께서는 얻었습니까?’ ‘나는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宗寶本『壇經』大48 p.358a10. 一僧問師云, ‘黃梅意旨, 甚麼人得?’ 師云, ‘會佛法人得.’ 僧云, ‘和尚還得否?’ 師云, ‘我不會佛法.’); “5조 홍인 회하의 499명의 학인들이 모두 불법을 이해했지만 오직 노행자(혜능) 한 사람만이 불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도를 알았을 뿐 별다른 일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南泉普願語要』古尊宿語錄12 卍118 p.297a1. 只如五祖會下, 四百九十九人, 盡會佛法, 惟有盧行者一人, 不會佛法. 只會道, 不會別事.)

62) 대소대(大小大). 치켜세우는 듯하지만 사실은 빈정대는 말이다.

63) 달마대사나 6조가 ‘모른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 말들은 모두 사실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한 알갱이[實]가 없는 하나의 실험 수단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허(虛)이다. 그것을 오인하여 모든 사람이 실(實) 그대로 모른다는 뜻으로 전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조사선의 상용구이다. 본서 110則 주석86)과 동일한 맥락이다.

## [설화]

대단하구려, 조사들이여 ~ 두루 퍼져 있는가 : 묻자마자 곧바로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 대답은 전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어째서 후손들이 남아 있는나는 뜻이다.

한 사람은 허로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실이라 전한다 : 모르겠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한 사람은 허로 전했다는 구절에 해당되며, 후손들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실이라 전했다는 구절에 상응한다. 곧 뜻을 풀이하여 말하자면 모르겠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대답은 안다거나 이해한다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내놓은 말이다. 마치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끌어 자취를 없애려다가 도리어 또 다른 흔적이 생기는 꼴과 같다.<sup>64)</sup>

白雲：大小大祖師，至遍地者，既是才問着，便道不識不會，則是無傳無受，爲什麼却有兒孫。一人傳虛，萬人傳實者，不識不會，是一人傳虛；兒孫遍地，是萬人傳實。則義謂不識不會，猶是對識得會得云也。如靈龜曳尾，拂迹成痕。

## 불감혜근의 상당

달마가 무제와 처음 만났을 때 ‘무제가」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고 ~ 지공이 「이 사람은 관음대사로서 (폐하께)

---

64) 앞과 이해의 틀에 얽매이는 자취를 없애려고 내세웠던 ‘不識’이나 ‘不會’라는 말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집착의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다.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라고 하지만 자취를 없애려다 도리어 흔적이 생기는 결과가 되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하게 지나가라고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면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는 짓과 같다.”(『佛海晤堂語錄』 卍120 p.952a9. 有佛處不得住，拂跡成痕；無佛處急走過，揚聲止響.)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고, 부처님을 도와서 교화를 펼쳤던 것입니다<sup>65)</sup>’라고 한 부분까지 제기하고 말했다. “그림으로 그리려 해도 완결되지 못하고, 진흙으로 빚으려 해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무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고 달마는 강을 건너 떠났던 것일까? 알겠는가? 무제는 달마의 범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달마는 무제의 중국어를 몰랐기에 눈앞에서 만나고도 호나라와 월나라<sup>66)</sup> 사이의 거리처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공이 비록 잘 번역했지만 우격다짐으로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만들었으니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로 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달마를 만날 것인가? 만약 지금 당장 만난다면 비로소 산승이 지금 한 말이 한편은 중국어이고 다른 한편은 범어라는 것을 알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흰 구름 끊어진 곳이 청산이고 나그네는 다시 청산 밖에 있으리라.”

佛鑑勲，上堂，舉，達磨初見武帝，帝問，‘如何是聖諦第一義？’至誌公云，‘此是觀音大士，傳佛心印，助佛揚化。’師云，“畫也畫不成，塑也塑不就。因何武帝不契，達磨渡江？會麼？蓋武帝不會達磨梵語，達磨不曉武帝唐言，致見覲面胡越。誌公雖善翻譯，剛然壓良爲賤，致見畫虎成狸。雖然如是，諸人向什麼處見達磨？若也當面見得，方知道山僧如今，一邊唐言，一邊梵語。如或未然，白雲斷處是青山，行人更在青山外。”

65) 뒤 구절은 본래의 공안에 없는 내용이다.

66) 호(胡)나라는 북쪽에 있고 월(越)나라는 남쪽에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또는 적이나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설화]

그림으로 그리려 해도 완결되지 못하고 : 달마의 입장에 속하는 말이다.

진흙으로 빚으려 해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무제의 입장에 속하는 말이다.

아래 글에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달마의 범어는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고 한 말이다. 이렇게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는 범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그림으로 그리려 해도 완결되지 못한다’라고 한 구절과 상응한다. 다만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는 (번역된) 중국어만 알았을 뿐, 달마의 범어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무제의 중국어는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는 말이다. 이렇게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는 중국어의 뜻을 모르는 것이 ‘진흙으로 빚으려 해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구절과 상응한다. 다만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는 번역된 범어만 알았을 뿐, 무제의 중국어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눈앞에서 만나고도 호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거리처럼 멀다’라고 한 것이다.

지공이 비록 잘 번역했지만 ~ 고양이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 ‘관음대사로서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고, 부처님을 도와서 교화를 펼쳤던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달마의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지공이 비록 이렇게 번역하기는 했지만 달마까지 자신의 잘못에 연루시킨 것이니 그 말을 두 갈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말은 마치 무제가 본래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저 무제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만들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만난다면 : 만약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는 말

에서 진흙으로 빚으려 해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알았다면, 어찌 반드시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는 말에서 달마의 의중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뜻이다.

산승이 지금 ~ 범어라는 것을 알겠지만 : 중국어는 ‘짐과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는 것이니 이밖에 다른 말은 없으며, 범어는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라는 것이니 이밖에 다른 말은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와 범어 그 하나하나가 산승의 말이다. 앞에서는 먼저 범어를 들고 뒤에 중국어를 들었지만, 뒤에서는 먼저 중국어를 들고 뒤에 범어를 들었던 것도 타당한 점이 있다.

佛鑑：畫也畫不成者，屬達摩邊也。塑也塑不就者，屬武帝邊也。下文明之。達摩梵語，卽廓然無聖。是不知廓然無聖，是畫也畫不成。只知廓然無聖，是不曉是達摩梵語。武帝唐言，卽對朕者誰。是不知對朕者誰，是塑也塑不就。只知對朕者誰，是不會是武帝唐言也。故對面成胡越也。誌公雖善翻譯云云者，觀音大士，傳佛心印，助佛揚化，是翻譯達摩廓然無聖也。誌公雖然伊麼翻譯，累他達摩，話作兩極。其言似武帝本不曉唐言，而今始令曉，是達他武帝不曉唐言，故云，壓良爲賤也。則此謂畫虎成狸也。當面見得者，若也向對朕地，見得塑也塑不就地消息，何必向廓然無聖處，見得爲達摩也。山僧至梵語者，唐言卽對朕者誰，此外無餘也，梵語卽廓然無聖，此外無餘也。然則唐言梵語，一一是山僧也。前頭，則先舉梵語，而後舉唐言；後頭，則先舉唐言，而後舉梵語，亦有攸當。

## 장로분의 상당

“달마는 양나라 왕에게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不識]’고 말했을 뿐이고, 6조는 황매<sup>67)</sup>가 누구에게 가사와 발우를 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해하지 못한다[不會]’라고 말했을 뿐이다. 세상의 노련한 화상들이 바로 이 ‘모르겠다’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납승들을 점검했고, 세상의 납승들은 이 두 말을 가지고 눈동자를 바꾸거나 코를 꺾었다.<sup>68)</sup> 내가 이렇게 한 말을 듣고 알았다거나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눈동자가 바뀌어버린 것이고 코가 꺾여버린 것이다. 얼마인 몸을 벗어나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명성이 높으면 딱딱한 돌에 그 이름을 새길 필요가 없으니,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비석이기 때문이다.”

長蘆貴，上堂云，“達磨，見梁王問聖諦，只道得箇不識；六祖，見黃梅付衣鉢，只道得箇不會。天下老和尚，祇將者不識不會，勘驗衲僧；天下衲僧，被者不識不會，換却眼睛，穿却鼻孔。長蘆伊麼道，是識了也，是會了也，是被換却眼睛，穿却鼻孔了也。如何道得出身一句？名高不用鐫頑石，路上行人口是碑。”

---

67) 5조 홍인. 주석(61) 참조.

68) 이 두 개의 화두로 점검받고, 자신의 타고난 안목을 개발하지 못하고 남의 견해를 자신의 눈으로 삼거나, 콧구멍에 고삐가 껴져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 다니는 소와 같이 그 말에 자신의 본분이 예속당하여 자유로운 구석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 [설화]

세상의 노련한 화상들이 ~ 납승들을 점검했고 : 세상의 납승들은 이러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한 말을 ~ 코가 꺾어버린 것이다 : 다시 ‘모르겠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대한 견해를 일으킨다면 이것이 알았거나 이해한 것이니, 그 말에 콧구멍을 꿰인 것이며 눈동자를 바꾸어버린 결과라는 뜻이다.

명성이 높으면 ~ 비석이기 때문이다 : 모르겠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로 명성이 높은 것인데, 어찌 다시 딱딱한 돌에 이름을 새겨서 별도로 하나의 도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長蘆：天下老和尚，至衲僧者，天下衲僧，不敢到此見解故。長蘆伊麼，至鼻孔了也者，又作不識不會見解，是識了也，會了也，則被它穿却鼻孔，換却眼睛也。名高不用云云者，不識不會是名高，何必更鑄頑石，別作箇道理。

### 계승(契嵩)의 설

계승이 교설을 밝힌 「진제무성론」<sup>69)</sup>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제(眞諦)란 무엇인가? 지극히 미묘한 절대<sup>70)</sup>의 경계를 말한다. 성인이란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로 전개하는 유위(有爲)의 작용을 말한다. 유위의 작용으로써 권(權)을 말하고, 대립의 짝이 끊어진 절대로써 실(實)에 이른다.<sup>71)</sup> 실이 있는 까닭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권의 자취를 없애기 위한 것이요,

---

69) 계승(契嵩)의 「眞諦無聖論」, 『鐔津文集』 권3 大52 p.664b11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70) 絕對. 유와 무, 선과 악 등의 모든 상대적 대립의 짝이 끊어진 것.

71) 권(權)은 실(實)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방편, 실(實)은 궁극적인 진실 자체.



권이 있는 까닭은 지말을 거두고 실의 근본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으니 진제가 어찌 그 사이에 분별을 허용하겠는가! 시험 삼아 말에 의탁하여 그 깊은 뜻을 밝힐 뿐이다. 진제란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이자 모든 성인의 진실한 경지로서 여(如)<sup>72)</sup>이고 여가 아니며 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온갖 마음을 숨기지만 어둡지 않고 성인의 지혜를 나타내지만 빛나지 않으니, 그 신령한 광명은 헤아릴 수 없고 그 정교한 계산은 궁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야경』에 ‘제일의 진제는 이를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sup>73)</sup>라고 하였다. 그 본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청정하고 텅 비어 성인도 범부도 깨끗이 사라졌고, 그 비추는 작용으로 말하자면 모든 존재에 두루 퍼져 복치고 춤추며 갖가지로 움직인다. 이와 같이 본체 그대로 보존되면 근본과 같고, 비추어 작용하면 지말과 흡사하다. 그 마음이 지극한 근본과 하나가 되는 순간 묵묵히 청정할 뿐 성인이 되려는 생각도 끊고 지혜에 대한 집착도 버리니,<sup>74)</sup> 이것은 또한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제일의제는 막힘없이 트여 텅 비고 고요하기에 성인조차 없다 했으니, 이 말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진나라 사람(姚秦의 황제)은 ‘문밖 길과 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것과 같아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까이 와 닿지 않는다. 만약 성인조차 없다면 그렇게 없다고 아는 자는 누구인가?’<sup>75)</sup>라고 생각했으나, 이 또한 아직 그 미묘한 뜻을 깨우친 말은 아니다. 범부와 성인을 차별하는 지각과 같은 것은 진제의 그림자나 메

72) 진실 그대로의 실상(實相) 또는 진여(眞如). 여여(如如)한 실상을 말한다.

73) 『肇論』 「不眞空論」 大45 p.152b11에 『放光般若經』의 인용으로 나오는 구절이지만, 경전상의 일치하는 구절은 없다. “제일의제에 근거하면 부처를 이를 일도 없고 열반을 얻을 일도 없다. 세속의 진리 형식[世諦]에 따라 있을 뿐이다.”(『肇論疏』 권상 大45 p.172c17. 據第一義諦, 無有成佛, 無有得涅槃. 世諦則有耳.)

74) 절성기지(絶聖棄智). 출전은 『老子』 19장이다.

75) 본칙 〈설화〉 참조.

아리에 불과하고 망령된 마음이 대상으로 삼아 분별하는 작용일 뿐이다. 그림자나 메아리에 마음을 두면 명수<sup>76)</sup>에 막히게 되고, 대상에 대한 분별에 집착하면 그 분별에 현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아니면서 성인이기에 성인이 위대한 성인인 이유이며, 얇이 없으면서 알기에 그 참된 얇이 두루 무엇이나 아는 근거가 된다. 옛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일의제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그에 응답하여 ‘막힘없이 트여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질문하는 자가 ‘짐을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스러움에 어두워서 진실로 몰랐던 것은 아니며, 상대가 표현된 말로써 진제를 구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질문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만, 뱃전에 떨어진 부분을 새겨놓고 칼을 찾으려는 격이니<sup>77)</sup>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경우 그 손가락의 뜻은 달에 있고, 말로써 도를 비유할 경우 그 말의 뜻은 도에 있다. 말만 돌아보고 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고,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보지 못한다면 달을 알 수 없다.<sup>78)</sup> 그런 까닭에 지인<sup>79)</sup>은 항상

76) 名數.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몇 가지 법들을 하나로 묶어 숫자로 나타내는 것. 범수(法數 𑖀dharma-paryāya)와 같은 말. 3계(界)나 5온(蘊) 등과 같이 동일한 범주에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대상을 묶고 그 숫자를 앞에 붙인 것.

77) 각주구검(刻舟求劍). 『呂氏春秋』「察今」에 나오는 비유. ‘제일의제’에 대한 사고의 격을 미리 정해 놓고 헤아리는 양무제를 풍자한다.

78) 교종과 선종에서 모두 문자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는 비유로 널리 쓰인다. 『楞嚴經』에 나오는 말이다. “그대들은 오히려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이 법 또한 대상일 뿐이기에 법성(法性)을 얻지 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누군가에게 달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보아야 한다. 만약 다시 손가락을 보며 달 자체라고 여긴다면, 이 사람이 어찌 달만 놓쳤겠는가? 달 또한 그 손가락을 놓친 것이다. 왜 그런가? 손가락이 표시하며 가리킨 대상은 밝은 달이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놓쳤

언어의 표면에서 (숨은 뜻을) 미묘하게 깨닫고, 겉모습의 외피에서 (감추어진 진실을) 터득하는 것이다. 정명<sup>80)</sup>은 말없이 드러냈고 문수는 그를 훌륭하다고 칭찬했으며,<sup>81)</sup> 공생<sup>82)</sup>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치로써 말했고, 천제(天帝)는 들을 것이 없는 이치로써 들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니겠는가!<sup>83)</sup>”

겠는가? 또한 밝음과 어두움도 분간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런가? 곧 손가락 자체를 달의 밝은 성질이라 여겨 밝은 성질과 어두운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楞嚴經』 권2 大19 p.111a8. 汝等, 尚以緣心聽法. 此法, 亦緣, 非得法性. 如人, 以手指月示人, 彼人, 因指當應看月. 若復觀指以爲月體, 此人, 豈唯亡失月? 輪亦亡其指, 何以故? 以所標指爲明月故, 豈唯亡指? 亦復不識, 明之與暗, 何以故? 卽以指體爲月明性, 明暗二性, 無所了故.)

79) 至人.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莊子』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곳곳에 제시되어 있다. “지인은 자기 자신이 없다.”(『齊物論』, 至人無己.); “오로지 지인만이 세상에서 노닐어도 편벽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는다.”(『外物』, 唯至人, 乃能遊於世而不僻, 順人而不失己.)

80) 淨名. 유마거사(維摩居士). ㉔Vimalakīrti. 비마라힐(毘摩羅詰)·유마힐(維摩詰) 등으로 음사한다. 범어 vimalakīrti는 vimala와 kīrti로 이루어진 말로 vimala는 정(淨) 또는 무구(無垢)로, kīrti는 명(名)이나 칭(稱)으로 한역된다. 그러므로 정명(淨名) 또는 무구칭(無垢稱)이라 하는데, 전자는 구역이고 후자는 신역이다.

81) 다른 모든 보살이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언급했으나 유마거사는 초치일관 침묵으로 답했다. 문수보살이 이에 대하여 칭찬한 것이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이처럼 문자와 언어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참으로 불이의 법문을 깨달은 것이다.”(『維摩經』 大14 p.551c23. 文殊師利歎曰, ‘善哉, 善哉! 乃至無有文字語言, 是真入不二法門.’)

82) 空生. 수보리(須菩提)의 한역어. ㉔Subhūti, ㉕Rab-ḥbyor.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였다 하여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일컬어진다. 선현(善現)·선실(善實)·선길(善吉)·선업(善業) 등으로도 한역하고, 소부지(蘇部底)·수부제(須扶提) 등이라고도 음사한다.

83) 경전적 근거는 이렇다. “그때 수보리가 모든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설한 법야 바라밀다는 아무도 받아들일 자가 없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말로 풀어줄 법이 없으며 겉으로 드러낼 법도 없어서 분별할 대상도 없고 알 수 있는 대상도 없기

嵩, 明教, 眞諦無聖論云, “眞諦者何? 極妙絶對之謂也. 聖人者何? 神智有爲之謂也. 有爲則以言乎權, 絶對則以詣乎實. 實之所以, 全心而泯迹; 權之所以, 攝末而趨本. 然則眞諦也者, 豈容擬議於其間哉! 聊試寓言, 以明其蘊耳. 夫眞諦者, 群生之元心也, 衆聖之實際也, 如也非如也, 非非如也. 隱群心而不昧, 現聖智而不曜, 神明不能測, 巧曆不能窮. 故般若曰, ‘第一眞諦, 無成無得.’ 言其體而存之, 則清淨空廓, 聖凡泯然; 言其照而用之, 則彌綸萬有, 鼓舞群動. 然則體而存之, 若其本乎; 照而用之, 似其末乎. 當其心冥於至本也, 默乎清淨, 而絶聖棄智, 是亦宜爾. 所謂第一義諦, 廓然空寂, 無有聖人, 孰爲謬乎! 而秦人以爲, ‘大甚徑廷, 不近人情. 若無聖人, 而知無者誰歟?’ 是亦未諭其微旨也. 若夫凡聖知覺者, 眞諦之影響, 妄心之攀緣耳. 存乎影響, 則凝滯於名數; 以乎攀緣, 則眩惑於分別. 是則非聖而聖, 而聖人所以大聖, 無知而知, 其眞知所以遍知. 昔人有問於昔人曰, ‘云何是第一義諦?’ 應曰, ‘廓然無聖.’ 問者或曰, ‘對朕者誰?’ 應曰, ‘不識.’ 然斯人也, 非昧聖而固不識也, 蓋不欲人以形言, 而求乎眞諦者也. 而問

때문이다. 말하여 드러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이와 같이 말로 풀어 주었고 이처럼 듣고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 제석천의 주인[天帝]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존자 수보리가 이와 같이 깊고 깊은 정법을 말로 풀어 주었으니 나도 마땅히 온갖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그 위에 뿌려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곧바로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어 존자 수보리 위에 뿌렸다.”(『佛母出生般若經』 권2 大8 p.593b17. 爾時, 須菩提, 告諸衆言, ‘我所說般若波羅蜜多, 無能受者. 何以故? 此中無法宣說, 無法表示, 無所分別, 無所了知. 以無說示無了知故, 般若波羅蜜多, 如是宣說, 如是聽受.’ 是時, 帝釋天主, 卽作是念, ‘今尊者須菩提, 宣說如是甚深正法, 我當化諸妙華, 以散其上.’ 作是念已, 卽時化出無數妙華, 散於尊者須菩提上.)

人不悟，乃復云云。刻舟求劍，遠亦遠矣。以指標月，其指所以在月；以言喻道，其言所以在道。顧言而不顧其道，非知道也；視指而不視其月，非識月也。所以至人，常妙悟於言象之表，而獨得于形骸之外。淨名默示，而文殊稱善；空生以無說而說，天帝以無聞而聞，不其然乎！”

### 『임간록(林間錄)』의 설

“오중<sup>84)</sup>의 강사<sup>85)</sup>들이 선종 조사의 전법계(傳法偈)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주 비판했는데, 선사들이 그들과 논쟁했으나 조사들의 진실에서 빗나가 거듭 그들의 비방을 받기 알맞은 구실만 주었다. 달관담영<sup>86)</sup>선사가 그 뜻을 이렇게 밝혔다. ‘이는 달마가 2조 혜가에게 말한 것인데, 어째서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가령 양무제가 달마를 처음 만나서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달마는 「막힘없이 트여서 성스러움조차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짐을 마주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다시 「모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것과 같다. 달마가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강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林間錄云，“吳中講師，多譏諸祖傳法偈無譯人，禪者與之辯失

84) 吳中. 중국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 일대.

85) 講師. 경전을 강설하는 교학자. 선문헌에서는 선사(禪師)와 대칭되는 인물로 거론하는 것이 보통이다.

86) 達觀曇穎(989~1060). 송나라 임제종 선사. 항주(杭州:浙江省) 전당(錢塘) 출신으로 속성은 구(丘)씨이다. 13세 때 출가하여 대양경현(大陽警玄) 문하에서 조동종(曹洞宗)의 선종을 공부하다가 뒤에 임제종 계열의 곡은온총(谷隱蘊聰) 문하에서 공부하여 그 법을 이었다. 『禪林僧寶傳』 권27 卍137 p.548b5 참조.

其眞，適足以重其謗。達觀穎禪師，諭之曰，‘此，達磨爲二祖言者也，何須譯人耶？如梁武帝初見之，卽問，「如何是聖諦第一義？」答曰，「廓然無聖。」進云，「對朕者誰？」又曰，「不識。」使達磨不通方言，則何於是時，便能爾耶？’講師不敢復有辭。”



# 108칙 四祖解脫 사조해탈







## 108칙 사조해탈 四祖解脫

### [본칙]

4조 도신(道信)대사가 3조 승찬(僧璨)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법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대를 속박하느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4조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四祖信大師，問三祖曰，“願和尚慈悲，乞與解脫法門。”三祖曰，“誰縛汝？”四祖曰，“無人縛。”三祖曰，“何更求解脫乎？”四祖於言下大悟。

### [설화]

해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번뇌를 벗어나 얻는 해탈[離垢解脫]과 자신의 본성 그대로인 해탈[自性解脫]이다.<sup>1)</sup> ‘누가 그대를 속박하느냐?’라고 한 말은 속박은 마음으로부터 속박되는 것이며, 해탈도 마음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이어서 해탈과 속박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밖의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아무도 속박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말은

---

1) 이구해탈은 60권본 『華嚴經』 권4 大9 p.414b7, 『正法華經』 권1 大9 p.68a16 등에 나오며, 자성해탈은 『佛母出生般若經』 권12 大8 p.630c15, 『大乘入楞伽經』 권7 大16 p.635a5, 『寶性論』 권4 大31 p.841b17 등에 나온다.

원래 청정하고 본래 해탈한 상태 곧 자성해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째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이다.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라고 한 것은 해탈이라는 말에서 그대로[卽] 알아차렸다는 것일까, 아니면 해탈이라는 말을 벗어나서[離] 알아차렸다는 것일까?<sup>2)</sup> 변진법사(辨眞法師)는 ‘세속에 있으면 속박이라 하고, 승도(僧道)에 있으면 해탈이라 한다’<sup>3)</sup>라고 하였으며, 무의자 혜심(慧諶)은 ‘바람도 매달 수 있고 허공도 잡을 수 있지만, 이 일물<sup>4)</sup>은 누가 묶어 둘 수 있겠는가?’<sup>5)</sup>라고 읊었다. 『경덕전등록』 「승찬전」에 ‘수나라 개황 12년 임자년(592년)에 사미(沙彌) 도신은 열네 살이었는데, (승찬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물었다’<sup>6)</sup>라고 되어 있다. 운거의 계송에 ‘설령 문황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주 광제 사람이었을 것이네’라고 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2) 각운(覺雲)은 ‘卽’과 ‘離’로써 이 문답의 마지막 구절을 관문으로 조정하고 있다. 마조(馬祖)가 즐겨 썼던 방법이다. 본서 165則 주석3) 참조.

3) 『廣弘明集』 권27 大52 p.317a29의 ‘在俗則謂之爲縛, 在道則謂之爲解’라는 구절과 거의 동일하며, 경전의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어떤 경인지는 알 수 없다.

4) 一物. 근원적인 ‘하나의 그 무엇’을 가리킨다. 이것은 『壇經』에서 쓰기 시작한 선종 특유의 용어이다. 돈황본 『壇經』에서 혜능(慧能)의 계송 중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佛性常清淨)’ 또는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다(明鏡本清淨)’라는 구절이 돈황본 이후의 『壇經』에서는 ‘본래 하나의 그 무엇조차 없다(本來無一物)’라는 말로 바뀌면서 ‘일물’의 개념이 등장한다. 불성이 일물로 전환되면서, 불성·진여 등 어떤 교학 개념으로도 대체하지 못하는 선종 특유의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또한 혜능과 회양(懷讓)의 다음 문답에도 나온다. “어떤 것이 이렇게 왔는가? ‘하나의 그 무엇이라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뉘어서 깨달을 수 있는가?’ ‘뉘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宗寶本 『壇經』 大48 p.357b21. 師曰, ‘什麼物怎麼來?’ 曰, ‘說似一物卽不中.’ 師曰, ‘還可修證否?’ 曰, ‘修證卽不無, 污染卽不得.’)

5) 『眞覺語錄』 「補遺」 韓6 p.49a15에 실려 있다.

6) 『景德傳燈錄』 권3 「僧璨傳」 大51 p.221c18.

은 『경덕전등록』<sup>7)</sup>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정관 계묘년(643)에 태종 문 황제가 도신이 터득한 불도의 깊은 이치를 흠모하고 그 풍채를 우러러 뵈 고자 서울로 오라는 조칙을 내렸으나 스님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겸손하 게 사양하였다. 그러기를 전후로 세 번 반복하였지만 끝내 질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네 번째는 사신에게 「이번에도 일어나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사신이 절에 도착하여 임금의 뜻을 일 깨워주자 스님은 목을 길게 빼어 칼에 갖다 대면서도 얼굴빛에 변함이 없 었다. 사신이 남다른 인물이라 여기고 돌아와서 편지를 통하여 저간의 사 정을 황제에게 고하니 황제가 더욱 찬탄하였다.’ 스님의 속성은 사마씨이 며, 대대로 하내(河內)<sup>8)</sup>에 살다가 나중에 기주의 광제현으로 이사하였다.

解脫有二種，離垢自性。誰縛者，縛從心縛，解從心解，解縛由心，不管餘處。無仁縛者，元清淨本解脫，卽自性解脫。故云何更求解脫。言下大悟者，卽解脫而會耶？離解脫而會耶？辨眞法師云，‘在俗謂之縛，在道謂之脫也。’無衣子頌云，‘風可繫空可捉，此一物誰能縛？’僧璨篇云，‘隋開皇十二年壬子歲，沙彌道信，年始十四，來禮’云云。雲居頌云，‘直饒不受文皇詔，也是蘄州廣濟人。’傳燈云，‘貞觀癸卯歲，太宗文皇帝，嚮師法味，欲瞻風彩，詔赴京師，師上表遜謝。前後三返，竟以疾辭。第四度命使曰，「果然不起，卽取首來。」使至山諭旨，師乃引頸就刃，神色儼然。使異之回，以狀聞，帝云云。’師姓司馬氏，世居河內，後徙蘄州廣濟縣。

7) 위의 책 권3 「道信傳」大51 p.222b23.

8) 하남성(河南省) 황하 이북 땅의 총칭이다.

## 운거요원(雲居了元)의 송

속박 없이 명백하게 해탈한 몸이어!

서산 언덕에 핀 한 송이 꽃이 봄소식을 전하네.

설령 문황(文皇)<sup>9)</sup>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주(蕪州)<sup>10)</sup> 광제(廣濟)<sup>11)</sup> 사람이었으리라.

雲居元頌, “無縛明明解脫身! 西山堆裏一花春. 直饒不受文皇詔, 也是蕪州廣濟人.”

### [설화]

속박 없이 명백하게 ~ 봄소식을 전하네 : ‘꽃 한 송이가 무한한 봄소식을 전하고, 한 방울의 물에도 거대한 바닷물의 짠맛이 느껴진다’는 말이니, 속박이 없는 해탈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설령 문황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비록 ‘비로자나불을 넘어서고 법신도 넘어서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소식을 벗어난 경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雲居: 無縛明明至一花春者, 一花無邊春, 一滴大海水, 則無縛解脫外, 更有什麼? 直饒不受文皇詔云云者, 雖曰超毘盧越法身也, 不離這箇消息.

---

9)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 598~649)의 시호.

10) 옛 주명(州名)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기춘현(蕪春縣)의 남쪽이다.

11)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무혈시(武穴市)이다.

## 천령허조(天寧虛照)의 송

해탈을 구할 생각이라 말하자,  
누가 속박하느냐고 반문했다네.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행자들은 이렇게 착각하노라.<sup>12)</sup>

天寧照頌, “志求解脫, 阿誰縛汝. 直至如今, 諸方錯舉.”

[설화]

착각하지 않는 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天寧：不錯舉者，也難得.

---

12) 문답 그대로 받아들여 착각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말 자체로 앞의 두 구절을 관문으로 설정한 것이다. 곧 해탈과 속박의 동일성과 차이성 등으로 분별하는 모든 시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110칙 六祖風幡 육조풍번







## 110칙 육조풍번 六祖風幡

### [본칙]

6조 혜능대사가 인종법사의 회하(會下)에 있을 때<sup>1)</sup>의 일이다. 두 학인이 바람과 깃발을 놓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 학인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학인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6조가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학인은 놀라 모골이 송연하였다.

六祖慧能大師，在印宗法師會下。見二僧爭風幡，一僧曰，‘風動.’ 一僧曰，‘幡動.’ 祖曰，“不是風動，不是幡動。仁者心動。” 二僧悚然。

### [설화]

한 학인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학인은 ‘깃발이 움직인다’ 고 했다: 외도들이 말하는 인연에 의해 움직인다거나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인가?<sup>2)</sup>

---

1) 宗寶本『壇經』大48 p.349c9에 따르면, 6조는 5조로부터 의발(衣鉢)을 전수받고 1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법성사(法性寺)에서 『涅槃經』을 강의하던 인종(印宗 627~713)을 만난 것을 계기로 삭발하고 정식으로 출가한 뒤 인근의 보림사(寶林寺)에 주석하였다고 한다.

바람이 움직인다 : 물은 습하고 땅은 단단하며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므로 움직임이 곧 바람의 속성이라는 말이니, 이는 사물의 속성에 집착한 학인의 견해이다.

깃발이 움직인다 : 바람의 성질이 비록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깃발로 인하여서만이 그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니, 이는 사물의 현상에 집착한 학인의 견해이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 가령 다른 곳에서 “만법은 본래 한가한데 사람이 스스로 시끄러울 뿐이다”<sup>3)</sup>라고 한 말과 같은 뜻에서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옛사람이 “바람이 움직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이니 본성이 먼지를 일으킨다”<sup>4)</sup>라고 한 말과 같으니, 바람이 움직이거나 깃발이 움직이거나 그것은 바로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이다.

옛사람들은 이 일화를 평하여 “6조의 뜻은 비단 한 마음이 움직였다는

---

2) 『楞嚴經』 권3 大19 p.117b15, p.154c6 등에 잘못된 인연의 논리 그리고 자연 발생이라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배척하는 까닭이 나온다. 이 인연은 세간의 근거 없는 주장[戲論]에 따라 인연을 아무렇게나 헤아리거나[妄想], 아무 인과관계 없이 자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견해를 중생의 망심(妄心)에 의한分別이라 비판했다.

3) 만법은 본래 어떤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조작도 하지 않은 채 여윌롭고 한가하며, 모든 존재는 본래 자신의 확정된 성품이 없는데, 사람이 공연히 그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말. 『黃龍語錄』 大47 p.637c29, 『楊岐語錄』 大47 p.648c13 등 참조.

4) 당말(唐末) 오대(五代) 때 스님으로 수산주(修山主)라고도 불리는 용제소수(龍濟紹修)의 계승 중 1, 2구. 이어지는 3, 4구는 “금일사를 밝힌다면 본래인이 어두워지리라.”(若明今日事, 昧却本來人.)이다. 『五燈會元』 권8 「龍濟紹修章」 卍138 p.308a5 참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니,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 또한 움직인 것이 아니다”<sup>5)</sup>라고 하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바람도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이며 마음도 움직인다”라고도 한다. 마치 소라 껍데기처럼 나선형으로 틀어 올린 머리털[螺紋鬢角]<sup>6)</sup>은 송골매같이 날카로운 눈으로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sup>7)</sup>과 같다. 이런 말들은 흘릴하기는 흘릴하지만 조사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쓸데없이 자세한 말한 것일 뿐이니, 어찌 단지 ‘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만 하겠는가! 그러므로 각범<sup>8)</sup>은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니 스스로 눈

- 
- 5) 이 같은 평을 한 선사로는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니, 어디서 조사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만일 이 안에서 진리에 딱 들어맞게 근본을 알아차린다면 비로소 그 두 학인이 죄를 사려다 금을 얻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조사는 자신의 깊은 뜻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말로 표현한 것이니 한바탕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無門關』「非風非幡」大48 p.296c21. 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心動, 甚處見祖師? 若向者裏見得親切, 方知二僧, 買鐵得金. 祖師忍俊不禁一場漏逗.) 그러나 6조가 “마음이 움직인다[心動]”라고 한 말이 ‘바람이 움직인다[風動]’느니 ‘깃발이 움직인다[幡動]’느니 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에 대해 단지 마음을 들어 그 두 가지 판단 모두 그릇되었음을 경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과 같이, 무문혜개가 “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心動”이라 한 말 역시 6조가 ‘인자심동(仁者心動)’이라 한 말을 후세 사람들이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폐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설정한 선(禪)의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 6) 나문결각(羅紋結角). 가로 실과 세로 실로 세밀하게 조합하여 무늬를 만들고 각을 맺어서 만든 얇은 명주 직물을 가리키는데, 미묘하게 짜여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 그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또는 미묘하여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가르침 또는 깨달음을 비유한다.
- 7) 미중(迷蹤). 길의 자취를 잃는 것 또는 자취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별의 틀과 언어문자라는 수단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지도 방법을 말한다. 유무(有無)·선악(善惡)·시비(是非) 등의 지적(知的) 분별로 화두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는 수단이다.
- 8) 각범혜홍(覺範慧洪 1071~1128). 청량덕홍(淸涼德洪)이라고도 한다. 송나라 때 황

을 가린 격이요,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이 곧바로 나타난다. 이것이 조계(6조)의 분명한 중지이다”<sup>9)</sup>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이 한 말은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워 한 말일 뿐이지, 이러한 이치가 씻은 듯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또한 이러한 이치가 전혀 없지도 않다는 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각범이 6조를 찬탄하여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니 스스로 눈을 가린 격이요 ~ 분명한 중지이다’라고 한 말에 대해 승각공(崇覺空)<sup>10)</sup>은 이렇게 계송으로 읊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하니, 찰간 끝이 허공을 찌르는구나. 강남의 이삼월 버드나무 물오르는 시절, 아무리 누대를 보려 해도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에 가려 있네.”<sup>11)</sup>

一云風動，一云幡動者，外道因緣動，自然動耶？風動者，水濕地堅火熱風動，動是風性，則執性僧也。幡動者，風性雖動，必因幡而動，則執相僧也。不是風動不是幡動云云者，如他處云，“萬法本閑，唯人自鬧。”則仁者心妄動耶？非也。古人云，“風動心搖樹，雲生性起塵。”則風動幡動，只是一心動也。古

룡파(黃龍派) 스님. 『林間錄』, 『禪林僧寶傳』 등을 남겼다.

9) 『新編林間後錄』 「六世祖師贊并序」 卍148 p.649b2에 실려 있다. “是風幡動，眼自遮護，非風幡動，心則現露，是爲曹溪.”

10) 임안부(臨安府) 고숙(姑孰) 출신. 황룡사십(黃龍死心)의 법제자이다.

11) 이와 동일한 승각공선사의 시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宗鑑法林』 권6 卍116 p.100a13, 『頌古聯珠通集』 권7 卍115 p.78a14 등에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하니, 마치 아리따운 마고(麻姑)가 가려운 데를 내키는 대로 긁는 것과 같구나. 하늘 멀리 나는 외로운 난새의 골수는 누가 얻었으며, 끊어진 거문고 줄을 아교로 이어 붙일 줄 아는 이 누구인가?” (不是風幡是心動，似倩麻姑癢處搔。天外孤鸞誰得髓，何人解合續絃膠。)라는 시가 전한다.

人論此云, “六祖意非止一心動也, 不是風動, 不是幡動, 亦不是心動.” 又, “是風動, 是幡動, 是心動.” 如螺紋髻角, 鶻眼迷蹤, 善則善矣也. 似分疎不識祖師意, 爭如只道得箇一心動! 故覺範云, “是風幡動, 眼自遮覆, 非風幡動, 心即現露, 此是曹溪顯決要旨.” 如今伊麼道, 但恐未免分疎故云爾, 亦未嘗泯然無此義也. 既不許分疎, 又如何會得, 未嘗無此義地道理? 覺範六祖讚云, 是風幡動, 眼自遮覆云云, 崇覺空頌云, “不是幡兮不是風, 刹竿頭點太虛空. 江南楊柳二三月, 極目樓臺烟靄中.”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1<sup>12)</sup>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하니,

납승들 이 말을 진실이라 퍼뜨리네.

강을 건넌데 뗏목을 쓰는 것이 보통의 일이니,<sup>13)</sup>

남산에서는 솟을 굽고 북산은 붉게 물들었구나.<sup>14)</sup>

12) 1, 2구는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6조의 말을 진실이라 여기는 잘못에 대하여 읊었고, 3, 4구는 앞의 구절을 뒤집어 ‘움직인다’는 말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하나의 화두로 전환시켰다.

13) 뗏목이 강을 건너는 수단이듯이 ‘움직인다’는 말도 본분의 화두로 수용할 수 있다.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에 뿌리박는 근거를 박탈하여 하나의 허언(虛言)으로 만들고 있다.

14) 솟을 굽는 행위와 울긋불긋한 꽃으로 덮인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풍경으로 전체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을 모두 허용

雪竇顯頌, “不是幡兮不是風, 衲僧於此作流通. 渡河用筏尋常事, 南山燒炭北山紅.”

[설화]

남산에서는 숲을 굽고 북산은 붉게 물들었구나 : 바람도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인다는 뜻이다.

雪竇 : 南山燒云云者, 亦是風動幡動也.

### 설두중현의 송 2<sup>15)</sup>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면 어디에 귀착될까?<sup>16)</sup>

신개의 작자<sup>17)</sup>는 이렇게 핵심을 집어냈다네.

요즘의 멍청하고 어리석은 선수행자<sup>18)</sup>들이여,

깊은 마음이 저 홀로 우뚝하다 말하지 마라!

又頌, “不是風幡何處着? 新開作者曾拈却. 如今懵懂癡禪和,

---

한다는 비유이다. <설화>의 취지도 동일하다.

- 15) 앞의 계송에 이어 이번에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구절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별에 대하여 비판한 계송이다.
- 16) 바람과 깃발 두 가지가 모두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뜻을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무문혜개(無門慧開)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心動.)라고 했던 취지와 통한다. 『無門關』 29則「評唱」大48 p.296c21 참조.
- 17) 파릉호감(巴陵顯鑑)을 말한다. 호감이 호남 파릉(巴陵)의 ‘신개원(新開院)’에 주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작자(作者)는 작가(作家)와 같은 말이다.
- 18) 선화(禪和). 선화자(禪和子)라고도 한다. 선승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이며 선사가 학인을 부를 때에도 사용한다.

謾道玄玄爲獨脚!”

[설화]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 또한 남겨두지 말라는 뜻이다.

又頌：心動，亦不存.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1<sup>19)</sup>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 하니,

길 가는 이들 두 겹의 관문에서 막혀 있었다네.

장안이 응당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여,

곤륜<sup>20)</sup>이 갔다가 왔다는 말 진실로 믿지 마라.<sup>21)</sup>

大洪恩頌，“不是風兮不是幡，行人曾滯兩重關。長安道在應須到，莫聽崑崙敘往還.”

19) 투자의청(投子義青)의 다음 시와 내용이 비슷하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예로부터 내려온 두 겹의 관문이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분명하다. 감변하느라 헛수고하지 마라.〉! 바른 안목을 갖춘 선 수행자도 통과하기 어려우니라〈너무 가벼이 본 것이 아닌가?〉. 활처럼 쭉 뻗어 있는 길을 지나 장안에 이르러가 하면서〈다만 좋은 일을 하면 될 뿐이다.〉, 곤륜이 갔다가 왔다는 말 진실로 믿지 마라〈앞일을 묻지 마라.〉.”(『空谷集』 98則「芭蕉拄杖」 卮117 p.637a14. 有無今古兩重關〈公驗明白. 不勞勘辨.〉! 正眼禪人過者難〈莫便等閑看?〉. 欲通大道長安路〈但行好事.〉, 莫聽崑崙敘往還〈莫問前程.〉)

20) 崑崙, 곤륜노(崑崙奴)·곤륜자(崑崙子)라고도 하는데, 곤륜국(崑崙國：南海의 여러 나라)의 흑인 혹은 인도나 서역에서 온 사람을 중국 사람들이 낮춰 부르는 말이다.

21) 장안의 길이 넓다 해도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그곳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홍보은의 송 2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하는데,  
석성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니 세상 얼마나 아득한가!  
하늘의 별들은 모두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인간세상의 물줄기 동해로 흘러드는 법이니라.<sup>22)</sup>

又頌, “不是幡兮不是風, 石城山頂望何窮! 天上有星皆拱北,  
人間無水不朝東.”

## 대홍보은의 송 3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면 어디에 귀착될까?  
바람이니 깃발이니 하는 견해도 버려야 하리.  
그 말에 끌려 다니면 어쩔 도리 없을 것이요,  
한 구절로 기틀에 부합하여도 큰 착각일세.  
착각이로다, 착각이야!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라도<sup>23)</sup> 코 꿰어지리라.

---

22)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라고 한 말에 본문의 소식이 다 드러나 있다는 취지. “원오가 불자를 들자 학인이 나와서 ‘하늘의 별들은 모두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인간세상의 물줄기는 동해로 흘러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원오가 말했다. ‘드디어 화두를 알아차렸군.’”(『圓悟語錄』 권1 大47 p.715b20. 師舉拂子, 進云, ‘天上有星皆拱北, 人間無水不朝東.’ 師云, ‘且得領話.’) 불자 자체를 본문의 화두로 제시했다.

23) 비공요천(鼻孔撩天). ‘撩’자는 ‘遼’로도 쓴다. ‘撩天’은 조천(朝天)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을 향해 있다는 뜻이다. 즉 비공요천이란, 코가 하늘에까지 뻗었다는 말로 대단히 오만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



又頌, “不是風幡何處着? 是風幡兮亦拈却. 隨他去也大無端,  
一句當機還大錯. 錯錯! 鼻孔撩天也穿却.”

###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송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고 하니,  
말 많은 아사리들 설명할 수 없으리라.  
교묘한 말로 깊은 이해 구하려 한다면,  
새삼스레 천 산 만 산이 가로막으리라.

瑯琊覺頌, “不是風兮不是幡, 多口闍梨不可詮. 若將巧語求玄  
會, 特地千山隔萬山.”

### 천의의회(天衣義懷)의 송 1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 하니,  
이 말 드러난 다음 세상에 퍼졌다네.  
노로<sup>24)</sup>의 분명한 뜻 알고자 하는가?  
천태와 남악 사이 만 겹의 산 있네.<sup>25)</sup>

天衣懷頌, “不是風兮不是幡, 斯言形已播人間. 要會老盧端的  
處? 天台南岳萬重山.”

24) 老盧, 6조 혜능(慧能)을 가리킨다. ‘노’는 혜능의 속성이고, ‘로’는 존칭.

25) 만 겹의 무수한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천태산과 남악산 사이처럼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면적인 말과 6조의 본의는 깊은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 천의의회의 송 2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는데,  
호인이 주문 시끄럽게 외우는 듯하다.<sup>26)</sup>  
초봄인 음력 정월의 소식 알려주노니,  
수많은 봉우리 온통 쪽빛처럼 푸르다.

又頌, “不是風兮不是幡, 胡人持呪口喃喃. 報道孟春正月節,  
千峯隱隱色如藍.”

## 안당천의 송 1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니,  
벼 베는 낫의 양 끝이 둥글게 굽었네.<sup>27)</sup>  
조사의 분명한 뜻 아는 사람 누구인가!  
남악과 천태 사이 첩첩의 산 있느니라.

鴈蕩泉頌, “不是風兮不是幡, 刈禾鎌子兩頭彎. 祖師的旨何人  
會! 南岳天台千萬山.”

---

26)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주문(呪文)과 같다는 말. 소리만 있고 뜻으로 포착되지 않는 이것이 화두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

27) 양 끝의 하나는 바람, 다른 하나는 깃발이다. 그 양 끝이 하나의 낫을 이루듯이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을 모두 부정하는 양단이 이 공안의 분명히 드러난 관문이다.

## 안당천의 송 2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 하니,  
조주의 남쪽이요 석교의 동쪽이라네.<sup>28)</sup>  
찰간 끝에 간 눈길 돌려 보지 않는다면,<sup>29)</sup>  
황매에서 방아 찼던 늙은이<sup>30)</sup>를 등지리라.

又頌, “不是幡兮不是風, 趙州南畔石橋東. 刹竿頭上不迴首,  
辜負黃梅踏碓翁.”

## 서록본선(瑞鹿本先)의 송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하니,  
예로부터 전해져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네.  
지금 이후로 운수남자들 깨닫고자 하면,  
조사야말로 참으로 마음 아는 벗이라네.

瑞鹿先頌, “非風幡動仁心動, 自古相傳直至今. 今後水雲人欲  
曉, 祖師真是好知音.”

---

28)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나타내기 위하여 조주의 계송을 활용한 구절. “제방의 견해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한 현상을 보고 계송 한 수를 지었다. ‘조주의 남쪽이요 석교의 북쪽이며, 관음원 안에는 미륵이 있다네. 달마가 짚신 한 짚만 남기고 떠났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른 한 짚 찾지 못했노라.’”(『趙州語錄』古尊宿語錄14 己118 p.334a5. 因見諸方見解異途, 乃有頌, ‘趙州南, 石橋北, 觀音院裏有彌勒, 祖師遺下一隻履, 直至今猶不得.’)

29)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는 말에 얽매어서는 6조의 본의를 알 수 없다.

30) 5조 홍인(弘忍) 문하에서 행자의 신분으로 방아를 찼었던 혜능을 가리킨다.

### 승천전종(承天傳宗)의 송

바람과 깃발 흔들어 맑게 개도록 털어냈으니,  
갖은 생각을 다 해봐도 끝내 알지 못하리라.  
수많은 조사 문하의 선객들이여!  
머리 뿔 드러내면 틀림없이 기린아이리라.

承天宗頌, “風幡搖動拂晴暉, 展事商量卒未知. 多少祖師門下  
客! 頭角須是麒麟兒.”

### 자수첩의 송

바람 불어 깃발 흔들리다 잠잠하면 깃발 처지고,  
검은 나귀가 흰 노새를 낳았네.  
중양절 가까워오니 서풍이 급하게 불고,  
매미는 뜰 회나무에 가득하고 국화는 울타리 넘어섰네.

資壽捷頌, “風動幡搖靜則垂, 黑驢生得白驃兒. 重陽日近西風  
緊, 蟬滿庭槐菊滿籬.”

### 원통법수(圓通法秀)의 송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니,  
이에서 밝히더라도 마음 깨닫기는 어렵다네.  
아무렇게나 막 지결이는 말에서 찾으려 말고,  
찰간 끝을 무심히 살펴보기만 하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sup>31)</sup>

圓通秀頌, “不是風兮不是幡, 於斯明得悟心難. 胡言漢語休尋覓, 刹竿頭上等閑看.” <且莫錯認.>

### 설봉도원(雪峯道圓)의 송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지만,  
백운은 예전 그대로 청산을 덮을 뿐.  
세월 흐르고 늙어 도무지 힘없어도,  
바쁜 가운데 작은 휴식을 취했다.

雪峯圓頌, “不是風兮不是幡, 白雲依舊覆青山. 年來老大渾無力, 偷得忙中些子閑.”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sup>32)</sup>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움직인다 하니,  
같은 말을 어찌서 두 가지로 이야기한 것일까?  
참을 수 없구나,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한<sup>33)</sup> 노로<sup>34)</sup>여!

31) 마지막은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무심히 살펴보기만 할 뿐, 바람이 움직인다거나 깃발이 움직인다거나 하는 말에 상응하는 현상이 진실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32) 풍동(風動)과 번동(幡動)을 질책하며 제시한 6조의 심동(心動)도 동일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두 편으로 갈라놓아 관문을 설정했다는 관점이 보이는 게송이다.

33) 방약(傍若)은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줄임말. 자기 이외에 아무도 없는 듯이 군다는 뜻.

34) 老盧. 주석24) 참조.

아사리와 좌주<sup>35)</sup> 모두 그에게 속고 말았구나.<sup>36)</sup>

海印信頌, “風幡不動唯心動, 一語如何話兩般? 叵耐老盧  
大傍若! 闍梨座主被欺謾.”

### 법창의우(法昌倚遇)의 송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니,  
검은 무늬 고양이 얼굴에 반점이 얼룩얼룩.  
밤길 가는 사람 밝은 달빛만 쫓아가다,  
저도 모르게 옷 입은 채 찬 강물 건너네.

法昌遇頌, “不是風兮不是幡, 黑花猫子面門斑. 夜行人只貪  
明月, 不覺和衣渡水寒.”

#### [설화]

검은 무늬 고양이 얼굴에 반점이 얼룩얼룩: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다는 말이니,  
한 마음이 움직일 때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밤길 가는 사람 ~ 강물 건너네: 단지 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밝은 달빛을 쫓아가느라 도리어 옷 입은 채 차가운 강물  
을 건너는 꼴이라는 뜻이다.

---

35) 아사리(阿闍梨 Śācārya)는 모범적 법도가 되는 스승이라는 뜻에서 궤범사(軌範師)라 한역한다. 스승이 되어 제자를 가르칠 만한 덕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좌주(座主)는 가르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여기서의 두 학인을 가리킨다.

36)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한 6조의 말도 진실이 아니지만 두 학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속았다는 말로서 6조의 말에 숨어 있는 관문(속임수)을 간파한 해인의 견해가 드러나 있다.

法昌：黑花猫云云者，暗中有明，謂一心動處，有風動幡動也。夜行人云云者，只認一心動，是貪明月，反是和衣渡水寒。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막힘없이 쪽 뺀은 관의 역참 길,  
새벽에도 밤에도 통행 금한 일 없노라.  
모두들 나다니려 하지 않는 것 아닌데,  
문 앞에 가시나무 무성하니 어찌하랴!

保寧勇頌, “蕩蕩一條官驛路, 晨昏曾不禁人行. 渾家不是不進步, 無奈當門荊棘生!”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파릉의 늪은이<sup>37)</sup> 예전에 핵심 집어내어 말하기를,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면 어디에 귀착될까 하였네.<sup>38)</sup>  
시끄러운 저자에서 왕씨네 셋째 아들 피리<sup>39)</sup> 부니,

---

37) 파릉호감(巴陵顯鑑). 운문문언의 법제자로서 악주(嶽州) 파릉 신개원(新開院)에 주석하였다. 주석17) 참조.

38) 본칙에도 파릉호감의 염이 실려 있고, 『雪竇語錄』大47 p.688a15, 『聯燈會要』권2 「六祖惠能大師傳」 卍136 p.462a9 등에도 전한다.

39) 필률(臍篳). 일명 당(唐)피리. 대나무로 만든 황관악기(簧管樂器)에 속한다. 서역에서 전래된 중국 악기로 우리나라에는 1114년(고려 예종9)에 들어왔다. 원래는 9공(孔)이었으나 조선 성종 때 8공으로 개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가관(笳管)·두관(頭管)이라고도 부른다.

페르시아의 연회에서 삼대 곡조<sup>40)</sup>에 맞춰 춤추네.

法眞一頌, “巴陵老作昔拈來, 不是風幡安在哉? 闍裏王三吹  
膾, 波斯筵上舞三臺.”

### 장로종색(長蘆宗頤)의 송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라 하면서,

찰간<sup>41)</sup> 꼭대기를 무심하게 보라 하네.<sup>42)</sup>

원통의 불법에는 복잡한 것이 없으니,<sup>43)</sup>

코는 언제나처럼 눈앞에 드러나 있네.<sup>44)</sup>

〈원통법수(圓通法秀)의 송을 아울러 제기했다.〉

長蘆頤頌, “不是風兮不是幡, 刹竿頭上等閑看. 圓通佛法無多  
子, 鼻孔依前在目前.” 〈兼舉圓通秀頌.〉

---

40) 본서 2則 주석75) 참조.

41) 刹竿. 깃발이 달려 있는 장대. 절 앞에 세워 놓고 설법이나 의식이 거행되고 있  
음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는 탑 위나 불당(佛堂) 등에 상시적으로  
세워 놓는 장대다.

42) 원통법수(圓通法秀)의 계송 중 1구와 4구를 인용한 것.

43) 임제의현(臨濟義玄)이 “황벽의 불법에는 복잡할 것이 없다(黃蘗佛法無多子)”  
라고 한 말을 활용한 것이다. 선사들의 불법은 복잡한 이치로 설명할 것이 없  
고 눈앞에 드러나 있는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이라는 뜻이다. 『臨濟語錄』 大47  
p.504c19 참조.

44) 원통이 말하는 불법은 얼굴의 중심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코와 같이 분명한데,  
‘찰간 꼭대기를 무심하게 보라’고 한 말의 의미가 그와 같다.



## 승천회의 송

바람 불고 깃발 흔들림 딱 들어맞는 뜻이거늘,

6조는 어찌하여 마음이 움직인다 한 것일까?

당시에 진실로 눈 밝은 이<sup>45)</sup>가 있었다면,

의발을 반드시 전하지 않았으리라고는 못하리.<sup>46)</sup>

承天懷頌, “風動幡搖旨最親, 老盧心動若爲陳? 當時果有迦  
羅眼, 未必衣盃不付人.”

## 불인지청(佛印智清)의 송

바람과 깃발이 마음이거늘 다시 무슨 말할까?

45) 가라안(迦羅眼), 삭가라안(爍迦羅眼)을 줄여 이르는 말. 견고안(堅固眼)·금강안(金剛眼)이라고도 한다. 금강과 같이 견고한 눈이란 뜻으로 사정(邪正)·시비(是非)·득실(得失) 등을 판별하는 지혜와 견식을 갖춘 깨달은 사람을 가리킨다.

46) 선종에서 초조 달마대사 이후 조사의 징표로 가사와 발우를 전하여 6조 혜능까지 이어졌지만 그 뒤로는 이 전통이 사라졌다는 설에 따른다. 5조 홍인(弘忍)은 혜능을 6조로 인가하여 대대로 전해온 가사와 발우를 부족하면서 더 이상 싸움의 실마리가 되는 이 가사를 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옛날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법을 믿지 못했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근거로 삼기 위해 대대로 전했던 것이다. 그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것으로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도록 했다. 옛날부터 부처님들은 오직 본체만을 전했고, 조사들은 본심만을 친밀하게 전수했다. 가사를 전하는 것은 싸움의 발단이 되므로 그대에게서 그치고 더 이상 전하지 말도록 하라. 만일 이 가사를 전하면 생명이 허공에 실로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울 것이다. 그대는 속히 떠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까 걱정된다.”(宗寶本『壇經』大48 p.349a28. 昔, 達磨大師, 初來此土, 人未之信, 故傳此衣, 以爲信體, 代代相承, 法則以心傳心, 皆令自悟自解, 自古佛佛, 惟傳本體, 師師密付本心, 衣爲爭端, 止汝勿傳. 若傳此衣, 命如懸絲, 汝須速去! 恐人害汝.)

여섯 문 고요히 쉬라는 말<sup>47)</sup> 예부터 전한다네.  
 터럭만큼이라도 들어서면 예전처럼 멀어지리니,  
 대천사계<sup>48)</sup>는 모두 한 털끝에 있을 뿐이라네.

佛印清頌, “風幡是心更何言? 六門休歇古今傳. 若立絲毫仍  
 舊隔, 大千沙界一毛端.”

### 취암사종(翠巖嗣宗)<sup>49)</sup>의 송

바람도 깃발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니,  
 조사의 바른 안목 지금 이것일 뿐일세.  
 지금을 알지 못하면 산하에 막힐 것이요,  
 지금을 알더라도 바다와 산에 침몰되리라.

翠巖宗頌, “不是風幡不是心, 祖師正眼只如今. 如今不識山河  
 礙, 識得如今海嶽沉.”

47) 여섯 문[六門]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의 인식기  
 관인 육근(六根)을 가리킨다. 『景德傳燈錄』 권29 大51 p.452c28에 실려 있는 용  
 아거둔(龍牙居遁)의 계송에 동일한 취지가 보인다. “한번 무심하게만 된다면 그  
 것이 바로 탈속한 경지이니, 여섯 문이 고요히 쉬어 아무 수고로움 없게 된다네.  
 인연 있는 것은 나의 벗 아니요, 쓸모없는 양 눈썹이 도리어 나의 형제니라.”(一  
 得無心便道情, 六門休歇不勞形. 有緣不是余朋友, 無用雙眉却弟兄.)

48) 大千沙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항하사세계(恒河沙世界)를 합하여 이  
 르는 말. 삼천대천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 곧 우  
 주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가리킨다.

49) 1085~1153. 조동종의 스님. 호는 문암(聞庵). 설두산(雪竇山)에 주석했으므로 설  
 두사종이라고도 한다.

## 불감혜근(佛鑑慧勸)의 송

바람도 깃발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라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 칼 빠뜨린 곳 뱃전에 표시하고 찾았던가?  
여러 선객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노니,  
예로부터 낚시는 금과 바꾸지 않는 법이라네.<sup>50)</sup>

佛鑑勸頌, “不是風幡不是心, 幾人遺劒刻舟尋? 分明寄語諸  
禪客, 自古真鍮不博金.”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송

바람도 깃발도 아니요 오직 마음이 움직였다 하니,  
바다의 물결 언제나 거세게 치솟는구나.

50) 낚시[眞鍮]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 낚시이며 귀하기 때문에 금과 버금가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맞바꿀 필요가 없는 대등한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거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낚시와 금의 관계와 같다는 뜻이다. “속담에 ‘낚시는 황금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낚시가 귀한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천연 그대로 자생한 것을 진유라 하는 이상 노감석(盧甘石)으로 제련한 것은 그것과 구분하여 가유(假鍮)라 한다.”(『演繁露』 권7. 諺言, 眞鍮不博金, 甚言其可貴也. 夫天然自生者, 既名眞鍮, 則盧甘石所煮者, 決爲假鍮矣.); “유석(鍮石)(유의 음은 투이다. 『비창(埤倉)』에 ‘유석은 금과 비슷하지만 금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서쪽 오랑캐 티베트에서는 동을 단련하여 약을 만든다. 여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 종류 유석이 있어 같지 않다. 나쁜 것은 비교적 흰색으로 회절(灰折)이라 하고, 좋은 것은 비교적 황금색으로 금절(金折)이라 한다. 그래서 금절이라고도 하고 진유라고도 한다. 속담에 ‘금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이것을 가리킨다.)”(『一切經音義』 권60 大54 p.710a24. 鍮石〈上音偷, 埤倉云, 鍮石似金, 似而非金. 西戎蕃國, 藥鍊銅所成. 有二種鍮石, 善惡不等. 惡者, 按白名爲灰折; 善者, 按黃名爲金折. 亦名爲金折, 亦名眞鍮. 俗云, 不博金, 是也.)

물고기들 출몰하며 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질 뿐,  
 삶과 죽음, 성인과 범부 온전히 한가지로다.  
 온전히 한가지인 것은 어떤 모습인가?  
 조사와 부처는 방관한 채 부질없이 합장하고 있다.

佛眼遠頌, “非風幡動唯心動, 大海波瀾常洶湧. 魚龍出沒  
 任升沈, 生死聖凡無別共. 無別共底怎摸樣? 祖佛傍觀空  
 合掌.”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동으로 서로 분주하지만,  
 그대들의 마음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네.  
 어리석은 자<sup>51)</sup>가 기를 드러내기는 했으나 깨치지는 못하더니,<sup>52)</sup>  
 조사가 지시해 주자 병은 점점 깊이 침입했다네.  
 능엄의 밝음과 어둠 그리고 막히고 통하는 이치 안다 해도,<sup>53)</sup>

51) 흔히 치애한(癡獸漢)이라고 쓴다.

52) 발몽(發蒙). 격발몽체(激發蒙滯)와 통하는 말.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자극한다는 뜻.

53) “그러므로 이제 그대가 어둠도 떠나고 밝음도 떠난다면 헛되게 듣는 근거가 없어지고, 움직임도 떠나고 고요함도 떠나면 원래 망령되게 듣는 바탕이 없게 되며, 통함도 없고 막힘도 없으면 냄새라는 성질도 생겨나지 않고, …… 인연경계를 보는 것이 밝음 때문이라 하여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밝지 않아도 스스로 밝게 아는 작용이 생긴다면 온갖 어두운 상(相)도 영원히 어둡지 않으리라. 인식기관과 대상경계가 사라진다면 어찌 원만하고 미묘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는가!”(『楞嚴經』 권4 大19 p.123b21. 是以, 汝今離暗離明, 無有見體, 離動離靜, 元無聽質, 無通無塞, 嗅性不生, …… 緣見因明, 暗成無見, 不明自發, 則諸暗相, 永不能昏. 根塵既銷, 云何覺明不成圓妙!)

현사가 제기한 병어리 소경 귀머거리의 병통 어찌 면하리오!<sup>54)</sup>

崇勝珙頌, “風幡動兮自西自東, 仁者心兮非異非同. 默漢  
呈機兮未曾發蒙, 祖師指示兮轉見病攻. 縱了首楞兮明暗塞  
通, 爭免玄沙兮瘖喑盲聾!”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꿈속에 화정<sup>55)</sup>에 올라 노닐다가 단구<sup>56)</sup>를 지나,  
창랑한 구름 다 밟고서 돌 누각에 기대어 있었네.  
벼랑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에 시선을 빼앗겨,  
이 몸 푸른 강가에 다다른 줄은 알지도 못하였네.

長靈卓頌, “夢遊華頂過丹丘, 躡盡寒雲倚石樓. 貪看瀑泉瀉  
崖壁, 豈知身在碧江頭.”

54)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가 당시 선자(禪者)라고 하는 이들이 지니고 있던 병통을 환맹(患盲: 스승이 지도해 주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함)·환롱(患聾: 스승의 말을 흥내만 냄)·환아(患啞: 불법을 설할 줄 모름) 등 세 가지로 나타내 보인 공안. 현사삼병(玄沙三病)·현사삼중병인(玄沙三種病人)·현사접물이생(玄沙接物利生)·삼중병인(三種病人) 등이라고 한다. “현사사비가 대중에게 말했다. ‘제방의 노숙(老宿)들이 모두들 「중생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가령 세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소경에게 건추를 들려주거나 볼자를 세워 보여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에게 깊이 있는 말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며, 병어리에게 말하도록 가르쳐도 그들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불법에 신령한 효능은 없는 것이다.”(『玄沙語錄』 권중 卍126 p.415b8. 師垂語云, ‘諸方老宿, 盡道接物利生, 祇如三種病人, 汝作麼生接? 患盲者, 拈槌豎拂, 他又不見, 患聾者, 語言三昧, 他又不聞, 患瘖者, 教伊說, 又說不得. 若接不得, 佛法無靈驗.’)

55) 華頂. 천태산(天台山)의 주봉(主峰).

56) 丹丘(丘). 전설 속에 신선이 산다는 곳. 밤도 낮과 같이 늘 밝다고 한다.

### 심문담분(心聞曇賁)의 송

강가에는 연기 피어오르고 수양버들 간들간들,  
대밭에는 구름 질어 낡은 집 더욱 나지막하네.  
녹음이 산천을 온통 덮으니 봄의 정취는 가고,  
오동나무꽃 가득 떨어진 땅에 소쩍새 우는구나.

心聞賁頌, “水邊煙膩垂楊裊, 竹裏雲深古屋低. 綠遍山川春事過, 桐花滿地子規啼.”

### 자항요박(慈航了朴)의 송

바람도 깃발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라니,  
무심하게 움켜쥔 흙 그대로 황금이로다.  
조계로 가는 한 길은 숫돌처럼 평탄하거늘,  
아무 일 없던 무수한 사람들 땅속에 묻혔네.<sup>57)</sup>

慈航朴頌, “不是風幡不是心, 等閑握土是黃金. 曹溪一路平如砥, 無限平人被陸沉.”

### 송원의 송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 하니,  
만 겹 관문 분명히 찢어 갈가리 조각내었네.

---

57) 육침(陸沉). 『莊子』 「雜篇」 則陽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와 자로가 초나라를 지나다가 하인노릇을 하는 성인을 보았다. 공자는 그에 대해 ‘땅 밑에 빠진 듯 숨어 지내는 자로다(是陸沈者也)’라고 평가하였다.

누가 알리오, 팔심 있는 대로 다 써버린 뒤,  
덧없는 명성 일으켜 세간의 덧에 걸린 것을.

松源頌, “不是風兮不是幡, 分明裂破萬重關. 誰知用盡腕頭  
力, 惹得閑名落世間.”

### 묘지곽의 송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 하니,  
신령한 칼날 오롯이 드러나 시퍼런 빛 번뜩이네.  
망망한 우주에 알아주는 이 없으니,  
높은 누각에 부질없이 기대어 찰간만 바라볼 뿐.

妙智廓頌, “不是風兮不是幡, 靈鋒獨露寶光寒, 茫茫宇宙無知  
己, 空倚危樓望刹竿.”

### 개암봉의 송<sup>58)</sup>

바람도 깃발도 다 옳지 않고,  
그대들의 마음 또한 틀렸다네.  
옛길에 쓰러진 조각난 비석,<sup>59)</sup>

58) 1구와 3구, 2구와 4구가 각각 호응한다. 조각난 비석은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두 가지로 조각난 견해를 상징하고, 둘 거북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말을 나타낸다. 조각난 비석과 비석을 받치고 있다가 깔려버린 돌 거북이 모두 제 모양을 잃은 꼴을 비유하고 있다.

59) “학인이 물었다. ‘위양 문하의 본분사는 어떤 것입니까?’ ‘조각난 비석이 옛길에 쓰러져 있다.’”(『五祖法演語錄』 권상 大47 p.655c8. 學云, ‘如何是滄仰下事?’ 師云, ‘斷碑橫古路.’)

그 아래 돌 거북 깔렸도다.

介庵朋頌, “風幡俱不是, 仁者心亦非. 斷碑橫古道, 下有石  
烏龜.”

### 설봉의존(雪峯義存)의 염

설봉이 “대단하신 조사여! 용 머리에 뱀 꼬리를 단[龍頭蛇尾] 형상으로  
구나.<sup>60)</sup> 20방을 맞아야 할 잘못이다”라고 이 공안의 핵심을 집어내자, 부상  
좌<sup>61)</sup>가 시봉하고 있다가 (뿌드득) 이빨을 갈았다. 설봉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한 말도 20방을 맞아야 할 잘못이다.” <대혜종고(大慧宗  
杲)가 말했다. “부상좌의 진실을 알고 싶은가? 무소가 달빛을 즐기다가 뿔에 무늬가 생긴  
격이다. 설봉의 의중을 알고 싶은가? 코끼리가 천둥소리에 놀라 상아에 꽃 그림(번개 그  
림자)이 새겨진 격이다.<sup>62)</sup>>

雪峯存拈, “大小祖師! 龍頭蛇尾. 好與二十棒.” 孚上座侍立  
次, 咬齒. 峯云, “我伊麼道, 也好與二十棒.” <雲門杲曰, “要識孚上  
座麼? 犀因翫月紋生角; 要識雪峯麼? 象被雷驚花入牙.”>

60) 움직이면 모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야 수미일  
관한 말인데, 처음과 끝이 다르게 갈라졌다는 뜻.

61) 孚上座. 설봉의존의 법을 이은 선사로서 보통 태원부상좌(太原孚上座)라 불린다.

62) 무소뿔에 생긴 무늬나 상아에 새겨진 꽃 모양의 번개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그  
대로의 무늬나 꽃이 아니며 곧 사라질 것들이다. 20방의 잘못이라는 말과 이빨  
을 가는 동작을 비롯하여 바람과 깃발과 마음 그리고 그것이 움직인다거나 움  
직이지 않는다는 말들은 모두 잠시 주었다가 빼앗고 빼앗았다가 다시 주는 선  
어(禪語)의 도구일 뿐 결정된 의미는 없다. <설화>에서 ‘밝은 듯이 보이지만 어  
둡고, 어두운 듯이 보이지만 밝다’라고 해설한 취지도 같은 맥락이다. 『仰山語  
錄』 大47 p.586c28, 『宏智廣錄』 권4 大48 p.38b16 등 선어록과 공안집에 널리 인  
용된다.



[설화]

대단하신 조사여 ~ 형상이로구나 :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빨을 갈았다 : 부상좌가 설봉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내가 이렇게 한 말도 20방을 맞아야 할 잘못이다 :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다.<sup>63)</sup>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었구나’라는 말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구절은 용의 머리에 해당하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 뱀의 꼬리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 20방을 맞아야 합당한 잘못이다.

대혜종고가 ‘무소가 달빛을 즐기다가 ~ 새겨진 격이다’라고 한 말은 부상좌가 비록 밝게 보이지만 어둠을 떠난 적이 없고, 설봉이 어둡게 보이지만 밝음을 떠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雪峯：大小祖師云云者，心動亦不立。咬齒者，不肯雪峯也。我伊麼道云云者，作賊人心虛。然龍頭蛇尾者，‘不是風動，不是幡動’，是龍頭，‘仁者心動’，是蛇尾，此合喫二十棒處。雲門，犀因翫月云云者，孚上座雖明，未嘗離暗；雪峯雖暗，未嘗離明。

63) 부상좌가 이빨 가는 소리를 낸 것은 별 뜻이 없었는데, 설봉은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뜻이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도 20방의 잘못이듯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숨은 뜻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라는 점을 설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보복중전(保福從展)의 염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한 법이지만, 그래도 소하<sup>64)</sup>와 맞먹는 전략이 있어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sup>65)</sup>

保福拈, “作賊人心虛, 也是蕭何置律.”

[설화]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다 : 6조가 ‘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한 말이 원래 실(實)한 뜻이 아님을 나타낸다.

소하와 맞먹는 전략이 있어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한 말은 실한 뜻이기도 하다는 말이다.<sup>66)</sup>

保福：作賊人心虛者，祖師一心動，元非實意也。是蕭何置律者，一心動，亦是實意。

---

64) 蕭何(?~B.C.193). 장량(張良)·한신(韓信)과 함께 한(漢)나라의 삼걸(三傑) 중 한 사람. 고조(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천하를 제패하고, 진나라의 법을 취사하여 『九章律』을 편찬하였다.

65) 뛰어난 지략과 책략으로써 한나라를 창건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법규를 제정하기도 한 소하는 흉노(匈奴)의 군주인 선우(單于)를 토벌할 때는 은성(銀城)을 준다는 속임수로 적을 유도하여 모조리 포획하기도 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허(虛)한 말로서 소하의 속임수와 같지만 상대를 유도하는 전략에 능하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곧 중사들이 제정하는 법률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주었다가 도둑질하듯이 빼앗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로 바꾸어 주고, 그것을 다시 훔치는 방식의 여탈자재(與奪自在)한 법률이다.

66) 각운(覺雲)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실(實)이 아니면서 실이기도 하다고 하여 실과 비실(非實)을 대칭시켜 해설하고 있다. 이것은 이 화두를 소재로 삼아 또 하나의 관문을 설정하는 이중공안(二重公案)의 방식에 따르는 해설이다.

## 파릉호감(巴陵顯鑑)의 염

“조사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하였으니,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면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 조사의 주인이 되어볼 사람이 있다면,<sup>67)</sup> 나와서 나와 맞부딪쳐 보자.”

巴陵鑒拈, “祖師道, 不是風動, 不是幡動, 既不是風幡, 向什麼處着? 有人與祖師作主, 出來與巴陵相見.”

### [설화]

조사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 : 바람과 깃발이 무엇에 귀착되느냐고 던진 질문일까? 바람과 깃발을 떠나서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묻은 말이다. 바람과 깃발을 떠나서 별도로 무슨 의지할 대상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조사의 주인이 되어볼 사람 : 한 마음이 움직인다는 6조의 말을 마음대로 주재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나와서 나와 맞부딪쳐 보자 :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고 한 말에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巴陵: 祖師道不是風動云云, 至麼處著者, 風幡向什麼處著耶?  
離風幡外向什麼處寄著也. 意謂離風幡外, 別有什麼寄著處.  
有人與祖師作主云云者, 於一心動, 作主宰者. 出來與巴陵相見者, 風幡動有什麼過.

---

67) 조사의 주인이 되어 볼 사람이란 6조의 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6조와는 다른 자신만의 확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청량문익(淸涼文益)의 상당<sup>68)</sup>

“여러 상좌들이여! 무심히 넘길 문제로 여기지 마라. 권고하건대, 옛 성인이 자비심으로 펼쳐 보인 문에 의지해야 한다. 옛 성인들이 갖가지 경계를 보았지만 그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본 것일 뿐이다. 6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다만 이 말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친밀하게 전한 이 말씀보다 특별히 더 친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淸涼益, 上堂云, “諸上座! 且莫將爲等閑. 奉勸, 且依古聖慈悲門好. 他古聖所見諸境, 唯見自心. 祖師道, ‘不是風動, 不是幡動, 仁者心動.’ 但且伊麼會好. 別無親於親處也.”

## 오조사계(五祖師戒)의 염

“무엇에 근거하여 한 말일까?”

五祖戒拈, “着甚來由?”

[설화]

조사가 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말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五祖云云者, 嫌他祖師一心動也.

---

68) 6조가 한 말에 어떤 침착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궁구하도록 권하는 법문이다. 그것이 온전히 실현된 공안[現成公案]이라 보는 안목이다.

## 천태덕소국사(天台德韶國師)의 시중

“옛 성인의 방편은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6조가 말하기를,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최상의 심인(心印)이며, 가장 근본적인 법문이다. 조사 문하의 학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자는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망령되게 움직이는 것이다’라 말하고, 어떤 자는 ‘바람과 깃발에 대한 말을 치워 없애지 말고,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 바로 그 말에서 꿰뚫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어떤 자는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고 한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인가?’라고 물음을 던진다. 또 어떤 자는 ‘사물에 의지하여 마음을 밝히더라도 사물 그대로가 진실이라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 말하고, 어떤 자는 ‘색 그대로 공[色卽是空]’이라 말하며, 어떤 자는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니 이 말은 반드시 미묘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들은 6조의 의중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같은 갖가지 이해들이 모두 옳지 않다면,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만약 진실로 알아낸다면, 어떤 법문인들 밝히지 못하겠는가? 비록 무수한 부처님의 방편이라도 한꺼번에 막힘없이 깨우칠 것이다.”

天台韶國師，示衆曰，“古聖方便，猶如河沙。六祖曰，‘非風幡動，仁者心動。’是爲無上心印，至妙法門。我輩稱祖師門下士，何以解之？若言，風幡不動，汝心妄動；若言，不撥風幡，就風幡處通取；若言，風幡動處，是什麼？；若言，附物明心，不須認物；若言，色卽是空；若言，非風幡動，應須妙會。與祖師意旨，了沒交涉。旣非種種解會，合如何知悉？若眞見去，何法門

不明? 雖百千諸佛方便, 一時洞了.”

[설화]

아버지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sup>69)</sup>

天台：非父，不生其子也.

### 설두중현의 염

파릉호감의 염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인다고 하니, 이미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면 다시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 파릉의 주인이 되어볼 사람 있는가?<sup>70)</sup> 있다면 나와서 나와 맞부딪쳐 보자.”

雪竇顯，舉巴陵拈，師云，“風動幡動，既是風幡，向甚處着？有人與巴陵作主，亦出來與雪竇相見.”

[설화]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인다 : 파릉은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인다는 견해를 근본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이미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면 다시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 : 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에서 벗어나 어디에 의지하겠느냐는 뜻이다.

---

69) 아버지의 뛰어난 가르침이 아니면 자식을 바르게 길러낼 수 없다는 뜻. 천태덕소의 시중(示衆)에 제자를 지도하는 스승으로서의 높은 안목이 있음을 칭송하는 말이다.

70) 파릉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그의 견해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 구절에서 그런 사람과 대결해 보겠다고 한 말은 설두 자신은 파릉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파릉의 주인이 되어볼 사람 있는가: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는 입장을 마음대로 주재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있다면 나와서 나와 맞부딪쳐 보자: 6조가 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말에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설봉과 부상좌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과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대칭시켰고, 파릉과 설두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요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대칭시켰다.

雪竇：風動幡動者，巴陵則以風動幡動爲宗。既是風幡，向什麼處着者，離一心動外，向什麼處寄着也。有人與巴陵作主者，於風動幡動，作主宰者也。出來與雪竇相見者，一心動有什麼過也。雪峯爭上座，不是風動不見幡動不是心動，是風動是幡動是心動爲對；巴陵雪竇，以風動幡動一心動爲對。

## 해인초신의 염

“대단하신 조사여, 같은 말을 두 가지로 달리하였으니 30방을 맞아야 할 잘못이다. 한 방의 잘못이 더 남아 있으니 꿈쩍 말고 있어라.”

海印信拈, “大小祖師, 話成兩截, 好與三十棒. 更有一个, 切忌動着.”

### [설화]

같은 말을 두 가지로 달리하였다: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는 말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 두 가지로 나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sup>71)</sup> 이는 30방

을 맞아 마땅한 잘못인데, 그것에 덧붙여 또 남아 있는 한 방의 잘못<sup>71)</sup>이 어찌 향상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는가라는 뜻이다.

海印：話成兩截者，風幡動心動，是兩截也。是合喫三十棒處，更有一棒，豈向上一竅耶？

###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소참

이 공안과 더불어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의 염을 제거하고 말하였다. “이 두 분 존속의 궁극적 뜻을 알고자 하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해 주리라. 마치 어떤 집안이 조상 대로부터 가산이 지극히 넉넉하였는데, 두 형제가 서로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것과 같다. 형은 500전(錢)을 가지고 동생은 한 관(1000전)을 가지고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싸움을 그치지 않다가 끝내는 조부의 가산을 일시에 탕진하여 그들 자손에게까지 누가 미치게 되자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자손들이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들 조상들이 가졌던 집을 빌려주어 살게 하였다. 그때 자손들은 ‘예전 우리 조상들이 이룬 가업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던 말인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당시의 재산 증서를 찾아내야 비로소 결실을 맺으리라. 눈앞의 일을 좇으며 세월을 보내더라도 안 될 것이야 없지만 남의 집에 사는 신세를 면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대중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주었다. 그럼 묻겠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써야 당시의 재산 증서를 찾을 수 있겠는가?”

---

71)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 말임에도 다른 뜻이 갈라놓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72)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6조의 말.



蔣山泉，小叅，舉此話，連舉巴陵雪竇拈，師云，“要知二尊宿落處麼？蔣山爲你說箇譬喻。一似箇人家祖上，從來極有涯業，有二兄弟，各各鬪使。大者使五百，小者使一貫，日往月來，鬪使不已，遂將祖父涯業，一時蕩盡，累他子孫，無安身立命處。忽有一親友，見其子孫孤露，遂將伊家祖上宅舍，借伊居止。其間子孫須念，‘舊時祖業，如何却屬他人？須作方便，討得當時契書，方爲究竟。若趁目前過日，得則得，未免住在他人屋下。’大衆，蔣山爲你說譬喻了也。且問，諸人，作何方便，討得當時契書？”

# [설화]

어떤 집안이 조상 대로부터 가산이 지극히 넉넉하였다 : 6조를 가리킨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재산을 두고 다투었다 : 여기서 두 형제란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을 말한다.

형은 500전을 가지고 동생은 한 관을 가지고서 : 파릉은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는 말을 꺼내어 6조의 말과 달랐으므로 한 관의 반이라 하고, 설두는 6조와 같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했으므로 한 관 전체를 가졌다고 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 두 존속 모두 6조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가업을 탕진한 것이다. 훗날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친·소와 득·실을 따지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자손들에게 누를 끼쳐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뜻이다.

어느 날 친구가 ~ 집을 빌려주어 살게 하였다 : 여기서 친구라는 것이 어찌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이겠는가?

그동안 자손들은 ~ 비로소 결실을 맺으리라 : 당시의 재산 증서라는 것은 6조

의 중지를 뜻한다.

蔣山：一似箇人家，至極有涯業者，言祖師也。二兄弟，謂巴陵雪竇。大者五百，小者一貫者，巴陵出風幡動，與祖師言異故，一貫之半也，雪竇與祖師言同故，一貫之全也。日往月來至立命處者，二尊宿，皆不會祖師意，蕩盡家業也。後人隨言有親疎得失商量，是累他子孫，無安身立命處也。忽有親友至居止者，一友豈自謂耶？子孫須念至究竟者，當時契書則祖師宗旨也。

###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 조사는 시기에 적절한 방안을 세움으로써 그 의향을 가늠할 틀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조사가 학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보인 뜻을 알고자 하는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다. “바람이니 깃발이니 마음이니 하거나, 움직인다고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두가 미혹의 실마리일 뿐이다. 조사가 설정한 관문의 빗장<sup>73)</sup>을 알고자 하는가? 벼랑 앞에서 때마침 두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枯木成，上堂，舉此話云，“諸仁者，祖師權時施設，用作指歸。諸人要會祖師端的爲人處麼？”良久云，“風兮幡兮心兮，動與不動，還迷。要會祖師關捩子？崑前時聽子規啼。”

---

73) 관려자(關捩子). 관려자(關板子)라고도 쓴다. 관문의 열쇠·관문의 빗장을 말한다. 하나의 공안에 들어 있는 핵심 또는 그 공안을 해결하는 관건을 비유하는 말이다.

### [설화]

바람이니 ~ 미혹의 실마리일 뿐이다 : 남의 말만 따라 정신없이 내달리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다.

조사가 설정한 관문의 빗장 ~ 두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곧 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란 뜻이다.

枯木：風兮至還迷者，隨言走殺故迷。要會祖師至子規啼者，  
風幡動卽一心動。

### 정자본의 소참

“6조가 행자살이할 때 인종법사의 회하에 이르러 두 학인이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을 보고 서로 다투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였다.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옥신각신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모두 이치에 맞지 않았다. 6조가 당시 길에서 공평하지 못한 그 장면을 보고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다만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6조에게는 일시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方便이 없지 않았으나 또한 후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하였다. 산승이 그 상황에 처했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그 학인들을 보았다면 그들에게 ‘이 졸음뱅이들아!<sup>74)</sup> 그대들은 무엇을 바람이라 하고 무엇을 깃발이라 하는가?’라고 말했을 것이다. 말해 보라! 조사가 한 말과 같은가, 다른가? 눈 밝은 자는 판단해 보라.”

---

74) 갑수한(瞌睡漢), 갑한(瞌漢)이라고도 한다. 앉아서 조는 답답한 사람을 가리킨다. 활안(活眼)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를 나무라는 말로 쓰인다.

淨慈本，小叅云，“六祖作行者時，到印宗法師會下，忽見二僧因觀風幡，共相論議。一云風動，一云幡動，往復紛紜，皆未中理。他家當時，路見不平，便道‘不是風動，不是幡動。仁者心動。’然雖如此，老盧一期接引則不無，又且未能塞斷後人口。山僧者裏卽不伊麼。當時若見者僧，只向伊道，‘瞋睡漢！你喚什麼作風幡？’且道！與祖師道底，是同是別？明眼底鑒看。”

[설화]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므로 마음이 움직이고,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 또한 움직일 일이 없다는 뜻이다.

淨慈：有風幡動故，心動，無風幡動則，亦無心動。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의 염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말해 보라! 이 두 노숙의 말은 같은가, 다른가? 만일 판정했다면 나와서 산승과 의견을 겨루어 보자.”

法眞一，舉此話，連舉巴陵雪竇拈，師云，“且道！二老宿語，是同是別？若定當得，出來，與山僧相見。”

[설화]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法眞：兩頭不干。

## 황룡사심(黃龍死心)과 법창의우(法昌倚遇)의 문답

황룡이 법창에게 물었다. “바람도 아니고 ~ 저도 모르게 옷 입은 채 강물을 건너네”라는 계송은 화상께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지은 이러한 계송이 있다.” “대단히 뛰어난 계송입니다.” “말해 보라. 조사는 앞의 단락에서 학인을 가르쳤는가? 아니면 뒤의 단락에서 학인을 가르쳤는가?” “조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여우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sup>75)</sup> 어떻게 생기 넘치고 활발할 수 있겠는가?”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법창이 불자를 흔들자 황룡이 말했다. “그것 또한 뱀을 그리면서 발을 덧붙여 그리는 격이군요.” “아무 일 없는 것을 왜 어지럽히는가?” “화상의 경지라야 되겠군요.”

黃龍心，問法昌遇曰，“‘不是風兮，至渡水寒.’ 豈不是和尚偈耶?” 遇曰，“然. 有是語.” 心曰，“也大奇特.” 遇曰，“汝道祖師，前段<sup>76)</sup>爲人，後段爲人?” 對曰，“祖師，終不妄語.” 遇曰，“意作麼生?” 對曰，“豈不見道，不是風動，不是幡動?” 遇曰，

75) 호의(狐疑). 의심이 많은 여우에 빗대어 의심이 많은 것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이르는 말. 『漢書』 「文帝紀」 안사고(顔師古) 주(注)에 “여우라는 짐승은 그 본성이 의심이 매우 많아서 매양 얼음이 언 강을 건널 때마다 물이 흐르는지 귀 기울여 듣고 확인하고서야 건넌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호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狐之爲獸，其性多疑，每渡冰河，且聽且渡，故言疑者，而稱狐疑。)라고 하였다. “마치 여우가 의심이 많아 빙판 위를 갈 때에 물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소리가 나지 않아야 비로소 강의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다. 공부하는 사람이 여우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듯이 한다면 언제 평온해질 수 있겠는가?” (『碧巖錄』 21則 大48 p.162b23. 如野狐多疑，冰凌上行，以聽水聲，若不鳴方可過河，參學人，若一狐疑，幾時得平穩去?)

76) ‘段’는 ‘段’의 잘못. 이하도 동일하다.

“如狐渡水，有甚快活？”心曰，“師意如何？”遇以拂子搖之，心曰，“也是爲蛇畫足。”遇曰，“亂統作麼？”心曰，“須是和尚，始得。”

[설화]

황룡의 뜻은 바람과 깃발과 마음 모두가 움직인다는 주장이므로 “조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앞의 단락에서 ~ 가르쳤는가 :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는 구절을 묶은 것이 앞의 단락의 내용이고, 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것은 뒤의 단락의 내용이다.

여우가 물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 있겠는가 : 단지 한쪽에 치우쳐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불자를 혼든 것 :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불자는 한 자루의 불자일 뿐이다.

그 다음 구절들은 황룡에게 장점이 없지 않으나 범창의우가 작가종사이니 그인들 어찌하겠는가라는 뜻이다.

黃龍意，一切動處主張，故云，祖師終不妄語也。前段云云者，風動幡動是前段，一心動是後段也。如狐渡云云者，只見一邊故也。以拂子搖云云，風動幡動之樣子。拂子則一條拂子也。下節云云，黃龍不無長處，爭奈法昌是作家宗師。

## 조계명의 상당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라 하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공양이 끝난 후에 번거롭게 다시금 종을 치는가!<sup>77)</sup> 영양이 가지에 빨을 걸고 자는 모습

은 아무도 보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애써 그 자취만 가리켜 주는구나.<sup>78)</sup>” 이어서 ‘6조 대사가 어느 날 두 학인이 바람이 움직인다는니 깃발이 움직인다는니 하고 다투는 것을 보고 ~ 두 학인이 깨달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기하고 말하였다. “대중들이여, 이 이야기에 따라 그 두 명의 도인이 이와 같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리라. 살갗 속에 혈기가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돌! 이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때 이렇게 한 번 큰소리(돌)를 내질렀더라면 비로소 엷매인 몸을 반전시킬 하나의 활로(活路)<sup>79)</sup>를 찾았을 것이다. 옛사람이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다’<sup>80)</sup>라고 한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을 무엇이라 해야 할까?” 마침내 불자를 던지면서 말했다. “이 늙은이가 오늘 그대들에게 감파당하고 말았구나.”<sup>81)</sup>

曹溪明, 上堂云, “不是幡兮不是風, 何煩齋後却聲鐘! 羚羊掛角無人見, 剛被渠儂強指蹤.” 乃舉六祖大師, 一日, 見二僧爭

77) 공연히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말을 덧붙여 추적할 단서를 남김으로써 사람들의 망상을 촉발했다는 뜻.

78) 가지에 뿔을 건 영양은 종적이 모두 끊어진 경지를 나타내는 비유이다. 깃발도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단서도 없는 완결된 화두인데, 굳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하여 쫓을 자취가 있는 듯이 현혹했다는 뜻이다.

79) 전신일로(轉身一路). 속박된 몸을 뒤집어 벗어나는 하나의 활로를 말한다. 전신(轉身)은 몸을 뒤집는다는 번신(翻身)과도 통하는 말로서 미혹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반전(反轉)을 비유한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나 자재하게 운신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속박된 몸을 뒤집어 자유자재한 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을 번신활명(翻身活命)이라고 한다.

80) 마조도일(馬祖道一)과 그의 제자 남전보원(南泉普願)이 제기한 화두이다.

81) 자신의 속내를 모두 드러내어 감파될 정도로 자세히 말해 주었다는 뜻.

風幡，至二僧因而省悟，師云，“大衆，據此，二員道人，伊麼悟去，入地獄如箭射。若是皮下有血漢，見他道，不是風動，不是幡動，是汝心動，‘咄！是何言歟？’當時，若下得者一咄，方有轉身一路。君不見，古德有言兮，不是心，不是佛，不是物。畢竟喚作箇什麼？”遂擲下拂子云，“老僧今日，被諸人勘破。”

[설화]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은 공양이 끝난 후에 종을 치는 격이라는 뜻이다. 또한 아랫말로 대하면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는 구절도 공양이 끝난 후에 치는 종소리와 같고, 윗말로 대하면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자는 영양을 보지 못하고 애써 자취만을 가리키는 것’도 그러하다는 말이다.

쓴살같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리라 :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 역시 아직 업식을 끊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이라 보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살갓 속에 혈기가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 ~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 앞에서 말한 것처럼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자는 영양과 같이 종적이 없다는 뜻이다.

불자를 던졌다 : ‘요점<sup>82)</sup>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뜻이다.

曹溪：仁者心動，是齋後聲鍾也。又下而對，則風動幡動，是齋後聲鍾，上而對，則掛角羚羊強指蹤也。入地獄云云者，一心動，猶是業識未斷故也。皮下有血云云，至是物者，前所言掛角羚羊也。擲下拂子，是什麼孔竅？

---

82) 공극(孔竅). 구멍. 일반적으로는 인체의 눈·코·귀·입·대변도·소변도 등 아홉가지 구멍을 가리킨다. 뜻이 변하여 급소(急所)·요소(要所), 또는 요긴한 것을 뜻한다.



## 상방일익(上方日益)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의 염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한 마리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자 모든 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짖는 꼴이다.<sup>83)</sup> 그때 만약 금색두타(가섭)<sup>84)</sup>라면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sup>85)</sup> 남북의 선수행자들이 바람과 깃발에 쫓겨 다니는 어리석음을 면하게 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금색두타를 부리는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나와 맞부딪치고자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上方益, 舉此話, 連舉巴陵雪竇拈, 師云, “一犬吠形, 百犬吠聲. 當時, 若是金色頭陀, 倒却門前刹竿, 也免得南北禪和被風幡走殺. 然雖如是, 爲金色頭陀作主, 則可, 要與法雲相見, 未在.”

83) ‘形’은 그림자를 뜻하는 ‘영(影)’에 가깝기 때문에 ‘影’으로도 쓴다. 실정을 알아 보지도 않고 남이 하는 소리를 따라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한 마리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자 모든 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짖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병을 앓은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도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실정을 살피지 않는 것이 슬픈 것이다.”(王符『潛夫論』「賢難」. 諺曰, ‘一犬吠形, 百犬吠聲.’ 世之疾此固久矣哉! 吾傷世之不察眞僞之情也.); “인도의 조사(달마)가 중국에 전한 것을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한 마리가 허공에 대고 짖자 다른 모든 삼살개가 진짜 먹이가 있는 듯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景德傳燈錄』 권13 「風穴延沼傳」 大51 p.303a28. 問, ‘西祖傳來請師端的.’ 師曰, ‘一犬吠虛, 千獵唯實.’) “한 사람이 허(虛)로 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오인하여 실(實)이라 전한다(一人傳虛, 萬人傳實.)”라는 선종의 상용구와 통한다.

84) 본서 33則 주석22) 참조.

85) 『禪門拈頌說話』 81則의 본칙이기도 하다.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금란(金欄)가사를 전한 것 외에 별도로 어떤 법을 전하셨습니다?’ 가섭이 ‘아난아!’ 하고 부르자 아난이 ‘예!’ 하고 응답하였다.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찰간을 쓰러뜨려라!’”(『傳心法要』 大48 p.384a3. 阿難問迦葉云, ‘世尊傳金欄外, 別傳何法?’ 迦葉召阿難, 阿難應諾. 迦葉云, ‘倒却門前刹竿著!’)

[설화]

한 마리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자 ~ 따라 짖는 꼴이다 : 6조가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에게 그러하였다는 뜻이다.<sup>86)</sup>

그때 만약 금색두타라면 ~ 어리석음을 면하게 했을 것이다 : 찰간을 쓰러뜨리는 일 같은 뛰어난 기량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색두타를 부리는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나와 맞부딪치고자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 바람이나 깃발이 움직인다는 말과 한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반문한 뜻이다.

上方：一犬吠形云云者，祖師與巴陵雪竇如此。當時若是至走殺者，倒却刹竿處，無如此許多也。爲金色至未在此者，風幡動一心動，有什麼過。

백운지병(白雲知病)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의 염을 제거하고 말하였다. “파릉은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라 하였고, 설두는 ‘이미 바람과 깃발이 움직인다면 다시 어디에 귀착된다는 말일까?’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물로는 물을 씻지 못하고 금으로 금을 바꿀 필요가 없다<sup>87)</sup>는 말이 된다. 행여라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가 이 두 노인네의 발꿈치<sup>88)</sup>를 끊어버리기만 했다면 속된 말이 세상에 퍼지

---

86) 6조(한 마리 개)는 허(虛)로 전했으나 두 선사(모든 개)가 그것을 따라 실(實)이라 잘못 전했다는 취지의 해설.

87) 물과 물이나 금과 금이 동일한 성질과 가치를 가지듯이 파릉의 견해와 설두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움직인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갈라져서 다른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두가 틀을 수 없는 화두로 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白雲曰，舉此話，連舉巴陵雪竇拈，師云，“巴陵云，‘旣不是風幡，向什麼處着?’’雪竇云，‘旣是風幡，向什麼處着?’’然則水不洗水，金不博金。忽有箇不惜性命底漢，截斷二老脚跟，也免得世諦流布。”

[설화]

만일 두 노인네의 발꿈치를 끊어버리되 세밀하지 못하다면 속된 말만 세상에 퍼질 것이고, 발꿈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금으로 금을 바꿀 필요가 없고 물로 물을 씻지 못하는 경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白雲：若截斷二老脚跟，不得宛，是世諦流布，若截斷脚跟，金不博金，水不洗水。

## 불안청원의 상당

“예전에 6조가 거사 신세가 되었을 때<sup>89)</sup> 광주 법성사 인종법사 회하에 숨어 살았다. 어느 날 밤 행랑 사이를 지나다 두 학인이 바람이니 깃발이니 하고 다투는 장면을 마주쳤는데 근본 이치를 남김없이 담아내지 못했

---

88) 각근(脚跟). 발꿈치가 땅에 붙어 있어야 안정되고 어떠한 불안과 동요도 없듯이 확고한 입각점을 비유한다. 여기서는 두 선사들의 견해가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근거처럼 보이는 ‘표면적인 말’을 가리킨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잘라버려라.’ 다시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잘라버려라.’”(『佛祖歷代通載』 권19 大49 p.675a10. 問, ‘如何是佛?’ ‘截斷脚跟’ 又問, ‘如何是佛?’ 師曰, ‘截斷脚跟.’) 부처라는 관념의 소굴을 없애라는 뜻.

89) 혜능이 행자 신분으로 5조 홍인(弘忍)으로부터 6조로 인가받은 다음 신변의 위협을 느껴 남쪽으로 피신하여 속인으로 살던 시절을 말한다.

다. 조사가 조용히 다가가 말하였다. ‘나 같은 속인도 고상한 논의에 끼어 줄 수 있소?’ 그러고는 바람이나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대중들이여, 바로 지난밤부터 바람이 불고 있다. 말해 보라! 바람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발[簾]을 건드리고 문을 흔들며 흙먼지를 일으키는데 어찌하여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가? 판단해 낼 수 있겠는가? 산승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내 뜻을 아는 사람 있는가? 청산은 한없이 좋은데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말하는구나.”

佛眼遠，上堂云，“昔日，六祖大師，作居士時，隱於廣州法性寺印宗法師席下。遇夜廊廡間，有二僧風幡競辯，未盡厥理。祖師躡步而謂曰，‘可容俗士得預高論不？’直以非風幡動仁者心動告之。大衆，祇如夜來風起。且道！是風動，不是風動？若道不是風動，如此觸簾動戶，簸土揚塵，作麼生不是風動？還斷得出麼？山僧道，也不是風動，也不是幡動，也不是心動。有人識得麼？青山無限好，猶道不如歸。”

#### [설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닥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곧 바람이 움직이든 깃발이 움직이든 청산이 한없이 좋은데 또 어디로 돌아가겠느냐는 뜻이다.

佛眼：當風動幡動，也不是風動，也不是幡動，也不是心動也。  
則風動幡動，青山無限好，更敢何歸。

## 육왕개심(育王介謚)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파릉호감과 설두중현의 염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이 세 존속 가운데 한 사람은 마치 무너지는 벼랑에서 돌이 조각조각 굴러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방행(放行)의 입장이었고, 한 사람은 마치 큰 바다가 조수를 모두 삼킨 것과 같은 파정(把定)의 입장이었으며, 한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곳곳이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은 법의 조례(條例)와 규장(規章)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격이다.”

育王謚，舉此話，連舉巴陵雪竇拈，師云，“此三尊宿，一人放行，如頽崖裂石；一人把定，如大海吞潮；一人端坐不動，如須彌山。顯寧伊麼說，大殺不顧條章。”

[설화]

곳곳이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입장 : 6조를 말한다.

파정의 입장 : 파릉을 말한다.

방행의 입장 : 설두를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없이 말한 육왕의 뜻은 무엇인가? 한 구절에 세 구절을 다 갖추었으니 법안이 말한 것처럼 예전 그대로라는 뜻이다.

育王：端坐不動云云，謂祖師也。一人把定云云，謂巴陵也。一人放行云云，謂雪竇也。今顯末無次序，育王意如何？一句中具三句，法眼所謂仍舊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보설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나는 언젠가 한 장로에게 이 공안에 대한

더 향상된 가르침을 청하며, ‘6조의 본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장로는 장삼 소매 자락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몹시도 당황스럽게 만들고, 몹시도 바보 취급하는구나. 어떤 자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결정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평상시 학인들에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어찌 눈을 깜박이며 분별할 여지가 있겠는가!”

雲門杲, 普說, 舉此話云, “山僧曾請益一箇長老, ‘意旨如何?’長老將衫袖搖, 作風動勢云, ‘是什麼?’ 苦哉! 苦哉! 慚惶殺人, 鈍置殺人. 有者道, ‘不是風動, 不是幡動, 定是心動.’ 山僧尋常問學者, ‘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心動, 作麼生?’ 者裏豈容眨眼!”

# [설화]

장삼 소매 자락을 흔들어 ~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다는 뜻을 나타낸다.

결정코 마음이 움직인다 :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어찌 눈을 깜박이며 분별할 여지가 있겠는가 : 최상의 관문에 걸린 빗장을 집어내어 제기했다는 뜻이다.<sup>90)</sup>

雲門：衫袖搖云云者，是風動幡動義也。定是心動者，是心動義也。豈眨眼者，拈起上頭關捩子。

90) 이미 실현된 화두만을 집어내었기에 더 이상 분별할 여지가 없다는 뜻. ‘관문의 빗장’에 대해서는 주석73) 참조.



118칙 道明本來 도명본래







## 118칙 도명 본래 道明本來<sup>1)</sup>

### [본칙]

도명선사는 6조가 대유령 꼭대기에서 “선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명상좌 그대의 본래면목인가?”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道明禪師，因六祖在大庾嶺頭云，“不思善，不思惡！正當伊麼時，阿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師即大悟。

- 
- 1) 혜능(慧能)이 행자의 신분으로 5조 홍인(弘忍)으로부터 6조로 인가를 받아 달마(達磨) 이래로 조사의 징표인 가사와 발우를 지니고 대유령(大庾嶺)을 넘어가다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추적하던 도명과 마주친 인연에서 생긴 공안이다. 宗寶本『壇經』大48 p.349b14에 따르면, 그 당시 도명은 혜능이 바위에 던져 놓은 가사를 집어 들러 하였으나 꼼짝도 하지 않자 겁을 먹고 ‘의발이 욕심이 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5조로부터 받은 법을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혜능이 그 전후의 사정을 모두 간파하고 그에 적절한 문제를 던진 것이 바로 이 공안이다. 곧 의발을 강탈하려 했던 애초의 악한 마음과 그 뒤에 법을 구하겠다고 한 선한 마음을 소재로 삼아 그 현장에 가장 적절한 공안으로 도명을 이끌었던 것이다. 도명의 의중에 근거해서 ‘의발을 빼앗으려 했던 의도를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법을 물으러 왔다고 바꾼 마음을 선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고 한 혜능의 말은 추상적인 개념의 선과 악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뜻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 일반화되면서 후대의 문헌 가운데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맥락이 있을 뿐이다.

[설화]

자취를 밟으며 따라와 대유령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법을 구하러 왔다’라 운운한 말은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 ‘선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고 한 말은 선이나 악 그 어느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니,<sup>2)</sup>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래면목이라는 뜻이다.

躡迹追逐至嶺時，是思惡也；我來求法云云，是思善也。不思云云，善惡都莫思量，自然得入清淨心體，是諸人本來面目也。

관음원 중현의 엄

“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에게 명상좌의 본래면목을 돌려다오.”

觀音院，從顯拈，“今日不伊麼道。還我明上座來。”

[설화]

본래면목이라 하면 인식 주체[能]와 대상[所]이 있는 듯하지만 없으므로 ‘나에게 명상좌의 본래면목을 돌려다오’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써 본래 인식 주체와 대상의 차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2) 宗寶本『壇經』大48 p.360a13, 『景德傳燈錄』권5「慧能傳」大51 p.236a21 등에 나오는 구절.

從顯：本來面目，則似有能所，不如道，‘還我明上座來.’ 本無能所也.

###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저 앞서 간 조사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살펴보니, 결코 이편으로 오려 하지 않는구나.<sup>3)</sup> 여러분은 그 뜻을 알겠는가? 별이 뜨기 전에 떠난 사람이 천 길 봉우리의 보금자리에 누워 있으니,<sup>4)</sup> 불조(佛祖)일지라도 그를 알아볼 근거가 없다.”

丹霞淳，上堂，舉此話云，“看他先祖爲人，終不肯過這邊來。諸人還會麼？星前人臥千峯室，佛祖無因識得渠。”

#### [설화]

별이 뜨기 전에 ~ 알아볼 근거가 없다 : 6조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밝힌 것이다. 아래 나오는 불안의 뜻도 이상과 같다.

丹霞：星前人臥云云者，深明六祖道得處也。佛眼意，上同。

- 
- 3) 6조의 공안이 말로 표현하기 이전의 경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편’이란 언어와 분별로 통하는 경계를 나타내는데, 6조는 ‘저편’에 있다는 말이 된다. 이어서 나오는 ‘별이 뜨기 전에 떠난 사람’과 ‘천 길 봉우리의 보금자리’ 등과 호응한다.
- 4)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기 전의 시간과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고원한 장소를 가치고 6조의 공안이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다는 뜻을 보여준다. 『空谷集』 11則 卮117 p.545a3에는 이 구절에 “농부는 무슨 일로 여전히 깊은 잠에 떨어져 있을 까?(農夫何事睡猶濃)”라는 착어가 붙어 있다.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이 공안을 알겠는가? 바로 이럴 때<sup>5)</sup> 무수한 겁이 지나도록 미혹된 적이 없었던 것과 같으리니, 걸음마다 삼계의 속박을 넘어서 본래의 집에 돌아오면 단번에 모든 의심이 끊어지리라.”

佛眼遠, 上堂, 舉此話云, “大衆! 還會者話麼? 正當伊麼時, 歷劫不曾迷. 步步超三界, 歸家頓絕疑.”

---

5)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



161칙 馬祖一口 마조일구





## 161칙 마조일구 馬祖一口

### [본칙]

마조에게 방거사가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가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들이켜면 말해 주겠다.” 방거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뜻을 알아차렸다.

馬祖, 因龐居士問, “不與萬法爲侶者, 是什麼人?” 師云, “待汝一口吸盡西江水, 卽向汝道.” 居士言下領解.

### [설화]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 『방거사어록』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처음에 석두(石頭)에게 법을 물으러 가서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석두가 손으로 거사의 입을 틀어막았는데, 거사가 여기서 막힘없이 크게 깨달았다. 석두가 하루는 거사에게 ‘그대는 나를 만난 이래로 일상사가 어떠한가?’라고 물음에 방거사가 ‘만일 저에게 일상사에 대하여 물으신다면 저는 당장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라고 대답했다. 석두가 ‘그대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거사가 마침내 다음과 같은 계승을 바쳤다. ‘일상사에 특별한 점은 없으니, 나 스스로 짝하여 함께할 뿐이라네. 모든 현상에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어떤 곳에서나 어긋나는 일도 없다네. 주색과 자색은 누가 이름

을 붙였을까?<sup>1)</sup> 산악에는 한 점의 티끌조차도 없노라. 신통 그리고 묘용이여! 물 길고 땀나무 나르는 일이다.’”<sup>2)</sup> 그 다음에 마조에게 던진 똑같은 질문은 이미 터득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물은 것이다. 옛사람은 “처음에 석두를 친견하고는 눈앞의 대상 경계와 단번에 하나가 되었고, 뒤에 마조를 친견하고는 다시 본심과 부합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대가 한입에 ~ 말해 주겠다 : 이전에는 산하의 대상 세계를 돌려 자기에게 귀착시켰으므로 이번에는 (마조가) 방거사로 하여금 자기를 돌려 산하가 되도록 하였던 것일까? 아니면 말 머리에 뿔이 나고 항아리에서 뿌리가 자라더라도 끝내 그대에게 가볍게 말해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모두 틀린 말이다. 비록 ‘눈앞의 대상 경계와 단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단번에 하나가 되었다는 분별은 서강과 같이 커다란 잔재여서 서강의 물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모두 들이켜 물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진실하게 밝힌 것이므로 뒤에 마조를 친견하고 물어서 다시 본심과 부합한 것이다. 옛사람이 “방거사의 입은 서강에서 무엇을 모두 들이킨 것이며, 마조의 발은 천하에서 어떤 것을 짓밟은 것일까?”<sup>3)</sup>라고 반문했다. 곧 한입에 모두 말하지 못하는 소식이므로 당면한 기틀을 곧바로 가리킨 것

1) 주자(朱紫). ‘朱’는 정색(正色), ‘紫’는 간색(間色) 중 아름다운 것. 두 가지 색은 바른 것과 샅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등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기서도 그러한 차별의 관념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2) 『龐居士語錄』 卍120 p.55a5.

3) 6조 혜능(慧能)이 남악회양(南嶽懷讓)에게 반야다라삼장의 예언으로 들려준 말에 나온다. “서천의 반야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懷讓]의 발밑에서 한 마리 망아지[馬祖]가 나와 세상 사람들을 짓밟아버릴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그대 마음속에만 담아 둘 것이며 경솔하게 말을 흘리면 안 된다.”(宗寶本『壇經』大48 p.357b24. 西天般若多羅識, ‘汝足下, 出一馬駒, 踏殺天下人.’ 應在汝心, 不須速說.)



이며 별다른 곳에 귀착시키지 않았다<sup>4)</sup>는 뜻이다. 깨달았다는 분별도 남기지 않은 것이 진실로 깨달은 경지인 것이다.

不與萬法爲侶者，居士本錄云，“初參石頭問云，‘不與萬法爲侶者，是什麼人？’頭以手掩居士口，居士於此，豁然大悟。頭一日，問居士曰，‘子自見老僧已來，日用事作麼生？’士曰，‘若問某甲日用事，直下無開口處。’頭云，‘知子伊麼，方始問看。’士乃呈偈曰，‘日用事無別，唯吾自偶諧。頭頭非取捨，處處勿張乖。朱紫誰爲號？丘山絕點埃。神通并妙用，運水與槃柴。’次問馬祖者，呈似已見也。古人云，“初參石頭，頓融前境；後參馬祖，復印本心。”待汝一口云云者，前轉山河歸自己故，令他轉自己成山河耶？馬頭生角瓮生根，終不爲君輕說破耶？皆非也。雖曰，‘頓融前境。’頓融之解，大如西江，西江水猶在故，令他吸盡無涓滴也。此真實明得不與萬法爲侶，則後參馬祖，復印本心。古人云，“龐公口，卽西江吸盡箇什麼？馬師脚，卽天下踏殺箇什麼？”一口道不得底消息故，當機直指，不落別處。悟解不遺，悟得處也。

---

4)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기틀을 곧바로 지시[直指]한 것일 뿐 경계와 하나가 된다거나 본심과 부합한다거나 하는 등 그 이상의 귀착점은 없다는 말이다.

##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부모와 광겁<sup>5)</sup> 이래 이별했으니,  
모실 기회 되면 있는 힘 다하라.  
장승이 한밤에 비밀을 말했으나,  
집 밖 사람 누구도 모르게 하라.<sup>6)</sup>

投子青頌, “父母曠來別, 得奉當竭力. 木人半夜言, 莫使外人識.”

### [설화]

1구와 2구 : 이전에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고 한 말은 부모 모실 기회를 얻은 것과 같고, 지금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있는 힘을 다하여 모시고 효도하는 것과 같다.

장승이 한밤에 ~ 모르게 하라 : 분별하는 마음[情識]으로 도달할 수 없거늘 어찌 사려를 용납하겠느냐는 뜻이다.

投子 : 上二句, 前來不與萬法爲侶, 是得奉也, 今日不與萬法爲侶, 是竭力奉孝也. 木人半夜云云者, 非情識到, 豈容思慮.

## 석문원이(石門元易)의 송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걷는 사람에게 물으니,

---

5) 曠劫.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한 겁의 세월.

6) 마조와 방거사의 말에 대하여 분별[識]로 헤아릴 여지를 주지 말라는 뜻.

모조리 들고 전하며 가까워지라고 외치는구나.

서강 물 모두 마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지만,

목구멍은 단단히 잠긴 관문임을 뉘라서 알까?

石門易頌, “偕問乾坤獨步人, 全提分付大言親. 西江吸盡無涓滴, 誰解喉門鑰要津?”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1

서강 물 다 마신 다음 말해 주리라 하니,

마조는 거친 풀에 떨어지려 하지 않았네.<sup>7)</sup>

삼천대천세계 한결같이 가을에 접어드니,

달과 산호가 싸늘하게 서로 비추는구나.

天童覺頌, “吸盡西江向汝道, 馬師不肯落荒草. 三千剎海一成秋, 明月珊瑚冷相照.”

[설화]

천동의 제4구에도 광명이 찬란하게 비추는 소식이 담겨 있다.

天童四句, 亦有光明燦爛地消息也.

### 천동정각의 송 2

서강 물 다 마신 다음 말해 주리라 하니,

---

7) 자세한 방편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언어 이전의 경계를 고수했다는 말. ‘거친 풀’ 곧 번뇌의 경계로 들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며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마조의 가풍에는 조금한 기색이 없다네.

물살 가르느 노질 한 번에 찬 안개 흩어지니,

하늘과 강물 함께 가을 들어 맑고 아득하네.

又頌, “吸盡西江向汝道, 馬師家風不草草. 截流一棹破煙寒,  
天水同秋清渺渺.”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바람 불고 태양 이글거리는 곳에 버려진 시체,

애원하며 산사람<sup>8)</sup>에게 물어 묻을 터를 찾았네.

속내를 참지 못해 쓸데없이 말 많던 늙은이는,

음지건 양지건 안배하여 묻을 터 없다고 하네.

保寧勇頌, “風吹日炙露屍骸, 泣問山人覓地理. 忍俊不禁多口  
老, 陰陽無處可安排.”

###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송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마시라 하니,

낙양의 모란이 새롭게 꽃술을 토해낸다.

흙 까부르고 먼지 날렸으나 찾을 곳 없더니,

머리 들자마자 마주치니 제자리에 있었다네.

白雲演頌, “一口吸盡西江水, 洛陽牡丹新吐蘂. 簸土颺塵勿處  
尋, 擡頭撞着自家底.”

---

8) 산인(山人), 선인(仙人) 또는 선인(僊人)으로 되어 있는 문헌도 있다.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한입에 서강의 물 모두 마시라 하니,

갑을병정경무기<sup>9)</sup>로다.

돌, 돌, 돌! 나라리!<sup>10)</sup>

雲門杲頌, “一口吸盡西江水, 甲乙丙丁庚戌己. 咄, 咄, 咄! 囉囉哩!”

###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바다의 파도는 알고,

소인의 마음은 깊네.

바다가 마르면 바닥 드러나지만,

사람은 죽어도 마음 알 수 없네.

竹庵珪頌, “大海波濤淺, 小人方寸深. 海枯終見底, 人死不知心.”

### [설화]

방거사가 얻은 경계는 한계가 없이 자유로운 경지라는 말이다. 어떤 책에서 ‘말이 끝나자마자 알아차렸다’라고 한 요지를 나타낸다.

---

9) 천간(天干)의 일부. 무의미한 나열을 통하여 언어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법.

10) 위의 천간과 유사한 맥락에서 의미 없이 쓴 말이다. ‘돌’은 혀를 차는 소리 또는 할(喝)과 같이 ‘돌!’ 하고 한 소리 크게 내지르는 것. ‘나라리’는 입에서 나오는 가락대로 흥얼거리는 소리이다. 모두 이 공안의 몰자미(沒滋味)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竹庵：言龐居士所得，直得無限也。一本云，言下領解之要。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송

서강의 물을 남김없이 다 들이켜고 나니,  
당당한 기상의 대장부 돌연히 나타나네.  
세간에서 모두들 달마 수염 붉다고 하나,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음도 알아야 하리.<sup>11)</sup>

密庵傑頌，“西江吸盡了無餘，突出堂堂大丈夫。盡道世間胡鬚赤，須知更有赤鬚胡。”

### 개암봉의 송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다 하니,  
어떤 시험의 수단<sup>12)</sup> 있는지 살펴보라!  
듣는 순간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같이,  
총림 전체가 시끌벅적 들끓게 되었다네.<sup>13)</sup>  
시끌벅적 들끓지 마라!  
소쩍새는 으스스한 꽃밭에서 지저귄다.<sup>14)</sup>

11) 앞의 달마나 뒤의 달마나 수염이 붉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답한 마조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진 방거사도 마조와 견줄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12) 파비(巴鼻), 소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고삐를 말한다. 여기서는 방거사의 물음에 들어 있는 시험의 수단을 가리킨다.

13) 그 말에 따라 이러니저러니 분별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풀잎과 같이 자기 중심이 없다는 뜻이다.

14)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계송 중 한 구절. 법안(法眼)이 ‘부처가 무엇이나’는 질문

介庵朋頌, “不與萬法爲侶, 看來有甚巴鼻! 纔聞風吹草動, 直得叢林鼎沸. 休鼎沸! 鷓鴣啼在深花裏.”

### 심문답분(心聞曇賁)의 송

한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라 하니,  
어리석은 자 밤새워 연못 물 퍼 올리네.<sup>15)</sup>  
방거사는 붉은 화로에 앉은 눈송이 되었고,  
마조는 풀 속으로 돌아가 몸을 감추었다네.  
과도는 끝없이 솟고 강물은 아득히 이어지는데,  
뗏목 타고 노는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는구나.  
헤가 떠서 동쪽을 비추는 그대로 맡겨 두리라.

心聞賁頌, “一口吸西江, 癡人戽夜塘. 龐公化作紅爐雪, 馬祖身歸草裏藏. 波渺渺水茫茫, 好是乘槎人不顧. 從教日出照扶桑.”

### [설화]

방거사가 한입에 모두 마신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밤새워 두레박으로 연못 물을 퍼 올린 것에 해당된다. 세 번째 구절은 실제로 있는 것이

---

을 받고 ‘그대가 바로 혜초이니라’라고 대답한 문답에 대한 계송의 제2구이다. 『碧巖錄』 7則 「頌」 大48 p.147c17 참조. 소쩍새 울음소리는 봄이 왔다고 알리는 소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공안의 문답에서 전하는 본분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15) 두레박으로 아무리 연못 물을 퍼 올려도 연못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입에 마시라는 말에 그대로 끌려 다니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니라는 뜻이다. 네 번째 구절은 마조는 그가 말한 한계를 벗어나 진적으로 차별의 세계 속에 있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 구절은 생사윤회의 물결을 말하며, 여섯 번째 구절은 생사윤회의 물에서 여유롭게 헤엄치며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한다. 해가 떠서 동쪽을 비춘다는 일곱 번째 구절은 방거사의 경지를 말한다.

心聞：龐居士一口吸盡，是癡人岸夜塘也。三句，非實有也。四句，馬祖不在此限，全在差別也。五句，生死波瀾也。六句，生死波瀾，優游自在地也。七句，日出照於扶桑，謂龐居士也。

## 본연거사의 송

강물은 동해로 흘러가는데,  
그대의 입 좁은 것 아노라.  
마조는 할 말을 다했지만,  
당나귀해에나 그 뜻 알까?  
세상 사람 의심에 사무치게 한 것,  
바로 이 한 칙의 공안이로다.

本然居士頌，“江水向東流，知君口門窄。馬師道了也，驢年還會得？疑殺天下人，只是遮一則。”

## 보령수의 염

“마조대사는 비록 분별할 길을 완전히 틀어막는 방법[把定]을 썼지만, 그것은 속된 놈에게 가볍게 질문의 압박을 당하고 곧바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불과했다. 말해 보라! 그의 허물은 어디에 있을까? 바른 안목을 갖춘 자는 분별해 보라!”

保寧秀拈, “馬大師, 雖然把定意根, 被箇俗漢輕輕拶着, 便見敗闕. 且道! 過在什麼處? 具眼者, 辨看!”

[설화]

마조대사는 ~ 잘못을 저지른 것에 불과했다 : 비단 방거사뿐만 아니라 마조 또한 허물이 없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해 보라 ~ 분별해 보라 : (그렇다고 해서) 또한 어떤 허물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保寧：馬大師雖然至敗闕者，非但龐公，馬師亦不得無過. 且道云云者，又有什麼過.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연이어 어떤 학인이 풍혈(風穴)에게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풍혈이 ‘이마에 손을 대고 멀리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지만, 뗏목을 탄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문답을 듣고 평가했다. “대중들 중에는 ‘마조대사는 물리치는 말을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숨 쉴 틈도 없게 만들었고, 풍혈은 칭찬하는 말을 함으로써 한 번 들먹일 때마다 한 번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 또한 여러 선사들의 점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두 스님은 단지 칼날을 쓰는 일만 알았지 칼날 속에 몸을 감출 줄은 몰랐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묻는다면, ‘앞에도 짝이 될 대상이 뻥뻥이 들어차

있고, 뒤에도 뻑뻑이 들어차 있다'<sup>16)</sup>라고 대답할 것이다.”

東林總, 上堂, 舉此話, 連舉僧問風穴, ‘不與萬法爲侶者, 是什麼人?’ 風穴云, ‘斫額望扶桑, 乘槎人不顧.’ 師云, “衆中道, ‘馬大師, 是貶底語, 教伊無出氣處; 風穴, 是褒底語, 一廻舉着一廻新.’ 與麼批判, 亦未免諸方檢責. 此二老, 只解用劒刃上事, 不解向劒刃裏藏身. 寶峯卽不然. ‘不與萬法爲侶者, 是什麼人?’ ‘前三三, 後三三.’”

[설화]

이마에 손을 대고 멀리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본다 : 항상하는 결정적인 한 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뗏목을 탄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 : 뗏목을 탄 사람은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대단히 훌륭한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풍혈은 칭찬하는 말을 함으로써 한 번 들먹일 때마다 ~ 칼날 속에 몸을 감출 줄은 몰랐다 : 범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으면서 지향할 경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칼날 속에 몸을 감추다 :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는 일도 방해될 것이 없다는

---

16) 전삼삼(前三三) 후삼삼(後三三). ‘짝이 되지 않는 자’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것과 짝을 해도 무방한 자’를 제시한 것이다. 원래 무착(無著)선사가 오대산(五臺山)을 돌아다니다가 문수보살(文殊菩薩)을 만나 제시받은 화두이다. ‘三三’이라는 수는 3 곱하기 3과 같으므로 9가 된다. 9 자체가 만수(滿數)이기 때문에 수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숫자가 된다. 따라서 앞뒤로 가득 들어찼다는 뜻이며 ‘삼삼(森森)’과 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화두에 대한 표피적인 분석일 뿐 화두가 지니는 몰자미(沒滋味)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 말 자체도 몰자미를 본질로 하는 화두이기 때문이다. 『禪門拈頌說話』1436則 참조.

뜻이다.

앞에도 짝이 될 대상이 뽀뽀이 들어차 있고, 뒤에도 뽀뽀이 들어차 있다 : 만법이 자신의 짝이 된다고 한들 범부에게나 성인에게나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반문한 말이다. 앞에서 심문담분이 ‘뗏목을 탄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 말과 이 말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東林：斫額望扶桑者，謂望向上一著也。乘槎人不顧者，謂乘槎人不顧扶桑，則此不與萬法爲侶甚好故。風穴褒地語，一回舉著，至劒刃上事云云者，不犯不觸，有趣向處也。劒刃裏藏身者，不妨與萬法爲侶也。前三三後三三者，萬法爲侶，則凡聖有什麼過。前心聞乘槎人不顧，與此小異。

####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선문에서 흔히 이 공안에 대하여 기특하다고 헤아리거나 현묘한 이치가 있다고 이해하지만, 마조대사가 위엄스러운 지혜의 광명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면서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충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眞淨文，上堂，舉此話云，“禪門多作奇特商量，玄妙解會。又不見馬大師，威光自在，裁長補短。”

#### [설화]

흔히 이 공안에 대하여 기특하다고 헤아리거나 현묘한 이치가 있다고 이해한다 :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마시라는 말에 대하여 눈동자를 붙이고 골똘히 분별하기 때문이다. 마조대사의 의중은 단지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었지만, 이와 같은 뜻에 그치지 않고 위엄스러운 광명을 자

유자재로 발휘한 것이다.

眞淨：多作奇特至解會者，謂一口吸盡西江水處，著得眼睛故也。馬師意，但裁長補短爾，不止如此，威光自在也。

###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들이켜니, 만 길의 깊은 못이 바닥을 드러내었다. 외나무다리는 조주의 큰 다리가 아니니,<sup>17)</sup>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인데 어찌 견줄 수 있으랴!”

白雲演，上堂，舉此話云，“一口吸盡西江水，萬丈深潭窮到底。略約不是趙州橋，明月清風安可比!”

#### [설화]

한입에 ~ 바닥을 드러내었다 : 근원을 철저하게 밝혀 더 이상 뒤에 할 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외나무다리는 ~ 견줄 수 있으랴 : 큰 다리는 외나무다리가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으로도 견줄 수 없다는 뜻이다. 바람과 달을 비

---

17) 조주의 문답에 따르는 말.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물었다. ‘조주의 둘다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왔는데, 막상 와 보니 겨우 외나무다리만 보이는군요.’ ‘그대가 단지 외나무다리만 보고, 조주의 다리는 보지 못한 탓이다.’ ‘조주의 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건너오라!’ 또한 다른 학인이 이전과 같은 질문을 했고, 조주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그 학인이 물었다. ‘조주의 다리란 어떤 것입니까?’ ‘나귀도 말도 건너게 하느니라.’ ‘외나무다리란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씩 건너도록 한다.’”(『景德傳燈錄』 권10 「趙州傳」 大51 p.277c12. 僧問，‘久嚮趙州石橋，到來只見掠約。’ 師云，‘汝只見掠約，不見趙州橋。’ 僧云，‘如何是趙州橋?’ 師云，‘過來!’ 又有僧同前問，師亦如前答。僧云，‘如何是趙州橋?’ 師云，‘度驢度馬。’ 僧云，‘如何是掠約?’ 師云，‘箇箇度人。’)

유로 삼아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白雲：一口至到底者，徹根徹源，更無後事也。略約云云者，橋非略約所可及，亦非明月清風所可比。況風月謂賓主也。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거 1

『심요』에 이 공안이 제기되어 있다.<sup>18)</sup> “이 노스님이 세상 사람들을 짓밟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다만 한마디를 무심코 내뱉어서 끝이 없는 분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 만일 이 노스님이 제시한 복잡한 말의 실마리를 풀어낼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공부를 끝내고 펼치는 범문[罷參法門]을 청하리라.”

佛果勤，心要，舉此話云，“信此老踏殺天下人，只等閑出一語，便令作無限知見。若有解截這老漢葛藤，便請罷參。”

#### [설화]

마조가 비록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만일 그에 대하여 끝이 없는 분별을 일으킨다면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름지기 문제의 복잡한 말을 끊어 없애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세 번 짓밟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화두의 근본적인 뜻과 다르지 않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佛果：馬祖雖有此語，若作無限知見，便不是了也。直須絕斷葛藤，方知踏殺天下人三度，舉此話大意一般。

18) 이하는 원오극근(圓悟克勤)이 『圓悟心要』 「示逾上人」 卍120 p.732b3과 「示照道人」 p.737a12, 「示張國太」 p.753a7 등 세 곳에서 이 공안을 제기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내용이며, 나머지 하나의 소참은 『圓悟語錄』 권11 大47 p.765a4에 수록되어 있다.

## 원오극근의 거 2

“이 공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말에 얽매어 헤아리고는 일정한 기틀과 경계를 만들어내어 이해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결코 종지를 이어받지 못한다. 반드시 무쇠로 주조된 것과 같은 사람<sup>19)</sup>이라야 비로소 그러한 흐름을 거스르고<sup>20)</sup> 초연히 깨달아 두 선사의 쇠로 만든 배<sup>21)</sup>를 뒤집어엮을 줄 알고, 더 나아가 만 길 높이로 우뚝 솟은 절벽<sup>22)</sup>에 도달하여야 마침내 쓸데없이 할 일이 많지 않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又舉此話云, “此个公案, 多有涉唇吻商量, 作機境解會, 殊不稟宗猷也. 要須是个生鐵鑄就底, 方能逆流超證, 乃解翻却二老鐵船, 始到壁立萬仞處, 方知無許多事.”

19) 어떤 말과 견해도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견지하는 사람.

20) 번뇌망상과 분별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流]과 같으므로 이것을 거스른다[逆]는 뜻이다.

21) 철선(鐵船). 쇠로 만든 배는 물에 뜨지 않는다는 과거의 관념에 따른다. 물에 뜰 수 없는 배를 띄우듯이 조사들이 보이는 기량은 탁월하다는 비유이다. 그들이 설정하는 관문(關門)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관문에 현혹되어 분별하는 자들은 결코 이 철선을 뒤집어엮을 수 없다.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운문이 쇠로 만든 배를 띄우자, 강남과 강북에서 다투며 살펴보는구나. 불쌍하도다, 낚시줄을 드리운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여! 모범적인 예를 따르다가 아득한 바다 위에서 낚시대를 잃어버렸네.”(『雪竇語錄』 권5 「透法身句」 大47 p.702c6. 潦倒雲門泛鐵船, 江南江北競頭看, 可憐無限垂鉤者! 隨例茫茫失釣竿.)

22) 벽립만인(壁立萬仞). 높고 험하여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언어와 사유의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은산절벽(銀山鐵壁)과 같은 뜻이다.

### 원오극근의 거 3

“이것은 매우 빠른 지름길이며 군더더기 없는 핵심이거늘 어찌 그와 같이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게다가 그들의 말에 빠져들면 영원히 그 함정을 뚫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배운다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만 이렇게 헤아리고 말을 붙여 진실에 부합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생사(生死)의 굴레를 뚫고 벗어난 견해이겠는가! 생사의 굴레를 뚫고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로지 마음이라는 바탕을 막힘없이 열어야 한다. 이 공안은 바로 마음이라는 바탕을 여는 열쇠인 것이다. 다만 이 공안을 밝히고자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말을 벗어나 본래 지향하는 뜻을 이해해야 비로소 의심이 남아 있지 않는 경계에 도달할 것이다.”

又舉此話云, “多少徑截省要, 何不便與麼承當? 更入他語言中, 則永不透脫. 多見學者, 只麼卜度下語, 要求合頭. 此豈是透生死見解! 要透生死, 除非心地開通. 此箇公案, 乃是開心地鑰匙子也. 只要明了, 言外領旨, 始到無疑之地.”

### 원오극근의 소참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산승이 간략하게 하나의 소식을 드러내겠다. 남들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하고, 사람을 죽이려면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모조리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벌써 두 번째 달<sup>23)</sup>에 떨어진 것이다. 말해 보라! 첫 번째 달이란 어떤 것일

---

23) 제이월(第二月), 허상(虛像)을 말한다. 하늘에 뜬 유일한 달을 제일월(第一月)이라 하고, 눈에 병이 있어 헛보이거나 손가락으로 눈을 눌러 제일월 옆에 또 하나 나타나는 달이 바로 제이월이다.

까? 돌!<sup>24)</sup>”

又小叅，舉此話云，“山僧略露个消息。爲人須爲徹，殺人須見血。直下便承當，已落第二月。且道！如何是第一月？咄！”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문답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방거사가 마조대사에게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은 말은 어떤 뜻인가?” 그 학인이 대답이 없자 스스로 대신하여 말했다. “저는 이미 스님께 대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佛眼遠，問僧，“龐居士問馬大師，不與萬法爲侶者，是什麼人，如何？”自代云，“某甲已答和尚了也。”

#### [설화]

저는 이미 스님께 대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 만법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는 것 이외에 더 이상 무슨 뜻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미 대답을 마쳤다’라고 말한 것이다.

佛眼云云，某甲已答和尚了也者，不與萬法爲侶外，更有什麼意？故云答了也。

---

24)咄, 첫 번째 달이 있다는 분별조차 없애버리는 부정의 언사이다.





165칙 馬祖圓相 마조원상





## 165칙 마조원상 馬祖圓相

### [본칙]

어떤 학인이 방문하자 마조가 원상(○)<sup>1)</sup> 하나를 그려 놓고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 학인은 원상 안으로 곧바로 들어왔고 마조도 곧바로 때렸다. 그가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마조는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馬祖因見僧參，畫一圓相云，“入也打，不入也打。”僧便入，師便打。僧云，“和尚打某甲不得。”師靠却拄杖，休去。

### [설화]

‘원상 하나를 그렸다’는 것은 범부와 성인의 동일한 근원이며 어떤 것도 없는 미묘한 본체로서의 일원상을 나타낸다.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 깨달은 것이며, 들어가지 않으면 미혹된 것’이라 하는 말은 틀린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은 금시(今時)요,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본분(本分)<sup>2)</sup>’이라 말하기도 한다. 한 가

---

1) 圓相. 조사선에서 불자·주장자·손가락 등을 이용해 땅이나 허공 등에 원상을 그려 놓고 상대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쓴다.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틀일 뿐 일정하게 규정된 의미는 없다. 이것이 진여·법성·실상·불성 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 한 가지 어느 경우나 모두 때린다는 것은 금시와 본분을 모두 세우지 않는 방식이 바로 법령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들어감은 원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니 원상 그대로[卽] 알아차린다는 것이며, 들어가지 않음은 원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니 원상을 떠나서[離]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모두 마조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린다’고 말한 것이다.<sup>3)</sup> 그렇다면 어떻게 마조의 뜻을 알아차릴까? 그 학인이 원상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로 그가 안목이 있는지 안목이 없는지 판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조가 곧 바로 때렸다는 것은 그 학인의 행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고자 한 것이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 한 말은 예상대로 그가 알맹이 없는 사람<sup>4)</sup>임을 나타낸다. 마조가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것은 단지 한쪽에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畫一圓相者，凡聖同源，妙體無物，一圓相也。入不入者，或云，入則悟，不入則迷云者，非也。或有云，‘入則今時，不入

2) 금시는 지금·현재의 상황이라는 뜻으로 그때마다 적절하게 허용되는 방편을 나타내며, 이와 대칭되는 본분은 어떤 분별과 수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대비되는 범주를 마조가 설정한 공안의 말에 각각 대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이다.

3) ‘卽’과 ‘離’ 양편을 모두 부정하여 운신할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상황 설정이 공안의 전형적인 틀이다. 다만 이렇게 어떤 활로도 없는 그것일 뿐, 여타의 은밀한 통로가 숨어 있거나 이 난관을 타개하는 별도의 수단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본서 181則「百丈再參」에서 마조가 불자(拂子)를 세우고 “이것 그대로의 작용인가? 아니면 이것을 떠난 작용인가?”(卽此用離此用)라고 제시한 것도 즉(卽)과 리(離)를 모두 부정하여 설정한 동일한 형식의 관문이다.

4) 허두한(虛頭漢), 거짓으로 조작하는 사람 또는 진실한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진실은 모르고 선사들의 외형적인 언행을 흠쳐서 흉내만 낼 뿐인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허명(虛名)을 노략질한 자라는 뜻에서 약허두한(掠虛頭漢)이라고도 한다.

則本分.’一一打者, 今時本分, 皆不立, 是舉令也. 入則入圓相, 卽圓相而會也; 不入則不入圓相, 離圓相而會也. 入不入, 皆不契師意, 故云, ‘入也打, 不入也打.’ 然則怎生會馬祖意? 僧便入者, 具眼不具眼, 難定也. 便打者, 要辨真假也. 和上打某甲不得者, 果然是虛頭漢也. 靠却拄杖休去者, 只靠一邊故.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마조와 학인 모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라 말하자 마조는 주장자에 기대어 가만있었지만, 머뭇거리며 나오지 않으면 등골이 쪼개지도록 바로 때렸어야 했다.”

雪竇顯拈, “二俱不了, ‘和尚打某甲不得.’ 靠却拄杖, 擬議不來, 劈脊便打.”

#### [설화]

원상을 그린 바로 그 순간에 학인의 등골이 쪼개지도록 때렸어야 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찌 ‘망아지 한 마리가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짓밟을 것이다’라 운운한<sup>5)</sup> 마조의 명성에 걸맞다 하겠는가!

雪竇: 畫圓相處, 須是劈脊便打. 若不如是, 何名馬駒踏殺天

5) 망아지는 마조를 가리킨다. 마조라는 걸출한 선사가 출현하리라고 예언한 만야다라(般若多羅)의 말이다. 본서 161則 주석3) 참조.

下人云云也.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엄

“문턱에 걸쳐 선 기틀<sup>6)</sup>이면서, 방 안 깊숙이 들어선 뜻이기도 하다. 안목을 갖춘 자는 분명하게 분별해 보라!”

天童覺拈, “跨門之機, 室中之意. 具眼者, 分明辨取!”

[설화]

문턱에 걸쳐 선 기틀 : 나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 안 깊숙이 들어선 뜻 :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안목을 갖춘 자는 분명하게 분별해 보라 : 방 안의 뜻을 분별해 보라는 말이다.

---

6) 과문지기(跨門之機). 문턱을 사이에 두고 양다리를 한 쪽씩 걸치고 서 있으면 출입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없듯이, 상반되는 것 중 어느 한편으로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문 또는 기틀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천동정각은 다른 곳에서 암두와 덕산의 문답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이 뜻을 드러내고 있다. “암두가 덕산을 방문하여, 방장실 문턱에 걸쳐 선 채 물었다. ‘범속합니까? 성스럽습니까?’ 덕산이 바로 할을 내지르니 암두가 절을 올렸다.”(『從容庵』 22則 大8 p.241b16. 巖頭到德山, 跨門便問, ‘是凡是聖?’ 山便喝, 頭禮拜.) ; 천동정각의 「評唱」.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 여러 선사들은 문에 걸쳐 선 기틀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정말로 문턱에 걸쳐 서서 묻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어떤 외도가 손에 살아 있는 참새를 움켜쥐고 부처님께 물었다. ‘손 안의 참새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발을 문턱에 걸치시고 되물으셨다. ‘그대가 대답해 보라. 내가 나가려고 하는가, 들어오려고 하는가?’”(『從容庵』 22則 「評唱」 大48 p.241b25. 此問, 諸方謂之跨門之機, 未必當初眞跨門問來. 昔有外道, 手中藏活雀兒, 問世尊曰, ‘手中雀兒, 爲活爲死?’ 世尊以足跨門云, ‘汝道, 吾欲出欲入?’)

天童：跨門之機者，似出似入也。室中之意者，不干出入者也。  
具眼云云者，辨取室中之意也。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설두는 단지 하나만 알았다. 그 스님은 처음부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로 원상 안으로 들어선 것이니 본분을 추구하는 납승<sup>7)</sup>과 흡사했다고 할 것이다. 마조가 때리기를 기다려 주장자를 빼앗아 거꾸로 되돌려 주기까지 했었더라면 어찌 작가<sup>8)</sup>의 경지가 아니었겠는가! 그는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것이니 단지 벌거벗고 번득이는 칼날에 무모하게 맞서는 놈에 불과했던 것이다.”

法眞一拈，“雪竇只知其一。者僧當初不惜命便入也，恰似个衲僧。待他打時，接住拄杖，倒與一送，豈不是作家！他既不知，只是个赤肉，挨白刃底漢。”

### [설화]

그 학인의 입장에 서서 그의 행위에 부족했던 점을 도와주는 말이다.

法眞：立在這僧邊，讚助這僧行李也。

7) 衲僧. 납자(衲子)라고도 한다. 납의(衲衣)를 입은 스님이라는 말. 납의는 누덕누덕 기운 옷으로, 납은 형질을 모아 빨아서 바늘로 기운 옷이다. 조사전에서는 본분을 철저히 추구하는 수행자라는 뜻으로 쓰인다.

8) 作家. 선의 달인인 선장(禪匠)을 나타내는 말이다. 작가종사(作家宗師) 또는 작가종장(作家宗匠) 등이라고도 한다. 장인(匠人)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뛰어난 기량으로 학인을 단련하여 이상적 선사로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다.







177칙 百丈野鴨 백장야압





## 177칙 백장야압 百丈野鴨

### [본칙]

백장회해선사가 마조를 따라 걸어가다가 들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조가 물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백장이 말했다.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날아갑니다.” 마조가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자, 백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마조가 말했다. “언제 날아간 적이 있느냐?”

百丈懷海禪師，隨馬祖行次，見野鴨子飛過。祖云，“是什麼？”師云，“野鴨子。”祖云，“什麼處去也？”師云，“飛過去也。”祖遂扭師鼻頭，師作忍痛聲。祖云，“何曾飛過去？”

### [설화]<sup>1)</sup>

‘들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 날아간 적이 있느냐?’라고 한 문답은 하루 24시간 중 만나는 경계와 마주치는 인연이 모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귀착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현상 속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씨먹을 수 있지만, 만약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세간에 널리 행해지는

---

1) 이 〈설화〉는 『碧巖錄』 53則 大48 p.188a11에 나오는 원오(圓悟)의 「평창」에 따른다.

그릇된 말만 퍼뜨리는 꼴이 될 것이다.<sup>2)</sup> 이것을 ‘두 가지가 아닌 성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한다.

見野鴨子至過去者，十二時中，遇境逢緣，宛轉歸就自己也。會則途中受用，不會則世諦流布。此謂無二性得入。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들오리여, 어느 곳에 있는가?

마조가 이를 보고 말을 걸었다네.

산과 구름, 바다와 달의 실정을 모두 말한 것인데,<sup>3)</sup>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날아갔다고 하네.

날아가려는 순간 짝 붙들었노라.<sup>4)</sup>

2) 도중수용(途中受用)과 세제유포(世諦流布)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예는 『雲門廣錄』 등에 보인다. “‘무엇이 도중수용입니까?’ ‘7에 9를 곱하면 63이다.’ ‘무엇이 세제유포입니까?’ ‘강서·호남·신라·발해.’” (『雲門廣錄』 권상 大47 p.549c18. 問, ‘如何是途中受用?’ 師云, ‘七九六十三.’ 進云, ‘如何是世諦流布?’ 師云, ‘江西湖南新羅渤海.’); “근본적인 뜻을 알아차렸다면 현상 속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씨먹을 수 있는 것이 마치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하여 사는 것과 같이 자유롭겠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세간에 널리 행하여지는 그릇된 말만 퍼뜨려 마치 숫양이 울타리를 받다가 뿔이 울타리에 걸려 꼼짝 못하거나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걸려들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碧巖錄』 8則「垂示」 大48 p.148a20. 會則途中受用, 如龍得水, 似虎靠山; 不會則世諦流布, 羝羊觸藩, 守株待兔.)

3) 마조는 들오리가 이곳저곳 등 무수한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뜻.

말해라, 말해!<sup>5)</sup>

雪竇顯頌, “野鴨子, 知何許? 馬祖見來相共語. 話盡山雲海月情, 依前不會還飛去. 欲飛去, 却把住. 道道!”

[설화]

설두의 계송 중 첫 구절은 백장에 관한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들오리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

산과 구름, 바다와 달의 실정 : 들오리가 본래 날아다니는 곳을 나타낸다.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 ‘날아갔습니다’라고 한 백장의 대답을 가리킨다.  
(그렇게 대답했으니 마조가) 어찌 꿈쩍 못하게 붙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말해라, 말해 : (마조가) 백장의 코를 비튼 것과 상응한다.

雪竇 : 上句, 非但百丈, 盡是野鴨子也. 山雲海月情者, 野鴨本來行李處也. 依前不會云云者, 飛過去也. 豈不是把住! 道道者, 扭師鼻頭也.

불인지청(佛印智清)의 송

스승과 제자가 한가롭게 풀 속을 거닐다가,

들오리 날며 우는 소리에 문득 생각이 일어났다네.

코를 비틀면서 도리어 이 일<sup>6)</sup>이 성립되었으니,<sup>7)</sup>

---

4) 파주(把住). 여기서는 ‘꼭 붙잡다’라는 직접적인 뜻으로 쓰였지만, 파주는 조사선의 도구이기도 하다. 곧 사유분별과 언어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본분을 고수하는 입장이며, 상황에 따라 갖가지 언어와 분별의 길을 펼치는 방행(放行)의 방법과 상대된다.

5) 아무 수단도 부리지 못하도록 붙들린 상태에서 말해 보라는 설두의 주문이다.

신라에서 정오에 삼경을 알리는 종을 친 격이로다.<sup>8)</sup>

佛印清頌, “師資閑向草中行, 野鴨飛鳴意忽生. 鼻孔扭翻成底事, 新羅日午打三更.”

### 상방일익(上方日益)의 송

물은 서쪽과 동쪽으로 흐름이 정해지나,  
갈대꽃은 흔들리는 방향이 따로 없다네.<sup>9)</sup>  
사조(沙鳥)<sup>10)</sup>가 홀연히 날아오니,  
고기 잡는 이는 한밤의 새소리에 놀라네.  
달빛을 찾을 곳이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본래부터 가을 강 바로 그곳에 있었노라.

上方益頌, “流水有西東, 蘆花無背向. 沙鳥忽飛來, 漁人驚夜

- 
- 6) 저사(底事). 본래의 일. 궁극적인 일이라는 뜻으로 본분사를 가리킨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침범하지 않으니, 산은 높을 뿐이요 물은 깊을 뿐이로다. 천차만별의 현상에서 본분사[底事]를 밝히니,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신선하구나.” (『洞山語錄』 大47 p.516a15. 衆生諸佛不相侵, 山自高兮水自深, 萬別千差明底事, 鷓鴣啼處百花新.)
- 7) 평범한 현상을 보았을 뿐이지만 마조가 백장의 코를 비틀면서 본분사를 지시하는 지침이 되었다는 뜻이다.
- 8) 정오에 삼경(밤 11시~새벽 1시)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 실제로 삼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렇게 착각을 유도한 마조의 언행이 곧 본분을 지향하는 관문이다. 코를 비튼 것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그런 듯이 유도한 것에 선사로서 마조의 뛰어난 기량이 보인다.
- 9)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물과 흔들리는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없는 갈대꽃을 대비시켰다. 이는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오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 10) 사주(沙洲) 등 물가에 사는 새를 일컫는 말.

唱. 誰道月明無處尋? 元來只在秋江上.”

### 승승원공(崇勝院珙)의 송

오리도 오리가 아니요,  
사람도 사람이 아니니,  
슬피 우는 소리 예나 지금이나 신선하구나.  
조주와 문원은 함께 못난이 내기를 하였고,<sup>11)</sup>  
왕로는 누구에게도 제 몸을 팔 수 없었다.<sup>12)</sup>  
다만 삼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에는  
일 년에 두 번 돌아오는 봄을 맞기 때문이라네.

崇勝珙頌, “鴨非鴨, 人非人. 噯噯之聲今古新. 趙州文遠同鬪  
劣, 王老無人獨賣身. 只因三歲閏之餘, 一年翻遇兩廻春.”

- 
- 11) 조주(趙州)와 그의 제자 문원(文遠)의 다음 문답을 말한다. “조주가 어린 스님인 문원과 누구든 나은 편을 차지하면 지는 것이니 나은 편을 차지하는 사람이 진 대가로 호떡을 사오기로 약속을 정했다. 조주가 먼저 ‘나는 한 마리의 나귀이다’ 라고 하자 문원이 ‘저는 나귀의 위장입니다’라고 응수했다. ‘나는 나귀의 똥이다.’ ‘저는 그 똥 속에서 사는 벌레입니다.’ ‘너는 그 속에서 무얼 하느냐?’ ‘저는 그 속에서 하안거를 보냅니다.’ ‘호떡을 가져오너라.’”(『趙州語錄』古尊宿語錄14 冊118 p.330a1. 師與小師文遠論義, 不得占勝, 占勝者輸餠餅. 師云, ‘我是一頭驢.’ 遠云, ‘我是驢胃.’ 師云, ‘我是驢糞.’ 遠云, ‘我是糞中虫.’ 師云, ‘你在彼中作麼?’ 遠云, ‘我在彼中過夏.’ 師云, ‘把將餠餅來.’)
- 12) 왕로(王老)는 왕노사(王老師) 곧 남전보원(南泉普願)을 말한다. “남전이 대중에게 말했다. ‘왕노사가 몸을 팔고자 하는데, 누가 사겠는가?’ 어떤 학인이 나와 말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왕노사)는 비싸게 값을 매기지도 않고 싸게 매기지도 않았는데, 너는 얼마에 사겠느냐?’ 학인은 대답하지 못했다.”(『景德傳燈錄』권8「南泉普願傳」大51 p.258a18. 師示衆云, ‘王老師要賣身, 阿誰要買?’ 一僧出云, ‘某甲買.’ 師云, ‘他不作貴價, 不作賤價. 汝作麼生買?’ 僧無對.)

### 원오극근(圓悟克勤 : 장산극근)의 송

들오리가 앞개울을 지나가는데,  
온갖 봉우리가 찬 빛을 띠고 우뚝 서 있다.  
돌아보나 그들이 돌아갈 곳을 모르니,  
옆에서 두드려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네.  
의심덩어리를 비틀자 쓸모없는 말<sup>13)</sup>도 녹아버리니,  
휩쓰는 바람이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구나.  
구름과 산과 바다와 달이 모두가 하찮은 현상이로다.  
한마디로 근본에 돌아가야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리.

蔣山勤頌, “野鴨過前溪, 千峯凜寒色. 相顧不知歸, 未免資傍擊. 扭破疑團葛怛銷, 捎風直透青霄. 雲山海月渾餘事. 一語歸宗萬國朝.”

### 불감혜근(佛鑑慧懃)의 송

마조는 그대가 안목이 없음을 애처롭게 여겨,  
들오리를 빌려와 그 소식에 통하도록 하였네.  
코에서 비린 피가 흐르게 되면서도  
노파의 있는 힘을 다 허비했을 뿐이로다.

佛鑑懃頌, “馬師憫汝無知識, 借來鴨子通消息. 直得鼻頭羶血流, 費盡老婆多少力.”

---

13) 갈달(葛怛), 갈등(葛藤)과 달달(怛怛)을 혼합한 말로 보인다. 모두 복잡하게 얽힌 말 또는 쓸모없이 많은 말을 나타낸다.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송

풀 속에 오리 언제나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날아갔다'고 알리니 어찌 까닭 없이 그랬으랴!  
코짚이야 얼마나 쓸데없는 가죽에 불과한가?  
가로세로 어디로든 마음대로 뚫어라.

佛眼遠頌, “草裏尋常萬萬千, 報云飛去豈徒然! 鼻頭是甚閑皮  
草,<sup>14)</sup> 十字縱橫一任穿.”

---

14) ‘革’의 잘못으로 보인다.





181칙 百丈再參 백장재참





## 181칙 백장재참 百丈再參<sup>1)</sup>

### [본칙]

백장이 마조에게 법을 물으러 다시 찾아갔을 때 마조가 불자를 꺾듯이 세우자 백장이 말했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 마조가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 놓았다.<sup>2)</sup> 백장이 말없이 있자 마조가 말했다. “너는 훗날 이렇게 두 입술을 놀리면서 무엇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번에는 백장이 불자를 가져다 꺾듯이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인가, 이것을 떠난 작용인가?” 백장이 다시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었더니, 마조가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그 소리에 백장은 사흘 동안 귀가 멀었다. <훗날 황벽이 백장 문하에 있다가 어느 날 작별인사를 하며 “마조께 예배하러 가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백장이 말했다. “마조

- 
- 1) 백장회해(百丈懷海)가 스승인 마조도일(馬祖道一)과 나눈 문답을 기초로 한 공안. 조사선 초기의 문답방식과 선사상이 잘 나타나는 공안이다. 이것 그대로의 ‘즉(卽)’과 이것을 떠나는 ‘리(離)’ 가운데 그 어느 것인지를 묻는 형식이 이 공안의 주안점이다. 이것은 후대 간화선에서 화두를 제기하거나 설정하는 전형적인 양식이 되었다.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는 것은 즉과 리 그 어느 것도 통하지 않는 은산철벽(銀山鐵壁)의 경계를 나타낸다.
  - 2) 앞에서 불자를 꺾듯이 세운 것은 학인을 맞이하는 예법으로 설법을 하겠다는 표시이며, 여기서 불자를 원래의 자리에 걸어놓은 동작은 할 말을 다했으니 물러가라 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아래 <설화>에서 전자를 방행(放行), 후자를 파주(把住)에 각각 대응시킨 해설도 이 맥락에 준한 것이다.

께서는 이미 입적하셨다네.” “마조께서는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백장이 마조를 다시 찾아가 법을 물었던 인연을 들려주며 말했다. “당시에 나는 마조에게 할을 한 번 당하고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네.” 황벽이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들었다. 백장이 말했다. “그대는 다음에 마조의 법을 잊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조의 근본적인 기틀에서 나오는 작용을 알기는 했으나, 마조의 본체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조의 법을 잇는다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을 망칠 것입니다.”

百丈再叅馬祖，祖豎起拂子，師云，“卽此用，離此用？”祖掛拂子於舊處，師良久，祖云，“你已後，開兩片皮，將何爲人？”師遂取拂子豎起，祖云，“卽此用，離此用？”師亦掛拂子於舊處，祖便喝。師直得三日耳聾。〈後黃蘗到百丈，一日辭，“欲禮拜馬祖去。”丈云，“馬祖已遷化也。”蘗云，“未審馬祖有何言句？”丈遂舉再叅因緣云，“我當時被馬祖一喝，直得三日耳聾。”黃蘗聞舉，不覺吐舌。丈云，“子已後，莫承嗣馬祖否？”蘗云，“不然。今日因師舉，得見馬祖大機之用，且不識馬祖。若嗣馬祖，已後喪我兒孫。”〉

### [설화]

백장이 마조에게 법을 물으러 다시 찾아갔다 : 방장에 주석하다가<sup>3)</sup> 다시 찾아간 것이다. 이는 평상시 회중에 있으면서 터득한 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시 찾아갔다’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보광법당(普光法堂)에서 두 차례 설법<sup>4)</sup>한 것과 같다.

**총림에서** 이 공안에 대하여 헤아리며 이렇게 말한다. “마조가 곳곳이 세

3) 자신도 독립하여 한 총림의 대중을 이끄는 최고 지위에 있었다는 말.

4) 『화엄경』 설법은 모두 일곱 곳에서 아홉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를 ‘칠처구회(七處九會)’라고 한다. 보광법당은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설법이 이루어진 곳이다.

운 것은 털이 길게 늘어진 불자이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한 말은 ‘이 불자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 불자를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물은 말이니, 배촉관<sup>5)</sup>이다. ‘마조가 ~ 자리에 걸어 놓았다’라는 것은 배(背)와 촉(觸)을 모두 떠난 것이다. 백장이 ‘불자를 가져다 곳곳이 세운 것’과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 놓은 것’은 하나의 그릇에 담긴 물을 고스란히 다른 그릇에 부어서 전하는 것과 같았다.<sup>6)</sup> 강론하는 자들은 이처럼 확일적으로 말하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꿀 수 없는 견해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백장은 당시에 대사(大事)를 밝히지 못한 상태였는데, 마조가 불자를 세우는 것을 보자마자

- 
- 5) 背觸關. 즉(卽)과 리(離)를 모두 차단하여 관문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은 촉(觸), 리는 배(背)에 각각 상응한다. 본서 108則 주석2), 165則 주석3), 1331則 주석1) 참조.
- 6) 여수전기(如水傳器). 사병전기(寫瓶傳器)와 같은 말이다. 스승의 법이 남김없이 제자에게 전승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이다. “이 아난비구는 많이 알고 그대로 간직하여 큰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항상 여래를 따르기에 범행이 청정하고, 불법을 들으면 하나의 그릇에 담긴 물을 다른 그릇에 조금도 남김없이 옮겨서 전하듯이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佛祖歷代通載』 권3 大49 p.496c15. 此阿難比丘, 多聞總持, 有大智慧, 常隨如來, 梵行清淨, 所聞佛法, 如水傳器, 無有遺餘.) ; 『釋氏要覽』 권중 大54 p.293b4에 따르면, “병의 물을 쏟아 다른 그릇에 전함: 경에 ‘아난이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은 것은 마치 물병에 담긴 물을 쏟아 다른 그릇에 모두 전하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았다’라고 하였다. 물병과 그릇은 비록 다르지만 주고받은 물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寫瓶傳器: 經云, ‘阿難, 領受佛法, 如瀉瓶水, 傳之別器, 更無遺餘.’ 瓶器雖殊, 水則無別.)라고 하였는데, 인용한 경전은 40권본 『大般涅槃經』 권40 大12 p.601b26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백장이 마조가 앞서 한 동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두고 그것이 마조의 법을 고스란히 이은 징표라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끌어들이는 비유이다.

배측관을 질문으로 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배측관은 안목을 제대로 갖춘 종사가 자유자재로 써먹는 경계이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그릇에 담긴 물을 고스란히 다른 그릇에 부어서 전하는 것과 같이 마조의 경지를 온전히 깨달아 관문을 통과하고 더 이상 뒤에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마조에게 한 번의 할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대사를 마쳤다는 말 또한 옳지 않다. 상세히 따져보기 바란다.

마조가 곳곳이 세운 것은 한 자루 불자이다. 그러므로 털이 길게 늘어진 그것을 떠나서 별도로 찾을 것은 없다. 불자를 곳곳이 세운 동작은 찾아온 학인을 응접한 것이니 곧 방행(放行)이고, 불자를 걸어 놓은 것은 학인을 응접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곧 파정(把定)<sup>7)</sup>이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 : 어떤 책에는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 그대로의 작용’은 불자를 세운 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떠난 작용’은 불자를 걸어 놓은 것을 가리킨다.

말없이 있재(良久) : 설법하다가 잠깐 침묵하는 사이를 말한다.

너는 훗날 ~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 궁극적인 도리로 학인을 가르치려고 간절하게 밀어 붙이며 따진 것이다.

백장이 불자를 세웠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 놓은 것 : 하나의 그릇에 담긴 물을 고스란히 다른 그릇에 부어서 전하듯이 마조의 뜻을 아직 다 터득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그날 비로소 배운 것도 아님을 뜻한다. 만약 그날 배

---

7) 파정과 방행. 본서 1則 주석37) 참조.



워서 마조가 불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백장은 들오리 소리를 듣고 마조에게 코를 비틀리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sup>9)</sup> 다음 날 마조가 법좌에 오르자 나와서 배석(拜席)을 걷어버린 것<sup>9)</sup>은 자신이 본 그 경계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것은 ‘제도할 중생이 없는데 법좌에 올라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뜻이다. 마조가 방장으로 돌아가 백장에게 물었다. “방금 전에 내가 설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배석을 걷어버렸는가?” 화상께 코가 비틀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대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었는가?” “오늘은 코가 오히려 아프지 않습니다.” 마조가 “그대는 오늘의 일[今日事]<sup>10)</sup>을 훤히 알았구나”라고 말하자 백장이 예배하고 물러갔다고 한다.<sup>11)</sup> 오늘은 코가 오히

8) 본서 177則「百丈野鴨」본칙 참조.

9) 『景德傳燈錄』 권6 「百丈懷海傳」大51 p.249c3, 『碧巖錄』 53則「評唱」大48 p.188a18 참조.

10) 본래사(本來事)·본분사(本分事)의 상대어이다. 본래사가 무차별의 본분을 깨닫는 일이라면 금일사는 매일의 일상과 시절에 따라 변화하는 차별된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므로 금일의 차별된 일을 밝히는 것에 의하여 무차별의 본분사에 도달하는 방법이 선가의 상용 수단이다.

11) 뒤에 생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장이 시자의 요사(寮舍)로 돌아와 울자 함께 일하는 시자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우느냐?’ 화상께 가서 물어보아라.’ 시자가 마조를 찾아가 묻자 마조가 말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시자가 다시 요사로 돌아와 백장에게 묻자 백장이 소리 내어 크게 웃었다. 시자가 ‘조금 전에는 울더니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는 게냐?’라고 묻자 백장이 대답하였다. ‘내가 조금 전에는 울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웃음이 난다.’”(『碧巖錄』 53則「評唱」大48 p.188a24. 却歸侍者寮哭, 同事侍者問云, ‘爾哭作什麼?’ 丈云, ‘爾去問取和尚.’ 侍者遂去問馬祖, 祖云, ‘爾去問取他看.’ 侍者却歸寮問百丈, 丈却呵呵大笑. 侍者云, ‘爾適來哭, 而今爲什麼却笑?’ 丈云, ‘我適來哭, 如今却笑.’); 『百丈語錄』 己119 p.817b9에는 마조의 상당 법문에서 백장이 배석을 걷은 일화 없이 코가 비

려 아프지 않다고 한 말은 ‘비록 본래부터 있기는 하나 반드시 새로운 경험[新熏]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시자의 요사로 돌아가서 문득 소리 내어 울다가 다시 웃었던 것은 어제는 코가 아파서 울고 오늘은 코가 아프지 않아서 웃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체로 금일사(今日事)와 본분사(本分事)를 모두 갖추어 깨달은 경계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조가 불자를 곳곳이 세우는 것을 보자마자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에 터득한 바가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체(體)를 갖추기는 했으나 미미하여 그 극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극문(眞淨克文)은 “나그네의 마음은 걸음마다 상대를 따라 변하니 근본적인 위광이 있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마조가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 이 한 소리[一喝]는 바로 위음왕불 이전<sup>12)</sup>의 무늬 없는 도장<sup>13)</sup>이니, 이 도장으로 한 번 찍어버렸다는 뜻이다. 어떤 책에 ‘위세를 떨치며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라고 한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들어 보였다는 뜻이다.

**시를 동안 귀가 멀었다 :** 이전에 얻었던 하나하나가 산산이 부서졌으니 여기에 이르러 궁극의 상세한 소식을 체험으로 알아차려 마조의 뜻을 깊이 터득했다는 말이다. 양산혜적(仰山慧寂)이 ‘백장은 마조의 대기(大機)를

---

틀린 뒤에 바로 요사로 돌아와 우는 상황으로 묘사되어 전후의 이야기 배치가 다르다.

12) 위음나반(威音那畔). 위음왕불 시기 저쪽 너머라는 말. 위음왕불이전(威音王佛以前)과 같은 말이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공겁이전(空劫以前) 등과 같은 말이다. 본서 988則 주석13) 참조.

13) 무문인자(無文印子). 무늬가 없는 도장. 곧 언어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심인(心印)을 가리킨다. 무자인(無字印) 또는 불조심인(佛祖心印)이라고도 한다.

얻었고 황벽은 마조의 대용(大用)을 얻었다<sup>14)</sup>라고 한 말이 이 뜻이다. 그러나 불자를 세운 방행과 불자를 걸어 놓은 과정을 떠나서 대기대용<sup>15)</sup>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과 방행 그대로 깨달은 것이다. 옛사람이 “말 후구<sup>16)</sup>를 그대에게 설하니, 밝음과 어둠이 하나의 짝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sup>17)</sup>”라고 한 말도 대체로 이 의미와 같다. 그런데 애초에 백장이 마조가 불자를 세웠다가 걸어 두는 바로 그때 그 의미를 속속들이 터득했다면, 마조가 과정과 방행 외에 무엇을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백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조가 바로 위세를 떨치며 한 소리 크게 내질렀던 것이니, 달 속의 계수나무를 베어 없애면, 밝은 달빛이 더욱 많이 쏟아진다는 점<sup>18)</sup>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14) 『仰山語錄』大47 p.587b18.

15) 大機大用. 속박을 벗어난 활발한 작용. 분별하고 사고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행이 본분과 하나가 되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발휘되는 작용을 말한다. 대체로 마조(馬祖)로부터 시작되어 임제(臨濟)에서 완성된 선풍(禪風)이라고 본다. 대기와 대용을 구별하는 경우 대기는 법체(法體) 또는 근본을 깨달은 경지, 대용은 그것을 밖으로 활발하게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16) 末後句. 본서 1則 주석26) 참조.

17)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계송에 나오는 구절. 『碧巖錄』51則 「頌」大48 p.186c17 참조.

18) 두보(杜甫)의 시 「一百五日夜對月」에 나오는 구절. 달빛을 가리는 계수나무를 베어 없애면 달빛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말. 선가에서는 틀에 박힌 집착을 제거하면 실상을 보는 밝은 눈이 열린다는 비유로 쓰인다. “집 떠나 한식을 맞으니, 눈물이 달빛처럼 흐르네. 달 속의 계수나무 베어 없애면, 밝은 달빛 더욱 많이 쏟아지리라. 떨어져 있어도 붉은 꽃 피었겠지만, 고운 눈썹 찡그리고 있을 님 떠올리네. 건우와 직녀는 하염없이 시름하며 그리워하니, 가을 칠석이면 은하수 건너 만나리.”(『無家對寒食，有淚如金波。斫却月中桂，清光應更多。此離放紅蕖，想像顰青蛾。牛女漫愁思，秋期猶渡河。』) ; “달의 맑은 빛이 계수나무에 가려진다는 말이다.”(『九家集注杜甫詩』권19, 言月之清光，爲桂所掩也.)

그렇다면 백장과 황벽은 모두 마조의 일할(一喝)을 빈틈없이[親] 이어 받은 것이다. 왜 그런가? 황벽이 “만약 마조의 법을 잇는다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을 망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만 대용만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만약 마조의 일할(一喝)을 빈틈없이 이어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기대용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백장은 대기만 얻었을 뿐이지만 더 이상 대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황벽은 대용만 얻었을 뿐이지만 더 이상 대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단이아곤 전혀 모르는<sup>19)</sup>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기 중에 대용이 있고, 대용 중에 대기가 있다”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꿈엔들 백장과 황벽의 경계를 알겠는가? 이렇게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순간을 맞아서 옛사람도 그저 “사람을 죽이는 칼[殺人刀]이요 사람을 살리는 검[活人劍]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sup>20)</sup>

19) 무파비(無巴鼻). 보통은 ‘언어로 표현하거나 사유분별로 파악할 수 없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단절된 경지’를 말한다. 마치 소의 고삐[巴鼻]가 없어서 소를 끌고 갈 방법이 사라진 상태와 같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는 통하지 않으며 마조의 할(喝)을 이해할 본질적인 수단이 없다고 보는 해석이 무난하다.

20) 마조의 할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했다가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기도 하며 자유자재로 긍정·부정을 바꾸어 가며 학인을 이끄는 기용(機用)이라고 평가하는 정도가 최선이며, 그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편은 없다는 뜻이다. 평지정각(宏智正覺)이 임제의 할에 대하여 이 방식으로 평가했다. “임제가 양당의 수좌에게 일체히 할을 내지르자 어떤 학인이 물었다. ‘손님과 주인이 나누어집니까?’ ‘손님과 주인이 뚜렷이 나누어졌다.’ 이 일화를 제기하고 평지정각이 평가했다.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살리는 검이 임제의 손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좌들이 곧바로 할을 하여 설령 그들이 크게 신통을 보였더라도 같은 목소리로 웅한 결과가 될 뿐이다.’”(『宏智廣錄』 권3 大48 p.29b21. 學, 臨際兩堂首座齊下喝, 僧問際, ‘還有賓主也無?’ 際云, ‘賓主歷然.’ 師云, ‘殺人刀活人劍, 在臨際手裏. 雖然如是, 當時便與一喝, 直饒他大逞神通, 也祇得同聲相應.’)

仰山再叅潙山<sup>21)</sup>者，住方後再叅也。此則常在會中，所得法與昔不同。故曰再叅也。例如佛重會普光也。叢林中商量此話云，“馬祖豎起地，毛毯毯地拂子也。卽此至用者，卽此拂子用，離此拂子用，卽背觸關。祖掛至處者，背觸俱離也。師遂取拂子豎起，又掛拂子於舊處者，如水傳器。”講若畫一云云，此古今不易之論。愚以爲不然。何者？百丈，當時未明大事矣，才見馬祖豎起拂子，直以背觸關爲問，無有是處。又背觸關，具眼宗師受用，非行李邊事也。若也如水傳器，已透得關，更無後事，被一喝然後事畢，亦無有是處。請詳辨之。馬祖豎起地，一條拂子也。然非離毛毯毯地外別討也。豎起則接待來機，卽放行也；掛拂子則不待來機，卽把定也。卽此用，離此用者，一本云，“只這箇，別更有在？”則卽此用，指豎起拂子處；離此用，指掛拂子處。良久者，說法須臾之間也。你已後，至爲人者，末後爲人，曲折推徵也。師豎起拂子，又掛拂子者，雖未盡得馬祖意，如水傳器，又非今日方始學得也。若也今日學得，才見豎起拂子，便問卽此用離此用，無有此理。聞野鴨子聲，被馬祖扭得鼻孔，遂有省，值陞座，出捲拜席，是呈似已見也。意謂無有衆生可度，陞座圖箇什麼也。祖下座歸方丈，問曰，“我適來未曾說法，你爲什麼捲却拜席？”師曰，“被和尚扭得鼻孔。”祖曰，“你昨日，向什麼處留心？”師曰，“今日鼻孔又不痛。”祖曰，“你深明今日事。”師乃作禮云云。今日鼻頭又不痛者，意謂雖是本有，必借新熏也。却歸侍者寮，忽然哭，又忽然笑者，昨日鼻頭痛故哭；今日鼻頭

21) ‘百丈再叅馬祖’로 되어야 옳다.

又不痛故笑。盖今日本分，俱備見處，不偏枯故也。是以，才見馬祖豎起拂子，便道卽此用離此用。若也無所得，爭能伊麼？雖然如是，具體而微，未臻其極。故眞淨文云，“客情步步隨人轉，有大威光不能現。”祖便喝者，這一喝，直在威音那畔，無文印子，一印印破也。一本云，‘振威一喝者’，盡力提持也。三日耳聾者，前來所得，一一撲落，到此，體會末後曲折，深得馬祖意。仰山所謂，‘百丈得大機，黃蘗得大用。’然非離豎拂放行，掛拂把定，會得大機大用，卽此把定放行而會得。古人云，“末後句爲君說，明暗雙雙地時節。”盖此義也。然則當初百丈，若於馬祖豎拂掛拂處，深得其意，把定放行外，圖箇什麼？百丈旣不能故，馬祖直得振威一喝，信知斫却月中桂，清光應更多。然則百丈黃蘗，莫不親承馬祖一喝。何故？黃蘗云，“若承嗣馬祖，已後喪我兒孫。”此無他，但明得大用故云耳。若不親承馬祖一喝，何名大機大用？故百丈只得大機，更不要大用；黃蘗只得大用，更不要大機。有一般無巴鼻地道，“大機中有大用，大用中有大機。”若伊麼，何曾夢見百丈黃蘗。到這時節，古人，只道得箇殺人刀活人劍。

## 분양선소(汾陽善昭)의 송

언제나 일 없이 스님 곁에서 시봉을 들었는데,  
스님이 선상 모서리에 걸린 불자를 가리켰다네.

들거니 놓거니 하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서니,  
분명하게 내지른 소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노라.

〈이 계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지은 것이다. 백장이 마조를 다시 찾아가 시봉을 들던 중 마조가 눈짓으로 선상 모서리에 걸려 있는 불자를 가리켰다. 백장이 마조에게 말했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 “너는 훗날 이렇게 두 입술을 놀리면서 무엇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백장이 불자를 가져다 곳곳이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 그대로의 작용인가, 이것을 떠난 작용인가?” 백장이 불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었더니, 마조가 위세를 떨치며 한 소리 크게 내걸렀다.<sup>22)</sup>〉

汾陽昭頌, “每因無事侍師前, 師指繩床角上懸. 舉放却歸本位立, 分明一喝至今傳.” 〈此本, 百丈再叅侍立次, 祖以目視繩床角拂子. 丈曰, “卽此用, 難此用?” 祖曰, “你向後, 開兩片皮, 將何爲人?” 丈取拂子豎起. 祖曰, “卽此用, 離此用?” 丈掛拂子於舊處, 祖振威一喝.〉

#### [설화]

들거니 놓거니 하다 ~ 오늘날까지 전해지노라 : 불자를 세우거나 놓는 행위로 위세를 떨치며 한 소리 크게 내지른 경지를 빈틈없이 이어받지 않음이 없었다는 뜻이다.

汾陽：舉放却歸本位立云云者，豎拂放拂，無不親承振威一喝也.

22) 이렇게 구성된 내용은 『雪竇語錄』 권3 大47 p.685b21, 『虛堂語錄』 권2 大47 p.1000a26 등에서도 볼 수 있다.

##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우(羽) 두드리니 상(商)<sup>23)</sup>으로 응하여 닿는 곳마다 통하니,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의지하며 종풍을 드러냈다네.  
위세 떨친 한 번의 할에 서리 내리고 폭풍이 치니,  
뚜렷이 드러난 무늬야 보건 말건 듣지는 못하리라.

大覺璉頌, “叩羽鳴商觸處通, 師資交互現宗風. 振威一喝霜飈起, 任是昭文也不聰.”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대웅봉<sup>24)</sup>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함께 걸어갈 길에 풀이 무성히 자라 늘어졌네.<sup>25)</sup>  
돌아보며 지른 한 소리에 하늘과 땅 어두워지고,  
두 귀는 모두 먹어 전혀 들리지 않았노라.

薦福逸頌, “大寂雄峯再會時, 相將行處草離離. 迴頭一喝乾坤黯, 兩耳都聾揔不知.”

23) 우와 상은 모두 오음계(五音階)의 음자리이다.

24) 대적웅봉(大寂雄峯). 대웅봉(大雄峯)을 말하니 곧 홍주의 백장산(百丈山)을 말한다. 백장이 제시한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이라는 공간으로 유명하다. 현재 중국 강서성(江西省) 봉신현(奉新縣) 서쪽 120리 지점으로 파양호 부근에 있다.

25) 사람의 발길이 드문 풍경을 나타내는 선종의 상용구이다. 마조의 할과 그것에 대한 백장의 응답이 한 치의 방편도 허용하지 않는 본분의 기틀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모든 인지 수단을 틀어막아 학인들의 접근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선풍을 나타낸다. 3구와 4구에 그 맥락이 이어진다.



###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놓았다 거두어들이는 이곳에 누가 관문<sup>26)</sup>이 없다 하는가!

마조가 누설한 기관<sup>27)</sup>을 보았는가?

천둥 같은 한 할에 듣는 자들의 귀는 모두 상할 것이니,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린 것도 오랜 기간은 아니리라.

蔣山泉頌, “放收誰道沒警訛! 漏洩機關見也麼? 一喝如雷聞者喪, 耳聾三日未爲多.”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한 할의 뜻도 총림에서 가려내는 자 드문데,

예나 지금이나 귀먹은 까닭 억지로 뚫어보려 하네.<sup>28)</sup>

등룽은 손뼉을 치며 깔깔대고 웃고,

노주는 머리 숙이고 눈썹 찌푸린다.<sup>29)</sup>

海印信頌, “一喝叢林辨者稀, 耳聾今古強針錐. 燈籠撫掌呵呵笑, 露柱低頭却皺眉.”

26) 오와(訛訛), 효와(誨訛)와 같다. 화두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정의에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반복하여 ‘교란’시키며 속이는 언행을 보이기 때문에 효와라 한다. 이러한 현혹의 장치가 관문(關門)이다.

27) 機關. 일정한 장치를 가진 관문. 간화선은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므로 기관선(機關禪)이라고도 한다.

28) 귀가 먹은 것은 마조의 대용(大用)으로서 인지 수단으로는 파고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뜻. 바늘과 송곳의 뚫는 작용을 인식에 비유했다.

29) 등룽(燈籠)은 등불을 담는 기구로서 마조의 할을 알아챈 자를 비유하고, 노주(露柱)는 빛이 없는 기둥으로서 할을 알아채지 못한 우둔한 사람을 비유한다.

##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

나그네의 마음은 걸음마다 상대를 따라 변하니,  
근본적인 위광이 있더라도 나타낼 수가 없네.  
갑작스런 한 할에 두 귀가 모두 멀어버리자,  
나타<sup>30)</sup>의 눈이 황벽의 얼굴에 열렸네.

眞淨文頌, “客情步步隨人轉, 有大威光不能現. 突然一喝雙耳  
聾, 那吒眼開黃蘗面.”

[설화]

갑작스런 한 할에 ~ 황벽의 얼굴에 열렸네 : 황벽이 대웅을 얻었다는 뜻이다.

眞淨 : 突然一喝至黃蘗面者, 黃蘗得大用也.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목마는 염부제 사람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sup>31)</sup>  
진흙용은 바닷물을 남김없이 마셔버렸도다.<sup>32)</sup>

30) 那吒, ㉔Nalakūvara, Nalakūbala. 불법을 지키고 신봉하는 국왕과 국토를 수호하는 선신(善神)이다. 나타태자(那吒太子)·나나천(那拏天)·나라구발라(那羅鳩鉢羅), 나타구발라(那吒俱鉢羅·那吒鳩跋羅) 등이라고도 한다. 북쪽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의 다섯 왕자 중 셋째로, 세 개 또는 다섯 개의 머리와 여섯 개 또는 여덟 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손에는 항상 금강장(金剛杖)을 들고 양 눈으로는 사방을 관찰한다. 밤낮으로 국왕과 대신·백관(百官)·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 등을 수호하고, 만약 이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나타태자가 금강장으로 악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을 찢어 죽인다.

31) 목마는 마조를 나타낸다. 주석44) 참조.

32) 마조가 방거사(龐居士)에게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들이켜면 말해 주겠다’라

하늘 가득 천둥 울려 퍼지자 산악 무너지고,  
서서히 무사한 평지에서 파도 일어나는구나.

保寧勇頌, “木馬蹋殺閻浮人, 泥龍飲竭滄溟水. 霹靂滿空山岳  
摧, 看看平地波濤起.”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궁극적인 지혜 밝히지 못해 다시 찾아 범 물으니,  
서로 쫓고 따르나 그 작용 떠맡지 못했다네.<sup>33)</sup>  
파도 끊고 물결 막아 온전한 본체 드러났지만,<sup>34)</sup>  
귀먹은 뒤 사흘 지났으니 누군들 그 뜻 알라!

東林總頌, “未明大智再參尋, 相逐相隨用不任. 斷浪截流全體  
現, 一聾三日孰知音!”

### 상방일익(上方日益)의 송

비 개였어도 뜬 구름 여전히 걷히지 않았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외마디 천둥소리 울리네.  
대유령의 매화<sup>35)</sup>는 벌써 봄소식을 전했으니,

---

고 한 취지를 가리킨다. 본서 161則 「馬祖一口」 참조. 1~2구는 모든 차별의 대상  
이 사라져 분별할 여지가 사라진 경계를 나타낸다.

33) 마조가 불자를 곳곳이 들고 제자리에 놓은 작용을 그대로 따라 했으나 받아들이기에 역량이 부족했다는 말.

34) 마조의 활로 망상의 흐름이 모두 단절되면서 온전한 본체가 드러난 것.

35) 본서 5則 주석31) 참조.

한꺼번에 피는 복숭아꽃과 비교할 수 없노라.<sup>36)</sup>

上方益頌, “雨霽遊雲尚未歸, 晴空忽地一聲雷. 嶺梅已得春消息, 不比山桃一例開.”

### 불인지청(佛印智淸)의 송

마조는 친히 옛 부처의 마음을 전했으니,  
대웅산의 회해가 그 뜻을 알아 차렸도다.  
그때 한 할로 사흘 동안 귀가 멀었으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소식 지금껏 전해지네.

佛印淸頌, “馬祖親傳古佛心, 大雄懷海是知音. 當時一喝聾三日, 無見無聞直至今.”

### 송승원공(崇勝院珙)의 송

한 할이 도리어 사흘 동안 귀 멀게 하니,  
만났을 때 누가 큰 인물인 줄 알았으랴?  
봄별은 비록 사사롭게 발휘한 힘없지만  
꽃잎은 어찌하여 점점 붉어지는가?  
점점 붉어짐이어!  
사씨 집 셋째 아들 이제 어부가 아니라네.<sup>37)</sup>

---

36) 눈 덮인 계절에 땅 밑의 봄기운을 전하는 매화는 외마디 천둥소리와 같은 마조의 할, 따뜻해진 뒤에 무리지어 피는 복숭아꽃은 이 말 저 말로 이해하려는 분별심을 상징한다.

37) 사씨 집 셋째 아들[謝三郎]은 현사사비(玄沙師備)를 말한다. 현사는 속성이 사씨

崇勝珙頌, “一喝翻令三日聾, 相逢誰識大家公? 春陽雖有無私力, 花臉寧教取次紅? 取次紅! 謝三不是釣魚翁.”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송 1

불자 걸고 꾸지람 들어 귀가 멀어버렸다 하니,  
납승이 어떻게 그 종풍의 진실을 증명하리오?  
금강신장의 뒤통수에 박힌 생철을 뽑아내니,  
화악산 세 봉우리가 거꾸로 하늘 향해 섰네.

佛眼遠頌, “掛拂遭呵耳便聾, 衲僧奚若驗宗風? 金剛腦後抽生鐵, 華岳三峯倒卓空.”

## 불안청원의 송 2

집안이 넉넉해야 효자가 나고,  
패권 국가에 모신<sup>38)</sup>이 있는 법.  
주먹으로 정면에서 후려했다면,  
후손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리라.

〈이것은 황벽이 혀를 내두른 것에 대해 읊은 송이다.〉

又頌, “家肥生孝子, 國霸有謀臣. 拳頭劈口撻, 未到無兒孫.”

〈此頌黃蘗吐舌〉

---

이며 집안의 3남이다. 출가하기 전에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업이었다. 출가하여 불도를 깨달은 어부 출신의 현사의 경우와 같이 할에 귀가 먹은 뒤 본분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38) 謀臣. 지혜가 뛰어난 신하.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송

아비와 자식이 만나 뜻이 통하니,  
용천의 보검<sup>39)</sup>을 다시 갈았다네.  
당시 마조의 할 밝히고자 한다면,  
대지와 산하가 모두 귀 먹으리라.

慈受頌, “父子相逢臭味同, 龍泉寶劍再磨礱. 要明馬祖當年  
喝, 大地山河盡耳聾.”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불자를 세웠다가 제자리에 걸어놓으니,  
남김 없는 기틀이 나타났다 사라지네.  
이것 그대로의 작용과 이것 떠난 작용,  
하나로 그은 듯 일치하여 분명하도다.<sup>40)</sup>  
정수리로 곧바로 천둥 같은 할을 울려,  
고황<sup>41)</sup>에 든 불치병 침으로 뽑아내네.  
한 할을 당하고 사흘 동안 귀먹었으니,  
사자의 위엄으로 마음껏 몸을 던진 것이라네.<sup>42)</sup>

39) 용천보검(龍泉寶劍). 고대 초나라에서 제작한 보검이다. 원래 이름은 용연(龍淵)이었는데, 당(唐) 고조 이연(李淵)의 이름자를 회해 용천이라고 불렀다. 월나라 구야자(歐冶子)와 오나라의 간장(干將)이 합작하여 만들었다. 구야자와 간장의 또 다른 합작품인 태아(太阿)와 한 쌍을 이룬다.

40) 본칙에 나온 대로 마조와 백장이 불자를 두고 똑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나타낸다.

41) 膏肓. 심장과 횡경막 사이. 이곳에 병이 생기면 낫기 어렵다고 한다.

42) 반척(返擲).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먹이를 덮쳐 잡는

수없이 담금질한 순금도 빛을 잃고 말리라.

다시 말했다. “있는가, 있는가? 돌!”

蔣山勤頌, “立拂掛拂, 全機出沒. 卽此離此, 講若畫一. 頂門  
當下轟霹靂, 鍼出膏肓必死疾. 承當一喝聲三日, 師子神威資<sup>43)</sup>  
返擲. 百鍊真金須失色.” 復云, “有麼? 有麼? 咄!”

[설화]

사자의 위엄으로 마음껏 몸을 던진 것이라네 : 사자가 먹이를 향해 몸을 던지는  
비결을 얻었다는 말이다.

수없이 담금질한 순금도 빛을 잃고 말리라 : 마조의 할에는 수없이 담금질한 순  
금도 빛을 잃고 말리라는 뜻이다.

있는가, 있는가 : 백장과 같은 자가 있느냐는 말이다.

돌 :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는 부정이다.

蔣山 : 師子神威資返擲者, 得獅子返擲決也. 百鍊真金云云者,  
馬祖喝下百鍊真金, 也須失色. 有麼有麼者, 如百丈子, 有麼  
也. 咄者, 設有, 也無用處.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망아지<sup>44)</sup>의 할에 가풍은 망가졌지만,

---

동작. 탁월한 선사의 활발한 작용을 상징한다.

43) 『圓悟語錄』 권18 大47 p.798b20의 같은 계송에 ‘資’는 ‘恣’로 되어 있다.

44) 마구(馬駒). 마조를 가리키는 말. “처음에 6조 혜능(慧能)이 남악회양(南嶽懷讓)  
에게 ‘인도의 반야다라삼장(般若多羅三藏)이 「그대의 문하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배출되어 세상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하

은 세상이 이로부터 소식이 통했다네.

뜨거운 화염 속에서 달을 건져낸 뒤,

우뚝한 기상으로 대웅봉에 홀로 앉았노라.<sup>45)</sup>

雲門杲頌, “馬駒喝下喪家風, 四海從茲信息通. 烈火燄中撈得月, 巍巍獨坐大雄峯.”

###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마조의 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니,

온전한 기를 남김없이 써 가문을 멸망시켰네.

사흘 귀먹은 일이 나무 스쳐간 바람인 듯하여,

저 황벽까지 연루시켜 후손들을 망쳐놓았도다.<sup>46)</sup>

竹庵珪頌, “江西一喝動乾坤, 大用全機是滅門. 三日耳聾風過樹, 累他黃蘗喪兒孫.”

---

였는데, 그것은 바로 마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회양의 제자 여섯 명 중에서 오직 마조만이 심인(心印)을 친밀하게 전수받았다.”(『馬祖語錄』 卍119 p.810b2. 初六祖, 謂讓和尚云, ‘西天般若多羅識, ‘汝足下一馬駒, 踏殺天下人’ 蓋謂師也.’ 讓弟子六人, 惟師密受心印.)

45) 백장에게 어떤 학인이 “기특한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백장이 “홀로 대웅봉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구절에 따른다.(『碧巖錄』 26則 大48 p.166c26. 僧問百丈, ‘如何是奇特事?’ 丈云, ‘獨坐大雄峯.’)

46) 바람은 아무 향기도 없지만 꽃나무를 스쳐 가면 그 향기를 싣고 멀리 퍼뜨릴 수 있듯이 마조의 할[바람]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백장의 말을 거쳐 황벽에게서 하나의 의미로 전해졌다는 뜻이다.



### 백운지병(白雲知鼎)의 송

큰 기틀과 큰 작용이 헛되게 전해지지 않았으니,  
불자 거는 순간 당한 한 소리 어찌 우연이었을까!  
그림 속의 병을 깨뜨리고 돌아간 뒤로,<sup>47)</sup>  
천고의 세월 흐르도록 암흑만 가득 펼쳐져 있도다.<sup>48)</sup>

白雲曷頌, “大機大用不虛傳, 掛拂遭呵豈偶然! 打破畫瓶歸去後, 從教千古黑漫漫.”

### 심문담분(心聞曇貲)의 송

용은 저녁놀을 휘감고 동부<sup>49)</sup>로 돌아가고,  
기러기는 가을 빛 끌고 형양<sup>50)</sup>을 넘어가네.  
고개조차 돌릴 수 없는 험한 산길,  
나뭇잎 지고 원숭이 울음에<sup>51)</sup> 애끓는 슬픔이여!

心聞貲頌, “龍帶晚煙歸洞府, 鴈拖秋色過衡陽. 不堪回首關山

47) 그림 속의 병이라는 하나의 착각과 깨뜨린다는 또 하나의 착각이다. 불자를 들고 제자리에 걸어둔 동작과 그것을 무너뜨린 마조의 할이 모두 착각이다. 착각으로 착각을 대하는 ‘장착취착(將錯就錯)’의 방법이다.

48) 할(喝)에 대한 분별이 통하지 않는 무소식(無消息)의 경계를 나타낸다.

49) 洞府. 도교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거주하는 지방. 명산의 깊은 골짜기를 비유할 때 쓰기도 한다.

50) 衡陽. 중국 호남성에 있는 지역. 이 형양의 형산(衡山)에 기러기가 되돌아간다는 회안봉(回雁峰)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소식을 전하는 기러기가 높은 회안봉을 넘지 못하여, 회안봉을 경계로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51) 각각 사령운(謝靈運)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목락(木落)은 「石門巖上宿」, 원제(猿啼)는 「登石門最高頂」에 나온다. 두 시 모두 나그네의 애환을 읊은 시이다.

路, 木落猿啼正斷腸!”

### 송나라 황제<sup>52)</sup>의 송

평상 모서리에 걸린 불자 하나,  
들거나 놓거나 벌써 다 틀렸네.  
백장은 얼마나 느리고 둔했던지,  
할을 당하고야 미세한 경계로 들어갔네.

大宋皇帝頌, “牀頭一拂子, 舉放已皆非. 百丈何遲鈍, 一喝入精微.”

### 무진거사의 송

외마디 할에 대웅봉이 쓰러지니,  
해골의 두 귀 사흘 동안 멀었다네.  
황벽은 듣는 순간 놀라 혀를 내들렀으니,  
이때부터 강서에는 비로소 가풍이 섰다네.

無盡居士頌, “一聲喝倒大雄峯, 三日髑髏雙耳聾. 黃蘗纔聞驚吐舌, 江西從此立家風.”

---

52) 남송 2대 황제인 효종(孝宗 재위 1162~1189), 『歷朝釋氏資鑑』 권11 卍132 p.217a3 참조.

## 본연거사의 송

대단한 한 번의 할이여!

천 균의 쇠뇌를 쏘는 것과 같았으니,

바로 알아차리기는 몹시 어렵도다.

구름 한 점 없이 아득히 펼쳐진 드넓은 하늘처럼,

불자 잡고서 죽었다 살렸다 자유자재로 하였네.

本然居士頌, “好一喝! 似把千鈞弩機撥, 直下承當也大難. 萬里無雲見空闊, 拂子拈來有殺活.”

## 열재거사의 송

불자만을 가지고 희롱하는 솜씨 빼어나니,

씨줄과 날줄 오가는 이치 아는 이 드물다.

가을이 가면 연꽃이 지는 이치와 같으니,

초록빛 곶이 노랗게 익는 10월이로구나.

悅齋居士頌, “拂子偏他弄得奇, 絲來線去少人知. 恰如秋盡芙蓉老, 橘綠棗黃十月時.”

## 위산영우(滙山靈祐)와 양산혜적(仰山慧寂)의 문답

위산이 양산에게 물었다. “백장이 다시 법을 물으러 찾아왔을 때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인연이 있으니, 이 두 존숙의 뜻이 무엇이나?” “이는 대기(大機)의 작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조에게서 84인의 선지식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중 몇이 대기(大機)를 터득하고, 몇이 대용(大用)을 터득했느냐?”

나?” 백장은 마조의 대기를 터득했고, 황벽은 마조의 대용을 터득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창도사<sup>53)</sup>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렇다.”

瀉山問仰山, “百丈再叅, 馬祖豎拂因緣, 此二尊宿意旨如何?” 仰山云, “此是顯大機之用.” 瀉山云, “馬祖出八十四人善知識, 幾人得大機? 幾人得大用?” 仰山云, “百丈得大機, 黃蘗得大用, 餘者盡是唱道之師.” 瀉山云, “如是, 如是.”

#### [설화]

위산과 양산의 문답은 본칙 설화 중에 이미 인용했다.<sup>54)</sup> 창도사(唱道師)의 창도(唱道)는 창도(唱導)라고 적어야 맞다. 이는 법의 이치를 펼쳐서 중생을 이끈다는 뜻이다.

瀉山問答話中, 已引入. 唱道者, 當作導, 敷唱法理, 開導羣生也.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엄

“이상하구나, 여러 선덕들이여! 지금 지엽적인 현상에 대하여 늘어놓는 사람들은 매우 많지만, 그 근원을 궁구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모두들 ‘백장이 마조의 할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말이 단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일까? 조(刁)자와 도(刀)자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지 않

---

53) 唱道師. 법문을 설법하는 스님. 대기대용의 활발한 작용이 없이 말로 이치를 설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54) “백장은 마조의 대기(大機)를 얻었고 황벽은 마조의 대용(大用)을 얻었다”라고 한 양산의 말을 말한다.

고, 어(魚)자와 노(魯)자도 보기와는 달리 뜻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니, 눈 밝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조가 ‘너는 훗날 두 입술을 놀리면서 무엇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하는가?’라고 질책하자 백장이 불자를 곳곳이 세웠던 것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다가 우연히 무늬가 생긴 것과 같은 응답이었을까? 아니면 어미닭이 알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아 동시에 일치했던 것과 같이 본분에 호응한 응답이었을까? 여러분은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는 뜻을 알고자 하는가? 탁월한 장인(匠人)이 단련한 순금은 결코 빛이 변하는 일이 없는 법이다.<sup>55)</sup>”

雪竇顯拈, “奇怪, 諸禪德! 如今列其派者, 甚多; 究其源者, 極少. 惣道百丈於喝下大悟, 還端的也無? 然刁刀相似, 魚魯參差, 若是明眼漢, 謾他一點不得. 只如馬祖道, ‘你他後, 開兩片皮, 將何爲人?’ 百丈豎起拂子, 爲復如蟲禦木? 爲復啐啄同時? 諸人要會三日耳聲麼? 大冶精金, 應無變色.”

#### [설화]

지금 지엽적인 현상에 ~ 지극히 드물다 : 아래서 ‘탁월한 장인이 단련한 순금은 결코 빛이 변하는 일이 없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雪竇 : 如今列其派至極少者, 下云大冶精金應無變色故, 如是道得也.

55) 탁월한 장인은 마조, 단련된 순금은 백장을 각각 비유한다. 사흘 동안 귀가 먹은 것은 본분의 소식에 통하도록 성숙된 극치의 상태로서 결코 퇴보하지 않는 백척간두의 경계라는 뜻이다.

## 분주선소(汾州善昭)의 염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汾州昭拈, “悟去便休得, 說什麼三日耳聾?”

[설화]

금일사(今日事)로 깨달은 문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汾州：不立今日悟門.

## 석문온충(石門蘊聰)과 분주(汾州)의 평

“만약 사흘 동안 귀가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이 말을 분주가 듣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했던 말과 석문의 말을 비교하면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난다.”

石門聰云, “若不三日耳聾, 何得悟去?” 汾州聞云, “我與麼道, 較他石門, 半月程.”

[설화]

석문의 뜻은 반드시 금일사로 깨닫는 문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했던 말과 ~ 차이가 난다 : 석문의 말에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뜻이다.

石門意, 須借今日悟門也. 我伊麼道云云者, 石門却有長處故也.

## 동림상충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분주(汾州)와 석문(石門)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말을 하면 혀가 절단되는 화를 피하지 못하고, 화로 옆에 있으면 불티를 피하지 못한다. 불법(佛法)이 어찌 범인들의 평범한 생각을 친절하게 따르겠는가? 내가 오늘 검은 용<sup>56)</sup>의 굴로 들어가 여의주를 빼앗으리라. 백장도 사흘 동안 귀를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 분주와 석문인들 어찌 둘 다 장님이 되는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세 노장들이 도대체 깨닫기는 했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조상이 당대에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여 후손들에게 재앙이 미쳤다.”<sup>57)</sup>

東林總，舉此話，連舉汾州石門拈，師云，“當言不避截舌，當爐不避火迸。佛法豈可曲順人情？東林今日，向驪龍窟內爭珠去也。百丈，不無他三日耳聾，汾州石門，爭免箇二俱瞎漢！只這三箇老，還會悟也無？”良久云，“祖禰不了，殃及

56) 여룡(驪龍). 흑룡(黑龍)과 같다. 턱 아래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주(驪珠) 또는 주옥(珠玉)이라 한다. 본분의 핵심을 비유한다. 이 구슬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본분을 추구하는 것을 이것에 비유한다. 『莊子』「列禦寇」의 다음 내용에서 유래한다. “천 금의 가치가 있는 구슬은 틀림없이 구중의 못 속에 있으나 검은 용이 턱 아래 두고 지키고 있다. 네가 구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용이 잠자는 틈을 탔기 때문일 것이다.”(千金之珠，必在九重之淵，而驪龍頷下。子能得珠者，必遭其睡也.)

57) 백장이 사흘 동안 귀를 먹은 사실에 대하여 완결된 화두를 제시하지 않아 후대에 분주와 석문이 다시 그것을 문제로 내놓게 된 일을 가리킨다. 그들 또한 이 화두에 대한 완결된 해답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결론적으로 굳히는 말은 죽은 말[死句]이며 활발하게 생동하는 산 말[活句]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못 마친 듯이 주어지는 것이 화두이다. 본서 2則 주석132) 참조.

兒孫.”

[설화]

분주와 석문인들 ~ 면할 수 있겠는가 : 금시사(今時事)와 본분사(本分事)에 대하여 모두 장님과 같다는 말이다.

바로 이 세 노장들이 도대체 깨닫기는 했는가 : 분주와 석문과 백장을 아울러 세 명이다.

조상이 당대에 ~ 재앙이 미쳤다 : 조상인 백장이 할 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인 분주와 석문에게 재앙이 미쳤다는 말이다.

東林：汾州石門爭免云云者，今時本分總是瞎漢也。只這三箇老還曾悟也無者，汾州石門并百丈，爲三箇。祖禪不了殃及兒孫者，祖百丈是不了故，殃及兒孫汾州石門也。

장로종색(長蘆宗蹟)의 거

“이 공안은 세상에 전해진 지 오래되었는데, 황벽과 양산만이 그 취지를 깊이 알고 있었다. 산승이 비난을 무릅쓰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 백장이 불자를 곳곳이 세웠을 당시 그는 마조의 대기(大機)를 얻었을 뿐이었는데, 다시 불자를 제자리에 걸었으니 결국 마조의 대용(大用)은 얻지 못한 것이다. 마조가 내지른 할을 알고자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검이기도 하다. 사흘 동안 귀먹은 이유를 알고자 하는가? 마조의 방행(放行)만 알았을 뿐이고, 마조의 파정(把定)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長蘆蹟，舉此話云，“這個公案，流布來多時也，唯黃蘗仰山，深相委悉。山僧不避譏嫌，試爲斷看。當時百丈，豎起拂子，只



得馬祖大機，却掛拂子於舊處，不得馬祖大用。要會馬祖一喝麼？非但殺人刀，亦乃活人劍。要會三日耳聾麼？只知馬祖放行，不知馬祖把定。”

[설화]

범의 조례(條例)와 규장(規章)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뜻이다.

長蘆意，大殺不顧條章.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소참

어떤 학인이 물었다. “마조의 한 할에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리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귀는 소리가 있어야 제구실을 하는 법이다.” “대상과 인식기관이 떨어져 나가고 소식도 침몰되었다고 할 만하군요.” “결코 억지로 뚫어 보려 하지 마라.”<sup>58)</sup> 천동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마조의 한 할은 본분 밖에서 착안할 일인가? 본분의 밖에서 도리를 지어내어 알 여지가 있는가? 만약 그 당시에 바로 알아채지 못하여 마음만 급하게 되었다면 업식(業識)이 흘러 들어왔을 것이요, 반대로 짓눌러 앉거나 비틀어 열듯이 제압하여 한 울의 실과 한 톨의 쌀도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면 무엇을 가리켜 ‘마조를 다시 찾아가 범을 물었다’라고 했겠는가? 그 사이에는 터럭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 만약 본분 밖에서 조금이라도 착안하였다면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두가 ‘탁월한 장인이 단련한 순금은 결코 빛이 변하는 일이 없는 법이다’라고 한 말을 모르는가? 요즘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58) 대상[聲塵]과 인식기관[耳根]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알아맞히려 하지 말라는 뜻.

체험하지도 못하고 견해가 철저하지도 못하면서 갈고리로 당기고 송곳으로 찌르듯이 온갖 수단으로 무리하게 도리를 만들어낸 끝에 자신을 매몰시키고 선대의 종사까지 그 잘못에 연루시킨다. 만약 깨끗이 씻어내지도 못하고 온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서 다시 이 공안에 대해 한 겹의 견해를 덧붙인다면, 진흙탕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 격이라고 하리라.”

天童覺, 小叅, 僧問, “馬祖一喝, 百丈三日耳聾, 作麼生?” 師云, “聲在耳處, 耳在聲中.” 僧云, “可謂塵根脫落, 消息平沈去也.” 師云, “切莫強針錐.” 師又云, “只如馬祖一喝, 還分外着得事麼? 還分外有造道理處麼? 若也个時承當不下, 草草地, 又是業識流注; 若是坐得斷幹得開, 一絲一縷立不得, 喚什麼作, 再叅馬祖? 其間毫髮不容, 若分外着得些子, 不喚作三日耳聾. 不見雪竇道, ‘大冶精金, 應無變色.’ 而今有般漢體不到, 見不徹, 使鉤使錐, 作道作理, 埋沒自己, 帶累先宗. 若是洗不淨潔, 脫不了當, 又向這裏, 添一重去也, 喚作泥裏洗土塊.”

[설화]

천동 소참의 뜻은 문장에 다 드러나 있다.

天童小叅, 文見.

## 용문신의 상당

“웅장한 봉우리의 우뚝 솟은 정상에는 소식이 통하기 어려우니,<sup>59)</sup> 가버

59)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본분을 고수하는 마조의 선종을 가리킨다.

운 할에도 상대는 귀가 멀었다. 사흘 동안 어디로 갔었는지 모르다가 오늘 저녁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진실한 종지를 펴뜨린다. 예전에 백장이 다시 법을 물으러 갔다가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렸고, 훗날 설두는 ‘이상하구나, 여러 선덕들이여! ~ 탁월한 장인이 단련한 순금은 결코 빛이 변하는 일이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오늘 길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을 보았으니<sup>60)</sup> 설두에게 묻고자 한다. 탁월한 장인이 단련한 순금이라면 빛이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하거늘, 백장은 어째서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렸는가? 알겠는가? 예로부터 땀 흘리며 전장을 누빈 말의 노고는 아무도 모르고, 한 시대를 풍미한 장군의 공적만 거둬 찬미할 뿐이다.<sup>61)</sup>”

龍門新，上堂云，“雄峯孤頂信難通，輕喝當機耳便聾。三日不知何處去，今宵依舊播真宗。昔日百丈再叅，至三日耳聾。後來，雪竇道，‘奇怪諸禪德，至應無變色。’”師云，“雲崑今日，路見不平，要問雪竇。既是大冶精金，應無變色，百丈爲什麼，三日耳聾？還會麼？從前汗馬無人見，只要重論蓋大<sup>62)</sup>功。”

60) 노견불평(路見不平). 설두의 말이 마조의 공적에 치우쳐 있어 백장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고 본 평가이다. 노견불평소이안검(路見不平所以按劍)이라 하면, 공평치 못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景德傳燈錄』 권22 『羅山義總傳』 大51 p.381a17 참조.

61) 마조가 백장을 이끌어 준 공적뿐만 아니라 그와 대면하며 모든 망상분별이 끊어진 귀머거리의 경계까지 내달린 백장의 노고를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의미이다. 이 공안을 완성함에 순금인 백장은 조연의 역할이 아니라 탁월한 장인이었던 마조와 마찬가지로 주연이라는 평가이다. 설두의 표면적인 말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설화>의 해설과 차이가 있다.

62) ‘大’는 ‘代’ 또는 ‘世’의 오식.

### [설화]

웅장한 봉우리의 우뚝 솟은 ~ 진실한 종지를 펴뜨린다 :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린 경계를 말한다.

예로부터 땀 흘리며 전장을 누빈 말의 노고는 ~ 거듭 찬미할 뿐이다 : 설두가 그렇게 한 말로 인해 백장이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린 공적이 더욱 높아졌다.

龍門：雄峯孤頂至播眞宗者，言百丈三日耳聾處也。從前汗馬云云者，因雪竇伊麼道，百丈三日耳聾之功轉高。

### 불안청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이여! 무슨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렸다고 말하는가? 내가 북을 치고 법좌에 오르고 대중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이자 승당(僧堂)이 불전(佛殿)을 제멋대로 삼키고, 노주가 등롱에 거꾸로 매달린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다. 비는 때 맞추어 적당히 내리고 바람은 온화하게 불며, 황하는 맑아지고 바다는 잠잠하다. 배고프면 그대와 함께 쓴 나물을 먹고, 목마르면 그대와 함께 찬 샘물을 마신다.<sup>63)</sup> 설령 하늘 저 먼 곳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한들 방으로 돌아가서 차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佛眼遠，上堂，舉此話云，“大衆！說甚三日耳聾？直得龍門打鼓上堂，大衆盡皆雲集，僧堂橫吞佛殿，露柱倒掛燈籠。天高地厚，月白風清。雨順風調，河清海晏。飢則共君餐苦菜，渴則與子飲寒泉。直饒天外雨花飛，爭似歸堂喫茶去！”

---

63) 자연이 조화롭고 세상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현상을 묘사한다.

[설화]

내가 북을 치고 ~ 구름처럼 모이자 : 당시의 상황이다.

승당이 불전을 제멋대로 삼키고 ~ 거꾸로 매달린다 :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계이다.

하늘은 높고 ~ 찬 샘물을 마신다 : 평상<sup>64)</sup>의 경계이다.

설령 ~ 꽃비가 내린다고 한들 : 드물고 기이한 현상이다.

방으로 돌아가서 ~ 비교할 수 있겠는가 : 평상의 본본사이다.

그러므로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린 일은 특별히 새롭게 만든 조목일 뿐이라는 뜻이다.

佛眼：龍門打鼓至雲集者，當時事。僧堂橫吞佛般云云者，不思議也。天高地厚云云者，平常也。直饒云云者，希奇也。爭似歸堂云云者，平常本分事也。然則三日耳聾，特地新條。

## 원오극근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분주·석문·설두의 엄을 제기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가<sup>65)</sup>들이 함께 제기하여 내세운 말에는 틀림없이 각자 남들을 이끄는 안목이 있었지만, 문제는 마조와 백장의 대기(大機)만을 밝혔을 뿐이고 마조와 백장의 대용(大用)은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다. 눈썹을 아끼지 않고<sup>66)</sup> 하나의 소식을 드러내어 여러 선사들의 점검을 받고자 한다. 이 하나

---

64) 平常. 특별한 일도 없고 한결같은 것.

65) 作家. 선의 달인인 선장(禪匠)을 나타내는 말. 본서 165則 주석8) 참조.

66) 불석미모(不惜眉毛). 불법을 잘못 이해하여 말하면 눈썹과 수염이 모두 떨어진다는 설에 따른다. 잘못 말하거나 보잘것없는 견해를 담은 한마디일지라도 피력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 혹은 부끄러움을 무릅쓴다

의 할을 아는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것과 똑같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간이 떨어지고 낮이 나간다.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린 뜻을 알고자 하는가? 도독고<sup>67)</sup>를 치는 것과 아주 흡사하여 듣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불자를 들고 말했다. “누군가 ‘이것 그대로의 작용인가? 이것을 떠난 작용인가?’라고 묻는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때리고 곧이어 한 소리 크게 내지르리라.” 다시 말했다. “마조와 백장의 경계를 보았는가?”

蔣山勤, 舉此話, 連舉汾州石門雪竇拈, 師云, “然則作家共相提唱, 不妨各有爲人眼, 要且, 只明得馬祖百丈大機, 未明馬祖百丈大用. 不惜眉毛, 露个消息, 也要諸方檢責. 還知這一喝麼? 直似奮雷霹靂, 聽者喪膽亡魂. 要會三日耳聾? 正如擊塗毒鼓, 聞者喪身失命.” 舉拂子云, “或有个問, ‘卽此用, 離此用?’ 和聲便打, 隨後與喝.” 復云, “還見馬祖百丈麼?”

[설화]

간단명료한 핵심만 밝혔다. 대용은 간단명료하니 다시 무슨 대기를 찾을 일이 있겠는가? 비록 위세를 떨치며 한 소리 크게 내지르기는 했지만 또한 이것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때리고 : 이것 그대로의 작용과 이것을 떠난 작용 바로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들어 보인 것이다.

곧이어 한 소리 크게 내지르리라 : 이 어찌 마조의 할과 다르겠느냐는 뜻이다.

---

는 말로 결정적인 말을 할 때 겸손하게 이르는 상용구이다.

67) 塗毒鼓. 듣기만 하면 죽게 되는 독이 발린 북. 듣는 자의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涅槃經』의 교설을 비유하는 말이다. 본서 44則 「涅槃塗毒」 본칙 및 주석2) 참조.

마조와 백장의 경계를 보았는가 : 어디에서 찾겠느냐는 말이다.<sup>68)</sup>

蔣山：但明直截。大用直截，則更討什麼大機？雖是振威一喝，亦不越此也。和聲便打者，當卽此離此，盡力提持也。隨後與喝者，豈非馬祖地。還見馬祖云云者，向什麼處尋討。

## 대혜종고의 거

불자를 들고 황벽이 ‘우리의 후손을 망칠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까지 제기하고 말했다. “백장은 마조가 내지른 할에 사흘 동안 귀가 멀어버렸으며 황벽은 백장이 들려준 말을 듣고서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는데, 백장은 황벽이 마조의 법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훗날 임제가 세 차례 불법(佛法)의 대의(大意)를 물었을 때 황벽이 세 차례 모두 60방을 때려<sup>69)</sup> 사흘 동안 귀가 멀었던 백장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해주었고, 임제도 비로소 황벽의 몽둥이가 쑥대<sup>70)</sup>로 만든 불자와 같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묻겠다.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은 법에는 동일한 근거가 있는 법인데, 어떤 이유로 활용한 방법은 같지 않았을까?<sup>71)</sup> 알겠는가? 조계(曹溪)의 물결이 서로 비슷했다면 아무 일 없던 무수한 사람들이 땅속에 묻혔으리라.”

雲門杲，秉拂舉，至黃蘗喪我兒孫，師云，“百丈被喝，直得三

68) 스스로 마조의 대용을 눈앞에서 보여주었다는 뜻.

69) 본서 607則「臨濟佛法」본칙 참조.

70) 호지(蒿枝). 본서 607則 주석30) 참조.

71) 마조는 할을 내질렀고, 황벽은 세 차례 방(棒)을 휘둘렀던 작용이 달랐던 점. 황벽이 마조의 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려했던 백장의 생각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 일화이다.

日耳聾，黃蘗聞舉，不覺吐舌，百丈疑其承嗣馬祖。後因臨濟，三度問佛法大意，三度打六十棒，便與三日耳聾出氣，臨濟始覺如蒿枝拂相似。敢問大衆。既是師承有據，因什麼，用處不同？會麼？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沈。”

# [설화]

백장은 ~ 귀가 멀어버렸으며 : 대기를 터득했다.

황벽은 ~ 혀를 내둘렀다 : 대용을 터득했다.

백장은 황벽이 ~ 이어받지 않을까 우려했다 : 황벽이 마조의 할을 곧이곧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다. 훗날 황벽이 임제에게 60방을 때렸던 그 작용이 바로 대용이니 백장에게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해주었던 것이다.

임제도 비로소 ~ 쑥대로 만든 불자와 같음을 깨달았다 : 임제가 대중에게 “내가 선사(先師 : 황벽)의 회하에 있을 때~”<sup>72)</sup>라고 한 말을 뜻하니, 다시 한 방을 때린다고 해도 쑥대로 만든 불자와 같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마조·백장·황벽·임제가 각자 활용한 방법이 모두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것이니, 청원(靑原)과 석두(石頭)<sup>73)</sup> 그리고 대대로 그 뒤를 이은 후손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보여준 본분사만 밝힌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잡동사니를 파는 점포[雜貨鋪]<sup>74)</sup>라고 한다.

72) 본서 607則 주석30) 참조.

73)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혜능에게서 득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혜능이 입적하자, 청원에게 참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호남의 석두, 강서의 마조’라고 불리며, 마조와 더불어 2대 감로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석두희천의 문하는 조동종·법안종·운문종 등으로 이어졌는데, 양산혜적(仰山慧寂)은 뛰어난 선사들이 즐비한 그 법계가 순금을 진열한 점포와 같다고 하여 진금포(眞金鋪)라고 평가했다.

74) 양산혜적의 말. 본분사를 중시하는 석두의 문하를 순금만 파는 가게[眞金鋪]에



조계의 물결이 ~ 땅속에 묻혔으리라 : 온갖 물결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모두 조계를 근원으로 하는 물이다.

雲門：百丈被喝至三日耳聾者，得大機也。黃蘗不覺吐舌者，得大用也。百丈疑其承嗣馬祖者，恐黃蘗一向承嗣馬祖一喝也。後來黃蘗，打臨濟六十棒，是用大用，則與百丈出氣。臨濟云云者，臨濟示衆云，“我於先師處云云”又打一棒，是蒿枝拂子也。然則馬祖百丈黃蘗臨濟，用處不同，非如清源石頭子子孫係，只明得尊貴人邊事也。此則所謂雜貨鋪也。曹溪波浪云云者，千波萬浪盡皆不同，然俱是曹溪水也。

#### 백운지병(白雲知病)의 염

“마조의 할은 위음왕불 이전<sup>75)</sup>의 경계에서 나온 것이다. 백장이 비록 사흘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해도 사실은 절반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白雲謁拈，“馬祖一喝，直出威音王已前。百丈雖則三日耳聾，要且，只承當得一半。”

#### [설화]

마조가 위세를 떨치며 내지른 할에 대해서만 밝혔다.

白雲：但明得馬祖振威一喝也。

---

비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체적 현실에서 다양한 활용의 방안을 갖추고 있는 마조의 문하 홍주종을 비유한 말이다. 『仰山語錄』 大47 p.585c20~c27 참조.

75) 주석12) 참조.





184칙 百丈野狐 백장야호





## 184칙 백장야호 百丈野狐<sup>1)</sup>

### [본칙]

백장이 상당법문을 하는 날마다 언제나 법문을 듣고 나서 대중을 따라 물러가는 한 노인이 있었다. 하루는 떠나지 않고 있자 백장이 물었다.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저는 과거 가섭불<sup>2)</sup> 당시에 이 산에 살았는데, 어떤 학인이 ‘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과(因果)<sup>3)</sup>에 떨어집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잘못으로 여우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sup>4)</sup>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으십시오.” 이에 노인이 “큰 수행

- 
- 1)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락(不落)과 ‘어둡지 않다’는 불매(不昧)가 이 공안의 관문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다. 불락이라고 대답하여 윤회의 굴레에 떨어졌다가 불매라는 말을 듣고 윤회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불락은 틀린 대답이고 불매가 적절한 대답이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분별하면 착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잘못을 포착하는 것이 이 공안의 관건이다.
  - 2) 迦葉佛. ㉔ Kāśyapa Buddha, 석가모니불 이전의 과거칠불(過去七佛) 중 제6불이며, 현재현겁(現在賢劫)의 천불(千佛) 중 제3불. 석가모니 전생의 스승으로 석가모니가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가섭파불(迦葉波佛·迦攝波佛)이라고도 음사한다. ‘가섭’의 한역어가 음광(飮光)이므로 음광불이라고도 한다.
  - 3) 일정한 원인에 따라 결과를 받는 윤회의 굴레를 말한다.
  - 4) 일전어(一轉語).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전환(轉換)시키는 한마디 말. 또는 상황을 반전(反轉)시키는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가리킨다.

을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물었고, 백장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 작별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어났기에 이제 산 뒤에 머물러 있겠으니, 입적한 스님을 화장하는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백장이 유나를 시켜 진추를 올리고 대중에게 ‘공양을 마친 다음 모두 모여 입적한 스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알리도록 했다. 대중이 영문을 몰라하니 만참(晩參) 때 백장이 이전의 인연을 들려주었다.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를 잘못 대답하여 여우의 몸에 떨어졌는데, 지금 누군가가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를 해서 잘못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 주겠다.” 황벽이 가까이 다가서서 백장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백장이 껄껄대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달마대사의 수염은 붉은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여기 또 붉은 수염이 달린 달마대사가 있었구나.”<sup>5)</sup> 당시 위산(潯山)이 백장 회하에서 전좌<sup>6)</sup>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사마두타가 이 공안을 제기하고 물었다. “전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산이 사립문을 세 번 흔들었다. 사마가 “몹시 거칠군!”이라 하자 위산이 말했다. “불법은 그러한 도리가 아닙니다.”>

百丈，每日上堂，常有一老人聽法，隨衆散去。一日不去，師乃問，“立者何人？”老人云，“某甲於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有學人問，‘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對云，‘不落

5) 옛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비유로 불락과 불매의 차별이 없는 경계를 제기한 말이다. 『雲門廣錄』 권상 大47 p.552c11, 『大慧語錄』 권4 大47 p.827a4 등에도 보이는 구절이다.

6) 典座. 침소·음식 등을 담당하는 소임. 육지사(六知事) 중 하나이다. “전좌는 부엌에서 죽반(粥飯)을 먹는 일을 담당하는데, 그 먹는 음식이 대중과 달라서는 안 된다. 두 때의 음식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을 바라보면서 분향하고 절을 올린 다음 음식을 분배한다.”(『禪院清規』 권3 「典座」 卍111 p.892b15. 典座, 係廚中喫粥飯, 所食不得異衆. 二時食辨, 先望僧堂, 焚香禮拜訖, 然後發食.)

因果.’墮在野狐身。今請和尚代一轉語。”師云，“但問。”老人便問，“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師云，“不昧因果。”老人於言下大悟，告辭云，“某甲已免野狐身，住在山後，乞依亡僧燒送。”師令維那，白槌告衆，‘齋後普請送亡僧.’大衆不能詳，至晚叅，師舉前因緣。〈黃蘗問百丈，“古人錯答一轉語，墮在野狐身，今人轉轉不錯時，如何？”丈曰，“近前來！向汝道.” 蘗近前，打師一掌。丈呵呵大笑云，“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 時，潙山在百丈會下，作典座。司馬頭陀舉問，“典座作麼生？”潙乃撼門扇三下。司馬云，“大麤生.” 潙云，“佛法不是這箇道理.”〉

### [설화]

큰 수행을 하는 사람 : 금일인인가? 본래인인가? 만약 본래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수행이라 하겠는가?<sup>7)</sup> 금일인이 이치에 맞게 수행하므로 ‘큰 수행’이라 하는 것이다.

인과 :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을 모두 들어 보인 말이다. 어떤 사람은 ‘법계의 원인과 법계의 과’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학인이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인과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현자와 포대<sup>8)</sup>가 언제 인과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만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7) 본래인은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이 본래 완성된 사람 곧 수행을 마친 것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명칭이 붙을 여지가 없다.

8) 『景德傳燈錄』 권17 「京兆觀子傳」 大51 p.338a27에 따르면, 경조현자는 동산(洞山)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며 계율의 형식도 따르지 않고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도구(道具)도 없이 강어귀에서 조개

고 한다면 사자존자와 2조 대사는 뚜렷이 빛을 갇았거늘<sup>9)</sup> 이 어찌 인과에 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여 여우의 몸에 떨어졌다가 훗날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대답해 준 말에서 여우의 몸을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우라는 짐승은 본성상 의식이 많아서 언 강물을 건널 경우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한 번 발자국 소리를

를 잡아 배를 채우며 살았다. 어느 날 화엄정(華嚴靜)이 그의 경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를 묻자 “신상(神像) 앞의 술반침대”(神前酒臺盤)라고 대답하여 화엄정이 사죄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이렇게 살았어도 행적에 집착과 걸림이 없었으므로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한 것이다. 이것은 포대화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책 권27 「布袋和尚傳」大51 p.434a19에 따르면, 항상 포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걸식하며 젓갈이나 물고기도 손에 잡히는 대로 먹었다. 무엇을 물어도 “나에게 한 푼만 주시오(乞我一文錢)”라고 응답하거나, 포대를 내려놓았다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 9) 두 사람이 모두 ‘큰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과의 굴레에 떨어져 대가를 치렀던 일화를 말한다. 『景德傳燈錄』 권2 「師子尊者傳」大51 p.215a14에 따르면, 사자존자는 인도 카슈미르국[闍賓國]의 군왕과 범문답을 하던 중 목이 베어 떨어져 나갔다. 또한, 같은 책 권3 「慧可傳」大51 p.221a11에 따르면, 2조 혜가가 광구사(匡救寺)에서 무상도(無上道)에 대하여 설법할 때 당시 그 절에서 변화(辯和)에게 『涅槃經』 강설을 듣던 학인들이 빠져나가 혜가의 설법에 몰려들었다. 이에 변화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친분이 있는 읍宰(邑宰) 적중간(翟仲侃)에게 혜가를 비방하였고, 적중간은 사된 설법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혜가를 모멸하였다. 그러나 혜가는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진실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두고 ‘빛을 갇았다’고 말했다. “호월공봉(皓月供奉)이 장사경암(長沙景岑)화상에게 물었다. ‘고덕이 『깨달았다면 업장은 본래 공(空)이겠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마땅히 묵은 빛을 갇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존자와 2조대사는 어째서 빛을 갇은 것입니까?’ ‘대덕께서는 본래의 공을 모르시는군요.’ ‘본래의 공이란 무슨 뜻입니까?’ ‘업장이 그것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본래의 공이 그것입니다.’ 호월이 아무 말도 없었다.”(『景德傳燈錄』 권3 「慧可傳」大51 p.221a17. 皓月供奉, 問長沙岑和尚, ‘古德云, 『了即業障本來空, 未了應須償宿債.』只如師子尊者, 二祖大師, 爲什麼得償債去?’ 長沙云, ‘大德不識本來空.’ 彼云, ‘如何是本來空?’ 長沙云, ‘業障, 是.’ 又問, ‘如何是業障?’ 長沙云, ‘本來空, 是.’ 彼無語.)



확인한다. 곧 백장을 만나기 이전(前百丈)에는 의심을 일으키며 말했기 때문에 여우의 몸에 떨어졌고, 백장을 만난 다음(後百丈)에는 의심이 끊어진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덕들은 “백장을 만나기 이전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벽에 걸린 활이 술잔에 비친 모습을 대면하고 뱀이라 착각한 것이었다.”<sup>10)</sup> 백장을 만난 다음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가? 다시 앉은 자리에서 벽에 걸린 활이 술잔에 비친 모습이라고 바르게 알았다”라고 말했던 것이며, 또한 “백장을 만나기 이전에는 기미가 드러나기 이전의 미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우의 몸에 떨어졌고, 백장을 만난 다음에는 기미가 드러나기 이전의 미묘한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우의 몸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또 “법을 설함에 소득이 남아 있으면 이는 여우의 울음소리이고, 법을 설함에 소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자의 포효라 한다”라고도 했던 것이다. 말에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속뜻은 동일한 것이다. 만송은 “(그 노인이 여우의 몸에 떨어진 이유는) 자기 스스로 담에 기대고 벽에 붙어 부자유하게 살면서 남들까지 구덩이로 밀어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대지(大智 : 백장)에게 번뇌의 뜻을 빼고 망상의 썩기를 뽑아내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자세로 대지에게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를 대신해 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지는 두려움 없는 변설<sup>11)</sup>을 펼치며 가볍게 방향을 바꾸어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던 것이다”<sup>12)</sup>라고 말했다. 이것을 가리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묘(妙)를 터득하는 것’<sup>13)</sup>이라 한다. ‘어둡다’는 말은 없다[無]는 뜻이다. 백장을 만나

10) 본서 1299則 주석21) 및 〈설화〉 참조. 두 〈설화〉의 해설 방식이 동일하다.

11) 무외변(無畏辯·無畏辯). 백수의 왕인 사자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효하듯이 걸림이 없이 진실을 자유자재로 드러내는 말솜씨를 가리킨다.

12) 『從容錄』 8則 「評唱」 大48 p.232a9.

기 전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여 오백생 동안 살가죽과 뼈에 바짝 달라붙은 듯이<sup>14)</sup>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말하여 그가 빠진 함정을 부수어야 했다. 그러므로 진정극문(眞淨克文)은 이 공안에 대하여 “불락에 칼날을 숨겼다가 불매에서 분명히 드러내니, 그가 이로부터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네”<sup>15)</sup>라고 읊었던 것이다. 그러나 백장을 만나기 전에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말했더라도 인간과 다른 존재에 떨어졌을 것이며, 백장을 만나 깨달은 다음에는 틀림없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처럼 있다고 해도 속박된 몸을 벗어날 길이 있고, 없다고 해도 속박된 몸을 벗어날 길이 있다.<sup>16)</sup>

13)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단견(斷見)이며,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묘(妙)를 터득하는 것이다.”(위의 책 8則「評唱」p.232a13. 不落因果, 是撥無斷見; 不昧因果, 是隨流得妙.)

14) 여전히 얹매이는 단서가 남아 있는 것이 마치 뼈와 살에 이물질이 바짝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꼴과 같다는 뜻. 원오극근(圓悟克勤)이 즐겨 쓰던 비유이다. “〈본칙〉 어떤 학인이 운문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몸통째 드러내는 가을바람이구나.’ 〈원오의 염(拈)〉 운문의 탁월한 방편은 현상[事] 그대로 근본 이치[理]요 숨은 그대로 드러남이며, 삼구(三句)를 분별할 수 있고 화살 한 축이 먼 허공을 날아갔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살가죽과 뼈에 무엇인가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소식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하늘을 지탱하고 땅을 떠받친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말해 보라! 이는 삼구인가? 화살 한 축인가? 옥의 진가를 시험하려면 반드시 불에 집어넣어 보아야 하고, 구슬의 진가를 알려면 진흙을 벗어나면 안 된다.”(『圓悟語錄』 권18 대47 p.796c13. 舉。僧問雲門, ‘樹彫葉落時, 如何?’ 門云, ‘體露金風.’ 師拈云, ‘雲門善巧方便, 可謂卽事卽理, 卽隱卽顯, 三句可辨, 一鏃遼空. 雖然, 猶是粘皮著骨. 若有問蔣山, ‘樹彫葉落時, 如何?’ 只對他道, ‘撐天拄地.’ 且道! 是三句, 是一鏃? 試玉須經火, 求珠不離泥.’) 『碧巖錄』 72則「評唱」大48 p.200b21 참조.

15) 『雲庵眞淨語錄』古尊宿語錄45 卮118 p.751b3.

백장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 이것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를 해서 잘못이 없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사립문을 세 번 흔들었다 : 따귀 한 대가 본래 갖추어진 경계를 말하는데, 백장이 꺾꺾대고 크게 웃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이 하나가 되니 곧 따귀 한 대라고 한다면 틀린 생각이다.

몹시 거칠군 : 서로 차별된 것에 가깝다는 뜻이다.

불법은 그러한 도리가 아닙니다 : 이 경계에서 무엇을 가리켜 거칠다느니 세밀하다느니 차별되게 말하느냐는 뜻이다.

大修行地人者，今日人耶？本來人耶？若是木來人，何名修行？今日人，稱理修行，故云大修行也。因果者，善因善果，惡因惡果，都舉也。或云，‘法界之因，法界之果’者，過猶不及。‘大修行地人，還落因果也無？’學人伊麼起疑致問者，何也？若道落因果，蜺子布帛，何曾落因果？若道不落因果，如師子尊者，二祖大師，灼然償債，豈是不落因果？對之不落因果，墮野狐身，後百丈云，‘不昧因果。’於此脫野狐身，何也？狐之爲獸，其性多疑，過冰河一步一聽。則前百丈起疑，而道得故，墮野狐身；後百丈絕疑，而道得故，脫野狐身也。故古德云，“要識前百丈麼？對坐盤中弓落蓋。要識後百丈麼？再坐盤中弓落蓋。”又，“前百丈，不會機前妙故，墮野狐身；後百丈，會機前

- 
- 16) 불락과 불매 또는 있음과 없음 중 어떤 것도 해탈과 속박으로 서로 옮겨 갈 수 있으며 규정된 의미는 없다. “사망으로 통하는 작가는 있다고 해도 터득하고 없다고 해도 터득하니, 어느 곳에도 속박된 몸을 벗어날 길이 있다.”(『楞嚴經宗通』 권10 卍25 p.376a13. 通方作家，道有也得，道無也得，在在有出身之路.)

妙故，脫野狐身。”又，“說法有所得，斯則野干鳴；說法無所得，是名師子吼。”言雖其異，其實一也。萬松云，“良由自己倚牆貼壁，送入墮坑落塹。見大智有抽釘拔楔地手段，舍己從人，請大智代一轉語。大智施無畏辨，輕輕撥轉道，‘不昧因果。’”是隨流得妙也。昧者無也。前百丈道，不落因果，五百生粘皮著骨故，須道不昧因果，破他窠窟也。故真淨文頌云，“不落藏鋒不昧分，要伊從此脫狐身。”然前百丈，倘或言不昧因果，墮在異類；後百丈，必須道不落因果。然則，道有也，有出身之路；道無也，有出身之路。墮也，何曾墮？脫也，何曾脫？一箇野狐，全身出沒，脫體卷舒。打師一掌者，是轉轉不錯也。撼門扇三下者，一掌本具地，下呵呵大笑卽此也。三下成一，卽一掌者，非也。大麤生者，似乎差別也。佛法不是云云者，這裏，是什麼說麤說細。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1

떨어지지 앓음과 어둡지 앓음이여!

무리를 이루고 떼거리를 짓는구나.<sup>17)</sup>

사자는 흙덩이 던진 사람을 물지만,

한나라 개<sup>18)</sup>는 흙덩어리를 쫓아가네.<sup>19)</sup>

17) 많은 사람들이 불락과 불매라는 말에 현혹되어 하나는 틀리고 다른 하나는 맞다는 생각에 따라 떼거리를 나누어 분별한다는 뜻.

18) 한로(韓獺). 전국시대 한(韓)나라의 명견(名犬). 털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불락에 대하여 읊은 계송이다.〉

大洪恩頌, “不落不昧! 成群作隊. 師子咬人, 韓獺逐塊.” 〈此頌不落.〉

## 대홍보은의 송 2

어둡지 않음과 떨어지지 않음이어!  
부질없이 애쓰며 시비를 주고받네.  
그 자리에서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인 격이로다.  
〈이것은 불매에 대하여 읊은 계송이다.〉

又頌, “不昧不落! 謾勞斟酌. 直下承當, 無繩自縛”. 〈此頌不昧.〉

### [설화]

주어진 말에 얽매어 뜻을 확정하는 것은 한나라 개가 던져진 흙덩어리를 쫓아가는 꼴이며, 또한 묶을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이는 것과 같다. 만약 백장의 속뜻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은 바로 사자가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

大洪: 若隨言定旨, 是韓獺逐塊, 亦無繩自縛也. 若會得百丈

- 
- 19) “모든 범부가 오로지 결과만 보고 그 조건이 되는 인연을 살필 줄 모르는데, 마치 개가 자기에게 던져진 흙덩이를 물려 쫓아가고 던진 사람을 쫓지 않는 것과 같다.”(『涅槃經』 권25 大12 p.516b12. 一切凡夫, 惟觀於果, 不觀因緣, 如犬逐塊, 不逐於人.)라는 경전의 말을 활용한 것이다. 불락과 불매라는 말에 근거하여 이 공안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흙덩이를 쫓는 개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사자는 불락과 불매를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모두 버리고 이 두 가지를 대립시켜 설정한 바로 그 관문을 타파하기 위해 돌진하는 자를 나타낸다.

意, 是獅子咬人也.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불락이라 한 말과 불매라 한 말이여!

백장을 만나기 전후로 갈라진 말일세.<sup>20)</sup>

반 근이면 부족하다 헤아리고,

여덟 냥은 조금 낫다고 여기네.<sup>21)</sup>

조금 모자란 것을 남겨주고,

세상 납승들이 거론토록 했노라.<sup>22)</sup>

薦福逸頌, “不落與不昧! 先後百丈語. 半斤秤不足, 八兩較些子. 較些子留與, 天下衲僧舉.”

#### [설화]

반 근과 여덟 냥은 같은 무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장을 만나기 이전에는 부족했다 헤아리고, 백장을 만난 다음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착각한다는 뜻이다.

---

20) 노인이 백장을 만나서 불매라는 대답을 듣기 이전의 상황을 전백장(前百丈) 또는 선백장(先百丈)이라 하고, 백장을 만난 다음의 상황을 후백장(後百丈)이라 한다.

21) 반 근과 여덟 냥은 같은 무게이다. 한 근이 16냥이므로 반 근은 여덟 냥이기 때문이다. ‘조금 낫다[較些子]’는 말은 아직 조금 모자라지만 비교적 낫다는 말이다. 전백장의 말[불락]과 후백장의 말[불매]이 표현은 다르지만 차별이 없는 것이 이 공안의 관문인데, 불매라는 소리를 듣고 노인이 깨달았다는 바로 그 말에 현혹되어 그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이라 헤아리는 잘못을 가리킨다.

22) 모자라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듯이 보이는 불매를 궁구하도록 설정했다는 뜻.

薦福：半斤八兩，是一般。在前百丈，是秤不足，後百丈，則較些子也。

### 자수첩의 송

전대의 인연이 후대에 그대로 드러나니,  
신령한 거북 꼬리 끌어 자취 길게 그어졌다네.  
희남에서 불현듯 남전에 대한 그리움 일어나,<sup>23)</sup>  
감람 나뭇잎으로 차 끓이니 특별한 향 퍼지네.

資壽捷頌, “前代因緣後代彰, 靈龜曳尾迹橫長. 淮南瞥起泉南思, 橄欖煎茶分外香.”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불매와 불락이라고 한 말,  
두 가지 모두 착각이로다.<sup>24)</sup>

- 23)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결과로 오백생 동안 여우의 몸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이 공안의 핵심에 대한 오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자수선사는 남전(南泉)이 “죽은 다음 산 아래서 한 마리 물소가 될 것이다”라고 한 이류중행(異類中行)으로써 이 착각을 타파한 것이다. 남전이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의로 물소가 되리라고 선언한 것처럼 여우의 몸에 떨어진 것 또한 일면적으로 잘못의 과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암시이다. 『景德傳燈錄』 권8 「南泉普願傳」大51 p.259a27 참조. “어떤 학인이 경잠에게 물었다. ‘남전은 입적한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 집에서는 나귀가 되고, 서쪽 집에서는 말이 된다.’ ‘이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올라타고자 하면 타고 내리고 싶으면 내린다.’”(『景德傳燈錄』 권10 「長沙景岑傳」大51 p.274b22. 僧問, ‘南泉遷化, 向什麼處去?’ 師云, ‘東家作驢, 西家作馬.’ 僧云, ‘此意如何?’ 師云, ‘要騎即騎, 要下即下.’)

취하고 버리는 마음 잊지 못하고,  
 망상분별로 이리저리 헤아리며,  
 말의 자취에 집착하여 얽매이니,  
 끈도 없는데 스스로 묶이는구나.  
 막힘없이 트인 드넓은 허공,  
 그 어디서 더듬으며 찾을 것인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 오면 나뭇잎 떨어질 뿐이라네.  
 착각이다, 착각이야!  
 보화가 방울을 흔든 뜻을 누가 알라?<sup>25)</sup>

海印信頌, “不昧不落, 二俱是錯. 取捨未忘, 識情卜度, 執滯  
 言詮, 無繩自縛. 廓爾大虛, 何處摸捺! 春至花開, 秋來木落.  
 錯錯! 誰知普化搖鈴鐸?”

- 
- 24) 불매라는 말을 듣고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구절을 그대로 긍정하면 착각이다. 허당지우(虛堂智愚)가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운 비단이지만 그 속에 딱딱한 돌이 들어 있다”(錦包特石)라고 한 말이 그 예이다. 불락과 마찬가지로 불매도 하나의 관문을 이루는 두 개의 빗장이기 때문이다. 『虛堂語錄』 권2 大47 p.995b5(僧云, ‘不昧因果, 因甚脫野狐?’ 師云, ‘錦包特石.’) 참조.
- 25) 보화(普化 ?~806)가 저잣거리에서 방울을 흔들며 게송을 읊었던 인연을 말한다. 여기서는 보화가 무엇이건 상대의 착각을 이용해서 때리고 물리치듯이, 불락과 불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보화는 항상 저 잣거리를 떠돌면서 방울을 흔들고 이렇게 게송을 읊었다. ‘분명한 태도로 다가오면 분명하게 때리고, 무분별한 태도로 다가오면 무분별하게 때리며, 사방팔면에서 무리지어 다가오면 회오리바람처럼 휘돌며 때리고, 허공에서 다가오면 도리깨질하듯이 때려주리라.’”(『臨濟語錄』 大47 p.503b20. 普化, 常於街市, 搖鈴云, ‘明頭來明頭打, 暗頭來暗頭打. 四方八面來旋風打, 虛空來連架打.’)



[설화]

‘불매와 불락 ~ 착각이로다’라는 구절은 백장을 만나기 이전이라면 이와 같다는 것이며, 백장을 만난 다음이라면 ‘막힘없이 트인 드넓은 허공 그 어디서 더듬으며 찾을 것인가’라는 구절에 해당된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라는 구절은 불매와 상응하고, ‘가을 오면 나뭇잎 떨어질 뿐’이라는 구절은 불락과 상응한다. ‘착각이다, 착각이야’라는 말은 불락도 착각이요 불매도 착각이니, 이 모든 것이 보화가 방울을 흔들며 읊은 계송의 취지와 같다.

海印：不落不昧至自縛者，如前百丈則如此，若後百丈，則廓爾大虛，何處摸索也。春至花開者，不昧也；秋來木落者，不落也。錯錯者，不落也錯，不昧也錯，揔是普化搖鈴鐸也。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대웅<sup>26)</sup>이 일찍이 여우 된 원인 판결해 주었으니,  
오백생 이전엔 착각하여 여우의 몸에 떨어졌다네.  
불락과 불매의 차이 밝히지 못했더라면,  
세월이 다시 몇 해를 더 지나야 했겠는가?

東林總頌，“大雄曾決野狐因，五百生前錯墮身。不落不昧如未曉，年華又歷幾秋春？”

26) 백장을 가리킨다. 대웅봉(大雄峰) 곧 대웅산(大雄山)에 주석했기 때문에 백장을 가리켜 대웅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장산(百丈山)이라고도 한다. 중국 남창부(南昌府：江西省) 봉신현(奉新縣) 서쪽 120리 지점에 있는 파양호(鄱陽湖) 부근에 있다.

###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

불락에 칼날을 숨겼다가 불매에서 분명히 드러내니,  
그가 이로부터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네.  
만나는 사람마다 관직을 그만두었다고들 하지만,  
임하에서 언제 누구 한 사람 만난 적 있었던가?<sup>27)</sup>

眞淨文頌, “不落藏鋒不昧分, 要伊從此脫狐身.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 진여모철(眞如慕喆)의 송

대야의 큰 화로<sup>28)</sup>에서,  
부처를 불리고 조사를 담금질하노라.  
본보기를 남김없이 녹여버리니,  
분별하던 자들 어찌할 줄 모르네.<sup>29)</sup>

27) 임하(林下)는 벼슬·관직을 버리고 유유히 즐기며 한적하게 쉬는 곳을 나타내며, 무사(無事)의 도가 구현된 장소를 상징한다. 번잡하고 쓸데없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진실로 그 경지를 실현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학인이 물었다. ‘약교(藥嶠)의 등불이 연이어 달렸는데, 스님은 몇 번째에 해당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관직을 그만두었다고들 하지만, 임하에서 언제 누구 한 사람 만난 적 있었던가?’”(『景德傳燈錄』 권23 「藥山圓光傳」 大51 p.391a3. 僧問, ‘藥嶠燈連, 師當第幾?’ 師曰, ‘相逢盡道休官去, 林下何曾見一人.’)

28) 대야(大冶)는 금속을 주조하는 뛰어난 기술을 지닌 대장장이로 『莊子』 「大宗師」에 나온다. 큰 화로는 불매와 불락으로 설정된 관문을 비유한다.

29) 불매와 불락에 대하여 선·악과 우·열 등의 대칭 구도를 본보기로 삼다가 그것을 무너뜨리던 의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것은 화두의 관문이 지향하는 은산철벽(銀山鐵壁)의 궁지(窮地)와 통한다.

眞如喆頌, “大冶洪爐, 烹佛烹祖. 規模鎔盡, 識者罔措.”

### 곤산찬원(崑山贊元)의 송

인과에서 문제를 일으켜 제기하니,  
예부터 지금껏 무수하게 분별하네.  
신령한 자라<sup>30)</sup>는 용문을 뚫고 벗어났건만,  
어부는 낚시질하느라 헛되이 애쓰는구나.

崑山元頌, “因果之中發問端, 古今情計百千般. 靈鼇已透龍門去, 漁者徒勞把釣竿.”

### 불타덕손(佛陀德遜)의 송

불락과 불매로 가까운 것과 먼 것을 정하니,  
구차하여 여우의 혼령을 벗어나지 못했구나.<sup>31)</sup>  
대웅봉 가팔라서 그 누구도 오르기 어렵거늘,  
오랜 세월 계곡과 산은 달빛 마주하고 있네.

佛陀遜頌, “不落不昧定疎親, 區區未免野狐精. 雄峯峭絕人難到, 千古谿山對月明.”

30) 영오(靈鼇). 바다에서 산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전설상의 거대한 자라 또는 거북이. 거오(巨鼇)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불락·불매의 관문(용문)을 뚫고 벗어난 백장 등의 걸출한 선사를 상징하며, 그 말에 속박된 채 백장의 뜻을 닮으려고 이리저리 헤아리는 자들(어부)과 대칭시켜 놓았다.

31) 불락은 도에서 멀고 불매는 가깝다는 구별은 이 공안을 궁구하는 데 원초적으로 잘못된 분별이다.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먼 듯이 설정하여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도 하지만,  
산관<sup>32)</sup>을 때려부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네.  
저울의 첫 눈금<sup>33)</sup>을 실물이라 오인하지 말지니,  
익사를 피하려다 불에 뛰어드는 꼴과 같으리라.<sup>34)</sup>

法眞一頌, “不落因果, 不昧因果, 打破散關無不可. 莫教錯認  
定盤星, 恰似避溺還投火.”

## 굉지정각(宏智正覺)의 송

한 자 높이 물결에 한 길의 파도여!<sup>35)</sup>  
오백생 과거<sup>36)</sup>에는 어쩔 수 없었노라.

---

32) 散關. 보통 대산관(大散關)이라 한다. 함곡관(函谷關)·무관(武關)·소관(蕭關)과 함께 중국의 4관문 중 하나이며, 고대 전투의 요충지이다. 섬서성(陝西省) 보계현(寶雞縣) 서남쪽 대산령(大散嶺)에 위치한다. 이 계송에서는 불락과 불매라는 두 관문을 전투의 요충지인 산관에 비유한다.

33) 본서 2則 주석71) 참조.

34) 저울 눈금과 같이 몰자미(沒滋味)한 불락과 불매의 관문에서 불락을 버리고 불매에 어떤 고매한 뜻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덩벼들어 분별하는 잘못을 말한다.

35) 번뇌와 시비의 갈등을 나타낸다.

36) 오백생전(五百生前). 불락이라 대답하여 오백생 동안 윤회하며 여우의 몸으로 산 시기. 오백생이란 무수하게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가리킨다. 목건련이 부모를 죽인 오역죄를 과거생에 지은 이래 오백생 동안 타살되는 업보를 받았다는 것도 그 예이다. 『增壹阿含經』 권18 大2 p.636b11, 『有部律雜事』 권17 大24 p.290b5 참조.

불락이니 불매니 시비를 헤아리다가,

예전처럼 말의 함정<sup>37)</sup>에 빠져 버렸네.

하하하! 알겠는가?

그대 깨끗이 씻은 듯 남김없이 떨구었다면,

나의 웅알이 같은 소리<sup>38)</sup>도 알아들으리라.

아무렇게나 노래하고 춤추어도<sup>39)</sup> 저절로 아름다운 곡이 되어,

그 사이에 박수치고 노래하며 흥얼대리라.

天童覺頌, “一尺水一丈波! 五百生前不奈何. 不落不昧商量也, 依前撞入葛藤窠. 阿呵呵會也麼? 若是你灑灑落落, 不妨我哆哆唵唵. 神歌社舞自成曲, 拍手其間唱哩囉.”

- 37) 갈등과(葛藤窠), 시비로 복잡하게 얽힌 말[葛藤]의 보금자리[窠]. 불락과 불매라는 언어의 관념을 근거지(보금자리)로 삼다가 속박되므로 그것은 함정과 같다. 오백생전에는 불락뿐이었으나, 지금은 불매까지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말이다.
- 38) 치치화화(哆哆唵唵). 갓난아기의 웅알이.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내뿜는 말을 가리킨다. 파파화화(婆婆唵唵)와 같으며, 걸음마와 웅알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다다파파(多哆唵唵)도 같은 맥락이다. 『大般涅槃經』 권20 「嬰兒行品」 大12 p.485b20 등에 나온다. 담연(湛然)은 “다다(多哆)란 걸음마를 배우는 모양이며, 파파(唵唵)란 말을 익히는 소리이다.”(『法華玄義釋籤』 권2 大33 p.822c23. 多哆, 是學行之相; 唵唵, 是習語之聲.)라고 하였는데, 소승의 삼장교(三藏教)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익히고 말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을 비유한 말이다.
- 39) 신가사무(神歌社舞). 고대 민간에서 천신[神]과 지신[社]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베푸는 음악과 춤을 가리켰는데, 일반적으로 민중들이 즐기는 기예 활동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며, 촌가사무(村歌社舞)라는 말과 통한다. 민중들이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흥얼거리는 노래와 움직이는 대로 맡겨두고 추는 춤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불락과 불매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무심(無心)의 경계를 말한다. 이에 대한 만송행수(萬松行秀)의 해설에 그 취지가 보인다. “말해 보라! 이것은 어떤 곡조일까? 온갖 소리도 마음이 있으면 들을 수 없지만, 우뚝한 바위는 귀가 없어도 소리를 알아듣는다.”(『從容錄』 8則 「頌評唱」 大48 p.232b23. 且道! 是何曲調? 萬籟有心聞不得, 孤巖無耳却知音.)

[설화]

한 자 높이 물결에 ~ 어쩔 수 없었노라 : 오백생 과거에 여우의 몸에 떨어진 것은 망상이 없는 경계에서 망상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불락이니 ~ 빠져 버렸네 : 비록 불매라 해도 여우의 몸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대 깨끗이 씻은 듯 ~ 알아들으리라 : 인식 주관[根]과 대상[塵]을 모두 벗어나 소식이 모조리 깊이 가라앉고,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 벗어나서 본보기가 될 만하면 불락이건 불매이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곧 아무렇게나 노래하고 춤추어도 저절로 아름다운 곡이 되어 그 사이에 박수치고 노래하며 흥얼대리라는 구절과 통한다.

天童：一尺水云云至生前云云者，五百生前墮野狐身，是無妄想處，起妄想也。不落至藤窠者，雖然不昧，亦不免墮野狐身也。若是你灑灑至啾啾者，根塵脫盡，消息併沉，洗得淨潔，脫得可常，則不落不昧，亦不妨。則神歌社舞自成曲，拍手其間唱哩囉。

승천회의 송

오백생 이래 여우로 살더니,  
생선 눈을 진주라 부르는가?  
불락과 불매의 큰 차이 알아야 하리니,  
말하면 그대가 세밀한지 거친지 안다네.

承天懷頌，“五百生來在野狐，爲將魚目作珠呼？須知落昧爭多少，開口知君精與麤。”

## 설두법령(雪竇法寧)의 송

오백생 과거의 옛 주인에게

백장은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시했다네.

충림에서는 기미 있기 전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여,

불락과 불매 오가며 헤아리다 더욱 진실을 잃었네.<sup>40)</sup>

雪竇寧頌, “五百生前舊主人, 大雄指示脫狐身. 叢林未曉機前  
妙, 昧落商量轉失眞.”

## 상방일익(上方日益)의 송 1

불락과 불매라고 하며,

분명히 말로 설명하네.

달빛은 싸늘한 연못 비추고,

바람은 오래된 노송에 이네.

날랜 매 하늘 찌르며 솟고,

어리석은 개 흙덩이 쫓누나.<sup>41)</sup>

말에는 허물이 적고,

행실에 후회가 적다.<sup>42)</sup>

---

40) 불락과 불매를 실(實)로 분별하며 헤아리다 그 말이 전해지기 이전의 진실을 놓친다는 뜻. 이 두 말은 본래 허(虛)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41)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1」 주석18) 참조. 여기서는 매와 개를 대비하여 비유한다. 대홍의 송에서 사자가 여기서의 매와 같다.

42) 『論語』에 나오는 말. ‘말에 허물이 적다’는 것은 1구와 2구의 취지, ‘행실에 후회가 적다’는 것은 5구와 6구의 취지와 상응한다. “공자가 말했다. ‘많이 들은 것 중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면 허물이 적을

上方益頌, “不落不昧, 分明話會. 月照寒潭, 風生古檣. 快鷄冲天, 狂狗趁塊. 言寡尤, 行寡悔.”

## 상방일익의 송 2

여기저기서 여우에 떨어진 이유 묻자,  
불매와 불락에서 주저한 탓이라 하네.<sup>43)</sup>  
홍문<sup>44)</sup> 한번 차버려 두 문짝 열리니,  
어떤 남아가 대장부답게 이렇게 할까?

又頌, “江北江南問野狐, 只因昧落兩踟躕. 鴻門一踏開雙扇,  
那個男兒是丈夫?”

## 영원유청(靈源惟淸)의 송<sup>45)</sup>

분명하게 불락이라 말했다 하여,

---

것이며, 많이 본 것 중 위태로운 부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실을 삼가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실에 후회가 적으면 복록은 그 속에 있는 법이다.”(『論語』「爲政」.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43) 불락과 불매를 대립적 짝으로 놓고 머뭇거리며 분별한다는 뜻.

44) 鴻門. 위기에서 탈출해야 하는 관문을 나타낸다. 관문의 두 문짝에 해당하는 불매와 불락을 모두 견어차고 벗어나야 대장부다운 기개를 지닌 선사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는 중국 섬서성 임동현(臨潼縣)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항우와 유방이 만난 홍문회(鴻門會)로 유명하다. 항우가 유방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유방은 장량의 계책으로 홍문을 탈출할 수 있었다.

45) 노인의 ‘불락’과 백장의 ‘불매’에 대하여 한편은 착각[錯]이고 한편은 이해[會]라고 설정하여 그 이유를 추적하면 이 공안의 관문을 열 수 없다는 관점의 송이다.



노인은 어디서 착각한 것일까?  
 뚜렷하게 불매라고 말했다 하여,  
 백장은 어느 순간 이해했을까?  
 이해도 아니요 착각도 아니라!  
 뒤섞여 묘한 깨달음 드러내네.<sup>46)</sup>  
 불락과 불매여!  
 우뚝하게 바른 자리 나타내네.  
 기를 전체가 원인이건 결과이건 근거 있고,  
 온몸이 오르거나 가라앉거나 거리낌 없도다.  
 잘못은 잘못일 뿐이나 옳은 건 누가 옳은가?  
 말에서 종지를 잃고 분별을 일으켰기에,  
 다시 물어 거듭 한 번 제기하도록 했네.<sup>47)</sup>  
 찬찬히 살펴보니 온통 바람과 천둥 일다가,  
 역풍이 더욱 거세어 천둥소리 끊어졌도다.  
 숨죽이고 깊은 곳에 돌아가 추한 꼴 감추었으니,  
 훗날 어떻게 남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대웅봉은 가을 하늘에 뜬 달 떠받치네.

靈源清頌, “明明道不落, 老人何處錯? 的的言不昧, 百丈幾時  
 會? 不會將<sup>48)</sup>不錯! 渾然宣妙覺. 不落與不昧! 卓爾標正位. 全  
 機因果有來由, 脫體升沈無忌諱. 非自非是誰是? 言下迷宗生

46) 백장도 이해하지 못했고[不會], 노인도 착각하지 않았다[不錯]는 두 가지가 잘 어울려야 이 공안을 타파하는 단서가 된다는 말. 결국 노인은 착각했고 백장은 이해했다는 생각에 매몰되면 ‘묘(妙)’를 잃는다. 불락과 불매가 각각 바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는 다음 구절도 같은 맥락이다.

47) 불락이라는 말 자체의 집착을 풀어줄 목적에서 백장이 다시 묻도록 시켰다는 뜻.

48) ‘將’은 ‘與’와 같은 뜻.

擬議, 再問重教舉一迴. 潛觀徹底起風雷, 逆風轉喝雷聲絕. 飲氣深歸藏醜拙, 他日如何舉似人? 雄峯撐破秋天月.”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백장산, 그 백장산에!  
가섭불 때부터 살았다니 당치 않도다.  
큰 수행과 큰 과보가 어찌 쉬우리오?  
불락과 불매가 어려운 장애 되었도다.  
어렵고 또 어려움이여!  
아무 글자도 없는 경전 어떻게 보리오?  
곤란하고도 곤란하도다!  
수없이 뺨친 소나무 추위 빼앗았도다.<sup>49)</sup>

崇勝珙頌, “百丈山百丈山! 迦葉佛時大無端. 大行大果豈容易? 不落不昧成艱難. 艱難! 無字之經若爲看? 難難! 萬木高松奪歲寒.”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송<sup>50)</sup>

불락과 불매여!

49) 추위에 견디며 겨울을 무색하게 만드는 소나무의 푸름으로 불락과 불매의 난관을 뚫은 경계를 비유한 구절.

50) 돌을 호랑이로 착각하여 쏘았을 때는 화살이 깃털 있는 데까지 박혔지만, 돌로 알고 난 다음에는 뚫지 못했다는 이광(李廣)의 고사를 비유로 들었다. 불락과 불매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 아니라고 보면 이 관문을 뚫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이라 분별하는 순간부터는 뚫지 못한다는 비유이다.

백장과 만나기 전후의 말iero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점이 있다면,  
 철로 덮인 산이 길을 가로막으리.  
 감전산에서 호랑이 쏘던 당시의 장군 모르는가?<sup>51)</sup>  
 처음의 한 발은 깃털까지 깊이 박혔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본디 돌이었다네.  
 다시 쏘아 뚫고자 했으나 맞이지 못했으니,  
 이장군은 완전히 속는 지경에 빠질 뻔했다네.  
 예부터 오늘날 사람까지 공연히 탄식하는구나.

慈受頌, “不落與不昧! 前後百丈語. 毫髮若參差, 鐵山橫在路.  
 豈不見, 藍田當年人射虎? 初時一箭沒其羽, 子細看來元是石.  
 再欲射時射不入, 幾乎賺殺李將軍. 千古今人空嘆息.”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물고기 헤엄치니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아가니 깃털이 떨어진다.  
 맑은 거울에서 달아날 길 없으니,<sup>52)</sup>  
 허공처럼 텅 비고 넓게 트였다네.

51) 이장군 곧 이광(李廣)의 다음 일화를 가리킨다.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풀 속의  
 돌을 호랑이로 보고 활을 쏘아 돌에 맞춰 화살촉이 박혔다. 살펴보니 그것은 돌이  
 었다. 뒤이어 다시 쏘았으나 결코 돌을 뚫을 수는 없었다.”(『史記』「李將軍列傳」. 廣  
 出獵, 見草中石, 以爲虎而射之, 中石沒鏃. 視之, 石也. 因復更射之, 終不能復入石矣.)

52) 맑고 큰 거울[至鑒]은 모든 것을 담아 비추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피해 달아나  
 지 못한다는 말. 흐려진 물(불락)과 떨어진 깃털(불매) 등과 같은 자취에서 본래  
 의 모습을 알아채는 지혜를 나타낸다.

죽은 뒤 아득한 오백생 보냈으니,  
인과를 화두로 큰 수행한 탓이라.  
우렁찬 천둥이 산 가르고 폭풍은 바다 흔들어도,  
수없이 단련해 얻은 순금의 색은 바뀌지 않노라.

蔣山勤頌, “魚行水濁, 鳥飛毛落. 至鑒難逃, 大虛寥廓. 一往  
迢迢五百生, 只緣因果大修行. 疾雷破山風振海, 百煉精金色  
不改.”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송 1

취해서 자고 깨어선 누워 고향 돌아가지 않더니,  
홀몰로 떠돌며 머나먼 타향 하늘 아래 산다네.  
조사와 부처의 자리에 앉히려 하나 머물지 않고,  
밤이 되자 이전 그대로 갈대꽃 숲에서 자노라네.

佛眼遠頌, “醉眠醒臥不歸家, 一身流落在天涯. 祖佛位中留不  
住, 夜來依舊宿蘆花.”

### 불안청원의 송 2

기틀에 적중한 질문 하나로 같고 다른 차별 끊고,  
하늘과 땅을 평정하는 화살로 공훈을 시험하노라.  
요란한 따귀 한 대 뺨에 떨어지니,  
대웅산의 그 노인 몹시도 우습구나.

〈이는 황벽이 따귀 한 대 울려붙인 것을 읊은 송이다.〉

又頌, “一問當機絕異同, 定乾坤箭驗勳功. 轟轟一掌挾腮下,

笑殺雄山這老翁.”〈此頌黃蘗打一掌.〉

### 불안청원의 송 3

봄이 되자 꽃은 피었건만,  
췌던 그 얼굴 어디 있는가?  
안타깝다, 동산의 이 봄빛이여!  
거울 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는 위산이 사립문을 세 번 흔든 것을 읊은 송이다.〉

又頌, “春至是花開, 朱顏安在哉? 可憐園裏色! 不入鏡中來.”

〈此頌鴻山撼門扇三下.〉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불락과 불매여!  
돌덩이와 흙덩어리로다.<sup>53)</sup>  
길<sup>54)</sup>에서 서로 마주치고,  
얼음산을 분쇄했다네.  
박수치며 꺾꺾대고 한바탕 웃으니,  
명주에는 포대를 맨 어수룩한 자<sup>55)</sup> 있다네.

---

53) 불락과 불매라는 두 가지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말.

54) 맥로(蔦路), 맥로(陌路)와 같은 말. 맥로인(陌路人)이라 하면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말한다.

55) 명주(明州) 봉화현(奉化縣) 출신의 포대화상(布袋和尚 ?~916)을 말한다. 누가 무엇 물어오든지 간에 포대를 내려놓거나 다시 짊어지는 것으로 답하는 경우가

雲門杲頌, “不落不昧, 石頭土塊. 驀路相逢, 銀山粉碎. 拍手  
呵呵笑一場, 明州有个慙皮袋.”

##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백장의 여우 공안이여!

기러기가 문 갈댓잎과 같고,<sup>56)</sup>

이광의 귀신같은 활숨씨요,

장전<sup>57)</sup>의 휘갈긴 초서로다.

竹庵珪頌, “百丈野狐! 塞鴈銜蘆, 李廣神箭, 張顛草書.”

##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송

블락이라 하여 여우의 몸에 떨어졌다가,

---

많았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항상 거리에서 걸식을 하며 지내는 외형에 가려 그  
의 날카로운 선기(禪機)를 알아채는 사람이 드물었다. 『景德傳燈錄』 권27 「布袋  
和尚傳」大51 p.434a29 참조. 백장이 따귀를 맞고 크게 웃었던 것이 어리석어 보  
이지만 사실은 포대화상에 비견되는 선기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다.

- 56) 기러기가 주살(새 잡는 짧은 화살)로부터 날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 때문에  
기러기를 두고 지혜가 있는 새 곧 지금(智禽)이라 한다. “기러기는 갈댓잎을 물  
고 그물을 막고, 들소는 무리지어 대형을 짜서 호랑이를 물리친다.”(『屍子』 권하.  
雁銜蘆而捍網, 牛結陳以却虎.); “기러기는 바람의 방향을 탐으로써 힘을 아끼고,  
갈댓잎을 물고 날아다님으로써 주살의 공격에 대비한다.”(『淮南子』「修務訓」. 夫  
鴈順風以愛氣力, 銜蘆而翔, 以備矰弋.)

- 57) 張顛. 당(唐)나라 때 초서의 대가 장욱(張旭)을 말한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 먹물에 적셔서 글을 쓰는 등 미치광이와 같은 여러 행태를 벌이곤  
하여 ‘전(顛)’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불매라 하여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네.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풀잎이 움직이고,  
 보배 그릇엔 제호가 가득 담겨 있구나.  
 대웅산에 구름 흩어진 바로 그 다음에,  
 높이 솟은 천 길 봉우리 허공에 꽃혔네.

育王謹頌, “不落墮野狐, 不昧脫野狐. 無風自動草, 寶器盛醍  
 醐. 好是大雄雲散後, 嶄嶄千仞插空虛.”

### 심문답분(心聞曇首)의 송

불락이다 불매다 하는 말을,  
 집어내어 교활하게 그대 속이네.<sup>58)</sup>  
 떨어졌다가 벗어났다 하니,  
 누가 놓아주고 사로잡은 것인가?  
 백장산 봉우리에 옛 거울 밝으니,  
 수많은 요정들 보금자리 잃었네.<sup>59)</sup>

心聞曇首頌, “不落不昧, 拈君狡獪. 一墮一脫, 是誰縱奪? 百丈  
 峯頭古鏡明, 無限天精失窠窟.”

58) ‘불락’은 잘못된 대답이고 ‘불매’가 바른 대답이라는 애초의 이야기는 점점을 위  
 하여 임의로 설정된 관문이며, 본질적으로는 속임수와 같다.

59) 불락과 불매를 대칭시키고, 떨어졌다는 것과 벗어났다는 것을 대립의 짝으로  
 삼아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에서 분별하는 사람(요정)들은 결국 그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송<sup>60)</sup>

오백생 이전에는 잘못 대답했다면,

오백생 이후에는 크게 착각했다네.

큰 착각이로다!

상서로운 기린이 외뿔이라 누가 말했는가?<sup>61)</sup>

密庵傑頌, “五百生前失却, 五百生後大錯. 大錯! 誰道祥麟只一角?”

## 혼성자의 송 1

여우는 여우의 침<sup>62)</sup>을 씹어 삼키고자 하니,

알려 하면 당나귀해에서 말해까지 걸리리라.<sup>63)</sup>

---

60) 백장을 만나기 전후의 잘못과 깨달음을 모두 부정하는 송.

61) ‘불매’라고 하여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고 한 일면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불락’이라 하여 여우의 몸에 떨어졌다는 말의 진실까지 타파해야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62) 말을 할 때 침이 튀어나오는 데서 ‘침’이라 하면 곧 ‘말’을 가리키게 되었다. 여우의 침이란 불매와 불락을 분명하게 갈라놓고 발설하는 어리석은 말을 뜻한다. “문자를 기억하여 마음에 담아두면 손살과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한 점의 여우 침이라도 삼키기만 하면 30년 동안 수행하며 토해내려 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從容錄』 8則 「百丈野狐」의 「示衆」 大48 p.231c26. 記箇元字脚在心, 入地獄如箭射, 一點野狐涎嚥下, 三十年吐不出.) ; ‘백장의 말을 듣고 노인이 깨달았다’라는 구절에 대한 같은 책의 「著語」 大48 p.232a6에도 “여우의 침이 여전히 남아 있다.”(狐涎猶在)라고 한다. ; “백장이 몸소 여우를 만났는데, 그의 청에 답한 말 대단히 거칠었다네. 이제 여러 선객(禪客)들에게 묻노니, 여우의 침은 모두 내뱉었는가?〈고목법성(枯木法成)의 송〉”(『頌古聯珠通集』 권10 卽115 p.113a4. 百丈親曾見野狐, 爲渠參請太心麤. 而今敢問諸禪客, 吐得狐涎盡也無?〈枯木成〉)



뛰어난 솜씨로 얼음 깎아 눈 만들었다지만,  
애초에 얼음과 눈 모두 거짓으로 전했다네.<sup>64)</sup>

混成子頌, “野狐要嚼野狐涎, 若會驢年至馬年. 妙手將冰削成  
雪, 到頭冰雪是虛傳.”

## 혼성자의 송 2

이 마음에 애착하는 여우들아!  
지금 시장처럼 시끄럽게 떠드네.  
무슨 오백생을 여우로 낳다 하는가?  
깨달았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리.

又頌, “愛是心野狐! 如今鬧如市. 說甚五百生? 會也不相許.”

## 무진거사의 송

몸 바꾸어 큰 수행에 대하여 묻자,  
그 자리에서 금비<sup>65)</sup>로 망막 도렸네.

- 
- 63) 불매와 불락을 명백하게 다른 차원으로 갈라놓고 이 공안을 알려고 한다면 영원히 알 수 없다는 뜻. 당나귀해와 말해는 없으므로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 64) 얼음과 눈은 각각 불락과 불매에 상응한다. 두 가지 모두 시험용으로 설정된 허(虛)이며 실(實)이 아니다.
- 65) 金篋, 금주(金籌)·금배(金拜)라고도 한다. 맹인의 눈을 고치기 위하여 망막을 도려내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데 사용하던 수술 도구. 중생의 무지를 도려내어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부처님의 교설을 이것에 비유한다. “마치 수많은 맹인들이 눈을 치료하기 위해 솜씨가 뛰어난 의원을 찾아갔고, 이때 의원이 금비로써 눈의 망막을 도려내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보이는가?’라

여우의 몸 바꾸어 백장이 되었지만,

밤이 깊자 여전히 여우 울음 우네.

無盡居士頌, “化形來問大修行, 當下金篦刮眼睛. 轉得野干成  
百丈, 夜深依舊野干鳴.”

## 열재거사의 송

양편 모두 여우의 몸인데,

중간에 떨어져 번뇌 벗어나지 못했네.

당장에 무리를 쳐서 뒤집어버리니,

이웃집 닭 세 번 울어 행인 재촉하네.

悅齋居士頌, “兩頭俱是野狐身, 落在中間未離塵. 直下撞翻群  
隊去, 隣雞三唱促行人.”

## 위산영우(湍山靈祐)와 양산혜적(仰山慧寂)의 문답

위산이 황벽과 백장 사이에 오간 야호화<sup>66)</sup> 문답을 제기하고 양산에게  
문자 양산이 말했다. “황벽은 항상 이러한 기틀<sup>67)</sup>을 활용했습니다.” “타고

---

고 문자 맹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고, 다시금 두 손가락 세 손가  
락을 들어 보이자 ‘조금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40권본 『大般涅槃經』  
권8 大12 p.411c20, 如百盲人, 爲治目故, 造詣良醫. 是時, 良醫卽以金鉈, 決其眼膜, 以  
一指示問言, ‘見不?’ 盲人答言, ‘我猶未見.’ 復以二指三指示之, 乃言, ‘少見.’); “승량  
이 말했다. ‘금비는 모든 경전의 교설을 비유한다.’”(『大般涅槃經集解』 권20 大37  
p.462b29, 僧亮曰, ‘金鉈譬諸經教.’)

66) 野狐話. 여우를 소재로 한 공안이라는 뜻으로 본칙의 별명이다.

67) 백장에게 따귀 한 대를 때린 것.

나면서 얻은 것일까? 남들로부터 배운 것일까?”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본성에 있는 종지에 통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

瀉山, 舉黃蘗問百丈野狐話, 問仰山, 仰云, “黃蘗常用此機.”

瀉云, “天生得, 從人得?” 仰云, “亦是稟受師承, 亦是自性宗通.” 瀉云, “如是, 如是.”

### 천의의회(天衣義懷)의 상당

어떤 학인이 물었다. “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소리만 들었지 학이 신선이 된다는 말은 모르는구나.” “옛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래의 공안에서 알아차려라!” 천의의회가 이어서 말했다. “백장의 야호화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라는 구절에 대하여 여러 선덕들이 요즘 모두들 이렇게 말한다. ‘큰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인과(因果) 속에 있다. 이전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인과의 도리를 완전히 부정한 결과<sup>68)</sup>가 된 까닭에 여우의 몸에 떨어졌고, 그 뒤에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한 소리를 듣고 그는 곧바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다.’ 이전에 노인이 한 말이 인과의 도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면, 뒤에 백장이 한 말은 인과의 도리에 어둡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헤아린다면 세상 전체의 모든 선지식 중 그 누구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못하며 모조리 여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떤 학인이 조주

---

68) 발무인과(撥無因果), 교학에서 단견(斷見)으로 규정된다. 본서 321則 주석20) 참조.

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주가 ‘없다’<sup>69)</sup>라고 대답한 것이나, ‘잣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음에 ‘있다’<sup>70)</sup>라고 한 대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조주 또한 여우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71)</sup> 또한 혜충국사에게 ‘천당에 태어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국사가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후대에 다시 경산도흠에게 ‘천당에 태어나고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음에 경산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두 고덕 중 누구를 여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한 어떤 학인이 준극화상에게 ‘큰 수행을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준극이 ‘목에 형틀을 걸고 발목에는 족쇄를 찻다’라 대답했고, ‘크게 업을 짓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선을 수행하여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대답했다.<sup>72)</sup> 이는 한 사람이 두 종류의 결정적인 말로 대답한 것인

69) 본서 417則「趙州狗子」참조.

70) “‘잣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언제 성불합니까?’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趙州語錄』古尊宿語錄13 卮118 p.321b14. 問, ‘栢樹子, 還有佛性也無?’ 師云, ‘有.’ 云, ‘幾時成佛?’ 師云, ‘待虛空落地.’ 云, ‘虛空幾時落地?’ 師云, ‘待栢樹子成佛.’)

71) 조주의 ‘있다’와 ‘없다’를 위와 같이 분별하면, 각각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의 잘못에 빠진 대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락과 불매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비를 따지면 각각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관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아래 혜충국사와 경산도흠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로 다르게 내린 대답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유(有)와 무(無)가 아니라 몰자미(沒滋味)의 화두인 것이다.

72) 『五燈會元』 권2 卮138 p.54a15, 『五燈全書』 권4 卮140 p.219a16, 『宗門拈古彙集』 권5 卮115 p.579a4 등에는 ‘선행을 닦는 사람’(修善行人)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作惡行人)으로 되어 있다. 『宗鑑法林』 권7 卮116 p.108b1, 『圓悟語錄』 권16 大47 p.790b4, 『頌古聯珠通集』 권8 卮115 p.87a15 등에는 본서와 같이 ‘큰 수행을 하는 사람’, ‘업을 짓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준극의 말이 아니라 그 스승인 파조

데, 이 두 대답 사이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가? 만약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여우가 될 것이고, 만약 어긋나는 점이 없다면 어떤 부분이 하나의 이치로 모두 꿰뚫는 것일까? 무수한 질문과 끝도 없는 대답은 그만두고 도대체 큰 수행을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만약 드러난 말 그대로 뜻을 확정한다면 구절에 막혀 미혹될 것이니, 정(情)이 한정된 범위에 예속되어 있고 식(識)은 법의 티끌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로 남들의 스승[人天師]이 된다면 자신의 말이 귀착되는 뜻조차 모를 것이니, 바르게 볼 줄 아는 자신만의 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까지 멀게 할 것이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여러 선덕들이여,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을 가려내는 바른 눈을 갖추어야 하며, 겉만 그럴듯한 거짓 반야<sup>73)</sup>를 배워서 안 된다.”

天衣懷，上堂，僧問，“大修行底人，還具因果也無？”師云，“只聞人作鬼，不見鶴成仙。”進云，“古人，又作麼生？”師云，“且識取前話！”師乃云，“百丈有野狐話，大行於世，至便脫野狐身，諸禪德，如今盡道，‘大修行人，正在因果。前來却道，不落因果，成撥無因果，所以墮野狐中；後來道，不昧因果，他便得脫去。’若也前是撥無因果，後是不昧因果，作如此商量，盡大地善知識，無一个得人身，惣作野狐，始得。祇如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又問，‘栢樹子，還有佛性

타(破竈墮)의 말로 되어 있다.

- 73) 상사반야(相似般若). 상사반야바라밀다(相似般若波羅蜜多)의 줄임말. 『大般若經』 권136 大5 p.738b16에 따르면, 상사의 6바라밀이란 유소득(有所得)의 6바라밀을 가리키며, 상사반야도 유소득의 반야를 가리킨다. 유소득이란 집착된 마음을 가리키는데, 『大智度論』 권69 大25 p.542a19에 “집착된 마음으로 6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상사’라 한다.”(以著心，行六波羅蜜，是名似。)라고 한 해석이 그 뜻이다.

也無?’ 州云, ‘有.’ 若恁麼道, 趙州亦須作野狐, 始得. 又問忠國師, ‘天堂地獄因果, 是有是無?’ 國師云, ‘無.’ 後來又問徑山欽, ‘天堂地獄因果, 是有是無?’ 徑山云, ‘有.’ 祇如此二古德, 教誰作野狐卽是? 又僧問峻極和尚, ‘如何是大修行底人?’ 極云, ‘擔枷負鎖.’ ‘如何是大作業底人?’ 極云, ‘修禪入定.’ 此是一人對兩轉語. 還有相違處麼? 若有相違, 亦須作野狐; 若無相違, 那裏是一理相貫處? 千問萬對且置, 作麼生說个大修行底人? 若以卽言定旨, 滯句迷封, 蓋爲情存分量, 識附法塵. 若如是, 作人天師, 自語尚不知落處, 非唯自家無眼, 亦乃瞎却他人. 苦哉, 苦哉! 諸禪德, 夫行脚人, 須具正法眼, 始得, 莫學相似般若.”

#### [설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소리만 들었지 학이 신선이 된다는 말은 모르는구나 : 신선이 된 학이 어찌 다시 신선이 되겠는가?

본래의 공안에서 알아차려라 : 본래의 공안에 어찌 ‘인과에 떨어진다’거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차별이 있었던가?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끌어들인 여러 공안은 모두 이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天衣 : 只聞人作鬼云云者, 仙鶴何更成仙? 且識取前話者, 前話何曾有落因果, 不落因果? 許多葛藤下, 多引公案, 皆不出此義.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염

“한마디가 나온 다음에는 사마(駟馬)도 쫓아가기 어렵다.<sup>74)</sup> 화와 복이

들어오는 문은 따로 없으니 오로지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일 뿐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대홍이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sup>75)</sup>”

74) 내뱉은 언설이 편견으로 굳어지는 것을 비유한다. 불락과 불매를 대립시켜 설정한 화두에서 그 말의 관념에 속박되어 본래의 뜻을 상실한 것을 나타낸다. 사마는 수레 하나를 끄는 네 마리의 말이며, 본래 『論語』「顏淵」의 “사마도 혀의 빠르기는 따라가지 못한다.”(駟不及舌)라는 말에 근거한다. 구양수(歐陽修)의 『筆說』「駟不及舌說」에 “속담에 ‘한마디 말이 입에서 나오면 사마도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論語』에서 ‘사마도 혀의 빠르기는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俗云, ‘一言出口, 駟馬難追.’ 論語, 所謂‘駟不及舌’也.)라고 풀었다. “어느 때 ‘불은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 더욱 뜨거워지고 바람은 달빛과 어울리면 더욱 서늘해진다. 북두칠성을 향하고서 남극성을 바라본다는 구절에 대하여 그대들이 말하기를 바라지 않고, 후인들이 그 진실을 벗겨내어 비판하도록 남겨 둔다’라고 말한 다음 학인들을 대신하여 말했다. ‘한마디 말이라도 나왔다면, 사마로도 쫓아갈 수 없다.’”(『雪竇語錄』 권4 大47 p.693c18. 或云, ‘火待日熱, 風待月涼. 北斗南星句, 不要偏道, 留與後人貶剝.’ 代云, ‘一言已出, 駟馬難追.’)

75)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에 맞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어울려 하나의 관문이 되는 형식에는 다음의 일화가 좋은 예가 된다. 혜각(慧覺)이 스승인 조주(趙州)가 ‘뜰 앞의 잣나무’라는 공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부정한 경우와, 그에 대한 대혜종고(大慧宗杲)의 평가가 본 공안에 대한 대홍보은의 염과 통한다. “광효혜각선사가 법안의 처소에 이르자 법안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조주에서 옵니다.’ ‘뜰 자하니 조주에게는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런 화두는 없습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학인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상좌는 어째서 없다고 말하는가?’ ‘선사께서는 진실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니 화상은 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경산(徑山)의 대혜종고(大慧宗杲)가 평가했다. ‘만약 이러한 화두가 있다고 말하면 혜각[覺鐵嘴]의 뜻을 놓쳐버리며, 이 공안이 없다고 말하면 또한 법안의 뜻을 놓쳐버리고, 있다·없다는 두 가지가 모두 아니라고 말하면 조주의 뜻을 놓쳐버릴 것이다.’”(『法眼語錄』 大47 p.591a22. 光孝慧覺禪師, 至師處, 師問, ‘近離甚處?’ 覺云, ‘趙州.’ 師云, ‘承聞, 趙州有柏樹子話, 是不?’ 覺云, ‘無.’ 師云, ‘往來皆謂,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趙州云, ‘庭前柏樹子.’ 上座

大洪恩拈, “一言已出, 駟馬難追. 禍福無門, 唯人自召. 雖然, 若到諸方, 莫道‘大洪有此語.’”

[설화]

한마디가 나온 ~ 쫓아가기 어렵다 :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가리킨다.

화와 복이 ~ 스스로 불러들일 뿐이다 : 다만 스스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우의 몸에 떨어진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 앞에서 한 말에 화와 복, 미혹과 깨달음, 득과 실 등의 구별이 있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大洪 : 一言至難追者, 不落因果一言也. 禍福至自召者, 只爲自迷, 墮野狐身也. 雖然如是者, 前言似有禍福迷悟得失地故也.

### 취암종의 염<sup>76)</sup>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디에 떨어지는가? 인과에 어둡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여러분, 딱 들어맞힐 수 있는가? 만약 딱 들어맞히더라도 여우의 견해와 같은 정도일 것이며, 딱 들어맞히지 못한다면 여우의 견해만도 못할 것이다. 말해 보라! 다만 길흉이 있을 뿐 점을 칠 단서<sup>77)</sup>는 없으니, 거북이 껍질을 가지고 손빈<sup>78)</sup>에게 물어보는 일은 그

---

何得道無?’ 覺云, ‘先師實無此語, 和尚莫謗先師好.’ <徑山杲云, ‘若道有此語, 蹉過覺鐵嘴; 若道無此語, 又蹉過法眼. 若兩邊俱不涉, 又蹉過趙州.’>)

76) 불락과 불매를 모두 부정하여 그것을 분별의 단서로 삼는 방법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염이다.

77) 괘조(卦兆), 괘상(卦象)과 구조(龜兆)를 합한 말로 두 가지 모두 길흉을 점치는



만두어라.”

翠崑宗拈, “不落因果時, 墮在什麼處? ; 不昧因果時, 脫在什麼處? 諸人, 還定當得麼? 若定當得, 見解共野狐一般; 若定當不得, 見解不如野狐. 且道! 畢竟如何? 但自吉凶無卦兆, 休將龜殼問孫賓.”

[설화]

불락과 불매에서 어느 한편이 맞고 다른 한편은 틀렸다고 헤아린다면 여우의 몸에 떨어지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翠巖意, 不落不昧, 得失商量, 則未免墮野狐身.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거

사립문을 세 번 흔들었던 위산의 인연을 제기하고 말했다. “그대가 말해 보라! 위산에게 야호화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오히려 사립문을 흔들었다. 말해 보라!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알고자 하는가? 모두들 금털사자의 새끼들이니 아무도 도중에 윤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

상징물이다. 패상은 64괘(卦)의 조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구조는 거북이 껍질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이 공안에 대하여 점을 치는 것처럼 이리저리 분별하는 근거를 말한다. 곧 불락·불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안의 언어가 이에 해당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공안의 난관을 타파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78) 孫臏, 『孫子兵法』의 저자 손무(孫武)의 후손. 병법가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을 잘 쳤던 그도 점괘를 통해서만 점을 치기 때문에 점괘가 나타나기 이전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곧 여기서 손빈은 언어에서 실마리를 찾는 사람을 나타낸다.

佛眼遠，舉瀉山撼門扇三下因緣，師云，“你道！問他野狐話，他却撼門扇。且道！緊要在什麼處？要會麼？盡是金毛師子子，莫於中路却輪迴。”

[설화]

사립문을 세 번 흔들었던 경계가 모두들 금털사자의 새끼라는 것이니, 이것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佛眼：撼門扇三下處，盡是金毛師子子，此謂緊要處也。

### 육왕불지의 상당

어떤 학인이 백장을 만나기 이전의 노인(先百丈)에게 ‘큰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묻자 그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대답을 제기하고 “착각이다!”라고 착어(著語)를 달고, 뒤에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한 대답에 대해서도 “착각이다!”라고 착어를 달았다. 이어서 “오늘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착각이다, 착각이야!’라고 대답할 것이다. 말해 보라! 백장과 비교하여 나은 점이나 못한 점이 있는가?”라고 말한 다음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금시전<sup>79)</sup>에 기름을 떨어뜨려 옥기린을 쏘아 뚫는다.”

育王佛智，上堂，舉僧問先百丈，‘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  
丈云，‘不落因果.’ 師云，‘錯!’ 後百丈云，‘不昧因果.’ 師云，  
“錯!” “今日忽更有人，問育王，‘不落因果是，不昧因果是?’

---

79) 金鏃箭. 화살촉을 황금으로 장식한 화살. 신계(信契)로 쓰인다.

對云, ‘錯, 錯!’ 且道! 與百丈有優劣也無?” 良久云, “滴油金  
鏃箭, 射透玉麒麟.”

[설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을 각각 좌우  
에 놓은 것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이 옳은가: 불락과 불매  
의 중간에 대해서도 모두 ‘착각이다’라고 한 것이니, 모두 긍정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금시전에 기름을 떨어뜨리다: 금시전에 다시 기름을 떨어뜨리면 화살촉이  
예리하면서 매끄러워진다.

옥기린을 쏘아 뚫는다: 불락과 불매의 중간도 뚫어버린다는 말이다.

育王: 不落因果, 不昧因果, 左右也. 不落因果是云云者, 中間  
皆云錯者, 皆不立也. 滴油云云者, 金鏃上更油滴, 銳而滑也.  
射透云云者, 不落不昧中間, 亦透過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어떤 학인이 물었다. “수행을 완성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는  
물음에 백장을 만나기 전의 노인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  
는데, 어째서 여우의 몸에 떨어졌습니까?” “누군가 만나거든 지금 말한 그  
대로만 제기하여라.”<sup>80)</sup> “그렇다면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대답  
해 준 다음에는 어째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습니까?” “누군가 만나거든

---

80) 학인이 품은 의문 그대로 궁구할 화두와 다르지 않다는 뜻.

지금 말한 그대로만 제기하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수행을 완성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묻는다면, 화상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누군가 만나거든 지금 말한 그대로만 제기하여라’고 대답하겠다.” 이어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이 인과에 떨어진다”라 하고 불자(拂子)로 선상(禪床)을 한 번 치고서 “이래도 이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 하고, 다시 선상을 한 번 치고서 “이래도 이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말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의 붓질로 그어 없앤다면, 무엇을 인과라 하겠는가?”라고 했다. 또 다시 선상을 한 번 치고 “바로 이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뒤, 불자를 들어 올리며 대중에게 말했다. “오백생의 과거부터 있었던 소식이니 분별하며 달리 찾아서는 안 된다.”

雲門杲, 上堂, 僧問,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前百丈云, ‘不落因果.’ 爲什麼墮野狐身?” 師云, “逢人但恁麼舉.” 進云, “只如後百丈道, 不昧因果, 爲甚麼脫野狐身?” 師云, “逢人但恁麼舉.” 進云, “或有人問徑山, 大修行底人, 還落因果也無? 未審和尚, 向他道什麼?” 師云, “向他道, 逢人但恁麼舉.” 乃云, “大修行人, 落因果.” 以拂子擊禪床一下云, “也不離這個消息. 大修行人, 不落因果.” 又擊禪床一下云, “也不離這個消息. 落與不落, 一筆勾下, 却喚什麼作因果?” 又擊禪床一下云, “也不離這個消息.” 乃舉起拂子, 召大衆云, “五百生前消息在, 不須意下別搜求.”

#### [설화]

누군가 만나거든 지금 말한 그대로만 제기하여라 : 그 말이 바로 본분의 소식이라는 뜻이다.

이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다시 무슨 말을 찾겠느냐는 뜻이다.

불자를 들어 올리며 ~ 과거부터 있었던 소식이니 : 여우의 몸에 떨어진 것이나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나 모두 본래 허망한 소식<sup>81)</sup>이라는 뜻이다.

雲門：逢人但伊麼舉者，好箇消息也。不離這箇消息者，但伊麼道外，更討什麼？乃舉起拂子至消息在者，墮脫本空地消息。

## 대혜종고의 거

“불락과 불매여! 반은 밝고 반은 어둡도다. 불매와 불락이여! 두 가지 모두 텅 비어 하나도 마음에 걸려 있지 않다. 오백생 이전의 여우 한 마리가 지금은 냉정하게 가만히 따라다니며 부른다.”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말했다. “좌중에 강남에서 온 나그네가 있다면 술잔 앞에서 자고새 울음소리 내지 말지어다.”

又舉此話云，“不落與不昧！半明兼半晦；不昧與不落！兩頭空索索。五百生前个野狐，如今冷地謾追呼。”喝一喝云，“座中既有江南客，休向樽前唱鷓鴣。”

### [설화]

불락과 불매여 ~ 걸려 있지 않다 : 백장을 만난 다음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한 경계에 이르러서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또한 텅 비어 마음에 걸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삭(索)(석과 명을 반절한 음)은 흠어졌다

---

81) 아래에 이어지는 대혜종고의 거에서 “불매와 불락이여! 두 가지 모두 텅 비어 하나도 마음에 걸려 있지 않다.”(不昧與不落，兩頭空索索)라고 한 말과 통한다.

는 뜻이고 사라졌다는 뜻이다.

오백백 이전의 ~ 가만히 따라다니며 부른다 : 여우의 몸이 떨어지거나 그것에 서 벗어나거나 모두 본래 공이라는 뜻이다.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 울음소리 내지 말지어다 : 나아가 이 하나의 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又舉：不落與不昧云云者，至後百丈，不昧因果處，不落因果，亦空索索也。索〈昔名切〉，散也盡也。五百生至謾追呼者，墮脫本空也。喝一喝云云者，更須知有這一喝。

### 백운지병(白雲知病)의 염

“만상을 모으고 유와 무를 하나로 만들며, 과거와 미래를 섞고 오늘날과 옛날을 합한다.<sup>82)</sup> 눈에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은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에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모든 법은 하나가 될 것이다.<sup>83)</sup> 대중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행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공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면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sup>84)</sup>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달을 따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물에 들어가 봐야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있다’라는 뜻을 알고 싶은가?<sup>85)</sup> 강물 속에 염전을 떨어뜨렸으면 강

82) 이통현(李通玄)의 설이다. 『華嚴經合論』 권6 卅5 p.745b17 참조.

83) ‘눈에 졸음이’부터 여기까지는 『信心銘』 大48 p.376c21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84) 낙칠낙팔(落七落八). 일곱 단계 여덟 단계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로 근본에서 멀리 하락한다는 뜻이다.

85) 입수견장인(入水見長人). 실제적인 상황에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북종 신수(神秀)와 더불어 숭산노안(嵩山老安) 또는 남양혜충(南陽慧忠)을 시험한 인연에서 비롯된 이야기. “물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건진다.<sup>86)</sup>”

白雲曷拈, “會萬像齊有無, 混去來印今古. 眼若不睡, 諸夢自

좌야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있다: 『요선사록』에 따르면, 당나라 측천무후가 송 산노안과 북종신수를 궁중에 불러들여 공양을 올린 일이 있었다. 두 선사를 욕탕에 들여보내고 궁녀들에게 시봉하도록 하였는데 노안만이 거리낌 없이 기뻐하며 한결같았다. 무후가 감탄하며 말했다. ‘물에 들어가 좌야 비로소 걸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구나!’”(『祖庭事苑』 권1 卍113 p.15b7. 入水見長人: 按耀禪師錄, 唐武後, 召嵩山老安, 北宗神秀, 入禁中供養. 因澡浴, 以宮姬給侍, 獨安怡然無它. 後數曰, ‘入水始知有長人!’); “옛날에 송악노안선사가 남양혜충국사와 함께 측천무후의 초청으로 공양을 받으러 궁중에 들어갔다. 측천무후는 여러 궁녀들에게 두 선사의 목욕을 시중들라고 명령했다. 혜충국사는 사양하고 가지 않았고, 노안선사는 여러 궁녀들이 씻겨주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평탄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있었다. 측천무후가 혜충국사에게 ‘어째서 가지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노안이 대답했다. ‘물에 들어가 좌야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존속은 모두 여색과 붙어 있으면서[卽] 동시에 여색과 떨어져 있었으니[離] 수다원과(須多洄果: 初果)를 얻은 사람이 넘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楞加經宗通』 권4 卍26 p.519b11. 昔, 嵩嶽安禪師, 同南陽忠國師, 爲武則天, 迎入大內供養. 則天命諸宮女, 爲二師沐浴. 忠國師, 辭不赴; 安禪師, 聽諸宮女浴, 坦然自若. 則天問忠國師, ‘何以不赴?’ 安對曰, ‘入水見長人.’ 此二尊宿, 卽女色, 離女色, 豈須陀洹人所及?); “운문이 장경과 함께 석공이 삼평을 가르친 화두를 제기하고 말했다. ‘어떻게 말해야 석공이 삼평에게 반만 생기다 만 성인이라고 부른 질책을 모면할 수 있을까?’ 장경이 ‘만약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겠는가?’라고 하자 운문이 말했다. ‘실제적인 상황에 닥쳐좌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雲門廣錄』 권하 古尊宿語錄18 卍118 p.392b16. 師與長慶, 舉石鞏接三平話, 師云, ‘作麼生道, 免得石鞏喚作半箇聖人?’ 慶云, ‘若不還價, 爭辨眞僞?’ 師云, ‘入水見長人.’)

- 86) 이 역시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말이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강물에 엽전을 떨어뜨렸으면 강물 속에 들어가 건진다.’”(『景德傳燈錄』 권19 ‘雲門文偃傳’ 大51 p.358c28. 問, ‘如何是西來意?’ 師曰, ‘河裏失錢河裏漚.’); “‘꼭꼭이 앉아 실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물에 엽전을 떨어뜨렸으면 강물 속에 들어가 건진다.’”(『雲門廣錄』 권상 古尊宿語錄15 卍118 p.336a1. 問, ‘如何是端坐念實相?’ 師云, ‘河裏失錢河裏漚.’)

除；心若不異，萬法一如。衆中稍稍行脚人，慇懃道‘會了也。’及至問着這個公案，不免落七落八。討个絶滲漏底漢，如天上揀月。要知入水見長人？河裏失錢河裏撿。”

[설화]

만상을 모으고 ~ 오늘날과 옛날을 합한다 : 본래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갈등은 없다는 뜻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 미혹도 있고[불락] 깨달음도 있다[불매]고 여기며 불락과 불매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해야된다는 말이다.

물에 들어가 봐야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있다 : 마땅히 유와 무, 과거와 미래, 옛날과 오늘날 등의 대립을 마주하고도 이와 같은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엷매인 몸을 벗어날 길이 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해도 엷매인 몸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뜻이다.

白雲：會萬像至印古今云云者，本無如是多般葛藤也。落七落八者，有迷有悟，乃至不落不昧商量也。要知入水云云者，當有無去來古今，不落如是差別，則不落因果，也有出身之路；不落因果，也有出身之路。

## 심문담분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한 척의 공안을 총림에서 헤아리는 대중에 대단히 많다. 문제는 그러한 떼거리를 늘릴 뿐 대부분 이 공안을 듣자마자 자신의 본래의 몸을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가 오늘 구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겠다. 알고 싶은가? 오백생 동안 굴욕을 당한 까닭은 바로 떨어질 락(落) 한 글자를 몰



랐기 때문이요, 무수한 대중들이 비교하며 이리저리 헤아려 왔던 까닭은 바로 어두울 때(昧) 한 글자를 몰랐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나 두 글자의 효와(誥訛)<sup>87)</sup>가 평범하고 정직한 수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지금 이 두 글자가 귀착되는 뜻을 알고 싶은가?” 주장자를 높이 세웠다가 한 번 내리치고, 다시 한 소리 크게 내지른 다음 말했다. “벗어났다, 벗어났어! 주관하는 자를 비추어 살펴라.”

心聞貴，上堂，舉此話云，“這一則話，叢林商量甚衆。要且，只添得群隊，多不能於言下，脫得本體。瑞崑今日，不惜口業，爲你諸人，分明說破。要會麼？五百生中受屈，只緣不識个落字；千百衆中較量，只緣不識个昧字。都來兩字誥訛，陷却多小平直。而今，要識這兩字落處麼？”乃卓拄杖一下，復喝一喝云，“脫也，脫也！照顧主宰。”

#### [설화]

헤아리는 대중이 대단히 많다 ~ 벗어나도록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미혹과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리저리 헤아린다는 뜻이다.

오백생 동안 ~ 평범하고 정직한 수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 다만 말을 따라 마구 내달리기 때문이다.

주장자를 높이 세웠다가 한 번 내리쳤다 : 떨어지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는 뜻이다.

한 번 내리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소리 내지른 것에서 한 번의 할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니, 한 번 내리친 것과 한 번의 할이 같은가, 다른가?

---

87) 속이는 말. 하나의 공안이 관문으로서 가지는 요소. 진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험할 목적에서 함정과 같이 설정되므로 ‘속이는 말’과 같다.

벗어났다, 벗어났어 : 한 번 내리친 것에 속한다.

주관하는 자를 비추어 살펴라 : 한 번의 할에 속한다.

心聞：商量甚衆云云者，迷悟商量也。五百年中至多少平直者，只爲隨言走殺也。卓柱杖一下者，不落不昧也。不離一下，喝一喝者，要須會取一喝，一下與一喝，是同是別？脫也脫也者，屬一下也。照顧主宰者，屬一喝也。

### 『임간록(林間錄)』의 설

『임간록』에 이렇게 전한다.<sup>88)</sup> “도원선사는 남선사가 황벽의 적취암에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어느 날 좌선을 하다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오는데 두 학인이 백장의 여우 인연을 제기하고 문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학인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여전히 여우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다른 학인이 그 말에 대응하여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또한 어찌 여우의 몸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했다. 도원이 오싹한 느낌으로 그 말을 남다르다 여기고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암자로 걸어 올라갈 생각으로 계곡을 건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았다. 남선사를 만나 그 일을 설명하다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자 남선사가 시자의 평상으로 가서 숙면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갑자기 일어나 계송 한 수를 지었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이여! 승속 모두에게 본래 꺼릴 것 없다. 대장부 기상 왕과 같이 막힘없거늘, 어찌 주머니에 숨기고 이불로 감추랴! 한 자루 주장자 가는 그대로 말기고, 여우는 금털사자 무리로 들어

88) 『林間錄』 권하 卍148 p.634b8.

들리라’. 남선사가 크게 웃었다.”

林間錄云, “道圓禪師, 聞南禪師, 居黃蘗積翠庵, 往依之. 一日燕坐下板, 聞兩僧, 舉百丈野狐因緣, 一僧曰, ‘只如不昧因果, 也未脫得野狐身.’ 一僧應聲曰, ‘便是不落因果, 亦何曾墮野狐身耶?’ 圓悚然異其語, 不自覺其身之起, 意行上庵頭, 過澗忽大悟. 見南公敍其事, 未終涕交頤, 南公令就侍者榻熟寐, 忽起作偈曰, ‘不落不昧! 僧俗本無忌諱. 丈夫氣宇如王, 爭受囊藏被盖? 一條柳樛任縱橫, 野狐跳入金毛隊.’ 南公大笑.”

[설화]

어찌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 본래 꺼릴 것 없도다 : 망승(亡僧)을 화장하여 떠나보내는 사연에 따른 것이며, 그 나머지는 풀어서 해석할 특별한 내용이 없다.

林間錄 : 何曾墮至忌諱者, 依亡僧燒送來由, 餘無銷釋分.





# 204칙 南泉賣身 남전매신





## 204칙 남전매신 南泉賣身<sup>1)</sup>

### [본칙]

남전(南泉)이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몸을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있는가?” 어떤 학인이 대중 속에서 나와 말했다. “제가 사겠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값을 비싸게 불러도 안 되고, 싸게 불러도 안 된다. 얼마에 사겠느냐?” 그 학인은 말이 없었다. <조주(趙州)가 말했다. “내년에 화상께 배적삼 한 벌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와룡구(臥龍球)가 (그 학인을) 대신하여 말했다. “화상은 이미 저의 것입니다.” 화산무은(禾山無殷)이 (그 학인을) 대신하여 말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도리입니까?” 명초덕겸(明招德謙)은 (그 학인을) 대신하여, 옆에 있던 스님의 등을 한 대 치면서 말했다. “딱 맞는 값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값이기도 하군요.”>

南泉示衆曰, “王老師,<sup>2)</sup> 賣身去也, 還有人買麼?” 一僧出衆云, “某甲買.” 師云, “不作貴, 不作賤, 作麼生買?” 僧無語. <趙州云, “明年, 與和尚, 作一頓布衫.” 臥龍代云, “和尚屬某甲.” 禾山代, “是何道理?” 明招代, 便拍傍僧背云, “好着不着去.”>

- 
- 1)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게 값을 불러야 살 수 있다는 남전의 거래조건에 값을 정할 도리가 없다는 점이 이 공안의 관건이다.
  - 2) 남전의 속성이 왕(王)씨여서, 왕노사(王老師)라고 자칭한 것이다.

[설화]

내가 몸을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있는가 : 온몸으로 전한 당부이니, ‘해탈한 경지로 얹매임 없이 자유자재하여, 어디서나 본분의 풍류를 싸게 팔 것이니, 누가 사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나처럼 걱정거리가 없는 경지가 되겠느냐?’<sup>3)</sup>라는 뜻으로 물은 것이다.

값을 비싸게 불러도 안 되고 ~ 얼마에 사겠느냐 : 귀(貴)·천(賤)과 범(凡)·성(聖) 등의 차별을 두고 귀하다고도 여기지 않고(비싸게 부름) 천하다고도 여기지 않으면서(싸게 부름), 지금까지 범부와 성인이 이론 인과(因果)의 공행(功行)에 대한 관념을 모두 없애면, 여기서 처음으로 남전의 뜻을 얻어 비로소 남전의 3백 6십 개의 뼈마디와 8만 4천 개의 털구멍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품속으로 뿌려졌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조주가 ‘내년에 화상께 ~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말 : 남전이 말한 내용이 걸친 것 없이 적나라하고 깨끗이 씻은 맨몸<sup>4)</sup>과 같으므로 반드시 옷을 입혀야 한다는 뜻이다.<sup>5)</sup>

와룡의 말 : 이미 자신이 남전의 몸을 샀다는 것이니, 곧 남전의 뜻을 알

3) 『誌公和尚大乘讚十首』 중 제5수에 해당한다. 『景德傳燈錄』 권29 大5 p.449c8 참조.

4) 정나라적쇄체(淨裸裸赤灑灑). 눈앞에 본분의 진실이 벌거벗은 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묘사이다. 일반적으로 ‘잡을 여지가 없다’라는 뜻의 ‘물가파(沒可把)’가 이어진다. 남전의 말은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본분을 드러낸 것이지만 귀·천 등의 인식 범주로는 포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雲門廣錄』 권하 大47 p.574c20, 『圓悟語錄』 권4 大47 p.731c28, 『大慧語錄』 권9 大47 p.848c17 등에 나온다.

5) 몸을 팔겠다는 말은 옷을 모두 벗고 알몸 그대로 살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조주는 알몸과 같이 모조리 드러난 남전의 진실을 간파하고 옷 한 벌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았다는 뜻이다.

화산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도리입니까’ 라고 한 말 : 남전의 말을 주어진 그대로 허용하지 않겠다<sup>6)</sup>는 뜻이다.

명초가 ‘딱 맞는 값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값이기도 하군요’ 라고 한 말 : 남전의 말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는 뜻이다.

王老師賣身去云云者，全身分付，解脫逍遙自在，隨方賤賣風流，誰是發心買者，亦得似我無憂？不作貴云云者，貴賤凡聖，不作貴，不作賤，喪盡今時凡聖因果功行，於此始得南泉意，方知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毛孔，一時撒向諸人懷裏了也。趙州明年與和上云云者，南泉道地，淨裸裸赤灑灑故，直須披衣也。臥龍，已買得了也，則知南泉意也。禾山是何道理者，不放過也。明招好著不好著者，肯不肯。

##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남전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게 몸을 판다는데,  
옆사람이 값을 치르겠다고 부질없이 말하네.  
베적삼을 입고서야 딱 맞는 가격이 되었으니,  
전승 거둔 곤륜노<sup>7)</sup>가 알몸으로 뛰는 격이네.<sup>8)</sup>

---

6) 불방과(不放過). 상대의 언행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쓰는 선가의 상용어이다. 남전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 이외의 입장도 있다는 말로 쓴 것이다.

大覺璉頌, “王老賣身非貴賤, 傍人酬價虛開口. 布衫披後正相當, 全勝毘盧露形走.”

[설화]

조주의 말에 근거한 계송이다.

大覺頌, 趙州語也.

### 불인요원(佛印了元)의 송

남전은 아주 분명하게 몸을 팔고자 하여,

순간에 옆사람에게 넘겨주려 하였네.

안타깝다, 다들 다투어 값을 치르려 하니,

〈이 구절을 잇는 일전어(一轉語)<sup>9)</sup>를 지어보기 바란다.<sup>10)</sup>〉

7) 본서 2則 주석37) 참조.

8) 전승을 거둔 곤륜노(崑侖奴)는 남전을 비유한다. 남전은 창기와 같이 자신의 몸을 팔겠다고 내놓아 천한 몸팔이를 자청했으므로 곤륜노의 신분으로 낮추어 비유한 것이다. 아무도 사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기에 사실상 남전의 몸은 값을 치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물건과 같다. 여기서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남전이 지는 것이지만 누가 사려고 해도 남전은 이길 수밖에 없으므로 ‘전승’이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조주가 패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승패를 가릴 수 없는 그 관문을 ‘전승’이라 한 것이며, 조주도 지지 않았고 남전도 이기지 않았던 것이다. 곧 ‘전승’이란 남전의 화두가 어떤 수단도 부릴 수 없는 완결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며, 이에 대해 평한 조주의 말은 딱 맞는 가격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것을 실현된 공안이라는 의미에서 현성공안(現成公案)이라 한다.

9) 상황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한마디 말. 또는 상황을 반전(反轉)시키는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가리킨다.

10) 마지막 구절을 남겨 두어 궁구하도록 권하는 선가의 방법 중 하나. 마지막 구절

佛印頌, “王老明明要賣身, 一時分付與傍人. 可憐天下爭酬價.” 〈請續此一轉語.〉

[설화]

이 구절을 잇는 일전어를 지어보기 바란다: 불인이 어찌 마지막 한 구절을 이을 줄 몰랐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구절을 이어보도록 남겨 둔 의도는 어떤 것일까? 불인이 마지막 구절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세밀한 점까지 살펴서 그 뜻을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佛印: 請續此一轉語者, 佛印豈不知續得一句! 也留與諸人續得意, 作麼生? 莫言佛印不道得好, 大須審細, 不得顛預.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몸 팔려는 남전의 몸값을 정하기 어려우니,  
싸건 비싸건 다 틀려 값 치르기 쉽지 않네.  
당시에 후회할 일 남기지 않으려 했다면,  
남전을 불러 원두<sup>11)</sup>에게 넘겨주었어야 하리.<sup>12)</sup>

은 계송 형식상 종결되는 구절인 동시에 ‘궁극적인 뜻’을 나타내는 말후구(末後句)이기도 하다. 『佛眼語錄』古尊宿語錄30 卍118 p.548b4, 『無門關』20則「頌」大48 p.295c3 등에 보인다.

11) 園頭. 선원에서 채원(菜園)을 경작하는 소인.

12) 원두의 말일에 써먹으라고 물소가 된 남전을 팔아넘겼을 것이라는 말. 이것은 남전이 죽은 다음에 신도의 집에 물소로 태어나 말을 갈면서 보시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한 말에 따른다.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본분사를 아는 사람은 죽은 뒤에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산 밑 신도의 집에 한 마리 물소로 태어나리라.’”(『趙州語錄』古尊宿語錄13 卍118 p.306b6. 師問南泉, ‘知有底人, 向什麼處去?’ 泉云, ‘山前檀越家, 作一頭水牯牛去.’) 위산영우(滄山靈祐)가 입적한 뒤 한 마리 물소

海印信頌, “賣身王老難爲價, 貴賤俱非不易酬. 若使當時無退悔, 喚來分付與園頭.”

[설화]

남전을 불러 원두에게 넘겨주었어야 하리 : 값을 싸게 불러서 샀을 것이라는 뜻이다.

海印 : 喚來分付與園頭者, 作賤買得也.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애처롭다 남전이여, 몸을 아깝다 여기지 않는구나!

죽을 때가 된들 누구에게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sup>13)</sup>

현명한 자가 싸게 값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해마다 늘 부질없이 봄을 보냈으리라.<sup>14)</sup>

〈이는 조주가 대신한 말을 함께 제기한 계송이다.〉

保寧勇頌, “王老哀哉不惜身! 臨危將賣與何人? 若無令子輕酬價, 往往一年空過春.” 〈此錄, 兼舉趙州代語.〉

---

가 되어 왼쪽 옆구리에 ‘위산의 스님 아무개’(滄山僧某甲)라는 글자를 새기고 살 것이라 한 말도 유사한 취지이다. 『景德傳燈錄』 권9 「滄山傳」 大51 p.265c24 참조. 이는 인간과 다른 중생[異類]으로 태어나 중생 구제의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하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 13) 싸서도 안 되고 비싸서도 안 된다는 조건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
- 14) 자신의 의중을 알아주는 현명한 자(조주)가 나타나 베적삼 한 벌로 값싸게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사 줄 사람을 기다리며 또 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혼성자의 송

남전이 몸을 판다고 하지만 낙찰할 방도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사려고 하나 값을 치르지 못하네.  
동·서 그 어디로나 노주에 부딪쳐 나가지 못하니,<sup>15)</sup>  
모기가 까닭도 모른 채 무쇠소를 뚫으려 하는구나.<sup>16)</sup>

混成子頌, “王老賣身無着處, 癡人欲買價難酬. 東西兩個撞露  
柱, 蚊子無端咬鐵牛.”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와룡·화산·조주의 평가를 연이어 제기하고 말했다.  
“비록 뛰어난 선사들이 다투어 사려 했지만, 문제는 남전이 전한 기틀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말해 보라! 남전이 그들의 말을 인정했  
을까? 나도 몸값을 지불해서 남전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문도 없고 뒤  
로 물러설 땅도 없는 지경에 빠뜨려 보려 한다. ‘비싸게 값을 불러도 안 되  
고, 싸게 불러도 안 된다. 얼마에 사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곳에서  
는 화상의 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리라.”

---

15) 싼 값으로 부르거나[동쪽] 비싼 값으로 부르거나[서쪽] 모두 허용되지 않는 진  
퇴양난의 관문에 맞닥뜨린 상황을 나타낸다. 노주(露柱)는 사찰에 세워진 석제  
또는 목제의 기둥을 가리키는데, 선종에서는 등롱(燈籠) 등과 함께 생명이 없는  
무정물(無情物)을 대표하는 말 중 하나로 쓰인다.

16) 모기가 무쇠소를 실제의 소로 착각하여 부리를 찢고 피를 빨려 하지만 어느 부  
분도 부리로 뚫을 곳이 없다는 비유이다. 귀·천의 두 길을 모두 막아놓고 팔고  
있으므로 누구도 남전의 몸을 사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남전의 화두는 이와  
같이 어떤 언어와 분별의 수단도 통하지 않는 완결된 관문이다.

雪竇顯, 舉此話, 連舉臥龍·禾山·趙州語, 師云, “雖然作家競買, 要且, 不解輪機. 且道! 南泉還肯麼? 雪竇也擬酬个價, 直令南泉, 進且無門, 退亦無地. ‘不作貴, 不作賤, 作麼生買?’ ‘別處容和尚不得.’”

### [설화]

남전이 그들의 말을 인정했을까: 남전이 설정한 관문은 모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 남전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곳에서는 화상의 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써먹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雪竇: 南泉還肯麼者, 南泉意直得無限故, 皆不得南泉肯也.  
別處容和尚不得者, 也無用處.

## 도솔홍의 거

해인의 송을 제기하고 말했다. “노련한 작가 해인<sup>17)</sup>이 비록 타파하기 어려운 옛사람의 공안을 잘 결정지었지만, 그 학인이 값을 치를 줄 몰랐던 부분만 가려내어 말했을 뿐 조주에게 굴욕을 준 잘못은 어찌하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이 뜻을 다시 송으로 읊었다. “남전이 몸을 파는데 이중으로 값을 정하니, 값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 치르기 어렵네. 강했던 진나라 군대가 모두 한나라로 귀속했듯이, 우습구나, 남전이 조주의 밑으로 들어가다니.<sup>18)</sup>”

17) 정혜(定慧). 해인초신의 범호, 『續傳燈錄』 권7 大51 p.510a5.

18) 남전이 발가벗고 드러낸 몸을 조주가 ‘배적삼 한 벌’로 가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 남전의 관문을 가장 잘 알아차린 것은 조주라는 뜻이다.

兜率鴻，舉海印頌，師云，“定慧老作，雖善定奪古人難底公案，只辨得這僧不解酬價，爭奈屈着趙州？兜率不爾。”復云，“王老賣身重定價，價非貴賤卒難酬。强秦戈甲盡歸漢，堪笑南泉屬趙州。”

[설화]

조주의 뜻을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드러낸 것이다.

兜率：扶見趙州意也.

## 개원자기(開元子琦)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인연을 들려주면 대중들은 의견을 주고 받으며 헤아리느라 시비를 그칠 줄 모른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서 그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 조주노한은 당시에 어째서 ‘스님은 이미 저의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남전이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문도 없게 만든 다음<sup>19)</sup> 세상 사람들의 혀를 꺾어놓지 못했을까? 말해 보라! 내

---

19) 시비를 다투는 분별은 물론이고 어떤 길도 통하지 않는 궁지(窮地)를 나타낸다. 이 궁지에 이르러야 화두의 본질이 드러나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여기까지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종사의 역량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문도 없어서 살자고 해도 안 되고 죽자고 해도 안 되는 경계인 것이다. 평생 배워서 터득한 기지(機智)가 이 안에서는 한 점도 썩먹을 여지가 없으니, 과거세에 축적한 역량을 가지고 번잡한 정신을 털어내고 당장에 몰아붙여 한 길로 통하면 4방 8면으로 생기 있게 파닥거릴 것이니 천 사람 만 사람이 가두려 해도 붙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자재한 구석이 있을 것이니 종일토록 소리와 색 속에서 출몰하더라도 소리와 색이 그를 오염시킬 수 없고, 세간과 출세간에 마치 연꽃이 진흙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평생 기쁘지 않을

가 이렇게 한 말도 30년 뒤<sup>20)</sup>에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 화두에 무슨 깊은 뜻이 있다고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다투며 말하는가!”<sup>21)</sup>

開元琦，上堂，舉此話云，“似此因緣，衆中商量卜度，是非未息。開元今日，與諸人剿絕却。趙州老漢，當時何不道，‘已屬某甲了也。’待伊上天無路，入地無門，坐斷天下人舌頭去。且道！開元怎麼道，三十年後，還免是非也無？”良久云，“者裏是什麼所在，說是說非！”

[설화]

개원의 뜻은 수행을 마친 30년 뒤에 입각한 것이다.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까 : 비록 30년 뒤일지라도 시비의 자취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화두에 ~ 다투며 말하는가 : 시비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開元意，立在三十年後也。還免是非云云者，雖在三十年後，亦

---

것인가!”(『密菴語錄』「示眞隱朱居士」大47 p.982b5. 直是上天無路，入地無門，求生不得，求死不得。平生學得機智，到遮裏，一點也用不著。果夙有力量，抖擻精神，驀地拶得一路通，四方八面，活潑潑地，千人萬人，羅籠不住。恁時，方有自由自在分，終日在聲色中出沒，聲色不能染污，世出世間，如蓮花不著水，豈不慶快平生！)

- 20) 삼십년후(三十年後). 반드시 30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발심하여 깨닫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상투어이다. 인도에서 제시된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의 수행에서 유래한 말이다. 아승기겁이란 ①asankjycya-kalpa, ②asankheyya-kalpa의 음사어로서 무수겁(無數劫)이라 번역하며,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뜻한다. 이 아승기겁을 대·중·소의 3겁으로 구별하여 통칭하는 말이 바로 삼아승기겁이다. 보살이 발심하여 성불할 때까지 삼아승기 백대겁(百大劫)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 21) 시비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화두가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未免是非之蹤也. 這裏什麼云云者, 無是非也.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오, 나를 몹시도 웃기는구나! 몇몇 존속들이 아무 대꾸도 없었던 그 학인을 대신하여 말을 붙여 놓았다[着語]. 조주는 ‘내년에 화상께 베적삼 한 벌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도리입니까?’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화상은 이미 저의 것입니다’라고 했다. 후대에 설두는 ‘다른 곳에서는 화상의 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대중들이여, 이들 많은 존속들이 서로 다투며 사기 위해 자신의 가산을 털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왕노사는 아직 거래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으니 이런 종류의 물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본 사람이 거의 없다. 나도 오늘 몸을 팔려 하는데,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다. 싼 물건은 반 푼의 가치도 없고, 비싼 물건은 금이나 옥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그대가 사면 그대의 것이고, 그대가 사지 않아도 그대의 것이다. 만약 나의 뜻을 안다면 내가 그대의 도반이 되어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없는 곳에서도 마음을 일으키든 생각이 움직이든 그대를 알아볼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면 행하도록 하고 악하다면 그만두도록 하여 설령 삼도와 팔난<sup>22)</sup>을 겪는다 해도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대와 함께하는 도반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

---

22) 삼도(三途)는 육도윤회 중 악한 세 가지 것으로 삼악도(三惡途)라고도 한다. 곧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을 말한다. 팔난(八難)은 부처님과 정법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장애를 말한다. 『長阿含經』 권9 「十上經」 大1 p.55c5, 『中阿含經』 권29 「八難經」 大1 p.613a27, 『大乘義章』 권8말 大44 p.628c23 등에 따르면, 지옥·축생·아귀·맹롱음아(盲聾瘡痂)·세지변총(世智辯聰)·불전불후(佛前佛後)·울단월국(鬱單越國)·장수천(長壽天) 등이다.

만 그대들이 만약 나의 뜻을 모른다면 나는 그대들의 원수가 되어 그대들이 출가하거나 수행하거나 스승을 찾아다니거나 몸소 살피며 궁구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대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망막하게 만들어 그대들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교묘하게 도리를 조작하도록 하여 마침내 청정하고 묘한 국토가 흠과 돌로 뒤덮인 더러운 산하가 되게 만들 것이며, 상주하고 즐거운 법신<sup>23)</sup>을 무명과 번뇌가 되도록 하여 자유자재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물러날 생각을 하도록 하여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대들의 원수가 되어줄 것이다. 대중들이여, 내가 그대들의 것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나를 진실로 알면 도반이고 모른다면 원수일 것이다. 이 뜻을 밝힐 사람 있는가?” 주장자를 들고 허공에 한 점을 찍은 다음 “하나는 도반이요 다른 하나는 원수이니, 역경과 순경에 모두 통하고 무수한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 눈은 허공과 같고 눈에 낀 이물질은 꽃과 같으니 나의 뜻을 얻으면 그 도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라 말하고 마침내 주장자를 던져 놓고 말했다. “조금 드러내 보였으니,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라.”

佛眼遠，上堂，舉此話云，“噫，笑殺人！有數尊宿，爲此僧着語。趙州云，‘明年與和尚，作一領布衫。’一人道，‘成何道理？’一人道，‘和尚屬某甲。’後來雪竇道，‘別處容和尚不得。’大衆，許多尊宿，爭頭競買，也要運出自己家財。王老師，交關未成，不敢胡亂分付，這般行貨，古今亦少見之。龍門今日，亦賣身去也。然則有貴有賤，賤則分文不直，貴則金玉難階。你買也屬你，不買也屬你。若識得龍門，龍門與你作道伴。有人處無人處，起心動念，恁知得你，善則令汝行，惡則令汝止。縱經三

---

23) 상락법신(常樂法身). 상락은 상락아정(常樂我淨) 등 사덕(四德)의 줄임말.

途歷八難，一步不相捨離，常與你作道伴。你若不識龍門，龍門與你作冤家，教你出家，使汝行腳，令汝尋師，遣汝體究，遂教你不會，令汝茫然，令汝求覓解會，令汝巧作道理，遂令淨妙國土，而作土石山河，常樂法身，而作無明煩惱，成不自在，常生退失，一步不放捨，常與你作冤家。大衆，龍門屬你諸人來多時，識得是道伴，不識是冤家。還有人明得此旨麼？”乃拈拄杖，點一下曰，“一道伴二冤家，通逆順遍河沙。眼是空，翳是花，得龍門，道無涯。”遂放下拄杖子曰，“少賣弄，歸堂去。”

[설화]

비싸거나 싸거나 모두 용문일 뿐이라는 뜻이다.

佛眼：或貴或賤，只是龍門也.





207칙 南泉斬猫 남전참묘





## 207칙 남전참묘 南泉斬猫<sup>1)</sup>

### [본칙]

남전이 어느 날 동당(東堂)과 서당(西堂)의 대중들이 고양이를 놓고 서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다투는 것을 보고, 마침내 고양이를 집어 들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제대로 말을 하면 이 놈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면 베어서 죽이겠다.” 대중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자(법진수일(法眞守一)이 대중을 대신하여 말했다. “나라면 ‘도둑이 도둑의 물건을 훔쳤구나’<sup>2)</sup>라 하고, 곧바로 따귀 한 대를 때려주었으리라.” 남전은 두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다시 이 일화를 들어 조주에게 묻자 조주는 짚신을 벗어 머리 위에 이고 나갔다. 남전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南泉，一日，因東西堂，爭猫兒，師遂提起云，“大衆，道得則救取，道不得卽斬却也。”衆無對(法眞一，代云，“‘賊偷賊物.’ 便與一掌.”) 師斬爲兩段。復舉前話，問趙州，州便脫草鞋，於頭上

- 1) 남전이 고양이를 두 토막 낸 것과 조주였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두고 살(殺)·활(活)을 나눈 것이 이 공안의 관건이다.
- 2) ‘도둑’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자를 가리킨다. 남전이라는 도둑이 법진 또는 대중이라는 도둑의 속뜻을 잘 알고 그것을 훔쳐냈지만, 법진 자신도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이다. “도둑의 몸은 벌써 노출되었고, 훔친 물건도 눈앞에 드러났다(賊身已露, 贓物現前)”라고 하는 소식을 말한다.

戴出. 師云, “子若在, 恰救得猫兒.”

[설화]

동당과 서당의 대중들이 ~ 다투는 것을 보고 : 동당의 고양이인지 서당의 고양이인지를 놓고 다투는 것인가? 고초당<sup>3)</sup>은 “남전의 제일좌가 기르던 고양이가 옆자리의 평상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이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고양이를 두고 이치를 설정하여 불성이 있는지 불성이 없는지 논쟁을 주고받았다는 것일까?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마침내 고양이를 집어 들고 ~ 두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 죄의 본질이 본래 공인 것<sup>4)</sup>으로 알고 말한 것일까? 가령 『화엄경』에 나오는 바수밀녀의 음란한 행위<sup>5)</sup>나 감로화왕이 진노하여 죄인을 죽인 것<sup>6)</sup>이나 승열바라문의 사된

---

3) 古草堂. 누구인지 알 수 없다.

4) “만약 갖가지 미혹된 업을 일으키더라도 마음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죄의 본질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다면 이를 두고 법을 증득한 자라 한다.”(『父子合集經』 권13 大11 p.955a22. 若起諸惑業, 內心非所思, 了罪性本空, 此爲證法者.); “그 죄의 본질은 안에도 밖에도 그 중간에도 없다는 말은 죄의 본질이 본래 공이라는 뜻이다. 만약 죄를 공이라 관찰한다면 곧 죄가 없을 것이다.”(『維摩經略疏』 권5 大38 p.628c20. 彼罪性, 不在內外中間者, 罪性本空, 若能觀空, 即是無罪.) 마조도일(馬祖道一) 등의 선사들도 이러한 뜻을 전한다. 『景德傳燈錄』 권6 大51 p.246a11 참조.

5) 바수밀녀는 선재동자가 친견한 53명의 선지식 중 26번째 선지식인 바수밀녀가 손을 잡거나 함께 잠자리를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 중생은 삼매를 얻고 애욕을 여의어 청정을 얻게 된다는 이욕실제법문(離欲實際法門)을 가르킨다. “선남자야! 나는 이미 이욕실제의 청정한 법문을 성취하였다. …… 내 손을 잡는 중생은 모든 불국토에 이르는 삼매를 얻으며, 나와 함께 자는 중생은 해탈광명의 삼매를 얻으며, …… 나와 입을 맞추는 중생은 모든 공덕비밀장의 삼매를 얻는다. 이와 같이 나에게 온 중생은 모두 이욕실제법문을 얻을 것이다.”(60권본 『華嚴經』 권50 大9 p.717a24. 善男子! 我已成就離欲實際清淨法門. …… 若有衆生, 執我手者, 得詣一切佛刹三昧; 若有衆生, 共我宿者, 得解脫光明三昧



견해<sup>7)</sup> 등에는 탐·진·치가 없으며 오로지 진실한 지혜의 작용만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인가? 고양이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모든 유정과 유정 아닌 것이 남전의 권역에서는 손을 잡고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는 말이다. 대중이 만일 제대로 말할 줄 안다면 고양이를 बे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미 호령이 내려져 있는 이상 사정상 시행해야만 하니 (어떤 경우라도) 베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조주는 쥔신을 벗어 머리 위에 이고 나갔다: 『예기』에 ‘신발이 비록 새것이라도 정수리에 두고 베지 않으며, 갓이 비록 낡았더라도 발밑에 놓아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곧 ‘쥔신을 벗어 머리 위에 이었다’라는 말은 하나하나 모두 안착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

---

…… 若有衆生，阿耨鞞我者，得諸功德密藏三昧，如是等類一切衆生，來詣我者，皆得離欲實際法門.)

- 6) 선재동자가 친견한 17번째 선지식인 감로화왕이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에서 비롯한 일화를 가리킨다. 감로화(甘露火 ㉔Anala)는 무염족(無厭足)이라 한역하며, 염부제국(閼浮提國) 다라당성(多羅幢城 ㉔Nāladhvaja)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재동자에게 여환해탈(如幻解脫)을 가르쳐 주었다. “선재동자가 다시 바라문에게 물었다. ‘어떤 이유로 대왕의 이름을 감로화라 합니까?’ 바라문이 대답했다. ‘우리 왕은 7지(支)를 온전히 갖추고 중도의 교화를 펼친다. 죄를 지은 악인을 다스릴 때는 그가 범한 허물을 녹여 없애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하며, 착한 사람을 편안히 받아들일 경우는 감로와 같다.’”(80권본 『華嚴經』 권11 大10 p.712b28. 善財復言，‘何故大王名甘露火?’ 答言，‘我我王具足七支，行中道化。治罰惡人，鎖其過犯，猶如烈火；安攝善人，譬如甘露。’)
- 7) 선재동자가 친견한 9번째 선지식인 승열(勝熱 ㉔Jayoṣmāya)바라문의 고행을 가리킨다. “이사나 취락에 이르러 그 승열바라문을 친견했다. 그는 갖가지 고행을 닦으며 일체지를 추구하였다. 사면은 큰 산과 같이 거대한 불덩어리요 중간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솟은 칼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로 올라가 불 속에 몸을 던졌다.”(80권본 『華嚴經』 권64 大10 p.346b18. 至伊沙那聚落，見彼勝熱，修諸苦行，求一切智，四面火聚，猶如大山，中有刀山，高峻無極，登彼山上，投身入火。)

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한 것이다.

법진의 착어는 남전을 붙들었다는 뜻이다. 따귀 한 대를 때려주었으리라는 말은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이는 격이다.<sup>8)</sup>

東西云云兒者，是東堂地，是西堂地，爭之耶？古草堂云，“南泉第一座，養猫兒，隣床折脚，因此爭之。”則猫兒上立理，有佛性無佛性商量耶？未知孰是。師遂提起云云者，會得罪性本空道得耶？如花嚴波<sup>9)</sup>須密女之姪，甘露火王之嗔殺，勝熱波羅門之邪見，無貪嗔癡，唯眞智用耶？非但猫兒，盡大地情與非情，向南泉手下，拱手乞命。大衆若解道得，則不斬却耶？既有號令，事須施行，也須斬却也。趙州便脫草鞋云云者，禮記云，‘履雖新，不加於頂；冠雖舊，不加於足。’則戴草鞋於頂上者，一一安著也。故云，‘子若在，恰救得猫兒。’法眞，捉敗南泉也。與一掌者，虎頭虎尾，一時收也。

---

8) 처음과 끝을 하나로 꿰는 수미일관(首尾一貫)의 뜻에 따르는 해석이다. 도둑을 오로지 도둑으로 알아보는 순간 더 이상 말할 여지를 주지 말고 붙잡아 버리는 이외에 다른 안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오극근(圓悟克勤)은 이 부분에 대한 착어(著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둑이 지나간 다음에 활시위를 당긴다면 이미 근본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들어 보이기 이전에 한 대 때려야 한다.”(『碧巖錄』 63則「著語」大48 p.194c10. 賊過後張弓，已是第二頭。未舉起時好打.)

9) ‘波’는 ‘婆’의 오식.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1

양당에 모두 엉터리 선수행자<sup>10)</sup>가 있을 뿐인데,  
시끄럽게 소동만 피울 뿐<sup>11)</sup> 어찌할 줄 모르네.  
다행스럽게 남전이 법령을 거행하였으니,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치우친 그대로 두었네.<sup>12)</sup>

雪竇顯頌, “兩堂俱是杜禪和, 撥動煙塵不奈何. 賴得南泉能舉  
令, 一刀兩段任偏頗.”

## 설두중현의 송 2

흠잡을 곳 없는 공안으로 조주에게 묻고,  
장안성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였네.  
머리에 쑤신 이은 뜻 알아챈 사람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사를 쉬었노라.<sup>13)</sup>

又頌, “公案圓來問趙州, 長安城裏任閑遊. 草鞋頭戴無人會,

- 
- 10) 두선화(杜禪和), 두찬선화(杜撰禪和). 안목이 없는 선수행자를 가리킨다. ‘두찬’이란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견해를 꾸며내는 자를 말한다.
- 11) 발동연진(撥動煙塵). 서로 다투느라 시끄럽게 소동을 피운다는 뜻. 말만 어지럽게 늘어놓고 다룰 뿐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다. 연진(煙塵)이란 전진(戰塵)과 같은 말로 본래 봉화의 연기와 전장에서 일어나는 흠먼지를 가리키며, 전란(戰亂)을 뜻한다.
- 12) 이 구절에 대하여 원오극근(圓悟克勤)은 『碧巖錄』 63則 「評唱」 大48 p.195a12에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두 토막을 내고 치우친 점이 있건 없건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直下一刀兩斷, 更不管有偏頗.)라고 했다.
- 13) 앞의 송은 시비 그대로 수궁하는 남전의 뜻이라면, 이 송은 말에 신는 쑤신을 머리에 이어 양편의 갈등을 소통시킨 조주의 뜻이다.

歸到家山便卽休.”

[설화]

앞의 송은 남전의 입장을 읊은 것이고, 뒤의 송은 조주의 입장을 읊은 것이다.

雪竇：前頌，頌南泉；後頌，頌趙州.

###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양당에서 오백<sup>14)</sup>을 던지듯 서로 다투는데,  
남전이 한칼에 두 토막으로 절단 냈다네.  
조주가 두 토막을 이어 다시 살렸을 때,  
이빨과 발톱이 얼음과 눈처럼 사나웠노라.

大覺璉頌，“兩堂五白苦相爭，王老一刀成兩截．趙州續得再活時，牙爪生獐似冰雪．”

###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위험에 남을 밀어 넣으려면 실정을 알아야 하고,  
인재를 구하려면 먼저 날카로운 면모 드러내어라.  
고기 낚는 이들 모두 바람의 형세 안다고 말하나,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네.

---

14) 五白. 도박의 패 이름. 주사위의 일종인 오목(五木)으로 위는 흑색이고 아래는 백색이다. 오목을 던져서 모두 흑이 나오면 가장 좋고, 모두 백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좋은 경우이다.

늪에 꼬부라진 조주 뛰어난 솜씨 부리기는 했으나,

종 울리고 공양 시간 지난 다음 늦게 나타났다네.

대상<sup>15)</sup>이 있는 가주의 길 어딘지 알고자 하는가?<sup>16)</sup>

무쇠소<sup>17)</sup>가 섬부 관문의 서쪽을 지키고 서 있노라.<sup>18)</sup>

投子青頌, “臨險推人事要知, 求材先自露針錐. 釣魚盡說諳風  
勢, 及至風來波路迷. 潦倒趙州雖好手, 鍾鳴齋後赴來遲. 要知  
大像嘉州路? 鐵牛鎮斷陝關西.”

## 자수첩의 송

남전이 베어버린 뒤 조주가 구하니,

사자의 굴 안에는 다른 짐승 없구나.

인도의 범어로는 아미타이지만,

동방의 중국어로는 무량수라네.<sup>19)</sup>

- 
- 15) 가주대상(嘉州大像)을 가리킨다. 중국 사천성의 낙산대불(樂山大佛)이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해통(海通)이 세우기 시작하여 90년 만에 완성한 미륵불상(彌勒佛像)으로 현존하는 최대의 불상이다. 가주(嘉州)는 낙산(樂山)의 옛 이름이다.
- 16) 『空谷集』 23則「著語」 卍117 p.559a2에는 이 구절에 대한 “반드시 몸소 한 번 도 달해야 된다”(直須親到一回始得)라는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착어가 붙어 있다.
- 17) 섬부철우(陝府鐵牛)를 가리킨다. 중국 하남성에 있는 섬부에는 황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우왕(禹王)이 만들었다는 전설상의 무쇠소가 있다.
- 18) 『空谷集』에 “누구도 가까이할 수 없는 곳이다”(沒你近傍處)라는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착어가 붙어 있다.
- 19) 아미타(阿彌陀) 또는 아미다수(阿彌多廬)는 ㉔ Amitāyus의 음사어. 그 한역어가 무량수(無量壽) 또는 무량광(無量光)이다. 말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뜻은 동일하다. 『觀無量壽佛經義疏』 권중 大37 p.286a19 참조. 남전과 조주는 모두 같은 사자굴 속의 사자로서 드러낸 행위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지를 보여주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면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으로 보아서는 화두로서의 묘미가 없다.

〈이 개송은 “남전이 법좌에 올랐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법좌에 뛰어오르자 남전이 겁  
어 들고 대중에게 보이며 ‘누구라도 제대로 한마디 하면 베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말하  
지 못한다면 베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때 수좌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자 남전이 곧바  
로 베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읊은 것이다.〉

資壽捷頌, “南泉斬後趙州救, 師子窟中無異獸. 西乾梵語阿彌  
陀, 東震唐言無量壽.” 〈此錄云, “南泉上堂, 有猫兒跳上法座, 泉提起示  
衆云, ‘有人道得不斬, 道不得卽斬.’ 首座作猫叫, 南泉便斬.”〉

[설화]

인도의 ~ 무량수라네 : 아미타와 무량수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資壽 : 西乾梵語云云者, 是同是別?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양당의 운수납자 모두 편 갈라 당기는데,  
왕노사 바른 것과 틀린 것 증명해 냈네.  
예리한 칼로 베어 양편의 형상 사라지니,  
천고 세월 동안 그 작가 애착토록 하네.  
이 도는 아직 온전하니,  
그 뜻 아는 자 홀룩하구나.  
산 뚫어 바다로 물길 터주었던 것,<sup>20)</sup>  
오로지 우임금의 존귀한 업적이요,

---

그래서 <설화>에서는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 물은 것이다.

20) 물길을 뚫어 홍수를 다스렸던 우(禹)임금의 치수(治水) 사업을 가리킨다.

돌 단련하여 무너진 하늘 기웠던 것,<sup>21)</sup>  
 오로지 여와의 현명한 능력이었다네.<sup>22)</sup>  
 조주에게 살림살이<sup>23)</sup> 있었으니,  
 짚신 머리에 이어 조금 나왔도다.  
 이류 중에서 왔어도 분명히 알았으니,  
 순금은 모래와 섞이지 않기 때문이네.<sup>24)</sup>

天童覺頌, “兩堂雲水盡分拏, 王老師能驗正邪. 利刀斬斷俱亡象, 千古令人愛作家. 此道未喪, 知音可嘉. 鑿山透海兮, 唯尊大禹; 鍊石補天兮, 獨賢女媧. 趙州老有生涯, 草鞋頭戴較些些. 異中來也還明鑒, 祇箇真金不混沙.”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1<sup>25)</sup>

싸늘한 칼날 머금고 있는 빗줄기 두우<sup>26)</sup>까지 뻗치니,

- 
- 21) 오색의 돌을 단련하여 무너진 하늘을 기웠다는 전설상의 인류의 시조 여와(女媧)에 관련된 신화.
- 22) 남전과 조주가 각자 전개한 역할이 어울려 이 화두를 완성했다는 비유. “남전은 우임금이 산을 뚫고 물길을 바다로 터준 것처럼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 보였고, 조주는 여와가 오색의 돌을 단련하여 무너진 하늘을 기운 것처럼 화두를 원만하게 만들었다.”(『從容錄』9則「評唱」大48 p.233a18. 南泉, 如大禹鑿山透海, 顯出神用; 趙州, 如女媧鍊石補天, 圓却話頭.)
- 23) 생애(生涯). 선사로서의 수단을 말한다.
- 24) 남전의 이류중행(異類中行)을 가리킨다. 본분을 펼치기 위해 일부러 고양이와 같은 이류 속을 왕래하지만 이류와 뒤섞이지 않고 본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 25) 이 송은 남전에 대하여 읊었고, 다음 송은 조주에 대하여 읊었다.
- 26) 斗牛. 이십팔수(二十八宿) 중 두수(斗宿: 北斗星)와 우수(牛宿: 牽牛星)를 합친 말. 이 두 별 사이에서 항상 자줏빛 기운이 비춘다고 하며, 이것을 보검의 정기(精氣)라 한다. 그래서 두우는 보검 또는 보통의 칼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귀신도 시름에 잠겼구나.

목숨이 남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천천히 두 토막 내고 쉬었네.

保寧勇頌, “雪刃含光射斗牛, 不唯天地鬼神愁. 命根落在南泉手, 直下看看兩段休.”

## 보령인용의 송 2

고양이 머리에 거뿔 뿔이 생기니,<sup>27)</sup>

남전 문 앞에서 밤길 홀로 다니네.

날이 밝으니 간 곳 알 수 없는데,

끝없는 초산<sup>28)</sup> 아득히 치솟았도다.<sup>29)</sup>

又頌, “狸奴頭上角重生, 王老門前獨夜行. 天曉不知何處去, 楚山無限謾崢嶸.”

---

여기서 칼날의 광채를 두우성과 연결시킨 까닭을 알 수 있다.

27) 남다르고 특출난 조주의 형상을 상징한다.

28) 楚山, 호북성(湖北省)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형산(荊山)이라고도 한다.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변화(卞和)가 이곳에서 귀중한 옥돌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29) 초산으로 숨어들어간 조주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말. 마치 초산의 옥을 아무나 캐내지 못하는 것처럼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태고보우(太古普愚)가 초산의 옥을 화두에 비유하여 지은 시를 남겼다. “초산: 산속에 아름다운 옥 있으나, 생각해 내어 구하려 하면 찾지 못한다네. 찾다가 길 막힌 곳에 이르러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옥 알게 된다네.”(『太古語錄』 권하 韓6 p.690c8. 楚山: 山中有美玉, 作意求難覓. 尋到路窮處, 方知天下璧.)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한칼에 두 토막 낸 남전의 범령과,  
당장 높이 착안한 조주의 관문이어!  
눈앞에 근본 보는 바른 안목 없다면,  
또 흐르는 물 따라 인간에 떨어지리.<sup>30)</sup>

東林總頌, “一刀兩段南泉令, 當頭高着趙州關! 劈面若無宗正  
眼, 又隨流水落人間.”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1

동쪽과 서쪽 양편 모두 밭두둑이거늘,  
쌀알 뿌려 놓고 한 톨도 거두지 않네.  
안타깝다, 경솔하게 고양이를 베다니!  
지금껏 쥐들이 시끄럽게 짹짹거리네.

雪溪益頌, “東西兩畔盡田疇, 粒米拋來惣不收. 可惜猫兒輕斬  
却! 至今老鼠鬧啾啾.”

## 삼계일익의 송 2

회서(淮西) 쳐부수고 맨발로 되돌아오니,

---

30) 흐르는 물과 인간세상은 모두 끝없이 흐르는 번뇌와 마음을 더럽히는 망상의  
티끌을 나타낸다. 바로 지금 바른 안목으로 타파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두 토  
막 내는 남전의 범령과 쥔신을 머리에 이는 조주의 관문이 나타내는 의중을 포  
착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늘 가득 내리는 눈에 광채 번득인다.

승리의 노래 오랑캐 병사 귀에 들리지 않으니,

여전히 진영 앞에서 신호 깃발<sup>31)</sup> 지키고 있네.

又頌, “打破淮西赤脚歸, 一天寒雪炤光輝. 凱歌不到胡兵耳,  
猶向軍前守信旗.”

### 취암종정(翠巖宗靜)의 송

돌 속에 감추어진 금 누가 가려낼 것인가?

나그네는 여기저기 얼룩진 흔적으로 볼 뿐.

석수장에게 간파당하고 나서야,

철선에 실려 동정산<sup>32)</sup>으로 들어갔네.<sup>33)</sup>

---

31) 신기(信旗). 군중에서 진퇴를 표시하는 깃발.

32) 洞庭山. 태호(太湖) 곧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여러 개의 섬 중 하나. 신선의 거처로 알려져 있으며 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지 않게 전한다. “동정산은 물 위에 떠 있고, 그 아래에는 금으로 지은 집이 수백 칸 있는데 옥녀가 그곳에 산다. 어느 계절에나 종과 거문고와 피리 등 온갖 악기 소리가 산꼭대기까지 울려 퍼진다.”(王嘉『拾遺記』「洞庭山」. 洞庭山, 浮於水上, 其下有金堂數百間, 玉女居之. 四時, 聞金石絲竹之聲, 徹於山頂.) ; “동정산 위에 천제단산이 있고 그 산에 금우혈(金牛穴)이 있다. 오나라의 손권이 지배할 때 사람들을 시켜 금을 캐도록 하던 중 금이 소로 변하여 산 위로 달아났는데, 그 발자국이 남아 있다.”(任昉『述異記』 권상. 洞庭山上, 有天帝壇山, 山有金牛穴. 吳孫權時, 令人掘金, 金化爲牛, 走上山, 其跡存焉.)

33) 석수장이인 조주가 돌 속의 금(남전의 화두)을 알아주는 신선이 사는 동정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선문헌에는 상투적인 분별로 알 수 없는 경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동정호로 들어갔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 “관음보살은 어찌서 동정호 속으로 들어갔을까?”(『雲門廣錄』 권하 大47 p.569a24. 觀音爲什麼入洞庭湖裏去?) ; “하늘 가득한 별들이 구름과 어울려 어지럽더니, 동정호의 안개비 속으로 들여보내졌다네<천안승(天岸昇)의 송>.”(『宗鑑法林』 권7 卍116 p.118b2. 一天星斗)

翠崑宗頌, “石裏藏金誰辨別? 游人但見蘇痕斑. 却被石人窺  
得破, 鐵船載入洞庭山.”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깨끗하게 벗어난 날카로운 기틀의 왕노사이시여!

양당에서 고양이를 두고 다룰 필요 있었던가?

던진 질문에 예상대로 전혀 대답이 없었지만,

단번에 베니 의심 그치지 않을 수 있었으리?

조주는 벼랑처럼 위태한 일 드러내 보였으나,

오래된 송곳은 여전히 화라되<sup>34)</sup>를 두드릴 뿐.<sup>35)</sup>

화라되여!

기와를 모두 쪼개고 거북 등껍질 다 뚫었다네.<sup>36)</sup>

崇勝珙頌, “脫灑機鋒玉<sup>37)</sup> 老師! 兩堂何必競猫兒? 果然問處  
都無語, 一斬如何未息疑? 趙老旣呈崖險事, 古錐依舊和羅槌.  
和羅槌! 打盡瓦兮鑽盡龜.”

---

和雲亂, 送入洞庭煙雨中<天岸昇>.)

34) 和羅槌. ‘羅’는 라(囉)와 통한다. 걸식을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인 연화락(蓮花落: 일종의 각설이 타령) 등을 부를 때 두드리던 판때기. 간단한 생계 수단을 비유한다.

35) 오래된 송곳과 같이 깨끗하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조주는 간명한 수단에 의지할 뿐이라는 말이다.

36) 기와나 거북 등껍질과 같은 점치는 수단을 남김없이 써먹은 것처럼 간명한 하나의 행위가 모든 분별을 다 포괄한다는 뜻이다.

37) ‘玉’은 ‘王’자의 오식.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송 1

오색의 고양이를 두고 있는 힘껏 다투다가,  
칼 빼어든 순간 모두 타고난 맹인과 같구나.  
두 곳에 몸을 나누어 거듭 가르쳐 주자,<sup>38)</sup>  
자비의 바람이 대지를 흔들며 일어났다네.

佛眼遠頌, “五色狸奴盡力爭, 及乎按劍盡生盲. 分身兩處重相爲, 直得悲風動地生.”

## 불안청원의 송 2

나라의 안위는 병력에 달려 있지 않으니,  
노중련의 화살 한 발 또한 다정했다네.<sup>39)</sup>

---

38) 고양이를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을 모두 제시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 화두를 이처럼 두 토막으로 자르는 조주의 방법을 칼에 비유했다. 두 토막 내어 목숨을 빼앗는 분신(分身)과 살아나는 출신(出身)의 길이 모두 들어 있다. 남전의 이 분신에 출신의 길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 자비의 바람이라 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한결같이 가지 않기로 하고, 어떤 때는 한결같이 머물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만일 법전(法戰)으로 말한다면, 그 낱낱의 행동거지의 효력은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부처에 대해 조사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으며, 마음에 대해 본성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으며, 현(玄)에 대해 묘(妙)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으며, 유(有)에 대해 무(無)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 번 내리쓴 구절에는 다만 하나의 칼이 있을 뿐이며, 이 칼에는 몸을 갈라서 죽이는 뜻도 있고, 또한 살리는 길도 있다.”(『圓悟語錄』 권10 大47 p.758a5. 有時, 一向不去; 有時, 一向不住. 若論戰也, 箇箇力在轉處. 更說什麼佛, 說什麼祖, 說什麼心, 說什麼性, 說什麼玄, 說什麼妙, 說什麼有, 說什麼無! 一筆句下, 只有一劍, 劍下有分身之意, 亦有出身之路.)

39) 노중련(魯仲連)은 절의와 기개가 높은 제(齊)나라 출신 은사(隱士)이다. B.C.284

3천 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장주만이 태평한 세상 이룰 수 있었다네.<sup>40)</sup>

又頌, “安國安家不在兵, 魯連一箭亦多情. 三千劍客今何在?  
獨許莊周致太平.”

### 백운지병(白雲知曷)의 송

왕노사는 구멍 없는 피리를 잘 불고,

조주는 줄 없는 거문고를 잘 탄다.

시끄러운 곡조는 누구에게 들을까?<sup>41)</sup>

노주와 등롱의 미소 점점 깊어지네.

白雲曷頌, “王老能吹無孔笛, 趙州善撫沒絃琴. 諠轟曲調憑誰  
聽? 露柱燈籠笑轉深.”

---

년 연(燕)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자 제나라는 전단(田單)을 시켜 빼앗긴 성을 되찾게 했다. 대부분의 성을 되찾았으나 요성(聊城)만은 1년여가 지나도록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때 기용된 노중련이 화살에 편지를 묶어 연나라 장수를 회유하는 글을 보냈는데, 연나라 장수는 3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고 한다. 『史記』「列傳」23 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 참조.

- 40) 『莊子』「說劍」에 나오는 이야기에 기초한다. 칼을 좋아했던 조나라 문왕 밑으로 3천 검객이 몰려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칼싸움을 하여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때 장자가 천자의 칼과 제후의 칼과 서민의 칼 등 세 종류의 칼에 대하여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문왕이 석 달 동안 궁전 밖을 나가지 않았고 검객들은 모두 자결했다. 이 구절은 『雪寶語錄』 권2 大47 p.679b13 등에 나온다.

- 41)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거문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리가 나는 것을 대칭시킨 말.

## 무진거사의 송

남전은 늪름하게 시험의 방편을 쥐고서,  
한 놈을 온전히 들고서 양편에 몰었다네.  
심자<sup>42)</sup>가 짚신 벗어 머리에 올려 이으니,  
고양이가 죽을지 살지 더욱 아득해졌네.

無盡居士頌, “南泉凜凜握機權, 一物全提問兩邊. 諗子脫鞋頭  
上戴, 猫兒生死更茫然.”

## 본연거사의 송

펼친 일 거두지 않고 바로 베니,  
부자가 만나 구해내어 살렸다네.  
불쌍하구나, 문 밖의 나그네여!  
본 따라 고스란히 그릴 줄만 아네.  
혼과 놀아나는 한 무리의 귀신들아!  
해골의 눈동자에 힘주며 생각하네.

本然居士頌, “已展不縮便斬却, 父子相逢救得活. 可憐門外有  
遊人! 祇解依模畫渾脫. 一種弄魂精! 髑髏努眼睛.”

## 혼성자의 송

풍력에 움직여<sup>43)</sup> 함께 평범하게 나타나니,

---

42) 諗子. 조주종심(趙州從諗)을 가리킨다.

고양이를 베었다지만 다시 굴욕이 되었네.<sup>44)</sup>

조사는 고금 어느 때나 본보기가 되는데,

부채 파는 노파 손으로 해를 가리는구나.<sup>45)</sup>

混成子頌, “風力所轉共平出, 貓兒斬斷還成屈. 祖師今古作標

43)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바람의 힘[風力]에 의지하기에 주체가 없는 무아(無我)라는 뜻. 『維摩經』「方便品」大14 p.539b24에 나온다. 곧 “이 몸은 어떤 작용도 없으니 바람의 힘에 따라 움직이며, 이 몸은 청정하지 않으니 더러운 것으로 충만하고, 이 몸은 허위(虛僞)이니 비록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마침내 마멸되고 말 것이다.”(是身無作, 風力所轉; 是身不淨, 穢惡充滿; 是身為虛僞, 雖假以澡浴衣食, 必歸磨滅.) 길장(吉藏)은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이는 색법(色法)에 대하여 주체가 없는 무아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비록 조작과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풍력에 불과할 뿐 주체의 작용은 아니다.”(『維摩經義疏』 권2 大38 p.934c3. 此就色法, 明無我用. 雖有造作施爲, 但是風力, 非我用也.)

44) 남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풍력의 힘에 좌우되었다는 말.

45) 손으로 해를 가려도 그 빛을 흐릴 수 없듯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그 수단과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을 나타낸다. 남전이 고양이를 벤 행위는 본분을 비추는 해와 같아서 아무도 덮어서 가리지 못한다는 뜻. “어떤 학인이 대혜에게 ‘마음과 부처가 모두 사라진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대혜가 ‘부채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라 하고 이어서 말했다.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만물과 나는 하나로 같다. 만일 하나로 같은 경지가 된다면 만물과 나라는 이름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며, 진실로 둘이 아닌 이치를 터득한다면 마음과 부처라는 차별된 상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마음과 부처라는 차별된 상이 있는 줄 모른다면 마음 전체가 부처이고 부처 전체가 마음일 것이다. 또한 만물과 나라는 이름이 있는 줄도 모른다면 만물 전체가 나이고 내 전체가 만물일 것이다.’”(『大慧語錄』 권4 大47 p.825a20. 僧問, ‘心佛俱亡時, 如何?’ 師云, ‘賣扇老婆手遮日.’ 乃云, ‘心佛不二, 物我一如. 若實得一如, 則不見有物我之名; 若實得不二, 則不見有心佛之相. 既不見有心佛之相, 則全心即佛, 全佛即心; 既不見有物我之名, 則全物即我, 全我即物.’); “부처란 무엇입니까? ‘부채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續傳燈錄』 권3 「太子道一傳」 大51 p.487a14. 僧問, ‘如何是佛?’ 師曰, ‘賣扇老婆手遮日.’)

儀, 賣扇老婆手遮日.”

#### 열재거사의 송<sup>46)</sup>

들어 보인 장면 분명하고 벤 소식 친절한데,  
떨어지는 꽃과 날리는 꽃가루 행인 때리네.  
짚신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가노라니,  
사월 둥근 연꽃, 잎 하나하나마다 새롭구나.

悅齋居士頌, “提起分明斬處親, 落花飛絮撲行人. 草鞋頭上出門去, 四月圓荷葉葉新.”

#### 보복종진(保福從展)의 엄

“비록 이렇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떨어진 짚신이었다.”

保福展拈, “雖然如是, 也卽是破草鞋.”

#### [설화]

조주가 이었던 것은 떨어진 짚신이었고, 남전이 벤 것은 죽은 고양이였다.

保福：趙州地, 是破草鞋；南泉地, 是死猫兒.

---

46) 1구와 3구는 남전과 조주의 기관을 나타내고, 2구와 4구는 당시 계절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통하여 분명하고 친절하게 드러난 두 선사의 남김 없는 소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송이다.



## 취암수지(翠巖守芝)의 염

“대단한 조주여! 자신만 구제할 수 있겠구나.”

翠巖芝拈, “大小趙州! 祇可自救.”

[설화]

조주는 두 토막 중 하나만 얻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翠巖: 趙州, 只得一槪也.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염

“고양이를 살려서 무엇에 쓰려 하는가? 오히려 남전과 조주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마침내 손을 들고 움켜쥐는 시늉을 하며 “남전과 조주의 생명은 모두 이 안에 있다. 만일 그들이 하는 그대로 허용한다면 옳으니 그러니 하고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 번 힘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 하고, 손뼉을 한 번 쳤다.<sup>47)</sup>

大洪恩拈, “貓兒救得何用? 却須救取南泉趙州.” 乃舉手作捏勢云, “南泉趙州性命, 總在這裏. 若放過, 則無可不可; 若不放過, 不消一捏.” 拍一拍.

---

47) 황벽희운(黃檗希運)의 법문을 응용한 것이다. “황벽이 어느 날 주먹을 쥐고 말했다. ‘천하의 노화상들이 모두 이 주먹 안에 있다. 내가 만일 하나의 활로를 펼쳐 준다면 그들이 중흥 어디로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 번 힘을 쓸 필요도 없다.’”(『五燈嚴統』 권4 「黃檗希運」 已139 p.202a6. 師, 一日, 捏拳曰, ‘天下老和尚, 總在這裏. 我若放一線道, 從汝七縱八橫; 若不放過, 不消一捏.’)

[설화]

손을 들고 움켜쥐는 시늉을 하며 : 남전과 조주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마지막에 손뼉을 한 번 친 것 또한 그런 뜻이다.

그들이 하는 그대로 허용한다면 옳으니 그러니 하고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 남전과 조주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에 ‘고양이를 살려서 무엇에 쓰려 하는가’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이다.

大洪：舉手作捏勢者，南泉趙州不放過。下拍一拍，亦然。放過則無可不可者，也須放過南泉趙州也。最初云貓兒救得，卽此義也。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상당

“남전이 고양이를 베어버린 일화는 귀종이 뱀을 잘라버린 일<sup>48)</sup>과 함께 총림에서 주고받으며 헤아리는 화제인데, 이들 사이에 우열이 있는가? 우열은 그만두고,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린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일까? 만일 이것을 밝힌다면 덕산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했던 것처럼<sup>49)</sup> 한들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인가? 반대로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단하가 목불을 태운 것에 대하여 꾸짖어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 원주의 신세<sup>50)</sup>가

48) 『禪門拈頌說話』 255則의 공안이다.

49) 위산(滄山)이 덕산의 선기(禪機)를 보고 그의 미래를 평가한 말이다. 덕산이 바람을 옆구리에 끼고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례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거지를 통하여 위산의 반응을 엿보았고, 위산은 덕산의 의중을 감파한 인연을 말한다. 『禪門拈頌說話』 666則에 나온다. “이 사람은 이다음에 우뚝 솟은 봉우리 정상에 초암을 짓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게 될 것이다.” (『滄山語錄』 大47 p.578a17. 此子，已後向孤峯頂上，盤結草菴，呵佛罵祖去在.)

50) 본서 321則「丹霞燒佛」참조.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와 복이 들어오는 문은 따로 정해진 적이 없고, 오로지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다’<sup>51)</sup>라고 하는 것이다.”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眞淨文，上堂云，“南泉斬猫兒，與歸宗斬蛇，叢林中商量，還有優劣也無？優劣且止，只如趙州戴靸鞋出去，又作麼生？若也於此明得，德山呵佛罵祖，有什麼過？於此不明，丹霞燒木佛，院主眉鬚落。所以禍福無門，唯人自召。”喝一喝。

# [설화]

남전이 고양이를 벤 것과 귀종이 뱀을 자른 것이 같은 종류일까? 만약 같은 종류라면 우열이 있다거나 우열이 없다거나 하며 헤아리는 분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다 : 만약 남전이 고양이를 벤 것과 귀종이 뱀을 자른 것과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것이 어찌 서로 다른 법이겠는가? 그러므로 덕산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했던 것도 잘못이 없는 것이다. 만일 득실과 우열로 헤아린다면 단하가 목불을 태운 것을 꾸짖은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 것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 여기에 무슨 우열과 득실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眞淨：南泉斬猫，歸宗斬蛇，一般耶？若是一般，有優劣無優劣商量，無有是處也。只如趙州云云者，若知南泉斬猫，歸宗斬蛇，趙州戴草鞋，豈是別法？然則德山呵佛罵祖，也無過也。若

51) 『左傳』襄公 23年條에 “禍福無門，唯人所召”라는 예가 보인다. 속담과 같이 쓰이는 말이다.

也得失優劣商量，丹霞燒木佛，院主眉鬚墮落，是由自召也。喝  
一喝者，到這裏，有什麼優劣得失？

## 취암기의 상당<sup>52)</sup>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남전노인이 시행한 일시적인 방편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신이 추해지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아주 흡사했다.<sup>53)</sup> 세상의 인심은 찬지 따뜻한지를 살피고, 사람의 마음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sup>54)</sup> 앞은 은산철벽<sup>55)</sup>과 같아서 나아가려 해도 문이 없고 물러서려 해도 길이 없으며, 뒤는 물과 진흙에 뒤섞여 온통 지저분해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후인들에게 비웃음의 실마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으리라.<sup>56)</sup> 만약 나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두 짝의 꼬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더라도 고양이를 베어

52) 남전은 고양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길을 열어 두었지만, 취암기는 어떤 경우에도 수미일관하게 죽인다는 안목에 입각해 있다. 약간의 방편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본분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53) 친절하게 학인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궁극적인 법도를 보류하고 자세하게 베푸는 방편을 말한다. 곧 죽이는 길과 사는 길을 모두 제시한 것을 가리킨다. “자식을 사랑하여 자신이 추해지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법 그대로 시행한다면 살아남을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雲峰語錄』古尊宿語錄40 卮118 p.686a7. 憐兒不覺醜，然雖如是，盡法無民.)

54) 시절의 대세를 따라서 붙어사는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속담이다. 남전도 그와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들의 조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움직였다는 뜻이다.

55) 銀山鐵壁. 화두의 본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유이다. 얼음으로 덮여 오를 수 없는 은산과 무쇠로 가로막혀 뚫고 나갈 수 없는 철벽이다. 화두를 타파할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 속성을 말한다.

56) 처음에는 앞뒤로 어떤 길도 통하지 않는 은산철벽을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는 조주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을 가리킨다.

버렸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잘라 없애야 할 것을 잘라 없애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sup>57)</sup>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의 공안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만약 헤아려낼 수 있다면 옛날의 남전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지만, 헤아려내지 못한다면 내가 이제 엄한 칼날<sup>58)</sup>을 살짝 드러내 보일 것이니, 여러분은 자세히 들어라.”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청산도 고금의 세월을 스치고 지나갈 줄만 알 뿐이니, 흐르는 강물인들 시비의 흔적을 씻어 없앤 적이 있었던가?”<sup>59)</sup>

57) 조주에게 고양이를 살리는 길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분별의 단서가 되어 궁극적인 뜻을 가로막게 된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분을 고수할 뿐 모든 방편을 빼앗는 수법이다.

58) 봉규(鋒規).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본분의 핵심을 엄한 법을 지키기 위한 칼에 비유한 말.

59) 청산과 흐르는 강물은 세월이 흐르는 그대로, 시비가 있는 그대로 아무 조작도 가하지 않는다는 말. 청산은 세월이 흐르는 것을 구태여 잡지 않고 흘러보내듯이 강물도 시비에 얽힌 말의 흔적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뒤의 말은 요(堯)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영수(潁水)에 귀를 씻은 허유(許由)와,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을 피해 그 위쪽에서 송아지에게 물을 먹였다는 소보(巢父)의 고사에 따른다. “지(智)로써 알 수 없고 식(識)으로써 인식할 수 없으니, 언어로 표현할 길도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길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지로써도 알 수 있고 식으로써도 인식할 수 있으니, 언어로 표현할 길도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길도 사라졌다’고 말하겠다. 왜 그런가? 청산도 고금의 세월을 스치고 지나갈 줄만 알 뿐이니, 흐르는 강물인들 시비의 흔적을 씻어 없앤 적이 있었던가?”(『保寧仁勇語錄』續古尊宿語要3 卍118 p.960a4. 不可以智知, 不可以識識, 言語道斷, 心行處滅. 保寧道, 亦可以智知, 亦可以識識, 言語道斷, 心行不滅. 何故? 青山只解磨今古, 流水何曾洗是非?); “법좌에 올라앉아 ‘색과 마음은 두 가지가 아니고, 저것과 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뒤 주장을 집어 들고 ‘이것을 주장자라 부르면 눈을 억지로 눌러 허공 꽃을 피게 하는 격이고, 주장자라 부르지 않으면 집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장자를 던지면서 말했다. ‘청산도 고금의 세월을 스치고 지나갈 줄만 알 뿐이니, 흐르는 강물인들 시비의 흔적을 씻어 없앤 적이 있었던가?’”(『大慧語錄』권3 大47 p.823c17. 上堂, “色心不二, 彼我無差.” 舊拈拄杖云, “若喚

翠崑璣，上堂，舉此話云，“南泉老人一期方便，大似憐兒不覺醜。世情看冷暖，人意逐高低。前似銀山鐵壁，進而無門，退而無路；背後合水和泥，一場狼藉。殊不知，千古之下，與後人作笑端。若是翠崑卽不然，直饒兩隻履戴頭上出去，也須斬却。何故？當斷不斷，返招其亂。敢問諸人。祇如今日一場公案，作麼生商量？若也商量得出，昔日南泉，今朝猶在；若商量不得，翠崑今日，略露鋒規，諸人諦聽。”良久云，“青山祇解磨今古，流水何曾洗是非。”

[설화]

남전노인이 시행한 ~ 움직이기 마련이다 : 이야기를 두 토막 낸 것을 가리킨다.  
앞은 은산철벽과 같아서 ~ 길이 없으며 : 앞에서 고양이를 베어버린 것을 말한다.

뒤는 ~ 지저분해졌다 : 조주가 있었다라면 고양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앞에서 ‘이야기를 두 토막 내었다’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후인들에게 비웃음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한 것이다.

설령 두 짝의 짚신을 ~ 초래하기 때문이다 : 법령을 남김없이 시행한다는 뜻이다.

여러분에게 물겠다 ~ 씻어 없앤 적이 있었는가 : 만일 오늘 이러니저러니 갈라서 말한다면 또 다시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법령에만 근거하여 스스로 중지를 확고하게 한다는 뜻이다.

---

這箇作拄杖子，捏目生華；若不喚作拄杖子，破家散宅。畢竟如何？’擲下云，‘青山只解磨今古，流水何曾洗是非.’)

翠巖：南泉老人，至高低者，話作兩橛也。前似銀山云云者，前頭斬猫兒也。背後合水云云者，恰好救得猫兒也。前云，話作兩橛，故云，千古之下，與後人作笑端也。直饒兩隻履云云者，令盡行也。敢問諸人，至今古云云者，若也今日如何若何道得，則又是非生矣。然則一向據令，自固其宗也。

### 취암사종(翠巖嗣宗)의 염

“남전의 살림 도구를 알고자 하는가? 다름 아닌 이 죽은 고양이 그 것이다. 조주의 살림 도구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이 낱아빠진 짚신이 그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손을 대고 그것을 집어서는 안 된다. 만일 집어 든다면 그대의 손이 더러워질 것이다.”

翠巖宗拈，“要識南泉活計麼？只這死猫兒是。要識趙州活計麼？只這破草鞋是。諸人，第一不得着手拈。若也拈着，污却你手。”

[설화]

남전과 조주의 입장을 모두 그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翠巖：南泉趙州，皆不放過也。

### 죽암사규(竹庵士珪)의 거

‘마침내 베어버렸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긴급하게 법 그대로 집행하라!”<sup>60)</sup>고 말했다. 다시 공안을 들고 ‘틀림없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

60)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법조문 그대로 시행하라는 말로, 한대(漢代)에 공문서(公文

데'라는 구절에 이르러 “이것이 바로 보주(普州) 사람이 도둑을 잡으러 쫓아가는 꼴이다”<sup>61)</sup>라고 말했다.

竹庵珪, 舉此話, 至遂斬却, 師云, “急急如律令.” 復舉, 至恰救得猫兒, 師云, “正是普州人送賊.”

### [설화]

긴급하게 법 그대로 집행하라 : 공포된 법령의 수단을 분명하게 제기하니 대단히 긴급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 쫓아가는 꼴이다 : 남을 따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竹庵 : 急急如律令者, 高提正令手段, 大殺緊要也. 正是云云者, 未免隨他伊麼去也.

---

書)의 말미에 항상 붙었다. ‘如律令’이라고도 한다. 후대에는 도교(道敎)에서 주문(呪文)이나 부록(符籙)의 문자에도 사용한다.

- 61) 보주 사람이란 도둑을 말한다. 보주는 중국 사천성(四川省) 안악현(安岳縣)인데, 도둑이 많은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보주인’을 도둑과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한다. 선문헌에서 보주인 또는 도둑은 본분의 숨은 핵심을 잘 간파해내는 뛰어난 종사에 비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주와 남전이 모두 도둑이다. 선사들의 언행은 일종의 속임수와 같은 관문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점을 간파해 내어 평가하는 말 자체가 또 하나의 관문으로 표현될 때 이와 같이 말한다. “달마대사는 인도로부터 중국에 와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고 성불하도록 가르쳤다. 이 어찌 도둑으로 하여금 도둑을 쫓고, 종을 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從容錄』 43則「評唱」大48 p.255a8. 祖師西來, 直指人心, 見性成佛. 豈是教爾普州人送賊, 認奴作郎來!”)





250칙 盤山心月 반산심월





## 250칙 반산심월 盤山心月<sup>1)</sup>

### [본칙]

반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홀로 둥근 마음의 달이 그 빛으로 만상을 머금었다. 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남아 있지 않아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으니, 이것은 그 무엇일까?” 동산이 말했다. “빛과 경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무엇일까?”

盤山, 示衆云, “心月孤圓, 光吞萬象.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亡, 復是何物?” 洞山云, “光境未亡, 復是何物?”

### [설화]

『청량소』<sup>2)</sup>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마음의 달’이라고 한 이유는 시각(始覺)이 밝은 달처럼 원만하기 때문이다. ‘홀로 둥글다’라고 한 이유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요 두 가지도 없고 다른 것과 뒤섞임도 없지만 원만하게

- 
- 1) 반산보적(盤山寶積)이 제시한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진 경계’의 대척점에 동산양개(洞山良价)가 ‘빛과 경계가 사라지지 않은 경계’를 제시하여 두 가지를 모두 열거나 차단함으로써 설정된 공간이다. 다른 주안점 하나는 ‘마음의 달’이라는 하나의 허언(虛言)을 조성하여 분별로 포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 2) 淸涼疏. 누구의 어떤 저작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용 범위도 애매하다.

완성되지 않은 덕도 없기 때문이다. ‘빛’이란 지혜로 비춘다는 상징이고, ‘머금었다’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得證]는 뜻이다. ‘만상’이란 삼세간(三世間)이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이기 때문이니, 이는 곧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證得] 경계를 나타낸다. 그런 까닭에 옛사람은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sup>3)</sup>라고 한 것이다. ‘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라는 말은 증득한 주체[能證]의 지혜에는 분별하는 상[解相]이 없다는 뜻이다. ‘경계 또한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은 증득의 대상[所證]이 되는 경계에도 상이 없기 때문이다.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는 말은 증득한 주체와 증득의 대상이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 무엇일까?’라고 물은 말은 모두 사라진 바로 그때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보면 아마도 반산은 경전의 문구를 끌어와서 선의 화제(話題: 공안)로 삼은 것 같다.

옛사람은 “구리거울에서 구리라는 질료는 자성의 본체이고, 구리의 밝은 속성은 자성의 작용이며, 나타나는 영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인연에 따르는 작용이다”<sup>4)</sup>라고 하였다. 곧 마음의 달은 자성의 본체이고, 빛은 자성

---

3)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없지만,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구절과 ‘본래 고요하다’라는 구절이 동일한 맥락에서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 〈설화〉의 취지와 일치하는 내용이 『法界圖記叢隨錄』 권상1 大45 p.730a13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중도란 삼세간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삼기에 몸과 마음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옛날부터’라고 한 말은 위의 증분(證分) 중에서 ‘본래 고요하다’라고 한 구절과 상응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위의 증분 중에서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 구절과 상응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30여 개소의 역을 돌아다니다가 깨어난 다음에 야 비로소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침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다.”(中道者, 以三世間爲自身心, 無有一物非身心者故也. 舊來者, 上證分中, 本來寂也, 不動者, 上證分中, 諸法不動也. 比如有人在床入睡, 夢中迴行三十餘驛, 覺後方知不動在床.)

4) 종밀(宗密)의 『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 卍110 p.874b5에 나오는 구절. 이는

의 작용이며, 만상은 인연에 따르는 작용이다.

‘홀로 둥글다’라는 말은 홀쩍 벗어나 모든 대상이 끊어졌으므로 ‘홀로’라 하고, 원만하게 완성되지 않은 덕이 없으므로 ‘둥글다’고 한다.

‘빛이 만상을 머금었다’라는 말은 텅 빈 푸른 하늘에 달이 처음 뜨는 바로 그 순간의 달빛에 비친 허공이 만상을 머금은 형상을 나타낸다.

‘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한 말은 빛과 경계가 서로 상대를 빼앗아 부정하는 것이니, 곧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그 무엇일까?’라고 물은 말은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으므로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일까? 마음의 달조차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동산이 ‘빛과 경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무엇일까?’라고 한 말은 반드시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질 것도 없이 빛과 경계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제2의 그 무엇도 없다는 뜻이다.

清涼疏云, “心月者, 始覺圓滿如明月故. 孤圓者, 心獨無二無雜, 無德不圓故. 光者, 智照也. 吞者, 得證也. 萬像者, 三世間皆是無量法門故, 斯乃諸佛所證境也. 所以古人道, ‘諸法不動本來寂.’ 光非照境者, 能證之智, 無有解相故. 境亦非吞者, 所證之境, 亦無有相故. 光境俱亡者, 能證所證俱亡也. 復是何物者, 俱亡當時, 不可言其某物也.” 則疑盤山引經文爲禪話. 古

---

자성에 본래 갖추고 있는 작용[自性本用]과 인연에 따라 반응하는 작용[隨緣應用]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리거울[銅鏡]을 비유로 삼은 것이다.

人云, “銅之質自性體, 銅之明自性用, 明所現影隨緣用.” 則心月自性體, 光自性用, 萬像隨緣用也. 孤圓者, 迥然絕對故孤, 無德不圓故圓. 光吞萬像者, 青天寥寥月初生, 此時影空含萬像. 光非照境云云者, 光境互奪也, 則光境俱亡也. 復是何物者, 光境俱亡故, 不可言其某物耶? 心月亦亡也. 光境未亡云云者, 何必光境俱亡, 光境未亡, 更無第二.

###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sup>5)</sup>

눈 가득히 들어찬 모든 존재 철저히 공이니,  
모두 사라진 것은 사라지지 않은 것과 같도다.  
여기에 어떤 이름 붙여 단정할 필요도 없이,  
아득한 세월 이어진 도리로 조사 가풍 떨치리.

淨嚴遂頌, “滿目森羅徹底空, 俱亡還與未亡同. 箇中不用安名字, 千古由來振祖風.”

#### [설화]

모두 사라진 것과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 서로 다른 법이 아니라는 말이니, 이에 대하여 한층 높은 안목으로 살펴야 비로소 조사의 가풍을 떨칠 수 있다는 뜻이다.

---

5) 반산과 동산의 말이 하나로 어울릴 때 조사의 가풍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송이다.

淨嚴：俱亡未亡，非是別法，於此高著眼，方振祖風。

## 송원의 송

밑그림도 그릴 수 없고 붓질로 나타낼 수도 없으니,  
누운 용은 언제나 깊고 검푸른 연못 맑아질까 두려워하네.<sup>6)</sup>  
분별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도 끝내 이해하지 못하니,  
통달한 자라면 반드시 어둠 속에서도 놀라워하리라.<sup>7)</sup>

松源頌，“描不成兮畫不成，臥龍長怖碧潭清。擬心湊泊終難會，達者應須暗裏驚。”

### [설화]

밑그림도 그릴 수 없고 ~ 두려워하네 :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진 뜻과 상응한다.

3구와 4구 : 빛과 경계가 사라지지 않은 뜻과 상응한다.

松源：描不成云云者，光境俱亡也。下二句，光境未亡也。

- 
- 6) 누운 용[臥龍]은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자를 상징한다. 물이 맑으면 본래의 뜻이 좌절되므로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공안의 말에 대하여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듯이 언어와 분별에 의지하여 낱낱이 묘사하려는 것은 그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로서는 바르지 못하다는 취지이다.
- 7) 한 부분에 달통한 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조짐을 단서로 삼아 그 대상을 느낄 수 있다는 말.

## 운문문언(雲門文偃)의 거 1

반산의 말을 제기하고 평가했다. “온 세상이 빛인데, 무엇을 가리켜 자기 자신이라 부르는가? 그대가 만일 빛의 본질을 안다면 경계 또한 얻을 수 없거늘 무슨 변변치 못하게 빛이니 경계니 나눌 여지가 있겠는가! 빛과 경계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그 무엇일까?” 또 다시 “이것은 옛사람이 자비심 때문에 거듭 해설해 준 말에 불과하니, 이에 대하여 특출나게 분명히 알았더라도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sup>8)</sup> 만약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 라 한 다음 손을 들고서 말했다. “소로, 소로!”<sup>9)</sup>

雲門偃, 舉盤山語云, “盡大地是光, 喚什麼作自己? 你若識得光去, 境亦不可得, 有什麼屎光境! 光境既不可得, 復是何物?” 又云, “此是古人慈悲之故, 重話會語, 這裏個儻分明去, 放過則不可. 若不放過.” 舉手云, “蘇嚧, 蘇嚧!”

### [설화]

온 세상이 빛인데 ~ 이것은 그 무엇일까 : 자기 자신이 마음의 달이니, 빛과 경계를 얻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옛사람이 ~ 말에 불과하니 : 자비 때문에 번뇌의 숲에 떨어져서 전하는 이야기<sup>10)</sup>를 두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 해설한다’고 평가했

8) 반산의 말은 방편상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일 뿐이므로 본분 자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했더라도 그 상태를 완전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말.

9) 蘇嚧, 이와 같이 진언(眞言)을 선어(禪語)의 맥락으로 활용하는 예는 조사선이나 간화선에서 일반적이다.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지 않은 몰자미(沒滋味)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모든 의미체계를 무너뜨리고 한층 높은 본분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다. 이것으로 보아 반산이 경전의 문구를 거론하여 자신의 범문 소재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중에 한 모든 말이 그 뜻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하여 특출나게 ~ 허용하면 안 된다 : 비록 특출나게 분명히 알았더라도 그가 이해한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소로, 소로 : 한마디의 진언<sup>11)</sup>이니, 이 또한 괴이함을 물리치는 주문이다.

雲門：盡大地至何物者，自己則心月也。光境既不可得，亦無自己可得也。又云至會語者，慈悲之故，有落草之談也。此云重話會。以此故知盤山舉經文，作自己用也。話中云云，不其然乎！這裏個倘云云者，雖然個倘分明，不可放過也。蘇嚕蘇嚕者，一道眞言，亦是遣怪也。

10) 낙초지담(落草之談). 이 역시 운문의 말에 따른다. 畚[草]은 번뇌망상의 경계를 나타낸다. 이곳에 떨어져서 전하는 이야기[落草之談]란 그 번뇌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수준에 맞도록 기준을 낮추어서 전하는 말을 가리킨다. 번뇌의 경계에서 벗어나 본분사를 직접 가리킨다는 뜻의 출초담(出草談)과 대칭되는 말이다. “옛날부터 덕이 높은 스님들은 모두 자비심 때문에 번뇌의 숲에 떨어져서 전하는 이야기를 두었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했던 것이다. 만일 번뇌의 숲을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는 쓸모없이 거둬 해설하는 말이 될 뿐이다.” (『雲門廣錄』古尊宿語錄16 卍118 p.352b16, 古來老宿, 皆爲慈悲之故, 有落草之談, 隨語識人. 若是出草之談, 卽不與麼. 若與麼, 便有重話會語.)

11) 일도진언(一道眞言). 다른 모든 진언의 비밀스러운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진언이다. 밀교의 이 뜻을 간화선의 맥락에서 활용한 것이다. 곧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모든 화두를 한꺼번에 다 타파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성취하는 문이다. 곧 모든 공덕을 빠르게 성취할 방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일도진언만 지니고 외워야 한다. 이것을 성취할 때 모든 진언의 공덕을 남김없이 성취하게 된다.” (『顯密圓通成佛心要集』권상 大46 p.996a3. 二者, 疾得成就門. 謂欲求一切功德疾得成就, 宜專持誦一道眞言. 成時, 一切眞言功德, 皆悉成就.)

## 운문문언의 거 2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으니, 이것은 그 무엇일까?’라는 구절을 다시 제기하고 말했다. “설령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전히 목적지까지는 반 정도 더 남았으니, 아직도 하나의 길을 완전히 뚫고 벗어나지는 못했다.” 어떤 학인이 “무엇이 하나의 길을 완전히 뚫고 벗어난 것입니까?”라고 묻자 운문이 대답했다. “천태산의 화정봉(華頂峰)이요, 조주의 돌다리이니라.”<sup>12)</sup>

又舉, ‘光境俱亡, 復是何物?’ 師云, “直饒伊麼道, 猶在半途, 未是透脫一路.” 僧便問, “如何是透脫一路?” 師云, “天台華頂, 趙州石橋.”

[설화]

천태산의 화정봉이요 조주의 돌다리이니라 : 이것과 저것의 차별을 나타낸다.

又舉云云 : 天台華頂云云者, 彼此差別也.

## 운문문언의 거 3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으니, 이것은 그 무엇일까? 동해 속에 몸을 숨기고, 수미산 정상에서 말을 타고 달린다.” 주장자로 선상을 한 번 치자 대중이 영문을 몰라 눈알을 두리번거렸다. 이에 운문이 주장자를 휘둘러 대

---

12)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각각의 명물을 가지고 던진 화두이다. 반산이 지혜의 빛인 주관과 그 대상인 경계가 모두 사라진 무차별의 경지를 물었지만, 운문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의 경계를 제시하였다. 본칙에서 반산의 대척점에 설정한 동산의 말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앞에서 제시된 화두를 그대로 수궁하지 않고 비판적 구절로 대적하는 방식이 화두를 활구로 이끌어가는 선사들의 상용 방법이다.

중을 내쫓으면서 말했다. “영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로구나. 이 칠통  
들아!”

又云, “光境俱亡, 復是何物? 東海裏藏身, 須彌山上走馬.” 師  
以拄杖打床一下, 大衆眼目定動. 師乃拈拄杖趂散云, “將謂靈  
利, 這漆桶!”

[설화]

동해 속에 몸을 숨기고 : 동해는 차별을 나타내고, 몸을 숨기는 것은 자취가  
전혀 없도록 몸을 감추는 것이다.

수미산 정상에서 말을 타고 달린다 : 수미산 정상은 차별된 상과 이름이 모두  
사라진 곳이며,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활발한 작용이다.

선상을 한 번 치자 ~ 두리번거렸다 : 선상을 한 번 친 것이 어찌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진 경지가 아니겠는가!

주장자를 휘둘러 대중을 내쫓으면서 ~ 이 칠통들아 : 남을 가르치려면 철저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첫째로 상대가 하는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차별), 그 다음으로는 한 걸음 크게 떼고 걸어야 한다(차별). 이는 차별  
중의 무차별이요 무차별 중에 차별이 있다는 뜻이다.

又云云 : 東海裏藏身者, 東海則差別, 藏身則隱身沒蹤迹也.  
須彌云云者, 須彌山頂, 則相盡名亡, 走馬則活用也. 打床一  
下云云者, 打床一下, 豈不是光境俱亡地! 拈拄杖趂散云云者,  
爲人須爲徹也. 第一, 不放過; 第二, 闊一步. 此則差別中無差  
別, 無差別中有差別也.

##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반산은 마치 사람들을 대문 입구와 방문 아래까지 이끌어준 것과 아주 흡사하게 친절했다. 만일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등롱이 빛을 뿜어내어 납승의 해골을 비추고, 주장자가 뛰어올라 조사의 콧구멍을 틀어막는다’라고 말하리라.” 주장자를 잡고 “바로 검은 옷칠을 한 이 주장자도 빛을 뿜어내고 땅을 진동시킬 줄 안다”라고 말한 뒤 주장자를 던져 놓았다.

拈木成，上堂云，“盤山，大似引人向門頭戶底，若是香山卽不然。燈籠放光，照破衲僧觸髅；拄杖跋跳，築著祖師鼻孔。”乃拈拄杖云，“祇遮黑漆烏藤，也解放光動地。”擲下拄杖。

### [설화]

등롱이 빛을 뿜어낸다 : 광채가 있다는 뜻이다.<sup>13)</sup>

납승의 해골을 비추다 : 앞에서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는 부분은 곧 노주<sup>14)</sup>에 해당한다.

주장자가 뛰어올라 조사의 콧구멍을 틀어막는다 : 해골을 비추지만 또한 조사의 콧구멍이 또 남아 있다. 주장자에는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표시하는 등 활발한 작용이 있으므로 틀어막은 것이다.

검은 옷칠을 한 ~ 진동시킬 줄 안다 : 비추는 작용이 없는 검은 주장자가 어찌 이전에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고 한 그러한 존재이겠는가! 이것 또한 빛을 뿜어내고 땅을 진동시킬 줄 안다. 그렇다면 납승의 해골에는

13) 등롱(燈籠)은 등불을 놓아두는 곳이므로 빛이 있다는 뜻.

14) 露柱. 건물의 기둥을 말하는데, 빛을 발하는 등롱의 반대편에서 빛이 사라진 소식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흔히 이렇게 등롱과 짝을 이루어 거론된다.

무슨 결함이 있어서 등롱이 빛을 뿜어내어 비추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sup>15)</sup>

枯木：燈籠放光者，有光彩也。照破至髑者，前光境俱亡處，乃是露柱也。拄杖跋跳云云者，照破髑髏，則又有祖師鼻孔，在拄杖，則指東畫西有活用故，築著也。祇這黑云云者，無照燭的，豈是前光境俱亡的！這的亦解放光動地也。然則衲僧髑髏，有什麼過，則何必燈籠放光照破。

### 보림본의 상당

“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남아 있지 않으니,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장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사람은 여기에 이르러 어째서 그 진실을 몰랐을까?” 주장자를 잡고 말했다. “잘 살펴보라! 반산의 콧구멍은 오늘 나의 주장자에 뚫려버렸다.<sup>16)</sup> 여러분은 알겠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아침에 3천 대를 때리고, 저녁에 8백 대를 때려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주장자로 선상을 쳤다.

寶林本，上堂云，“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都來是一條拄杖子。古人，到遮裏，因什麼不識？”乃拈起拄杖云，“看看！盤山鼻孔，今日被雙林穿却了。你等諸人，還委悉麼？”良久云，“朝三千暮八百。”擊禪床。

15) 남승의 해골도 검은 옷칠을 한 주장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뿜어낼 수 있다는 뜻.

16) 반산의 속뜻을 알아차렸다는 말. 콧구멍은 본분의 핵심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반산이 제기한 화두의 본질을 가리킨다.

[설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장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옛사람은 ~ 몰랐을까 : 옛사람은 반산을 가리킨다. 반산에게 이 주장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으므로 ‘반산의 콧구멍은 오늘 나의 주장자에 뚫려 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다.

아침에 3천 대를 ~ 때려줄 것이다 : 주장자의 활발한 작용을 나타낸다.

寶林：都來是一條拄杖者，指東畫西也。古人至不識者，古人謂盤山。盤山有識這個拄杖子，故云，‘盤山鼻孔，今日被雙林穿却了也。’朝三千云云者，拄杖子之活用也。

황룡유청(黃龍惟淸)의 상당

반산의 말을 제기하고 평가했다. “반산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뒤통수를 한 번 찢어주고 그가 머리를 돌리는 순간 ‘이것은 그 무엇일까?’라고 물었다면, 설령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가르쳐 준 은혜가 가슴 속 깊이 남았을 것이다.”

黃龍淸，上堂，舉盤山語云，“才見伊麼道，便與腦後一筭，待他轉頭來，却問復是何物，從教直下難分雪，管取恩深懷抱中。”

[설화]

뒤통수를 한 번 찢어 주고 : 반산이 설정한 화두의 함정<sup>17)</sup>을 부순다는 뜻

---

17) 과굴(窠窟).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라는 말이 바로 함정이다. 선어(禪語)는 상대를 그 말에 빠지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함정과 같다. 곧 그 말 그대로 수용하

이다.

이것은 그 무엇일까 : 이렇게 모두 사라졌다는 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설령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라고 한 것이다.

틀림없이 ~ 남았을 것이다 : 이렇게 가르쳐 준 은혜가 대단히 크다는 뜻이다.

黃龍 : 腦後一筍云云者, 破他窠窟也. 復是何物者, 是俱亡未亡也. 故云, ‘從教直下難分雪’也. 管取云云者, 此恩重大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백로가 밭에 내려앉으니 천 점의 눈송이요, 찌꼬리가 나무에 앉아 있으니 한 송이의 꽃이로다.”

雲門杲, 上堂, 舉此話, 師云, “白鷺下田千點雪, 黃鶯上樹一枝金.”<sup>18)</sup>

#### [설화]

백로에 대한 묘사는 동산의 입장을 가리키고, 찌꼬리에 대한 묘사는 반산의 입장을 나타낸다.<sup>19)</sup>

雲門 : 白鷺云云者, 謂洞山地也. 黃鶯云云, 謂盤山地也.

---

는 순간 함정이 된다. 그래서 ‘사라졌다’는 말에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응하지만, 이것 또한 함정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함정을 함정으로 대적하고, 착각을 착각으로 물리치는 것이 조사선 선문답의 기본 전략이다.

18) 『大慧語錄』 권1 大47 p.813c1에 따라 ‘金’을 ‘華’로 보고 번역한다.

19) 동산은 차별 중의 무차별, 반산은 무차별 중의 차별을 입장으로 삼는다. 천 점의 눈송이는 모두 차별 없이 같은 것 같지만 제각각 차별되고, 꽃나무에 앉은 찌꼬리는 꽃과 차별되는 새이지만 다른 꽃과 무차별하게 하나로 어울려 있다.

## 대혜종고의 거

다시 반산의 말을 제기하고 평가했다. “천 년 상주하는 터에 하루살이 스님이로구나.”

又舉, 盤山語云, “千年常住一朝僧.”

[설화]

이것은 반산과 동산의 입장을 밝힌 말이다. 앞의 법문에서는 반산의 입장을 벗어나서 동산의 입장이 없고, 동산의 입장을 벗어나서 반산의 입장이 없다는 도리를 밝혔지만, 이것은 두 스님의 입장에 조금의 거리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又舉：此明盤山洞山地也。前明盤山地外，無洞山地；洞山他外，無盤山地。此明二師地，去離不得也。

## 심문답분(心聞曇賁)의 상당

반산의 말을 제기하고 평가했다. “반산은 채석<sup>20)</sup>의 나루터에서 달을 건지려다 실족하여 강에 빠진 꼴이고, 만년<sup>21)</sup>은 기세를 타고 달을 쫓던 원숭이가 물속에 뛰어든 격이다.<sup>22)</sup> 여러분은 마음의 달을 알고자 하는가? 도둑

---

20) 采石, 채석기(采石磯)의 줄임말. 중국 안휘성(安徽省) 마안산시(馬鞍山市) 장강(長江)의 동쪽에 있는 험한 절벽. 이백(李白)이 술에 취하여 강에 잠긴 달을 건지려다가 익사한 곳으로 전한다. 태백루(太白樓)와 착월정(捉月亭) 등의 고적이 남아 있다.

21) 萬年, 심문답분의 호.

22)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는 구절과 ‘마음의 달’이라는 말이 실어(實語)가 아니라는 비유. 그것이 말 그대로 진실한 실어로 생각하여 의미를 포착하려 하면



은 비록 소인이지만 그 지혜는 군자보다 낫다.”

心聞貴，上堂，舉盤山語云，“盤山，采石渡頭失脚；萬年，乘勢  
赶猿猴入水。汝等諸人，還識心月麼？賊是小人，智過君子。”

[설화]

채석의 나루터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원숭이가 달그림자를 건지려  
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한 강가에 살던 여자  
가 물에 들어가 돌을 주었는데, 좋은 사내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다. 그러  
므로 반산이 마음의 달을 따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디더 실패했다  
는 말이다.

기세를 타고 달을 ~ 뛰어든 격이다 : 산승 또한 원숭이와 같이 물에 뛰어들어  
달을 건지려 했다는 뜻이다.

도둑은 ~ 군자보다 낫다 :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다는 뜻이다.

心聞：采石渡頭，未詳，疑是猿猴捉月處。又他處云，‘有一水  
娼女，沉水取石，則生善男子。’然則謂盤山採取心月，不覺失  
脚也。乘勢赶云云者，山僧亦如猿猴，入水採月也。賊是小人云

---

달그림자를 실제의 달로 착각하여 건지려다 익사하는 꼴과 같다는 뜻이다. 이  
공안에 대한 무시개심(無示介諷)의 다음과 같은 평가도 이 모든 것을 허언(虛  
言)으로 보는 동일한 견해이다. “한바탕의 잘못이다. 여기서 진실을 관파하면,  
대장경 전체의 교설은 물속의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고, 역대 조사들의 언행은  
달빛 속에서 그림자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성문과 연각은 가  
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집착을 아직 잊지 못한 것과 같고, 범부와 외도는 물둥이  
를 뒤집어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남승  
들은 이러한 책략에 분노를 일으켜 마음속에 가지런히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결코 이마에 손을 대고 특별한 것이 있는 듯이 살피지 마라.”(『無示介諷和尚語』  
續古尊宿語要4 1119 p.57b9. 一場罪過。這裡見得，則知一大藏教，是水底捉月；歷代  
祖師，是月中逃影；聲聞緣覺，未忘所標之指；凡夫外道，住在覆盆之下，衲僧家，慷慨  
作略，不受安排，切忌以手斫額.)

云者，作賊人心虛也。

## 묘지곽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두 존속들은 이와 같이 말했기에 바로 빛과 경계 속에 떨어진 것이다. 점검해 보면 모두 깨닫기에는 모자라다. 만일 나였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자를 곳곳이 세우고 말했다. “알겠는가? 3만 6천 이랑[頃] 너비의 태호<sup>23)</sup>에, 달그림자가 물 가운데 잠긴 것을 누구에게 말하랴?”

妙智廓，上堂，舉此話，師云，“此二尊宿，恁麼說話，正墮光境中。檢點將來，俱欠悟在。若是育王則不然。”豎起拂子云，“還會麼？大<sup>24)</sup>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 [설화]

두 존속들은 ~ 떨어진 것이다 : 모두 사라졌다거나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나 나 두 경우 다 판에 박힌 인식 틀[規模]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불자를 곳곳이 세우고 ~ 누구에게 말하랴 : 이 하나의 달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다고 이해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妙智：二尊宿至境中者，俱亡未亡，皆未離規模也。豎起拂子云云者，這一月即不混也。然則會得光境俱亡，更有什麼事。

---

23)太湖,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을 모두 끼고 있는 거대한 호수. 진택(震澤)·구구(具區)·오호(五湖)·입택(笠澤) 등이라고도 한다. 중국 3대 담수호(淡水湖)의 하나로 예로부터 그 너비를 3만 6천 경이라 불렀다.

24) ‘大’는 ‘太’자의 오식.



261칙 歸宗起拳 귀종기권





## 261칙 귀종기권 歸宗起拳

### [본칙]

귀종에게 이발<sup>1)</sup>이 “대장경 전체의 교설은 어떤 일을 밝힌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귀종이 주먹을 세우고 말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더니 다 헛일이었군요,<sup>2)</sup> 주먹조차 모르다니.”

歸宗，因李渤問，“一大藏教，明什麼邊事？”師豎起拳云，“會麼？”李云，“不會。”師云，“空讀萬卷書，拳頭也不識。”

### [설화]

주먹을 세운 것 : 대장경 전체의 교설이 바로 이것을 설한 것이라는 뜻이다.

수만 권의 책 ~ 주먹조차 모르다니 : 놓는 동작도 대단히 긴급했지만, 거두어들인 말도 매우 빨랐다.<sup>3)</sup>

---

1) 李渤(?~831). 당(唐)나라 때 인물. 낙양(洛陽) 출신으로 자는 준지(潛之). 강서성(江西省) 성자현(星子縣)의 여산오로봉(廬山五老峯) 아래 백록동(白鹿洞)에 은거하다가 821년(長慶1) 강주자사(江州刺史)가 되었다.

2) 이발이 백록동에서 독서하며 은거한 것을 가리킨다. 백록동은 후대에 중국 4대 서원 중 으뜸인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으로 바뀌었다.

3) 놓는 동작[放]은 주먹을 세운 것, 거두어들인 말[收]은 주먹도 모른다고 질책한

起拳者, 一大藏教, 只說這箇也. 空讀云云至不識者, 放去大危, 收來大速.

##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마음껏 하도록 놓아두면<sup>4)</sup> 해와 달이 모두 빛날 것이며,  
꼼짝 못하도록 붙들면<sup>5)</sup> 하늘과 땅이 온통 암흑이 되리.  
한번 찢어도 고개 돌려 보지 않으니,  
대지 가득히 가시나무가 자라나리라.  
용궁의 해장<sup>6)</sup>도 이것보다 많지 않고,  
부싯돌과 번갯불도 이보다 느리다네.  
그대는 모르는가?  
자소봉<sup>7)</sup> 아래 있는 목지<sup>8)</sup> 주변에서는

---

것을 가리킨다. 이 공안에서 귀종의 선기(禪機)는 방(放)과 수(收)를 모두 시행한 것에 있다는 해설이다. 아래에 나오는 장산법천의 방개·파주와 상응한다.

- 4) 방개(放開), 방행(放行)과 같은 말. 모든 것을 긍정하며 허용하는 입장.
- 5) 파정(把定), 파주(把住)와 같은 말. 모든 것을 부정하며 가로막는 입장. 방개와 파정은 선사들이 지니고 있다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적재적소에 발휘하는 수단이다. 귀종의 '주먹'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편도 아니면서 두 가지의 효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암흑, 긍정과 부정의 양편을 모두 나타낸다.
- 6) 海藏, 바다의 용궁에 있는 보배 창고. 여기서는 바다와 같이 드넓고 깊게 모든 진리와 방편이 수록되어 있는 대장경을 비유한다.
- 7) 紫霄峰, 중국 강서성 성자현 여산의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 귀종지상(歸宗智常)이 주석했던 귀종사(歸宗寺)가 이곳에 있다. 백록동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용처럼 날렵한 팔준<sup>9)</sup>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蔣山泉頌, “放開日月明, 把定乾坤黑. 一筍不迴頭, 滿地生荊棘. 龍宮海藏兮非多, 石火電光兮未急. 君不見? 紫霄峰下墨池邊, 八駿如龍追不及.”

[설화]

주먹을 세운 것은 방행이고, 수만 권의 책을 읽은 것이 다 헛일이었다는 말은 파정이다.

한번 찢어도 고개 돌려 보지 않으니 : 주먹을 세운 뜻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대지 가득히 가시나무가 자라나리라 : 수많은 책을 부질없이 읽었을 뿐,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이하는 모두 파정을 밝힌 구절이다.

蔣山 : 豎起拳頭, 放行 ; 空讀萬卷書云云, 把定也. 一割<sup>10)</sup>不回頭者, 豎起拳頭處不無也. 滿地生荊棘者, 謂空讀萬卷書也. 又進前不得意也. 下皆明把定也.

---

이발과 교유하게 된 것이다.

8) 墨池. 붓과 머루를 씻는 못. 귀중사 안에 있다. 귀중 자신을 나타낸다.

9) 八駿. 여덟 필의 준마(駿馬). 주목왕(周穆王)이 타고 다니던 말들이라고 한다. 털 색에 따라 여덟 필의 말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일반적으로 준마 또는 황제의 거마(車馬)를 나타낸다. 용이 나는 것과 같이 날렵하여 팔룡(八龍)이라고도 부른다.

10) ‘割’은 ‘筍’의 오식.







284칙 汾州妄想 분주망상





## 284칙 분주망상 汾州妄想

[본칙]

분주무업선사는 학인들이 질문할 때마다 “망상 피우지 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汾州無業禪師, 凡學者致問, 師多答之云, “莫妄想.”

[설화]

각범(覺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구경』에 ‘만일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곧 망상이요 정진이 아니다’라 하였고, 『원각경』에는 ‘말세의 중생일지라도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에 있는 그대로 보살이라고 하셨다’<sup>1)</sup>라 하였다. 이러한 말은 본성과 합치하는 말이며,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나 학인들이 그 말을 경시하여 도리어 깊고 미묘한 도를 구하려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覺範云, “法華<sup>2)</sup>經云, ‘若起精進心, 是妄非精進.’ 圓覺經云, ‘末世諸衆生, 心不生虛妄, 佛說如是人, 現世卽菩薩.’ 此乃稱

1) 『圓覺經』 大17 p.917b23.

2) ‘華’는 ‘句’자의 오식. 『法句經』 大85 p.1435a20(燉煌本 S.2021)에 나오는 말이다.

性之談, 入道之門. 而學者易其語, 反求玄妙, 可笑.”

### 지문광조(智門光祚)의 송

마조가 하나의 분주(汾州)를 배출하자,  
망상이 천둥 치듯 온 세상[九州]에 퍼졌네.  
참선을 하더라도 남자의 안목이 없다면,  
많은 경우 바다에서 물거품 찾는 격이리라.

智門祚頌, “馬祖出得一分州, 妄想如雷播九州. 參禪若無衲子  
眼, 多於海上覓浮漚.”

#### [설화]

앞의 두 구절은 분주가 ‘망상 피우지 마라’고 한 것에 상응하니 삼세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이 한 말씀도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뒤의 두 구절은 이것을 벗어나서 억지로 깊고 오묘한 지견(知見)을 조작하는 것은 바다에서 물거품을 찾는 격이라는 뜻이다.

智門：上二句，汾州莫妄想地，三世諸佛，歷代祖師地，無越於此也。下二句，此外強作玄妙知見，是海上覓浮漚也。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분주가 망상 피우지 말라고 하니,  
배 떠나려면 물이 불어야 한다네.

누구나 자신이 능하다 자랑하지만,  
 몇 사람이나 가려운 곳 긁어 줄까?  
 가려운 곳 긁어 주는 것이야말로 망상이니,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소리 울리네.  
 호랑이 잡는 삼천 근 쇠뇌<sup>3)</sup>도 모르면서,  
 큰 공 이루면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네.

崇勝珙頌, “汾州莫妄想, 航行須水長.<sup>4)</sup> 來者盡誇能, 幾人抓着癢? 抓着癢真妄想, 墮墮落坑搗地響. 不知射虎弩千鈞, 却道大功能受賞.”

## 덕소국사(德昭國師)의 시중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망상 부리지 말라는 말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망상의 근원을 모른다면 모두 조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구별하는 일도 옳지 않고 그것을 가려내는 일도 옳지 않다면 또한 그 무엇을 가려낸단 말인가? 여러분! 수행이란 모름지기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언어에서 찾는다면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다. 헤아리며 생각할 필요 없이 한순간에 몸소 증명하라. 움직이는 것은 고요함만 못하니 재빠르게 꿰뚫어야 한다.”

昭國師, 示衆, 舉此話云, “諸仁者, 惣云, ‘不消个莫妄想.’ 若也不識妄想根源, 惣成造作也. 不是判他, 不是斷他, 又斷个什麼? 諸仁者! 大凡行脚, 也須具眼, 始得. 若更尋言尋語, 並無

3) ‘망상 피우지 마라’는 분주의 말.

4) 장(長)은 창(漲)과 통한다.

用處. 不用卜度思量, 一時驗取! 動不如靜, 快須究取.”

[설화]

덕소국사의 뜻은 반드시 망상의 근원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니, 친밀하게 전한 이 말 이외에 더 친밀한 것은 없다<sup>5)</sup>는 뜻이다.

昭國師意, 須是識取妄想根源, 此外別無親於親處也.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상당

“옛날 분양<sup>6)</sup> 화상은 학인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망상 피우지 마라’고 하였고, 어떤 질문을 받거나 모두 ‘망상 피우지 마라’고 대답했다. 감원(監院)<sup>7)</sup>이 ‘화상의 불법에는 단지 한 구절만 있다고 사람들이 전하니, 앞으로는 그만 그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분양은 학인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다만 ‘그쳐라’고 말할 뿐이었다.” 자수가 이어서 말했다. “옛사람은 학인들의 아는 내용이 깨달은 것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말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이해한 것 이상으로 조작하지 않은 채 곧바로 ‘망상 피우지 마라’, ‘그쳐라’ 하고 말해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그쳤

---

5) 법안문익(法眼文益)이 6조 혜능(慧能)의 ‘바람과 깃발’의 화두를 평가하면서 쓴 말이다. 그 이상 진실에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 없다는 뜻이다. 『景德傳燈錄』 권 28 「大法眼文益禪師語」 大51 p.448b17 및 본서 110則 「六祖風幡」 참조.

6) 분양(汾陽)은 분주무업(汾州無業 760~821)의 법호 중 하나이다. 무업의 주석지인 분주 지역을 분양이라고도 하므로 붙여진 법호이다. 『慈受懷深廣錄』 권3에도 분양이라고 되어 있다.

7) 절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직책. 감사(監寺)와 같은 말이다. “감원이라는 직책은 선원(禪院) 내의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이끈다.”(『禪院清規』 권3 「監院」 卍111 p.890b12. 監院一職, 總領院門諸事.)

는가? 여러분은 매일 눈을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행하는 모든 것이 망상 아닌 것이 없으며, 꿈을 꿀 때까지도 망상일 뿐이다. 망상이 한번 일어나면 갖가지 실마리를 다 전도시켜 번뇌의 문을 열어젖히고 청정한 세계를 미혹시킨다. 만일 망상의 근원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망상이 그치게 될 것이니, 위로는 구할 부처가 없고 아래로는 무서워할 마구니가 없으며 중간에는 연연해할 중생도 없고 또한 두려워할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본원이며 천진하고 묘한 도이다. 만일 망상의 근원을 모른다면 삼계에 윤회하며 사생(四生)<sup>8)</sup>에 빠져서 이곳에서 나왔다가 저곳으로 들어가기로 반복하며 편히 쉴 날이 없을 것이다. 산승은 타고나기를 말이 많기도 하지만, 오늘은 피하지 못할 좁은 길에서 만난 격이라<sup>9)</sup> 여러분에게 두루 권하는 것이다. 분양이 제시한 일단의 인연을 기억하고 나의 보잘것없는 계송 두 수를 외워두면, 인천(人天)의 길에서 조금이나마 쉴 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대대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같은 법회에서 만나길 바랄 뿐이다. 계송은 이렇다. ‘망상 피우지 말고 자세히 참구하라! 종일토록 무엇 때문에 바쁘지 모르겠노라. 만일 바쁜 일 속의 진실한 소식을 안다면, 한 송이 연꽃이 필필 끓는 물에서 피리라’, ‘그치기는 바로 잘 그쳤으니, 백 년 된 헛것이요 물거품이로다. 자기 집안의 천진한 부처를 버리고, 결코 구차하게 밖에서 구하지 마라’”

慈受, 上堂云, “昔有汾陽和尚, 凡見僧來, 便云, ‘莫妄想.’ 凡有所問, 皆云, ‘莫妄想.’ 監院云, ‘人傳和尚佛法, 只有一句

8) 육도(六途)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네 가지 방식. 곧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 등 네 종류를 말한다. 보통 육도사생이라 한다.

9) 협로상봉(狹路相逢).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할 도리가 없다는 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과 같은 뜻이다. “좁은 길에서 만나면 길이 좁아 수레가 지나갈 틈도 없다.”(古樂府「相逢行」, 相逢狹路間, 道隘不容車.)

子，今後休得也.’自後汾陽，凡見人來，只云休得也。”師云，“古人不欲學者，所聞勝如所得故，言不敢華，解不敢作，直截向你道，莫妄想休得也。諸人還休得也未？諸人每日，自開眼至合眼，所作所爲，無非妄想，至於睡夢之中，亦是妄想。妄想一起，顛倒萬端，開塵勞門，迷清淨界。若能識得妄想根源，直下休歇去，上無佛求，下無魔怖，中無生戀，亦無死畏，便是清淨本源，天真妙道。若不識妄想根源，輪迴三界，汨沒四生，出此入彼，未有休息。山僧自來多口，今朝狹路相逢，普勸諸人。記取汾陽一段因緣，誦取慧林兩首拙偈，可以向人天路上，做得箇小歇場，願世生生，常同法會。偈云，‘莫妄想好參詳！不知終日爲誰忙。若知忙裏真消息，一朵蓮花生沸湯。’‘休得也便好休，百年浮幻水中漚。自家屋裏天真佛，切忌區區向外求。’”

[설화]

위의 글에 드러나 있다.

慈受：上文見.





294칙 浮盃剩語 부배잉어





## 294칙 부배잉어 浮盃剩語<sup>1)</sup>

### [본칙]

부배(浮盃)화상에게 능(凌)이라는 노파<sup>2)</sup>가 찾아와서 절을 하고 물었다. “있는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은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부배에게는 쓸데없이 남아도는 말이 없습니다.” “스님께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의혹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별도로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집어내 보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노파가 두 손을 모으고 곡소리를 내며 “아이고! 그 사이에 원통한 일이 또 있었군요”라고 하였으나 부배는 아무 말도 없었다. 노파가 말했다. “말로는 편위와 정위<sup>3)</sup>의 차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치로는 전도(顛倒)와 사견(邪見)을 알지 못하니, 말과 이치로 전하려 하면 곧바로 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뒤에 어떤 학인이 남전에게 이 문답을 들려주자 남전이 말했다. “안타깝다! 부배가 그 노파에게 한번 제대로 꺾어버렸구나.” 노파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웃으며

- 
- 1) 이 공안의 문답에서 노파가 ‘창천(蒼天)’이라 한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며, 또 하나는 ‘아이고!’ 하는 통곡소리이다.
  - 2) 행파(行婆)는 집에서 불도를 수행하는 노파, 능(凌)은 성씨.
  - 3) 편위(偏位)와 정위(正位). 조동종(曹洞宗)의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무차별의 정위와 차별의 편위가 때로는 각각의 자리를 고수하고, 때로는 서로 의지하며 자유자재로 그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중지를 나타내는 틀이다.

“왕노사(王老師 : 남전)도 기관<sup>4)</sup>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때 유주의 정일선객이 노파에게 물었다. “남전이 어째서 기관이 부족합니까?” 노파가 곡소리를 내며 “슬프고 애통하구나!”라고 하자, 정일은 어찌할 줄 몰랐다. 노파가 “알겠습니까?”라고 물음에 정일은 함장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다. 노파가 말했다. “활발한 기틀이 없는 선수행자<sup>5)</sup>들이 삼썩나 줍쌀처럼 많구나.” 그 뒤에 정일이 이 문답을 조주에게 들려주자 조주가 말했다. “내가 만약 그 냄새나는 노파를 보았다라면 질문을 던져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일이 “스님께서는 그 노파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렵니까?”라고 묻자 조주가 바로 때렸다. “어째서 저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활발한 기틀이 없는 선수행자를 지금 때려주지 않는다면 다시 또 어느 때를 기다리란 말이나!” 노파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조주는 내 손의 몽둥이맛을 보아야겠구나”라 했고, 조주는 노파의 그 말을 듣고는 곡소리를 내며 “슬프고 애통하구나!”라고 했다. 노파가 다시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조주의 눈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구나!”라고 감탄조로 말했다. 조주가 노파의 이 말을 전해 듣고 학인을 보내어 “조주의 눈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자 노파가 주먹을 들어올렸다. 조주가 그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어서 보냈다. “당면한 기틀을 눈앞에서 들어보이자, 눈앞에서 당면한 기틀로 재빨리 응답하네. 능노파 당신에게 알리노니, 곡소리에 어찌 득과 실의 차별이 있겠는가!” 노파가 이에 답했다. “곡소리의 뜻은 스님께서 이미 간파하였으나, 이미 간파한 그 뜻을

4) 機關, 여기서는 상대를 유도하여 시험하거나 자신의 선기(禪機)를 전개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전략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5) 의사선화(倚死禪和), 활발한 기틀이 없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선수행자를 말한다. 기사선화(技死禪和)와 같은 말이며, 이 경우는 약간의 기량은 있지만 활발한 선기(禪機)를 발휘하지 못하는 선사를 말한다. 곧바로 선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분별하는 자를 말한다.

누가 또 알 것인가? 성도하셨을 당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보이셨던 법령<sup>6)</sup>에서, 눈앞에 드러난 기틀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도다.”

浮盃和尚, 因凌行婆來, 作禮問, “盡力道不得底句, 分付阿誰?” 師云, “浮盃無剩語.” 婆云, “未到浮盃, 不妨疑着.” 師云, “別有長處, 不妨拈出.” 婆歛手哭云, “蒼天! 中間更有冤苦.” 師無語. 婆云, “語不知偏正, 理不知倒邪, 爲人卽禍生.” 後僧舉似南泉, 泉云, “苦哉! 浮盃被這老婆摧折一上.” 婆聞笑云, “王老師, 猶少機關在.” 時有幽州澄一禪客, 乃問婆, “南泉爲甚少機關?” 婆哭云, “可悲可痛!” 澄一罔措, 婆乃問, “會麼?” 澄一合掌而立. 婆云, “倚<sup>7)</sup>死禪和, 如麻似粟.” 後澄一舉似趙州, 州云, “我若見這臭婆, 問教口啞.” 澄一云, “未審和尚作麼生問他?” 州便打澄一云, “爲甚却打某甲?” 州云, “似這倚死禪和不打, 更待何時!” 婆聞却云, “趙州合喫婆手中棒.” 州聞哭云, “可悲可痛!” 婆聞乃嘆云, “趙州眼光, 燦破四天下.” 州聞令人去問云, “如何是趙州眼?” 婆乃豎起拳. 州聞乃作頌送云, “當機覲面提, 覲面當機疾. 報你凌行婆, 哭聲何得失!” 婆答云, “哭聲師已曉, 已曉復誰知? 當時摩竭令, 幾喪目前機.”

#### [설화]

부배에게는 쓸데없이 남아도는 말이 없습니다 : 있는 힘을 다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절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전해주는 순간 곧 쓸데없이 남아도는

6) 본서 2則 주석33) 참조.

7) 『景德傳燈錄』 권8 「浮盃傳」 大51 p.262c28, 『大慧語錄』 권10 大47 p.855c3 등에는 ‘倚’가 ‘倚’·‘伎’·‘猗’ 등으로 되어 있다.

말이 된다는 뜻이다.

스님께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 있었을 것입니다 : 상대의 의중을 꺾어버린 것이며, 그 아래의 말도 꺾어버린 것이다. 부배가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장자를 맞을 잘못도 있었다.

남전이 '인타깝다! ~ 꺾어버렸구나' 라고 한 말 : 남전의 말은 (부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하려 했다는 뜻이다.

노파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웃으며 한 말 : 남전의 의중도 꺾어버린 것이다.

징일이 합장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 : 말도 침묵도 그 어느 편도 아닌 중간을 나타낸다.

활발한 기쁨이 없는 선수행자들이 삼싸나 좁쌀처럼 많구나 : 이 또한 징일을 꺾어버린 말이다.

조주가 (징일)을 바로 때렸다 : 말과 침묵이라는 양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주는 내 손의 몽둥이맛을 보아야겠구나 : 조주 또한 노파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조주의 눈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구나” 이하의 글 : 삼구<sup>8)</sup>를 뚫고 벗어난 경지를 조주와 노파가 계승으로 지어 각각 자신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다.

---

8) 三句. 종지를 드러내는 구절. 세 구절로 종지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관습에 따라 종지를 표현하는 언어의 형식을 일반적으로 삼구라 한다. 운문삼구(雲門三句)·동산삼구(洞山三句)·덕산삼구(德山三句)·임제삼구(臨濟三句)·분양삼구(汾陽三句)·사비삼구(師備三句)·수산삼구(首山三句)·대양삼구(大陽三句) 등 각 선사들의 서로 다른 삼구가 있다.

浮盃無剩語者，若道盡力道不得底句，分付便爲剩語也。未到浮盃云云者，折挫也，下亦折挫也。浮盃非懵懂，也有主丈處。南泉云苦哉云云者，南泉意，有分付處。婆聞笑云至關在者，亦折挫也。澄一合掌而立者，是中間也。倚死禪和云云者，亦折挫也。州便打者，兩頭不落也。趙州合至棒者，亦不是婆子意故。趙州眼光云云者，透脫三句下，趙州婆子頌之，各言其意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1

손바닥 안의 마니주<sup>9)</sup>도 돌아본 적 없거늘,  
 날 때부터 입던 바지<sup>10)</sup>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부배는 노파의 선<sup>11)</sup>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금껏 그 순수한 뜻에 오점을 남겼네.

〈'부배화상에게 ~ 화가 발생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소재로 읊은 계송〉

雲門杲頌，“掌內摩尼曾不顧，誰能護惜孃生袴！浮盃不會老婆

- 9) 摩尼珠, 마니(𑖀𑖃𑖫𑖅maṇi)와 그 한역어인 ‘주’를 합한 말. 보주(寶珠)라고도 한역하며, 주옥(珠玉)을 총칭하는 말이다. 재난과 질병을 제거하거나 탁한 물을 맑게 하고 물빛을 바꾸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뜻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보배와 같은 구슬이라 하여 여의보주(如意寶珠)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의주(如意珠 𑖀𑖃𑖫𑖅cintā-maṇi)라 한다.
- 10) 양생고(孃生袴).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입고 있던 고쟁이. 순수하고 물들지 않은 본바탕을 말한다.
- 11) 노파선(老婆禪). 이중적 뜻을 가진다. 하나는 능행파가 말한 선, 다른 하나는 자세한 방편을 늘어놓아 쓸데없이 말이 많은 선을 가리킨다.

禪，直至如今遭點污。”〈浮盃下至卽禍生。〉

[설화]

손바닥 안의 마니주 : 검은 사람이 오면 검게 비치고 흰 사람이 오면 희게 비친다<sup>12)</sup>는 뜻으로 말도 침묵도 그 어느 편도 아닌 중간을 나타낸다.

날 때부터 입던 바지 : 부배의 말을 가리킨다. 노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바닥 안의 마니주도 돌아보지 않거늘, 날 때부터 입던 바지야 말해서 무엇 할 것인가!

雲門：掌內摩尼，則胡現漢現，語默中間也。孃生袴，則浮盃語也。若據婆子，則掌內摩尼，尚猶未顧，何況孃生袴乎！

## 대혜종고의 송 2

전광석화와 같은 기세라도 우둔할 뿐인데,  
활발한 기틀이 없는 선수행자가 어찌 알겠는가?  
두리번거리고 고개를 돌리며 찾으려 하는 순간,  
석양은 이미 버드나무 끝 서쪽으로 지리라.

〈‘남전이 말했다. ~ 어느 때를 기다리란 말이냐’라는 부분의 내용을 소재로 읊은 개송〉

又頌，“電光石火尚猶遲，倚死禪和那得知？轉面迴頭擬尋討，夕陽已過綠梢西。”〈南泉下至待何時。〉

- 
- 12) 정해진 색 없이, 비추어지는 대상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내는 마니주의 특징을 가리킨다. 『摩訶般若鈔經』 권2 大8 p.517c23, 『大寶積經』 권109 大11 p.611b21, 『楞伽經註解』 권1 大39 p.353a29 등에 두루 나타나는 비유이다. 『景德傳燈錄』 권18 「悟眞傳」 大51 p.350c23에 ‘색에 따라 변화하는 마니주’(隨色摩尼)라 한 말도 이러한 뜻에 기초한다.



[설화]

전광석화 : 미묘한 종지는 신속하여 말과 침묵 그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활발한 기틀이 없는 선수행자 : 정일의 입각처를 나타낸다. 중간인 전광석화도 느리거늘 하물며 활발한 기틀이 없이 분별하며 머뭇거리는 선수행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又頌：電光石火者，妙旨迅速，語默不落也。倚死禪和者，澄一立處也。中間，電光石火，尚猶遲滯，況倚死禪和乎！

### 대혜종고의 송 3

조주의 눈빛은 온 세상을 밝혔고,

노파의 주먹은 꿰맨 흔적이 없다.<sup>13)</sup>

당면한 기틀을 눈앞에 펼치는 비법은 무엇인가?

사나운 호랑이 등에 누가 걸터앉을 줄 알까?

〈노파가 (조주의) 이 말을 전해 듣고 ~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소재로 읊은 개송〉

又頌，“眼光燦破四天下，婆子拳頭沒縫罅。當機覲面事如何？  
猛虎脊梁誰解跨？”〈婆闍下至目前機。〉

- 
- 13) 몰봉하(沒縫罅). 바늘로 꿰매어 봉합한 흔적이 전혀 없는 한 덩어리라는 말. 꿰맨 틈이 전혀 없는 한 덩어리와 같이 분별로 파고들 여지가 없는 화두를 가리킨다. 곧 노파의 주먹은 어떤 분별로도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다. ‘봉’은 바늘로 꿰매어 봉합(縫合)하는 것, ‘하’는 봉합한 부위의 실밥이 터져 벌어진 틈을 뜻한다.

[설화]

제1구는 조주, 제2구는 노파에 대하여 각각 읊은 구절이다. 아래의 제3구와 제4구, 두 구절은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이는 뜻이다.

又頌：眼光云云者，謂趙州也。婆子云云者，婆子也。下二句，虎頭虎尾一時收也。

### 지비자의 송

서쪽 이웃 찾아와 ‘아이고’ 하고 곡을 돕자,  
동쪽 집 사람이 문득 죽었다는 소문 들리네.  
슬프다, 부배에게 남아도는 말은 없어도,  
당면한 기틀이 노파의 선<sup>14)</sup>보다 못하구나.

〈‘부배 ~ 아이고’라는 부분의 내용을 소재로 읊은 계송〉

知非子頌，“西隣來助哭蒼天，聞道東家人湔然。堪嘆浮盃無剩語，當機不似老婆禪。”〈浮盃下至蒼天。〉

### 무진거사의 송

구리 눈동자에 쇠 눈 가진 능노파여!  
부배를 꺾는 기량으로는 충분하구나.  
하지만 조주를 속이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  
모두 함께 활발한 기틀이 없는 선수행자를 매도했다네.

---

14) 주석11) 참조.

無盡居士頌, “銅睛鐵眼老凌婆! 摧折浮盃伎倆多. 無奈趙州謾  
不過, 大家埋取死禪和.”

### 열재거사의 송

늙은 할미가 집이 없다고 슬피 우는 소리에,  
조주는 천 리 밖에서 돌아갈 마음을 일으켰네.  
후인들은 분별할 수단이 없다<sup>15)</sup>고 몹시 울면서,  
공연히 앵무새 울음소리로 학의 울음소리 흉내 내었다네.

悅齋居士頌, “老媪無家哭一聲, 趙州千里動歸情. 後人哭殺無  
巴鼻, 空作鸚鵡效鶴鳴.”

---

15) 무파비(無巴鼻). 어떤 대상을 포착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巴’는 ‘把’와 같은 말로 손잡이 또는 근거를 잡는다는 뜻이며, ‘파비’란 소의 코를 묶어 붙드는 고삐로 파비(把鼻)라고도 쓴다. 능노파와 조주가 펼친 수단에는 분별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312칙 龐蘊十方 방온시방





### 312칙 방온시방 龐蘊十方<sup>1)</sup>

#### [본칙]

방거사가 계송으로 읊었다. “시방으로부터 함께 이곳에 모여, 사람마다 무위의 도를 배우네. 이곳은 부처를 뽑는 선불장<sup>2)</sup>이니, 마음 비우면 급제하여 돌아가리라.”

龐居士頌云, “十方同共聚, 箇箇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

#### [설화]

시방으로부터 함께 이곳에 모여 ~ 급제하여 돌아가리라 : 방거사가 “다만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공(空)으로 보기 바랄 뿐, 결코 없는 것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 여기지 마라”<sup>3)</sup>라고 읊은 계송의 구절도 이 뜻이다. 대혜(大慧)

---

1) 방거사가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만법(萬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물었다가 ‘한입에 서강의 물을 모두 들이켜면 말해주겠다’라고 한 대답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은 계송을 소재로 한 공안이다.

2) 選佛場.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라는 말.

3) 임종하기 직전에 친구인 절도사 우적(于頔)에게 남긴 계송 중 두 구절이다. 나머지 두 구절은 “세간에 잘 사하라. 모든 것이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다네(好住世間, 皆如影響)”이다. 『景德傳燈錄』 권8 大51 p.263c15, 『龐居士語錄』 권상 卍120 p.61b11 참조. 대혜종고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다. “이 두 구절을 깨닫기

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궁극적인 뜻으로 취한다면 반드시 다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대치(對治) 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sup>4)</sup>라고 하였다. 그래서 방거사의 계승에서 비록 무위라 했지만 철저하게 무위여야 하고, 비록 마음을 비운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대치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十方共聚云云者，居士云，“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亦此義也。大慧云，“若取自己自心，爲究竟意，必有他物他人作對治。”所以，居士頌云，則雖曰無爲，徹底無爲，雖曰心空，徹底心空，卽自己自心，更無他物他人作對治也。

### 심문담분(心聞曇贍)의 송

바람과 달과 산과 냇물이 모두 한 집이거늘,  
누가 와서 용과 뱀<sup>5)</sup>을 구분한다 말하는가?  
이태백(李太白) 편전에 오르지도 않았을 때,  
지난밤 그 붓 끝에서 저절로 꽃이 피었다네.<sup>6)</sup>

---

만 한다면 일생 동안 해야 할 공부를 모두 마치게 될 것이다.”(『書狀』「答曾侍郎」大47 p.918a20, 只了得遮兩句，一生參學事畢.)

4) 『大慧語錄』 권24 大47 p.914b23에 나오지만, 대해 자신의 말이 아니라 고덕(古德)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나온다. 『正法眼藏』 권2하 卍118 p.87a16에 따르면, 개선지(開先智)의 범어로 되어 있다. 원문의 ‘意’는 두 문헌에는 없다.

5) 용과 뱀은 각각 걸출한 인물과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心聞貴頌, “風月山川共一家, 誰來語下定龍蛇? 太白不曾登  
便殿, 筆頭昨夜自生花.”

[설화]

첫 구절은 ‘시방으로부터 함께 이곳에 모여 ~ 마음 비우면 급제하여 돌아가리라’고 한 내용을 말한다. 두 번째 구절은 용과 뱀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 두 구절은 이태백이 붓 끝에서 꽃이 피는 꿈을 꾸고 평민 신분에서 한림<sup>6)</sup>이 되었는데, 방거사가 ‘마음을 비우면 급제하여 돌아가리라’고 한 말도 이와 같다는 뜻이다. 이태백은 어릴 때 자신이 쓰던 붓 끝에서 꽃이 피는 꿈을 꾸었는데 자연스럽게 얻은 천부적으로 빼어난 글재주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여 그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뒤 황제가 이태백을 시켜 조서(詔書) 몇 장을 쓰도록 명했을 때 날씨가 추워 붓이 얼자 18인에게 붓을 잡고 입김을 불어 녹인 다음 이태백에게 붓을 올리도록 했다. 이때부터 평민 신분에서 한림이 되었던 것이다.

心聞：上句，十方同共聚云云，心空及第處也。二句，分辨不得也。下二句，李白夢裏，筆頭生花，白衣得翰林。龐公心空及第，如是也。李白，少時夢裏，所用筆頭生花，自然天才凜秀，拔乎其萃，名聞天下。後帝使白，命詔數書，天寒筆凍，使十八人，執筆呵之而奉。從此，白衣得翰林也。

- 
- 6) 이태백이 자신의 붓 끝에서 꽃이 피는 꿈을 꾸고 성장하여 꽃처럼 아름다운 시문을 창작하는 문장가가 되었다는 일화를 활용한 계송이다. “이태백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쓰던 붓 끝에서 꽃이 피는 꿈을 꾸었다. 그 뒤 천부적인 글재주에서 나오는 글이 풍부하고 화려하여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王仁裕『開元天寶遺事』「夢筆頭生花」, 李太白少時, 夢所用之筆頭上生花, 後天才瞻逸, 名聞天下.)
- 7) 翰林. 이백이 43세가량 되던 해에 현종(玄宗)으로부터 잠시 한림공봉(翰林供奉)의 직위를 받았던 것을 말한다.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미 무위라 했거늘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만일 마음을 비웠다면 또한 무엇 때문에 급제하는가! 알겠는가? 만일 아직 모르겠다면 내가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주리라. 거대한 바닷물을 한 입에 마셔 말려 버리고, 수미산을 밀어 넘어뜨린다. 막힘없이 드넓고 신령하게 통하는 것은 또한 누구인가? 숲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은 전단나무 가지요, 포효하며 굴에서 나온 것은 사자로다. 삼천대천세계는 손가락 한번 튕기는 찰나에 나타나고, 팔만사천의 법문은 두 눈썹을 찡긍하는 순간 열린다. 아는가, 모르는가? 애써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도(道)는 시방의 허공을 가득 채우고 마음은 억겁의 세월을 넘어섰으며, 그림자는 삼라만상 속으로 흐르고 기(氣)는 음양(陰陽)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天童覺，上堂，舉此話云，“既是無爲，作麼生學！若也心空，又作麼生及第！還相委悉麼？其或未然，天童又爲分疏去也。飲乾巨海，推倒須彌。廓大靈通更是誰？馨香秀林梅檀枝，哮吼出窟師子兒。三千界現一彈指，八萬門開雙用眉。知不知？爲不爲？道滿十虛兮，心超億劫；影流萬象兮，氣分二儀。”

### [설화]

거대한 바닷물을 한 입에 마셔 말려 버리고, 수미산을 밀어 넘어뜨린다: 지혜의 산과 지혜의 바다도 밀어 넘어뜨린다는 뜻이다. 그 이하는 마음을 비우고 급제하면 철저하게 의심이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경지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天童：飲乾至須彌者，智之山智之海，亦推倒也。下明心空及第，徹底無疑，更無後事也。

## 영원유청(靈源惟淸)의 거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스스로 비굴한 마음을 일으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교화의 수단으로 세운 문<sup>8)</sup>으로 보면 진실한 방편이다. 무슨 뜻인가? 이미 옥당<sup>9)</sup>에 앉은 선비라면 과거시험에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고, 아직 금방<sup>10)</sup>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무리들은 반드시 과거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중들이 오늘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각자 본래의 시험문제<sup>11)</sup>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라.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급제하고자 한다면 본분을 깨달은 시험관을 만나야 할 것이지만, 만일 본분을 깨달은 시험관을 만난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말해 보라! 당장의 한마디에서 변화에 통하면, 천둥이 울리는 짧은 순간에도 물고기와 용을 가려낼 것이다.”

靈源淸，舉此話云，“怎麼說話，大似自生退屈，以己方人。雖然如是，建化門中，是真方便。何也？已坐玉堂之士，不在登科，未升金榜之流，要須入試。大眾今朝，同會選場，各賦本來題目。必欲心空及第，須逢本分試官。若逢本分試官，且道，以何爲驗？直下一言通變化，迅雷聲裏辨魚龍。”

8) 건화문(建化門), 본서 2則 주석137) 참조.

9) 玉堂, 옥으로 장식한 전당(殿堂), ‘궁전(宮殿)’을 아름답게 부르는 말. ‘옥당에 앉았다’라는 말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로 등용되었다는 뜻이다.

10) 金榜, ‘金榜’이라고도 한다. 금색으로 장식한 편액(匾額) 또는 이름을 써 붙인 방(榜).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써서 거는 방을 말한다.

11) 제목(題目), 시제(試題)와 같은 말.

[설화]

스스로 비굴한 마음을 일으켜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 마음을 비운다는 뜻만 가리킨 말이다. 그 아래 대의는 천동의 상당 범문과 동일하다.

당장의 한마디에서 ~ 가려낼 것이다 : 그 활용을 말한다.

靈源：自生至方人者，但指出心空也。下大義，天童上堂同也。  
直下一言云云者，言其活用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거

“대장부라면 강하고 굳센 의지와 기개, 의분을 참지 못하는 깨끗하고 총명한 기운을 갖추어 허깨비 성을 짓밟아버리고 곧바로 핵심을 알아차려야 한다. 밖으로는 모든 경계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위로는 온갖 성인들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아래로는 어리석은 범부가 있다는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깨끗하게 벗은 맨몸이며 말끔하게 씻은 벌거숭이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통 밑바닥이 몽땅 빠져버린 것과 같이 어떤 분별도 담을 수 없게 된다면 이 어찌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 경지에 이르렀어도 방과 할이 허용되겠는가? 현묘한 이치의 본질이 용납되겠는가? 피아와 시비의 분별이 허용되겠는가? 당장에 마치 붉게 타는 화로에 떨어진 한 점의 백설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녹여 없앤다면, 이 어찌 부처를 선 발하는 시험장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sup>12)</sup>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자세히 점검해 보면 여전히 단계적인 절차에 속박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계적 절차

---

12) 경두대각(擎頭戴角). 치켜든 머리에 달린 뿔. 그러한 뿔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누구보다 빼어나고 두드러진 인물을 나타낸다.

에 속박되지 않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알겠는가? 모든 성인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으니, 만인이 모인 곳에서 높이 솟은 표방을 빼앗는다.<sup>13)</sup>” 다시 계송 한 수를 읊었다. “절에 살려면 오직 대중과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이 귀중하고, 안팎에 모두 밝으려면 마음이 가지런히 정돈되어야 한다네. 다리 부러진 솔이라도 다행히 걱정은 없으니, 서로 의지하여 손을 내밀고 함께 끌고 가노라.”

圓悟勤, 舉此話云, “大丈夫, 具決烈志氣, 慷慨英靈, 踏破化城, 直截承當. 外不見有一切境界, 內不見有自己, 上不見有諸聖, 下不見有凡愚. 淨皤皤赤酒酒, 一念不生, 桶底剔脫, 豈不是心空! 到箇裏, 還容棒喝麼? 還容玄妙理性麼? 還容彼我是非麼? 直下如紅爐上, 一點雪相似, 豈不是選佛場中, 擎頭戴角! 雖然如是, 子細檢點將來, 猶涉堦梯. 且不涉堦梯一句, 作麼生道? 還委悉麼? 千聖不留無朕迹, 萬人叢裏奪高標.” 復有頌云, “住山只貴衆和諧, 表裏通明應整齊. 折脚鐺兒幸無恙, 相憑出手共提携.”

#### [설화]

대장부라면 ~ 가장 빼어난 인물이 아니겠는가 : 마음을 비우고 급제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성인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 높이 솟은 표방을 빼앗는다 : 향상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또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13) 『圓悟語錄』 권8 大47 p.749a12의 구절이며, 『金剛經註解』 권2 卍38 p.897b2, 『金剛經補註』 권상 卍92 p.572a9 등에는 원오(圓悟)의 상당법문으로 인용하면서, “모든 성인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만인이 모인 곳에서 높이 솟은 표방을 빼앗는다.”(千聖會中無影迹, 萬人叢裏奪高標.)라고 되어 있다.

절에 살려면 ~ 끌고 가노라 : 남들을 가르치는 수단을 말한다.

이전에 천둥과 영원은 앞에서 억눌렀다가 뒤에서 치켜세웠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치켜세웠다가 뒤에서 억눌러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

圓悟：大丈夫至頭戴角者，明心空及第之意。千聖不留至高標者，向上更有一著也。住山至提携者，爲人手段也。前天童靈源，先抑而後揚，此先揚而後抑，以現己意。

##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한 소리[喝] 크게 내지르며 말했다. “아직도 이런 말이 남아 있었군. 나의 문하에도 시방으로부터 함께 모였으나 모든 것이 일상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추우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불을 쪼이고, 더우면 각자 서늘한 곳을 찾아가니, 호리병 속의 세상은 영원하다<sup>14)</sup>고 알아야 하리라.” 한 소리 크게 내질렀다.

松源，上堂，舉此話，喝一喝云，“猶有這箇在。薦福門下，十方同聚會，一切卽尋常。寒則圍爐向火，熱則各自乘涼，信道壺中日月長。”喝一喝。

### [설화]

호리병 속의 세월은 영원하다 : 이 모든 것이 또한 별천지라는 뜻이다. 앞에

---

14) 『白雪遺音』에 나오는 구절. 호중일월(壺中日月)은 『後漢書』 「費長房傳」에 나오는 고사에 따른다. 비장방(費長房)이 시장에서 약을 파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호리병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세계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호중(壺中) 또는 호천(壺天)은 신선들의 경계인 선경(仙境) 곧 별천지(別天地)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추우면 추운 그대로 더우면 더운 그대로 일어나는 일상의 풍경 자체가 별천지라고 한 것이다.

서 내지른 할(喝)은 방거사를 비판하는 할[喝破]이었고, 뒤에 내지른 할은 자신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것이 ~ 서늘한 곳을 찾아가니 : 생멸(生滅)이 없는 이치[無生]는 생멸의 현상을 떠나지 않는다.

松源：壺中日月長者，亦是別乾坤也。前一喝，喝破龐公；後一喝，見己意處也。一切卽至乘涼者，無生卽生也。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거<sup>15)</sup>

‘시방으로부터 함께 이곳에 모여’라는 구절을 제기하고 “철벽과 은산이다”라 착어를 붙였고, ‘사람마다 무위의 도를 배우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해와 달이 내리비친다”라고 착어를 붙였으며, ‘이곳은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라고 착어를 붙였고, ‘마음 비우면 급제하여 돌아가리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산다”라고 착어를 붙였다. 불현듯 주장자를 가로잡고 “방거사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보았는가?”라 묻고, 마침내 주장자를 던지고 말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3생 60겁<sup>16)</sup>은 걸리겠구나.”

密庵咸傑，舉十方同聚會，師云，“鐵壁銀山。”箇箇學無爲，師云，“日月照臨。”此是選佛場，師云，“龍蛇混雜。”心空及第歸，師云，“凡聖同居。”薦拈拄杖橫按云，“龐居士，在這裏坐地，是汝諸人，還見麼？”遂擲下拄杖云，“三生六十劫。”

15) 방거사의 계송 네 구절에 각각 착어(著語)를 붙여 해설하는 형식이다.

16) 三生六十劫. 소승인 성문(聲聞)이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기간. 빠른 자는 3생, 느린 자는 60겁이 걸린다는 말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제시한 뜻을 당장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뜻으로 쓰였다.

[설화]

4구의 착어는 모두 방거사의 뜻을 뒤집은 것이다.<sup>17)</sup>

방거사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보았는가 : 뚜렷하게 눈앞에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뜻이다.

3생 60겁은 걸리겠구나 : 그렇게 이해하면 도리어 틀리다는 말이다.

密庵：四句著語，皆翻却龐公意也。龐居士在這裏云云者，堂堂現成事也。三生六十劫者，伊麼會，又却不是也。

---

17) 방거사의 계송에 나타난 표면적인 뜻과 어긋나게 표현했다는 말. 예를 들면, '선불장'은 범속한 인물(뱀)을 버리고 부처(용)를 선발하는 시험장이라는 뜻인데, 역으로 '용과 뱀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313칙 居士洗菜 거사세채





### 313칙 거사세채 居士洗菜

#### [본칙]

방거사가 언젠가 집에 없을 때 단하가 찾아왔다가 영조가 나물 씻는 것을 보고 “거사는 계신가?”라고 물었다. 영조가 나물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일어섰다. 단하가 다시 “거사는 계신가?”라고 묻자, 영조가 바구니를 들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단하도 돌아갔다. 방거사가 밖에서 돌아오자 영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사가 물었다. “단하는 여기 계신가?” “가셨습니다.” “붉은 진흙을 덜 익은 홍시<sup>1)</sup>에 바르는구나.”<sup>2)</sup> 〈어떤 본에는 “이 원수의 자식이 우리 집안의 가풍을 망쳐 놓았구나”라고 되어 있다〉

龐居士，一日不在，丹霞來訪，見靈照洗菜次問，“居士在否？”照放下菜籃，斂手而立。又問，“居士在否？”照提籃便

1) 우내(牛妳), 우내시(牛孌柿)라고도 한다.

2) 덜 익은 홍시에 붉은 진흙을 말라 익은 것처럼 속인다는 말. 방거사가 영조의 은밀한 뜻을 감파해 내고서 한 말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한 것인데, 지옥의 중생은 어떤 까닭으로 고통을 받는가? 대신하여 답한다. ‘제대로 도리를 아는 자가 거의 없구나.’ 잘 완성된 글자에는 점 하나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경계일까? 대신하여 답한다. ‘붉은 진흙을 덜 익은 홍시에 바르는 격이다.’”(『汾陽語錄』 권중 大47 p.614a15. 一切衆生，本來成佛，地獄衆生，因何受苦? 代云, ‘知恩者少.’ 文不加點, 是什麼人境界? 代云, ‘赤土塗牛妳.’)

行, 霞便迴. 士從外歸, 照舉似前話. 士云, “丹霞在麼?” 照云, “去也.” 士云, “赤土塗牛妳.” 〈一本云, “這冤家子, 喪我門風.”〉

### [설화]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손을 공손히 모으고 일어섰다 : 방거사의 면목을 영조가 보여준 것이다.

단하가 다시 “거사는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보인 경계가 방거사의 온전한 면목은 아니라는 뜻이다.

바구니를 들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 놓아준 것도 아주 빨랐고, 거두어들인 것도 대단히 신속했다.<sup>3)</sup>

붉은 진흙을 덜 익은 홍시에 바르는구나 : 『대관본초(大觀本草)』에 “덜 익은 홍시에 초나라 사람들이 붉은 진흙을 발라서 판다”라고 하였으니, ‘그대의 아버지를 숙여 먹는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어떤 본에는 “이 원수가 우리 집안의 가풍을 망쳐 놓았구나”라고 했다. 『산해경주(山海經注)』에 “서산의 응달에서 관수가 나오는데 그 물속에 흐르는 붉은 흙(자(赭)는 적토(赤土)를 말함)을 소의 젖꼭지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였다. 곧 그것으로 소와 말의 질병을 물리친다는 말이다. 천석(泉石)이 말했다.<sup>4)</sup> “식견이 높고 넓은 사람<sup>5)</sup>은 문을 통하지 않고도 나가는 법이며,<sup>6)</sup> 온몸이 눈이라면 볼

3) 놓아준 것[放]은 상대의 입장을 모조리 허용해 주는 방식이며, 거두어들인 것[收]은 상대의 입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면모로 뛰어난 선기(禪機)를 감정한다.

4) 전거 미상.

5) 대방지가(大方之家). 『莊子』「秋水」에 나오는 말. 대도를 깨달은 사람.

6) 『論語』「雍也」의 말을 활용한 것. “누구든 문을 통하지 않고서 방을 나설 수 있

때 어찌 빈틈을 통하여 살피겠는가! 바구니를 들고 바구니를 놓음이어!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자기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산을 나가고 산으로 들어감이어! 자신과 타자 사이에 조금도 간격이 없구나.<sup>7)</sup> 무차별[正位]과 차별[偏位]이 눈앞에서 한 번씩 돌아가며 바뀌었지만 영조와 단하는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해 보라! 단화와 방거사가 마주친 부분은 어디인가? 만일 바구니를 놓고 손을 공손히 모은 경계에서 이해하려 든다면 종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격이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를 찾는 격이 된다.<sup>8)</sup> 하룻밤에 비가 내려 꽃잎 지니, 흐르는 물에 성 가득히 꽃향기 퍼지네.<sup>9)</sup>

放下至立者，居士面目呈似也。又問至否者，呈似地，不是居士

겠는가? 그런데 어찌 바른 도(道)를 통해 가지 않느냐?”(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論語』의 본래 의미는 바른 통로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굳이 정해진 문으로 나가지 않고도 어디로나 문으로 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7) 본서 1則 주석16) 참조.

8) 바구니를 놓고 손을 공손히 모은 경계 그 자체도 옳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는 배촉관(背觸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9) 떨어진 꽃잎과 성 가득 퍼지는 향기는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잘 어울려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조와 단하 그리고 방거사가 각각 서로 다르게 드러낸 언행은 본분에 딱 들어맞게 서로 부합하며 조화를 이루었다는 상징이다.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제기하고 곳곳에서 진실을 설하니, 꺼리는 장애도 전혀 없고 잠시 쉬는 틈도 없구나.’ 주장자를 가로로 들고 ‘알겠는가? 하룻밤에 비가 내려 꽃잎 지니, 흐르는 물에 성 가득히 꽃향기가 퍼진다’라고 말한 다음 주장자를 올렸다 한 번 내리치고 법좌에서 내려왔다.”(『保寧仁勇語錄』 卍120 p.361a2. 上堂，時時學，處處說，絕忌諱，無間歇。橫按杖云，‘會麼? 一夜落華雨，滿城流水香。’卓一下，下座。)；“세존에게 은밀한 말이 있었으나 가섭은 그것을 덮어서 가리지 않았다. 하룻밤에 비가 내려 꽃잎 지니, 흐르는 물에 성 가득히 꽃향기가 퍼진다.”(『五燈會元』 권14 『雪竇智鑑章』 卍138 p.551b4. 世尊有密語，迦葉不覆藏，一夜落花雨，滿城流水香.)

也. 提籃便行者, 放去大危, 收來大速也. 赤土云云者, 大觀本草云, “牛孺小柿, 楚人以赤土塗之, 賣也.” 則謔你老爺. 一本云, “這冤家子, 喪我門風.” 則山海經注云, “西山之陰, 灌水出焉, 水中有流赭(赤土), 以塗牛焉, 則無疾.” 則赤土塗牛孺, 以攘牛馬之灾疾. 泉石云, “大方之家, 出不由戶. 通身之眼, 見豈竅觀! 提籃放籃兮, 動靜不離於本位; 出山入山兮, 自他不隔於毫端. 正偏靚面回互處, 靈照丹霞不露顏. 且道! 那裏是丹霞龐公相見處? 若向放籃歛手處會, 正是認奴作郎; 不伊麼, 還是背孺尋娘. 只因一夜落花雨, 贏得滿城流水香.”

## 지해지청(智海智淸)의 송 1

고불<sup>10)</sup> 천연이여,  
선타<sup>11)</sup> 영조여!  
문득 마주치고서도,  
용이 트림하고 호랑이가 포효하듯 하네.<sup>12)</sup>

10) 古佛. 본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이전의 부처님을 가리키지만, 조사들도 부처님에 맞먹는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찬사로 쓰인다. 조주(趙州)를 고불이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1) 仙隱. 단하천연이 ‘거사는 계신가?’라고 동일한 질문을 하였지만, 영조는 그에 대하여 한 번은 펼쳤고[放] 또 한 번은 거두었다[收]. 이것은 영조가 단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서 적절하게 반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타’라 칭송한 것이다. 선타에 대해서는 본서 411則 주석8) 참조.

12) 걸림 없이 각자의 기개를 보여준 것을 말한다.

은거하는 자는 손 모은 것만 칭송하고,  
 일 없는 자는 바구니 놓은 것만 찬양하네.  
 게다가 방거사의 잠꼬대가 있었는데,  
 결국 어느 누가 그 뜻 알아챌 것인가?

智海清頌, “古佛天然, 仙陀靈照! 驀路相逢, 龍吟虎嘯. 雲居  
 只稱歛手, 無爲唯讚放籃. 更有龐公寐語, 畢竟誰人相諳.”

[설화]

은거하는 자[雲居]와 일 없는 자[無爲]의 뜻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게다가 방거사의 잠꼬대가 있었는데 : 붉은 흙을 홍시에 바른다는 말을 가리킨다. 대의는 이들의 모든 언행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3)</sup>

智海: 雲居無爲, 未詳. 更有龐公寐語者, 赤土塗牛妳也. 大意,  
 皆不放過也.

## 지해지청의 송 2

두 손 모으거니 바구니 들거니 하며 만났던 순간과,  
 돌아가거니 돌아오거니 했던 것에서 무엇을 의심하라?<sup>14)</sup>  
 가풍은 망가져 온통 쓸모없는 일들뿐이라 하니,  
 모든 것 넘어서는 단하의 기틀<sup>15)</sup>을 잃어버린 것이라네.

13) 이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취지의 계송이라는 해설이다.

14) 세 사람이 드러내 보인 그대로 옳아서 분별할 의혹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

15) 향상기(向上機), 부처가 되었건 조사가 되었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본분

又頌, “歛手携籃相見時, 迴來歸去又何疑? 家風喪却渾閑事,  
輸了丹霞向上機.”

[설화]

이 계송의 대의는, 처음에 단하가 ‘거사는 계신가?’라고 질문하였는데  
그 의중이 모든 분별과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又頌: 大意, 初問居士在否, 是其意直得無限也.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머리 드러내고 얼굴 드러내어 서로 주고받으니,

남 앞에 나타남에 익숙하여 부끄러움 모른다네.

피부와 골격이 고운 여인네여,<sup>16)</sup>

화장하지 않아도 멋이 있구나.

귀한 집 자제여, 귀한 집 자제여!<sup>17)</sup>

내력 있는 가문에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가엾게도 붉은 흙을 덜 익은 홍시에 밟았다 하니,

---

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기틀을 말한다. “이 삼구를 벗어나서 향상의 기틀을 마음  
껏 부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다리 아래에 있는 이 하나의 본분사가 고금의  
탁월한 지견을 찬란히 비출 것이다. 달마대사가 비록 인도에서 선법을 전하러  
왔고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했지만, 실오라기 하나 여기에 덧붙인 적이 없다.”  
(『圓悟語錄』 권10 大47 p.756c24. 若能離此三句外, 撥轉向上機, 卽知諸人腳跟下, 有此  
一段大事, 輝騰今古迥絕知見. 祖師雖西來, 諸佛雖出世, 不曾加一絲毫.)

16) 노노(奴奴). 노가(奴家)라고도 하며, 부녀자가 자신을 이르는 칭호이다.

17) 백면랑(白面郎). 환고자제(紈袴子弟)와 같은 말. 부귀한 가정 출신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제를 가리킨다.



이리저리 점을 쳐보지만<sup>18)</sup> 그 뜻 헤아리지 못하네.

雪溪益頌, “露頭露面便相酬, 慣出人前不怕羞. 自是奴奴肌骨  
好, 不施紅粉也風流. 白面郎, 白面郎! 從來門戶恰相當. 可憐  
赤土塗牛嬾, 打瓦鑽龜亂度量.”

[설화]

1구와 2구 : 바구니를 들거니 놓거니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뜻  
이다.

3구와 4구 : 방거사가 어찌 ‘원수의 자식’이라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뜻이다.

雪溪 : 上二句, 提籃放籃, 不識羞恥也. 下二句, 龐公何用道箇  
冤家子.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댕기머리 소녀에게 두 번 물었으나 아무 대꾸 없더니,

기특하구나,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 들고 가네.

사내의 기개는 이전부터 이보다 보잘것없었거늘,

덜 익은 홍시에 흙을 발라 언제나 평탄해지리오?

崇勝珙頌, “兩問丫娘不作聲, 奇哉放下復提行. 男兒慷慨從來  
少, 牛嬾土塗何日平?”

---

18) 타와찬구(打瓦鑽龜). ‘타와’와 ‘찬구’는 모두 고대에 점을 치던 방법이다. 타와란  
기와를 쳐서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점이고, 찬구는 거북의 등껍  
질을 찌르고 불로 태워 갈라진 무늬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점이다. 점을 치듯  
이 불확실한 대상에 대하여 근거 없이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 대위모철(大滬慕喆)의 염

“대단한 단하여! 방거사의 딸에게 감파당하고 말았구려. 내가 당시에 단하였다면 다만 꺾꺾대고 크게 웃어 주고, 영조가 ‘장로는 무엇 때문에 웃으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원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sup>19)</sup>라고 말해 주었으리라.”

大滬喆拈, “大小丹霞! 被居士女子勘破. 山僧當時, 若作丹霞, 但與呵呵大笑, 待他問, ‘長老, 笑个什麼?’ 却向道, ‘不是冤家不聚頭.’”

### [설화]

꺾꺾대고 크게 웃은 것 : 처음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을 때가 바로 이 본문의 소식을 보인 것임을 뜻한다.

단하가 다시 한 번 ‘거사는 계신가?’라고 물은 대목이 영조에게 감파당한 부분이다.

원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보인 경계 그 이상의 다른 소식은 없다는 뜻이다.

거사여자(居士女子)라는 말은 거사의 딸이라는 뜻이다.

大滬: 呵呵大笑者, 放下籃子時, 只是這箇消息也. 丹霞又問, 居士在否, 是被勘破處也. 不是冤家不聚頭者, 放籃處, 更無第二也. 居士女子者, 居士之女子也.

---

19) ‘원수’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견해를 갖춘 상대를 가리킨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릴 가치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영조라는 처녀가 처음에 대응한 방식은 괜찮았으니,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영특한 자식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sup>20)</sup> 그 뒤에는 잘 들어맞지 않았으니, 용 머리에 뱀 꼬리를 단 형상과 아주 흡사했다. 거사가 ‘단하는 계신가?’라고 물었을 때 다만 손을 모으고 앞으로 다가가 다소곳이 몸을 굽혔다면 이 어찌 이전에도 없었고 후세에도 없을 걸 출한 대응이 아니었겠는가! 영조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거사 또한 사나운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듯이 넘어갔다.<sup>21)</sup> 점검해 보면 영조는 조리 자루<sup>22)</sup>로 한 대 맞았어야 했던 것이다.”

法眞一拈, “靈照女子, 前來却得, 蓋非是父, 不生其子. 後底打不着, 大似龍頭蛇尾. 居士云, ‘丹霞在麼?’ 但斂手近前相搵, 豈不是絕後光前! 彼既不然, 居士亦猛虎不食其子. 若點檢將來, 靈照也好與一頓策籬柄, 始得.”

20) 보통 ‘비부불생기자(非父不生其子)’로 쓰인다. 『大慧語錄』 권14 大47 p.871c27, 『從容錄』 6則 「評唱」 大48 p.230c27 등에 용례가 보인다.

21) 설두중현(雪竇重顯)의 말이다. “다음의 공안을 제기했다. 탐원이 국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마조를 친견하고 땅에다 둥근 원 하나를 그려 놓고 그 안에 좌복을 펼치고 절을 올리자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저는 눈을 조작하여 볼 줄 모릅니다.’ ‘나는 그대와 같지 않느니라.’ 설두가 이 문답을 평가했다. ‘사나운 호랑이도 그 새끼를 잡아먹지는 않는 법이지만, 상대의 말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어찌하랴!(그래서 마조는 새끼를 잡아먹는 엄한 수단을 썼다.) 여러분, 탐원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가? 그는 바로 몸을 감추었으나 그림자를 드러낸 자였던 것이다.’”(『雪竇語錄』 권4 大47 p.690b18. 學. 耽源辭國師, 歸省觀馬祖, 於地上作一圓相, 展坐具禮拜. 祖云, ‘子欲作佛去?’ 源云, ‘某甲不解捏目.’ 祖云, ‘吾不如汝.’ 師云, ‘然, 猛虎不食其子, 爭奈來言不豐! 諸人, 要識耽源麼? 只是箇藏身露影漢.’)

22) 영조는 조리를 팔아 아버지 망거사를 봉양하는 효녀였는데, 이들 부녀 사이에 특별한 뜻을 가진 물건이므로 조리 자루를 등장시킨 것이다.

[설화]

처음에 대응한 방식은 괜찮았다 : 바구니를 내려놓은 경계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속뜻을 보여주었다는 말이다.

영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거사가 조리 자루로 한 대 때려주지 않은 것이 바로 사나운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 것과 같은 장면이었다.

法眞：前來却得者，放下籃子處，盡力呈似也。彼旣不然，居士不與一頓筴籬柄，是猛虎不食其子也。



321칙 丹霞燒佛 단하소불





### 321칙 단하소불 丹霞燒佛<sup>1)</sup>

#### [본칙]

단하가 혜림사(慧林寺)를 거쳐서 갈 때 혹독한 추위를 만나 땀감을 찾던 중 불전(佛殿)에서 목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져다 불을 피웠다. 원주<sup>2)</sup>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어째서 우리 목불을 태우시오!”라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단하가 주장자로 재를 파 뒤지면서 말했다.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 합니다.”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겠습니까!” “사리가 없다면 나머지 두 불상도 가져와 태워버립시다.” 원주는 그 뒤에 눈썹과 수염이 모두 떨어졌다.<sup>3)</sup>

- 1) 목불을 태웠거나 태우지 않았거나 그 외형에는 이 공안을 타파할 단서가 없고, 이 두 길을 떠나서 새롭게 펼쳐진 길도 없다. 이것이 단하가 목불을 태우고 남긴 공안의 요체이다. 단하가 목불을 태운 것만 주목하고, 원주가 불법을 비방한 결과로 눈썹이 빠졌다는 이야기의 진실을 외면해도 안 된다. 원주는 단하의 뜻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하의 행위가 진실한 것인지 점검하면서 이 공안을 완결하는 역할로 등장한 것이다.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상당 범문과 백운지병(白雲知鼎)의 염은 이러한 원주의 진실을 부각하는 측면에서 제시된다.
- 2) 院主, 절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여 주재(主宰)하는 직책. 원재(院宰)·사주(寺主)·감원(監院)·감사(監寺)라고도 한다. 『禪林象器箋』 권7 禪藏 p.478 참조.
- 3) 눈썹과 수염이 떨어지는 것은 불법에 대하여 잘못 말하거나 비방한 죄의 결과라 한다. 이 자체가 여기서는 하나의 관문이다. 원주가 단하를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눈썹과 수염은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이 공안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연출

丹霞, 因過慧林寺, 值凝寒, 遂於殿中見木佛, 乃取燒火. 院主偶見呵責曰, “何得燒我木佛!” 師以杖子撥灰云, “吾燒取舍利.” 主曰, “木佛何有舍利!” 師云, “旣無舍利, 更請兩尊再取燒之.” 主自後眉鬚墮落.

[설화]

목불을 태웠다 : 높고 뛰어난 안목을 나타낸다.

원주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어째서 우리 목불을 태우시오”라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 눈썹과 수염이 모두 떨어졌다 : 대반야(大般若)<sup>4)</sup>를 비방했으므로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 것이다.

백운지명(白雲知旻)이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구나, 이류(異類)의 길을 가는 원주여!”라고 한 말은 ‘비록 죽은 뱀일지라도 가지고 놀 줄 안다면 다시 살아난다’<sup>5)</sup>라는 뜻이다.

燒木佛者, 高勝眼目也. 院主偶見呵責曰, 何得燒我木佛云云者, 謗大般若故, 眉鬚墮落也. 白雲曷云, 可信可憑, 院主却行

---

의 핵심이다. 무명혜성(無明慧性)이 단하의 행위와 원주의 질책에 대하여 모두 구멍 없는 쇠망치[無孔鐵鎚]라 평가한 말이 그 뜻이다. “단하는 목불을 태웠고 원주는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으니, 구멍 없는 두 개의 쇠망치요 서로가 착각을 가지고 착각을 대한 것이다.”(『無明慧性語錄』 己121 p.636b12. 丹霞燒木佛, 院主眉鬚落, 兩箇無孔鐵鎚, 彼此將錯就錯.)

- 4) 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대표하는 말로 쓰였다.
- 5) 단하의 견해를 저급한 것(죽은 뱀)으로 보는 편견을 백운지명이 역전시켜 그 본질을 회복시켰다는 뜻으로 인용한 말이다. 『雪竇語錄』 권3 大47 p.686b25, 『大慧語錄』 권18 大47 p.889a1, 『碧巖錄』 67則「評唱」大48 p.197b20, 『從容錄』 59則「著語」大48 p.264b1 등에 나온다.



異類者, 雖是死蛇, 解弄却活.

###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오래된 바위에 이끼 끼고 냉기는 문으로 침범하는데,  
새들은 놀라고 들짐승은 길을 잃었도다.  
깊은 밤 추위에 모래섬에선 불을 살랐는데,  
늦잠 잔 어부는 허둥대며 까닭 몰라 헤아리네.

投子青頌, “古崑苔閉冷侵扉, 飛者驚危走者迷. 夜深寒蕪汀洲  
火, 失曉漁家忙自疑.”

[설화]

늦잠 잔 어부: 원주를 말한다.

投子云云, 失曉漁家者, 院主也.

### 곤산찬원(崑山贊元)의 송

화신불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수가 티끌과 같이 무수하구나.  
진실한 때의 거짓 알기 이전에는,  
한갓 과지<sup>6)</sup>에 이르는 원인만 닦네.

---

6) 果地, 수행하여 성취하는 궁극적인 지위. 과위(果位)·과극(果極)이라고도 한다.

비록 보배 탁자에 올려놓을 줄 알더라도,  
또한 꽃 두건 벗기는 법까지 깨우쳤다면,  
단하스님과 더불어,  
이웃이 될 만하리라.

崑山元頌, “諦觀化佛身, 其數若微塵. 未了眞時僞, 徒修果地  
因. 雖知凭寶机, 更悟解花巾, 堪與丹霞老, 依俵作近隣.”

[설화]

1구와 2구 : 화신불이 이와 같이 많거늘 목불이야 말할 여지가 있겠는가!

3구와 4구 : 진실한 때의 거짓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갓 과지에 이르는  
원인만 닦는다.

5구와 6구 : 보배 탁자와 꽃 두건은 모두 보신불(報身佛)과 화신불을 장  
엄하는 물건이다. 비록 보신이 존귀한 줄 알아 보배 탁자에 올려놓고 꽃  
두건[花冠]을 씌우더라도 또한 보배 탁자를 치우고 꽃 두건을 벗기는 법  
을 깨우쳐 모름지기 법신이 있다는 진실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단하와 더불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崑山: 上二句, 化佛如此, 況木佛乎! 次二句, 未了眞時之僞故,  
徒修果地因也. 次二句, 寶机花巾, 皆報化之莊嚴也. 雖知報身  
尊貴, 凭寶机著花冠, 更悟去寶机解花冠, 須知有法身, 始得.  
到伊麼時, 堪與丹霞作隣也.

---

이 과지는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 등 삼승(三乘)이 각각 다르며, 삼  
승 안에서도 각각 차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는 인위(因位) 또는  
인지(因地)라 한다.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단하가 목불에 불을 사르기 시작하자,  
원주는 아교단지에 머리를 들이밀었네.<sup>7)</sup>  
동쪽 집이 갑자기 상을 당했는데 서쪽 집에서 곡을 하고,  
남산에서 비가 몰아치는데 도리어 북산이 어두침침하구나.  
안개와 구름이 흩어지자 집집마다 달이 비추고,  
서리와 눈이 녹으면서 곳곳에 봄기운이 들었다.  
만나보면 아무 일도 없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다시 임 생각나는 줄 누가 알까?

崇勝珙頌, “丹霞木佛火初焚, 院主刺頭入膠盆. 東舍暴喪西舍  
哭, 南山驟雨北山昏. 煙雲散去家家月, 霜雪消來處處春. 盡道  
相見猶無事, 誰知不來還憶君?”

###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송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광명을 비추시는데,  
원주의 눈썹과 수염 하나도 남아 있지 않네.  
평등하게 집어 들어 누구에게 주려 하는가?  
남자들이 앞다투는 그대로 맡겨 두리라.

育王謚頌, “十方諸佛放光明, 院主眉鬚無一莖. 平等拈來欲誰  
與? 從教衲子競頭爭.”

---

7) 아교단지에 머리를 들이밀어 끈적한 그곳에 달라붙어 꼼짝 못하듯이 단지 목불을 태운 죄과만 따지고 단하의 본래 의중을 몰랐다고 비판한 것이다.

### 심문담분(心聞曇贇)의 송

시골 절에 땔나무 없어 목불 쪼개어 태울 뿐인데,  
까닭도 없이 그대의 눈썹이 저절로 떨어지는구나.  
깊은 밤 혹독한 추위 면하게 되었으니,  
평상시의 뛰어난 수단 모조리 드러났다네.

心聞曇贇頌, “村院無柴劈佛燒, 無端汝自落眉毛. 夜深免得遭寒  
凍, 已見平生作略高.”

### 자항요박(慈航了朴)의 송

서풍<sup>8)</sup>이 위수<sup>9)</sup>로 불어오니,  
낙엽이 장안에 가득 하다네.  
그 뜻을 아는 자 아니라면,  
부질없이 춥다고만 하리라.

慈航朴頌, “西風吹渭水, 落葉滿長安. 不是知音者, 徒勞話  
歲寒.”

### 무진거사의 송<sup>10)</sup>

눈은 절 문을 감싸고 얼음은 녹지 않았기에,  
일존<sup>11)</sup>의 목불을 쪼개어 땔감으로 삼았다.

---

8) 西風. 가을바람.

9) 渭水. 황하(黃河) 최대의 지류(支流).

10) 단하의 뜻을 긍정하고 원주를 부정하는 관점에서 읊은 개송.

가없게도 원주의 눈썹은 모두 떨어지고,  
그의 집 안에 살던 사람<sup>12)</sup>은 불타버렸구나.

無盡居士頌, “雪擁巖扉凍不春, 一尊木佛劈爲薪. 可憐院主眉  
毛落, 燒殺儂家屋裏人.”

## 보령수의 엄

“참으로 터득한 이치가 있다면 소리 높여 주장할 필요도 없으니, 자세하  
게 살펴보면 애는 썼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sup>13)</sup>과 아주 흡사하다. 알겠  
는가? 원통한 일에는 그것을 초래한 우두머리가 있고, 남에게 빚을 졌으  
면 갚아야 할 주인이 있는 법이다.<sup>14)</sup>”

保寧秀拈, “然則有理不在高聲, 若也子細點檢將來, 大似勞而  
無功. 還會麼? 冤有頭債有主.”

### [설화]

참으로 터득한 이치가 있다면 소리 높여 주장할 필요도 없다 : 원주가 ‘어째서 우  
리 목불을 태웁니까’라고 따진 말을 가리킨다.

애는 썼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다 :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 것을 말한다.

- 
- 11) 一尊. 법당에 봉안한 삼존불(三尊佛)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12) 옥리인(屋裏人), 본래인(本來人)·본래면목(本來面目)과 같은 말이다.  
13) 노이무공(勞而無功). 『莊子』「天運」에 나오는 말. “공자께서 주나라 때 시행하던  
도를 노나라에서도 똑같이 펼치려고 하니, 이는 육지에서 배를 밍는 것과 같아  
서 애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다.”(今蘄行周於魯, 是  
猶推舟於陸也! 勞而無功, 身必有殃.)  
14)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는 책임져야 할 중심인물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구절이  
다. 여기서는 원주의 눈썹이 떨어진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통한 일에는 ~ 있는 법이다 : 원주가 지냈던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다.

保寧：有理不在高聲者，院主云，何得燒我木佛也。勞而無功者，眉鬚墮落也。冤有頭云云者，院主有立處也。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개로상당(開爐上堂)<sup>15)</sup>

개로일을 기념하여 법좌에 오르자, 어떤 학인이 물었다. “단하가 목불을 태운 뜻은 어떤 것입니까?” “날이 추우면 화로 주변으로 가 솜이불을 끌어 안고 꼼짝 없이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 “밤기운이 차고 더욱 깊어지니 다시 불상 한 구를 살라야겠군요.” “그래도 눈썹은 잘 보살펴야 한다.” “온 몸이 붉게 타서 문드러져야 비로소 속마음을 아는 벗입니다.” “그 쓸모없는 일 때문에 무명을 기르는구나.” “그렇다면 원주는 무슨 이유로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습니까?” “그대의 병통과 똑같기 때문이다.” “손님 노릇을 할 줄 몰라서 주인을 번거롭게 만들었군요.”<sup>16)</sup> “저 본색한<sup>17)</sup>의 수단을 돌려 주어야 한다.” 천동이 이어서 말했다. “시월의 찬 비바람이 추워지리라는 하늘의 뜻을 알고, 총림의 화로[地爐]를 만들어 오늘부터 지피니,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목불을 태우는 일은 없게 되었다. 대중들이여, 단하가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해치운 것이 원주가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당한 것과

15) 난로를 처음 피우기 시작하는 음력 10월 1일을 개로일(開爐日) 또는 개로절(開爐節)이라 하고, 이날 행하는 상당법문을 개로상당이라 한다. 난로를 철거하는 다음 해 음력 2월 1일은 폐로일(廢爐日)이라 한다. 『禪院清規』 권4 「聖僧侍者爐頭直堂」 卍111 p.898b16 참조.

16) 학인이 스승이 전하는 뜻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스승으로 하여금 여러 말을 하도록 하여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다.

17) 本色漢. 본색을 갖춘 사람 곧 본분을 철저히 고수하는 수행자. 본색인(本色人)과 같은 말이다.

비교하여 어떤가?” 천동이 다시 말했다. “본래 이렇게 말하는 선에서 그만 두어야 마땅하지만, 나는 속내를 참지 못하여 여러분에게 하나의 해설을 달아주겠다. 단하는 착각을 가지고 착각을 대했을 뿐인데,<sup>18)</sup> 원주는 눈썹과 수염이 모두 떨어졌으니 귀머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았다. 뛰어난 선사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지만 악한 마음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天童覺, 開爐上堂, 僧問, “丹霞燒木佛, 意旨如何?” 師云, “天寒宜向火, 擁毳任堆堆.” 僧云, “夜冷更深, 更蒸一軀去也.” 師云, “也須照管眉毛, 始得.” 僧云, “通身紅爛去, 方始是知音.” 師云, “爲他閑事長無明.” 僧云, “只如院主, 爲什麼眉鬚墮落?” 師云, “也與上座病痛一般.” 僧云, “不解作客, 煩勞主人.” 師云, “還他本色漢手段, 始得.” 乃云, “十月朔風雨, 肇寒天意, 作叢席地爐, 今日開, 免燒木佛無斟酌. 大衆, 丹霞無斟酌, 何似院主無斟酌?” 師復云, “本合便怎麼休却, 天童忍俊不禁, 爲你諸人, 下个注脚. 丹霞將錯就錯, 院主眉鬚墮落, 如驢如盲. 大家翁, 攪擾殺你, 不要惡.”

#### [설화]

날이 추우면 ~ 앉아 있어야 한다 : 보통의 일이며 남달리 특출난 점은 없다는 뜻이다.

밤기운이 차고 더욱 깊어지다 : 만약 이렇게 되면 자신의 한 몸도 태워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18) 단하는 스스로 목불을 태우면서도 그것이 착각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왜 목불을 태우는가?’라고 따지는 상대의 착각을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주석3) 인용문 참조.

그래도 눈썹은 잘 보살펴야 한다 : 한결같이 이렇게만 한다면 눈썹과 수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온몸이 붉게 타서 문드러져야 ~ 벗입니다 : 반드시 온몸이 붉게 타서 문드러져야 한다. 곧 색신의 파괴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쓸모없는 일 때문에 무명을 기르는구나 : 다시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그대의 병통과 똑같기 때문이다 : 색신이 붉게 타 문드러지는 것만 알았을 뿐, 색신의 견고한 측면은 몰랐다는 뜻이다.

손님 노릇을 할 줄 몰라서 주인을 번거롭게 만들었군요 : 원주까지 연루시켜 눈썹과 수염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저 본색한의 수단을 돌려주어야 한다 : 주인과 손님이 모두 본색한이어야 된다.

단하가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해치운 것 : 목불을 태워버린 바로 그 행위가 알아차릴 여지도 없었다는 뜻이다.

원주가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당한 것 : ‘어째서 우리의 목불을 태우십니까’라고 따졌지만 알아차릴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단하는 착각을 가지고 착각을 대했을 뿐인데 ~ 모두 떨어졌으니 : 단하나 원주나 모두 알아차릴 여지가 없는 언행이었거늘 귀머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았으니 어찌하라!

뛰어난 선사께서 ~ 필요는 없다 : 단하가 마음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은 것을 악한 마음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天童：天寒至堆堆者，也是常事，別無特地也。夜冷云云者，若伊麼，一軀亦燒却也。也須照管云云者，一向伊麼，又未免眉鬚墮落也。通身紅爛云云者，也須通身紅爛，謂色身破壞，須是伊麼，始得。爲他云云者，又向伊麼去也。也與至一般者，只知色



身紅爛，不知色身堅固也。不解至主人者，累他院主眉鬚墮落也。還他本色云云者，主客俱是本色，始得。丹霞無斟酌者，只燒木佛無斟酌也。院主無斟酌者，何得燒我木佛，無斟酌也。丹霞將錯至墮落者，俱是無斟酌故，爭似如聵如盲！大家翁云云者，不要丹霞攪擾作惡也。

###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이여,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말해 보라! 단하의 눈썹은 남아 있는가?”<sup>19)</sup> 만약 안다면 고불(古佛)들과 함께 그 경지에 동참하겠지만, 만일 모르더라도 결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마라.<sup>20)</sup> 훗날 어떤 학인이 천축(天竺)화상에게 ‘단하가 목불을 태운 뜻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천축은 ‘추우면 화로를 둘러싸고 따뜻한 불을 쪼이고, 더우면 대나무 숲 속 시냇가에 앉는다’라고 대답했다. 나에게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태울 목불은 없고, 방안에 연기 나지 않는 불이 있을 뿐이다. 쪼이고 싶으면 쪼이고 걷어치우고 싶으면 걷어치워라. 말해 보라! 옛사람의 견해와 같은가, 다른

19) 눈썹이 떨어진 것으로 말하자면 원주뿐만 아니라 단하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20) 발무인과(撥無因果).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삿된 견해. 모든 것은 단멸(斷滅)하여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 곧 단견(斷見)에 속한다. “어떤 삿된 견해 때문에 선한 뿌리가 끊어지는가? 인과의 도리를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삿된 견해가 그것이다. 원인을 부정한다는 것은 미묘한 수행과 악한 수행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가리키며, 결과를 부정한다는 것은 수행의 결과인 이숙(異熟)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말한다.”(『俱舍論』 권17 大29 p.89a2. 緣何邪見，能斷善根？謂定撥無因果邪見。撥無因者，謂定撥無妙行惡行；撥無果者，謂定撥無彼果異熟.)

가?” 이어서 말했다. “옛날에는 본분사를 마친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본분사를 마친 수행자들이 드물다.”

保寧勇, 上堂, 舉此話云, “大衆, 院主眉鬚墮落, 卽且置. 且道! 丹霞眉毛在也無? 若也見得, 與古佛同叅; 若也不見, 切忌撥無因果. 後有僧問天竺和尚, ‘丹霞燒木佛意旨, 如何?’ 竺云, ‘寒卽圍爐向煖火, 熱卽竹林溪畔坐.’ 保寧, 如今, 也無木佛, 與諸人燒, 堂中自有無煙火. 要向卽向, 要撥卽撥. 且道! 與古人, 是同是別?” 乃云, “上間僧多, 下間僧少.”

#### [설화]

단하의 눈썹은 남아 있는가 : 단하 또한 그 꼴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추우면 화로를 둘러싸고 따뜻한 불을 쪼이고 ~ 시냇가에 앉는다 : 단하가 목불을 태운 것도 평범한 행위일 뿐 남달리 특별한 구석은 없다는 뜻이다.

나에게는 지금 ~ 같은가, 다른가 : 단하와 천축의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본분사를 마친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 드물다 : 단하와 천축의 견해가 그렇다는 말이다.

保寧 : 丹霞眉毛在也無者, 丹霞亦未免也. 寒則圍爐向火云云者, 丹霞燒木佛, 也是常事, 別無特地也. 保寧如今云云者, 丹霞與天竺不同也. 上間僧多云云者, 丹霞天竺地卽是也.

####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상당 1

“단하는 목불을 태웠고, 원주는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다. 또한 경전에는 ‘자신이 지은 업을 남이 받거나 남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는 경우는 보

지 못했다'<sup>21)</sup>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선문과 경전의 교설은 각자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단하 스스로 목불을 태웠음에도 옆에 있던 원주가 재앙을 받았던 것이다. 이 도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밝힐 사람 있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무도 없다면, 오로지 징공수좌(澄公首座)만이 이 도리를 깊이 알고 있으니 모든 고덕(高德)은 아침저녁으로 가까이하여 묻고, 그 가르침에 따라 밝혀 보기 바란다."

眞淨文, 上堂云, “丹霞燒木佛, 院主眉鬚落. 又教中云, ‘未見自作他受, 他作自受.’ 若爾則禪門與教乘, 敵體相違. 故丹霞自燒木佛, 傍僧受殃. 未審此理如何? 莫有人明得麼?” 良久云, “若無人, 唯澄公首座, 深明此理, 希諸高德, 旦暮親而扣之, 就而明之.”

#### [설화]

원주는 단하가 부처님을 헐뜯는다고 잘못 생각했으니 이 어찌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드시 단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다.

眞淨：院主謂丹霞謗佛，豈不是自作自受，直須會取丹霞意，始得.

- 
- 21) 다음과 같은 경전의 구절을 가리킨다. “여래께서는 자신의 업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하여 남이 그 결과를 받는 일은 없다고 아신다.”(『如來無上依經』 권하 大16 p.476a6. 如來知見自業自受, 無有自作他受果者.) ; “스스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남이 지은 업에 대하여 내가 그 과보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하여 남이 그 과보를 받는 일도 없으니, 모든 법은 결정코 이와 같다.”(『正法念處經』 권33 大17 p.190c17. 自作之業, 決定受報. 無有他作我受其果, 無有自作他受其報. 一切諸法, 決定如是.)

## 진정극문의 상당 2

단하가 목불을 태우고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다는 공안을 다시 제기하고, 불현듯 주장자를 집어서 “이것이 목불 아닌가!”라 한 다음 주장자를 던지고 말했다. “누가 태워보겠는가? 그대들이 분별하며 머뭇거리면 눈썹과 수염이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달리 어떻게 하겠는가?”<sup>22)</sup> 마침내 소리 높여 “행자야!” 하고 부른 다음 주장자를 집어 들고 법좌에서 내려왔다.

又上堂，舉丹霞燒木佛，院主眉鬚落，師驚拈拄杖云，“不是木佛！”便擲下云，“誰敢燒？你擬卽眉鬚墮落，不擬又且如何？”遂高聲叫行者，拈起拄杖，下座。

### [설화]

주장자를 집어서 ‘이것이 목불 아닌가!’라고 한 말 : 잡고서 곧바로 활용한 것이다.

누가 태워 보겠는가 : 태우려 해도 그것을 태우지 못한다는 뜻이다.

‘분별하며 머뭇거리면 눈썹과 수염이 떨어진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리려 든다면 어느 세월에 깨닫겠느냐’라는 뜻이며, ‘분별하지 않는다면 달리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면 결국 경망스럽게 된다’라는 뜻이다.<sup>23)</sup> 반드시 완전히 등지거나[背] 빠져서 물들어버리는[觸] 양단을 벗어나야 한다.<sup>24)</sup>

22) 양단을 모두 막아 재차 화두를 설정하는 이중공안(二重公案)의 형식이다.

23) 해설로 인용한 두 구절은 불암청원(佛眼淸遠)의 말이다. 『佛眼語錄』古尊宿語錄 28 冊118 p.513b2 참조.

24)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觸]과 헤아리지 않는 것[背]을 모두 벗어나서 이 공안을 궁

주장자를 집어 든 것 : 다만 주장자라 부를 뿐이라는 뜻이다.

又上：拈拄杖云云者，把得使用也。誰敢燒者，燒也燒伊不著也。擬則眉鬚墮落者，擬思量何劫悟。不擬又且如何者，不思量終莽鹵。須是離却背觸。拈起拄杖者，但喚作拄杖也。

### 장로종색(長蘆宗頤)의 소참

어느 관인과 조주 사이의 다음 문답을 제기했다.<sup>25)</sup> 관인이 ‘단하가 목불을 불태웠는데, 어째서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습니까?’라고 묻자 조주가 ‘관인의 집에서 날것을 익혀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다. ‘하인들이 합니다.’ ‘바로 그가 알겠군요.’<sup>26)</sup> 장로가 말했다. “여러분, 단하가 목불을 태웠다고 하니 날씨가 추웠기 때문이고,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거친 자는 핵심을 잃을 것이다.”<sup>27)</sup> 조주가 이 공안을 본 입장은 철저하게 노파와 같이 간절한 마음에 입각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산승에게 ‘단하가 목불을 태웠는데, 어째서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다만 그에게 ‘결코 까닭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리라. 안목을 갖춘 납승들은 자세하게 점검해 보라.”

長蘆頤，小叅，舉，官人問趙州，‘丹霞燒木佛，院主爲甚眉鬚

---

구해야 한다는 해설이다. 배촉관(背觸關)에 관해서는 본서 1331則 주석1) 참조.

25) 『趙州語錄』古尊宿語錄13 卍118 p.308a18에 나온다.

26) 『趙州語錄』에는 “바로 그가 좋은 솜씨를 가졌군요(却是他好手)”라고 되어 있다.

27) 이 부분은 이 공안의 주된 두 구절에 대한 착어(著語) 형식의 풀이이다. 곧 단하의 행위는 날씨가 추울 때 일상적으로 하는 그대로 시행한 것이고,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떨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麤]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리키는 숨은 핵심을 놓칠 것이라는 착어이다.

墮落?’ 州云, ‘官人宅中, 甚麼人變生造熟?’ 官人云, ‘所使.’ 州云, ‘是他却會.’ “諸仁者, 丹霞燒木佛, 蓋爲天寒, 院主眉鬚墮落, 心麤者失. 趙州見處, 徹底老婆心. 忽有人問山僧, ‘丹霞燒木佛, 爲什麼院主眉鬚墮落?’ 只向他道, ‘必不空然.’ 具眼衲僧, 子細點檢.”

[설화]

조주가 ‘바로 그가 알겠군요’라고 한 대답 : 별도로 특출난 것은 없고 나날이 쓰는 작용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노파와 같이 간절한 조주의 마음에 대해 별도로 다른 견해를 일으키면 마음이 거친 자는 핵심을 잃고 말 것이다.

결코 까닭도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 만약 인과의 법칙을 잡고 판단한다면 인과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長蘆：州云是他却會者，別無特地，日用如是。趙州老婆心切，別生異解，心麤者失也。必不空然者，若執因果，因果不空也。

백운지병(白雲知鼎)의 염<sup>28)</sup>

“생각하여 알 수도 없고 말로 나타낼 수도 없구나, 우뚝하게 높은 단하의 입장이여!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구나, 이류<sup>29)</sup>의 길을 가는 원주여!<sup>30)</sup>

28) 단하는 분별과 언어로 통하지 않는 본분의 경계를 고고하게 지키는 입장이고, 원주는 현상의 경계로 내려와 본분을 전개하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염이다. 두 입장을 이 공안에서 불가결한 두 가지 축으로 보는 안목이다.

29) 異類, 궁극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생사윤회의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의 세계로 내려온 보살. 또는 인간과는 다른 축생을 가리킨다. 선종에서는 ‘한 마리 물소가 되어 신도의 집에서 보시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한 남전보원(南泉普願)의 이류중행(異類中行)이 대표적이다. 본서 1368則 주석17) 참조.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와 메아리<sup>31)</sup>도 넘어서지 못한 견해와 동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안목으로 ‘원주가 「목불에 어찌 사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한 결과가 되었기에 눈썹과 수염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자세히 알겠는가? 손님 노릇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주인을 번거롭게 만드는 법이다.”

白雲曷拈, “難思難議, 丹霞立處孤危! ; 可信可憑, 院主却行異類! 有般漢, 見解未超影響, 眼目不辨東西, 便道, ‘院主云, 「木佛豈有舍利!」却成謗佛, 所以眉鬚墮落.’殊不知, 自己性命, 已在別人手裏了也. 還委悉麼? 不會作客, 勞煩主人.”

#### [설화]

우뚝하게 높은 단하의 입장 : 실제이지(實際理地)에서는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구나 : 불사문(佛事門)에서는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sup>32)</sup> 만약 한편이 이겼고[得] 반대편은 졌다[失]는 관점에 따라 헤아린다면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sup>33)</sup>

30) 주석5) 참조.

31) 영향(影響). 부질없고 근거가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

32) 어떤 분별도 허용하지 않는 무차별의 궁극적 경지는 실제이지(實際理地)라 하고, 불법을 펼치기 위하여 다양한 차별의 방편을 베푸는 입장은 불사문(佛事門) 또는 건화문(建化門)이라 한다. 『景德傳燈錄』 권20 「鄧州中度傳」 大51 p.369b17 등에 나오는 말에서 빌려온 것이다. “실제이지에서는 하나의 티끌도 용납하지 않지만, 불사문에서는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는다.”(『天聖廣燈錄』 권19 「廬山護國章」 卍135 p.788b3. 實際理地, 不受一塵; 佛事門中, 不捨一法.)

33) 단하가 불법을 더 잘 알아 이겼고, 원주가 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안의 본질적

손님 노릇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주인을 번거롭게 만드는 법이다 : 단하가 원주에게 누를 끼쳐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한 결과가 되어 그 재앙을 당했다는 뜻이다.

白雲：立處孤危者，實際理地，不受一塵也。可信可憑者，佛事門中，不舍一法也。若也得失商量，自己性命在別人手裏也。不會作客云云者，丹霞累他院主，反成謗佛，以受其殃也。

---

뜻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324칙 藥山三乘 약산삼승





## 324칙 약산삼승 藥山三乘<sup>1)</sup>

### [본칙]

풍주(豐州) 약산(藥山)의 유엄(惟儼)선사가 석두희천(石頭希遷)에게 물었다. “3승 12분교<sup>2)</sup>에 대해서는 저도 대략 알고 있지만, 일찍이 들은 적이 있는 남방<sup>3)</sup>의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에 대해서는 진실로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간곡하게 화상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바라옵니다.” “이렇다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안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안 된다. 이럴 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sup>4)</sup> 약산이 생각에 잠겨 있자<sup>5)</sup> 석두가 말했다. “그대는 나와는 인연이

- 
- 1) 약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석두는 부정의 형식으로 답하고 마조는 긍정의 형식으로 응함으로써 설정된 대립이 이 공안의 관문이다.
  - 2) 三乘十二分教. 불교 교설 전체를 나타낸다.
  - 3) 南方. 6조 혜능(慧能)의 선법을 이은 남종선(南宗禪)을 말한다.
  - 4)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긍정해도 안 되고 부정해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상대에게 운신해 보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간화선(看話禪)에서 화두를 제기하는 기본적 틀은 이러한 조사선의 방법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약산유엄이 ‘모기가 무쇠소를 뚫으려 했던 것과 같다’라고 파악한 이 경계에 본분의 소식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은 곤경(困境)으로 유도하여 어떤 언어와 분별의 수단도 통하지 않게 되어야 본분의 소식에 통할 수 있다. 거꾸로 이 곤경을 타개할 목적으로 사유분별과 지적인 정보를 끌어들이는 순간 조사의 공은 사라진다. 따라서 직면하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없는 것 같구나. 강서(江西)에 마조(馬祖)대사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거라. 틀림없이 그대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약산이 그곳에 이르러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이 묻자 마조가 말했다. “나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라고<sup>6)</sup> 하며,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라는 말이 옳고,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라는 말이 틀리다.” 약산이 이 말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 절을 올리자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알았는가?” “제가 석두의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것과 같았습니다.”<sup>7)</sup> “그대는 이미 이러한 경계에 도달했으니 마땅히 잘 지키도록 하라.”

澧州藥山，惟儼禪師問石頭，“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嘗聞南方直指人心，見性成佛，實未明了。伏望和尚慈悲指示。”頭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摠不得。汝作麼生？”師佇思，頭云，“子因緣不在此。江西有馬大師，子往彼去，應爲子說。”師至彼，准前請問。馬祖云，“我，有時，教伊揚眉瞬目；有時，不教伊揚眉瞬目。有時，教伊

---

궁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5) 저사(佇思). 당면한 상황에 적절하게 선기(禪機)를 활발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약산은 어떻게든 대처할 수 없는 이 경계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마조를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돌이켜 알게 된다.
- 6) 양미순목(揚眉瞬目). 일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작용 또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을 대표한다.
- 7) 문자상철우(蚊子上鐵牛). 모기가 무쇠소의 피를 빨려고 하지만 부리가 꽂히는 곳이 전혀 없듯이 어떤 수단으로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경계를 나타낸다. 약산이 파악한 석두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화두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경계이기도 하다.

揚眉瞬目者，是；有時，教伊揚眉瞬目者，不是。”師於是有所省，便禮拜。祖曰，“子見箇什麼道理？”師云，“某甲，在石頭時，如蚊子上鐵牛。”祖曰，“汝既如是，宜善護持。”

[설화]

3승 12분교 : 이전에 해석한 내용과 같다.

이렇다 해도 안 되고 ~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 우리 선종의 법문은 선대의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서 선정(禪定)의 정진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통달하는 것<sup>8)</sup>이라는 뜻이다. 마치 맛있는 여지(荔枝)를 가지고 그 껍질을 다 벗긴 다음 한꺼번에 입가로 가져다주는 것과 같다.<sup>9)</sup>

그대는 나와는 인연이 ~ 가르침을 줄 것이다 : 아직 도를 깨달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마조를 만나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 깜박이라고 하고 : 이렇다 해도 된다는 뜻과 같다.

어떤 때는 ~ 깜박이라고 하지 않는다 : 이렇지 않다 해도 된다는 뜻과 같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 깜박이라는 말이 틀리다 : ‘어떤 때는 ~ 깜박이라고 하고’라고 한 말과 ‘어떤 때는 ~ 깜박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두 가지

8) 석두회천의 말이다. 『景德傳燈錄』 권9 大51 p.309b13.

9) 석두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온전히 실현된 화두[現成話頭]이므로 더 이상 분별할 것도 없다는 뜻. 대혜종교(大慧宗杲)가 복건(福建) 출신의 선사에게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여지)을 들어서 제시한 비유이다. 『大慧語錄』 권17 大47 p.882a17 참조.

뜻을 모두 밝힌 것일까? 아니다.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된다는 긍정의 뜻이다. 마조는 말하기를 ‘석두 묻하는 순금만 파는 점포이고, 나의 이곳은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점포이다’<sup>10)</sup>라고 했다.

약산이 이 말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 절을 올렸다: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점포에서 깨우쳤다는 뜻일까, 아니면 순금만 파는 점포에서 깨우쳤다는 뜻일까?

제가 석두의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것과 같았습니다: 석두의 말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여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것 같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마조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석두의 말이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타고 부리를 쫓으려 하지만 뚫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대는 이미 이러한 경계에 도달했으니 마땅히 잘 지키도록 하라: 마조가 ‘이렇다 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석두가 ‘이렇다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안 되며,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안 된다’라고 한 말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sup>11)</sup>

三乘十二分教者，已如前釋。伊麼也不得云云者，吾之法門，先佛傳受，不論禪定精進，唯達佛之知見也。如將名品荔枝，和皮殼剝了，一時送到他口邊子。因緣不云云者，非唯悟道時未

10) 『祖堂集』권4 高45 p.262a23. 순금만 파는 점포는 모든 수단을 끊고 본분을 곧바로 가리는 선법을 나타내고,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점포는 다양한 차별을 모두 긍정하는 선법을 나타낸다. 앞의 것은 살(殺)에 치중하는 방법이고, 뒤의 것은 활(活)을 위주로 하는 방법이다.

11) 장벽을 만들어 모든 것을 막는 석두의 부정과 장벽을 허물어뜨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조의 긍정이 서로 통한다는 해설이다.

至，須是見馬祖，始得。我有時教伊至目者，伊麼也得也；有時不教至目者，不伊麼也得也。有時教伊云云者，上云，‘教伊云云不教云云之義’全明也？非也。伊麼不伊麼，揔得之義。馬祖云，‘石頭是純金鋪，我這裏是雜貨鋪。’於是有省便作禮者，是雜貨鋪耶？是純金鋪耶？某甲在石頭云云者，非是在石頭時，悟不得，如蚊子上鐵牛也。於此方始悟得，石頭道得，如蚊子上鐵牛，插觜不得。汝旣如是云云者，馬祖伊麼也得，不伊麼也得，伊麼不伊麼揔得，卽是石頭伊麼也不得，不伊麼也不得，伊麼不伊麼揔不得也。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차디차고 맑은 바람 모든 곳에서 부는데,  
드높은 기상으로 홀로 무쇠소에 올라탔네.  
그대를 위해 견고한 금강안<sup>12)</sup>을 부릅뜨고,  
해골<sup>13)</sup>을 꺾박하면 틀림없이 알게 되리라.

長靈卓頌, “凜凜清風八面吹, 雄雄獨跨鐵牛兒. 爲公別起金剛眼, 拶破髑髏應自知.”

12) 金剛眼. 다른 모든 것을 뚫지만 자신은 부서지지 않는 금강과 같이 예리한 눈. 근원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말한다.

13) 측루(髑髏). 쓸모없이 분별하는 의식을 말한다.

[설화]

첫 번째 구절은 마조의 입장, 두 번째 구절은 약산의 입장을 나타낸다. 나머지 두 구절에서 ‘그대’는 약산을 가리킨다. 곧 마조의 입장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눈동자라는 뜻이다. 해골이란 이전에 석두의 말을 듣고 잘못 알았던 것을 마조의 말을 듣고서 깨우쳤으므로 해골을 뺏박했다고 한 것이다.

長靈：上句，馬祖地也，二句，藥山地也。下二句，公則藥山，謂馬祖地，是金剛眼睛也。髑髏則前石頭處錯認，到此有省故，是拶破髑髏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대단히 탁월한 이야깃거리<sup>14)</sup>로다!

들어 보일 줄 아는 자 누구일까?

남김없이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리라.<sup>15)</sup>

雲門杲頌，“好个話端！阿誰解舉？舉得十分，未敢相許。

[설화]

제방의 수행자들이 만일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14) 화단(話端). 본분을 곧바로 가리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 곧 본분의 화두를 가리킨다.

15) 언어로 아무리 드러낸다고 해도 그 뜻을 빠짐없이 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석두의 화두는 철저하게 가로막는 부정의 방법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雲門：諸方若伊麼會，便不是了也。

###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온 세상에 전쟁<sup>16)</sup> 잠잠해지니,  
중원의 소식도 막힘없이 통하네.  
세 척의 검도 손에서 놓아버리고,  
활 당기며 만지작거리지도 마라.

〈이 송은 대혜종고의 송과 함께 석두의 말을 제기하여 읊은 것이다.〉

竹庵珪頌，“四海狼煙靜，中原信息通。罷拈三尺劍，休弄一張弓。”〈此錄，與雲門杲錄，但舉石頭語。〉

[설화]

제방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비로소 바른 견해라는 뜻이다.

竹庵：諸方伊麼會，方是也。

### 심문담분(心聞曇贇)의 송

온화하게 어울리는 기운 봄날과 같더니,  
불현듯 바람 일어나 또다시 싸늘하도다.  
우습다, 흰 매화가 추위 견뎠다고 하네!  
누구 위해 울타리가에 피고 떨어지는가?

---

16) 낭연(狼煙). 이리의 똥을 태워 일으키는 연기. 변방에서 군사상의 경보신호로 쓰는 봉화(烽火)의 일종이다. 전쟁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빡인 인연을 제기한 송이다.〉

心聞貴頌, “融融和氣似春天, 驚忽風生又凜然. 堪笑玉梅能忍  
凍! 爲誰開落向籬邊?” 〈此舉揚眉瞬目因緣.〉

[설화]

온화하게 ~ 또다시 싸늘하도다 : 마조가 그렇게 한 말이 더욱 지독했다는 뜻  
이다.

3구와 4구 : 석두에 대한 언급이다.

心聞云云, 又凜然者, 馬祖伊麼道, 尤更毒害也. 下二句, 言石  
頭也.

## 송원의 송

무수한 봉우리 길에 눌러앉아,  
푸른 하늘 뚫어 열어 놓았다네.  
분명한 소식의 질문 어찌 허용하리오!  
분명한 소식은 바로 그 앞에 있도다.

松源頌, “坐斷千峯路, 穿開碧落天. 那容問端的! 端的鬪  
驢前.”

## 무위자의 송

모두 안 된다고 하니 당치 않게 보이나,  
촌노인이 어찌 천지가 드넓은지 알리오?  
자주 넘어 점차 가까이 도달하였더라도,

고향은 아직 한 겹 관문 사이로 떨어져 있네.

無爲子頌, “揔不得大無端, 野老焉知天地寬? 直饒數到八九十, 家山猶隔一重關.”

## 보령수의 염

“석두의 바로 그 구멍 없는 쇠망치[無孔鐵鎚]는 누구에게도 전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약산이 비록 강서로 건너가 깨닫기는 했지만 평지에서 자기 다리끼리 꼬여 넘어진 꼴이었으니<sup>17)</sup> 붙들어 줄 방법이 어디 있었겠는가!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다 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된다. 되고 되고 또 된다. 그럼 말해 보라! 이 ‘된다’는 말 중 어떤 것을 시험 삼아 분별해 보겠는가?”

保寧秀拈, “石頭好个無孔鐵鎚, 大似分付不着. 藥山雖然過江悟去, 爭奈平地喫交, 有什麼扶策處! 拙賢卽不然. 與麼也得, 不與麼也得, 與麼不與麼揔得. 得得得. 且道! 使那个得字, 試爲辨看?”

---

17) 평지끼교(平地喫交). 아무 장애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화를 부른다는 뜻. 화두를 제기하는 종사가 일 없는 경계에서 고의로 시험을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만들어내는 것을 두고도 이렇게 평가한다. “양산이 설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빗갈보다 더 흰 것이 있을까?’〈양산은 자기도 모르게 평지에서 자기 다리끼리 꼬여 넘어진 꼴이다.〉”(『從容錄』 26則 大48 p.244a13. 仰山指雪師子云, ‘還有過得此色者麼?’〈仰山不覺平地喫交.〉); “만일 집착된 말을 펴뜨린다면 평지에서 자기 다리끼리 꼬여 넘어지는 꼴을 당할 것이며, 더 나가 불법에 대하여 분별을 주고받는다면 눈썹과 수염이 떨어질 것이다.”(『大慧語錄』 권1 大47 p.814a12. 若作世諦流布, 平地喫交, 更在佛法商量, 眉鬚墮落.)

[설화]

석두의 바로 그 구멍 없는 쇠망치는 ~ 것과 같았다 : 약산은 단지 석두의 말만 알았을 뿐 그 속뜻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산이 비록 강서로 건너가 ~ 어디 있었겠는가 : 비록 마조의 말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또한 그 속뜻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다 해도 되고 ~ 모두 된다 : 마조가 ‘나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라 운운한 뜻과 상응한다.

되고 되고 또 된다 : 모두 핵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이 ‘된다’는 말 중 어떤 것 : ‘된다’고 허용한 세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취사선택의 분별을 벗어나 있냐고 물은 뜻이다. 결국 하나하나를 모두 ‘된다’고 허용한 것이다.

藥寧：石頭好个云云者，藥山只知石頭語，不知其意故也。雖然過江云云者，雖會馬祖語，又不會其意也。伊麼至摠得者，馬祖云，我有時教伊云云之義也。得得者，俱端的也。使那箇得者，謂於三得中，使那箇得字非取捨也。一一使得也。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석두는 비록 기개가 있었지만 굶은 것을 퍼서 억지로 곧게 만들었던 것을 어찌하랴!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다 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된다. 모든 것이 하나의 허공이거늘 어디서 동서남북을 찾는가! 해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어느 곳이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으니, 배고프면 입 벌리고 밥 먹고 피곤하면 다리 뻗고 누워서 쉬리라. 여러분, 만약 염라대왕이 찾아와서 밥값을 요구한다면 그에

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흠!<sup>18)</sup> 잘못했으면 묻지 않고 지나칠 뻔했구나.”

蔣山泉，上堂，舉此話云，“大衆，石頭雖然性氣，爭奈拗曲作直！若是南禪卽不然。恁麼也得，不恁麼也得，恁麼不恁麼摠得。都來一箇虛空，討甚東西南北！年年夏熱冬寒，處處山青水綠，飢來開口喫飯，困來伸脚偃息。諸仁者，忽若闍老來，索飯錢，向他道甚麼卽得？咩！洎不問過。”

[설화]

아래의 뜻으로 생각해 보면 석두의 의중만 제기한 것이다.

이렇다 해도 되고 ~ 누워서 쉬리라 : 석두에게 몸을 반대로 뒤집어 막힌 숨통이 트이도록 해 준다는 뜻이다.

염라대왕이 찾아와서 ~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 염라대왕에게 밥값을 요구당하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흠 : 일도진언<sup>19)</sup>이다. ‘이렇다 해도 되고’라 운운할 때 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어찌할 것이냐는 뜻이다.

잘못했으면 묻지 않고 지나칠 뻔했구나 :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밥값을 요구당할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蔣山：下意考之，但舉石頭意也。伊麼也得至伸脚偃息者，爲

18) 咩, ㄷhūm, 모든 천신(天神)의 총괄적인 종자(種子). 본래는 호랑이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며, 의혹·승낙·분노·공포 등을 뜻한다. 그러나 진언(眞言)으로서 일정한 의미 규정에 한정되지 않으며, 밀교(密敎)에서는 이 소리으로써 번뇌를 물리치거나 공포 등을 나타낸다. 조사선에서는 할(喝)과 같은 기능을 한다. “흠(범어 문자로 진언(眞言)의 구절이다. 마치 소 울음소리나 호랑이가 분노하는 소리와 같으며, 가슴과 목에서 나오는 소리이다.)”(『一切經音義』 권10 大54 p.369a17. 咩〈梵文，眞言句也，如牛吼聲，或如虎怒，胷喉中聲也。〉)

19) 본서 250則 주석11) 참조.

他轉身通氣也。閻老來至什麼卽得者，若伊麼，似不免他索飯錢也。咩者，一道真言也。伊麼也得云云時，何奈不得也。洎不問過者，若如此，則何患索飯錢也。

## 승천기의 상당

“옛사람은 ‘이렇다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안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했다.<sup>20)</sup>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렇다’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대중 가운데 말해 볼 사람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한번 말해 보라. 만약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긴 것은 긴 범신이고, 짧은 것은 짧은 범신이다.<sup>21)</sup>”

承天琦，上堂云，“古人道，‘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俱不得.’ 古人恁麼道，大似傍若無人。敢問諸人，如何是恁麼底事？衆中還有道得底麼？試出來道看。若無人道得，開元爲諸人道。長者長法身，短者短法身。”

## [설화]

석두가 ‘이렇다 해도 안 된다’라고 부정의 형식으로 말했을 때, 이미 ‘이

20) 한편으로 치우쳐 ‘안 된다’는 부정의 부득(不得)만 말했으나 사실은 긍정의 득(得)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21)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각각의 차별된 양상 그대로 본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부정의 부득(不得)과 긍정의 득(得)이 모두 긍정과 부정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화두로서의 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양기방회(楊岐方會)의 말이다. 『楊岐語錄』大47 p.641c28.

렇게 해도 된다'라는 긍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承天：石頭，伊麼也不得云云時，早是伊麼也得云云也.

###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내가 대중과 함께 수행할 때 범형제들이 헤아려서 말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라 해도 안 되고, 마음이 곧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서 어떻게 선객(禪客)이라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석두노인이 문·무를 겸비하고, 도·략<sup>22)</sup>을 더불어 갖추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의 견해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기를 바라니, 그들은 단지 파도가 험하게 치솟는 현상만 보고 바다 속에 있는 용궁은 알지 못한다.”

五祖演，上堂，舉此話云，“山僧在衆日，聞兄弟商量道，‘卽心卽佛，亦不得；不卽心卽佛，亦不得.’若恁麼說話，敢稱禪客！何故？殊不知，石頭老人，文武兼備，韜略雙全．若是五祖見處，也要諸人共知，只見波濤湧，不見海龍宮．”

#### [설화]

이 또한 석두의 말만 제기하고 평가한 것이다.

---

22) 韜略. 병서(兵書)인 『六韜』와 『三略』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병서 또는 병법(兵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더 나아가 모략(謀略)이나 계책(計策)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선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드러내는 방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부득(不得)의 방편에 ‘된다’라는 득(得)의 방편도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

석두노인이 문·무를 겸비하고 ~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석두의 말에도 ‘이렇다 해도 된다’라는 긍정의 뜻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나의 견해를 ~ 옹공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긍정의 뜻도 뒤집어 다시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니, 반드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부정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석두와 마조의 말은 그 핵심이 동일한 것이다.

五祖: 此亦但攀石頭語也. 石頭老人, 文武云云者, 亦有伊麼也得云云之意也. 若是五祖至龍宮者, 又向伊麼也得處著倒, 又不是, 也須知有伊麼也不得云云也. 然則石頭馬祖, 其實一也.

##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거

“요즈음 대중 가운데 형제들은 ‘석두는 한결같이 천 길 높이의 절벽<sup>23)</sup>과 같았기에 약산이 이해하지 못했고, 반면에 마조는 한 가닥의 길을 열어 놓아서<sup>24)</sup> 약산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석두가 이렇게 한 말이 벌써 잘못된 것이며, 마조가 말한 ‘이 한 수’<sup>25)</sup>는 그것보다 더욱 해롭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무엇 때문에 약산은 깨닫게 되었을까? 말해 보라! 어째서 이럴까? 약산과 같은 경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무쇠로 만들어

---

23) 벽립천인(壁立千仞). 높고 험하게 치솟은 절벽과 같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본분만 지키고 있는 입장을 나타내는 비유 중 하나이다.

24) 방개일선(放開一線). ‘벽립천인’과 같이 본분의 범령대로만 시행하면 어떤 말과 분별도 차단되지 않지만, 결정적인 하나의 ‘방편’을 열어 두어 근본과 통하게 한다는 뜻.

25) 저일착(這一着). 바둑에서 승부의 요처에 두는 결정적인 ‘한 수’를 가리킨다. 그 때그때마다 핵심을 찌르는 말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일착자(一着子)와 같은 말이다.



진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서 ‘본분사는 언어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문자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약산이 질문을 던졌던 방식을 보면, 석두에게 묻고 나서 마조의 처소로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사람이 바로 무쇠나 돌과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이다. 지금 만일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근심인들 제거하지 못할 것인가?”

圓悟勤, 舉此話云, “今時, 衆中兄弟便道, ‘石頭, 一向壁立千仞, 所以他不會; 馬祖, 放開一線, 他乃悟去.’ 殊不知, 石頭恁麼道, 已是漏逗了也; 馬祖道處, 這一着, 尤更毒害. 因什麼, 藥山得悟去? 且道! 因什麼如此? 到此, 須是生鐵鑄就底漢, 始得. 所以道, ‘此事, 不在語言上, 不在文字上.’ 看他置箇問頭, 問石頭了, 及至馬祖處, 亦如是問. 此人是箇鐵石身心. 如今若有如是心底人, 何憂不徹?”

[설화]

석두의 부정은 마조의 긍정을 떠난 적이 없고, 마조의 긍정은 석두의 부정을 떠난 적이 없으니, 이와 같이 깨달아야 비로소 뛰어난 솜씨라는 뜻이다. 만약 이렇지 못하다면 무엇을 가리켜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약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圓悟意, 石頭地未嘗離馬祖地, 馬祖地未嘗離石頭地, 伊麼悟去, 方是好手也. 若不如此, 則何名悟去? 藥山是其人也.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상당

“옛사람이 ‘나는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라고 하며 ~ 틀리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말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 별

도로 이해를 일으켜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옳다고 해도 되고 틀리다고 해도 된다’라고 한다. 그들에게 ‘도를 터득한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라고 물으면 ‘그들의 본분에서는 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지 않지만, 된다고 해도 맞고 안 된다고 해도 맞는다’라고 한다.” 불안이 긴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말했다. “그들과 무슨 함께 이야기 나눌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옛 사람이 ‘이렇다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안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안 된다’라고 한 말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이것은 자취를 털어 없애는 말이니, 우리들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sup>26)</sup>까지 털어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그들에게 ‘이것이 자취를 털어 없애는 말이라면, 자취를 털어 없애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으면 ‘이렇다 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되니,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된다. 이것을 진실한 말이라 부르니, 우리들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진실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불안이 다시 두 번 탄식하는 소리를 내고 말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납승이라면 반드시 납승다운 이야기를 해야 하니 그대들은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용문은 나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매몰시키며, 나에 대하여 못되게 마음을 쓰고, 나의 괜찮은 말을 천한 것으로 억누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한 말은 그대들이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들이 도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일까?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佛眼遠, 上堂云, “古人道, ‘我, 有時, 揚眉瞬目, 至不是.’ 如今人, 不委得了, 便別作解會說道, ‘得底人, 道是也得, 不是

---

26) 운문문언(雲門文偃)이 쓴 말. 『景德傳燈錄』 권19 「雲門文偃傳」 大51 p.358b15 참조.

也得.’問伊，‘作麼生是得底人?’便道，‘他分上不說，得與不得，得也好，不得也好.’”乃長噓一聲曰，“有什麼共語處?祇如古人道，‘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至摠不得.’又作麼生?他便道，‘此是拂迹語，拂你屋裏老爺老孃.’又問伊，‘此是拂迹語，不拂迹語，如何?’便道，‘與麼也得，不與麼也得，與麼不與麼摠得.此喚作實頭語，實你屋裏老爺老孃.’”師復吁兩聲曰，“有什麼共語處?夫爲衲僧，須作衲僧說話，你等合作麼生?莫道，‘龍門，不肯我，埋沒我，心行我，壓良我.’龍門與麼，是要你到?不要你到?也須子細看詳好.”

#### [설화]

마조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하여 물으면 마조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석두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하여 물으면 석두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두 건의 말을 한 구절이라 보아야 비로소 마조와 석두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긴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뒤에서 두 번 탄식하는 소리를 낸 것은 모두 이 뜻에 따른다. 그런 까닭에 앞에서 한숨을 한 번 내쉬 이유는 석두의 견지로 마조의 견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뒤에서 두 번 탄식하는 소리를 낸 이유는 마조의 견지로 석두의 견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용문은 나의 견해를 ~ 생각하지 마라 : 용문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한 말은 ~ 좋을 것이다 : 본래는 도달함도 도달하지 못함도 없는 것이니,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 것이 모두 눈앞의 차별된 현상[今日事] 일 뿐이라는 뜻이다.

佛眼意，問馬祖伊麼道，不會馬祖意，問石頭伊麼道，不會石頭意也。將兩件語，作一句看，方始會得馬祖石頭意故，前長噓一聲，後復吁兩聲，蓋此意也。所以前噓一聲者，以石頭地，破馬祖地；後吁兩聲者，以馬祖地，破石頭地也。莫道龍門至壓良我者，謂龍門如是也。龍門伊麼是要你云云者，亦無到不到，到不到，是今日事也。

## 대혜종고의 문답

대혜가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이렇다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 해도 안 되며,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 하거나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두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나무를 버리고 산을 헤맨 끝에 신맛 나는 배를 딴 격이로구나.”<sup>27)</sup>

- 
- 27) ‘안 된다’는 부정의 연구를 버리고 ‘모두 된다’는 긍정의 연구를 취했지만 맛있는 과일을 버리고 먹기 어려운 과일을 힘들여 딴 것과 같이 헛수고일 뿐이라는 비유. 애초의 부정 연구에 화두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긍정의 연구라고 하여 화두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편이나 화두는 온전히 구현되어 있다고 보는 안목이 숨어 있다. 하나는 달고 다른 하나는 시다는 설정 자체가 화두의 관문이 되어 있다.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고요한 상태가 옳고, 고요하면서 또렷이 깨어 있는 상태는 틀리다고 하지만, 달콤한 복숭아나무를 버리고 산을 돌아다니다 신맛 나는 배를 딴 꼴이다. 이와 같은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남들이야 깊고 미묘한 도를 닦아 찾아나서는 그대로 상관하지 않으리라.’”(『月林師觀語錄』 卍120 p.488a2. 上堂, ‘惺惺寂寂是, 寂寂惺惺非, 弃却甜桃樹, 沿山摘醋梨. 如是句中能會得, 從教人競覓玄微.’); “법좌에 올라앉아 경전에 ‘전도된 꿈같은 망상을 멀리 벗어나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한다’라는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달콤한 복숭아나무를 버리고 산을 돌아다니다 신맛 나는 배를 딴 격이다. 바로 이 소식을 몇 사람이나 알 것인가? 만일 안다면 꽃이 가득 핀 산에서 두견이 울 것이다.’”(『虛舟語錄』 卍123

雲門杲，問僧，“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惣  
不得，作麼生？”僧云，“惣得。”師云，“拋却甜桃樹，緣山摘  
醋梨。”

[설화]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 모두 됩니다 : 마치 ‘안 된다’는 말을 벗어나서 ‘모두  
된다’고 한 말과 같다. 그러므로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거듭 부정한 말이  
딱 들어맞으므로 ‘달콤한 복숭아나무를 버리고 신맛 나는 배를 딴 격이다’  
라고 한 것이다.

雲門：問僧云云惣得者，猶是不得外惣得也。然則不得不得恰  
好，故云，‘拋却甜桃樹云云’也。

---

p.165a17. 上堂，舉，教中道，遠離顛倒夢想，究竟涅槃。‘拋却甜桃樹，沿山摘醋梨。者些  
消息子，能有幾人知？若也知，滿山花發杜鵑啼。’)





351칙 天皇快活 천황쾌활







### 351칙 천황쾌활 天皇快活<sup>1)</sup>

#### [본칙]

천황도오는 한평생 언제나 “쾌활하다, 쾌활해!”라고 외쳤으나 입적하려는 순간에 병을 앓으면서 “괴롭다, 괴로워! 원주야, 술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여다오.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여다오. 염라대왕이 나를 잡으려 왔구나”라고 부르짖었다. 원주가 “화상께서는 한평생 쾌활하다고 외치시다가 지금은 어째서 괴롭다고 부르짖으십니까?”라고 물었다. 도오가 “말해 보라! 그때가 옳은가, 아니면 지금이 옳은가?”<sup>2)</sup>라고 되물었으나 원주는 아무 말도 없었고, 도오는 목침을 밀어치우고 곧바로 입적했다.

天皇一生，常叫快活快活，欲入滅臥疾中叫云，“苦，苦！院主，把酒來我與我喫，將肉來與我喫。閻老子來取我也。”院主云，“和尚一生叫快活，如今爲什麼叫苦？”師云，“且道！

- 
- 1) 한평생 ‘쾌활하다’고 외치다가 입적하기 직전에는 ‘괴롭다’고 반전시킴으로써 이전의 쾌활함이 하나의 관문(關門)으로 드러났고, 괴롭다는 말 자체도 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화두가 되었다. 본서 677則「德山阿哪」와 707則「洞山不病」도 공안의 소재가 비슷하다.
  - 2) 어느 편이 옳지도 않고 어느 편이 그르지도 않아서 쾌활과 괴로움이 모두 의지할 버팀목이 되지 않는 관문이 제시되었다. 이 물음에 대한 원주의 침묵이 그것을 상징한다.

當時是，如今是？”院主無語，師推出枕头，便告寂。

[설화]

‘쾌활하다’고 외친 것은 철저한 즐거움을 나타내고, ‘괴롭다’고 부르짖은 것은 철저한 괴로움을 나타낸다.<sup>3)</sup>

그때가 옳은가, 지금이 옳은가 :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이 따로 없고, 즐거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sup>4)</sup>

목침을 밀어치웠다 : 괴로움과 즐거움이 하나의 근원인 경지를 나타낸다.

快活云云者，樂到底也；苦苦者，苦到底也。當時是如今是云云者，苦外無樂，樂外無苦也。推出枕头者，苦樂一源處也。

자운원조(慈雲圓照)의 송

달고도 다니 철저하게 달고,  
쓰고도 쓰니 뿌리까지 쓰다.<sup>5)</sup>

3) 쾌활하다면 오로지 쾌활할 뿐이고 괴롭다면 오로지 괴로울 뿐 다른 어떤 것의 보조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각 그 자체로 철저하게 본분의 관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4) 교학적인 관념을 화두에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頌古聯珠通集』 권16 卍115 p.195b11, 『宗鑑法林』 권19 卍116 p.278b5 등의 공안집에는 1구와 2구가 “단 오이는 꼭지까지 달고, 쓴 박은 뿌리까지 쓰다(甜瓜徹蒂甜, 苦瓠連根苦)”라고 되어 있다. 그 취지는 본칙의 〈설화〉와 같다. 주석3) 참조.

목침 치우고 일어나는 아침,

신라에서는 밤 북<sup>6)</sup>을 치네.<sup>7)</sup>

〈이 공안은 백마담조(白馬曇照)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sup>8)</sup>〉

圓照頌, “𡵓𡵓徹底𡵓, 苦苦連根苦. 拈起枕頭時, 新羅夜打鼓.” 〈此錄白馬.〉

[설화]

괴롭다면 철저하게 괴롭고 즐겁다면 철저하게 즐거워야 한다는 뜻이다.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에 있어 (중국의 아침에) 밤 북을 치는 것이니, 어둠 속에 밝음이 있다는 뜻이다.

圓照: 苦到底, 樂到底也. 新羅在海東, 夜打鼓, 則暗中有明也.

## 보령수의 염

“옳기는 옳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살아 있을 때는 대단히 애매모호했고 죽은 다음에는 대단히 흐리멍덩했다. 만일 콧대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려면<sup>9)</sup> 그릇과 수저 그리고 남은 국과 선밥은 집어서 한 구

---

6) 야고(夜鼓). 옛날에 야간 순찰을 돌며 치던 북.

7) 아침과 밤이 동시에 한 장소에 일어날 수 없듯이 중국의 아침과 신라의 밤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철저하다는 말. 곧 제1구, 제2구의 뜻이 제3구, 제4구에서 다른 비유로 반복되고 있다. 차별된 현상이지만 지향하는 뜻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설화〉의 해설과 같이 밤과 아침의 연기론(緣起論) 또는 존재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8) 『建中靖國續燈錄』 권28 卍136 p.384b6에는 이 공안의 주인공이 천황도모가 아니라 백마담조로 되어 있고, 자운원조의 계송도 주석5)에 제시한 문헌의 1~2구와 차별된다.

9) 비공요천(鼻孔撩天).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본래면목의 핵심을 상징

석에 던져 놓고, 뜨거운 난로 위의 호떡을 먹고 싶으면 바로 먹었을 것이다. 알겠는가? 사람은 뿌리와 줄기가 없으므로 음식을 생명의 수단으로 삼는다.”

保寧秀拈, “得卽得, 點檢將來, 這漢, 生前顛顛預預, 死後莽莽鹵鹵. 若要鼻孔撩天, 瓦椀竹筴, 殘羹餽飯, 拈放一邊, 熱爐餠餅, 要請便請. 還會麼? 人無根株, 以食爲命.”

[설화]

천황의 남은 국과 된밥은 열기가 없는 난로 위의 호떡과 같다. 호떡은 생명을 이어가는 뿌리이지만 남은 국과 된밥 역시 생명을 이어가는 뿌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뜻이다.<sup>10)</sup>

保寧：天皇殘羹餽飯, 似無熱爐胡餅. 胡餅乃命之根株, 又焉知殘羹餽飯, 亦是命之根株.

---

한다.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독립적 기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 10) 남은 국과 된밥은 생전에 늘 써먹던 오래된 ‘쾌활’을 가리키며, 뜨거운 난로 위의 호떡은 입적하기 전에 ‘괴롭다’고 제시한 말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본분의 식량이므로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할 것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359칙 瀉山無心 위산무심





### 359칙 위산무심 瀉山無心

#### [본칙]

위산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도란 어떤 것입니까?” “무심이 도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모르는 바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대 자신이며 별 다른 사람이 아니다.” 위산이 다시 말했다. “여기 눈앞에 있는 누구라도 다만 모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처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몸소 알아차리면 될 뿐이다. 만일 자기 밖에서 구하여 하나하나씩 알고 이해하는 것을 선(禪)의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면 본질과 전혀 관계 없이 된다. 그것은 똥을 안으로 퍼 들이는 것이라 하며 똥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라 하지 않으니, 그대들의 마음이라는 밭[心田]을 더럽히게 되는 까닭에 도가 아닌 것이다.”

瀉山因僧問, “如何是道?” 師云, “無心是道.” 僧云, “某甲不會.” 師云, “何不會取, 不會底好?” 僧云, “如何是不會底?” 師云, “祇是你, 不是別人.” 師又云, “今時人, 但直下體會取不會底, 正是你佛, 正是你心. 若向外求, 一知一解, 將謂禪道, 且沒交涉, 名運糞入, 不名運糞出, 汚你心田, 所以不是道.”

[설화]

무심이 도이다 : 도는 무심하게 사람과 합하고 사람도 무심하게 도와 합한다.<sup>1)</sup> 아래 보이는 글과 같다. 어떤 학인이 백장에게 “20년 동안 항상 똥을 제거해 왔다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백장이 대답했다. “다만 유와 무를 분별하는 견해를 쉬고,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 그 하나하나에서 삼구(三句)<sup>2)</sup>의 본질을 꿰뚫고 나가면 이것을 가리켜 똥을 제거하는 것이라 한다. 바로 지금과 같이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며 모든 법을 구하는 것은 똥을 안으로 퍼 들이는 것이라 하고 똥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라 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과 같이 부처라는 견해를 조작하거나 부처라는 이해를 지어내듯이 다만 어떤 견해든지 구하여 얻은 것이나 집착하는 대상이 남아 있기만 하다면 이 모든 것이 희론(戲論)이다.”<sup>3)</sup>

無心是道者，道無心合人，人無心合道也。下如文。僧問百丈，

- 1) 동산양개(洞山良价)의 말. “도는 무심하게 사람과 합하고, 사람 또한 도와 무심하게 합한다. 이 말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는 늙었고, 다른 하나는 늙지 않았다.”(『景德傳燈錄』 권29 「無心合道頌」 大51 p.452c21. 道無心合人，人無心合道。欲識箇中意？一老一不老。) ; 경청도부(鏡清道忞)는 ‘도는 무심하게 사람과 합한다’라는 구절에 대하여 “구름이야 잠깐 푸른 산으로 왔다가지만 밝은 달이 어찌 푸른 하늘에서 내려오딘가!”(같은 책 권18 p.349b29. 白雲乍可來青嶺，明月那教下碧天!)라고 풀었다. 『禪門拈頌說話』 699則 참조.
- 2) 중지를 나타내는 구절. 본서 1則 주석57) 참조.
- 3) 황벽희운(黃蘗希運)은 백장의 뜻을 이어 이렇게 말한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우리가 조작해낸 망령된 견해이다. 다만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견해를 조작하는 것이다. 부처라는 견해를 조작하자마자 부처에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조작하자마자 중생에 가로막힌다.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조작하고 깨끗하다·더럽다는 등의 견해를 조작한다면 모두 바로 그것의 장애가 되어버린다.”(『宛陵錄』 大48 p.384c5. 佛與衆生，盡是汝作妄見。只爲不識本心，謾作見解。纔作佛見，便被佛障，作衆生見，被衆生障。作凡作聖，作淨作穢等見，盡成其障。)



“二十年中，常令除糞，意旨如何？”丈云，“但息有無知見，見一切貪求，箇箇透過三句外，是名除糞。只如今求佛，求菩提，求一切法，是名運糞入，不名運糞出。只如今，作佛見，作佛解，但有所見，所求所著，盡是戲論也。”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위산이 이렇게 한 말 또한 똥을 마음이라는 말로 끌어들인 것이니 어찌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고, 주장자로 한 획을 그으며 말했다. “그대들에게 들어온 똥을 모두 밖으로 퍼내주었다.”

法眞一拈，“瀉山與麼說話，亦是運糞入心田，爭得不汚！”師以拄杖一畫云，“與你運出了也。”

#### [설화]

모르는 바로 그것을 몸소 알아차리라는 말 자체가 다름 아닌 똥을 마음이라는 말로 퍼 들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주장자로 한 획을 그은 것 또한 한 획을 굿듯이 끊어 없애야 한다는 뜻을 담은 동작이다.

法眞：體會取不會底處，此是運糞入心田也。以拄杖一畫者，亦須畫斷也。

### 심문담분(心聞曇飡)의 염

“위산이 이렇게 한 말 자체가 바로 똥을 안으로 퍼 들이는 것이며 밖으

로 퍼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해 왔으니, 모른다는 바로 그것도 결코 알 필요가 없다. 이제 말해 보라! 똥을 밖으로 퍼낼 수 있는가? 이 또한 정주(鄭州)로 가기 위해 조문(曹門)에서 출발하는 격이다.<sup>4)</sup>

心聞貴拈, “大瀉恁麼說, 正是運糞入, 不名運糞出. 萬年道, ‘不是心, 不是佛.’ 不會底, 更不須會. 且道! 還運糞得出麼? 也是鄭州出曹門.”

# [설화]

위산이 이렇게 한 말 ~ 퍼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앞의 공간에서 해석한 취지와 같다.

나는 항상 ~ 알 필요가 없다 : 또한 반대로 뒤집어야 한다.

똥을 밖으로 퍼낼 수 있는가 ~ 출발하는 격이다 : 만일 반대로 뒤집는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바로 그것에 철저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sup>5)</sup>

4) 조문(曹門)은 변성(汴城) 곧 북송의 수도로서 지금의 개봉시(開封市) 동쪽에 있는 제일문(第一門)이다. 양(梁)나라 개원 원년(713)에 건양문(建陽門)으로 이름을 고쳤고, 진(晉)나라 천복 3년(938)에 다시 영춘문(迎春門)으로 이름을 고쳤다. 정주(鄭州)는 하남성(河南省)의 성도(省都)로 변성의 서쪽에 있다. 따라서 정주로 가기 위해서 조문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므로 ‘사리에 맞지 않는 짐작’을 나타낸다.

5) 위산의 말을 반전(反轉)시키는 말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반전시켜 안주할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라는 뜻이다. 불해석계심월(佛海石溪心月)이 이 공간에 대하여 평가한 말도 이러한 취지이다. “불해가 말했다. ‘그 학인은 비록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바른 원인은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시·비, 유·무, 이해함·이해하지 못함, 자기 자신·별다른 사람 등은 모두 양변을 나타내는 말 이상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학인으로 하여금 본분의 핵심을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정이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心聞：至運糞出者，如前話中所釋也。萬年至更不須會者，亦須轉却也。還運糞得出麼云云者，若轉却則又便不是了也。然則不會處徹底，更無後事也。

---

것이다. 「모른다는 바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단지 「내려놓아라!」고 말해주고, 그가 머뭇거리면 곧바로 불자(拂子)로 입을 틀어막았을 것이다.”(『拈八方珠玉集』 권상 卍119 p.209a6. 佛海云, ‘這僧雖無孔竅, 卻有正因. 大凡是非有無, 會與不會, 你與別人, 總不出兩頭語. 所以令者僧, 卒討頭鼻不著. 報恩不然. 「如何是不會底?’」只向道, 「放下著!」纔擬議, 拂子蓦口打.’)





399칙 寰中識病 환중식병





### 399칙 환중식병 寰中識病

#### [본칙]

대자산의 환중선사가 범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산승은 질문에 대답할 줄 모른다. 단지 병을 알 뿐이다.” 그때 어떤 학인이 앞으로 나오자 대자는 곧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大慈山, 寰中禪師, 上堂云, “山僧不解答話. 只是識病.” 時有僧出, 師便歸方丈.

#### [설화]

병이란 부처에 집착하는 병[佛病]과 조사에 집착하는 병[祖病] 등을 말한다.<sup>1)</sup> 어떤 학인이 나온 것은 병인가, 병이 아닌가? 대자가 방장으로 돌

- 
- 1) 불병(佛病)과 조병(祖病)이라는 말은 조사선(祖師禪) 이후에 쓰이는 용어이다. “그런 까닭에 옛사람은 부처님의 경지로 향상하는 도리를 물을 경우 ‘부처가 아니다’라 대답하고, 또한 ‘방편으로 부처라 부른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곧 견성성불이야말로 통발이나 울무와 같은 속박인데, 이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러니 저러니 지시하고 말하는 것일까? 반드시 빈틈없이 계합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비로소 깨끗이 씻은 듯이 떨어져 나갈 것이니, 더 이상 무슨 열반을 증득하거나 생사와 계합한다는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말만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이렇게 한 말도 궁극적인 법도라고 취하지 말아야 비로소 불병과 조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圓悟語錄』 권15 「示諸禪人」 大47 p.784c5. 所以, 古者問佛向上, 答非佛, 又答, 方便呼爲佛. 則見性成佛, 乃筌

아간 것은 병을 안 것인가, 병을 알지 못한 것인가?<sup>2)</sup>

病者, 佛病祖病等也. 有僧出者, 是病不是病? 便歸云云, 是識病不是識病?

## 법안의 엄

“대중들 중에는 ‘병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法眼拈, “衆中喚作, 病在目前不識.”

[설화]

대자가 그렇게 한 행위가 병을 몰랐던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대자의 본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法眼: 大慈伊麼, 似不識病, 伊麼會, 不是大慈意也.

---

蹄爾, 是中, 云何指東畫西? 直須密契, 自能將護, 方得灑灑落落, 更說甚證涅槃契生死! 皆增語也, 雖然, 只山僧怎麼道, 也未可取爲極則, 始免佛病祖病.)

- 2) <설화>에서 즐겨 쓰는 배촉관(背觸關)에 따르는 해설이다. 학인은 다만 앞으로 나왔을 뿐이고 대자는 돌아갔을 뿐 그밖에 어떤 말이나 분별을 붙일 여지는 없다. 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을 화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촉관이다. 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觸] 병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背]고 봄으로써 이 문답은 화두의 관문으로 재생된다. ‘현각의 징’에 보이는 뜻이다.



## 현각의 징

“말해 보라! 대자는 병을 알았던 것일까,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 학인이 나온 것은 병인가, 병이 아닌가? 만일 병이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가고 머무는 행위들이 모두 병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틀린 말이며,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온 것은 또한 무엇이겠는가?”

玄覺徵, “且道! 大慈識病不識病? 此僧出來, 是病不是病? 若言是病, 每日行住, 不可慙是病; 若言不是病, 出來, 又作麼生?”

### [설화]

병을 알았던 것일까, 알지 못했던 것일까 : 대자에게도 병에 응하여 악을 주는 뜻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 학인이 나온 것은 ~ 또한 무엇이겠는가 : 만일 병이라 한다면 그 학인에게 어떤 병이 있었던 것이며, 만일 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자가 방장으로 돌아간 것은 병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니, 대자가 방장으로 돌아간 뜻은 또한 무엇이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玄覺：識病不識病者，亦有應病與藥之義也。此僧云云者，若言是病，這僧有什麼病？若言不是病，大慈歸方丈，不是識病，大慈歸方丈，又作麼生？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대체로 근본적인 가르침을 일으켜 세우려면 득과 실을 가려내야 한다.”<sup>3)</sup>

대자는 병만 알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했고, 그때 어떤 학인이 앞으로 나오자 대자는 곧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나라면 병은 알지만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는다고 한 다음, 만일 어떤 학인이 나온다면 그의 등을 겨누고 곧바로 때렸을 것이다. 여러 선문(禪門)에서도 병은 알지만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 어떤 학인이 앞으로 나오면 틀림없이 그것에 대응하는 별도의 묘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당나라의 천자와 더불어 세 사람이 있을 뿐이다.<sup>4)</sup>”

雪竇顯拈, “大凡扶豎宗乘, 須辨个得失. 且大慈識病不答話, 時有僧出, 便歸方丈. 雪竇識病不答話, 或有僧出, 劈脊便打. 諸方識病不答話, 有僧出, 必然別有長處. 敢有一个動着, 大唐天子只三人.”

#### [설화]

그의 등을 겨누고 곧바로 때렸을 것이다 : 대자가 방장으로 돌아간 행위가 분명하게 밝힌 점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여기서 득과 실을 분명히 가려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선문에서도 ~ 묘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반드시 제3의 공안<sup>5)</sup>이 있다는 뜻으로 아래에서 해인초신(海印超信)이 ‘차나 마시게’라고 한 말이 그 예이다.

3) 득과 실이 없는 경계에서 득과 실을 가려내라는 말이니, 시험을 위한 덫이요 함정이며 본분 화두의 속임수이다.

4) 화두라는 그 본래의 입장을 벗어나 비본질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대자환종과 설두 자신일 뿐이라는 뜻. 당나라의 천자는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덧붙여진 말로 해석된다. <설화> 참조.

5) 대자나 설두와 다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두 선사가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규정된 방식에 따르지 않았듯이 제3·제4의 공안도 가능하다.

당나라의 천자와 더불어 세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잘 알 수는 없으나, 『조정사원』 23장<sup>6)</sup>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선(禪)에는 대위,<sup>7)</sup> 시(詩)라면 주박,<sup>8)</sup> 당나라의 천자 바로 이 세 사람이 있을 뿐이로다.’ 주박의 「벽왕소어소설(辟王巢語小說)」을 참조하라.” (이 세 사람이)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다.<sup>9)</sup>

雪竇：劈脊便打者，大慈歸方丈，似乎無辨白故，此須辨得失也。諸方識病至長處者，須有第三公案，下海印信云，‘喫茶去。’是也。大唐天子云云者，未詳，祖庭二十三丈云，“禪是大滄詩是朴，大唐天子只三人。見周朴辟<sup>10)</sup>王巢語小說。”云李杜也。

## 대우수지(大愚守芝)의 염

“그 학인은 앞으로 나왔고 대자는 곧바로 방장으로 돌아갔으나, 양자에 도리라고는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떤 언행이 병을 알아차린 부분일까? 지금이라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sup>11)</sup>”

6) 『祖庭事苑』 권2 ㄱ113 p.38b16 참조. 『佛果擊節錄』 권2 ㄱ117 p.479a10에 따르면, 이 인용문은 주박이 대위에게 준 시이다. “주박이 대위에게 바친 시에는 ……”(周朴贈大滄詩云, ……)

7) 大滄. 위산영우(滄山靈祐 771~853)를 높여 부르는 말.

8) 周朴(?~878). 이 말을 한 주박 자신을 가리킨다. 자는 견소(見素) 또는 태박(太朴). 복주(福州) 장락(長樂) 출신. 『全唐詩』에는 오흥(吳興) 출신이라고 되어 있다. 황소(黃巢)의 난 때 반란군이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크게 웃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

9) 이백과 두보와 같이 걸출한 인물로 분류된다는 뜻인지 전후의 맥락이 불확실하다.

10) 『祖庭事苑』 권2 ㄱ113 p.38b17에는 ‘辟’이 ‘解’자로 되어 있다.

大愚芝拈, “這僧出來, 大慈便歸方丈, 並無个道理. 什麼處是識病處? 如今也須子細.”

[설화]

방장으로 돌아간 것에 도리가 없는 듯하지만 있다는 것이니, 병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대자의 본의를 등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大愚: 歸方丈, 似無道理也, 若言不識病, 辜負大慈.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설두가 ‘등을 겨누고 곧바로 때렸다’라 한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앞으로 나왔다면 그에게 ‘차나 마시게’<sup>11)</sup>라고 말했을 것이다.”

海印信, 上堂, 舉此話, 連舉雪竇云, ‘劈脊便打.’ 師云, “薦福卽不然. 忽有人出來, 向道喫茶去.”

### 황룡조심(黃龍祖心)의 거

“안타깝다, 그가 하는 그대로 놓아두다니! 당시에 만일 그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등을 겨누어 곧바로 때리고서 그가 몽둥이질한 이유

---

11) 이들의 말과 행위에 어떤 도리도 없었다면, 그것에 도리가 있다고 예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바로 병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단지 병을 알 뿐”이라고 한 대자의 말 자체가 인식할 어떤 도리도 없는 화두로 제기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우는 자세히 밝힐 도리가 없는 곳에서 밝히려는 관문(關門)을 제기한 결과가 된다.

12) 앞으로 나온 자의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의미 없이 던진 말(화두)이다.

를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남들에게 점  
검당하는 꼴은 모면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병도 알고 질문에 대답할 줄도  
안다. 만일 대단한 기개를 가진 자<sup>13)</sup>가 나와서 선상(禪床)을 뒤집어엎었  
다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 상좌들이 시험 삼아 상황을 반전시  
키는 한마디 말을 나 대신 해 보라.”

黃龍心，舉此話云，“可惜，放過！當時，若見伊才出來，劈脊便  
打，待他得知行棒來處，免見千古之下，遭人點檢。黃龍今日  
也識病，會答話。忽若有个漢出來，掀倒繩床，者裏合作麼生支  
遣？請上座，試代一轉語。”

#### [설화]

등을 겨누어 ~ 꼴은 모면했을 것이다 : 득과 실을 분별해 보라는 뜻이니 이것  
이 바로 병을 아는 것[識病]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제 ~ 대답할 줄도 안다 : 병을 안다는 것은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뜻  
이고, 질문에 대답할 줄 안다는 것은 엄정한 범령을 남김없이 제기한다는  
뜻이다.

선상을 뒤집어엎다 : 하나하나 모두 쏘아 없앤다는 뜻이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마디 말을 나 대신 해보라 : 30방을 때려 내쫓으라는 뜻  
이다.

황룡의 말을 이해했는가? 아래서 천동이 제시한 뜻도 이와 같다.

黃龍：劈脊云云者，辨箇得失也，是識病也。黃龍今日云云者，  
識病則應病與藥，答話則全提正令也。掀倒禪床者，一一掃蕩

13) 개한(个漢·箇漢·個漢).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선문헌에서는 본분을 깨우친 납  
자(納子) 또는 납자로서의 기개가 넘치는 자를 말한다.

也. 代一轉語者, 打三十棒趲出去. 還契得黃龍麼? 下天童意, 與此同.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시중

이 공안과 더불어 설두가 ‘등을 겨누고 곧바로 때렸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자와 설두 두 선사는 모두 작가였지만, 문제는 눈앞의 일만 돌아보았을 뿐 다리 아래 닳친 위험은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일 좋고 싫은 분별도 없고 동쪽과 서쪽의 차별도 따지지 않는 기개가 넘치는 납자가 앞으로 나와서 선상을 뒤집어엎었다면, 설령 온전한 기틀을 남김없이 활용했더라도 아마도 당황하여 손발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바로 이러할 때 병을 식별하는 안목을 갖출 수 있겠는가?”

天童覺, 示衆, 舉此話, 連舉雪竇云, ‘劈脊便打.’ 師云, “大慈雪竇, 二俱作家, 要且, 只顧目前, 不防脚下. 或有个不識好惡, 不問東西底漢, 出來便掀倒禪床, 直饒你全機大用, 也只恐着手脚不辨. 正當與麼時, 還有識病底眼麼?”



411칙 趙州喫茶 조주깁다







## 411칙 조주각다 趙州喫茶

### [본칙]

조주가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차나 마시게!” 이번에는 다른 학인에게 물었다.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차나 마시게!” 원주가 물었다. “어째서 온 적이 있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시고, 온 적이 없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고 하십니까?” 조주가 “원주!” 하고 부르자 원주가 “예!” 하고 응답했다. 이에 조주가 말했다. “차나 마시게!”

趙州問僧, “曾到此間否?” 僧云, “曾到.” 師云, “喫茶去!”  
又問僧, “曾到此間否?” 僧云, “不曾到.” 師云, “喫茶去!”  
院主問, “爲什麼, 曾到也教伊喫茶去, 不曾到也教伊喫茶去?” 師召院主, 主應喏. 師云, “喫茶去!”

### [설화]

‘이곳’이란 조주화상이 주석하고 있는 이곳을 말한다. ‘온 적이 있다’는 것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학인을, ‘온 적이 없다’는 것은 미혹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인을, 원주는 깨달았거나 미혹되었거나 그 어느 편 of 생각에도 빠지지 않은 학인을 나타낸다.

모두에게 ‘차나 마시게’라고 말한 것 : 미혹된 자는 깨닫도록 하고, 깨달은 자는 미혹되도록 하며, 미혹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자는 미혹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보는 안목을 바꾸어 버리는 방법이다. 또한 미혹된 자는 미혹된 그대로 놓아두고, 깨달은 자는 깨달은 그대로 놓아두며, 미혹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자는 미혹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은 그대로 놓아둔다. 이것은 파도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르고, 죄인이 실토한 말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다. 『충수록』<sup>1)</sup>에서는 “성문인에게는 모든 해인삼매(海印三昧) 중에서 사제(四諦)의 법을 주고, 연각인에게는 모든 해인삼매 중에서 연생(緣生)의 법을 주며, 보살인에게는 모든 해인삼매 중에서 육도(六度)의 법을 주고, 근기가 성숙한 돈교인 중 과거세에 본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또한 모든 해인삼매 중에 있는 모든 법을 준다”라고 했다. 이는 있는 그대로 모두 펼치는 가풍(平展家風)이다. 천동의 송에 ‘가풍을 있는 그대로 펼치지 않았다면, 어찌 파도와 물결의 흐름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총림에서 납승을 마주하고 날씨를 소재로 올리는 인사말과 같다. 고인의 송에 ‘화산은 북을 두드릴 줄 알고,<sup>2)</sup> 조주는 차를 마시라 한다’라고 운운한 바로 이 말들은 본분 사로써 학인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此間者, 和尚這裏也. 曾到, 悟地僧; 不曾到, 迷地僧; 院主迷

1) 『法界圖記叢錄』大45 p.719a21의 인용이다.

2) 화산타고(禾山打鼓). ‘대오대철(大悟大徹)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진제(眞諦)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향상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라는 네 차례의 물음에 대해 화산이 한결같이 ‘북을 두드릴 줄 안다’(解打鼓)고 답한 일화에서 나온 말. 『禪門拈頌說話』1181則, 『碧巖錄』44則「本則」大48 p.180c21 참조.

悟不干地僧也. 皆云喫茶去者, 迷者打教悟, 悟者打教迷, 不迷不悟者, 打教亦迷亦悟. 此則換却眼睛也. 又迷者從教迷, 悟者從教悟, 不迷不悟者, 從教不迷不悟. 則隨波逐浪, 據款決案也. 叢髓錄云, “聲聞人中, 與全海印四諦之法; 緣覺人中, 與全海印緣生之法; 菩薩人中, 與全海印六度之法; 至於熟頓人中, 過去本分人也, 亦全全與之爾.” 則平展家風也. 天童頌曰, ‘且非平展家風, 豈是隨波逐浪!’ 則叢林中對衲僧寒暄而已. 古人頌云, ‘和<sup>3)</sup>山打鼓, 趙州茶<sup>4)</sup>云云’ 此是本分事接人也.

##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백토와 지마<sup>5)</sup>가 어찌 진귀하다 하리오?

북방 사람<sup>6)</sup>은 누구를 만나도 정성껏 대한다네.<sup>7)</sup>

3) ‘和’는 ‘禾’자의 오식.

4) ‘茶’ 앞에 ‘喫’자가 탈락되었다.

5) 백토(白土)와 지마(脂麻). 어디서나 마시는 평범한 차를 대표하며, 조주가 세 번 권했던 차 곧 특별한 맛이 없는 몰자미(沒滋味)의 차를 나타낸다. 지마는 유마(油麻)·지마(芝麻)·호마(胡麻) 등이라고도 한다.

6) 조주를 가리킨다. 조주는 산동성에서 태어나고 하북성 조주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조주를 가리켜 북방 사람[北人]이라고 한 것이다.

7) 귀한 차를 권하지는 않았지만 ‘차나 마시게’라고 한 조주의 말은 남김없이 진실만 담은 화두였다는 뜻. 북방인과 남방인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활용한 구절이다. “남방 사람은 손님이 와도 맞이하지 않고 만나면 손을 들어 올릴 뿐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으며 손님을 보낼 때에도 자리에서 내려올 뿐이다. 반면 북방 사람은 손님을 맞이하건 보내건 대문까지 나가보고 만나면 고개 숙여 인사한다.

지금 만약 말귀 알아듣는 선타파<sup>8)</sup>가 온다면,  
특별히 연고<sup>9)</sup> 끓여 최상의 손님으로 대접하리.

大覺璉頌, “白土和麻詎足珍? 北人相見話殷勤. 如今若遇仙  
施至, 別煮研膏待上賓.”

# [설화]

이렇게 이 사람에게에도 올리고 저 사람에게에도 올리는 차가 백토와 지마

이는 모두 옛날부터 이어온 법도이다.”(『顔氏家訓』「風操」, 南人賓至不迎, 相見捧手而不揖, 送客下席而已; 北人迎送并至門, 相見則揖, 皆古之道也.)

- 8) 仙陁婆. 조주가 ‘차나 마시게’라고 세 번에 걸쳐 똑같이 한 말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타파라는 용어는 원래 말이 지시하는 본래의 뜻을 상황에 따라 잘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타파(禪陀婆)·선타파(先陀婆)·선타객(先陀客) 등이라고도 하는데, ㉠saindhava, ㉡sindhava를 음사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원래 ‘신도에서 생산되는[信度所産]’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고대 인도의 신도(信度: 辛頭 ㉠Sindhu) 지방에서 ‘소금·그릇·말·물’ 등 네 종류의 명산품을 생산한 데서 유래한다. 그 뒤 뜻이 바뀌어 네 종류의 명산품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다. 곧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지시하는 뜻이 된다. “여래의 은밀한 말씀은 대단히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비유하자면 대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선타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선타파란 하나의 이름에 들어 있는 네 가지 실물을 말한다. 첫째는 소금, 둘째는 그릇, 셋째는 물, 넷째는 말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물의 이름이 하나로 같지만 지혜로운 신하는 이 이름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잘 안다. 왕이 몸을 씻을 때 선타파를 찾으려면 물을 바치고,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선타파를 찾으려면 소금을 바치며, 왕이 식사를 마치고 무언가 마시고 싶어 할 때 선타파를 찾으려면 그릇을 바치고, 왕이 유람을 할 때 선타파를 찾으려면 말을 바친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신하는 대왕이 내린 네 가지 종류의 은밀한 말을 잘 이해한다.”(『大般涅槃經』 권9 大12 p.662b17. 如來密語, 甚深難解. 譬如大王告諸群臣先陀婆來. 先陀婆者, 一名四寶. 一者鹽, 二者器, 三者水, 四者馬, 如是四物, 共同一名, 有智之臣, 善知此名, 若王洗時, 索先陀婆, 即便奉水; 若王食時, 索先陀婆, 即便奉鹽; 若王食已, 欲飲漿時, 索先陀婆, 即便奉器; 若王遊時, 索先陀婆, 即便奉馬. 如是智臣, 善解大王四種密語.)

- 9) 研膏. 용뇌(龍腦)·사향(麝香) 등의 고급 향료가 첨가된 차.

이고, 또한 연고와 다른 것이다. 백토와 지마는 흔히 마시는 차 이름 또는  
과차<sup>10)</sup> 이름이다. 연고 또한 차 이름이다.

大覺：此東獻西獻地，是白土和麻，亦是別研膏也。白土和麻，  
常茶名，又果茶名。研膏，亦茶名。

###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학인들을 만나서 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온 적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했다네.  
자리에 앉혀 차 마신 뒤 인사하고 보내니,  
검푸른 안개가 은근히 녹색 이끼 바꾸네.

投子青頌，“見僧便問曾到否，有言曾到不曾來。留坐喫茶珍重  
去，青煙暗換綠紋苔。”

[설화]

눈동자를 바꾸는 뜻을 나타낸다.

投子：換却眼睛之意。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총림의 종장<sup>11)</sup>도 진실로 덧붙일 수 없으니,<sup>12)</sup>

- 
- 10) 果茶.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갖은 곡식과 과일을 넣어서 만든 차, 둘째는 차  
에 곁들이는 과자이다.
- 11) 宗匠. 종사(宗師)와 같은 말. 종지를 깨우쳐 학인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  
에 선 자. 장인(匠人)이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듯이 학인을 뛰어난 수행자

일에 임하여 어찌 차등이 있었겠는가?

처음 왔건 오래 머물렀건 상관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은 오로지 한 잔의 차였다네.

薦福逸頌, “叢林宗匠實難加, 臨事何嘗有等差? 任是新來將  
舊住, 殷勤祇是一甌茶.”

[설화]

있는 그대로 모두 펼치는 가풍을 나타낸다.

薦福: 平展家風.

###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세 등급 나눠 잔 올리고 예의 온전히 갖추었으나,

그 자리에서 추한 것 고운 것 가릴 자 누구인가?<sup>13)</sup>

돌다리<sup>14)</sup> 건너 허름한 절<sup>15)</sup>에는 맛난 차 없으니,

---

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匠'이라 한다.

12) 조주가 '꺾다거'라 한 말은 온전히 실현된 화두이기에 그 이상으로 덧붙일 말도  
떨어낼 말도 없다는 뜻.

13)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똑같이 응한 조주의 화두에는 추하다거나 곱다거나 하  
고 가려낼 분별의 단서가 없다는 말. 『頌古聯珠通集』 권20 卍115 p.240b8에는  
'똑같이 고르게 따르고 결코 치우치지 않았으니'(一般平挹更無偏)라고 되어 있  
다. 1구에서 '세 등급'이라 하였지만 사실은 등급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취지는 다르지 않다.

14) 석교(石橋). 하북성 조주 지방의 명물이며 관음원과 10리 거리에 떨어져 있다.  
“나이 80이 되어 비로소 석교와 10리 거리에 있는 조주성의 동관음원에 주석하  
였다.”(『趙州行狀』古尊宿語錄13 卍118 p.304b10. 年至八十, 方住趙州城東觀音院, 去  
石橋十里.) 이 석교는 조주선사의 화두로도 유명하다.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물

유마<sup>16)</sup>를 섞어 한 가지 방법으로 차를 끓인다네.

蔣山泉頌, “三等擎甌禮數全, 誰能覲面辨媿妍? 石橋破院無  
珍品,<sup>17)</sup> 且夾油麻一例煎.”

[설화]

드러난 이야기 자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니,<sup>18)</sup> 취암종열(翠巖宗悅)·황룡혜남(黃龍慧南)·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頌)과 나머지 다른 송이 모두 이러한 예이다.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얕으며 어떤 것은 깎아내리고 어떤 것은 치켜세워서 말은 비록 다른 듯이 보이지만 그 취지는 동일하다.

蔣山：據款結案，翠巖黃龍天童，與餘頌，皆此例。或深或淺，或抑或揚，言雖似別，其旨一也。

었다. ‘조주의 돌다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왔는데, 막상 와 보니 외나무다리만 보이는군요.’ ‘그대가 단지 외나무다리만 보고, 조주의 돌다리는 보지 못한 탓이다.’ ‘조주의 돌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건너오라!’ 또 다른 학인이 이전과 같은 질문을 하자 조주도 이전과 같이 대답했다. 학인이 물었다. ‘조주의 돌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나귀도 말도 건너게 하느니라.’ ‘외나무다리란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씩 별도로 건너게 한다.’(『景德傳燈錄』 권10 「趙州從諗傳」 大51 p.277c12. 僧問, ‘久嚮趙州石橋, 到來只見掠約.’ 師云, ‘汝只見掠約, 不見趙州橋.’ 僧云, ‘如何是趙州橋?’ 師云, ‘過來!’ 又有僧同前問, 師亦如前答. 僧云, ‘如何是趙州橋?’ 師云, ‘度驢度馬.’ 僧云, ‘如何是掠約?’ 師云, ‘箇箇度人.’)

15) 파원(破院). 조주가 주석했던 관음원(觀音院)을 가리킨다. 평범한 차막에 없다는 구절과 조응한 표현이다.

16) 주석5) 참조.

17) ‘品’이 『頌古聯珠通集』에는 ‘味’로 되어 있다.

18) 문답한 상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송으로 옮겼다는 말.

## 취암종열(翠嵒宗悅)의 송

조주가 차 마시라는 화두를 남겼는데,  
밝은 눈의 납승들 모두 속아서 들먹이네.  
속아서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니,  
북 칠 줄 안다고 한 화산의 말도 우습구나.

翠嵒悅頌, “趙州有語喫茶去, 明眼衲僧皆賺舉. 不賺舉未相  
許, 堪笑禾山解打鼓.”

## 황룡혜남(黃龍慧南)의 송 1

조주는 학인을 단적<sup>19)</sup>인 방법으로 점검하니,  
무심코 입을 열지만 곧바로 그 뜻 안다네.  
눈앞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눈이 없다면,  
종풍이 어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겠는가!

黃龍南頌, “趙州驗人端的處, 等閑開口便知音. 覲面若無青白  
眼, 宗風爭得到如今!”

## 황룡혜남의 송 2

만나서 물으면 상대의 내력을 알고,  
친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권했다네.

---

19) 端的. 분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 조주의 깃다거 화두는 다른 매개에 의존하지 않고 본분을 뚜렷이 드러내 보인다는 말.



끊임없이<sup>20)</sup> 오가며 허둥대던 자들 거듭 떠올려보니,  
가득 핀 찻그릇의 꽃<sup>21)</sup>을 누가 바르게 분별했던가?

又頌, “相逢相問知來歷, 不揀親疎便與茶. 翻憶憧憧來往者,  
忙忙誰辨滿甌花.”

###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조주가 차 마시라 한 말에,  
납승들 모두 어리둥절하네.  
눈치 빠른 선타과일지라도  
지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시 없어도 차나 마시면 되리라.<sup>22)</sup>

海印信頌, “趙州喫茶去, 衲僧皆罔措. 任是仙陀婆, 未免遭指  
注, 非指注喫茶去.”

###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sup>23)</sup>

석 잔의 차로 몸소 가풍 널리 퍼뜨리니,  
멀건 가깝건 높건 낮건 한길로 통하네.

20) 동동(憧憧). 오고감이 끊어지지 않는 것 또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묘사한다.

21) 구화(甌花). 차를 끓일 때 그릇에 일어나는 하얀 포말을 형용하는 말.

22) 그 뜻을 알고자 한다면 자세한 말을 들어야 하지만, 지시가 없다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권하는 차를 마시면 바로 그곳에 조주의 뜻이 있다.

23) 깎다거 한마디에 모든 도리를 담았기에 조주가 권한 이 차 한 잔의 뜻을 모르면 그 의중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취지의 송.

맑은 향기 말지 못하고 오가는 자들 중,  
동원 서쪽에 거주하는 그를 누가 알까?<sup>24)</sup>

東林總頌, “三<sup>25)</sup> 甌茶自振家風, 遠近高低一徑通. 未薦清香往  
來者, 誰諳居止院西東.”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누구나 조주를 찾아왔지만,  
차 마시라는 말만 들었네.  
까닭 모르던 원주 어리둥절하다가,  
또 한 잔 주자 그제야 알아차렸네.

法眞一頌, “人來訪趙州, 唯道喫茶去. 無端院主不惺惺, 更與  
一甌今惺悟.”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와 보았다고 하건 그렇지 않건,  
차 마시라는 말은 매양 같구나.  
기관(機關)을 붙여두지도 않고,  
펼치는 기량도 전혀 없도다.

---

24) 조주의 주석처 관음원은 동원(東院)이라고도 한다. 『景德傳燈錄』 권10 「趙州從諗傳」 大51 p.276c7 참조. 이 계송을 지은 동림상충의 다른 송에 “동원의 서쪽이 조주의 거쳐로다.”(『東林雲門頌古』 古尊宿語錄47 卍118 p.804a9, 東院西邊是趙州.) 라는 구절이 있다.

25) ‘三’은 『頌古聯珠通集』 권20 卍115 p.240b2에는 ‘一’자로 되어 있다.

가풍을 있는 그대로 펼치지 않았다면,  
 어찌 파도와 물결의 흐름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오직 간택을 꺼리고<sup>26)</sup> 분명히 밝히는 말도 없이,  
 조주 노화상의 뜻을 알아야 하리라.

天童覺頌, “到與不到, 喫茶一樣. 不着機關, 殊無伎倆. 且  
 非平展家風, 豈是隨波逐浪! 唯嫌揀擇沒分疎, 識得趙州老  
 和尚.”

## 승천회의 송

상황에 응하여 손 가는 대로 끝없이 씹먹으니,  
 처음 왔거나 다시 왔거나 한 가지 차로구나.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모조리 흘려버리니,  
 더구나 잔 속의 꽃향기 어찌 가려내리오?

承天懷頌, “應機隨手用無涯, 不到曾經一樣茶. 未入口時全漏  
 泄, 那堪更辨盞中花?”

## 지해지청(智海智淸)의 송 1

조주심노<sup>27)</sup>는 참된 선지식이었으니,  
 찾아온 누구에게나 차 마시라 했네.  
 육우<sup>28)</sup>가 선경<sup>29)</sup>을 지은 이래로,

26) 『信心銘』大48 p.376b20에 나오는 말이다.

27) 趙州諗老. 범명이 두 자일 경우 앞 글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종심(從諗)이라는 범명에서 ‘從’을 생략한 호칭이다. ‘老’는 존칭이다.

오늘에 이르도록 아무 소식도 없네.

智海清頌, “趙州諗老眞知識, 來者人人與茶喫. 自從陸羽著仙經, 直至如今絕消息.”

## 지해지청의 송2

늪어 꼬부라진 선 수행자<sup>30)</sup>는 바로 조주요,  
깍다의 분명한 화두는 딱 맞는 소식이라네.  
마구니 떠난 뒤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는데,  
공연히 귀왕을 하염없이 기다리도록 하네.<sup>31)</sup>

又頌, “老倒禪和是趙州, 喫茶端的好來由. 魔斯去後無消息,  
空使龜王望不休.”

## 황룡신의 송

조주의 깍다거 화두여!  
그 종풍이 남다르구나.  
온 적이 있든 없든 차 권하니,  
바로 낮도둑<sup>32)</sup>의 숨씨로다.

---

28) 陸羽(733~804). 자는 홍점(鴻漸). 다도(茶道)의 창시자로, 760년 중용검덕(中庸儉德)을 기조로 하는 『茶經』 3편을 지었다.

29) 仙經. 『茶經』을 이르는 말. 다신(茶神)이라 불리면서 신선(神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육우가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30) 선화(禪和). 본서 110則 주석18) 참조.

31) 귀왕(龜王)이 점치듯이 무소식의 경계에서 소식을 찾느라 쓸데없이 분별한다는 말.

黃龍新頌, “趙州喫茶! 宗風奇特. 到與不到, 正白拈賊.”

### 상방일익(上方日益)의 송

문에 들어선 다음에는 품계의 차이 따지지 않고,  
재빠른 법식으로 그들에게 한 잔의 차를 돌렸네.  
우습구나, 산동에 태어나 하북에 사는 사람이여!<sup>33)</sup>  
또 다시 차 안에다가 지마<sup>34)</sup>를 타는구나.

上方益頌, “入門曾不問階差, 雷例還他一椀茶. 堪笑山東河北  
子! 更來裏面著脂麻.”

### 승승원공(崇勝院珙)의 송

조주의 차 이야기 진실로 따지기 어려우니,  
밝은 거울에는 본래 한 점의 얼룩도 없다네.<sup>35)</sup>

---

32) 백염적(白拈賊). 대낮[白]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 조주의 깃다거라는 말 자체는 일상에서 늘 주고받는 대화 내용 중 하나이다. 이것에 본분을 은밀히 실어 화두로 설정했지만 세 사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낮도둑의 수법이라 비유한 말이다. 그것은 누구나 보고 있는 대낮에 원하는 물건을 훔치고 아무도 모르게 달아나는 도둑의 솜씨와 같기 때문이다.

33) 조주를 말한다. 주석6) 참조.

34) 脂麻. 주석5) 참조.

35) 조주의 화두는 미추(美醜)와 시비(是非)를 따지며 들어갈 틈이 없는 화두라는 말이며, 조주가 맛이 전혀 없는[沒滋味] 차를 주어 그러한 수단을 원초적으로 빼앗은 것을 얼룩 한 점 없는 거울에 비유한 것이다. 미추와 시비가 나타나면 그 대로 비추지만 그 자체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는 밝은 거울과 같기 때문이다. 도독책(塗毒策)의 다음 계송과 통하는 뜻이다. “옛 거울은 본래 한 점의 얼룩도 없

당시에 차 올린 모습 거둬 떠올려 보노라니,  
 순다<sup>36)</sup>의 마지막 공양처럼 지극 정성이었네.  
 지극한 정성이었다 해도,  
 문드러지게 씹어 한 덩어리<sup>37)</sup>로 삼킨 것과 비교하라!<sup>38)</sup>

崇勝珙頌, “趙州茶話實難論, 明鏡從來絕點痕. 翻憶當時獻供者, 純陀末後最殷勤. 最殷勤, 爭如爛嚼核輪吞!”

##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송

온 적 있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 하고,  
 처음 왔다고 해도 차나 마시라 하누나.  
 조주 지방의 노련한 선 수행자여!

---

으니, 곱거나 추한 모습에 따라 눈앞에서 갈라질 뿐.”(『頌古聯珠通集』 권2 卍115 p.20a12. 古鑑從來絕點痕, 隨其妍醜目前分.)

- 36) 純陀. ㉔Cunda.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자.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만 특별히 전단나무에서 나는 버섯으로 만든 음식을 올렸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드시고 등창을 앓다가 열반에 들었다. 『長阿含經』 권3 大1 p.18b5 참조.
- 37) 핵륜(核輪). 혼륜(渾圓·渾淪·渾崙·混淪)과 같은 말로 의미상 어떤 구분도 없고 어떤 조작도 가하기 이전의 상태로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혼돈(混沌)을 가리킨다. ‘核’은 분화되어 썩트리 이전의 단단한 씨, ‘輪’은 덩어리진 둥근 모양을 나타낸다. 모든 분별과 대립된 견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곧 언어로 전하거나 사려분별로 접근할 수 없는 경계를 가리킨다. “혼륜이란 만물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列子』「天瑞」. 渾淪者, 言萬物相渾淪, 而未相離也.)
- 38) “식당에서 죽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음식과 함께 쓸데없는 견해까지 문드러지게 씹어 한 덩어리로 삼켜버려야 한다.”(『五祖法演語錄』 古尊宿語錄 卍118 p.435a10. 堂裏喫粥喫飯, 更須爛嚼多見, 是渾圓吞却.)

달콤하게 말은 해도 속은 쓰디쓰구나.<sup>39)</sup>

마음속의 쓰디쓴 맛이여!

지금까지 남아 씻어낼 도리가 없구나.

慈受頌, “曾到喫茶去, 未到喫茶去. 趙州老禪和! 口甜心裏苦.  
心裏苦! 直至如今無雪處.”

- 39) 평상적으로 차를 권하는 말이라 그대로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지만, 그 안에는 그대로 받아 마실 수 없는 쓰디쓴 화두가 설정되어 있다. 평상의 말에 화두라는 장치가 숨어 있어 말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떤 학인이 조산에게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조산은 그들만 못하다’라 대답했고, ‘세상에 출현한 다음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음에 ‘조산만 못하다’라고 대답한 문답을 제기하고 천령범기(天寧梵琦)가 평가했다. ‘대단한 조산이여! 말은 달콤했으나 독한 마음을 감추고 있구나. 누군가 나에게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종구나!」라고 대답할 것이며, 「세상에 출현한 다음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어도 「종구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에게 두 번에 걸쳐 「종구나」라고 해주어 한평생 참구하도록 하리라.”(『列祖提綱錄』 권25 卮112 p.573b12. 復學, 僧問曹山, ‘諸佛未出世時, 如何?’ 山云, ‘曹山不如.’ 僧云, ‘出世後, 如何?’ 山云, ‘不如曹山.’ 師云, ‘大小曹山! 口甜心苦. 或有人問壽山, ‘諸佛未出世時, 如何?’ 向他道, ‘好!’ 「出世後, 如何?’ 「好!’ 與他三箇好, 且聽一生參.’) 『宗鑑法林』 권66 卮116 p.833a18에 따라 이 글의 ‘三箇好’를 ‘二箇好’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불해가 말한다. ‘자라난 싹을 보고 밭의 질을 가려내거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별하는 능력이라면 장자(長鬚)선사에게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풍속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문의 명성을 떨어뜨리지도 않은 공덕은 암주(庵主)에게 돌아간다. 장자가 「죽은 다음[百年後]에는 이 학인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달콤하게 말은 했어도 독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拈八方珠玉集』 권중 卮119 p.245a5. 佛海云, ‘從苗辨地, 因語識人, 不無長鬚. 不觸風化, 不墜家聲, 卻還庵主. 百年後討者僧也難得, 莫是口甜心苦麼?’)

## 불안청원(佛眼淸遠)의 송

조주는 한 잔의 차를 권하여,  
당행가<sup>40)</sup>를 모두 점검했다네.  
한 번이야 비록 그럴듯했지만,  
실타래처럼 얽힐 일은 어찌랴!<sup>41)</sup>

佛眼遠頌, “趙州一碗茶, 驗盡當行家. 一期雖似好, 爭免事  
如麻.”

## 목암법충(牧庵法忠)의 송

왔던 자나 처음 온 자나,  
매양 한 잔의 차 마셨네.

40) 當行家. 제방에서 수행을 하는 남승. ‘當’은 본(本)의 뜻이고, ‘行’은 가게[店]라는 뜻이다. 곧 본점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본체는 모든 장애를 벗어났고, 작용은 온전히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분명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색에 응하고 소리에 응하며, 대립도 사라지고 짝도 사라졌으니, 만두와 호떡과 관세음을 우리 당행가로 보내어 매매하도록 하라.”(『宏智廣錄』 권4 大48 p.39a6. 其體也, 出諸障礙; 其用也, 得大自在. 無去無來, 非顯非晦, 應色應聲, 亡對亡待, 饅頭胡餅觀世音, 還我當行家賣買.); “‘구절이 있건 구절이 없건 칙령쿨이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행가를 모두 점검했다.’”(『嘉泰普燈錄』 권17 「月庵善果傳」 卍137 p.252b16. 問, ‘有句無句, 如藤倚樹時, 如何?’ 曰, ‘驗盡當行家.’)

41) 조주가 한 차례의 방편으로 던진 ‘꺾다거’ 화두를 듣고 갓가지 어지러운 분별을 펼쳐 본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지경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본서 5則 「世尊拈花」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참조. “한 송이 꽃을 집어 들자, 풍류가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다네. 만약 심법(心法)을 전했다고 여긴다면, 세상 일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리.”(拈起一枝花, 風流出當家. 若言付心法, 天下事如麻.)



손님 대접 이와 같을 뿐,

냉담한 그 맛이 승가라네.<sup>42)</sup>

牧庵忠頌, “曾到不曾到, 且喫一盃茶. 待客只如此, 冷淡是  
僧家.”

## 송원의 송

조주의 ‘꼭다거’라는 화두여!

독사가 옛길<sup>43)</sup>을 막고 있네.<sup>44)</sup>

밟아보야 비로소 잘못 아니,

부처님이라도 어쩔 수 없네.<sup>45)</sup>

---

42) 별맛이 없는 냉담한 맛이 승가(僧家)의 살림살이이자 조주의 차 맛이라는 뜻.  
승가에 관해서는 본서 859則「雲居僧家」본칙〈설화〉참조.

43) 고로(古路). 옛 성인이나 조사들이 걸어 다닌 길.

44) 꼭다거라는 말이 평범한 듯하지만, 독사가 가로막고 있는 길과 같이 위협을 감  
수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상징이다. 곧 꼭다거라는 말은 조주가 독사와  
같이 지키고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려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뚫  
고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45) 꼭다거라는 말을 평범하게 여기고 쉽게 밟고 지나려다가 그곳에 독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부처님일지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관문으로서의 정체  
가 드러나게 된다. 꼭다거는 궁극적인 한 구절[末後一句]로서 여기에는 성인도  
범부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독사와 같은 문지기가 있다. “설령 천  
개의 눈이 단번에 뜨이더라도 풀과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혼령의 신세를 벗  
어나지 못한다. 여기에 이르면 반드시 바늘 하나 찌를 틈도 없고 거센 바람도 넘  
어뜨리지 못하며 요소가 되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막아 범부도 성인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계가 되어야 한다.”(『圓悟語錄』 권6 大47 p.740a2. 直饒千眼頓開, 未免依  
草附木. 到這裏, 要須是針剗不入, 風吹不倒, 把斷要津, 不通凡聖底, 始得.) ; “낙포화  
상이 대중에게 말했다. ‘궁극적인 한 구절이라야 비로소 견고한 관문에 도달할  
것이니, 요소가 되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막아 범부도 성인도 통과하지 못하게

松源頌, “趙州喫茶去! 毒蛇橫古路. 踏着乃知非, 佛也不堪做.”

## 개암봉의 송

식은 아궁이에 불을 사르고,<sup>46)</sup>

지저분한 곳에 벽돌 던지네.<sup>47)</sup>

물의 흐름 따라 배를 띄우고,

발 씻은 자리에서 배 타누나.<sup>48)</sup>

---

하리라.”(『人天眼目』 권2 大48 p.310a8. 洛浦和尚, 示衆云, ‘末後一句, 始到牢關, 把斷要津, 不通凡聖.’)

46) 차를 권하는 것과 같은 평상의 행위.

47) 포전(抛塹). 미끼로 던져지는 선어(禪語)의 속성을 가리킨다. 깎다거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이상 향상된 경계는 없다. 포전은 포전인옥(抛塹引玉)의 줄임말이며, 노리(鬧裏)란 잡다하고 허접한 물건이 쌓여 있는 곳이라는 말이다. 본래는 벽돌을 버리고 옥을 얻는다는 말로서 값싼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얻는다는 뜻이지만, 귀한 것조차도 부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주가 제시했던 ‘포전인옥’의 화두를 개암봉이 활용한 것이다. “대중만참에서 조주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것이니,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나오라.’ 그때 어떤 학인이 나와서 질문 올리자 조주가 말했다. ‘본래 벽돌을 버리고 옥을 받으려는 의도지만, 도리어 굵지 않은 날벽돌을 받게 될 것이다.’”(『景德傳燈錄』 권10 「趙州從諗傳」 大51 p.277a29. 大衆晚參, 師云, ‘今夜答話去也, 有解問者出來.’ 時有一僧便出禮拜, 師云, ‘比來拋塹引玉, 却引得箇墜子.’); “설봉이 경청에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노숙(老宿)이 관인을 인도하며 승당을 돌면서 ‘이 한 무리 대중들은 모두 불·법·승을 공부합니다’라고 하자 관인이 ‘금가루가 비록 귀하다고는 하지만 눈에 붙어서야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노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경청이 그 노숙을 대신하여 대답했다. ‘본래 벽돌을 버리고 옥을 얻으려는 것입니다.’”(같은 책 권16 「雪峰義存傳」 p.328a19. 師謂鏡清曰, ‘古來有老宿, 引官人巡堂云, ‘此一衆, 盡是學佛法僧.’ 官人云, ‘金屑雖貴, 又作麼生?’ 老宿無對.’ 鏡清代曰, ‘比來拋塹引玉.’) ‘불법승을 공부한다’라고 한 애초의 말이 옥을 얻기 위한 벽돌이었다는 뜻이다.

介庵朋頌, “冷處着火, 鬧裏拋擲. 順水流舟, 洗脚上船.”

### 보복종전(保福從展)의 평

“조주는 편리한 수단을 껴챘다.”

保福云, “趙州, 慣得其便.”

[설화]

편리한 수단을 껴챘다는 것은 이미 편리한 수단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아무 일 없는 경계에서 거꾸러진 꼴이기 때문이다.

保福: 得便宜, 是落便宜. 何也? 無事處, 著倒故也.

### 법운악의 염

“조주화상은 이렇게 가는 것만 알았을 뿐 이렇게 오는 것은 몰랐다. 비록 이렇기는 하지만, 곡이 끝나자 연주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강가에는 산봉우리들이 푸르다.”<sup>49)</sup>

法雲岳拈, “趙州和尚, 只知伊麼去, 不會伊麼來. 雖然如此,

---

48) 물가에 자리잡고 있으면 배를 타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말. 『三國志』 「吳志」 「呂蒙傳」에 나오는 고사. 깎다거라는 수월하고도 편리한 수단을 마음껏 펼치는 조주의 책략을 나타낸다. 아래 보복종전의 말과 같은 취지이다.

49) ‘곡이 끝나자’ 이하의 구절은 전기(錢起)의 시 「湘靈鼓瑟」에 나오는 구절이다. 『舊唐書』 권168 「錢徽傳」 참조. 깎다거라는 곡을 마친 조주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뜻으로 활용했다. 이 화두가 지나는 무소식(無消息) 또는 몰종적(沒蹤迹)의 본질을 나타내는 동시에 〈설화〉의 해설과 같이 깎다거에 모조리 드러내어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경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曲終人不見，江上數峯青。”

[설화]

이렇게 가는 것만 ~ 오는 것은 몰랐다 : 편리한 수단만 꿰찔을 뿐이다.

곡이 끝나자 ~ 산봉우리들이 푸르다 : 속속들이 드러내어 남은 것이 없는 경계이다. ‘곡이 끝나자’라고 운운한 것은 「상비고슬(湘妃鼓瑟)」<sup>50)</sup>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두 구절)이니, 석 잔의 차를 권한 다음의 소식이다.

法雲：只知伊麼去云云者，慣得其便也。曲終人云云者，徹底無餘也。曲終云云，湘妃鼓瑟詩末聯，三盞後消息也。

### 남명법천(南明法泉)의 소참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기특하도다, 조주여! 한 잔의 소박한 차를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는구나! 비록 쓰고 뚫어 입에 씹 맞지 않을지라도, 자기 집 밖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강남(江南)과 양절(兩浙),<sup>51)</sup> 하북(河北)과 서천(西川)<sup>52)</sup> 등지에 모두 다녀온 적이 있을 것이니, 말해 보라! 어느 곳의 차 맛이 가장 좋던가? 가지고 온 차가 있지 않은가? 대중들에게 드러내어 보라!”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설령 내놓더라도 제멋대로 차를 달이는<sup>53)</sup> 잘못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50) 「상령고슬(湘靈鼓瑟)」과 같다. 순(舜)임금의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은 순임금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상수(湘水)에서 죽어 상수의 신이 되었다. 이 상수의 두 신을 상비라고도 하고 상령이라고도 한다.

51) 절동(浙東)과 절서(浙西)를 아울러 일컫는 말. 전당강(錢塘江)을 중심으로 나뉜다.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지역이다.

52) 사천성(四川省).

53) 點. 점다(點茶). 본서 2則 주석38) 참조.

南明泉，小叅，舉此話云，“可憐，趙州！將一盞麤茶，東獻西獻！雖然苦澁難當，要且家園所出。諸人，江南兩浙，河北西川，盡曾到來，且道！甚處茶最好？莫有收得底麼？對衆呈似看！”良久云，“直饒將得出來，未免胡點亂點。”

[설화]

조주의 본분가풍을 밝혔다.

南明：明趙州本分家風.

## 천동정각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경청의 문답과 설두의 염을 제기했다. 경청이 어떤 학인에게 ‘조주의 깃다거 화두는 어떤 뜻인가?’라고 묻자 학인이 곧바로 떠났고, 경청은 ‘한단(邯鄲)에서 그곳의 큰 걸음걸이<sup>54)</sup>를 흉내 내며 배우다 자기 나라 걸음걸이까지 잃어버리는 격이다’<sup>55)</sup>라고 하였다. 설두는 이 문답의 핵심을 집어내어[拈] ‘그 학인은 한단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그곳의 큰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웠겠는가!’라고 말했다. 천동이 말했다. “차나 마시게, 차나 마시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리켜 주었고 특별히 다른 말은 없었다. 가풍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을 뿐 기관<sup>56)</sup>이라

54) 당보(唐步). 팔자로 큰 걸음을 떼며 호탕하게 걷는 걸음.

55) 『莊子』「秋水」에 나오는 이야기에 기초한다. 조(趙)나라의 수도 한단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 자신의 조국 연(燕)나라의 걸음걸이도 잃어버렸다는 고사이다. 자신의 주체적 본분을 모르고 남의 흉내만 내다가는 양자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비유이다. 근본을 모르고 다른 선사들의 표피적인 언행만 모방한 학인을 비판한 말이다.

56) 機關.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방법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대를 속이는 일

곧 전혀 없었거늘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라고 누가 말하는가? 안타깝고 안타깝다! 왕왕 한단에서 그곳의 큰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무심하게 장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분명히 눈은 달렸지만 타고난 소경과 같은 꼴이다. 경청은 ‘한단에서 그 나라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우다 자기 나라의 걸음걸이까지 잃어버리는 격이다’라 말했고, 설두는 ‘그 학인은 한단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그곳의 큰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웠겠는가!’라고 말했다. 알겠는가? 기틀에 그대로 부합하는 자<sup>57)</sup>는 본질을 잃고, 상대의 생각을 등지는 자<sup>58)</sup>는 망한다.<sup>59)</sup>”

天童覺，上堂，舉此話，兼舉鏡清問僧，‘趙州喫茶去，作麼生?’ 僧便行。清云，‘邯鄲學唐步.’ 雪竇拈云，‘者僧不是邯鄲人，爲什麼學唐步!’ 師云，“喫茶去，喫茶去。明明指人無異語。家風平展沒機關，誰道趙州謾院主? 苦苦苦! 往往邯鄲學唐步，恰恰長安道上行，分明有眼如天瞽。鏡清道，‘邯鄲學唐

종의 함정이나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속뜻이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조주의 깃다거라는 말에는 그와 같이 방법상 숨겨 놓거나 현혹시키는 수단은 전혀 없다. 깃다거라는 한마디에 조주의 모든 의중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 57) 등기자(登機者). ‘登’은 올라타다·의지하다 또는 부합하다 등의 뜻이다. 곧 기틀에 올라타고 의지하는 것, 깃다거라는 말에 담긴 다양한 관념에 동조하여 부합하는 자를 나타낸다.
- 58) 기적자(欺敵者). 여기에서 ‘欺’는 속인다는 뜻은 아니며, 경멸하다 또는 등지다 등의 뜻과 통한다. 곧 상대의 역량을 알아보기나 그 생각을 무시하고 등지는 자를 말한다.
- 59) 기틀[機]은 깃다거, 상대[敵]는 그 기틀을 제시한 조주를 가리킨다. 조주의 깃다거를 올라타고[登] 온전히 수긍하여 그 말에 매몰되는 입장과 그와는 반대로 그 말을 무시하고 등지는[欺] 부정의 입장을 모두 차단한 것이다. 앞은 경청이 주목한 견해, 뒤는 설두가 주목한 견해에 각각 상응한다. 그대로도 안 되고[不卽] 벗어나도 안 되는[不離] 진퇴양난의 상황을 설정하여 전형적인 관문(關門)으로 제시한 것이다.

步.’雪竇道, ‘者僧不是邯鄲人, 爲什麼學唐步?’ 還會麼? 登機者失, 欺敵者亡.”

[설화]

한단에서 그곳의 큰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우다 ~ 잃어버리는 격이다 : 그 학인은 오로지 조주가 편리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경계만 이해했을 뿐, 조주의 의중은 몰랐다는 뜻이다.

그 학인은 한단 사람이 아닌데 ~ 흉내 내며 배웠겠는가 : 그 학인은 이미 조주의 의중을 이해했다는 뜻이니, 조주의 의중은 어떤 것일까? 바로 아래의 계송에서 살펴보자.

차나 마시게[喫茶去] : 세 번에 걸쳐 킁다거라 했음에도 여기에서는 두 번만 킁다거라고 하며 들어 보인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으니, 이 어찌 분명하게 남에게 지시해 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가풍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을 뿐 기관이라곤 전혀 없었다 : 어떤 기관도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라고 누가 말하는가 : 다만 두 번의 킁다거만 들어 보인 것은 조주의 의중이 이 두 구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원주에게 전한 킁다거는 쓸모 있는 말이 아니거늘 ‘속였다’고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뜻이다. ‘기관이라곤 전혀 없었다’라고 한 말과 통한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 세 번에 걸쳐 ‘차나 마시게’라고 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왕왕 한단에서 그곳의 큰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 도리가 전혀 없는 것<sup>60)</sup>에 대하여 착안하려는 잘못을 가리키니, 한단의 걸음걸이를

말한다.

무심하게 장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 가풍을 있는 그대로 펼친다는 뜻이다.

분명히 눈은 달렸지만 타고난 소경과 같은 꼴이다 : 의미가 없는 것<sup>61)</sup>에서 전도(顛倒)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도리가 전혀 없는 이 화두를 분별로 이해하려 들면 조주의 본의와 일치하지 못하고, 지시해 준 그대로 이해하려 해도 조주의 본의를 깎아 먹는다.

기틀에 그대로 부합하는 자는 본질을 잃는다 : 경청은 도리가 전혀 없는 화두라는 관점에서 조주의 본의를 드러내었다는 뜻이다.

상대의 생각을 등지는 자는 망한다 : 설두는 지시한 내용이 있다는 관점에서 그 학인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기틀에 그대로 부합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등지거나 모두 근본과 어긋난다. 한단의 걸음걸이를 모방하려는 사람의 체구가 왜소하여 큰 걸음걸이를 배우다가 이전의 걸음걸이까지 잃어버린다.

天童：邯鄲學唐步者，這僧一向趙州得其便處會去，不知趙州意也。這僧不是邯鄲人云云者，這僧已會得趙州意，趙州意作麼生？看取下面頌。喫茶去者，三度喫茶去，只舉兩句，深有所以，豈不是明明指人也！家風至關者，亦無機關處也。誰道趙州云云者，只舉兩句，則意不出兩句。然則第三喫茶，也無用

60) 몰도리처(沒道理處). 깎다거 화두는 특정한 도리에 근거하여 분별할 단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화두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 중 하나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 도리에 근거하여 분별하는 사대부에게 주었다는 ‘몰도리의 인연’도 바로 화두를 가리킨다. 『大慧語錄』 권14 大47 p.868c17 참조.

61) 무의미처(無意味處). 위의 몰도리처와 같은 맥락이다. 어떤 맛도 없는 몰자미(沒滋味)한 화두의 본질을 나타낸다. 의미가 없는 깎다거에서 의미를 찾으며 천착(穿鑿)하기 때문에 전도라 한 것이다.



處, 何用言謾也. 所言沒機關也. 苦苦者, 會三度喫茶也難也. 往往邯鄲云云者, 而人向沒道理處著眼, 是邯鄲也. 恰恰長安云云者, 家風平展也. 分明有眼云云者, 却向無意味處著倒故也. 然則沒道理處會去, 不契趙州意; 有指示處會去, 亦食趙州意也. 登機者失者, 鏡清向沒道理處, 發揚趙州意也. 欺敵者亡者, 雪竇向有指示處, 扶見這僧也. 登機欺敵皆相戰. 貍邯鄲人體小, 學唐步失向步也.

### 양산행위(仰山行偉)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원주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셨으나 차의 내력은 알지 못했다. 조주의 차를 마신 자라면 반드시 간식<sup>62)</sup>을 찾아 먹어야 할 것이니, 그의 차는 아무 맛도 없기 때문이다. 빼어난 맛을 가진 황벽산의 건차<sup>63)</sup>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sup>64)</sup> 그런 까닭에 황룡(黃龍) 선사(先師)도 ‘누가 맛없는 조주의 차를 마시려 할까?’<sup>65)</sup>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내가 오늘 가풍을 간략히 드러내어 대중에게 보이겠다. 나의

62) 약(藥). 오후(午後)에 먹는 약석(藥石)을 가리킨다.

63) 建茶. 차 재배지로 유명한 복건성(福建省)에서 나는 차. 황벽산(黃蘗山)이 복건성에 속하므로 황벽산의 차도 건차라 한다.

64) 황벽의 건차가 맛이 좋다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맛이 없는[沒滋味] 조주 차의 묘미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아래 황룡의 말을 인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65) 황룡삼관(黃龍三關) 중 첫 번째 관문에 대하여 지은 계송의 마지막 구절을 활용한 말이다. 『黃龍語錄』 「三關師自頌」 大47 p.639b27. “탄생의 인연에 얽힌 말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눈이 없는) 해파리가 새우의 눈을 떠난 적이 있었던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만 알았지, 맛없는 조주의 차를 다시 마실 자는 누구일 것인가?”(生緣有語人皆識, 水母何曾離得鰕? 但見日頭東畔上, 誰能更喫趙州茶?)

가풍은 대단히 평범하니, 한마디에 곧바로 드러낼 뿐 감추지 않는다. 알았다면 이 자리에서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며, 알지 못했다면 아무렇게나 헤아리지 마라. 말해 보라! 옛사람과 같은가, 다른가?” 주장자로 선상을 한 번 내리쳤다.

仰山偉，上堂，舉此話云，“院主，不問東西，喫却一椀，不知來處。若是喫着趙州茶者，須是討藥取下始得，爲他茶無味。不似黃蘗建茶，滋味好喫。所以，黃龍先師道，‘誰人，肯喫趙州茶？’仰山今日，略露家風，呈示大衆，仰山家風事大常，一言直下不隱藏。會卽，直下便會取，不會，且莫亂商量。且道！與古人，是同是別？”以拄杖，擊禪床一下。

[설화]

원주는 ~ 알지 못했다 : 다만 맛이 없는 차만 알았을 뿐 맛이 있는 차는 모른다는 말이다.

조주의 차를 ~ 맛도 없기 때문이다 : 반드시 몸을 돌려 막힌 숨을 터지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벽산의 건차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 맛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내가 오늘 가풍을 ~ 감추지 않는다 : 모든 사람이 그 진실과 마주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았다면 이 자리에서 ~ 아무렇게나 헤아리지 마라 :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 또 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仰山：院主至來處者，只知無滋味，不知有滋味也。若是喫着云云者，須是轉身通氣也。黃蘗建茶云云者，有滋味也。仰山至不隱藏者，不妨與一切人相見也。會卽至亂商量者，雖然如是，亦不得伊麼去也。

## 한암승의 입원<sup>66)</sup>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이여! 조주는 세 척 길이 취모검<sup>67)</sup>을 쥐고서 사방으로 트인 큰길에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휘둘렀으나 아무도 그의 칼날과 대적할 자가 없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 멍하니 눈을 뜬 채 입만 벌리고 있었을 뿐,<sup>68)</sup> 조주의 차를 마셔본 적은 없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차나 마시게.”

66) 入院. 주지로 부임하는 것. “입원: 득법한 후에 세상에 나와 어떤 절로 들어가는 것이다.”(『禪林象器箋』 권9 「叢軌類」 禪藏 p.590. 入院: 出世入某院也.); “옛날 사 람들의 입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허리에 바랑을 두르고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산문 앞에 당도하면 쓰고 있던 삿갓을 벗는다. 산문에 들어서면 향을 사르고 법어를 내린다. 승당 앞으로 나아가 바랑을 풀고, 가려진 곳(後架 등)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가사를 입는다. 승당에 들어가면 향을 사른 다음 성승(聖僧) 앞에서 좌구(坐具)를 크게 펼치고 삼배를 올리는데, 시봉하며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절을 올린다. 이렇게 하여 패답(掛搭: 掛錫)을 마친다. 불전에 도달하면 향을 사른 다음 법어를 내리며, 좌구를 크게 펼치고 삼배를 올린다. 다음에는 토지당과 조사당에서 향을 사르고 각각의 장소에서 법어를 내린다. 방장에 들어서면 자리를 잡고 앉아 법어를 내린다. 다음으로 주지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문을 하고[開堂] 축원한다.”(『百丈清規』 권3 「入院」 大48 p.1125b13. 古人, 腰包頂笠, 到山門首下笠. 入門炷香, 有法語. 就僧堂前, 解包, 屏處濯足, 取衣披搭. 入堂炷香, 聖僧前大展三拜, 參隨人同拜, 掛搭已. 到佛殿, 拈香有法語, 大展三拜. 次土地堂祖堂, 炷香, 各有法語. 入方丈, 據室, 有法語. 次第開堂祝聖.)

67) 吹毛劍. 칼날에 머리카락을 대고 바람을 불면 잘려나갈 정도로 예리한 칼. 어떤 말과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본분의 수단을 나타낸다.

68) 目瞪口呿(目瞪口呆). 분명히 보고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만일 아래로 내려가면 삼승과 오성, 돈점과 편원의 차별이 있지만, 무차별의 경계로 올라가면 입으로 말할 거리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제와 덕산이라도 눈뜬 채로 입을 벌릴 뿐이다. 말해 보라!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내밀고 나올 사람 누구인가?”(『圓悟語錄』 권1 大47 p.718a18. 若向下去, 三乘五性, 頓漸偏圓; 若向上去, 不唯覓下口處不得, 臨濟德山, 目瞪口呿. 且道! 不落上下, 又作麼生? 誰是出頭人?)

寒崑升，入院上堂，舉此話云，“大衆！趙州把三尺吹毛劒，向十字路頭，旋轉揮弄，無有當其鋒者。然雖如是，大有人，目瞠口呿，不曾得趙州茶喫在。畢竟作麼生？”良久云，“喫茶去。”

[설화]

취모검 : 하나하나 베어버리는 수단이다.

사방으로 트인 큰길에서 ~ 휘둘렀으나 : 다양한 근기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寒巖：吹毛劒，則一一斬斷也。十字路至弄，則對機之義。

##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염

“당장에 내려놓으니 분명히 드러나 숨긴 것이 없고, 눈앞에 드러나니 구절마다 감춘 것이 없다. 만약 두꺼비가 그대의 귓속에 들어가 있거나 독사가 그대의 눈동자로 들어와 있다면,<sup>69)</sup> 바로 그때 어떻게 알아차리겠는가? 달마대사의 수염은 붉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여기 또 붉은 수염이 달린 달마대사가 있었구나.”<sup>70)</sup>

69)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구절이라는 말. ‘차나 마시게’라는 말에 숨긴 것도 없고 감춘 것도 없이 다 드러났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독사와 두꺼비의 독과 같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작용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말이다. “협산이 ‘온갖 현상에서 노승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복잡한 저잣거리에서 천자가 누군지 알아내라’라고 한 말을 제기하고 운문이 평가했다. ‘두꺼비가 그대의 귓속에 들어가 있고, 독사가 그대의 눈동자를 뚫고 들어간 격이다. 협산의 말에서 그 뜻을 알아차려 보라.’”(『雲門廣錄』 권중 古尊宿語錄16 卍118 p.356b5. 舉夾山云, ‘百草頭上薦取老僧, 鬧市裏識取天子.’ 師云, ‘蝦蟇入爾耳朵裏, 毒蛇穿爾眼睛中. 且向葛藤處會取.’)

70)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꼭다거’라는 바

白雲曷拈, “當頭按下, 明明獨露無私; 靚面相呈, 句句曾無盖覆. 或若蝦蟆, 入你耳朵裏, 毒蛇, 鑽你眼睛中, 當伊麼時, 如何委悉? 將謂胡鬚赤, 更有赤鬚胡.”

[설화]

당장에 내려놓으니 ~ 감춘 것이 없다 : 조주는 기틀에 합당한 수단을 각각 가지고 있었으니, 온 적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고, 온 적이 없다고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여 온 적이 있거나 온 적이 없거나 그들에게 모두 차를 마시라 권했다.

두꺼비에게는 뱀처럼 화려한 무늬는 없지만 독사와 같이 왕성한 독의 작용이 있다.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눈동자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기관인데, 그 놈들이 그대의 귓속에 들어가고 눈동자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달마대사의 수염은 ~ 달린 달마대사가 있었구나’라고 말했던 것이다.

白雲：當頭按下云云者，趙州各有當其機，曾到也，教你喫茶去，不曾到也，教伊喫茶去，曾到不曾到，教伊喫茶去也。蝦蟆沒文彩，毒蛇有活用。耳朵領納音聲，眼睛照破一切，入你耳朵，鑽你眼睛，則其意可知。故下云，將謂胡鬚云云。

---

로 그 말이 동시에 귀와 눈을 멀게 하는 독이라는 뜻이다. 『雲門廣錄』 권상 大47 p.552c11, 『大慧語錄』 권4 大47 p.827a4 등에도 보이는 구절이다.

## 심문답분(心聞曇分)의 염

“조주는 입으로 인사를 했는데도 입술에 침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안목을 갖춘 귀빈이라면 그가 그렇게 한 말을 듣고서 다만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이며 ‘번거롭게 일어나지 마십시오’라고 작별인사를 했을 것이다.”

心聞貴拈, “趙州口行人事, 且無涓滴沾唇. 若是具眼高賓, 見他伊麼道, 但高揖云, ‘不煩起動.’”

### [설화]

입술에 침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조주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sup>71)</sup>

번거롭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손님 역시 이해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心聞: 且無涓滴云云者, 趙州曾無此語也. 不煩起動者, 賓家, 亦是無理會處.

---

71) 조주가 ‘차나 마시게’라고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거나 없었다고 하거나 모두 맞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 화두에 대하여 혜각(慧覺)이 ‘조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의도도 이와 같다. 본서 184則 주석75) 참조.



417칙 趙州狗子 조주구자







## 417칙 조주구자 趙州狗子

### [본칙]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저 가죽 포대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 놈이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sup>1)</sup>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는데, 개에게는 어째서 없습니까?” “그 놈은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sup>2)</sup>

趙州因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有.” 僧云, “既有, 爲什麼却撞入者箇皮袋?” 師云, “爲他知而故犯.” 又有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無.” 僧云, “一切衆生皆有佛性, 狗子爲什麼却無?” 師云, “爲伊有業識在.”

- 
- 1) 본래 조주의 문답에는 ‘없다’는 대답과 ‘있다’는 대답이 공존하지 않는다. 『趙州語錄』古尊宿語錄13 卍118 p.314a8에는 ‘없다’고 한 문답만 나온다. 후대의 간화 선사들은 이 문답에 화두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되는 대답을 묶어 놓았고, 대부분 유·무의 긴장 속에서 이 화두를 풀이한다. 이 본칙은 『宏智廣錄』권2 大48 p.20a20에 나오는 문장에 따르고 있다.
  - 2) 『趙州語錄』에는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上至諸佛, 下至螻子, 皆有佛性.)라고 되어 있다. ‘업식’에도 ‘성(性)’자를 붙여 불성과 업식성을 대비시켰다.

[설화]

선 수행자들은 이 공안을 두고 여러 가지 방도로 헤아린다. 어떤 자들은 ‘조주의 무자(無字)는 세상의 남자들이 즐겨 공부하는 화두이기는 하지만 천찰<sup>4)</sup>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 말이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대체로 본분을 깨달은 종사들이 드러내는 연구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구멍 없는 쇠망치<sup>5)</sup>와 같으니 어찌 천찰할 여지가 있겠는가! 다른 연구들은 차치하고 무자와 같은 공안 또한 무수하게 많다. 어찌 공안만 그렇겠는가! 말투까지 다르지 않은 것들도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위산(滙山)이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불성이 없다’<sup>6)</sup>라고 한 말도 그와 같다. 또한 어떤 고덕(古德)에게 학인이 ‘저의 불성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가거라, 가! 그대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말한 경우도 있다.<sup>7)</sup> 또한 어떤 고

3) 선화가(禪和家). 선화자(禪和子)와 같은 말로 선승(禪僧)·납승(衲僧)을 뜻하며, ‘家’는 복수를 나타낸다.

4) 穿鑿. 화두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분별에 분별을 거듭하며 파고드는 것. 원래 구멍을 뚫는다는 뜻에서 비롯하여 멋대로 근거를 끌어다가 한 가지 사실 또는 주장을 억지로 꿰맞춘다는 뜻으로 쓰인다. 간화선에서는 본래부터 어떤 맛도 없는 몰자미(沒滋味)한 화두를 놓고 어떤 맛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태도를 말한다. “단지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살피기 바랍니다. 이렇게 헤아려도 옳지 않으며 저렇게 헤아려도 옳지 않은 것이니 결코 갖가지 분별로 천착하며 교묘한 견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천착하며 일으키는 교묘한 견해는 모두 허망한 것으로 생사윤회의 원인을 증장시킬 뿐입니다.”(『眞覺語錄』「示奇侍郎」韓6 p.38b11. 請只看狗子無佛性語。左來也不是，右來也不是。切忌種種穿鑿巧見。穿鑿巧見，皆虛妄也，增長生死而已。)

5) 무공철추(無孔鐵鎚). 자루를 박아 넣을 구멍이 없어 써먹지 못하는 쇠망치. 어떤 분별의 수단도 통하지 않아 천착할 수 없는 화두를 비유하는 말이다. 『大慧語錄』 권9 大47 p.846b13, 『禪要』「示信翁居士洪上舍」叢122 p.712a16 등에 나온다.

6) 『仰山語錄』大47 p.583a25에는 “滙山示衆云，‘一切衆生，皆無佛性。’”이라고 되어 있다.

7) 고제(古堤)선사의 말이다. 『仰山語錄』大47 p.585c1. “낭주의 고제화상은 평상

덕에게 학인이 ‘진여불성(眞如佛性)이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되물은 예도 그러하다.<sup>8)</sup> 다른 것에 대하여는 이러니저러니 마구 말하면서, 이것[佛性]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천착할 수 없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천착할 수 없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천착할 수 있다는 뜻일까? 또한 어떤 선지식은 ‘나는 불성이 있는 줄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인들에게 ‘조주가 없다고 한 말은 마치 한 자루의 취모검(吹毛劍)과 같다’라고 한 다음, 마침내 소리 높여 ‘조주의 뒤를 따르지 마라’고 하거나 ‘지금 당장 알아차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옳기는 옳지만 이러한 견해는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려는 것과 같아서<sup>9)</sup> 조주의 본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밖의 잡다한 말들이야 입에 올려 무엇 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던가? ‘(조주는) 나귀 똥을 가지고 있다가 (천착하는) 사람들을

---

시에 학인들이 찾아오면 매번 ‘가라! 그대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말했고, 학인들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대답하는 자가 있더라도 본래의 뜻과 일치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景德傳燈錄』 권9 大51 p.270a17. 朗州古堤和尚, 尋常見僧來, 每云, ‘去! 汝無佛性.’ 僧無對. 或有對者, 莫契其旨.)

- 8) 연화지원(演化知遠)과 보자(報慈)선사 사이의 문답이다. “수주 호국사의 수증선사(소산의 법제자)가 연화대사를 따라 호남의 보자사에 있을 때, 보자선사가 법좌에 오르자 연화가 나와서 물었다. ‘진여불성이란 무엇입니까?’ 보자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되물었으나 연화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을 청하자 보자가 말했다.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겠다.’ 연화가 앞의 질문을 그대로 하자 보자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되물었는데, 연화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뜻을 깨달았다.”(『頌古聯珠通集』 권34 卍115 p.435a11. 隨州護國寺澄禪師(嗣疏山), 因演化大師, 在湖南報慈, 值慈陞堂次, 化出問, ‘如何是眞如佛性?’ 慈云, ‘誰無?’ 化不契. 遂請益師, 師曰, ‘汝但問來.’ 化理前問. 師曰, ‘誰有?’ 化於言下契悟.)
- 9)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호막으로 전제하고 말하므로 마치 가려운 부위가 신발에 가려 있어 긁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이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날 때마다 그것을 눈알과 바꾸어 주었다.<sup>10)</sup> 만약 ‘없다’고 말한 뜻을 이해했다면 곧 ‘있다’고 말한 뜻도 이해할 것이다. 옛사람은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여 “달 속의 계수나무를 베어 없애면, 밝은 달빛이 더욱 많이 쏟아지리라”<sup>11)</sup>라고 말한다.

禪和家商量紛紜，有云，‘趙州無字，天下衲僧話頭，穿鑿無分.’ 不道不是. 大凡本分宗師，所發言句，一一如無孔鐵鎚，豈有穿鑿分！諸餘言句且置，無字一般公案，又無數也. 豈徒公案一般！語勢亦無異地頗多. 如滄山云，‘一切衆生，本無佛性.’ 又古德因僧問，‘如何是學人佛性？’ 云，‘去！去！汝無佛性.’ 又有古德因僧問，‘如何是真如佛性？’ 答云，‘誰有？’ 於彼，胡說亂說；於此，爲什麼穿鑿不得？旣於此穿鑿不得，於彼還曾解穿鑿得麼？又有知識自謂知有，對學人云，‘趙州道

- 
- 10) 평지정각(宏智正覺)이 무자 화두에 대하여 읊은 계송 중 한 구절로 아래에 제시된다. 『宏智廣錄』 권1 大48 p.17b18 참조. “나귀의 똥은 쓸모없고 지극히 천한 물건인 까닭에 쓸모없는 무공철추(無孔鐵鎚)에 비유된다. 열 가지 종류의 잘못된 이해(看話十種病)는 비록 궁극적인 구절이 나타날 소식이기는 하지만 모두 의근(意根)에서 홀연히 세운 알음알이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무공철추로써 하나하나 바꾸어주는 것이다. 조사가 이미 ‘무공철추에 대해서는 결코 이러니저러니 말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공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궁극적인 구절에서 열 가지 종류의 잘못된 이해를 하여 분별하려 들지 말고, 모름지기 정신을 흔들어 번뇌망상을 털어 없앤 다음 있는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고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살펴야 한다. 이것이 무자(無字)만을 드는 공부이다.”(『禪文手鏡』 「無字揀病論科解」 韓10 p.524c12. 驢糞是無用至賤物故，以比無用之無孔鐵鎚也，以十種錯解，雖是末後句消息，皆未脫意根撞立之識情故，以無孔鎚，一一換却也. 祖師旣云，無孔鎚則必無插鑿分，學者切勿以末後句中十種邪解，擬議計較，直須抖擻精神，盡力提撕看，‘是箇什麼？’此單提無字.)
- 11) 두보(杜甫)의 시에 나오는 구절. 본서 181則 주석18) 참조. 평지정각(宏智正覺)이 즐겨 사용했다. 『宏智廣錄』 권4 大48 p.40c16 참조.

無, 是一柄吹毛.’ 遂高聲云, ‘無隨後!’ 又云, ‘直下會取好.’ 是則也是, 是隔靴搔痒, 且沒交涉. 自餘駁雜之說, 何足掛齒牙間哉! 然則如之何? 古人豈不云乎? 驢糞逢人換眼珠. 若會得無, 便會得道箇有. 古人, 到這時節道, “斫却月中桂, 清光應更多.”

##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1

있고 또 있어 그 있는 길에는,

꽃도 있고 더불어 술도 있네.

하루 걸리는 길을 열흘의 일정으로 나누어 가다가,<sup>12)</sup>

남극성이 북두칠성에 매달린 모습을 알아서 보노라.<sup>13)</sup>

大洪恩頌, “有有有路上, 有花兼有酒. 一程分作十程行, 坐看南星懸北斗.”

### [설화]

‘있고 또 있어’라 운운한 말은 유(有)의 구절이다. 유(有)도 있고 무(無)도 있으니 ‘꽃도 있고 술도 있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걸리는 길을 열흘의 일정으로 나누어 간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불성이 ‘있

12) 꽃구경도 하고 술도 마시며 여유롭게 간다는 뜻으로 ‘불성이 있다’는 유(有)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을 나타낸다.

13) 남극성과 북두칠성은 각각 유(有)·무(無) 중 어느 한편을 상징한다. 유(有) 안에 무(無)까지 포괄한다는 뜻이다.

다’는 것을 벗어나서 불성이 ‘없다’는 말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大洪：有有云云者，有句。有有有無，所謂有花有酒。故云，‘一程分作十程行也。’然則有佛性外，無無佛性也。

## 대홍보은의 송2

없고 또 없어 그 없는 상자에는,

칼도 없고 또한 책도 없다네.

세 차례 낙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sup>14)</sup>

몸을 돌려 동정호 위로 날아갔다네.

又頌，“無無無匣中，無劍又無書。三入洛陽人不識，翻身飛過洞庭湖。”

### [설화]

‘없고 또 없다’는 말은 무(無)의 구절이다. 유도 없고 무도 없으니 ‘칼도 없고 또한 책도 없다’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세 차례 낙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다. 곧 불성이 ‘없다’는 것을 벗어나서 불성이 ‘있다’는 말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無無無者，無句。無有無無，所謂無劍無書。故三入洛陽人不識云云。則無佛性外，無有佛性。

---

14) 여동빈(呂洞賓)과 관련된 말이다. 대홍보은의 네 번째 계송 〈설화〉 참조. 여동빈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김도 없고 그 비책을 적은 책도 없듯이, 불성이 없다는 무(無)의 입장을 나타낸다.

### 대홍보은의 송 3

있다고 했다가 없다 하고 없다 했다가 다시 있다 하며,  
백 년 묵은 요괴가 허망하게 입을 열고 지껄이네.  
한 구절이 바람 앞에 천둥같이 크게 울려 퍼지니,  
우물 안 개구리 울음이 한밤에 사자의 포효와 같도다.

又頌, “有復無無復有, 百年妖怪虛開口. 一句當風震若雷, 井蛙半夜同哮吼.”

#### [설화]

있다고 했다가 없다 하고 없다 했다가 다시 있다 하며 : 중간의 구절이다. 다음 게송 중 ‘없다고 했다가 있다 하고 있다 했다가 다시 없다고 한다’는 구절도 같은 맥락이다.

백 년 묵은 ~ 입을 열고 지껄이네 :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이나 모두 요괴가 입을 열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한 구절이 ~ 울려 퍼지니 : 있거나 없는 그 어느 편에도 몰들지 않은 한 구절을 가리킨다.

우물 안 개구리 ~ 포효와 같도다 : 유의 구절과 무의 구절을 따라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두 구절을 모두 비추어 긍정하면서 동시에 모두 차단하여 부정하는 것이다.

有復無無復有者, 中間也. 下無復有有復無, 亦同也. 百年至口者, 有無是妖怪開口也. 一句云云者, 不涉有無底一句也. 井蛙云云者, 有句無句, 隨逐而出, 此雙照雙遮也.

## 대홍보은의 송 4

없다고 했다가 있다 하고 있다 했다가 다시 없다고 했거늘,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은 자호<sup>15)</sup>를 찾아가 배우려 하는가?<sup>16)</sup>  
천 리 사방이 똑같은 가풍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  
주장자 한 자루에 두 사람이 함께 몸을 의지하는구나.

又頌, “無復有有復無, 何事人來訪子湖. 千里同風無足道, 一條杖子兩人扶.”

### [설화]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은 자호를 찾아 배우려 하는가 :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15) 자호이종(子湖利蹤)을 가리킨다. 자호(紫胡)라고도 쓴다. 남전보원(南泉普願)의 제자로서 본분을 비유하는 방편으로 개[狗]를 제시했다. 자호가 실제로 개를 길렀던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물어 죽이고 파고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부정의 수단으로써 개 짖는 소리를 내거나 ‘개를 조심하라!’라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 “어느 날 법좌에 올라앉아 대중에게 말했다. ‘자호에게는 개 한 마리가 있다. 위로는 사람의 머리를 물고, 중간에서는 심장을 물며, 아래로는 다리를 문다. 머뭇거리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어떤 학인이 ‘자호의 개 한 마리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자호가 ‘멍! 멍!’ 하고 짖는 소리를 냈다. 임제 문하의 두 학인이 법을 물으러 와서 막 발을 올리는 순간 자호가 ‘개를 조심해라!’ 하고 소리 질렀다. 두 학인이 고개를 돌려 살피자 자호는 방장으로 돌아갔다.”(『景德傳燈錄』 권10 p.278c19. “一日, 上堂, 示衆曰, ‘子湖有一隻狗. 上取人頭, 中取人心, 下取人足. 擬議即喪身失命.’ 僧問, ‘如何是子湖一隻狗?’ 師曰, ‘嗥! 嗥!’ 臨濟下二僧, 到參方揭簾, 師曰, ‘看狗!’ 二僧廻顧, 師歸方丈.)

- 16) 조주와 자호는 모두 남전보원의 제자이다. 조주가 이미 유와 무를 모두 말했는데, 무(無)만 내세우는 자호를 찾아가 배울 필요가 무엇인지 되묻는 말이다. 이하의 3구와 4구에 따르면, 이들의 수단은 다르지만 똑같은 가풍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 차례 낙양에 들어갔다 : 양문공(楊文公)<sup>17)</sup>의 『담원(談苑)』에 따르면, 여동빈(呂洞賓)은 (養生을 위한) 검술을 터득하고 있었는데, 백여 세가 되도록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빨랐으며 스스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고 한다. “아침에 백월(百越)지방을 떠나 저녁에 삼오(三吳)지방으로 가고, 소매 속에 푸른 뱀<sup>18)</sup>을 감추어 두었으니 담력이 대단하다. 세 차례 낙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몸을 돌려 동정호 위로 날아갔다네.”<sup>19)</sup>

何事人來訪子湖者，未免喪身失命也，然則不須訪也。三入落陽。楊文公，談花<sup>20)</sup>□，呂洞賓有劍術，年百餘歲，貌如嬰兒，行步徑疾，自有詠云，“朝辭百越暮三吳，袖裏青蛇膽氣麤。三入落陽人不識，翻身飛過洞庭湖。”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불성이 있다고도 하고 불성이 없다고도 하며,  
바른 것을 뒤집고 뒤집힌 것을 바르게 세우네.  
맑은 못에 비친 달을 짓밟아 없애고,  
눈금 없는 저울을 꺾어 부러뜨려라!  
물속에서 불을 피우고,

17) 974~1020. 북송(北宋) 진종(眞宗) 때 관리인 양억(楊億). 자(字)는 대년(大年)이고, 문공은 시호(諡號)이다. 광혜원련(廣慧元璉)의 제자 제자이자 시인이다. 이곳의 이야기는 『宋史』 권457에 나온다.

18) 청사(靑蛇). 보검(寶劍) 또는 일반적으로 칼을 비유하는 말이다.

19) 『說郛』 권62하, 『類說』 권53 등에 나온다.

20) ‘花’는 ‘苑’의 오자.

허공에다 말뚝을 박는군.

눈먼 거북이 죽은 뱀 잡아먹는 것과 비교하라!

위아래 어금니를 꼭 다물어야 하리라.<sup>21)</sup>

〈이 스님의 송은 다음 문답, 즉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있다’라 하고 다른 학인의 똑같은 물음에는 ‘없다’고 하며 ‘그 놈은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또, 어떤 학인이 흥선(興善)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화상에게도 있습니까?” “나는 없다.” “모든 중생이 누구나 불성이 있는데, 화상은 무엇 때문에 유독 없습니까?” “나는 모든 중생이 아니다.”<sup>22)</sup>〉

薦福逸頌, “有佛性無佛性, 正却倒倒却正. 踏破澄潭月, 拗折無星秤! 火向水中燃, 橈從空裏釘. 肯類盲龜嚙死蛇! 一對牙關緊齧定.” 〈此師舉錄, 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至爲有業識在. 又僧問興善, “狗子還有佛性也無?” 善云, “有.” 僧云, “和尚還有否?” 善云, “我無.” 僧云, “一切衆生皆有佛性, 和尚因何獨無?” 善云, “我非一切衆生.”〉

---

21) 연못에 비친 달은 건져 올릴 수 없고 눈금 없는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헤아리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유와 무라는 조주의 말은 바로 그와 같이 어떤 분별의 근거도 가지지 않는 몰자미(沒滋味)한 화두이다. 달그림자를 그대로 밟고 잡으려하거나 저울 눈금을 실물과 혼동하여 사유하는 것은 유와 무라는 말에서 자미(滋味)를 조작해 내어 죽은 말[死句]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화두로서의 무와 유는 그것을 낚아채려는 헛된 분별을 만나면 활발하게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독사와 다르지 않다. 확정된 통로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파먹고 사는 보통의 분별이 포착한 상대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죽은 뱀과 다르지 않다. 어느 한편의 격(格)에도 안주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와 무를 번갈아 다룰 수 있는 종사의 솜씨라야 살아 있는 독사를 희롱하는 면모라 할 수 있다.

22) 뒤의 문답은 『景德傳燈錄』 권7 「興善惟寬傳」 大51 p.255a18 등에 나온다.

## 보령수의 송

젊어서는 배워서 이해했으나 근본에 어두웠고,  
늙어서는 여전히 있다 없다는 분별에 막혔다네.  
오래된 불상 순금인데 누가 그 색 분별하리오?  
미혹된 상태로 기지를 부리며 오락가락 주저하네.  
주저하지 마라!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 이외엔 없노라.

保寧秀頌, “小年學解昧宗途, 老倒依還滯有無. 古佛純金誰辯  
色? 惑爲機智競躊躇. 莫躊躇! 話有談無須是渠.”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1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고,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도 하네.  
곧은 낚시는 원래 목숨 버리려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인데,<sup>23)</sup>  
냄새에 현혹되어 따라다니고 향기를 찾는 낚자들은<sup>24)</sup>

- 
- 23) 화두는 물어도 걸리지 않는 곧은 낚싯바늘과 같다. 있다고 하건 없다고 하건 그 어느 편도 되짚으며 생각할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렇게 분별하며 자기 본분의 목숨을 등진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이다. 바늘의 꼬부라진 부분을 잘라 곧게 만든 낚싯바늘을 던져 놓고 ‘목숨을 버린 놈들은 걸려들어라!’라고 했던 강태공(姜太公)의 말에서 비롯된다. 주어진 말에 얽매어 본분의 목숨을 잃는 것을 ‘목숨을 버리려는 물고기’에 비유한다. “강상(姜尙: 姜太公)이 겨우 연명하던 시기에 곧은 낚싯바늘로 위수의 물고기를 낚았다. 미끼용 먹이를 쓰지도 않고 수면에서 세 척쯤 떨어진 높이로 낚싯대를 드리우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목숨을 버린 놈들은 걸려들어라!’”(『武王伐紂平話』 권중. 姜尙因命守時, 直鉤釣渭水之魚. 不用香餌之食, 離水面三尺, 尙自言曰, ‘負命者上釣來!’)

시끄럽게 지껄이며 분별하여 말을 하는구나.  
 모든 물건을 펼쳐 놓고 큰 점포를 열었으니,  
 주인이 애초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욕하지 마라.  
 약간의 티를 거짚으로 가리켜 옥을 되찾아 돌아가니,  
 진나라 왕은 인상여(蔣相如)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네.<sup>25)</sup>

天童覺頌, “狗子佛性有, 狗子佛性無. 直釣元求負命魚, 逐氣尋香雲水客, 嘈嘈雜雜作分疏. 平展演大鋪舒, 莫怪農家不慣初. 指點瑕疵還奪璧, 秦王不識蔣相如.”

## 천동정각의 송2

조주가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하였기에,  
 개의 불성에 대해 세상에서 갖가지로 분별하여 말하네.  
 아는 체하여 부끄러운 표정을 짓느니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조주의 마음은 진실하였으니 두 가지로 거칠게 나눈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sup>26)</sup>

24) 냄새와 향기는 유와 무라는 말에 들어 있는 갖가지 속박된 관념을 가리킨다.

25) 무라고 했다가 유라고 뒤집고, 유라고 했다가 무라고 뒤집는다. 이와 같이 유와 무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음으로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나타내기 위한 고사이다. 이 고사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변화(卞和)라는 사람이 초(楚)나라 형산(荊山)에서 귀중한 옥을 캐었는데, 당시 초나라보다 강대국이었던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이 이 옥을 탐하여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속여 가져오도록 했다. 이때 초나라에서 보낸 사신 인상여(蔣相如)가 옥에 있는 흠을 가리켜 보여주겠다고 기지를 부려 되찾아왔다. 아무 흠이 없으므로 이 옥을 완벽(完璧)이라 하고, 성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연성지벽(連城之璧)이라고도 하며, 형산옥 또는 화씨벽(和氏璧)이라고도 한다.

700갑자<sup>27)</sup>를 산 선의 달인<sup>28)</sup>이

나귀 똥<sup>29)</sup>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눈알과 바꾸어 주었다.

又頌, “趙州道有, 趙州道無, 狗子佛性, 天下分疎. 面赤不如語直, 心眞莫怪言麤. 七百甲子老禪伯, 驢糞逢人換眼珠.”

[설화]

천동의 두 계승은 유라고 하거나 무라고 하거나 모두 옥을 되찾아 오고 나귀 똥으로 눈알을 바꾸어 주는 것과 같은 수단이라는 뜻이다.

天童二頌, 道有道無, 皆是還奪璧, 驢糞換眼珠.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도 하고,

---

26) ‘있다’·‘없다’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어느 편에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 공안의 비결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마음은 진실하였다고 한 것은 (비록 있다·없다 양단으로 갈라서 말했지만 사실은) 잡을 여지가 없는 둥글둥글한 쇠망치[無孔鐵鎚]를 주려 한 조주의 뜻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칠다’고 말한 것이다. (있다가거나 없다가거나 어느 편에서도) 중적을 잃도록 만드는 조주의 비결은 희롱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이다.”(『禪文手鏡』「無字揀病論科解」韓10 p.524c11. 心眞, 意在無孔鎚, 故言麤. 迷蹤訣, 似是戲談故.)

27) 조주는 약 120세를 살았고(778~897), 1년에 60갑자(甲子)가 6번 있으므로 약 720번의 60갑자를 보낸 것이다.

28) 선백(禪伯). 『祖庭事苑』 권2 근113 p.40b2에 따르면, ‘백’은 존칭이며 후백(厚伯)의 백과 같다고 한다. 마치 시(詩)에 능한 자를 시백(詩伯)이라 하듯이 선에 능통한 달인을 일컫는다.

29) 주석10) 참조.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도 하네.

처음부터 이 양극단으로 갈라 내달릴 뿐,  
한 발의 화살로 두 관문을 맞히지 못하니,  
업식이 이전 그대로여서 다시 개가 되었네.<sup>30)</sup>

法眞一頌, “狗子佛性無, 狗子佛性有. 從來只向兩頭走, 未能  
一鎚破雙關, 業識依前還作狗.”

###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말,  
누가 뜻이 깊지 않다고 하는가!  
바다가 마르면 결국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다네.

眞淨文頌, “言有業識在, 誰云意不深! 海枯終見底, 人死不  
知心.”

### 오조법연(五祖法演)<sup>31)</sup>의 송

조주가 드러낸 칼날이여!

---

30)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는 논리는 무자 화두를 타파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지 못한다. 불성의 유·무라는 양극단이 모두 관문이듯이 업식의 유·무 또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관문이다. 아래 진정극문의 계송의 취지도 마찬가지이다.

31) 오조법연(1024~1104)은 무자 화두에 대하여 최초로 간화선의 방식으로 궁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송을 읊은 선사이다. 뒤에 이에 대한 상당법문이 나온다.

서릿발같이 싸늘한 빛 번득이네.

다시 어떤 뜻이냐고 묻는다면,

몸을 갈라 두 토막을 내리라.

白雲演頌, “趙州露刃劒! 寒霜光燄燄. 更擬問如何, 分身作  
兩段.”

### 대혜종고(大慧宗杲: 경산종고)의 송

학인이 개의 불성을 묻자,

조주는 없다고 대답했다네.

그 자리에서 달마의 후손을 파멸시키는 족속<sup>32)</sup>일지라도,

아직은 대장부답지 못하다.<sup>33)</sup>

徑山杲頌, “有問狗佛性, 趙州答曰無. 言下滅胡族, 猶爲不  
丈夫.”

###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선덕문(宣德門) 앞을 지나다가,

고개 돌리자마자 화를 불러들였네.<sup>34)</sup>

32) 멸호족(滅胡族). 멸호종족(滅胡種族)과 같은 말. ‘호종’은 부처나 달마의 종자를 가리킨다. 곧 불교도 또는 선종의 후손을 나타낸다.

33) 선종의 후손을 파멸시키는 무리들의 기개도 무(無)라고 대답한 조주의 선기(禪機)와 비교하면 아직 대장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34) 선덕문은 임금에 사는 궁전의 문[宮門]을 말한다. 금문(禁門)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이 거처하기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궁전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수상한 자로 의심을 받고 화를 당하듯이, 유와 무로 제시한

만일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면,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어라.

竹庵珪頌, “宣德門前過, 廻頭便招禍. 若要無事時, 且歸屋裏坐.”

[설화]

선덕문이란 금문을 가리킨다.

竹菴: 宣德門者, 禁門也.

육왕개심(育王介讌)의 송

천 길 바다 속의 물고기 머리에 빨이 났고,  
만 길 절벽 위에서 호랑이가 휘파람을 부네.  
우습다, 조주가 개의 불성이 없다고 한 말이여!  
달을 향해 맑은 허공에 대고 개가 짖으리라.

育王讌頌, “千尋浪底魚生角, 萬仞崖頭虎嘯風. 却笑趙州無佛性! 猶能向月吠晴空.”

[설화]

1구는 불성이 있음에 철저한 것을 나타내고, 2구는 불성이 없음에 철저한 것을 나타낸다. 3구에서는 조주가 ‘불성이 없다’고 한 말이 ‘불성이 있다’는 말에 상대하여 한 말이므로 불성이 있음은 불성이 없음이며, 있거나 없거나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과 짝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습다

---

관문에 대하여 분별하려는 순간 벌써 그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고 한 것이다.

맑은 허공에 대고 개가 짖는다 : ‘가을에는 개가 짖고 봄에는 닭이 운다.’<sup>35)</sup>는 옛말에 따른다.

育王：一句，有佛性到底也，二句，無佛性到底也。三句，趙州無佛性，對有佛性言也，故有佛性，還是無佛性，有無未能絕對故，可笑也。吠晴空者，古云，‘中秋犬吠，春日鷄鳴。’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송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니,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상하게 하는구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백천 가지이지만,  
샷된 것으로 인하여 정도를 깨우치리라.<sup>36)</sup>

密庵傑頌，“狗子無佛性，殺人便傷命。楚痛百千般，因邪却打正。”

### 무위자의 송

불성이 개에게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제방에서는 무슨 까닭에 굳이 관념과 형상을 추구할까?

- 
- 35) 안락한 세월을 나타내는 말 중 하나. 이 말을 선문답으로 활용한 예가 『景德傳燈錄』 권8 「石霜大善傳」 大51 p.259c22에 보인다. “‘불법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봄날에는 닭이 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을에는 개가 짖는다.’” (僧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云, ‘春日鷄鳴.’ 僧云, ‘學人不會.’ 師云, ‘中秋犬吠.’)
- 36)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샷된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으며, 이것을 관문으로 삼아 궁구하면 그 뜻을 타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전히 흙덩어리를 쫓고 냄새에서 찾으니,<sup>37)</sup>

어찌 자호의 개를 도울 위풍이 있겠는가!<sup>38)</sup>

無爲子頌, “佛性明言狗子無, 諸方何事强名摸? 尚猶趁塊尋  
香氣, 豈有威風助紫胡!”

## 열재거사의 송

조주는 사농의 인장을 위조하여 찍고 따라갔으나,<sup>39)</sup>

날은 저물고 길은 막혀 되돌아왔다네.

호랑이로 착각하여 쏘아<sup>40)</sup> 화살깃까지 박혔고,

잘못 찍은 점이 도리어 파리 모양이 되었네.

悅齋居士頌, “趙州倒用司農印, 日暮途窮且逆行. 射虎不眞俄  
沒羽, 忽然誤點却成蠅.”

---

37)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 않고 흙덩이를 쫓는 어리석은 개에 비유한 말. 여기서서는 무라네 표면적인 언어의 맥락에서 단서를 잡아 화두의 관문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모든 범부가 오로지 결과만 보고 그 조건이 되는 인연을 살필 줄 모르는데, 마치 개가 자기에게 던져진 흙덩이를 물러 쫓아가고 던진 사람을 쫓지 않는 것과 같다.”(『大般涅槃經』 권25 大12 p.516b12. 一切凡夫, 惟觀於果, 不觀因緣, 如犬逐塊, 不逐於人.)

38) 남의 말에서 단서를 찾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곧바로 당사자를 물어버리는 자호의 개와 대비시키고 있다. “흙덩이를 쫓고 냄새에서 찾는다면 뛰어난 개가 아니다.”(『五燈全書』 권61 「空相珪章」 卍141 p.311b12. 逐塊尋香, 未爲好狗.)

39) 도용사농인(倒用司農印). 사농(司農)이란 한(韓)나라 구경(九卿) 가운데 농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변화하는 꾀를 비유한다. 『舊唐書』 권128 「段秀實傳」에 나오는 고사에 따른다.

40) 본서 184則 주석51) 이광(李廣)의 고사 참조.

[설화]

잘못 찍은 점이 도리어 파리 모양이 되었네 : 조비(曹丕)<sup>41)</sup>가 손권(孫權)을 위해 병풍에 그림을 그리다가 먹물이 잘못 떨어져 파리 모양이 되었는데, 손권이 살아 있는 파리로 알고 손을 들어 털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구절이다.<sup>42)</sup>

悅齋：誤點却成蠅者，曹丕爲孫權畫扇，誤點成蠅，權以爲生蠅，舉手拂之。

취암수지(翠嶠守芝)의 염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하여 하나의 내기 판에 이기는 패가 두 개인 격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말하겠는가?”

翠嶠芝拈，“說有說無，兩彩一賽，如今作麼生道?”

[설화]

유와 무 그대로인 상태에서 말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유와 무를 벗어난 상태에서 말하라는 것일까?<sup>43)</sup>

翠巖：卽有無而道耶? 離有無而道耶?

41) 조비가 아니라,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화가 조불흥(曹不興)이 맞다.

42) 『曆代名畫記』「曹不興」참조.

43) 그대로인 상태는 즉(卽), 벗어난 상태는 리(離). 즉과 리를 모두 의문으로 만들어 즉도 아니고 리도 아닌 것이 화두의 본래 본질이다. 곧 유와 무를 모두 벗어나지도 않고 유와 무 그대로 일치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본서 181則「百丈再參」에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다.

## 광령조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이 공안에 대한 총림의 비판은 매우 많다. 혹은 ‘개한테서 무슨 불성을 찾는가? 질문하는 자는 불성이 없었다’라 하고, 혹은 ‘풍자하는 말로 그를 대하는 것이다’라고도 하며, 혹은 두 손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어떤 학인이 수산주(修山主)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수산주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알면서 고의로 범했다’라고 한 구절에 대해 말했다. “대중들이여, 질문은 똑같았는데 조주는 어째서 ‘없다’고 대답했고 수산주는 어째서 ‘있다’고 대답했을까? 대중들 중에는 ‘중사들이 하는 말이란 시기에 따라 적절히 응하는 것이므로 없다고 한 말도 옳고 있다고 한 말도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유와 무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와 무의 중간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혹은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다고 설하기도 했고, 또한 불성이 없다고 설하기도 했다<sup>44)</sup>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대가 다만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스스로 주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만약 모두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는 모두 불성이 성스럽다는 생각에 마음이 얽매이고, 식(識)에는 법이라는 티끌이 붙어 있어 무라고 말할 때는 무에 집착하고 유라고 말할 때는 유에 집착하는 꼴이 되니, 두 가지 모두 한편에 체쳐 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정법안장<sup>45)</sup>을 만약 이와 같이 헤아린다면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와서 전한 가르침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주노인<sup>46)</sup>과 수산주화상에게도 굴욕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44) 『大般涅槃經』 권26 大12 p.521b5.

45) 正法眼藏. 진리를 보는 바른 눈. 조주가 있다고 한 말이나 없다고 한 말이나 모두 정법안장에서 나온 것이다.

될까?”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는 채하며 부끄러운 표정을 짓느니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sup>47)</sup>

廣靈祖, 上堂, 舉此話, 〈至〉有業識在, 師云, “此箇公案, 叢林批判甚多. 或云, ‘狗子討甚佛性? 問者無佛性.’ 或云, ‘是冷語對伊.’ 或乃展開兩手. 又有僧問修山主, ‘狗子還有佛性也無?’ 主云, ‘有.’” 〈至〉知而故犯, “大衆, 問旣一般, 趙州爲甚答無, 山主爲甚答有? 衆中道, ‘宗師家出語, 臨時應用, 說無也得, 說有也得.’ 或云, ‘不落有無, 在有無中間.’ 或云, ‘涅槃經, 佛自說有性, 又說無性.’ 或云, ‘汝但承當取, 自作主宰.’ 若惣如此解會, 盡是情存聖量, 識附法塵, 說無時着無, 說有時着有, 不若都盧撥在一邊. 正法眼藏, 若伊麼商量, 祖師西來, 大殺無補, 亦乃屈他趙州老人, 山主和尚. 且如何卽是?”良久云, “面赤不如語直.”

[설화]

천동이 읊은 두 계송과 동일한 뜻이다.

廣靈：天童二頌同義

## 오조법연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그대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노승은 평상시에 단지 ‘무(無)’라는 글자만 들 뿐 다

46) 老人.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

47) 평지정각(宏智正覺)의 말을 활용한 것.

른 궁리는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이 한 글자만 뚫는다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뚫겠는가? 이미 흰하게 뚫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말해 보라. 나는 그대들이 ‘있다’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없다’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대들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안녕히들 계시오!”

白雲演，上堂，舉此話云，“大衆！你諸人尋常作麼生會？老僧尋常，只舉無字便休。你若透得者一个字，天下人不奈你何。你諸人作麼生透？還有透得徹底麼？有則出來道看。我也不要你道有，也不要你道無，也不要你道不有不無。你作麼生道？珍重！”

[설화]

유라고 말하거나 무라고 말하거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말하거나 이 모든 것이 분별하는 인식[情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 가지와 덩굴에 다시 가지와 덩굴을 덧붙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꿰뚫을 것인가?<sup>48)</sup>

白雲：道有道無，道不有不無，皆是情識邊事，枝蔓上更加枝蔓，離此如何透得？

## 육왕불지(育王佛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한 방울의 물이 모든 강물을 혼탁하게 만

48) 유와 무, 불유불무 등이 모두 쓸데없이 복잡한 말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모든 언어의 형식을 벗어나서 무자를 꿰뚫어야 한다는 뜻이다.

들고, 한 번의 망치질로 온갖 구멍을 뚫는다. 만약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아차렸다면 조주노인의 뜻뿐만 아니라 대장경 전체의 교설까지 한순간에 밝혀졌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눈 위에 서리를 덧붙여 쓸모없는 짓을 하듯이 거듭 해설을 달아 주리라.” 이어서 말했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니 바다 밑의 기린이 크게 울부짖을 일이고,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니 혀로 수미산을 밀어내려는 꼴이다. 눈꽃이 산꼭대기를 아무리 뒤덮는다 해도, 푸른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홀로 밝으리라. 홀로 밝은 달이여, 천태산의 즐불나무에서 산호가 자란다.”

育王智, 上堂, 舉此話云, “一滴混千江, 一鎚開衆竅. 若向聲前薦得, 不但趙州老人, 一大藏教, 一時明破. 其或未然, 更向雪上加霜, 重爲注破.” 乃云, “狗子佛性有, 海底麒麟大哮吼; 狗子佛性無, 舌頭啞着須彌盧. 任使雪花封岳頂, 碧天依舊月輪孤. 月輪孤, 天台柳栗長珊瑚.”

#### [설화]

‘한 방울의 물이 모든 강물을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불성이 있다는 구절을 나타내고, ‘한 번의 망치질로 온갖 구멍을 뚫는다’라는 말은 불성이 없다는 구절을 나타낸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 울부짖을 일이다’라는 말에서 바다는 지혜의 바다요 기린은 상서로운 존재로서 또한 (유와 무를) 수컷과 암컷처럼 대치시킨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깨달았다는 분별을 잊으면, 깨달은 그대로 불성이다’<sup>49)</sup>라고 하였다. ‘크게 울부짖을 일’이란 대단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니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 수미산을 밀어

49)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말. 『雲門廣錄』 권중 大47 p.559b2.

내려는 풀이다'라는 구절에서 혀로 수미산을 밀어내려는 풀이란 지혜의 산 앞에 나타난 불성을 나타내며, 그것을 밀어낸다는 것은 그대로 남겨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눈꽃이 산꼭대기를 뒤덮는다’는 말은 산이 높이 치솟아 험하며 몹시 춥다는 뜻이니 불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아무리 ~해도’[任使]라 한 것은 다음 구절을 부각시키기 위한 말이다. ‘푸른 하늘에는~’라 한 말은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불성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천태산의 즐물나무에서~’라는 말에서 천태산은 불성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산호는 불성이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育王：一滴混千江者，有佛性也；一鎚開衆竅者，無佛性也。狗子至哮吼者，海則智之海，猘獐卽瑞物，亦雌雄也。他處云，‘忘知於覺，覺則佛性。’大哮吼，則甚可怖畏，不可犯干也。狗子至彌盧者，舌頭墜著須彌，則智之山前，所出佛性也，墜著則不存也。雪花封嶽頂者，高危峭峻，寒威威地，卽無佛性也。任使者，復起下文也。碧天云云者，依前是佛性更分明也。天台云云者，天台則無佛性，珊瑚則有佛性也。

## 죽암사규의 상당

어떤 학인이 이 공안을 제기하고 “그 뜻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죽암이 말했다. “한번 뱀에게 물리면 끊어진 두레박 끈을 보고도 무서워한다.”

竹庵珪，上堂，僧攀問此話，“意旨如何？”師云，“一度着蛇咬，怕見斷井索。”



[설화]

불성이 있다는 말에서 의문을 가지면 불성이 없다는 말에서도 의문이 없을 수 없으니, 불성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의문이 없어야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竹菴：有佛性處有疑，無佛性處亦不無疑也。若有佛性處無疑，可得無佛性。





429칙 趙州洗鉢 조주세발





## 429칙 조주세발 趙州洗鉢

### [본칙]

어떤 학인이 조주에게 물었다. “저는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스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발우나 씻어라!” 그 학인이 확 트인 듯이 크게 깨달았다.

趙州因僧問, “學人乍入叢林, 乞師指示.” 師云, “喫粥了也未?” 僧云, “喫粥了.” 師云, “洗鉢盂去!” 僧豁然大悟.

### [설화]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스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심자인 학인이 총림에 처음 들어와 진실로 확고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바르게 찾을 수 없다<sup>1)</sup>는 뜻이다.

죽은 먹었느냐 : 만송행수(萬松行秀)는 이렇게 말한다. “끼니때가 되면 입을 벌려 먹고 졸음이 오면 눈을 감고 잔다. 신발을 신을 때는 발꿈치를 더듬고 얼굴을 씻을 때는 코를 매만진다. 바로 그때 화두<sup>2)</sup>를 놓쳐 버리고 불을 들

1) ‘진실로 확고한 마음을 ~ 찾을 수 없다’라는 구절은 『圓悟心要』 「示慧禪人」 卍120 p.721b6에 나온다.

2) 여기서 화두는 간화선의 특정한 화두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키는 말 또는 상황을 나타낸다.

고 깊은 밤에 다른 곳에서 찾아다닌다면 언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sup>3)</sup> 만송이 이렇게 한 말은 조주까지 끌어들이 진흙과 물을 뒤섞어 몸을 더럽히고 만 꼴이 되었다.<sup>4)</sup> 또 옛사람이 말했다. “초연거사<sup>5)</sup>가 아침 죽을 배풀어 일당(一堂)의 용상<sup>6)</sup>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 먹은 뒤 발우를 제 자리에 걸어 놓고 보니, 달마대사의 훌륭한 모범적 법도로군요!”<sup>7)</sup> 옛사람이 이렇게 한 말은 학인들을 몰입시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無事]는 오해를 일으킨다.<sup>8)</sup> 그렇다면 조주의 본의는 무엇일까? 지시한 내용이 있는가, 지시한 내용이 없는가?

그 학인이 확 트인 듯이 크게 깨달았다 :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일까, 없다는 것

- 
- 3) 『從容錄』 39則 大48 p.253a21. 이것은 조주세발(趙州洗鉢)의 화두에 대한 만송행수의 「示衆」이다.
- 4) 조주가 보여준 촌철살인의 화두를 엄격히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을 펼쳐 ‘평상심이 도’라는 방식으로 잘못 이끌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의 인용도 동일한 의도에서 거론된 것이다.
- 5) 超然居士. 군왕(郡王) 조령금(趙令衿)의 호. 자는 표지(表之)이며,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제자이다.
- 6) 龍象. 대중을 높여 부르는 말. 용상중(龍象衆)이라고도 한다. “용상: 『대지도론』에 ‘힘이 센 존재를 말한다. 용이란 물에서 사는 것 중 힘이 가장 센 존재이며, 상(코끼리)이란 땅에서 사는 것 중 힘이 가장 센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위대한 선사와 스승을 용과 코끼리에 비유한 말이다.”(『祖庭事苑』 권1 卍113 p.20a16. 龍象: 智度論云, ‘言其力大. 龍, 水行中力大; 象, 陸行中力大.’ 今以鉅禪碩師比之龍象.)
- 7) 대혜종고(大慧宗杲)의 말. 『大慧語錄』 권2 大47 p.817c3의 상당(上堂)이다.
- 8) 공양을 하고 발우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평상의 일 이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고 오해하도록 한다는 말. 조주가 죽을 먹었다고 물어보고 발우를 씻으라 한 말에 대하여 대혜의 말을 인용하여 평상무사(平常無事)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잘못이라는 뜻이다. 조주와 대혜는 모두 본분의 화두로써 제시했다는 이해에 기초한 평가이다.

일까?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sup>9)</sup>

乍入叢林乞師指示者，初心學人，創入叢林，存誠堅確，正覓入頭處不得也。喫粥云云者，萬松云，“飯來張口，睡來合眼。挽鞋時摸着脚跟，洗面處拾得鼻孔。那時蹉却話頭，把火深夜別覓，何時得相應去哉！”萬松伊麼道，帶累趙州，和泥合水。又古人云，“超然居士設粥，供養一堂龍象。喫了掛起鉢盂云，<sup>10)</sup>好箇西來榜樣！”古人伊麼道，沒他學者，作無事會。然則趙州意作麼生？有指示耶，無指示耶？僧豁然大悟者，有悟無悟？悟箇什麼？

### 남명법천(南明法泉)의 송

죽을 다 먹었으면 발우나 씻으라 하니,  
버들잎 잘 쏘아 맞히고<sup>11)</sup> 오늬도 쪼개네.<sup>12)</sup>  
한 줄기 새벽바람 연못에 불어오니,  
가을 연꽃은 흔들리는 물결에 붉은 옷<sup>13)</sup> 벗는다.

---

9) 학인의 깨달음 자체를 의문으로 만들어 화두로 만드는 수법이다.

10) ‘云’은 불필요한 글자.

11) 초나라 양유기(養由基)가 백 보 거리에서 버드나무 잎을 쏘아 백발백중의 솜씨를 보인 고사를 가리킨다. 『戰國策』 「西周策」 참조.

12) 괭(筈)은 화살의 꼬리 부분인 오늬로 활시위에 걸도록 갈라져 있는데, 앞서 목표물에 적응한 화살의 이 부분을 또 다른 화살로 맞춰 쪼갤 정도로 조주의 말은 핵심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뜻.

南明泉頌, “喫粥了去洗鉢, 善射穿楊復劈筈. 一陣曉風池上來, 秋蓮浪擺紅衣脫.”

[설화]

제2구는 조주가 화살을 잘못 쏘지 않았음 나타낸다.<sup>14)</sup> 그 아래 두 구절은 학인의 시작도 알 수 없는 무명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렸다는 뜻이다.

南明: 二句, 趙州箭不虛發. 下這僧無始無明, 當下消釋.

###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총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시 바라니,  
큰 보시의 문 열어 막힘없이 드러내 주네.  
대개 영산에서 수기 받은 가섭도,  
이 같은 절차 밟은 적 없었으리라.

薦福逸頌, “乍入叢林乞指示, 大施門開無擁滯. 往往靈山得記人, 未有如斯箇次第.”

###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1

죽 먹은 뒤 발우를 씻도록 하자,  
활짝 트인 마음 저절로 들어맞네.  
지금 충분히 수행한 총림의 선객들이여!

---

13) 홍의(紅衣). 연꽃잎의 별명.

14) 화살은 말을 상징한다. 조주는 핵심에 적중하는 말을 하였다는 뜻.



말해 보라, 그 당시에 깨달음 있었는가?<sup>15)</sup>

天童覺頌, “粥罷令教洗鉢盂, 豁然心地自相符. 而今叅飽叢林客! 且道其間有悟無?”

[설화]

반드시 지금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天童初頌: 須是今日悟得, 始得.

## 천동정각의 송2

죽을 다 먹었으면 발우나 씻으라 하니,

본래 흠 없이 완결된 바른 법도였다네.

안타깝다, 섬씨가 진짜 용 두려워하더니,<sup>16)</sup>

---

15) 죽 먹고 설거지하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 전하는 도리를 굳이 그때서야 깨달았느냐는 반문.

16) 그러진 용만 대하다가 진짜 용이 출현하자 놀랐다는 말. 문자로 나타낸 관념에 익숙하다가 조주가 보여준 진면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한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섬공자고(葉公子高)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자고는 평소 용을 사랑하여 거실에 용의 조각·그림 등을 걸어 두었는데, 하늘의 진룡(眞龍)이 이것에 감동하여 내려와서 자고의 창에 그 꼬리를 드러내자 자고가 이것을 보고 놀라 실신하였다고 한다. 유향(劉向)의 『新序』「雜事」 제5 참조. “남자들 중에서 예리한 말을 좋아하고 문구를 즐기는 자들은 스님의 법어를 들을 때마다 마치 나무껍질로 끓인 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즐겨 먹을 맛이랴곤 전혀 없자 간혹 이것을 가지고 스님에게 물었는데, 스님은 웃을 뿐이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섬공이 진짜 용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꼴이다.”(『無明慧經語錄』「序」 卍125 p.1b7. 衲子有好逞詞鋒嗜文句者, 每視師法語, 如啜木札羹, 無膾炙味, 問以此議師, 師亦嘗笑. 此輩, 如葉公怖眞龍耳.); “용이라는 존재는 비상한 것이던가? 볼 줄 아는 사람이 적다. 색을 칠하여 그려 놓고 사람들에게 용이라고 알려 주면 누구나 그

어부<sup>17)</sup>가 호랑이 탄 모습도 이상타 하네.  
 본래 변함없는 이치요 진실한 말이거늘,  
 그 학인 구태여 깨닫는 방법 물었다네.  
 이전부터 코는 불쑥하게 드리워졌으니,  
 안배하지 않아도 제자리에 붙어 있으리라.

又頌, “喫粥了洗鉢去, 法爾圓成正規矩. 可憐葉氏怕真龍, 却怪謝郎騎猛虎. 本常理眞實語, 這僧且問如何悟. 從來鼻孔大頭垂, 不用安排兮自着處所.”

[설화]

본래 변함없는 이치라면 어찌 반드시 지금에서야 깨달았겠느냐는 뜻이다.

次頌: 既是本常理, 何必今日悟得.

### 천동정각의 송3

영웅이 힘겨운 전쟁 치르고 있다는 소리 듣고,

---

것이 용이라 알고 믿지 않는 자가 없지만, 후에 진짜 용을 보고 용이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여긴다. 오늘날 누가 설법을 하지 않는가? 떠들썩한 그 가르침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하지만 진실한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저들 그려진 용이 그러한 것과 같다.”(『書洞山語錄尾』大47 p.518c25. 龍之爲物, 其非常耶? 人能觀者, 寡矣. 丹青以畫, 告人以龍, 人知其爲龍, 不信者未之有, 後觀眞龍, 告之以龍, 人且怪焉. 方今之世, 孰不說法? 嚚嚚其教, 似則似, 眞則否, 如彼畫龍然.)

- 17) 사랑(謝郎). 사(謝)씨네 아들. 원래 어부 출신으로 사씨 가문 셋째 아들인 현사사비(玄沙師備)를 사삼랑(謝三郎)이라 하였는데, 선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부 또는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사방의 갈림길 어디도 스스로 다니지 못했다네.

이제 장안의 길 몸소 밟아 보고서야,

비로소 나라가 오래전부터 태평했음을 아노라.

又頌, “聞說英雄苦戰爭, 四方歧路自難行. 而今踏着長安道,  
始信邦家久太平.”

[설화]

1구와 2구 : 깨달았다거나 깨닫지 못했다거나 하며 주거나 받거나 설전을 벌이는 것이 영웅의 전쟁으로 갈림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제 장안의 길 몸소 밟아 보고서야 : 오늘부터 깨달았다는 말.

비로소 ~ 아노라 : 본래 태평했다는 말이니, 앞의 두 게송이 지닌 뜻을 아우르는 구절이다.

後頌 : 前句, 有悟無悟商量, 是英雄戰爭, 歧路難通也. 而今踏着長安道者, 從今日悟去也. 始信云云者, 本自太平, 兼前二義.

혜림덕손(慧林德遜)의 송

죽 먹은 다음에 발우를 씻도록 하지만,

초심자는 항상 그 마음 거칠다 여긴다.<sup>18)</sup>

설령 이 순간 되어 분명히 알았더라도,

이미 평생토록 장부답지 못하게 되리.

---

18) 조주의 말을 지극히 평범하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는 뜻.

慧林遜頌, “粥後令教洗鉢盂, 初心往往便心羸. 直饒到此分明  
了, 已是平生不丈夫.”

###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총림에 막 들어와 질문 하나를 펼치니,  
조주가 지시해 준 뜻이 어떤 것이더냐?  
아무 조짐도 안 남겼거늘 누가 가려내겠는가!<sup>19)</sup>  
죽을 먹었다고 하니 발우나 씻으라 했을 뿐.<sup>20)</sup>

法眞一頌, “乍入叢林伸一問, 趙州指示意何如? 不留朕跡誰  
能辨! 粥了令教洗鉢盂.”

###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총림에 막 들어와서는,  
스님의 지시를 바라네.  
조주가 입을 열었으나,  
죽은 먹었냐고 물을 뿐.  
죽을 먹었다고 답하니,  
모자람 없는 부귀로다.

---

19) 조주의 말에는 분별하거나 말할 단서가 되는 어떤 조짐도 없다는 뜻.

20) 조주는 이 두 마디에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냈지만 분별한 단서가 있는 것  
은 아니다.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조주는 입을 벌려 쓸개를 보이고, 심장과 간  
을 드러냈다”(趙州開口見膽, 露出心肝.)라고 한 「평창」의 뜻과 통한다. 『無門關』7  
則 大48 p.294a1.

밭우나 씻으라고 하니,  
줄기 딱 좋은 말이구나.

崇勝珙頌, “乍入叢林兮, 乞師指示. 趙州開口兮, 喫粥了未.  
喫粥旣了兮, 千般富貴. 洗鉢盂去兮, 正好瞌睡.”

#### 목암법충(牧庵法忠)의 송<sup>21)</sup>

죽 먹고 나면 마땅히 밭우 씻어야 하니,  
평소에 잘도 하는 일 외면하지 마라.  
만일 깨달아 분명한 뜻 알았다 한다면,  
서쪽에서 온 벽안의 달마 비웃으리라.

牧庵忠頌, “粥罷當須洗鉢盂, 尋常受用莫相辜. 若言悟去知端的, 笑殺西來碧眼胡.”

#### 밀암함걸(密庵咸傑)의 송

죽 다 먹었으면 밭우 씻으라 하니,  
밀 빠진 칠선 남에게 떠받치라 한 격이네.<sup>22)</sup>  
돛 하나 높이 단 외돛배로 순풍 타고,  
바닷물 가르고 가면 틀림없이 대장부이리라.

21) 학인이 조주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부분에 대해 읊은 송.

22) “백장의 여우 화두에 대한 송: 두 부분(不落과 不昧)에 설정된 효와(誦詵)가 모두 진실하지 못하니, 밀 빠진 칠선이 하늘과 땅을 모두 실었네. 여러 마디 피리 소리에 이별의 정자는 저물고, 한 조각 외돛배는 동정호를 지나간다.”(『五燈全書』 권106 「澹庵龍章」 卍142 p.60a1, 頌百丈野狐曰, ‘兩處誦詵總不眞, 鐵船無底載乾坤. 數聲腔笛離亭晚, 一片孤帆過洞庭.’)

密庵傑頌, “粥了令教洗鉢盂, 鐵缸無底要人扶. 片帆高掛乘風便, 截海須還大丈夫.”

## 무위자의 송

죽 다 먹었으면 발우 씻으라 했을 뿐,

언제 조계로 가는 길 지시했던가?

대중과 함께 30년 수행했다 말하지 말라.

좌선할 방식 펼 줄 알면서 수저질은 잊었구나.

無爲子頌, “喫粥了洗鉢去, 何曾指示曹溪路? 謾言隨衆三十年. 記得展單忘却筋.”<sup>23)</sup>

## 열재거사의 송

죽 먹었으면 발우 씻으라 하니,

초강의 농어 맛 다시 그림구나.

버드나무<sup>24)</sup> 색이 지금 이다지 한창이니,

산음에 눈 내리던 밤<sup>25)</sup>과 비교해 어떤가?<sup>26)</sup>

23) ‘근(筋)’은 ‘저(筋)’자의 오식.

24) 무창류(武昌柳). 원래는 관아의 뜰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보통의 버드나무[楊柳]를 통칭하게 되었다. 하시(夏施)라는 자가 무창(武昌)의 서문(西門)에 있던 버드나무를 훔쳐 자신의 집 앞에 심어 놓았는데, 이를 발견한 도간(陶侃)이 꾸짖자 하시가 사죄했다는 고사에서 비롯한다. 『晉書』「陶侃傳」 참조.

25) 산음야설(山陰夜雪). 산음은 회계(會稽)에 있는 지역 이름. 왕자유(王子猷) 곧 왕휘지(王徽之)가 눈 내리는 밤의 흥취를 이기지 못해 벗인 대안도(戴安道: 戴逵)

悅齋居士頌, “粥了教伊洗鉢盂, 令人還憶楚江鱸. 武昌柳色今如許, 似得山陰雪夜無?”

## 운문문언(雲門文偃)의 엄

“말해 보라! 지시해 준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조주는 그에게 무엇이냐 했다는 것인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 학인은 무엇을 근거로 깨달았단 말인가?”

雲門偃拈 “且道! 有指示無指示? 若言有, 趙州向伊道箇什麼? 若言無, 者僧因甚悟去?”

### [설화]

지시해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주는 원래 이 말을 한 적이 없는 결과가 되고,<sup>27)</sup> 지시해 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학인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를 찾아 배를 탔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말. “왕자유가 산음에 살 때 밤에 큰 눈이 내렸다. …… 불현듯 대안도가 생각났다. 당시 대안도는 섬(剌) 지방에 살고 있어 곧바로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가서 하룻밤이 지나서야 도달했다. 대문까지 가서는 더 나가지 않고 돌아섰다. 누군가 그 까닭을 묻자 왕자유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본래 흥에 겨워 갔다가 흥이 수그러들어 되돌아온 것일 뿐이니, 반드시 대안도를 만날 필요가 있었겠는가?’”(『世說新語』「任誕」. 王子猷居山陰, 夜大雪, …… 忽憶戴安道. 時戴在剌, 即便夜乘小船就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返. 人問其故, 王曰,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戴?’)

- 26) 조주의 일상어에서 본분을 지시받은 것이 진실한 빛과 해우한 경우와 같다고 보는 관점이다. 눈앞에 한창 초록빛으로 물오른 버드나무와 눈 내리는 밤의 풍경을 대웅시켰다. 이백(李白)의 시「單父東樓秋夜送族弟沈之秦」에 “말을 말아 올리자 나타난 달에 밝은 흥취 밀려오니, 아마도 산음의 밤에 내렸던 눈도 이리 했으리라.”(卷簾見月清興來, 疑是山陰夜中雪)라고 한 구절과도 비견된다. 버드나무를 보거나 달을 보고 산음야설의 고사를 연상한 것이 유사하다.

어찌 지시해 준 내용이 없다는 말인가!

雲門：若言有指示，趙州元無此語；若言無指示，這僧悟去，  
豈無指示處！

###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나는 운문처럼 뱀을 그리다가 발까지 붙여 넣듯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직언으로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학인의 질문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것과 같았고, 조주의 답변은 우연히 글자가 새겨진 것과 같았다.<sup>28)</sup>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납승의 눈을 멀게 했으니, 이 잘못을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싶은가? 그대들에게 조주가 ‘죽은 먹었느냐?’라고 한 말을 되돌려주고, 그 학인이 ‘먹었습니다’라고 한 말도 집어 주리라.<sup>29)</sup> 그런 다음 나는 그대들에게 주장자를 주고 방으로 돌아가겠다.<sup>30)</sup>”

雪竇顯拈，“我不似雲門爲蛇畫足，直言向你道。問者，如蟲蝕

27) 다만 죽을 먹었냐고 묻고 발우나 씻으라고 한 말 이외에 지시한 내용이 달리 있었다는 뜻이 된다.

28) 겉보기에는 일치하는 의미가 있는 말인 듯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과도 통하지 않는 무의미한[沒滋味] 문답이라는 뜻이다. 40권본 『大般涅槃經』 권2 p.378b27에 나오는 다음의 비유에 따르는 것으로 선가에서 상용한다. “마치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글자가 새겨지지만 이 벌레는 그것이 글자인지 글자가 아닌지 모르는 것과 같다.”(如虫食木有成字者，此虫不知是字非字.)

29) 해설하는 여타의 ‘남아도는 말’들은 모두 빼앗고, 본래 조주와 그 학인이 한 말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주리라는 말. 조주와 학인의 문답 속에 이미 공안이 온전히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화>의 취지도 이와 같다.

30) 주장자는 종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상징물이며, 이 주장자를 전해 주고 방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전해 줄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다.



木，答者，偶爾成文。然雖與麼，瞎却衲僧眼，作麼生免得此過？諸仁者，要會麼？還爾趙州喫粥未，拈却者僧喫粥了。雪竇，與你拄杖子歸堂。”

[설화]

운문이 ‘지시해 준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은 것과 그 학인이 깨달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말은 모두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말이라는 뜻이다.

雪竇：雲門有指示無指示，這僧有悟無悟，皆是剩語也.

운봉문열(雲峯文悅)의 염

“운문이 그렇게 한 말은 황문<sup>31)</sup>에게 수염을 심어 주거나 뱀에게 발을 그려 주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학인이 그런 방식으로 깨달았다면 쏜살과 같이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하리라.”

雲峯悅拈，“雲門與麼道，大似爲黃門栽鬚，與蛇畫足。雲峯則不然。這僧伊麼悟去，入地獄如箭射。”

[설화]

황문에게 수염을 심어 주다 : 조주가 지시해 준 내용이 없다는 말이니 완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뱀에게 발을 그려 주다 : 조주가 지시해 준 내용이 있다는 말이니 남아도는

---

31) 黃門. 외형은 남자지만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자로 수염이 나지 않는다.

것이라는 뜻이다. 양자의 병통은 마찬가지이다.<sup>32)</sup>

썸살과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sup>33)</sup>

雲峯：黃門栽鬚者，謂趙州無指示，是欠事也；與蛇畫足者，謂趙州有指示，是剩法，其病一也。入地獄云云者，和根拔去也。

### 황룡사심(黃龍死心)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과 운봉의 염을 함께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과 취암<sup>34)</sup>은 비록 강한 것을 덜어내고 약한 것을 도와주거나, 부(富)를 버리고 가난을 따랐지만, 집안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지는 못했다.” 이어서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상좌도 아침이 되면 죽을 먹고 발우도 씻을 것인데, 지금 미혹되어 있느냐, 깨달았느냐?” 그 학인이 절을 올리고 일어나자 황룡이 “가까이 오라!”고 불렀고, 학인이 가까이 다가서자 말했다. “나에게 불자 한 자루가 있는데, 그대에게 줄 터이니 가지고 돌아가거라.”<sup>35)</sup>

黃龍心，舉此話，連舉雲門雲峯拈。師云，“雲門翠嶠，雖則善能鋤強輔弱，捨富從貧，要且，不能安家立國。”乃問僧，“只如上座，朝來亦喫粥亦洗鉢，卽今是迷是悟？”其僧禮拜起，師喚“近前！”僧近前，“我有一柄拂子，與你歸去。”

32) 조주의 말은 모자라는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이, 드러낸 말 그 자체로 완결된 화두라는 말이다.

33) 유·무에 대한 분별의 근거를 모조리 뽑아 없앴 말이라는 뜻.

34) 취암사에 주석했던 운봉의 호. 문헌에 따라서는 취암이 아니라 설두(雪竇)로 되어 있기도 하다.

35) 이 역시 주석(30)의 취지와 같다.

[설화]

강한 것을 덜어내고 약한 것을 도와주다 : 운문의 취지<sup>36)</sup>를 나타낸다.

부를 버리고 가난을 따르다 : 취암의 취지<sup>37)</sup>를 가리킨다.

이 두 선사 모두 무사(無事)의 경지를 터득하지는 못했으므로<sup>38)</sup> ‘집안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죽을 먹고 발우도 ~ 미혹되어 있느냐 깨달았느냐 :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본래 태평한 경지를 가리킨다.

불자 한 자루가 ~ 가지고 돌아가거라 : 마음대로 씹먹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黃龍：鋤強輔弱者，雲門意也；捨富從貧者，翠巖意也。皆未得無事，故云，‘不能安家立國’也。喫粥洗鉢是迷是悟者，無迷無悟，本自太平也。一柄拂子者，受用有分。

###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엄

“조주는 그 학인의 눈을 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총림의 수행자들이 모두 발우에서 살 길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sup>39)</sup> 당시에 ‘차나 마시게’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雪溪益拈，“趙州不唯瞎却者僧眼，直得南北叢林，盡向鉢盂上

36) ‘지시’라는 말에 충분히 드러난 점[強]은 버리고 숨은 맥락[弱]을 보충하여 드러냈다는 뜻.

37) 있다거나 없다가나 모두 잘라내고 마지막에 학인이 깨달았다는 말도 부정해버림으로써 어떤 설명도 취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38) 더 이상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은 무사태평의 완결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

39) 조주가 ‘발우나 씻어라’고 한 말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며 깨달음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는 뜻.

作活計。當時幸好箇喫茶去，不會道得。”

[설화]

조주는 ~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는 듯이 착각했기 때문이다.

차나 마시게 :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본래 태평하다는 말.

雪溪：趙州不唯云云者，似有指示處故也。喫茶去者，無迷無悟，本自太平也。

### 삼계일익의 상당

“대천세계가 모두 하나의 가람이거늘 무슨 강서와 영남을 구분지어 말하는가? 아침과 점심 두 때를 사정에 따라 먹고 지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모르겠다면 특별히 그대들에게 참구할 거리를 주겠다”라 하고 이어서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조주 노인은 하나만 알았을 뿐 둘은 몰랐다. 만일 그 학인의 발우에 다 먹지 못한 밥이나 먹다만 죽이 남아 있었다면 또한 어떻게 씻으라 할 수 있었겠는가?<sup>40)</sup> 비록 이렇다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발우를 잘 포개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혹시라도 조주와 마주쳐서 그가 뿌리는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라.<sup>41)</sup> 안타깝구나!” <참!>

又上堂云，“大千都是箇伽藍，說甚江西與嶺南？齋粥二時隨分過，未明特地爲君叅。”乃舉此話云，“趙州老漢，只知其一，

40) 그 학인이 죽을 다 먹지도 않았음에도 ‘다 먹었다’고 하여 조주의 반응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대목이다. 만일 그랬다면 조주가 ‘발우나 씻어라’고 한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뜻.

41) 어떤 경우라도 조주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未知其二。忽若這僧，有喫不盡底飯，喫不了底粥，又作麼生洗？然雖如是，諸人也須併疊，教潔淨，始得。莫教撞着趙州，被伊惡水澆却也，可惜許！”〈叅！〉

[설화]

조주가 이렇게 한 말(발우나 씻으라고 한 말)은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하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주가 뿌리는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又上堂：趙州伊麼道，似有喫不盡底粥飯故也。須洗得淨潔，若不如是，未免被趙州惡水澆却。

####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상당<sup>42)</sup>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산승은 오늘 아침에 죽을 먹고 발우도 씻었지만 여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선지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째서 깨닫지 못한 것일까? 알겠는가? 종소리를 듣고 웅기 두드리는 소리라 착각해서야 되겠는가!”<sup>43)</sup> 결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지 않으

42) 학인이 ‘깨달았다’는 점에 대하여 궁구한 법문.

43) 깨달음이라는 말에 숨은 선어(禪語)로서의 함정을 간파한 평가이다. “원통사에 이르자 어떤 학인이 물었다. ‘두 종사가 만나면 마땅히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해야 할까요?’ 여섯 개의 귀(세 사람)로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 ‘스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것이 진실하지 못하면 종소리를 듣고도 웅기 두드리는 소리라 착각하는 법이니라.’”(『白雲守端和尚語』續古尊宿語要3 卮118 p.943a16. 到圓通，僧問，‘二師相見，合談何事?’ 師云，‘六耳不同謀.’ 僧云，‘謝師答話.’ 師云，‘聽事不眞，喚鐘作甕.’)

리라.<sup>44)</sup> 선한 사람의 마음은 더럽히기 어렵고, 수은은 가짜가 없다.<sup>45)</sup> 냉정하게 간파한다면 틀림없이 한꺼번에 내려놓을 것이다.”

佛眼遠，上堂，舉此話云，“大衆，山僧今朝，喫粥也洗鉢盂，只是不悟。既是爲善知識，爲什麼却不悟？還會麼？豈可喚鍾作甕！終不指鹿爲馬。善人難犯，水銀無假。冷地忽然覷破，管取一時放下。”

[설화]

산승은 오늘 아침에 ~ 내려놓을 것이다 :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말로 위에서 삼계가 제시한 뜻과 동일하다.

佛眼：山僧今朝喫粥云云者，無迷無悟，上雪溪意同。

44) 본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속이는 방법은 선어(禪語)에 들어 있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 학인이 ‘말우나 셋어라’고 한 조주의 말에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는 시험하기 위한 임시 설정의 기틀과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간파하는 것은 공부하는 자들의 몫이다. 불안이 자신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했지만, 그 역시 이 맥락을 간파했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조주와 학인은 문답만 나누었을 뿐이며, 조주가 학인의 견지를 인가해 주지도 않았고 학인 또한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깨달았다’는 것은 제3자가 기록한 일종의 무의미한 말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흙을 쥐고서 금이라 한다. 혀끝에서 천둥소리를 일으키고, 눈썹 사이에 피 묻은 칼을 감춘다. 앉아서 성공과 실패를 관조하고, 서서 삶과 죽음을 시험한다. 말해 보라! 이는 어떤 삼매인가?”(『從容錄』 16則「示衆」大48 p.236c11. 示衆云, ‘指鹿爲馬, 握土成金. 舌上起風雷, 眉間藏血刀. 坐觀成敗, 立驗死生. 且道! 是何三昧?’) 『雪竇語錄』 권4 大47 p.697c16, 『碧巖錄』 27則「評唱」大48 p.167b28 등 참조.

45) 약초인 아위(阿魏)는 진짜가 없다는 뜻의 ‘아위무진(阿魏無眞)’과 대구로 쓰인다. 곧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는 뜻으로써 진짜와 가짜의 대립에서 오는 모든 분별을 버리는 지표로 제시된다.

## 불안청원의 상당2

“조주는 발우를 씻으라 했고 학인은 확 트인 듯 그 말의 취지를 알았으며, 조과선사는 옷에 묻은 보푸라기[布毛]를 붙여 날렸고 시자는 그 자리에서 종지를 터득했다.<sup>46)</sup> 이는 그들에게 밝혀 준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드러내었다는 말인가? 그들에게 밝혀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드러낸 것도 아니다. 대중들이여, 알겠는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어째서 이해하지 못하는가?”

又上堂云, “趙州道箇洗鉢去, 其僧豁爾知歸; 鳥窠吹起布毛. 侍者當下得旨. 爲復是就伊明破? 爲復是吐露向伊? 亦不是就伊明破, 亦不是吐露向伊. 大衆, 會麼? 本有之性, 爲什麼不會?”

[설화]

그들에게 밝혀 준 것인가: 다만 저들 학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본분사를 지시해 주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들에게 드러내었다는 말인가: 바로 지금[今時] 지시해 준 것이 없지 않는 뜻이다.

그들에게 밝혀 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드러낸 것도 아니다: 본분도 아니고 금시도 아니라는 말이다.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어째서 이해하지 못하는가: 비록 본래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새로운 훈습의 힘에 의지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

46) 우두종(牛頭宗) 조과도림(鳥窠道林 741~824)이 옷에 붙여 있던 보푸라기를 붙여 날림으로써 시자인 회통(會通)에게 핵심을 단적으로 보인 것. 『禪門拈頌說話』 747則 참조.

그들에게 밝혀 준 것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又上堂：就伊明破者，但指出這僧本有之事也。吐露向伊者，今日不無指示也。亦不是就伊明破云云者，非本分非今時也。本有之性云云者，雖本有，必借新熏而會得也。然則亦是就伊明破，亦是吐露向伊。

###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도 본래 누구나 아침에 죽을 먹고 제각각 발우를 씻는데, 조주가 그렇게 말하고 그 학인이 그렇게 깨우쳤다는 뜻을 이해하겠는가? 만일 어떤 납승이 나와서 ‘언제나 손님을 전송하는 장소에 있다 보면, 고향을 떠날 때의 광경이 기억난다’<sup>47)</sup>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을 하기는 쉽지만,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기는 어렵다’<sup>48)</sup>라고 말해 줄 것이다.”

長靈卓，上堂，舉此話云，“汝等諸人，早來人人喫粥，各各洗鉢盂，趙州伊麼道，這僧伊麼省，還會得也未？忽有个衲僧出來道，‘長因送客處，記得別家時。’天寧向伊道，‘易開終始口，難保歲寒心。’”

47) 장적(張籍)의 시에 나오는 구절. “모든 성인의 말씀은 세간의 언어 형식을 벗어 나지 않고 세간에 순하게 따른다. 그 뜻을 이해하면 어디서나 마음껏 써먹을 수 있으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간의 언어 형식만 퍼뜨리게 될 것이다.<옛사람이 착어했다. ‘언제나 손님을 전송하는 장소에 있다 보면, 고향을 떠날 때의 광경이 회상된다.’>”(『人天眼目』 권2 大48 p.310a22, 諸聖語言, 不離世諦, 隨順世間, 會則途中受用, 不會則世諦流布.<古德著語云, ‘長因送客處, 憶得別家時.’>)

48) 세한심(歲寒心)은 『論語』 「子罕」에 나오는 말을 활용한 것이다.



[설화]

언제나 손님을 ~ 기억한다 : 조주의 말로 인하여 자신이 옛날에 겪었던 경계를 기억한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 어렵다 : 비록 그렇게 조주의 의중을 이해하여 깨우친 부분이 있더라도 고난에 굴하지 않는 절개는 아니라는 뜻이다.

長靈：長因送客處云云者，因趙州語，記得某甲舊時行李處也。  
易開終始口云云者，雖然伊麼會趙州意，若有省得處，非歲寒心也。

##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1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과 취암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 늙은이는 마치 아수라왕이 삼계의 큰 성에 있는 모든 번뇌의 바다를 어지럽게 혼드는 것과 같았다.”<sup>49)</sup> 뒤이어 활을 내지른 다음 말했다. “잠꼬대는 해서 무엇 하겠는가!”<sup>50)</sup> 다시 말했다. “취암은 비록 손을 뒤로 잘 돌려 등에 멘 무쇠 화살을 뽑고서 몸을 뒤집어 활을 당겨 쏘았지만, 운문을 맞히지 못한 것을 어찌하라!”<sup>51)</sup>

---

49) 80권본 『華嚴經』 권66 大10 p.359c13의 구절.

50) 잠꼬대와 같이 무의미한 듯이 표현한 말을 포착했다는 뜻. 임제가 덕산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잠꼬대’라 한 말이 유명하다. “임제가 어느 날 덕산을 시봉하고 있었는데, 덕산이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이 노장님께서 잠꼬대는 해서 무엇 하려는 것일까?’ 이에 덕산이 한 대 때리자 임제가 곧바로 선상을 뒤집어 었었고, 덕산은 문답을 그만 그쳤다.”(『臨濟語錄』 권3 大47 p.822b28. 師侍立德山次, 山云, ‘今日困.’ 師云, ‘這老漢, 寐語作甚麼?’ 山便打, 師掀倒繩床, 山便休)

51) 운문을 부정한 취암의 말도 타당하기는 하지만, 운문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는 말.

雲門杲, 舉此話, 連舉雲門翠崑拈, 師云, “雲門老漢, 大似阿脩羅王, 耗<sup>52)</sup>動三有大城諸煩惱海.” 隨後喝云, “寐語, 作什麼!” 復云, “翠崑, 雖善背手抽金鏃, 翻身控角弓, 爭奈蹉過雲門何!”

# [설화]

아수라왕이 ~ 흔드는 것과 같았다 : 시작도 알 수 없는 무명을 깨끗하게 없애 버렸다는 뜻이다.

잠꼬대는 해서 무엇 하겠는가 : 여전히 흔적과 조짐이 남아 있으니,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는 행위<sup>53)</sup>와 같다는 뜻이다.

비록 손을 뒤로 잘 돌려 ~ 어찌하랴 : 취암 또한 텅 비고 고원한 경지에 힘을 썼지만 기력이 없었다는 말이다.

雲門：阿脩羅王云云者，無始無明，無不淨盡也。寐語作什麼云云者，猶有痕朕，如掩耳偷香<sup>54)</sup>也。雖善背手云云者，翠巖，亦驚於虛遠，而無氣力也。

## 대혜종고의 상당2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단적인가? 운문은 ‘말해 보라! 지시해 준

52) ‘耗’는 ‘撓’자의 오식.

53) 엄이투령(掩耳偷鈴). 자신의 귀를 막으면 자신에게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남들도 듣지 못할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 운문이 지시가 있는 길과 없는 길을 모두 차단한 부정으로 어떤 분별도 통하지 않게 되었지만 도리어 그것에 운문의 의도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다는 뜻이다.

54) ‘香’은 ‘鈴’자의 오식.

것이 있는가 ~ 무엇을 근거로 깨달았단 말인가'라고 했다.” 대혜가 다시 말했다. “조주와 그 학인은 운문이 아니었다면 한평생 굴욕을 당했을 것이다.”<sup>55)</sup> 오늘날 제방에는 한 무리의 눈먼 사람들이 때때로 모두들 ‘발우나 씻어라’고 한 화두를 이해했다고 여긴다.”

又上堂，舉此話云，“還端的也無？雲門云，‘且道！有指示，至爲甚悟去。’”師復云，“趙州與這僧，若不得雲門，一生受屈。而今諸方，有一種瞎漢，往往盡作洗鉢盂話會了。”

[설화]

운문은 자유자재로 견해를 지어낼 줄 알았기 때문이다.

又上堂：雲門，解弄見故也.

### 대혜종고의 상당3

다시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제방에서 핵심을 집어내어 평가한 말도 매우 많고 주석을 붙인 것도 적지 않지만, 분명하게 설명한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겠다. 죽을 먹었으면 발우나 씻으라고 했는데, 말해 보라! 지시한 내용이 있는가? 검은 쿵은 본래부터 장 담그기에 알맞고, 비구니는 틀림없이 사고<sup>56)</sup>인 것이다.

又舉此話云，“諸方拈掇甚多，下注脚亦不小，未曾有一人，分

55) 대혜는 운문이 가장 단적으로 이 공안의 핵심을 집어냈다고 보고 있다. 운문의 평가가 아니었다면 조주와 학인은 하찮은 문답을 한 것으로 오인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56) 師姑. 비구니를 부르는 또 다른 말 중 하나. 특히 나이 많고 덕이 높은 비구니를 가리킨다.

明說破。妙喜今日爲諸人，分明說破。喫粥了，便洗鉢盂，且道！還會指示無？黑豆從來好合醬，比丘尼定是師姑。”

[설화]

오늘의 지시는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그 학인 본분상의 일일 뿐이다. 이것은 지시도 없지 않고 깨달은 경계도 없지 않다는 취지이다. 앞의 상당은 본래 지시도 없고 깨달은 경계도 없다는 취지이고, 그 앞의 상당은 이상의 두 가지 뜻을 아울러 지닌다.

又舉：今日指示，別無特地，只是這僧分上事也。此不無指示，亦不無悟處。前上堂，本無指示，亦無悟處。前前上堂，兼後二意也。

### 육왕개심(育王介識)의 염

“그 학인이 죽은 먹었으나 입이 없고 발우는 씻었으나 손이 없는 격이었다. 손이 있었다면 어째서 발우를 깨뜨리지 못했겠는가? 또 입이 있었다면 어째서 뱉어내지 못했겠는가? 뱉어내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했으면서 무엇으로 깨달았는가?”

育王諶拈，“者僧，喫粥不曾有口，洗鉢不曾有手。有手何不打破？有口何不吐却？既不吐却，又不打破，因甚悟去？”

[설화]

씻은 발우도 깨뜨려야 하고 먹은 죽도 토해내야 비로소 본분과 일치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가리켜 깨달았다고 하겠느냐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다.

育王：也須打破洗地鉢，也須吐却喫地粥，方可卽，不然，何名有悟？伊麼又却不是。

## 백운지병(白雲知病)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과 설두의 염을 연이어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과 설두는 바른 법령을 남김없이 제기하여 속박을 타파하기는 했지만, 자취를 털어 없애려다 도리어 흔적을 남기고 숨기려다가 더욱 드러낸 꼴이었다.<sup>57)</sup>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 학인이 비록 깨달았더라도 (근본에서 멀리 떨어진) 조주의 두 번째 수단을 깨달았을 뿐이다. 꿰뚫어서 열린 눈을 갖춘 납자라면 결코 그 표면적인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白雲哂，舉此話，連舉雲門雪竇拈，師云，“雲門雪竇，全提正令，打破羅籠，拂迹成痕，欲隱彌露。南華道，者僧雖然悟去，只悟得趙州第二杓。具透開眼底衲子，必不雷同。”

## [설화]

조주의 본의는 언어와 분별의 한계를 벗어나 드넓은 것이니,<sup>58)</sup> 그 학인이 조주가 한 말에서 알아차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설령 조주의 이 말에서 벗어나 깨달았다 해도 또한 두 번째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조주의 본의는 무엇일까? 반드시 (이 난관을) 꿰뚫어야 한다.<sup>59)</sup>

57) 숨기려고 수단을 부리다가 그것이 도리어 정체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뜻. 굉지정각(宏智正覺)과 불감혜근(佛鑑慧勲) 등이 이 두 비유를 주로 썼다. 『從容錄』 11則 「頌著語」 大48 p.234b8, 『拈八方珠玉集』 권상 卍119 p.212b16 참조.

58) 직득무한(直得無限). 본서 2則 주석114) 참조.

59) 조주의 말 자체에서[卽] 알아차리려 해도 안 되고, 그것을 벗어나서[離] 깨달을

白雲：趙州意直得無限，莫道這僧向趙州言句裏承當。直饒離此而悟得，亦是第二杓也。然則趙州意如何？也須透得，始得。

## 심문담분(心聞曇貲)의 상당

“죽을 먹었으면 발우나 씻으라고 하니, 이러한 문답에서 (그 학인이)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죽을 먹었으면 발우나 씻으라고 하니, 또한 무엇을 알아차리란 말인가? 핵심과 상응하고자 한다면 바로 분명히 알아차린 경계만 집어내어라. 하지만 분명히 알아차린 경계를 집어낸들 또한 무엇 하겠는가? 알고자 하는가? 조주는 지금 서당(西堂)의 눈동자 속에서 뛰면서 놀다가 모르는 곁에 다시 수좌(首座)의 귀 안에서 나오고, 지금은 또 감원(監院)의 가슴 부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불현듯 불자를 곳곳이 세우고 말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그를 이 안에 붙잡아 두었다. 각자 재빨리 눈을 뜨고 살펴보기 바라며, 이전처럼 놓치지 않도록 하라!”

心聞貲，上堂云，“喫粥了洗鉢盂去，還會恁麼見得也未？喫粥了洗鉢盂去，又見个什麼？要得相應，但拈了見底。只如拈了見，又作麼生？要會麼？趙州卽今，在西堂眼睛裏蹣跳。不覺，又從首座耳根裏出，而今又在監院心頭上，遲遲疑疑地。”驀堅起拂子云，“長蘆爲你擒在這裏了也。各請急着眼看，莫教依舊走失！”

---

수도 없다. 이처럼 조주의 화두를 두고 두 길이 모두 차단되고 제3의 통로도 없는 이 난관을 꿰뚫어야 한다.

[설화]<sup>60)</sup>

죽을 먹었으면 ~ 있는가 : 반드시 조주의 의중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죽을 먹었으면 ~ 말인가 : 본 것이 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핵심과 상응하고자 한다면 ~ 무엇 하겠는가 : 등지거나[背] 물들거나[觸] 모두 틀리다고 보는 것이 조주의 본의라는 뜻이다.

조주는 지금 서당의 눈동자 ~ 머뭇거리고 있다 : 서당은 정위(正位)이고 눈동자는 비추어 보는 작용이다. 수좌는 동쪽에 자리잡고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다. 감원은 한 절의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소임이고, 가슴 부위는 중심에 속한다.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다.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장로의 정수리에 자리잡고 앉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불현듯 불자를 곳곳이 세웠다 : 이것이 바로 조주의 본래 자리임을 나타낸다.

각자 재빨리 ~ 놓치지 않도록 하라 : 등지거나[背] 물드는[觸] 두 가지를 모두 벗어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心聞：喫粥了至也未者，也須會取趙州意，始得。喫粥了至什麼者，認着則不是也。要得相應云云者，背觸俱非，趙州意也。卽今在西堂云云者，西堂則正位，眼睛則照破也。首座則位居東，耳根則領納音聲。監院則揔執一院之事，心則屬中。隨人所見，彼此出入也。遲遲疑疑，則又向長老頂門上坐地，焉知之哉。鶩豎起拂子者，此是趙州本位也。各請云云者，直得離却背觸，直下見得。

---

60) 배촉관(背觸關)을 주안점으로 삼아 해설한 <설화>이다.